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16-10

202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3년 기준)

202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일러두기

- 서울서베이는 도시 정책지표를 개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하였음
- 서울서베이는 2003년 처음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당해 서울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도시정책지표를 리뷰·보완하고, 2023년 기준의 지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및 설문조사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시계열을 반영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정책 전망을 제시함
-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데이터전략과 통계조사팀(02-2133-4368)으로 문의
- 참여 연구진

연구 총괄	
• 변미리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해란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원) • 최지원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원)	
분야별 연구	
인구와 가구	변미리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제와 노동	오은주 (경제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도시생활과 주거	남원석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변미리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건강과 보건	김성아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안전과 재난	원종석 (재난안전연구센터장)
환경	최유진 (지속가능연구실장)
교통	이신해 (스마트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화와 여가	변미리 (포용도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육과 돌봄	변금선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위원)
	최지은 (포용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가치와 의식	김상현 (포용도시연구실 연구위원)

- 자문위원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 그룹장)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임동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목차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2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2
1. 추진 배경과 목적	2
2. 추진 연혁	4
제2절 추진 방법	5
1.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축	5
2. 행정자료 조사	10
3. 가구조사	11
4. 시민조사	16
5. 외국인조사	19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22
1. 연구 추진 일정	22
2. 서울시 수요조사	28
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37
4. 『한눈에 보는 서울』 (한글판), 『Seoul at a Glance』 (영문판)	37
5. 심층분석 보고서	44

제2장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48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48

1. 도시정책지표체계의 진화 48
2. 도시정책지표의 역할과 지위 검토 48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49

1. 도시정책지표 검토 과정 49
2. 도시정책지표체계 변경 내역 51
3. 도시정책지표 개선 방향 57
4. 도시정책지표 데이터 현행화 58

제3장 2024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64

제1절 인구와 가구 64

1. 서울인구 64
2. 서울가구 75
3. 서울 거주 외국인 83

제2절 경제와 노동 91

1. 경제활력 91
2. 소득과 고용 100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116

1. 주거 116
2. 스마트도시 역량 130
3. 스마트도시 격차 134

제4절 건강과 보건	140
1. 건강한 삶	140
2. 지역보건	156
제5절 안전과 재난	164
1. 자연재난	164
2. 사회재난	172
3. 사회안전	184
제6절 환경	194
1. 대기와 녹지	194
2. 물순환과 자원순환	200
3. 에너지	206
제7절 교통	216
1. 교통인프라	216
2. 교통서비스	228
제8절 문화와 여가	238
1. 문화활동과 향유	238
2. 문화기반	244
3. 여가활동과 향유	251
제9절 교육과 돌봄	260
1. 교육 및 보육환경	260
2. 사회적 약자 보호	268
3. 성평등성	278

제10절 가치와 의식	288
1. 시민성	288
2. 포용성	295
3. 통합성	303
[부록1] 2024 도시정책지표 정의서	317
[부록2] 2024 도시정책지표 통계표	339
[부록3] 2023 서울서베이 조사표	517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제2절 추진 방법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제1장 서울서베이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연혁

1. 추진 배경과 목적

1)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정책지표체계, *서울서베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을까? 도시의 발전이 기술 발전에 근거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정점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성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더욱이 오늘날 도시의 성장은 경제성장만으로 설명되는 것보다는 더 큰 외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도시경쟁력의 주요 측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공간적, 정책적 환경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분석하는 지속적 도시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단위의 통계와 데이터 생산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시의 도시정책지표체계인 서울서베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사회 모니터링 체계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은 도시정책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통계 생산, 시계열적인 도시모니터링 체제의 유지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사업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의 주요 영역은 1) 도시정책지표체계 구축, 2) 지표의 자료구축을 위한 행정자료 조사, 3) 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4)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울의 사회변화 모습 제시, 5) 서울시 행정영역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이다. 서울서베이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연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2) 서울서베이 목표

2024 서울서베이는 도시와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상, 가치관 변화 등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된 정책지표를 시정지표로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관련 행정자료 및 현장 방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성과 조사 모듈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는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는 가구주 대상 조사(20,000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조사(35,881명) 이외에 시의성 있는 이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조사(5,000명)와 외국인조사(2,500명)를 병행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데이터 생산 및 자료 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1-1〉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2. 추진 연혁

〈표 1-1〉 도시정책지표 추진 연혁

내용	시기
서울서베이 기본 계획 수립	2003년 1월
도시정책지표 개발 및 조사설계	2003년 4~11월
제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및 사업체조사 실시	2003년 11월
제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4년 10월
제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5년 10월
제4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6년 10월
제5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외국인 1,000명 대상 조사	2007년 10월
제6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08년 10월
제7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외국인조사 표본 확대 (1,000명 → 2,500명)	2009년 10월
제8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0년 10월
제9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순환조사 (매년 조사 → 2년 주기 분야별 조사)	2011년 10월
제10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2년 10월
제1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3년 10월
제12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한눈에 보는 서울 (국문) 신규 발간	2014년 10월
제13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사업체조사 분리 (전국 사업체조사에 통합) · 한눈에 보는 서울 (영문) 신규 발간	2015년 10월
제14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6년 12월
제15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조사 시기 조정 (10월 → 9월)	2016년 10월
제16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7년 9월
제17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순환조사에서 가구 매년 조사로 변경 · 시민조사 신규 실시 · 도시정책지표조사 지표체계 개편 (10개 분야, 100개 지표로 조정)	2018년 9월
제18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병행	2019년 9월
제19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가구 방문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병행 · 서울서베이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발간 · 서울서베이 분석편과 통계편을 통합하여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간	2020년 12월
제20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종합보고서, 심층분석 보고서, 한눈에 보는 서울(국·영문) 발간	2021년 9월
제21회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종합보고서 발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로 명칭 변경) · 심층분석 보고서, 한눈에 보는 서울(국·영문) 발간	2022년 9월
	2022년 12월
	2023년 9월
	2023년 12월

제2절 추진 방법

1. 도시정책지표 체계 구축

1)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2024 도시정책지표는 총 10개 분야 27개 영역 122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23년 124개 지표에 비해 2개 지표가 축소되었다(삭제 8개, 신규 6개, 수정 14개). 총 122개 지표 중 36개 지표가 서울서베이 조사문항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86개 지표는 행정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서베이 조사문항이 활용된 36개 지표는 37개의 서울서베이 조사표 문항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문항 35개(가구주조사 4개, 가구원조사 29개(1개 중복)¹⁾, 시민조사 1개, 외국인조사 1개)와 2024년 서울서베이 신규 조사문항 2개(시민조사 2개)²⁾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202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A. 인구와 가구 (11)	서울인구 (5)	A1. 총인구	
		A2. 합계출산율	
		A3. 고령화지수	산출방법 및 출처 수정
		A4. 순이동률	
		A12. 초혼연령	[신규 지표]
	서울가구 (3)	A5. 1인가구 비율	
		A6. 가족다양성 분포	
		A11. 가족 친밀성*	
	서울 거주 외국인 (3)	A7. 외국인 총인구	출처 수정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출처 수정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1) 2024 도시정책지표 중 'J8. 사회적 고립도' 지표는 데이터 출처를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1인가구 고립감)와 '가구원조사'(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2개 문항을 활용함

2) 2024 도시정책지표 중 2개 지표(C21. AI 수용성,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는 2024년에 신규로 제안된 지표로, 2024년에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에서 신규로 설문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B. 경제와 노동 (17)	경제활력 (7)	B1. 지역내총생산	
		B15. 서비스업생산지수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B3. 외국인 투자유치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B17.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신규 지표]
	소득과 고용 (10)	B6. 가구 소득 증가율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B8. 고용률	
		B9. 실업률	
		B10. 고용형태*	
		B11. 사회보험 가입률	
		B12. 소비자물가지수	
		B13. 구직단념자	
		B16. 청년 니트 ³⁾ 비율	
		B18.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신규 지표]
C. 도시생활과 주거 (14)	주거 (8)	C20. 주택보급률	[신규 지표]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C1. 주거환경 만족도*	
		C12. 1인당 주거면적	
		C17. 평균 거주기간*	
	스마트도시 역량 (3)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C21. AI 수용성*	[신규 지표]
	스마트도시 격차 (3)	C9. 접근성 격차	
		C10. 활용성 격차	
		C19. SNS 이용 현황*	

3)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함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D. 건강과 보건 (12)	건강한 삶 (7)	D1. 기대수명	
		D2. 주관적 건강수준	
		D3. 우울감 경험률	
		D11. 자살률	
		D5. 비만율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산출방법 수정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⁴⁾	
	지역보건 (5)	D6. 감염병 환자 수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D9. 보건기관 이용률	
		D10. 치매유병률	
E. 안전과 재난 (10)	자연재난 (2)	E1. 풍수해·폭설 피해	
		E2. 폭염·한파 피해	
	사회재난 (5)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11. 야간보행 안전도*	
	사회안전 (3)	E8. 강력범죄 발생률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E12. 보이스피싱 피해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F2. 녹지환경 만족도*	
		F3. 오존 농도	
		F4. 환경소음도	
	물순환과 자원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F6. 불투수면적 비율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에너지 (3)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F10.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방법 수정
		F11. 기후 위기 심각성*	지표명 수정

4)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이란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을 의미함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G. 교통 (12)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G3. 도시철도 연장	
		G8. 자전거 도로율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G11. 보도 면적	
	교통 서비스 (6)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H. 문화와 여가 (11)	문화활동과 향유 (4)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H3. 문화환경 만족도*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	[신규 지표]
	문화기반 (4)	H5. 도서관 수	
		H12. 지역문화시설 수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여가활동과 향유 (3)	H13. 여가생활 만족도*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H15. 여행 건수*	
I. 교육과 돌봄 (11)	교육 및 보육환경 (3)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I2. 평생교육 참여율	
		I14.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수정
	사회적 약자 보호 (4)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개념 및 산출방법 변경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처 수정
		I12. 빈곤율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성평등성 (4)	I7. 성별 임금 격차	개념 수정
		I9. 성평등지수	
		I10. 가사노동 부담 정도*	개념 수정
		I8.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수정

분야	영역	지표	변경 내역
J. 가치와 의식 (13)	시민성 (4)	J11. 지역사회 참여율*	
		J2. 자원봉사 참여율*	
		J3. 시민자부심*	
		J13. 시민 준법의식*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J5. 사회적 신뢰*	
		J6. 다양성 수용도*	
		J12. 공정성*	
	통합성 (5)	J7. 지역사회 소속감*	
		J8. 사회적 고립도*	
		J10. 행복지수*	
		J14. 계층이동 가능성*	
		J15. 미래 불안 요인*	산출방법 및 출처 수정

2) 도시정책지표 자료 구축 방법

2024 도시정책지표 자료들은 20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실·국별 행정 및 통계자료와 외부기관 통계자료, 서울서베이 조사(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로 구분하여 수집된다.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단위는 시 또는 구 단위 기준이며, 자료출처 및 유형은 서울시 행정자료의 경우 자료 생성부서를, 시스템인 경우 데이터 입력부서를 기록하였다. 외부 통계자료의 경우 통계발행기관 및 부서(시스템 이름 등)를 표시하였으며, 서울서베이 조사의 경우 가구주조사,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외국인 조사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일부 지표의 경우 여러 개의 자료원이 존재(중복자료)하여 자료수집 후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거나 필요한 모든 자료원을 모두 표기하였다.

2024년 도시정책지표는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조사문항 자료(35개)⁵⁾와 서울시 내·외부기관 행정자료(119개)가 수집되어 활용되었다. 서울서베이 조사 분석 자료는 가구조사 33개, 시민조사 1개, 외국인조사 1개 자료이다(2024년 시민조사 신규

5) 2024 도시정책지표 122개 지표 중에서 36개 지표는 37개의 서울서베이 조사표 문항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문항 35개(1개 중복)와 2024년 서울서베이 조사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음. 'C21. AI 수용성'과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 지표는 2024년에 신규로 제안된 지표로, 2024년에 실시되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보고서에 데이터가 활용될 예정으로, 2024년 보고서 분석 활용 대상에서는 제외됨

문항 2개 제외). 행정자료 중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는 33개 부서에서 수집된 49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외부기관 자료는 24개 기관에서 수집된 70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지표체계 분야별 활용 자료원의 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지표체계 분야별 출처 및 자료원 수

분류	활용한 자료원 수					
	서울서베이			행정자료		합계
	가구조사	시민조사	외국인조사	서울시 내부기관	외부기관	
A. 인구와 가구	1	-	1	3	10	15
B. 경제와 노동	1	-	-	1	16	18
C. 도시생활과 주거	2	1	-	6	5	14
D. 건강과 보건	1	-	-	3	10	14
E. 안전과 재난	1	-	-	4	13	18
F. 환경	2	-	-	11	2	15
G. 교통	3	-	-	15	1	19
H. 문화와 여가	6	-	-	2	3	11
I. 교육과 돌봄	2	-	-	4	10	16
J. 가치와 의식	14	-	-	-	-	14
합계	33	1	1	49	70	154

주) 일부 지표의 경우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 자료원이 중복으로 존재하며, 행정자료 내에서도 동일한 기관 또는 시스템에서 여러 지표 데이터를 활용

2. 행정자료 조사

행정자료 조사는 서울시 실·국·별 행정자료 및 외부기관 통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매해 연도의 최종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024 도시정책지표 행정자료는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는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와 외부기관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되는데, 서울시 내부기관 자료는 서울시 내부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수집하거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외부기관 자료는 통계청 및 승인통계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 공사 등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수집하였다.

〈표 1-4〉 행정자료 외부기관 참고 현황

기관명(가나다순)		
KB부동산 데이터허브	기상청	한국고용정보원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육개발원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환경부
국도교통부	통계청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3. 가구조사

1) 조사 개요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는 서울시 거주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수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조사 기본 문항과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총 10개 분야별 지표에 관련된 사항이다. 조사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체 20,000가구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 35,881명을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pm 0.69\%p$ (가구)와 $\pm 0.52\%p$ (가구원)이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가구(가구원 365명)를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조사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였다. 조사면접원은 3시간에 걸쳐 조사 방법 및 조사 기본 원칙 교육과 조사표 작성요령을 교육받았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조사대상 가구의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 구축은 서울시 주민등록DB와 건축물대장DB를 연계한 구별, 주택유형별 세대주 주소 파악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구조사의 모집단은 세대주가 만 15세 이상이며, 서울시 25개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 세대원으로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모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시 모집단 전체 가구 수는 4,098,818가구이며, 전체 가구원

수(인구수)는 9,056,522명이고, 그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수는 8,187,536명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분과 주택유형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서, 표본 설계의 제1층은 25개 자치구, 제2층은 4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기타)으로 설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구별 통계의 생산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400가구의 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표본배분을 하였으며,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가구주 가중치는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25개 각 구 내에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기타), 입주유형(자가, 전세, 월세/기타),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가구주 학력(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구분에 따른 모집단 크기를 고려하여 RIM 가중치(Raking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주택유형별, 입주유형별, 가구원수별, 가구주학력별 모집단 크기의 주변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주변 비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원 가중치는 각 구의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가구원 통계를 계산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성별×연령별 모집단 크기의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비율이 같아지도록 하였다.

위의 절차를 거쳐서 얻은 가구와 가구원 가중치에 대하여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 크기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최종 가중치(표준화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표 1-5〉 구별, 주택유형별 표본 배분: 가구조사

(단위: 가구)

구분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전체	20,000	4,985	8,640	3,790	2,585
종로구	510	185	120	90	115
중구	475	110	210	55	100
용산구	630	205	230	115	80
성동구	700	195	375	55	75
광진구	795	330	170	195	100
동대문구	790	255	335	80	120
종량구	825	305	280	170	70
성북구	860	260	380	135	85
강북구	725	255	195	215	60
도봉구	720	145	355	160	60
노원구	905	90	710	65	40
은평구	890	190	300	310	90
서대문구	740	205	305	145	85
마포구	815	175	355	170	115
양천구	825	130	435	195	65
강서구	1,010	135	450	255	170
구로구	825	150	395	140	140
금천구	665	180	195	145	145
영등포구	830	190	370	80	190
동작구	835	280	315	160	80
관악구	1,020	430	220	170	200
서초구	785	115	450	130	90
강남구	925	145	545	120	115
송파구	1,030	135	515	265	115
강동구	870	190	430	170	80

〈표 1-6〉 가구 표본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사례수	보정 전 비율	보정 후 비율
전체		20,000	100.0	100.0
성별	남성	14,891	74.5	71.0
	여성	5,109	25.5	29.0
연령별	20대 이하	544	2.7	5.0
	30대	3,529	17.6	20.6
	40대	3,731	18.7	19.4
	50대	4,050	20.3	18.7
	60세 이상	8,146	40.7	36.4
학력별	중학교 이하	1,971	9.9	13.2
	고등학교	6,533	32.7	28.0
	전문대학/대학교	11,249	56.2	57.3
	대학원 이상	247	1.2	1.4
주택형태	단독주택	4,985	24.9	24.6
	아파트	8,640	43.2	43.6
	다세대주택	3,790	19.0	19.0
	연립/기타	2,585	12.9	12.8
입주형태	자기집	10,616	53.1	43.4
	전세	7,161	35.8	25.7
	월세/기타	2,223	11.1	30.9
가구원수	1인	5,557	27.8	38.2
	2인	7,653	38.3	26.3
	3인	4,937	24.7	18.9
	4인	1,853	9.3	16.6
소득	200만원 미만	1,987	9.9	12.0
	200~400만 원 미만	6,868	34.3	37.2
	400~600만 원 미만	6,266	31.3	27.5
	600~800만 원 미만	3,776	18.9	17.1
	800만 원 이상	1,103	5.5	6.3
권역	도심권	1,615	8.1	5.3
	동북권	6,320	31.6	30.6
	서북권	2,445	12.2	12.1
	서남권	6,010	30.1	31.9
	동남권	3,610	18.1	20.0
직업별	관리 전문직	2,219	11.1	11.7
	화이트칼라	8,327	41.6	43.4
	블루칼라	6,150	30.8	27.7
	기타	3,304	16.5	17.3

〈표 1-7〉 가구원 표본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정 전 비율	보정 후 비율
전체		35,881	100.0	100.0
성별	남성	17,104	47.7	48.1
	여성	18,777	52.3	51.9
연령별	10대	827	2.3	4.7
	20대	2,218	6.2	15.6
	30대	6,996	19.5	16.7
	40대	6,590	18.4	17.0
	50대	6,899	19.2	17.4
	60세 이상	12,351	34.4	28.6
학력별	중학교 이하	3,093	8.6	10.3
	고등학교	12,134	33.8	30.0
	전문대학/대학교	20,325	56.6	58.5
	대학원 이상	329	0.9	1.1
지역별	종로구	972	2.7	1.5
	중구	741	2.1	1.3
	용산구	909	2.5	2.3
	성동구	1,403	3.9	3.0
	광진구	1,367	3.8	3.7
	동대문구	1,537	4.3	3.7
	중랑구	1,496	4.2	4.2
	성북구	1,621	4.5	4.6
	강북구	1,347	3.8	3.2
	도봉구	959	2.7	3.4
	노원구	1,754	4.9	5.4
	은평구	1,652	4.6	5.0
	서대문구	1,399	3.9	3.3
	마포구	1,553	4.3	3.9
	양천구	1,652	4.6	4.5
	강서구	1,833	5.1	6.0
	구로구	1,599	4.5	4.2
	금천구	914	2.5	2.5
	영등포구	1,449	4.0	4.0
	동작구	1,516	4.2	4.1
	관악구	1,754	4.9	5.4
	서초구	1,408	3.9	4.0
	강남구	1,720	4.8	5.3
	송파구	1,735	4.8	6.8
	강동구	1,591	4.4	4.8
직업별	관리 전문직	2,710	7.6	7.4
	화이트칼라	13,394	37.3	37.5
	블루칼라	8,640	24.1	21.5
	기타	11,137	31.0	33.6

4. 시민조사

1) 조사 개요

시민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가구원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실시되었다. 인터넷 조사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가구 방문 조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시민조사 기본 문항과 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총 10개 분야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서울시 정책 평가 관련 문항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39\%$ 이다.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조사표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답자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여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시민조사의 모집단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로, 가구조사와 동일한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구별·주택유형별 모집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서, 표본 설계의 제1층은 25개 자치구, 제2층은 4개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기타)으로 설정하고 층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구별 통계의 생산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최소 100표본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곱근 비례배분에 의해 구별 세대수를 배분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시민조사 가중치는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각 구의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가구원 통계를 계산하기 위한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구 내에서 성별×연령별 모집단 크기의 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비율이 같아지도록 조정하였으며, 위의 절차를 거쳐서 얻은 시민조사 가중치에 대하여 가중치의 합계가 표본 크기와 같아지도록 조정하여 시민조사의 최종 가중치(표준화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표 1-8〉 구별, 주택유형별 표본 배분: 시민조사

(단위: 명)

구분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타
전체	5,000	1,240	2,150	940	670
종로구	130	45	30	25	30
중구	120	30	50	15	25
용산구	160	50	60	30	20
성동구	175	50	90	15	20
광진구	200	80	45	50	25
동대문구	200	65	85	20	30
중랑구	205	75	70	40	20
성북구	215	65	95	35	20
강북구	180	60	50	55	15
도봉구	180	35	90	40	15
노원구	225	25	175	15	10
은평구	220	45	75	75	25
서대문구	185	50	75	35	25
마포구	205	45	90	40	30
양천구	205	30	110	50	15
강서구	255	35	110	65	45
구로구	205	35	100	35	35
금천구	165	45	50	35	35
영등포구	210	50	90	20	50
동작구	210	70	80	40	20
관악구	255	110	55	40	50
서초구	195	30	110	30	25
강남구	230	35	135	30	30
송파구	255	35	125	65	30
강동구	215	45	105	40	25

〈표 1-9〉가중치 보정 후 시민조사 표본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정 전 비율	보정 후 비율
전체		5,000	100.0	100.0
성별	남성	2,184	43.7	48.1
	여성	2,816	56.3	51.9
연령별	20대 이하	524	10.5	21.0
	30대	974	19.5	16.6
	40대	1,109	22.2	16.8
	50대	1,080	21.6	17.4
	60세 이상	1,313	26.3	28.1
학력별	중학교 이하	208	4.2	4.3
	고등학교	1,187	23.7	22.9
	전문대학/대학교	3,074	61.5	63.1
	대학원 이상	531	10.6	9.7
주택형태별	단독주택	1,240	24.8	23.8
	아파트	2,150	43.0	43.5
	다세대주택	940	18.8	18.8
	연립/기타	670	13.4	13.9
가구원수별	1인	1,334	26.7	38.4
	2인	1,159	23.2	25.7
	3인	1,159	23.2	18.4
	4인 이상	1,348	27.0	17.5
혼인상태별	가혼	3,053	61.1	49.1
	미혼	1,475	29.5	39.7
	이혼/사별/기타	472	9.4	11.2
권역별	도심권	410	8.2	5.1
	동북권	1,580	31.6	31.1
	서북권	610	12.2	12.2
	서남권	1,505	30.1	30.8
	동남권	895	17.9	20.9
직업별	관리 전문직	739	14.8	14.2
	화이트칼라	1,635	32.7	33.1
	블루칼라	933	18.7	18.4
	기타	1,693	33.9	34.3

5. 외국인조사

1) 조사 개요

외국인조사는 조사 기간에 서울시에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서울에서의 삶의 질, 교통 및 환경, 서울의 물가 수준, 문화시설, 건강,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정보수준, 주거 및 직업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총 6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표본오차, 조사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2,500명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96\%$ 이다.

2) 표본추출 방법 및 표본 현황

외국인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서울시에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으로, 2023년 6월 말 기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명부(만 20세 미만 제외) 중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주신고 외국인 동포 명부'를 기반으로 체류자격, 국적별로 분류하였다.

외국인조사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외국인의 생활실태 파악이 주된 목적이므로,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른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이 가능한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모집단 분석 결과 주요 관심 변수인 체류자격 및 국적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 조사의 신뢰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류자격 및 국적별로 적정표본수가 추출될 수 있도록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상 부재 및 거주지 이탈(거주지 불명 포함), 면접 불가(시간, 언어소통 등)에 따른 무응답률이 높아, 조사 불능일 경우에는 추출 표본과 특성 그룹(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및 행정구역이 동일한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오차를 2% 이하로 확보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2,500명으로 결정하였으며, 표본추출을 위해 1단계 체류자격별 표본배분과 2단계 국적별, 체류기간별, 성별 표본배분을 고려하였다.

모수추정을 위해 외국인조사 가중치는 반복비례가중법을 통하여 사후가중값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별(8개)×성별, 국적별(10개)×성별, 체류기간별(2개)×성별, 연령그룹별(5개)×성별' 등의 주요 변수들로 구성된 4개의 2차원 결합분포(모집단 등록외국인 총 수 및 표본조사 단위의 가중값 합)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1-10〉 외국인 체류자격별, 국적별 모집단 및 제공급 배분 현황

(단위: 명)

구분	모집단 현황	제공급 배분 현황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E7)	유학 (D2, D4)	방문동거/ 거주/동반 (F1~F3)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6)	기타 (G-1)	계
한국계 중국인	171,919	241	1	10	33	289	125	35	10	744
중국	51,710	0	27	108	50	0	56	35	33	309
일본	8,269	0	13	31	14	16	27	24	19	144
타이완	7,119	0	8	20	19	5	46	11	7	116
베트남	20,375	0	13	73	29	0	11	28	22	176
아시아 기타	31,953	28	31	69	38	33	23	34	48	304
미국	26,336	0	32	21	16	122	17	20	14	242
영미권 기타	14,848	0	25	14	11	91	15	17	9	182
유럽권	11,127	6	23	40	16	37	16	20	20	178
기타	4,801	0	16	23	14	10	7	13	22	105
합계	348,457	275	189	409	240	603	343	237	204	2,500

〈표 1-11〉 가중치 보정 후 외국인조사 표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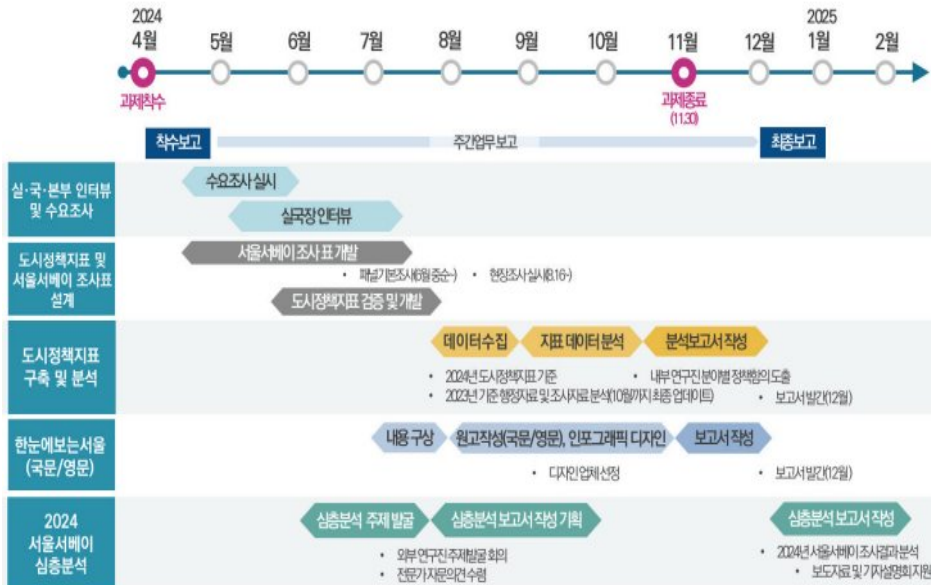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정 전 비율	보정 후 비율
전체		2,500	100.0	100.0
국적별	한국계 중국인	744	29.8	49.3
	중국	309	12.4	14.8
	일본	144	5.8	2.4
	타이완	116	4.6	2.0
	베트남	176	7.0	5.8
	아시아 기타	304	12.2	9.2
	미국	242	9.7	7.6
	영미권 기타	182	7.3	4.3
	유럽권	178	7.1	3.2
	기타	105	4.2	1.4
성별	남성	1,060	42.4	45.6
	여성	1,440	57.6	54.4
연령별	20대 이하	778	31.1	24.4
	30대	990	39.6	18.9
	40대	448	17.9	14.0
	50대 이상	284	11.4	42.7
체류기간별	12개월 미만	482	19.3	10.3
	24개월 미만	444	17.8	13.1
	36개월 미만	328	13.1	12.6
	48개월 미만	258	10.3	12.4
	48개월 이상	988	39.5	51.7
주거형태별	단독주택	224	9.0	9.4
	아파트	565	22.6	20.0
	다세대주택	577	23.1	27.9
	연립/빌라	536	21.4	23.5
	기타	598	23.9	19.2
주거점유형태별	자가	418	16.7	16.4
	전세	219	8.8	10.1
	보증부 월세	1,073	42.9	42.7
	월세	412	16.5	18.8
	무상 및 기타	378	15.1	12.1
체류자격별	방문취업	275	11.0	8.3
	전문인력	189	7.6	3.9
	유학	409	16.4	18.3
	방문동거/거주/동반	240	9.6	6.3
	재외동포	603	24.1	39.7
	영주자	343	13.7	12.9
	결혼이민자	237	9.5	6.1
	기타	204	8.2	4.6

제3절 추진 내용 및 성과

1. 연구 추진 일정

2024년 도시정책지표 설계 및 분석 용역 사업은 2024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시정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책지표 검토, 실·국·본부 업무 담당자 및 실·국장 인터뷰를 통한 수요조사, 도시정책지표 체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심층보고서’, ‘한눈에 보는 서울’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과업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 일정

1) 가구주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문항 대비 9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지출 비용, 약물장애질환 대상 가족 실태, 그리고 1인가구 생활 실태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표 1-12〉 2022-2023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가구주조사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신규 (9)	-	문4-3 반려동물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총 지출 비용
		문7 약물장애질병 대상 가족 유무
		문7-1 약물장애질병 대상 가족 현황
		문7-2 약물장애질병 대상 가족 돌봄 시 어려움
		문10 1인가구생활 주된 이유
		문11 1인가구 생활 환경
		문12 1인가구 유지 여부
		문12-1 1인가구 유지 시 예상되는 어려움
		문12-2 1인가구 미유지 시 향후 계획

2) 가구원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는 총 8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문항에 비해 27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1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7개 문항은 문구와 척도가 보완되었으며, 2개 문항이 시민조사 문항에서 이동(추가)하였으며, 1개 문항이 가구조사에서 시민조사로 이동(삭제)하였다.

가구원조사 신규 문항은 서울시의 인구기본계획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구와 가구 측면에서 가족형성과 가치관 변화 관련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안전과 교통 측면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보도 통행 및 야간보행 시 불편함과 안전도,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와 안전성에 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문화와 여가 측면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여가 시간 충분성과 일과 여가생활 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등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국내외 여행 실태,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가치와 의식 측면에서는 본인과 타인의 준법의식 정도, 외국인보다 자국민 우선 고용에 대한 생각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키오스크 이용 실태와 서비스 어려움, 기능별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위험 체감도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일부 문항들의 위위항목에 대한 보완 및 보기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시민조사에 있던 문항 중에서 자치구 단위로 비교 분석이 필요한 문항을 가구원조사로 이동하여 배치하였으며, 정책적 활용도가 낮아진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문항을 시민조사로 이동하였다.

〈표 1-13〉 2022-2023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가구원조사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신규 (27)	-	문1.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문2.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생각
		문3.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
		문4. 가족에 대한 생각
		문12.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문15. 보도 통행 시 겪은 불편함
		문16. 야간 보행 시 안전도
		문16-1. 야간 보행 시 불안한 이유
		문18-3. 자전거 이용 환경 만족도
		문18-4. 자전거 이용 환경 안전도
		문23-1.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문24. 여가시간 충분성
		문25.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정도
		문26. 국내 여행 경험 여부
		문26-1. 국내 여행 횟수
		문27. 해외 여행 경험 여부
		문27-1. 목적별 해외 여행 횟수
		문30. 체육활동 참여 빈도
		문31. 체육시설 이용 여부 및 필요도
		문37. 타인의 준법의식 정도
		문38. 본인의 준법의식 정도
		문39. 타인의 공공질서 준수 정도
		문52. 외국인보다 자국민 우선 고용에 대한 생각
		문57. 키오스크 이용 경험
		문57-1. 키오스크 이용 서비스 및 어려운 서비스
		문57-2. 키오스크 미이용 이유
		문58.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기능별 사용 가능 여부
삭제 (1)	문3. 도시위험 체감도	-
보완 (7)	문1. 환경 실천 노력	문5. 하위 문항 변경 ▶ 2) 재활용, 새활용, 친환경 제품 구매 노력 → 페트병, 종이팩 등 주민센터, 회수기에 배출 ▶ 3)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1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 4) 텀블러 휴대하기 → 제로웨이스트가게 이용이나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노력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문2.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과제	문6. 하위 문항 수정 ▶ 4)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 4) 오염/유해물질(온실가스, 폐수, 쓰레기) 배출시설 관리 및 단속 강화
	문3. 기후 위기 체감도	문7. 하위 문항 수정 ▶ 2) 폭우 및 폭설 →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
	문9. 보행환경 만족도	문14. 하위 문항 삭제 ▶ '3) 밤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보행 만족 정도' 삭제
	문13. 문화예술 관람 횟수 및 비용	문20. 하위 문항 신규 추가 ▶ 9) 문학행사 관람(북콘서트, 도서 전시회, 토크콘서트 등)
	문14. 여가활동 형태	문21. 하위 문항 보기 수정 ▶ ⑩ 독서 → ⑩ 독서 및 음악감상 ▶ ⑪ 휴식(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 ⑪ 그냥 쉰다(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문17-1. 스트레스 요인	문28-1. 보기 수정 ▶ ⑥ 실업 → ⑥ 실직 및 미취업
이동 (2)	-	[시민조사에서 이동] 문10. 5년 전 도시위험도 비교 [시민조사에서 이동] 문11. 5년 후 도시위험도 비교
이동 (-1)	문6. 물품 구매 경로	[시민조사]로 이동

주) 조사 문항 설계 순서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사 문항 번호에 차이가 있음

3) 시민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문항은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조사 문항에 비해 24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12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2개 문항의 보기가 수정되었으며, 가구원조사로 2개 문항이 이동(삭제)하고, 가구원 조사에서 1개 문항이 이동(추가)하였다.

가구원조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키오스크 이용 실태와 서비스 어려움, 기능별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기본계획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구와 가구 측면에서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과 향후 영향력, 고령자 청년·아동정책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등에 대한 문항을 새롭게 고안하였다. 서울의 매

력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의 매력에 대한 생각, 공원 방문 경험, 방문 목적, 자주 방문하는 공원 등에 대한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가치와 의식 측면에서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성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평가,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 정도 등에 대한 문항도 새롭게 고안되었다. 한편, 가구원 조사에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문항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에 시민조사에서 이루어졌던 결혼가치관 문항이 삭제되었다. 그 외 정책적 활용도가 낮아진 재택근무 관련 문항, 비대면 환경 적응도, 약자 구분의 적절성, 적절한 생계·의료·주거·교육 약자 기준, 돌봄수당정책 지지도, 청년세대 지원 여부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일부 문항의 보기가 수정되었다.

〈표 1-14〉 2022-2023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시민조사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신규 (24)	-	문4. 키오스크 이용 경험
		문4-1. 키오스크 이용 서비스 및 어려운 서비스
		문4-2. 키오스크 미이용 이유
		문5.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기능별 사용 가능 여부
		문9.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문12.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문13.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
		문14. 저출생 현상 심각도
		문15. 저출생 현상의 향후 삶에 대한 영향력
		문16. 고령화 현상 심각도
		문17. 고령화 현상의 향후 삶에 대한 영향력
		문18. 10년 뒤 저출생·고령화 문제 예상
		문19. 고령자, 청년, 아동정책 세금 부담 의향
		문20. 본인 삶의 선택과 결정 자율성
		문21.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
		문22.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
		문23. 서울의 랜드마크
		문24. 서울의 매력에 대한 생각
		문26.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생각
		문28. 공원 방문 경험
		문28-1. 공원 방문 목적
		문28-2. 공원 자주 방문 이유
		문28-3. 자주 방문하는 주변 공원
		문28-4. 6개월 이내 방문 경험 공원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삭제 (12)	문9. 결혼가치관	-
	문11. 재택근무 경험률	
	문11-1. 재택근무 시 업무 대체성	
	문12. 비대면 환경 적응도	
	문13. 약자 구분의 적절성	
	문13-1. 약자 구분의 비적절성 이유	
	문14-1. 적절한 생계 약자 기준	
	문14-2. 적절한 의료 약자 기준	
	문14-3. 적절한 주거 약자 기준	
	문14-4. 적절한 교육 약자 기준	
	문19. 돌봄수당정책 지지도	
	DQ4. 청년세대 지원 여부	
보완 (2)	문7. SNS 사용에 대한 견해	문7. 보기 '㉠ 이용하지 않음' 추가
	문8.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문8. 보기 '㉠ 이용하지 않음' 추가
이동 (1)	-	[가구원조사에서 이동] 문10. 물품 구매 경로
이동 (-2)	문2. 5년 전 도시위험도 비교	[가구원조사]로 이동
	문3. 5년 후 도시위험도 비교	

4) 외국인조사 문항 변경 사항

2023년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문항은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문항과 비교하여 2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2개 문항이 삭제되고, 1개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코로나 19 관련 문항 및 데이터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표 1-15〉 2022-2023년 조사항목 변경 내역: 외국인조사

구분	2022년 조사	2023년 조사
신규 (2)	-	문7. 서울의 랜드마크
		문23.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삭제 (2)	문13.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태 변화	-
	문23. 우리 사회 심각성(안전도)	
보완 (1)	문9. 지난 1년간 이용한 문화시설	문10. 보기 '㉠ 이용한 곳 없음' 추가

주) 조사 문항 설계 순서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사 문항 번호에 차이가 있음

2. 서울시 수요조사

1) 실·국 인터뷰 및 수요조사 개요

도시정책지표 이용 실태와 2024년 도시정책지표에 대한 신규 수요(Needs)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시 22개 실·국 및 25개 자치구,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실·국장들과의 면담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 주요정책과 연계한 신규지표 제안 및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를 요청하였다. 22개 실·국 중 8개 실·국이 대면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7개 실·국이 서면의견을 제출하였다. 수요조사 인터뷰 질문 내용으로는 도시정책지표 활용성 정도,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표 및 데이터 수요 파악, 서울시 조직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예측 필요한 추가 정책 수요 파악, 2024 시정운영 방향 및 정책 활용과 연계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등을 조사하였다.

〈표 1-16〉 실·국 인터뷰 및 수요조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서울 도시정책지표 체계인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	1) 귀 실·국(귀 기관)에서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① 활용한다면,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②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귀 실·국(귀 기관)에서 서울서베이 자료를 정책입안, 정책평가, 시민수요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추가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8기 주요정책과 연계한 지표 및 데이터 수요 파악	1) 귀 실·국(귀 기관) 관련 정책지표 중에서 민선8기 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되었으면 하는 지표나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시민참여 시정을 위해 서울시가 파악해야 할 시민들의 가치, 태도, 의식 등 귀 실·국과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귀 실·국(귀 기관)에서 생산되는 지표나 데이터를 서울서베이와 연동해서 분석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지요? 제안해 주십시오.
서울시 조직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예측 필요한 추가 정책 수요 파악	1) 서울시 조직개편 및 조직변화에 대비하여 귀 실·국(귀 기관)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독돌봄관, 글로벌도시정책관 등 신설)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1) 민선8기 서울시정과 2024년 시정 운영 방향 및 정책 활용과 연계하여 특별히 분석되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실·국 인터뷰 및 수요조사 결과

(1)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보완 사항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외에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관계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고안함으로써 정책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와 ‘약자동행지수’ 등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서울서베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행정수요가 실·국의 주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데이터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전체 연령 대상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한계를 지적하면서, 각 부서에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연령대별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통계나 시사점이 담겨진 통계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일부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비교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표 1-17〉 서울서베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

실·국	활용성 제고 보완 요청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리하는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통계나 시사점이 담겨진 통계 등 추가 필요
도시교통실	-인구학적 변화,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를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 데이터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
디자인정책관	-일부 특정지표에 대해 국가 수준의 비교 결과 제시하는 것도 좋을 듯 -그래프의 넘버링이 있으면 인용이나 활용에 효율적일 듯
미래청년기획단	-대부분의 통계가 전체 연령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하기 어려움. 일자리·고용·실업 분야, 우울감 등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연령대별 통계 제공 필요
복지기획관	-1인가구와 관련하여 연령, 성별, 주거수준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오는데, 경제적 수준, 사회적관계 파악 가능하면 정책활용도 높을 것으로 기대
서울관광재단	-2023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과 연계 필요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랜드마크 1위가 한강이지만, 그 한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여가와 업무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화된 측정 지표 또는 데이터 필요
시민건강국	-약자동행지수와 같이 서베이 결과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사이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서베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의 행정수요가 실·국의 주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2) 민선8기 시정 관련 도시정책지표 개선 의견

민선8기 시정 관련 도시정책지표 수요조사 결과 인구변화에 대비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청년이 직면한 사회문제, 고령인구에 대한 상세 분석,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서울시민의 디자인 역량 제고 등과 관련한 지표 개발 수요가 높았다.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초혼연령, 출생과 육아 지원 등에 대한 지표 개발이 요청되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고령인구가 주류인 사회에서 보다 상위 연령집단까지 포함하는 지표 보완 및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와 관련한 지표 보완이 요청되었다. 교통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통인프라 및 교통서비스 지표체계를 변화시켜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에 대한 지표, 미래지향적 지표에 대한 보완이 제안되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한 지표 보완 의견이 있었으며,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형태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영역에 창업 관련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각 실·국에서 제안된 의견들의 최종 검토 및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8〉 민선8기 시정 관련 도시정책지표 개선 의견

영역	지표 개선 제안	반영 결과
경제 정책실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서울시 및 자치구별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에 활용	-'18.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지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 추가
기획 조정실	-초혼연령 신규지표 -고령자에 대한 상세 분석 등	-'초혼연령' 신규 지표 추가 -'고령화지수'의 고령자 집단을 연령 세분화하여 지표 보완
기후환경 본부	-전기이륜차 보급대수, 전기차 충전소 구축 현황과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량 등 친환경 교통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지표 신설 필요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지표에서 전기차 보급대수,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데이터 제공하고 있음

영역	지표 개선 제안	반영 결과
도시 교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환경 및 자전거 정책’ 중심에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 정책’으로 시정패러다임 변화 -기존 서울서베이의 교통 관련 지표는 인프라 지표로 주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오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가 줄어들고 거주 형태가 달라지고, 도시계획과 공간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사후적 지표로는 정책수립 활용에 한계가 있음.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 사전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필요 -현재 교통인프라/교통서비스 지표의 변화 필요. 이용 편의성에 대한 지표, 미래지향적 지표 보완 필요 	-‘G12.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지표 삭제 및 〈가구조사〉 자전거 관련 문항 삭제
디자인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역량 높아짐. 선제적으로 경험하게끔 하는 시간과 공간 중요 -디자인 영역은 미래지향적인 지표로 조사, 영역 제안 등 필요 (예술 디자인 영역 개설 필요) -기존 지표는 선호가 반영되지 않는 객관적 지표 위주이며, 문화분야 지표도 소비영역만 다루고 있음. 이런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 선호도 파악하는 지표 등이 개발 의미 있음 	-‘디자인환경 만족도’ 신규 지표 추가
미래청년 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청년기획단의 올해 사업 방향은 청년 일자리, 청년 취약계층 부담 감경, 청년 참여 위주임. 일자리·고용·실업 관련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필요 -우울감, 외로움 등의 파악도 필요 -청년의 금융생활, 부채수준, 재테크 관심 분야 보완 -청년창업 관련 데이터 (창업시작 평균 나이, 폐업률, 유지기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부터 ‘청년 니트 비율’ 지표 추가 -〈가구주조사〉 ‘부채 유무 및 부채 이유’, 〈가구원조사〉 ‘외로움’ 조사결과를 통해 연령별 분석 가능
복지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회복지예산 비중, 기초보장수급자 등의 보편적 지표들에 대해 서울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도시 간 비교 가능하면 좋을 듯 -고령화와 관련하여 현재는 노인인구, 고령화지수 수준 정도의 지표임. 앞으로 고령인구 늘어나면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위 지표를 더욱 개발할 필요 있음. 고령인구가 주류인 사회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지표 보완이 필요 -연령별 분류를 좀 더 상위 연령집단까지 해서 파악할 필요 있음 -고독사, 독거노인 외에 최근 2~3년 내 주요 정책으로 돌봄과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60세 이전, 60~70세, 70대 이후까지 일자리와 소득 관련하여 지표 보완 및 지속적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시도 간 비교 데이터 추가 -‘고령화지수’의 고령자 집단을 연령 세분화하여 보고서에 제시
소방재난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별 안전교육 현황 제시 필요 -소방안전교육 정책 수립 근거, 안전교육 추진방향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 	

영역	지표 개선 제안	반영 결과
여성가족 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방향은 낯은 아이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임 -출생과 육아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지표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지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 추가 -유보통합에 따라 ‘1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를 ‘영유아 공공보육 이용률’로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수정
서울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7월 가칭 ‘서울의 달’이 여의도 한강을 배경으로 첫 사업을 시작함. 이에 대한 서울시민 및 해외관광객 반응 파악 필요 -2025년도 정책 입안, 관광 관련 서울 시민 수요 및 해외 관광객 대상 체류일수, 소비지출행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가치가 큼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별 평생학습 참여실태 파악 필요 -현재 국가 단위 데이터를 통해 25개 자치구 세부 현황 파악 불가능 -서울시 평생학습 참여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화된 지표 개발 필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생애설계 준비 지표 보완 -생애 이해(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생애영역 설계관리(생애역할 변화를 위한 노력, 일/재무/여가/건강 관리 실태) -중장년이 인생전환기에 요구하는 일자리 수요, 일의 가치관 변화 등 파악 필요 -고령화사회의 중장년 일자리 형태를 바꾸는 작업(모자이크 일자리 등)이 필요 -특히 노후준비나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단순 성과지표 대신, 소셜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모색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조사〉 고령자의 ‘웰다잉 인식 조사’ 신규 문항 추가 -〈시민조사〉 ‘노후 희망 동거 형태, 노후 희망 활동’ 문항 추가
서울 디자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부심보다는 만족도, 자긍심(시민소속감) 용어 사용 등이 더 적절해 보임. 정책수립에 앞서 선행 방향지표로 활용 가능 -디자인 분야의 시민 니즈는 추상적이며 미래지향적 니즈로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의 경험을 늘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조사〉 ‘선호하는 색상, 서울의 상징적인 색,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각’ 신규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형태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영역에 창업 관련 지표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신규 지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의 제도 변화, 환경, 인식 등 트렌드 반영하는 반려동물 지표 추가 제안 	

(3) 민선8기 시정 관련 조사표 개선 의견

민선8기 시정 관련 조사표 수요조사 결과 인구대응기본계획 반영 문항, 미래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서울시민들의 관광 및 여가 활동 유형, 서울의 매력, 기후 위기

로 인한 건강 영향, 퇴직 이후 고령인구의 삶과 사회적 관계, AI 기술 영향력 인식 등에 관한 조사 문항 개발 수요가 높았다. 인구대응기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보통신혼부부, 서울 평균 부모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문항 개발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정년 연장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요청되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 지향 방향인 첨단기술 기반과 사회적 배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교통(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요구되었으며, 서울시민들의 관광 및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문항 개발도 요청되었다. 또한 서울의 매력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적인 색,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색,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조사 문항 개발이 제안되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위협 인식도에 대한 조사도 요청되었다. 그리고 고령정책과 관련해서는 노후 희망 활동, 노후 희망 동거 형태 등에 관한 조사 문항 개발이 제안되었으며,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AI/로봇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 인식 등에 대한 조사 문항 개발 및 보완이 제안되었다. 각 실·국에서 제안된 의견들의 최종 검토 및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9〉 민선8기 시정 관련 조사 문항 제안

영역	2024년 조사 문항 개선 제안	반영 결과
기획 조정실	-인구대응기본계획에서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가치와 의식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반영하는 조사문항 개발 필요 -인구대응기본계획의 세부정책에 포함된 서울보통신혼부부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문항 개발 제안	-〈가구원조사〉 ‘현재 배우자 만남 경로,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등 신규 문항 추가
여성가족 정책실	-아이를 낳는 20~30대 여성의 생각과 가치관,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평범하게 키우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등 실상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스스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서울 평균 부모의 모습, 평균 신혼부부의 모습에 대한 제시 필요 -20~30대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 많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 세대별 갭이 매우 큰 것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출생과 육아에 중점	-〈가구원조사〉 ‘현재 배우자 만남 경로,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SNS 이용 현황과 영향력’ 신규 문항 추가
	-인구대응 첫 번째 전략이 정년연장임.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 있음	-〈가구원조사〉 ‘정년 연장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문항 추가
	-다문화 관련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임. 이에 따른 조사문항이나 지표 보완 검토 필요	

영역	2024년 조사 문항 개선 제안	반영 결과
도시 교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1년간 대중교통 유형별 이용 의향 등 문항 제안. 가구형태나 서울의 거주형태가 변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파악 필요 -현재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지향 방향이 첨단기술 기반과 사회적 배려임. 미래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반응 조사 필요 -미래지향적인 변화 추구 필요. 교통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 있음. 약자동행을 위한 상생도시 비전 안에 교통정책도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문에 반영 가능한지 검토 필요 -서울시 대중교통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교통비용임. 대중교통 통합환승시스템은 매우 선도적인 사례로 1년 동안 통합환승에 따른 시민개인의 편익비용이 얼마인지 등이 조사되면 좋겠음. 이에 따라 정책의 예산지원에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듯 -시민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시리즈에 대한 질문 기획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조사〉 ‘친환경 자동차 보유 유무, 친환경 자동차 구매 계획’ 신규 문항 추가
디자인 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여가, 일상, 시민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조사〉 ‘총 여행 경비’ 신규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성에 대한 관심도 높음. 정책의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 -서울시민들이 선호하는 색채에 대한 조사문항 제안.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느 공간에서 보면 좋은지, 어떠한 색을 선호하는지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색채의 변화도 파악 가능 -현재 공공미술 영역은 시민의 요구 반영이 아니라, 전문가와 관계자 선택 영역임. 시민의 선호도와 수요, 더 나아가 예술 취향 등이 궁금함. 공공미술품의 색채, 형태 선호도, 예술 관심사, 공공공간에서의 선호도 등 도시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 가능 -시정 방향이 문화도시 성격이 강한데 대표 예술가가 없음. 시민들이 선호하는 예술가는 누구인지 궁금함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 예술취향이나 선호 컬러 등 특집 기획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조사〉 ‘선호하는 색상, 서울의 상징적인 색,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각’ 신규 문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은 장소별, 자치구별로 선호도나 만족도, 여가활동 유형 등이 다름. 1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른 여가 방식 선호도 및 변화 등 궁금.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백업 필요 -자치구별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여가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대도시인 서울은 강변 근처 지역과 산 근처 지역의 요구가 다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 낮음. 이러한 수요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고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조사〉 ‘공공 문화 여가시설 이용 여부 및 프로그램 충분성’ 신규 문항 추가 -2023년부터 〈시민조사〉 ‘하천과 공원 방문 경험과 활동’ 등에 대해 조사

영역	2024년 조사 문항 개선 제안	반영 결과
미래청년 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다양한 취약 청년의 취업상태 현황을 파악 -(미래청년일자리)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 분야 / 청년과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인턴 기간 / 서울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급여, 전공 및 적성, 워라밸 등) / 청년의 공공일자리 인지도 -(대학 비진학청년) 비진학 청년 통계 데이터 전반 (ex. 최종학력 고졸 이하 청년의 대학 비진학 사유, 필요한 공공지원, 정보 수집 경로) -(청년 진로 일반) 삶의 만족도, 자기 이해도, 자기효능감 -청년의 임차 및 이사비용, 교통수단 및 교통비 등 -자자체에서 해야 하는 청년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분야(일자리, 생활지원, 공간 등), 특정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정책참여 경험 등 	
시민 건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료 관련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위협 ▶ 공공의료의 주된 목적 ▶ 서울시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시설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협 인식도 ▶ 기후위기에 대응 관련 정책 관심 분야(정보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 	-〈가구원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협 인식도' 신규 문항 추가
경제 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 경험과 활용 이유, 활용하지 않는 이유 등 	
소방재난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 경험과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 -사고발생시 위기대처능력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참여 목적이나 유형, 영역별 참여도에 대한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 평생교육정책 도입방향에 대한 근거데이터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참여실태: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가 미치는 삶의 질 향상 정도, 평생학습 불참요인, 평생학습 성과,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비형식교육 평생학습 참여목적, 비형식교육 연평균 참여 시간, 비형식교육 연평균 자기부담 학습비 ▶ 평생학습 필요도 ▶ 평생학습 7개 영역별(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참여 현황 및 참여 의사 ▶ 중장년 경력 전환 요구도 및 직업역량 향상교육 필요도 ▶ 서울시민의 자기효능감 인식 정도 	-〈시민조사〉 '노후 희망 활동' 문항 추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누구랑 같이 살 것인지, 가구구성에 대한 문항 제안 -퇴직 후 삶과 관계 중요.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과도 연관. 가구구성 예측이 되면 정책적 접근방법 도출 가능 -고령인구의 비정규직(파트타임) 및 고용보험 실태 등 노동환경 파악 필요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 이슈 중요, 관련 문항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조사〉 '노후 희망 동거 형태, 노후 희망 활동' 문항 추가 -〈시민조사〉 '디지털 시민성' 신규 문항 추가

영역	2024년 조사 문항 개선 제안	반영 결과
서울 디자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간판, 조경 등 시민들의 도시 디자인 전반에 대한 눈높이 파악, 인식 조사 필요 -시민의 디자인소비역량에 대한 현재 수준 진단 필요 -시민 디자인 직접 소비뿐만 아니라 취향 인식 사업 등을 통해 저변 확대가 중요. 디자인 워크 사업, 디자인 페어 등 통해 시민의 디자인 인식과 경험 제고 필요 -도시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등 시민체감 분야 전반에 펼쳐진 정책이 필요. 도시매력은 각각 영역의 여러 요소들이 연계해야 이루어짐 	-〈시민조사〉 ‘선호하는 색상, 서울의 상징적인 색, 서울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생각’ 신규 문항 추가
서울 디지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성형 AI 활용 현황, AI 영향력 인식(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 	-〈시민조사〉 ‘AI/로봇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 신규 문항 추가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인식수준: 서울시 및 자치구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피해 인식수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심각성 인식,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위기노출의 가능성 정도 인식 -관련 교육 경험 여부 	

(4)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민선8기 시정 관련 주요 심층분석 주제로는 기후산업구조의 현재와 미래 분석 및 예측, 인구학적 변화와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흐름 분석을 위해 정량적 데이터인 빅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인 서울서베이와의 결합을 통한 대중교통 흐름 현상과 원인 분석, 청년 인구의 시계열적 접근을 통한 향후 서울의 전망, 예비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 마련,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자치구별 서울시민들의 희망 여가활동 유형 및 장소, 필요 자원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주제가 제안되었다.

〈표 1-20〉 서울시 주요 현안 관련 심층분석 주제 제안

실·국	심층분석 주제 제안
기후환경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산업(기후 테크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현재 기후산업구조와 미래 기후산업 구조 등을 분석 및 예측 -기후 테크 산업의 현황 및 미래 산업 등 분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량(전기차·수소차 등) 변화, CCUS(탄소포집 기술) 발전 등
도시교통과	-빅데이터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와 서베이를 같은 정성적 데이터의 결합 통해 대중교통 흐름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는 시도 필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인구의 시계열적 접근을 통해 5년, 10년 뒤의 서울 전망
복지기획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점차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 현재 중년층이 고령자로 올라가면 소득수준 올라감에 따라, 향후 저소득 계층이 아닌 일반 계층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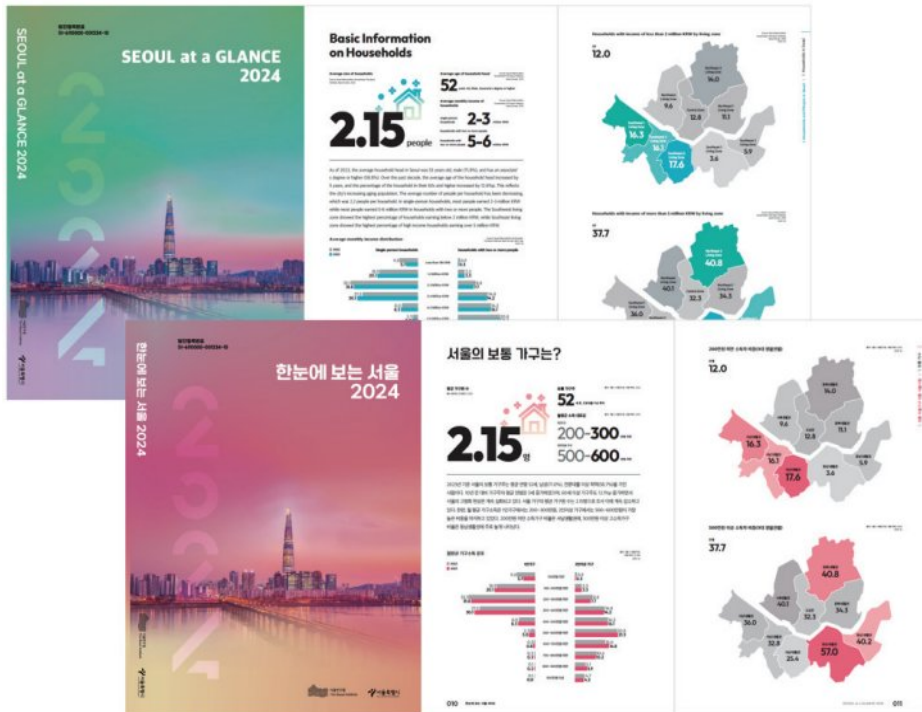
실·국	심층분석 주제 제안
서울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향후 미래 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갖는 일자리창출 등 서울 서베이와 연동해서 분석 필요 -희망하는 여가활동과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야외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각 구단위별로 세분화해서 나들이와 여행, 운동에 적합한 장소 또는 필요로 하는 자원 등에 대한 조사 필요

3.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2024 도시정책지표는 총 10개 분야(인구와 가구, 경제와 노동, 도시생활과 주거, 건강과 보건, 안전과 재난, 환경,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과 돌봄, 가치와 의식) 27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와 영역에는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포함되어 총 122개의 지표가 서울 도시정책지표체계를 구성한다. 2024 도시정책지표는 민선8기 시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10개 분야 124개 도시정책지표를 검증 및 보완하고, 시책 방향 및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 시정운영방향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를 검토 및 개선하고, 신규 지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산출 기준 및 대표성을 검증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검토 과정과 내용은 본 보고서 2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4. 『한눈에 보는 서울』 (한글판), 『Seoul at a Glance』 (영문판)

2023년 9~10월에 실시된 서울서베이 조사 자료 및 행정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분야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를 발간하였다. ‘한눈에 보는 서울’ 한글판과 영문판은 시민들이 서울의 현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소통의 채널로 활용 중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더욱이 ‘한눈에 보는 서울’의 영문판인 ‘Seoul at a Glance’의 발간은 서울의 자매도시, 서울시 방문 외국 도시 관계자들에게 서울시의 정책 현황과 사회현황을 알리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현황에 관한 영문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해외의 여러 도시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눈에 보는 서울’은 주제별 지도와 차트 등을 사용한 시각화와 주제에 따른 현황 및 사회경제적 요인 설명 등을 함께 포함하는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구성하여 가독성과 대중성을 높였다.



〈그림 1-3〉 2024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과 ‘Seoul at a Glance’(영문판)는 다음과 같이 총 4장으로 구성되며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1-21〉 2024 ‘한눈에 보는 서울’(한글판) 목차

목차	
I. 보통 서울가구, 보통 서울사람	006
1. 보통 가구	008
서울의 보통 가구는?	010
서울의 가구 규모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012
서울의 1인가구는?	014
서울의 여성 1인가구는?	016
서울의 고령자(65세 이상) 1인가구는?	018
반려동물은 얼마나 키우나?	020

목차	
2. 보통 사람	022
서울의 보통사람은?	024
서울 청년은 어떻게 사는가?	026
서울 청년의 일은?	028
서울 청년의 니트 비율은?	030
서울의 중장년 가구주의 거주 및 학력과 직업은?	032
서울의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와 노후는?	034
서울 고령사회의 모습은?	036
서울의 고령자는 행복한가?	038
서울 여성의 일은?	040
서울의 여성은 안전한가?	042
서울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은?	044
서울의 외국인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046
서울의 외국인은 행복한가?	048
 II.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050
1. 주거/경제	052
서울시민의 주거는?	054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은?	056
서울시민의 경제환경 만족도는?	058
2. 교육/문화/복지	060
서울의 보육환경은?	062
서울시민의 교육환경은?	064
서울의 문화관광환경은?	066
서울의 복지환경은?	068
서울의 도시매력은?	070
3. 교통/환경	072
서울의 교통환경은?	074
서울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는?	076
서울의 에너지 환경은?	078
서울의 공기와 물은?	080
서울의 생태환경과 쓰레기는?	082
서울의 기후변화 체감도는?	084

목차	
4. 디지털	086
서울의 디지털 환경은?	088
서울시민의 디지털기기 이용역량은?	090
5. 재난/안전	092
서울의 화재안전은?	094
서울의 교통안전은?	096
서울의 보행안전은?	098
 III. 서울시민의 삶의 질	 100
서울시민의 건강환경은?	102
서울시민의 건강상태는?	104
서울시민은 건강에 대해 만족할까?	106
서울시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까?	108
서울시민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	110
서울시민은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할까?	112
서울시민이 느끼는 외로움은?	114
 IV. 서울시민의 가치	 116
1. 평등과 차별	118
서울시민의 우리사회 평등성 인식은?	120
서울시민의 사회적 차별 인식은?	122
2. 공동체	124
서울시민의 사회적 포용성은?	126
서울시민의 내 아이와 장애와 어울림 인식은?	128
서울시민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은?	130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32

목차

3. 사회자본과 가치	134
서울시민의 신뢰는?	136
서울시민의 고령자 사회복지 확대 부담 의향은?	138
서울시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에 대한 의향은?	140
서울시민의 사회참여는?	142
서울시민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144
서울시민의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은?	146
 서울서베이란?	 148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체계	15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151
서울서베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	152
서울서베이 활용	153

〈표 1-22〉 ‘Seoul at a Glance’(영문판) 목차

CONTENTS	
I. Households and people in Seoul	006
1. Households in Seoul	008
Basic Information on Households	010
Changes in Household Size	012
Single-person Households	014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016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018
Companion Animal Ownership	020
2. People in Seoul	022
People in Seoul: Basic Information	024
Young Adults: Living Arrangements	026
Young Adults: Occupation	028
Young Adults: NEET Proportion	030
Middle-aged Adults: Living Arrangements, Education and Occupation	032
Middle-aged Adults: Household Debt and Retirement Preparation	034
The Elderly: The Aging Society in Seoul	036
The Elderly: Happiness Score	038
The Women: Economic Participation	040
The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042
People with Disabilities: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044
The Foreigners: Living Arrangements	046
The Foreigners: Quality of Life	048
II. Everyday Life in Seoul	050
1. House & Economy	052
Residential Conditions	054
Dilapidated Dwellings of 30 Years and Older	056
Satisfaction with Economic Conditions	058

CONTENTS

2. Education & Culture & Welfare	060
Childcare	062
Education	064
Culture and Tourism	066
Welfare and Social Security	068
Appeal of Seoul as a City	070
3. Traffic & Environment	072
Transportation	074
Transportation Inclusivity for the Minorities	076
Energy Consumption	078
Air and Water Quality	080
Ecosystem and Waste Management	082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084
4. Digital	086
Digital Communications	088
Digital Capability	090
5. Exposure to Risks and Hazards	092
Fire Accidents	094
Traffic Accidents	096
Pedestrian Safety	098
III. Quality of Life in Seoul	100
Overall Health Conditions I	102
Overall Health Conditions II	104
Satisfaction with Health	106
Exercise Frequency	108
Overall Happiness Score	110
Leisure Satisfaction	112
Loneliness Score	114

CONTENTS	
IV. Seoul Citizens' Civic Consciousness and Values	116
1. Fairness and Equality	118
Perception of Social Mobility	120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122
2. Community Values	124
Social Inclusion	126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128
Generational Gaps	130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132
3. Social Values	134
Trust in Family, Neighbors, and Public Institutions	136
Commitment to Caring for the Elderly	138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140
Social Participation	142
Attitude Towards Marriage	144
Work and Leisure Values	146
Seoul Survey	148
A city index system that comprehensively monitors the changes in Seoul	150
Seoul Survey Index System	151
Seoul Survey Methodology	152
Applications of Seoul Survey	153

5. 심층분석 보고서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정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4 심층분석 주제는 '1) 신혼부부 프로파일링, 2) 新시민세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신혼부부 프로파일링'에서는 인구기본계획정책 중 저출생 대응 관련 서울 보통신혼부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서울보통신혼부부의 평균 모습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대도시의 부부가구와의 비교는 물론, 서울이 갖고 있는 특성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정책발굴에 활용하고자 논의하였다.

두 번째, ‘新시민세대’에서는 인구기본계획정책 대응 고령사회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고령세대를 고령전기세대와 고령후기세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고령전기세대는 65세~74세로 ‘액티브에이징’이라 불리는 고령세대이다. 반면에 고령후기세대는 75세 이상으로 지역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위한 수요발굴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가구의 변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반려동물가구 수, 반려동물가구의 가족가치, 반려동물가구의 밀집성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살펴보았다.

제2장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제2장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

제1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필요성

1. 도시정책지표체계의 진화

도시정책지표체계는 서울시정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200여 개의 지표로 출발하여 지난 21년(2003~2023년) 동안 서울의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변화와 서울시민의 가치 및 의식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기준의 역할을 담당했다. 연간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특정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분야가 새로 생겨났는데,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서울시민 온라인 의견조사〉, 〈서울시 청년패널조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 주택 또는 특정 세대와 집단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조사 역시 여러 자치구에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등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확장되고 있다.

2. 도시정책지표의 역할과 지위 검토

도시정책지표체계는 서울의 사회변화와 시민들의 삶을 모니터링하는 도시사회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정 영역의 조사들이 세분화되면서 서울 도시정책지표의 역할은 서울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환경과 시민 전체 삶의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모니터링 체계로서 서울서베이는 사회변화와 민선 시정의 변화 등 서울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오늘날 세계 대도시의 도시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세계도시정책 지표들은 개략적으로 100여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시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변화와 정책성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뉴욕시 도시정책지표체계, 도쿄 도시지표체계 등). 이러한 흐름에서 도시정책지표 체계로서 서울서베이는 서울시 담당 부서인 데이터전략과 통계조사팀에서 지속성을 갖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표 전체를 재검토하여 2023년에 124개 지표체계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122개 지표체계로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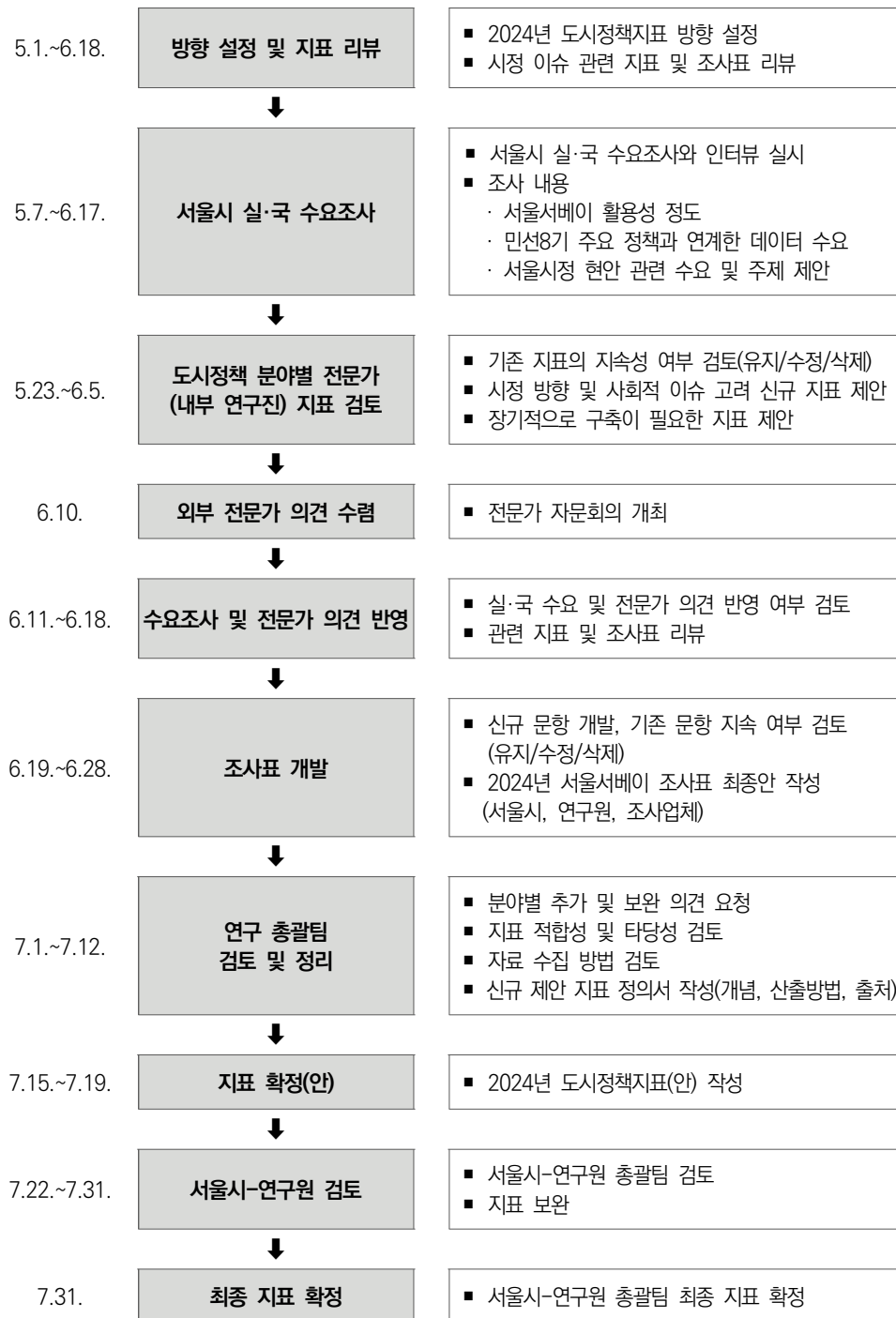
제2절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1. 도시정책지표 검토 과정

민선8기 시정방향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도시정책지표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정의 시민체감도를 강화하고 시정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지표를 보완 개발함으로써 도시정책지표의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도시정책지표 연구진은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 검토를 위해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 내부 분야별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그리고 서울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4 도시정책지표 체계가 민선8기 시정운영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지표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내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지표를 검토 및 보완하고, 신규 지표 및 기존 지표에 대한 산출기준 및 대표성을 검증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 의견에 대한 지표 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야별 주요 이슈와 시정의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실·국 수요조사와 내부 연구진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아 최종 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10개 분야, 27개 영역, 122개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향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도시정책지표 검토를 위해 서울시와의 검토 회의 및 서울연구원 연구 총괄팀 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내부 연구진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검토 과정을 거쳤다. 지표체계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2024년 도시정책지표 검토 과정

2. 도시정책지표체계 변경 내역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의 10개 분야 27개 영역 124개 지표에서 2024년에는 10개 분야 27개 영역은 유지하되, 122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지표별 변경 사항으로는 6개 지표가 신규로 제안되었으며, 14개 지표가 수정(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등), 8개 지표가 삭제되었다. 2024년 주요 이슈와 민선8기 시정 요구에 따라 인구기본계획 대응, 디지털 시민성, 공간매력과 시민매력 역량 등과 관련하여 총 6개 지표(초혼연령,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주택보급률, AI 수용성, 디자인환경 만족도)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반영 및 지표 이해의 수월함을 위해 14개 지표에 대한 지표명, 지표 개념, 산출방법, 출처 등이 수정·보완되었으며, 지표로서의 가치 및 타 지표와의 유사성 검토를 통해 8개 지표가 삭제되었다.

2022년 : 27개 영역, 110개 지표			2023년 : 27개 영역, 124개 지표			2024년 : 27개 영역, 122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분야	영역	지표수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9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10	인구와 가구	• 서울인구 • 서울가구 • 서울거주 외국인	11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2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5	경제와 노동	• 경제활력 • 소득과 고용	17
도시생태와 주거	• 주거와 생활 • 스마트도시 역량 • 스마트도시 격차	13	도시생태와 주거	• 주거 • 스마트도시 역량 • 스마트도시 격차	15	도시생태와 주거	• 주거 • 스마트도시 역량 • 스마트도시 격차	14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1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2	건강과 보건	• 건강한 삶 • 지역보건	12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9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안전과 재난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사회안전	10
환경	• 대기과 녹지 • 물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환경	• 대기과 녹지 • 물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환경	• 대기과 녹지 • 물순환과 자원순환 • 에너지	11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1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3	교통	• 교통 인프라 • 교통 서비스	12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문화시장	11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여가활동과 향유	12	문화와 여가	• 문화활동과 향유 • 문화기반 • 여가활동과 향유	11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동성	12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동성	13	교육과 돌봄	• 교육 및 보육 환경 • 사회적 약자보호 • 생명동성	11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가족과 공동체	11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통합성	13	가치와 의식	• 시민성 • 포용성 • 통합성	13

〈그림 2-2〉 2024년 도시정책지표 변화

〈표 2-1〉 2023-2024 도시정책지표 변경 내역

2023 도시정책지표		변경 내용				2024 도시정책지표
분야	총 지표수	유지	수정	신규	삭제	
A. 인구와 가구	10	7	3	1		11
B. 경제와 노동	15	15		2		17
C. 도시생활과 주거	15	11	1	2	(-3)	14
D. 건강과 보건	12	11	1			12
E. 안전과 재난	10	10				10
F. 환경	11	9	2			11
G. 교통	13	12			(-1)	12
H. 문화와 여가	12	10		1	(-2)	11
I. 교육과 돌봄	13	5	6		(-2)	11
J. 가치와 의식	13	12	1			13
전체	124	102	14	6	(-8)	122

2024 도시정책지표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지표의 제안 이유와 기존 지표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2-2〉 2023-2024년 도시정책지표 검토 내용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A. 인구와 가구 (10)	서울 인구 (4)	A1. 총인구		
		A2. 합계출산율		
		A3. 고령화지수	수정	고령사회 다양성 파악 위해 산출방법 추가, 출처 변경
		A4. 순이동률		
		A12. 초혼연령	신규	초저출생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 가구 (3)	A5. 1인가구 비율		
		A6. 가족다양성 분포		
		A11. 가족진밀성*		
	서울 거주 외국인 (3)	A7. 외국인 총인구	수정	출처 수정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수정	출처 수정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B. 경제와 노동 (15)	경제 활력 (6)	B1. 지역내총생산		
		B15. 서비스업생산지수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B3. 외국인 투자유치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B17.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신규	서울의 기업혁신성을 측정하는 지표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소득과 고용 (9)	B6. 가구 소득 증가율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B8. 고용률		
		B9. 실업률		
		B10. 고용형태*		
		B11. 사회보험 가입률		
		B12. 소비자물가지수		
		B13. 구직단념자		
		B16. 청년 니트 비율		
		B18.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신규	서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증가에 따른 신규 지표
C. 도시 생활과 주거 (15)	주거 (10)	C20. 주택보급률	신규	주택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 지표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C3. 주택구입부담지수	삭제	“C3. 주택구입부담지수”, “C15.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C16.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세 지표가 서로 유사한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C15. 소득대비 주택가격(PIR)”만 유지
		C16.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삭제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수정	출처 수정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C1. 주거환경 만족도*		
		C12. 1인당 주거면적		
		C17. 평균 거주기간*		
		C18.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삭제	동 지표로는 목표치나 현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로, “주택보급률”로 대체
	스마트 도시 역량 (2)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C21. AI 수용성*	신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전환사회가 되면서 시민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
	스마트 도시 격차 (3)	C9. 접근성 격차		
		C10. 활용성 격차		
		C19. SNS 이용 현황*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D. 건강과 보건 (12)	건강한 삶 (7)	D1. 기대수명		
		D2. 주관적 건강수준		
		D3. 우울감 경험률		
		D11. 자살률		
		D5. 비만율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수정	산출방법 변경 - '생활권 내 체육시설 인지 여부' 삭제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지역 보건 (5)	D6. 감염병 환자 수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D9. 보건기관 이용률		
		D10. 치매유병률		
E. 안전과 재난 (10)	자연 재난 (2)	E1. 풍수해·폭설 피해		
		E2. 폭염·한파 피해		
	사회 재난 (5)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E11. 야간보행 안전도*		
	사회 안전 (3)	E8. 강력범죄 발생률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E12. 보이스피싱 피해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F2. 녹지환경 만족도*		
		F3. 오존 농도		
		F4. 환경소음도		
	물 순환과 자원 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좋은물 달성률		
		F6. 불투수면적 비율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에너지 (3)	F9. 재생에너지 비율		
		F10. 온실가스 배출량	수정	산출방법 변경 -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F11.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정	지표명 '기후 위기 심각성'으로 변경
G. 교통 (13)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G2. 자생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G3. 도시철도 연장		
		G8. 자전거 도로율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G11. 보도 면적		
	교통 서비스 (7)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G12.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삭제	시정정책환경 변화('보행환경 및 자전거 정책' 중심에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정책')에 따른 활용성 약화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H. 문화와 여가 (12)	문화 활동과 향유 (5)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H3. 문화환경 만족도*		
		H4. 종합 독서량	삭제	문화예술영역의 고전적 지표. 오늘날 다매체로의 변화에서 독서량이 갖는 지표가치가 낮아짐
		H11.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삭제	문화예술 소비에 포함될 수 있는 지표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	신규	서울의 매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
	문화 기반 (4)	H5. 도서관 수		
		H12. 지역문화시설 수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여가 활동과 향유 (3)	H13. 여가생활 만족도*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H15. 여행 건수*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I. 교육과 돌봄 (13)	교육 및 보육 환경 (4)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I2. 평생교육 참여율		
		I3. 공공보육시설 비율	삭제	어린이집마다 규모(정원)의 편차가 심하고 정원 충족률(정원 대비 정원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수 대비 공공어린이집 수의 비율'보다 수정지표인 '영유아인구 수 대비 공공보육 공공 유아교육·보육 이용률'을 통해 보육공공성 파악 필요
		I14.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수정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수정 - 지표명: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로 수정 - 개념: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개념 수정 - 산출방법 추가: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추진 중 - 출처 변경: 표본조사인 서울시 복지실태 조사가 아닌 행정통계자료로 변경
	사회적 약자 보호 (5)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수정	개념 및 산출방법 수정 - 세부 영역별(저소득, 어르신, 여성보육, 주거, 장애인, 보건, 교육) 사회복지 예산 변화 추이를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정의서에 해당 내용 추가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정	출처 수정 - 시도 간 비교를 위해 통계청 데이터 사용
		I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삭제	지표로서의 대표성 부족 사유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삭제 요청
		I12. 빈곤율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성 평등성 (4)	I7. 성별 임금 격차	수정	개념 수정 : 성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을 개념에서 구체화
		I9. 성평등지수		
		I10. 가사노동 부담 정도*	수정	개념 수정: 성차별성보다 부부역할의 평등성 파악을 위한 지표의 역할을 명시
		I8.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수정	지표명과 개념 수정, 산출방법 및 출처 추가 - 지표명: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률'로 수정 - 개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만은 아니어서 지표 개념 수정 - 산출방법: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별 이용 실태 추가

* 서울서베이 조사 문항

2023 도시정책지표			2024년 검토 내용	
분야	영역	지표	제안	제안 및 변경 이유
J. 가치와 의식 (13)	시민성 (4)	J11. 지역사회 참여율*		
		J2. 자원봉사 참여율*		
		J3. 시민자부심*		
		J13. 시민 준법의식*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J5. 사회적 신뢰*		
		J6. 다양성 수용도*		
		J12. 공정성*		
	통합성 (5)	J7. 지역사회 소속감*		
		J8. 사회적 고립도*		
		J10. 행복지수*		
		J14. 계층이동 가능성*		
		J15. 미래 불안 요인*	수정	산출방법 및 출처 수정 - '우리 사회 안전 위협 불안 요소(1순위~3순위까지)'로 산출방법 변경 - 시민조사에서 가구원조사로 출처 변경

3. 도시정책지표 개선 방향

1) 민선8기 시정 변화를 반영한 2024 도시정책지표

2024년 도시정책지표에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인구기본계획 대응, 디지털 시민성, 공간매력과 시민매력 역량 등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었다. 인구기본계획대응과 관련한 지표로는 초저출생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초혼연령'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고령사회의 다양성 파악을 위해서는 고령집단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령화지수' 지표를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지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하여서는 'AI 수용성' 지표를 추가하여 서울시민들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정도와 수용 가능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의 매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디자인환경 만족도' 지표를 새롭게 배치하였다.

2)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완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보완도 이루어졌다.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서울의 기업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지표가 추가로 제안되었다. 주거 부문에서는 주택의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 지표로 ‘주택보급률’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소득대비 주택가격(PIR)’과 유사한 지표인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를 삭제하였다. 교통서비스 부문에서는 시정정책환경이 보행환경 및 자전거 정책 중심에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환경 만족도’ 지표를 삭제하였다. 문화활동과 향유 부문에서는 지표로서의 가치가 낮아진 ‘종합 독서량’과 ‘OTT 서비스 유료 이용률’ 지표를 삭제하였다. 교육 및 보육환경 부문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 지표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명과 개념, 그리고 산출방법과 출처를 수정하고, ‘공공보육시설 비율’을 삭제하였다. 성평등성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지표 고유의 성차별성과 성평등성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지표를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로 수정하고,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를 정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을 산출방법에 추가하였다.

4. 도시정책지표 데이터 현행화

2024 도시정책지표에 포함된 총 122개 지표 가운데 109개 지표는 2023년 행정자료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지표는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거나 지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2022년 데이터가 반영되었다. 그리고 2024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신규 문항에 해당하는 2개 지표(C21. AI 수용성,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는 2025년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가 반영될 예정이다.

〈표 2-3〉 2024 도시정책지표 업데이트 현황(2024년 10월 31일 기준)

■ 업데이트 미완료 11개 지표, 2024년 서울세베이 신규 조사 문항 2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A. 인구와 가구	서울인구	A1. 총인구	1975~2023	
		A2. 합계출산율	2014~2023	
		A3. 고령화지수	2014~2023	
		A4. 순이동률	2014~2023	
		A12. 초혼연령	2014~2023	
	서울가구	A5. 1인가구 비율	2015~2023	
		A6. 가족다양성 분포	2016~2023	
		A11. 가족친밀성*	2019~2023	가구원조사
	서울 거주 외국인	A7. 외국인 총인구	2014~2023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2014~2023	
		A10.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2014~2023	외국인조사
B. 경제와 노동	경제활력	B1. 지역내총생산	2012~2022p	
		B15. 서비스업생산지수	2014~2023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2020~2023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2013~2022 (통계청) 2016~2023 (중소벤처기업부)	
		B3. 외국인 투자유치	2013~2022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2012~2022	
	소득과 고용	B17.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2017~2023	
		B6. 가구 소득 증가율	2014~2023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2014~2023	
		B8. 고용률	2014~2023	
		B9. 실업률	2014~2023	
		B10. 고용형태*	2014~2023	가구원조사
		B11. 사회보험 가입률	2014~2023	
		B12. 소비자물가지수	2014~2023	
		B13. 구직단념자	2015~2023	
		B16. 청년 니트 비율	2015~2023	
		B18.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2017~2023	
		C20. 주택보급률	2013~2022	
C. 도시 생활과 주거	주거와 생활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2014~2023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019~2022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13~2022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2015~2023	
		C1. 주거환경 만족도*	2014~2023	가구주조사
		C12. 1인당 주거면적	2015~2023	
		C17. 평균 거주기간*	2014~2023	가구원조사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2024년 10월 기준	
	스마트 도시역량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2024년 10월 기준	
		C21. AI 수용성*	(2024년 신규 문항)	시민조사
	스마트 도시격차	C9. 접근성 격차	2018~2023	
		C10. 활용성 격차	2018~2023	
		C19. SNS 이용 현황*	2020~2023	시민조사

■ 업데이트 미완료 11개 지표, 2024년 서울서베이 신규 조사 문항 2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D. 건강과 보건	건강한 삶	D1. 기대수명	2013~2022 (기대여명) 2012~2022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D2. 주관적 건강수준	2014~2023	
		D3. 우울감 경험률	2014~2023	
		D11. 자살률	2014~2023	
		D5. 비만율	2014~2023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2023	가구원조사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2020~2023	
	지역보건	D6. 감염병 환자 수	2020~2022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2014~2023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2014~2023	
		D9. 보건기관 이용률	2013~2022	
		D10. 치매유병률	2015~2023	
E. 안전과 재난	자연재난	E1. 풍수해·폭설 피해	2013~2022 (자연재난) 2014~2023 (강수/눈일수)	
		E2. 폭염·한파 피해	2014~2023	
	사회재난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4~2023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4~2023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2014~2023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2013~2022 (전국) 2019~2022 (서울)	
		E11. 야간보행 안전도*	2023	가구원조사
	사회안전	E8. 강력범죄 발생률	2014~2023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2014~2023 (가정폭력) 2014~2023 (여성폭력상담) 2014~2023 (노인학대) 2014~2023 (아동학대)	
		E12. 보이스피싱 피해	2016~2023	
F. 환경	대기와 녹지	F1. (초)미세먼지 농도	2013~2022 (대기오염 농도) 2015~2022 (주의보)	
		F2. 녹지환경 만족도*	2014~2023	가구원조사
		F3. 오존 농도	2013~2022 (오존 농도) 2014~2023 (주의보)	
		F4. 환경소음도	2014~2023	
	물순환과 자원순환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2014~2023	
		F6. 불투수면적 비율	2000~2020 (5년 주기)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2013~2022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2013~2022	
	에너지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2013~2022	
		F10. 온실가스 배출량	2005~2021	
		F11. 기후 위기 심각성*	2022~2023	가구원조사

■ 업데이트 미완료 11개 지표, 2024년 서울세베이 신규 조사 문항 2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G. 교통	교통 인프라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2014~2023	
		G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2014~2023	
		G3. 도시철도 연장	2014~2023	
		G8. 자전거 도로율	2014~2023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2014~2023 (대체연료차량) 2013~2022 (전기차 충전기)	
		G11. 보도 면적	2014~2023	
	교통 서비스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2014~2023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2014~2023	가구원조사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2011~2023 (격년 조사)	
		G7. 보행환경 만족도*	2014~2023	가구원조사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2015~2023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2014~2023	가구원조사
H. 문화와 여가	문화 활동과 향유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14~2023	가구원조사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2014~2023	가구원조사
		H3. 문화환경 만족도*	2014~2023	가구원조사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	(2024년 신규 문항)	시민조사
	문화기반	H5. 도서관 수	2014~2023	
		H12. 지역문화시설 수	2013~2022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2013~2022	
		H10. 문화예술사업체 수	2020~2022	
	여가활동과 향유	H13.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3 (여가생활 만족도) 2023 (여가시간 충분성)	가구원조사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2023	가구원조사
		H15. 여행 건수*	2023	가구원조사
I. 교육과 돌봄	교육 및 보육환경	I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2014~2023	가구주조사
		I2. 평생교육 참여율	2014~2023 (서울 및 광역시) 2023 (서울)	
		I14.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2014~2023	
	사회적 약자 보호	I5. 사회복지예산 비중	2014~2023	
		I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3~2022 (국민 기초) 2020~2022 (서울형 기초)	
		I12. 빈곤율	2013~2022 (전국)	
		I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2013~2022	
	성평등성	I7. 성별 임금 격차	2014~2023 (전국)	
		I9. 성평등지수	2016~2022	
		I10. 가사노동 부담 정도*	2014~2023	가구주조사
		I8.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2013~2022p (육아휴직, 전국) 2014~20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업데이트 미완료 11개 지표, 2024년 서울서베이 신규 조사 문항 2개 지표

분야	영역	지표	활용된 데이터	자료 출처
J. 가치와 의식	시민성	J11. 지역사회 참여율*	2022~2023	가구원조사
		J2. 자원봉사 참여율*	2014~2023	가구원조사
		J3. 시민자부심*	2015~2018; 2022~2023 (가구원), 2019~2021 (시민)	가구원조사 (시민조사)
		J13. 시민 준법의식*	2023	가구원조사
	포용성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2014~2023	가구원조사
		J5. 사회적 신뢰*	2014~2023	가구원조사
		J6. 다양성 수용도*	2020~2023	가구원조사
		J12. 공정성*	2022~2023	가구원조사
	통합성	J7. 지역사회 소속감*	2021~2023	가구원조사
		J8. 사회적 고립도*	2015~2023 (사회적 고립도) 2023 (1인가구고립감)	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J10. 행복지수*	2014~2023	가구원조사
		J14. 계층이동 가능성*	2015~2023	가구원조사
		J15. 미래 불안 요인*	2023	가구원조사

주) p: 잠정치 (preliminary figures)

제3장

2024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제1절	인구와 가구
제2절	경제와 노동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제4절	건강과 보건
제5절	안전과 재난
제6절	환경
제7절	교통
제8절	문화와 여가
제9절	교육과 돌봄
제10절	가치와 의식

제3장 2024 도시정책지표 분야별 분석과 정책함의

제1절 인구와 가구

1. 서울인구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시는 인구대응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저출생 고령화 대응체계 마련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2.25명으로 1970년(4.83명)에 비해 2.58명(53.4%) 감소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 0.72명으로, 마카오(0.66명)와 홍콩(0.72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70년(4.53명)에 비해 3.81명(84.1%) 감소하였다.

서울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수화된 환경요인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0.593명, 2023년 0.552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초저출생 사회의 모습(합계출산율 1.2명 이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111명으로 떨어진 후 좀처럼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도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에 각각 0.694명, 0.76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서울시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4.4세, 아내 32.4세로, 남녀 모두 전국에서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청의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2024년에 19.2%로 1970년(3.1%)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72년에는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50년 뒤 전 세계인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것에 반해, 한국은 2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된다. 또한 유년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추세는 보다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화지수(노령화지수)는 2015년(104.2)에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180.7로 증가하였다. 2023년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197.3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고 서울시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인구변화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기본계획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콤팩트 시티 조성으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탄생을 응원하는 4개 분야 전략으로 30개의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변화대응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인구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의 정책이다. 서울시는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가족형성, 가족돌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확장 중이며, 이민 관련 다문화 다인종 정책 등 인구 정책과 연관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입안하는 중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 고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인구변화가 가져올 도시사회 전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고려한 광역생활권 전략과 콤팩트 시티 전략을 병렬적으로 고려하는 인구대응 전략이 필요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민의 총인구는 9,384,512명으로 지난 30년간 감소추세이며, 2010년에 비해 409,792명(4.2%) 감소하였다. 서울의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0.35%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23%, 0.71% 증가하였다. 시도 간 인구이동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 서울의 총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2023년 순이동률은 -0.3%로 전입률보다 전출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서울시민의 순이동률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서울로의 전입보다는 주변 시·도로의 전출이 더 많았다. 인천과 경기도의 순이동률은 각각 1.1%, 0.3%로 최근 3년간 인천의 전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유출되는 대부분의 인구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순이동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20~24세 청년의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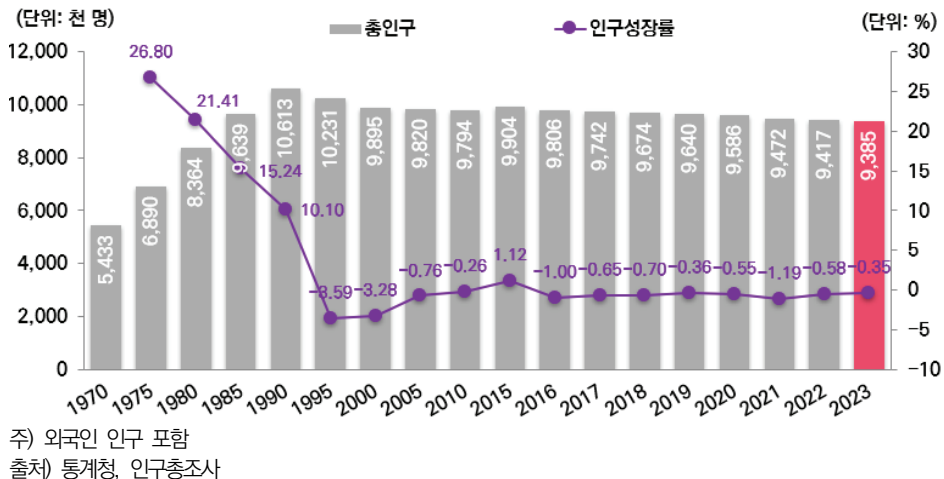
률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청년 2.1%, 15~19세 아동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0~4세 아동의 순유출률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세대인 35~39세 인구가 -1.9%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15~29세 인구는 서울로의 순유입률이 높은 반면, 10세 미만 아동과 30세 이상 인구는 서울 밖으로의 순유출률이 높았다.

이러한 이동패턴을 보면 수도권은 한 단위로 움직이는 생활권이며, 서울은 여전히 청년 유입이 가장 큰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중이며, 도시공간의 입체화, 복합화 전략으로 다양한 인구변화에 따른 공간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인구변화 대응의 주요 정책 중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진 등이 그 예이다. 서울시의 인구변화는 우리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시의성 있는 인구대응정책에 대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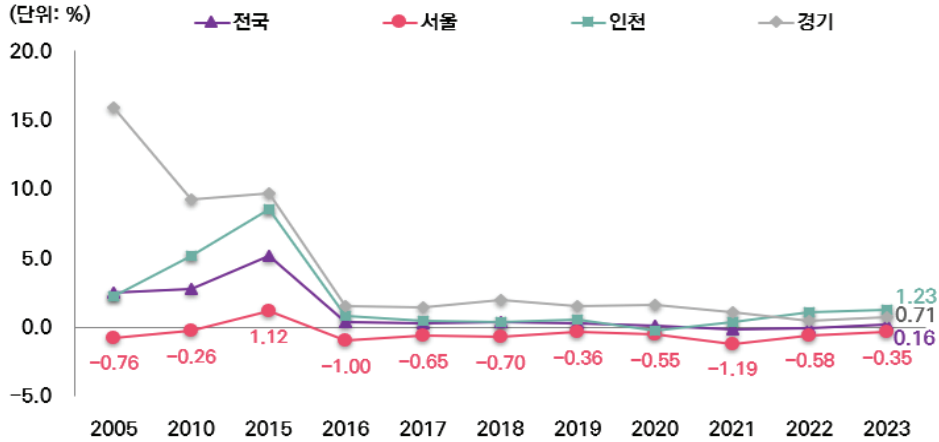
2) 지표 설명

• 총인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민의 총인구는 9,384,512명으로 지난 30년간 감소추세이며, 2010년에 비해 409,792명(4.2%) 감소하였다. 서울의 인구성장률은 전년 대비 -0.35%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23%, 0.7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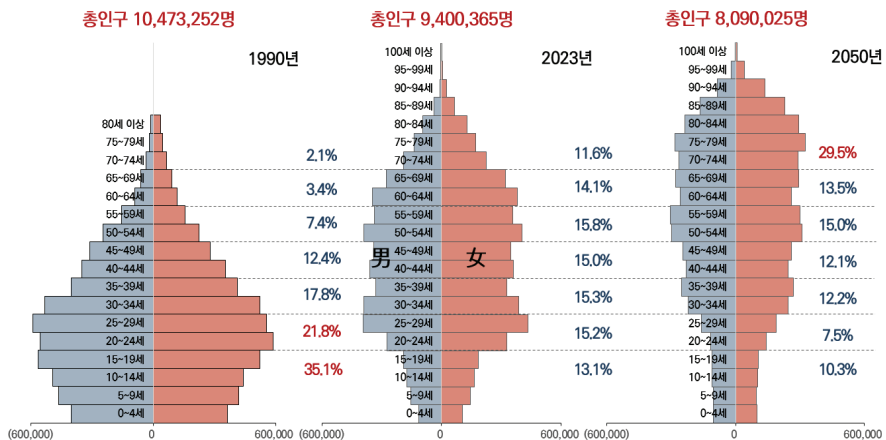
〈그림 3-1〉 총인구



주) 외국인 인구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2〉 인구성장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988년에 최초로 천만 명 이상으로 진입한 서울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25년이 지난 2013년에 99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50년경에는 서울의 인구가 800만 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세 이하 청년인구 비중은 1990년 56.9%에서 2050년에 17.8%로 감소(39.1%p)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인구는 1990년에 5.5%에서 2050년에는 43.0%로 증가(37.5%p)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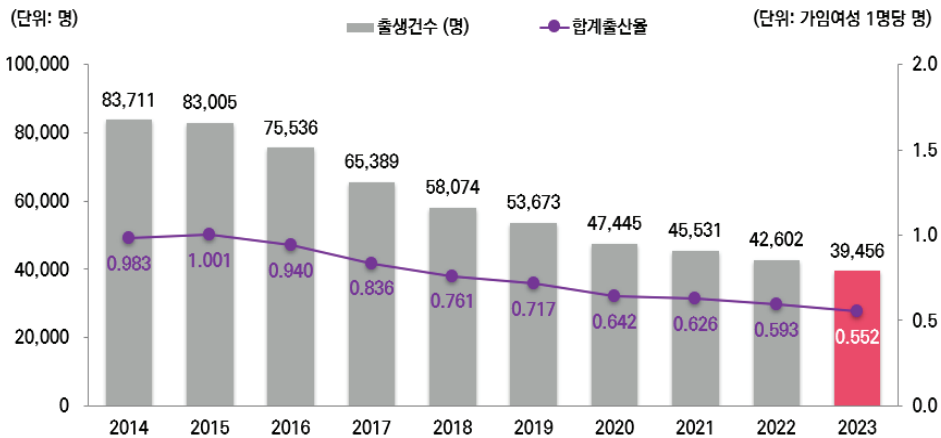


주) 2024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매년 7월 1일 시점 기준)로,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됨. 197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3〉 성별/연령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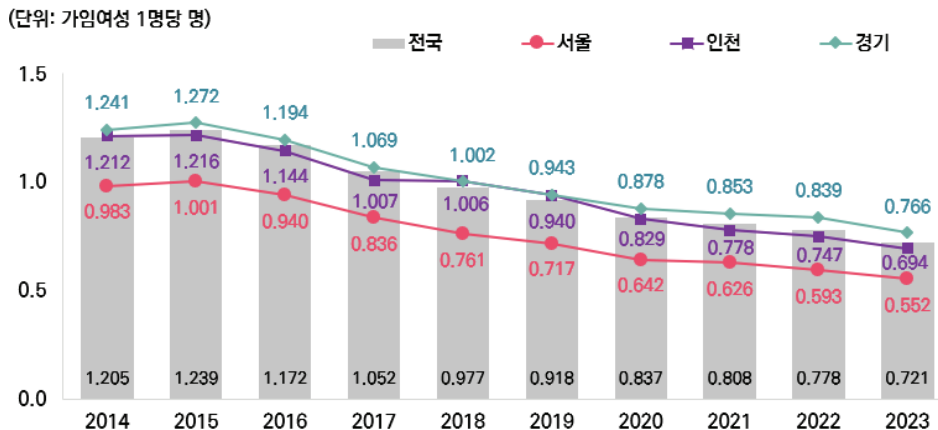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초저 출생 사회의 모습(합계출산율 1.2명 이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111명으로 떨어진 후 좀처럼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도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에 각각 0.694명, 0.766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전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16년 이후 1.2명 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면서 2023년에는 0.721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4〉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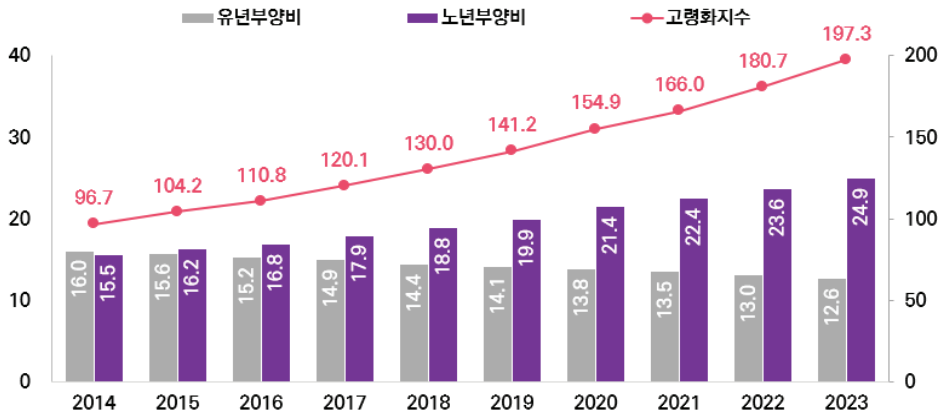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5〉 수도권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고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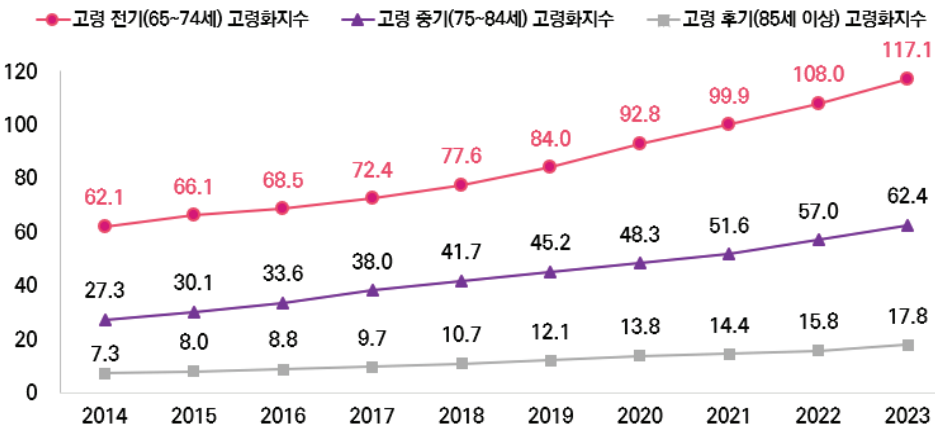
고령화지수(노령화지수)는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2023년에 197.3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고령화지수는 2015년에 처음으로 100 이상(104.2)을 기록하면서, 서울의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를 처음으로 앞서는 시점이었다.



주)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등록외국인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6〉 고령화지수



주) 등록외국인 포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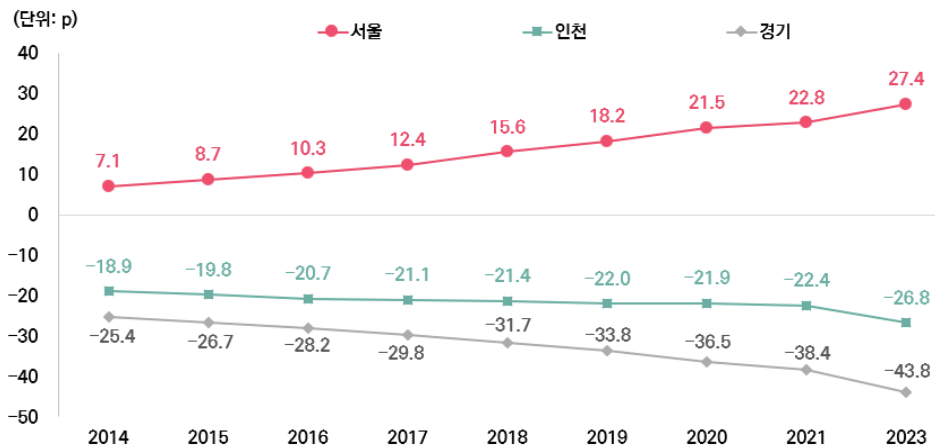
〈그림 3-7〉 고령집단별 고령화지수

고령집단별로 고령화지수를 살펴보면, 고령 전기(65~74세)의 고령화지수가 117.1, 고령 중기(75~84세)는 62.4, 고령 후기(85세 이상)는 17.8로 조사되었다.



주: 1)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2) 2022년의 경우 등록외국인 65세 이상 연령 데이터 불충분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그림 3-8〉 수도권 고령화지수



주: 1)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2) 2022년의 경우 등록외국인 65세 이상 연령 데이터 불충분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그림 3-9〉 전국 대비 고령화지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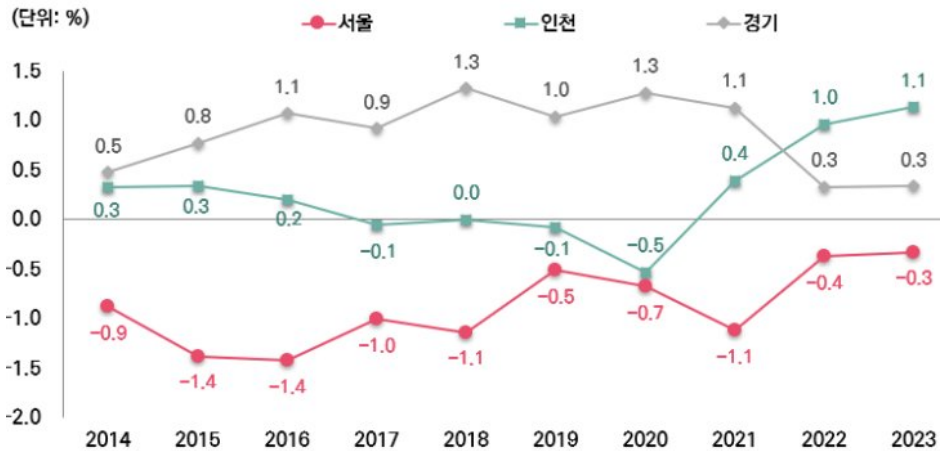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2023년 인천의 고령화지수는 143.1, 경기도의 고령화지수는 126.0으로 전국의 고령화지수(169.9)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대비 고

령화지수 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의 고령화지수 격차가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비 서울의 고령화지수 격차는 2014년에 7.1p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27.4p로 증가하였다.

- **노년부양비**: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연령인구(15~64세)*100
- **고령화지수(노령화지수)**: 고령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 고령전기 고령화지수: (65~74세 인구)/(0~14세 인구)*100
 - 고령중기 고령화지수: (75~84세 인구)/(0~14세 인구)*100
 - 고령후기 고령화지수: (8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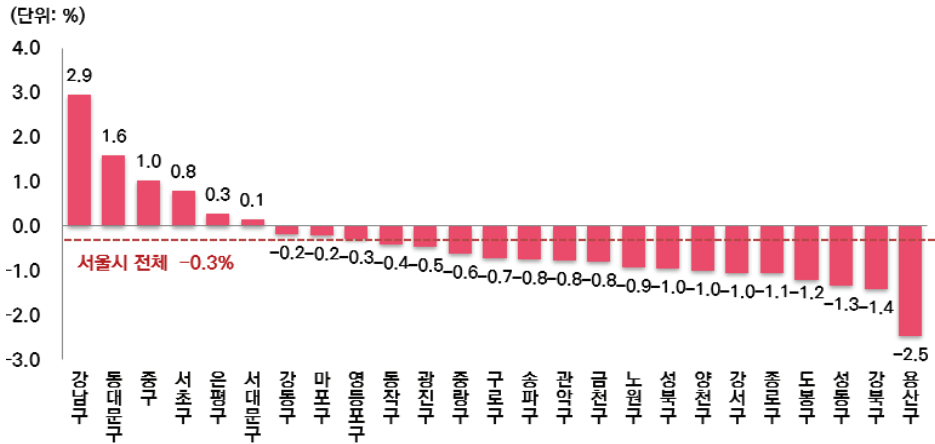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2023년 순이동률은 -0.3%로 전입률보다 전출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서울시민의 순이동률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서울로의 전입보다는 주변 시·도로의 전출이 더 많았다. 인천과 경기도의 순이동률은 각각 1.1%, 0.3%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3년간 인천의 전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10〉 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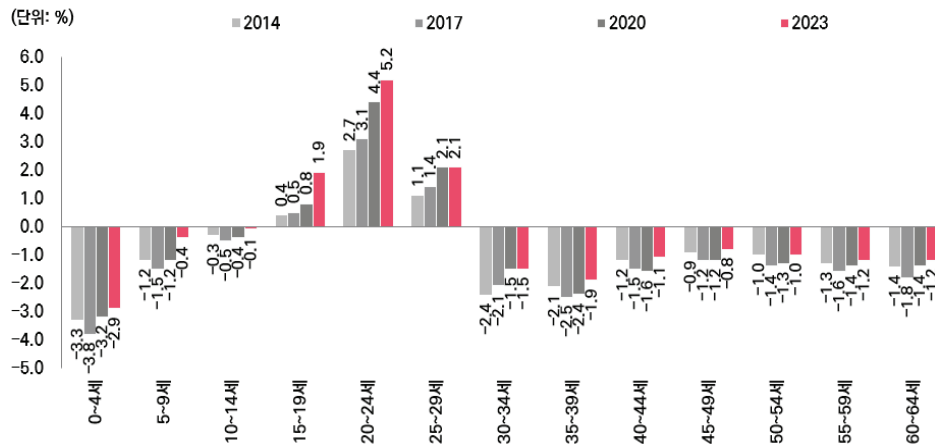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9%), 동대문구(1.6%), 중구(1.0%), 서초구(0.8%), 은평구(0.3%), 서대문구(0.1%)에서 총전입률이 총전출률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총전출률이 더 높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용산구(-2.5%)와 강북구(-1.4%)의 총전출률이 높았다.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

〈그림 3-11〉 순이동률(구별)

2023년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순유입률은 20~24세 청년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청년 2.1%, 15~19세 아동 1.9%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순유출률은 0~4세 아동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 세대인 35~39세 인구가 -1.9%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15~29세 인구는 서울로의 순유입률이 높은 반면, 10세 미만 아동과 30세 이상 인구는 서울 밖으로의 순유출률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20~24세 청년의 서울로의 순유입률이 2.7~5.2%로 가장 높았고, 25~29세 청년이 1.1~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순유출률은 0~4세 아동(-2.9~ -3.8%)이 가장 높았고, 35~39세(-1.9~ -2.5%), 30~34세(-1.5~ -2.4%)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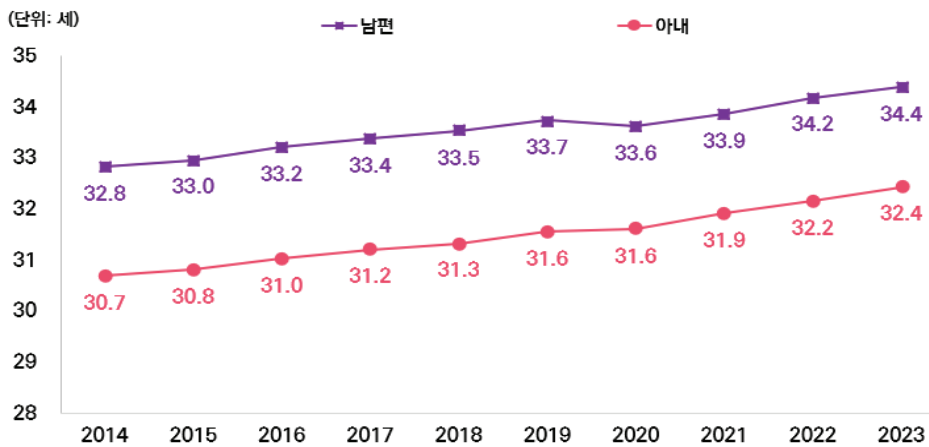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12〉 순이동률(연령별)

- **이동률**: 주민등록연앙인구⁶⁾ 대비 이동자 수
- **전입률**: 전입자 수/연앙인구×100, **전출률**: 전출자 수/연앙인구×100
- **순이동률**: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순이동률=전입률-전출률)
- **순유입**: 전입이 전출보다 더 큰 경우, **순유출**: 전출이 전입보다 더 큰 경우

• 초혼연령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4.4세, 아내 32.4세로, 남녀 모두 전국에서 초혼연령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민의 평균 초혼연령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남편은 1.6세, 아내는 1.7세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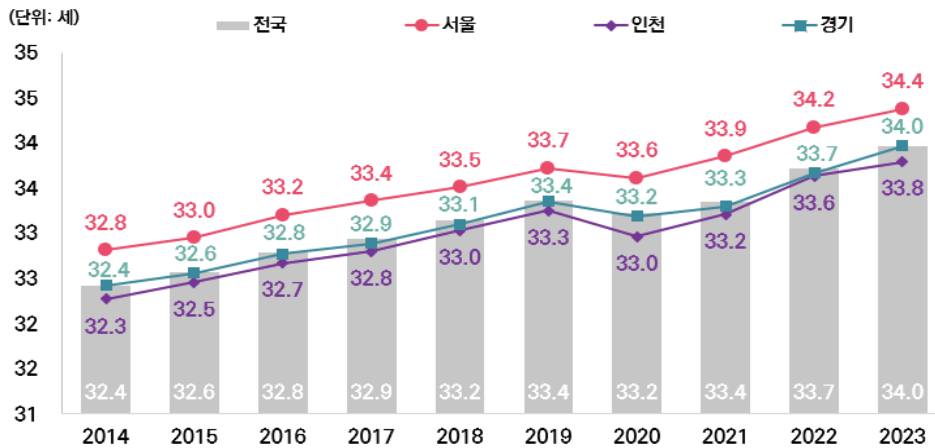
〈그림 3-13〉 평균 초혼연령

수도권별로 지난 10년간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전국과 유사한 반면, 인천은 전국보다 평균적으로 0.1세 낮고, 서울은 평균적으로 0.4세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경기도와 인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서울 여성의 초혼연령은 평균적으로 0.9세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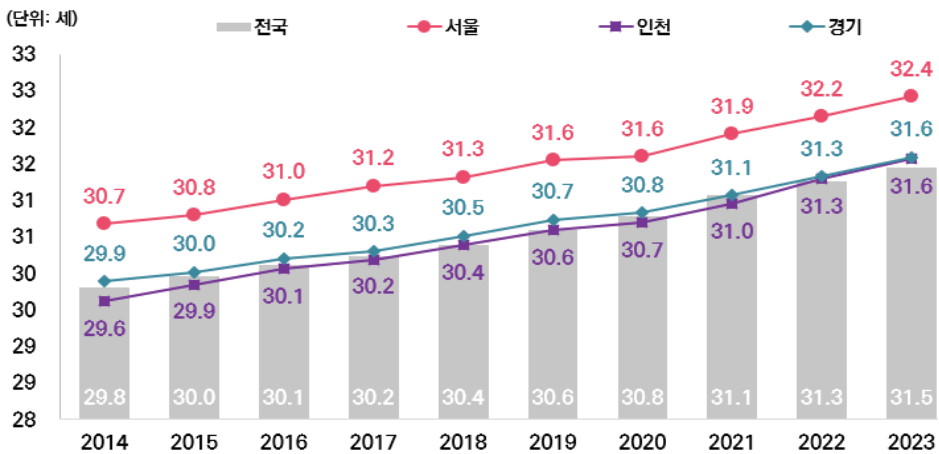
6) 주민등록연앙인구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 개념으로 재작성한 인구임. 연앙이란 1년의 인구 중 그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수를 말함. 주민등록연앙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주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됨: 주민등록연앙인구=[연초(1월 1일) 주민등록인구+연말(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2

종합하면, 서울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이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14〉 수도권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15〉 수도권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

2. 서울가구

1) 요약 및 정책 제안

1인가구의 일반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구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 진행 중

서울시의 가구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 경향 흐름이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되는 듯하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9.3%로 30여 년 전(1990년 9.1%)에 비해 30.2%p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으며(대전 39.4%), 전국 1인가구 비율(35.5%)보다 3.8%p 높다. 수도권외의 경우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31.8%(15위)이며, 경기도는 31.2%(16위)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 서울시의 자치구 단위에서는 관악구(57.3%)의 1인가구는 과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구(47.7%), 금천구(46.5%), 종로구(45.5%), 광진구(45.4%) 순으로 거의 10가구 중 4~5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인 ‘축소사회’의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다. 2023년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대 이하의 84.1%, 30대의 53.7%가 1인가구로, 서울의 청년세대들은 1인가구의 삶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축소가구화 현상에는 1인가구의 증가뿐 아니라 1세대가구 역시 증가하는 현상도 포함될 수 있다. 서울은 1세대 가구(부부,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 친인척, 기타)와 비친족가구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2세대 가구(부부+미혼자녀, 부(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조모)+미혼손자녀, 기타)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가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발굴 중이다. 2022년의 데이터와 유사하게 서울시의 새로운 유형의 가구들(1인, 편부모, 다문화, 부부, 청소년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전통적 가구 유형에서는 필요 없었던 지원(사회적 고립)이나, 새로운 유형의 수요(외로움, 반려동물 돌봄 등)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인구가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대응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은 ‘고립단절 없는 일상’을 지원한다는 전략 아래 ‘고령 1인가구 등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관련 정책, ‘커뮤니티 공간 중심의

서로돌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시민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정책 등이다. 축소가구화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정책들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축소사회화⁷⁾에 따른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성 강화' 관련 정책과 지표개발이 필요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많은 요소 중 최근 '연결성'에 대한 강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대응 정책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가구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도시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시민들의 웰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WISE 센터(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시민들의 행복과 웰빙 증진 노력을 측정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고차원적인 웰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다. 즉, 'How's Life' 분석 및 관련 프레임워크는 여러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에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을 OECD의 WISE센터의 새로운 지식 교환 플랫폼(Knowledge Exchange Platform, KEP)을 통해 공유된다는 것이다. 웰빙 프레임은 2008년 2월, 경제학자 장 폴 피투시, 아마르티아 센, 조셉 스티글리츠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의 요청으로 국내총생산(GDP)의 한계를 고려하고 국가 발전을 측정할 다른 방법을 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때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가 웰빙을 드러낼 수 있는 대시보드의 필요성이었다. 당시의 권고안은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려면 최소한 미래의 웰빙에 중요한 다양한 요소들의 통계적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권고안 11]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는 도시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 사회의 성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로서 GDP가 갖는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인구와 가구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나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축소사회에서는 사회적 연결성이 시민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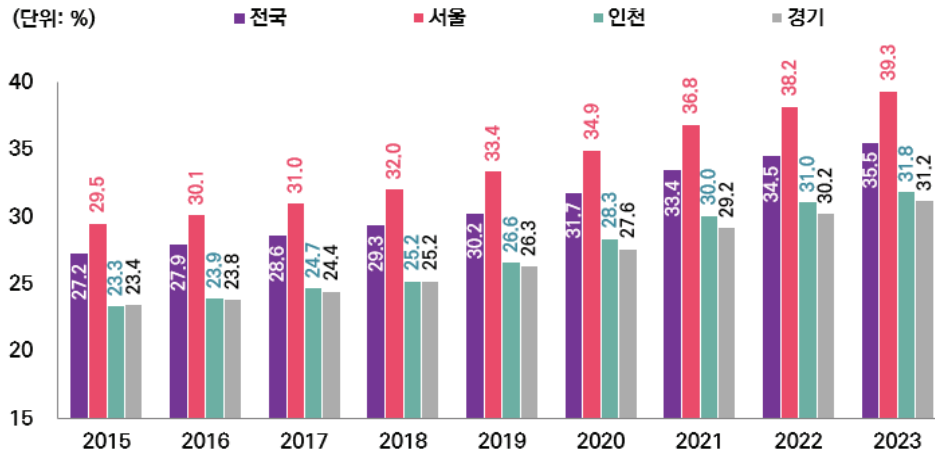
7) 축소사회는 가구의 감소뿐 아니라 사회 인구의 감소 등 사회 전반의 위축을 의미하는 용어로 OECD와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용어임

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 지표 설명

•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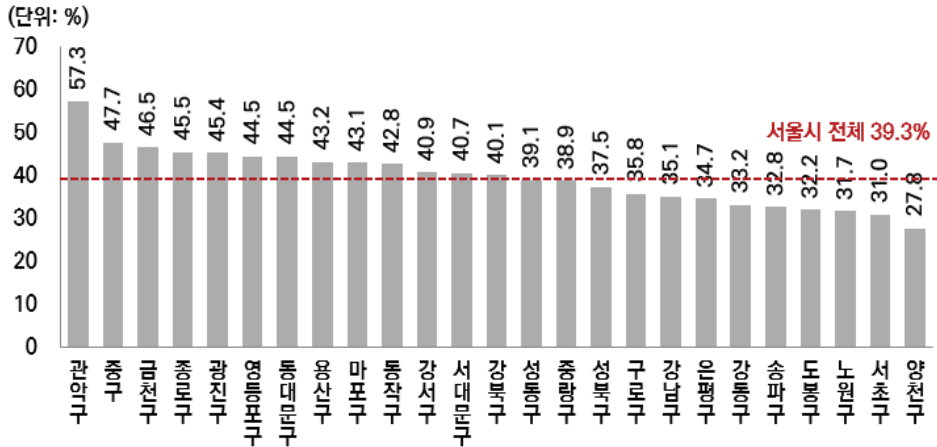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39.3%로 30여 년 전(1990년 9.1%)에 비해 30.2%p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으며(대전 39.4%), 전국 1인가구 비율(35.5%)보다 3.8%p 높다. 수도권외의 경우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31.8%(15위)이며, 경기도는 31.2%(16위)로 서울보다 훨씬 낮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6〉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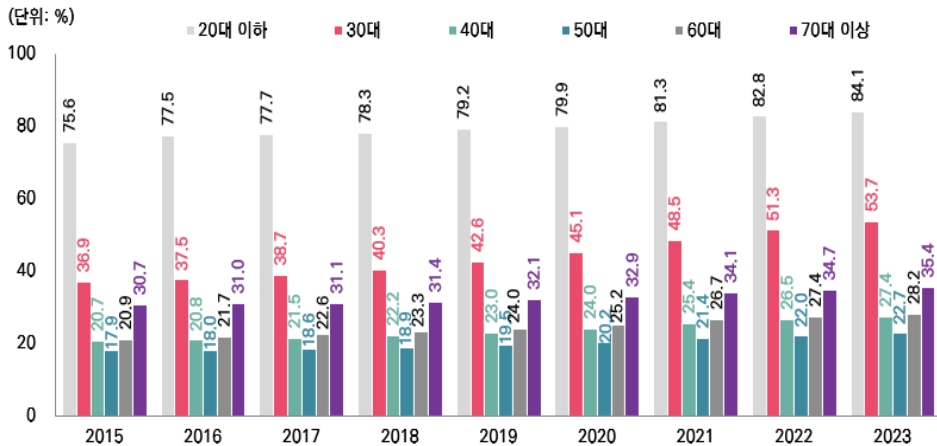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관악구(57.3%)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7.7%), 금천구(46.5%), 종로구(45.5%), 광진구(45.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양천구(27.8%), 서초구(31.0%), 노원구(31.7%), 도봉구(32.2%), 송파구(32.8%)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그림 3-17〉 1인가구 비율(구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20대 이하의 84.1%, 30대의 53.7%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70대 이상 35.4%, 60대 28.2%, 40대 27.4%, 50대 22.7%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모든 연령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30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16.8%p)하였다. 다음으로 20대 8.5%p, 60대 7.3%p, 40대 6.7%p, 50대 4.8%p, 70대 이상 4.7%p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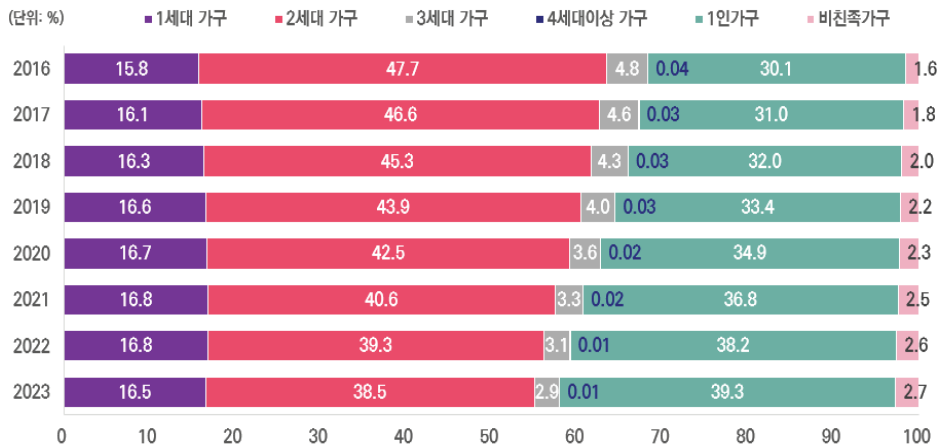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8〉 1인가구 비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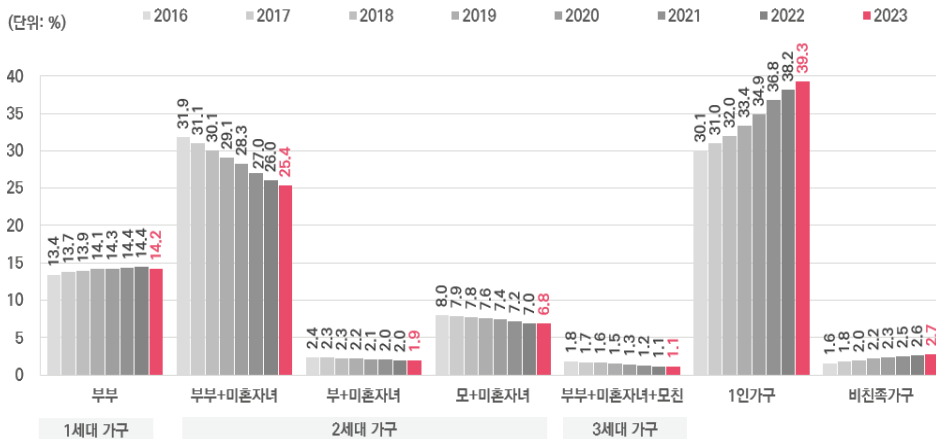
• 가족다양성 분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1세대 가구(부부,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 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 친인척, 기타)와 비친족가구 유형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세대 가구(부부+미혼자녀, 부(모)+미혼자녀,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조모)+미혼손자녀, 기타)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19〉 세대구성별 가구 유형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20〉 가족다양성 분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서울가구의 39.3%가 1인가구에 해당하며, 25.4%가 부부와 미혼자녀, 14.2%가 부부, 8.7%가 편부모와 미혼자녀(편모와 미혼자녀 6.8%, 편부와 미혼자녀 1.9%)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1인가구(9.2%p)와 부부로 구성된 가구(0.8%p), 비친족가구(1.1%p)는 증가한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6.5%p), 편모(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1.7%p)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구분화로 인해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구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3년 서울의 1인가구는 20.8%p, 2인가구는 9.9%p 증가하였다. 과거 가장 일반적인 가구였던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2.6%p, 18.7%p 감소하였고, 5인 이상 가구 또한 9.4%p 감소하였다. 향후 2050년에는 1~2인 가구가 8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새로운 가구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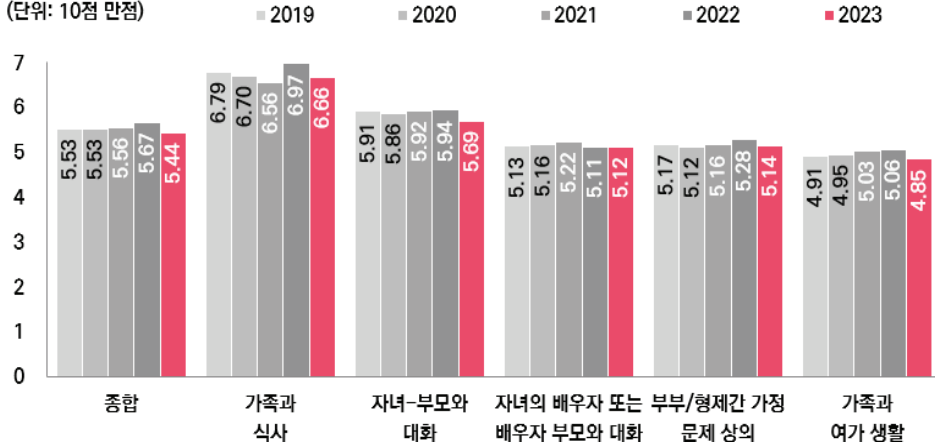
〈그림 3-21〉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 가족 친밀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10점 만점)는 2023년에 5.44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0.23점)하였다. 항목별로는 ‘가족과 식사’가 6.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부모와의 대화’ 5.69점, ‘부부, 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5.14점,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대화’ 5.12점, ‘가족과의 여가 생활’ 4.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족친밀성은 ‘자

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대화'(0.01점 증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였으며, '가족과의 식사'(0.31점), '자녀 또는 부모와의 대화'(0.25점), '가족과 여가 생활'(0.21점), '부부, 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0.14점) 순으로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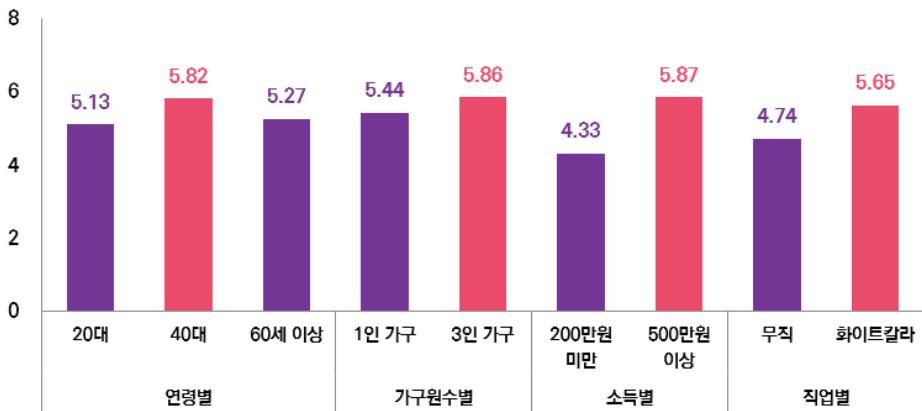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항상 한다 10점, 거의 안 한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 가족 친밀성

(단위: 10점 만점)



주: 1) 가족 친밀성: '가족과 식사, 자녀-부모와 대화,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대화, 부모/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가족과 여가 생활'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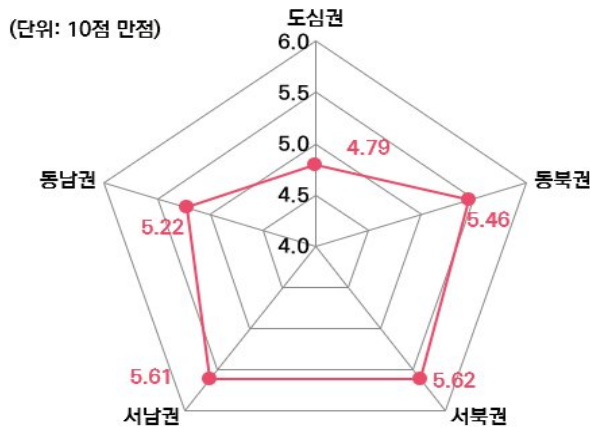
2) 평균값 환산 기준: 항상 한다 10점, 거의 안 한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 가족 친밀성(인구특성별)

가구와 인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많고,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고, 화이트칼라, 40대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은 반면, 혼자 살고, 가구 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고,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가족과의 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30~60대에서 가족 친밀성이 5.43~5.82점으로 높은 반면, 20대는 5.13점, 70대는 5.02점, 80~90대는 4.77~4.80점으로 낮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밀성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가 4.33점으로 가장 낮고, 500만 원 이상 가구가 5.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 가족 친밀성이 4.74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북권(5.62점)에서 가족 친밀성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4.79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주: 1) 가족 친밀성: '가족과 식사, 자녀-부모와 대화,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대화, 부수/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가족과 여가 생활'의 평균

2) 평균값 환산 기준: 항상 한다 10점, 거의 안 한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4〉 가족 친밀성(권역별)

3. 서울 거주 외국인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5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3,468명(5.6%) 증가하였다.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은 1992년에 0.3%(3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8~2019년에 2.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020~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202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8.0%), 종로구(7.3%), 용산구(6.1%), 영등포구(5.8%), 금천구(5.7%), 구로구(5.6%) 순으로 등록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0.7%), 도봉구(0.8%), 강동구·노원구·송파구·은평구(0.9%)에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서울 거주 외국인 중 여성 외국인은 143,350명(56.7%), 남성 외국인은 109,415명(43.3%)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여성 외국인 비율이 증가 추세인데, 2023년에는 여성 외국인과 남성 외국인 격차가 13.4%p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23년에 20대가 33.4%로 가장 많고, 30대(18.7%), 50대(15.6%), 40대(13.2%), 10대(10.0%), 60세 이상(9.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20대의 서울 거주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50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4년 대비 20대는 9.7%p 증가하였으며, 50대는 7.9%p 감소하였다.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집계된 2023년 서울 거주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 52.7%(한국계중국인 27.7%, 중국 2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베트남 9.4%, 미국 4.3%, 일본 4.1%, 몽골 3.6%, 타이완 3.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유학 자격이 22.4%로 가장 많고, 영주(19.1%), 방문취업(11.4%), 결혼이민(8.6%), 일반연수(7.7%), 방문동거(5.6%) 등의 순이다. 이러한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6.7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6.95점으로 가장 높고, 복지환경(6.90점), 교육환경(6.79점), 경제환경(6.65점), 사회 환경(6.62점), 주거환경(6.39점) 순으로 삶의 만족도 정도를 보였다.

서울은 글로벌도시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4년 서울시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과, 도시외교 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4개 조직을 개편하였다. 서울시가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고등교육자 해외유입률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전체 역량 대비 인적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은 이러한 낮은 인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도시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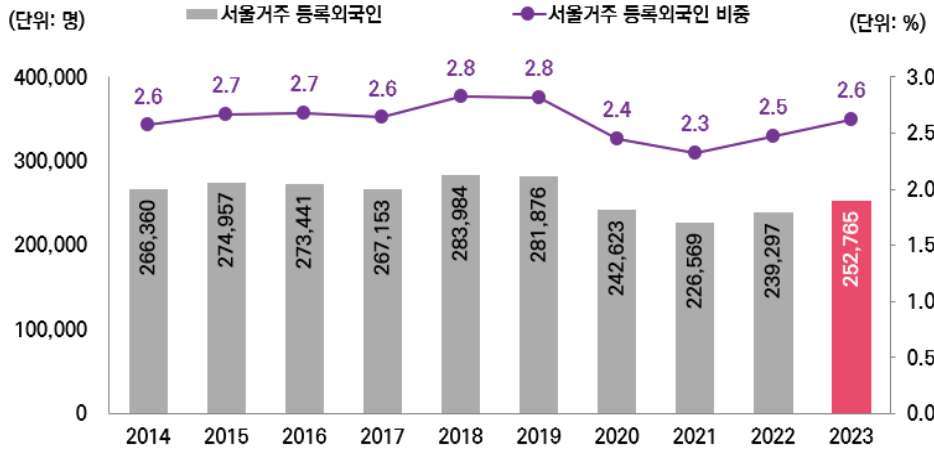
이러한 조직적 노력과 함께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외국인 삶의질 지표체계 수립을 통해 서울의 포용도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지표 설명

• 외국인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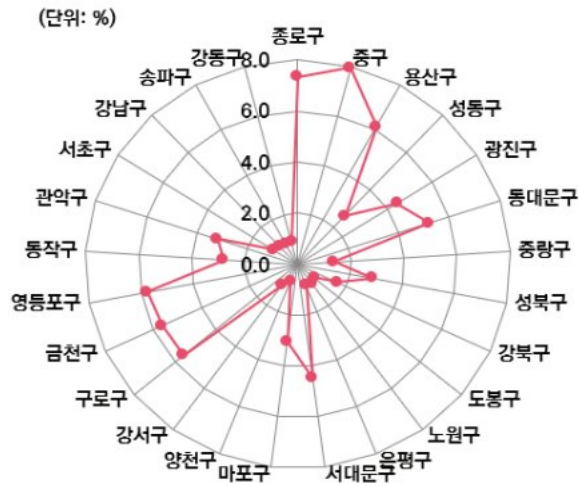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52,765명으로 전년 대비 13,468명(5.6%) 증가하였다.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은 1992년에 0.3%(3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8~2019년에 2.8%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수는 2020~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8.0%), 종로구(7.3%), 용산구(6.1%), 영등포구(5.8%), 금천구(5.7%), 구로구(5.6%) 순으로 등록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0.7%), 도봉구(0.8%), 강동구·노원구·송파구·은평구(0.9%)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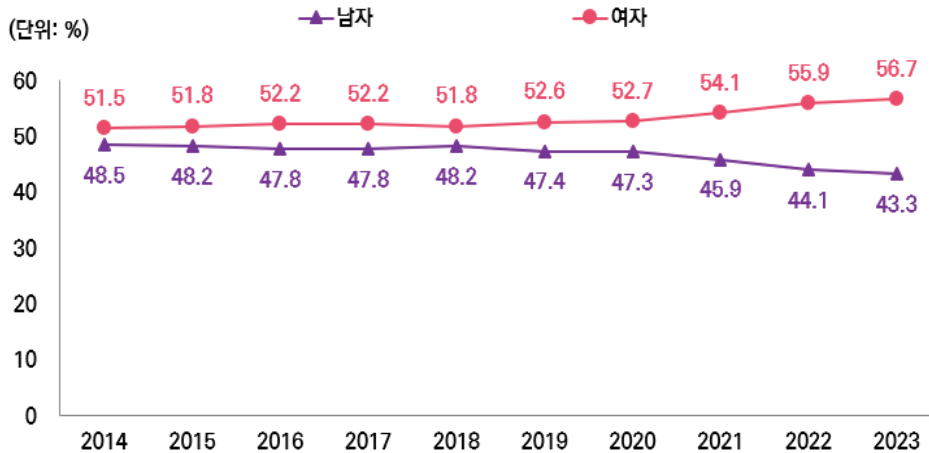
〈그림 3-25〉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2023

〈그림 3-26〉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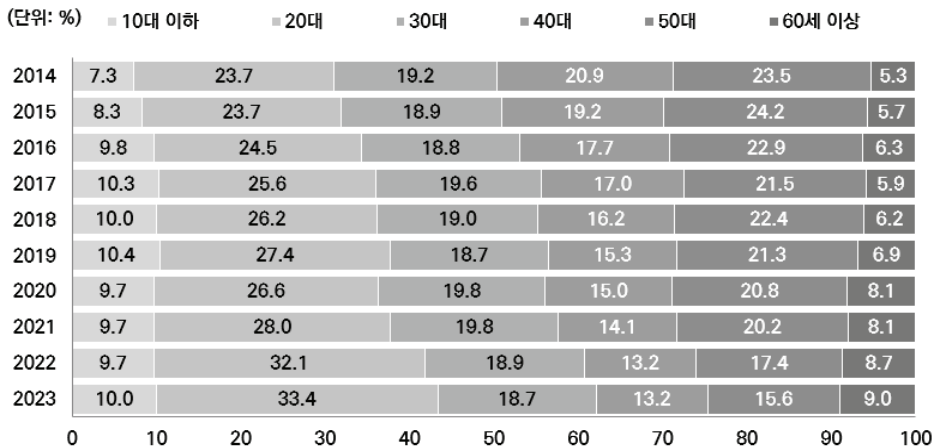
또한 2023년 서울 거주 외국인 중 여성 외국인은 143,350명(56.7%), 남성 외국인은 109,415명(43.3%)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여성 외국인 비율이 증가 추세인데, 2023년에는 여성 외국인과 남성 외국인 격차가 13.4%p로 크게 차이가 났다.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27〉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성별)

연령별로는 2023년에 20대가 33.4%로 가장 많고, 30대(18.7%), 50대(15.6%), 40대(13.2%), 10대(10.0%), 60세 이상(9.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20대의 서울 거주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50대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2014년 대비 20대는 9.7%p 증가하였으며, 50대는 7.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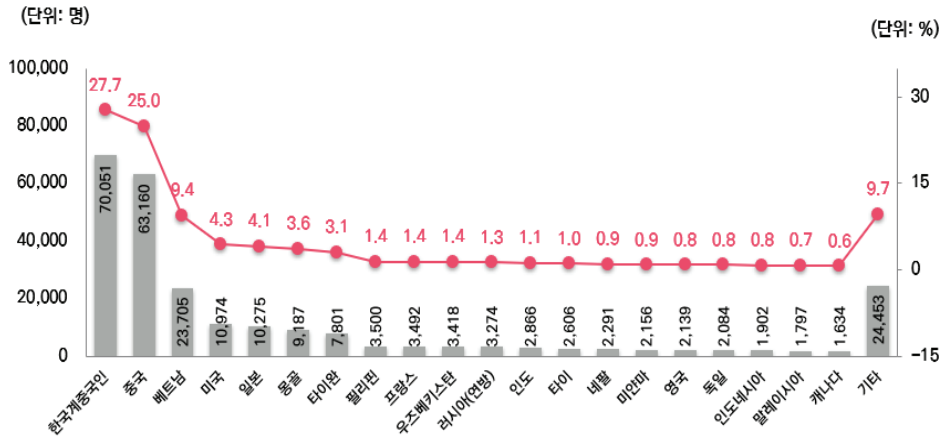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28〉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비율(연령별)

•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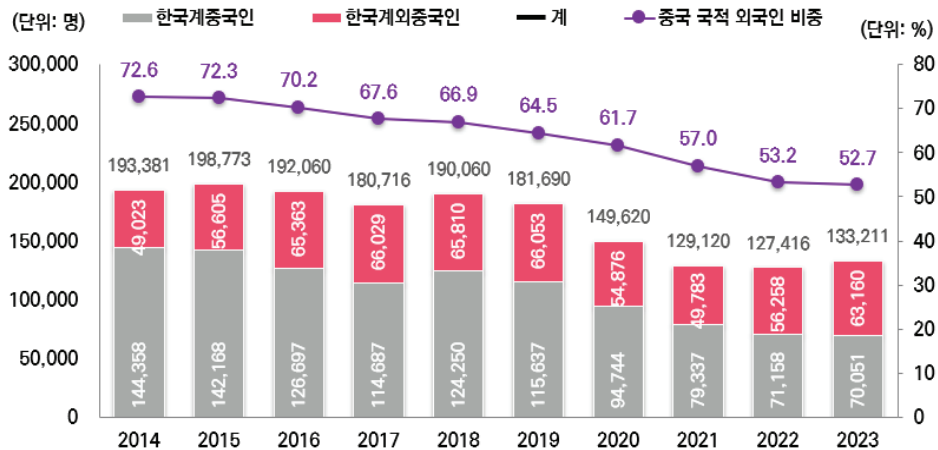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집계된 2023년 서울 거주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이 52.7%(한국계중국인 27.7%, 한국계외중국인 25.0%)로 조사되었으며, 베트남 9.4%, 미국 4.3%, 일본 4.1%, 몽골 3.6%, 타이완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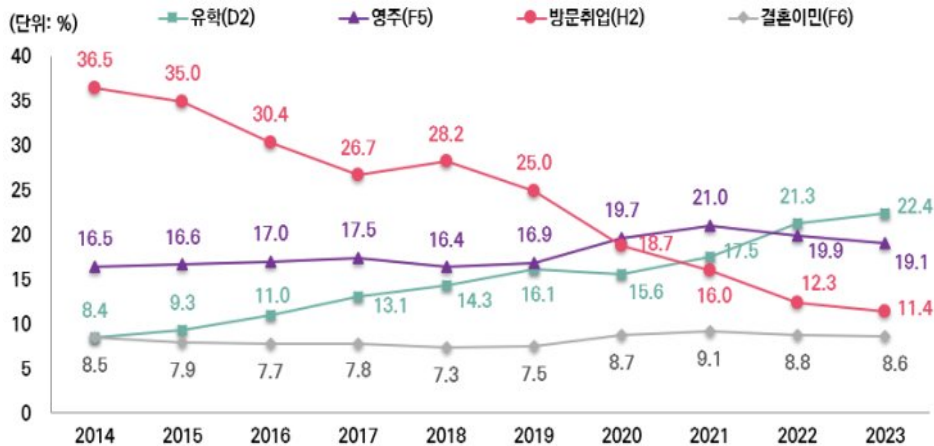
〈그림 3-29〉 서울 거주 외국인 국적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30〉 서울 거주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

중국 국적 외국인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대비 중국인은 6.6%p 증가하였지만, 한국계중국인은 26.5%p로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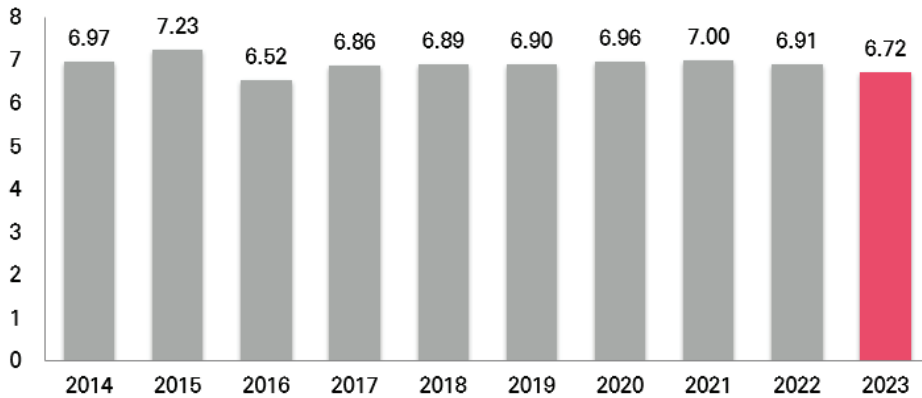
〈그림 3-31〉 서울 거주 외국인 체류자격 비율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유학 자격이 22.4%로 가장 많고, 영주(19.1%), 방문취업(11.4%), 결혼이민(8.6%), 일반연수(7.7%), 방문동거(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유학(1.1%p)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연수(0.6%p), 거주(0.4%p), 방문동거(0.1%p) 등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방문취업(0.9%p), 영주(0.8%p), 결혼이민(0.2%p)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2014년 이후 서울 거주 외국인의 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2014년 대비 25.1%p 감소), 유학으로 인한 체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4년 대비 14.0%p 증가). 영주 체류는 2020년과 2021년에 반짝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2019년까지 방문취업 목적이 1위를 위치하였으나, 2023년에는 3위로 하락하였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주 목적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2023년에는 유학으로 인한 체류자격 비율이 1위를 차지하였다.

•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2023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거주 삶의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질 만족도는 6.7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19점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주: 1) 삶의질 만족도: 세부 문항 차이로 연도별 종합점수 비교 시 주의 필요

- 2014년: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만족도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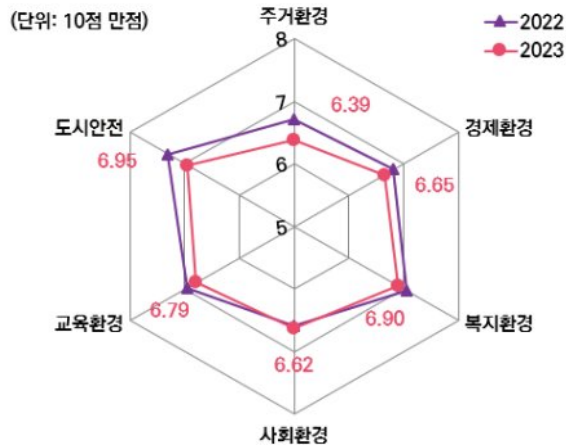
- 2017~2018년: '주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기타' 만족도의 평균

- 2015~2016년, 2019~2023년: '주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만족도의 평균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32〉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



주: 1) 삶의질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만족도의 평균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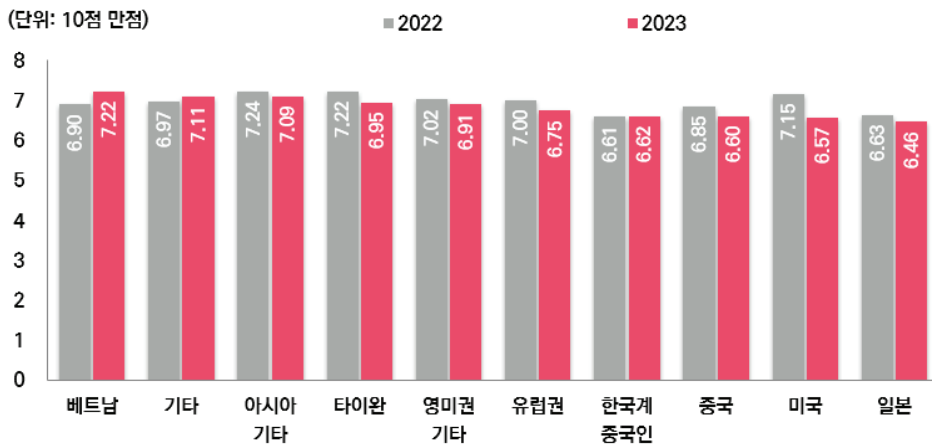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33〉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영역별)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6.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환경(6.90점), 교육환경(6.79점), 경제환경(6.65점), 사회환경(6.62점), 주거환경(6.39점)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사회환경(0.03점)에 대한 만족도만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도시안전(0.35점), 주거환경(0.33점), 경제·교육환경(0.17점), 복지환경(0.16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7.22점), 아시아 기타(7.09점), 타이완(6.95점), 영미권 기타(6.91점), 유럽권(6.75점)에서 삶의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본(6.46점)과 미국(6.57점) 등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0.32점), 미국 국적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0.58점).



주: 1) 삶의질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복지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만족도의 평균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그림 3-34〉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국적별)

제2절 경제와 노동

1. 경제활력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 1인당 GRDP가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하고 도시경제의 혁신성은 강화 추세이지만, 전국 대비 혁신투자 비중은 다소 주춤

2022년 서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5,161만 원으로, 처음으로 서울의 1인당 GRDP가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명목 GRDP는 2022년 약 48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7조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지수(2020년=100)가 2022년 123.4, 2023년 133.4 등으로 코로나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 등이 서비스업 생산 활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2020년 18.6조 원에서 2023년 25.7조 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는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2020년 22.9%, 2021년 22.7%, 2022년 22.4%로 다소 하락했다.

서울 외국인 투자유치와 혁신 관련 기업활동이 지속 증가하여 서울 혁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서울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2013년 61.4억 달러에서 2022년 107.3억 달러로, 약 1.75배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80.0억으로 큰 폭 증가를 보인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에는 연간 약 100억 달러를 달성 중이다. 또한, 서울 내 사업체 창업률은 14.8%(2020년)에서 12.9%(2022년)로 감소 추세이지만, 기술기반업종의 창업률은 같은 기간 17.8%(2020년)에서 2023년에 22.8%로 증가하여, 창업 사업체의 혁신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제의 혁신성 강화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체는 2017년 1,014개에서 2022년 1,961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2022년 기준 지역 내 4차 산업혁명 기업 수의 비중이 서울은 20.2%로 전국 평균(14.2%)보다 높으며, 경기(13.5%)보다도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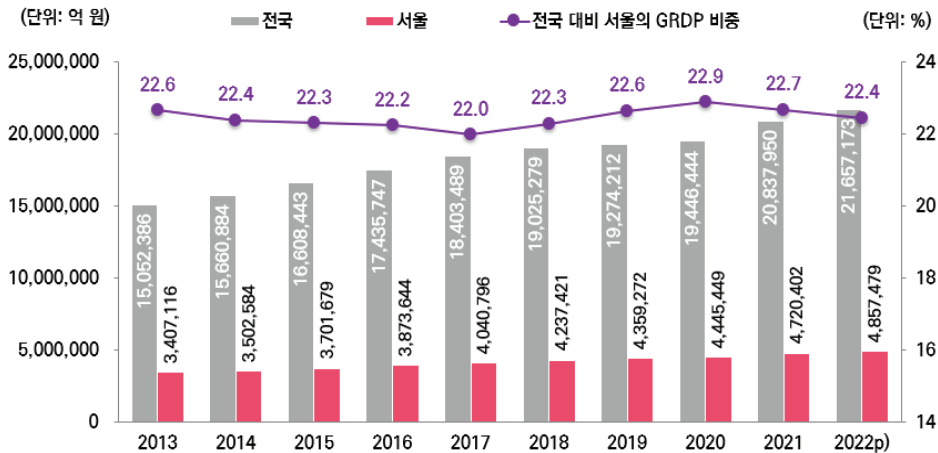
미래에도 혁신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연구개발비(R&D)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증가 속도가 경기도에 비해 느린 편이다. 2013년 서울 연구개발비는 10.7조 원에서 2022년 17.7조 원으로 총량적으로는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2013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서울은 18.0%에서 15.7%로 감소한 반면에 경기도는 46.1%에서 51.2%로 증가하였다. 즉 서울의 연구개발비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전국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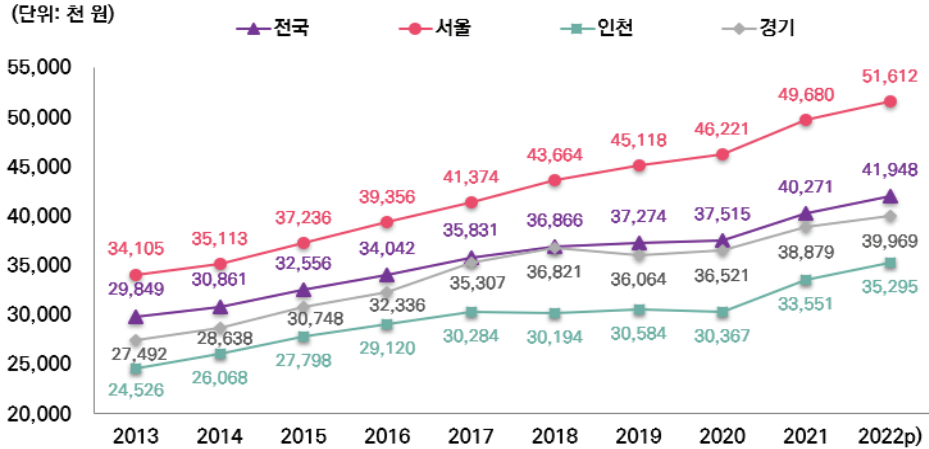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

통계청의 지역소득 통계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성장을 총량적으로 보여주는 서울의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잠정치)에 485조 7,479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대비 22.4%로 나타났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잠정치) 서울의 1인당 GRDP는 5,161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에 비해 1.5배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35〉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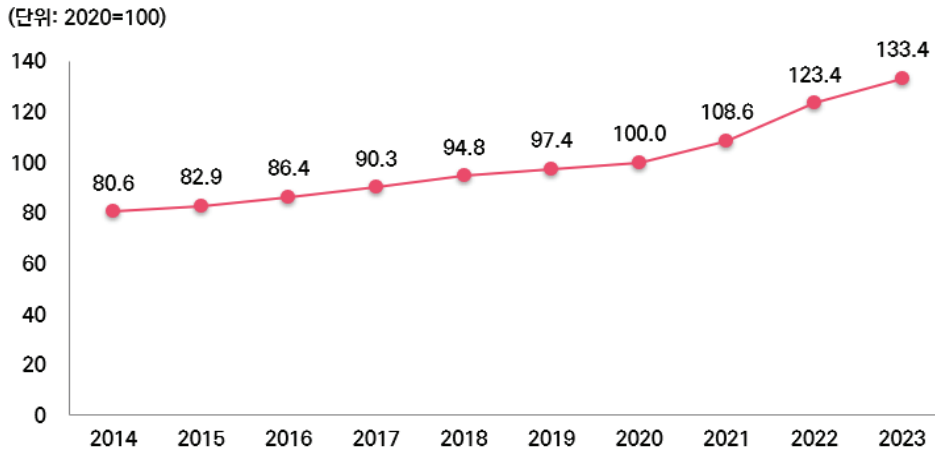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36〉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서비스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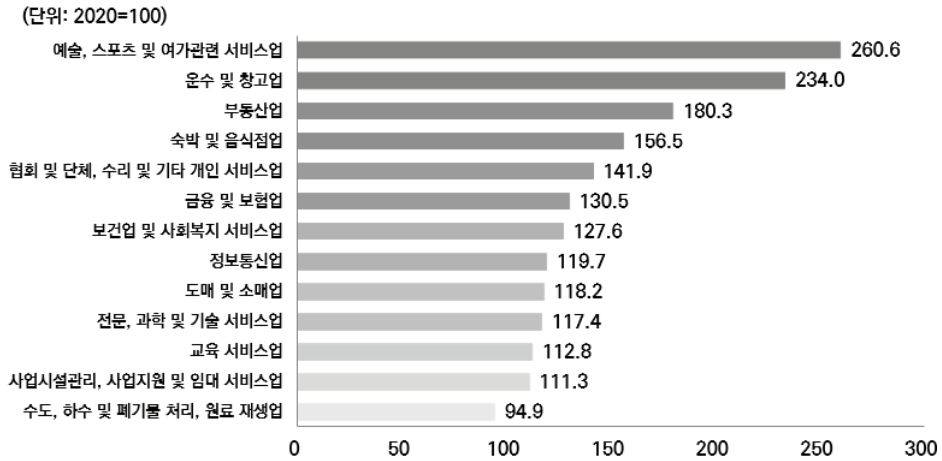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33.4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최근 10년 동안 증가 추세로 2014년 대비 52.8p 증가하였다.



주) 2021~2022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37〉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지수)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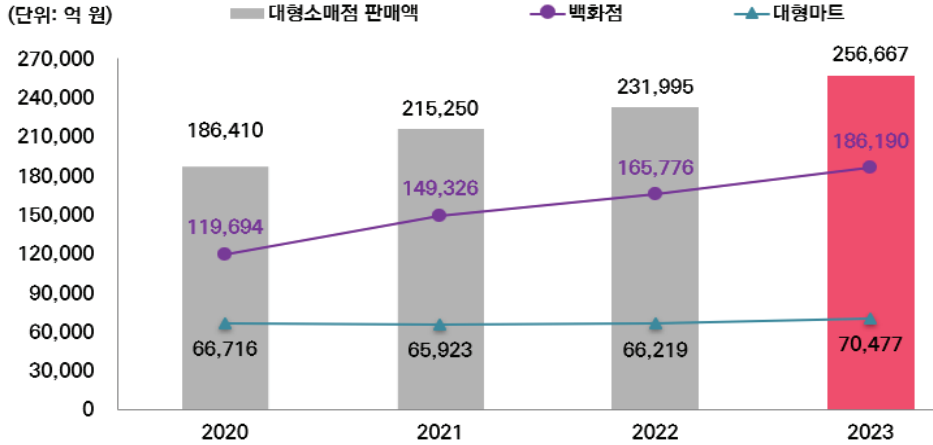
〈그림 3-38〉 서울 13개 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지수)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의 서울시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23년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26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 및 창고업’(234.0), ‘부동산업’(180.3), ‘숙박 및 음식점업’(156.5)의 생산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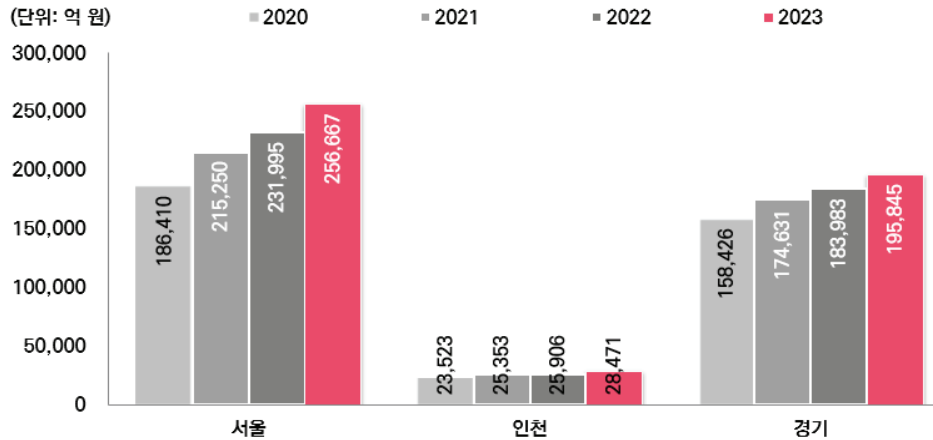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총 25조 6,667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다. 이 중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72.5%(18조 6,190억 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7.5%(7조 477억 원)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경기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9조 5,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인천은 2조 8,4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39〉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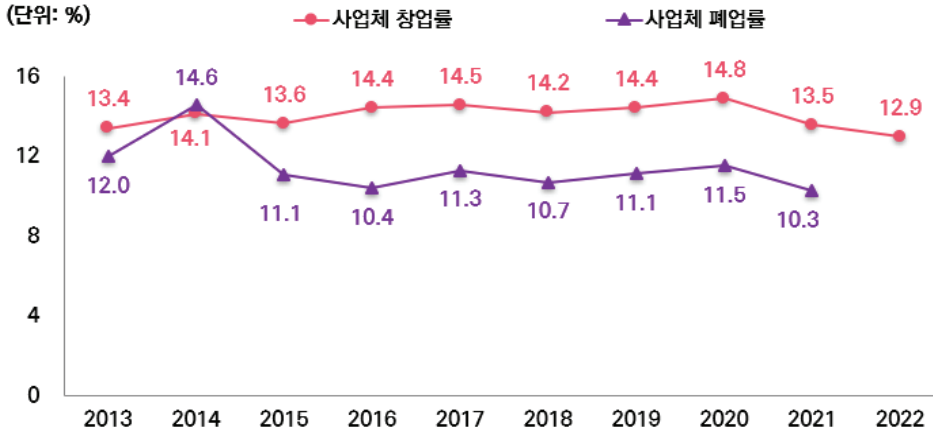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3-40〉 수도권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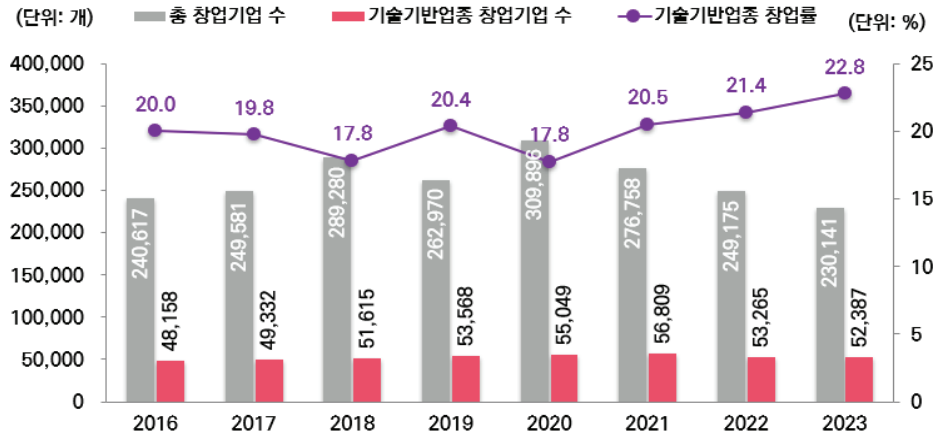
• 사업체 창업·폐업률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사업체 창업률은 12.9%(신생 기업 수 195,073개)로 2013년 이후 13~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다. 사업체 폐업률은 2021년 기준 10.3%(소멸기업 수 151,670개)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다.



주) 2022년 소멸기업수 데이터 미제공(2024.10.31. 기준),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림 3-41〉 서울의 사업체 창업률과 폐업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그림 3-42〉 서울의 창업기업 수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23년에 서울에서 창업된 기업 수(사업자 등록 자료 기준)는 총 230,141개로, 전년 대비 19,034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52,387개로, 전체 창업 수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업종의 창업률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 외국인 투자유치

서울시 금융투자과의 외국인 투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13년 이후 1,000~1,600건으로 변화가 유동적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건수는 2022년에 1,566건으로 전년 대비 150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대비 374건 증가하였다. 반면에 2021년에 180억 3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22년에 107억 2천 5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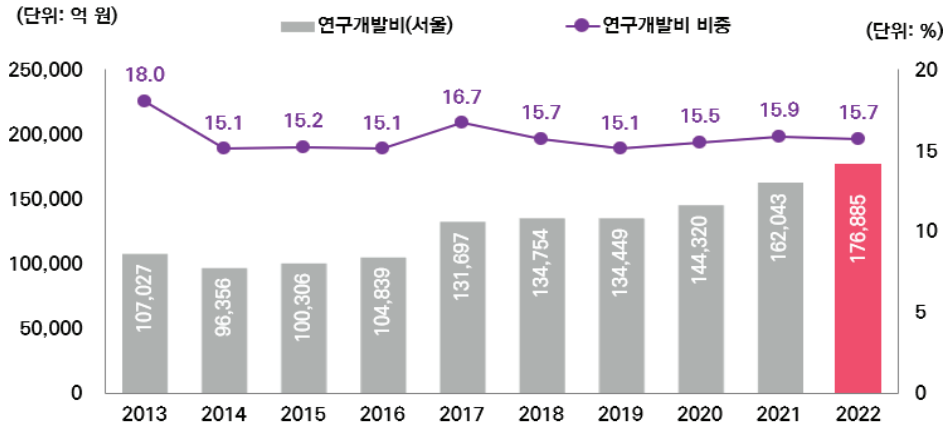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 투자 현황

〈그림 3-43〉 서울의 외국인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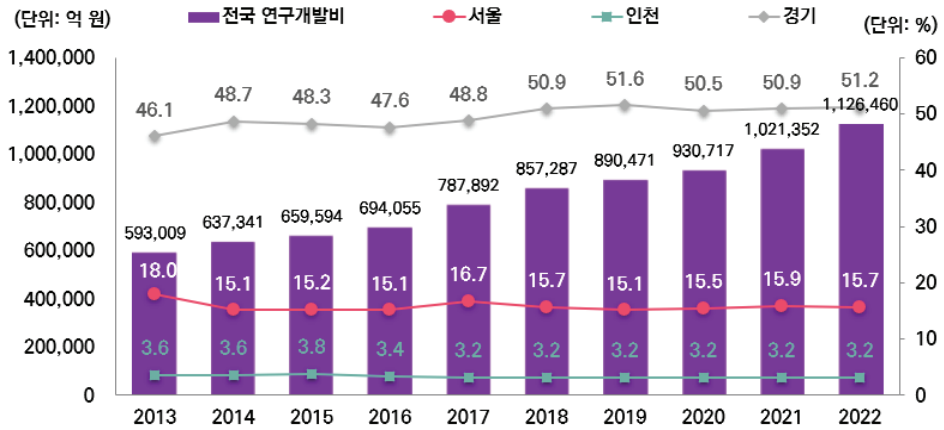
•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연구개발비는 17조 6,885억 원으로 전국 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연구개발비는 57조 7,028억 원(51.2%)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0.3%p 증가하였으며, 인천의 연구개발비는 3조 6,029억 원(3.2%)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13년 대비 서울과 인천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2.3%p, 0.4%p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연구개발비는 5.1%p 증가하였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3-44〉 전국 대비 서울의 R&D 투자 비중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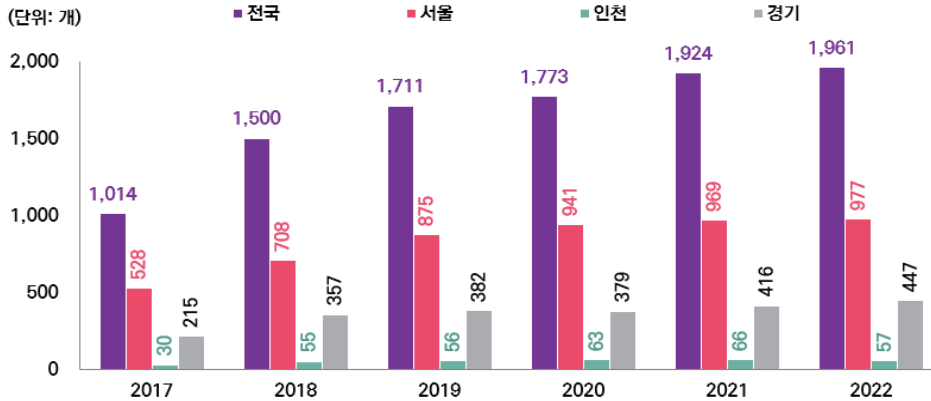
〈그림 3-45〉 전국 대비 수도권의 R&D 투자 비중

•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중 4차 산업혁명기술⁸⁾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체는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국의 4차 산업혁명 기업 수는 1,961개로 전체 기업체(13,824개)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1,014개, 전체 기업체의 8.1%)에 비해 2배 가까이

8)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5G(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 Chain), 3D프린팅, 로봇공학(Robotics), 가상·증강현실(VR, AR)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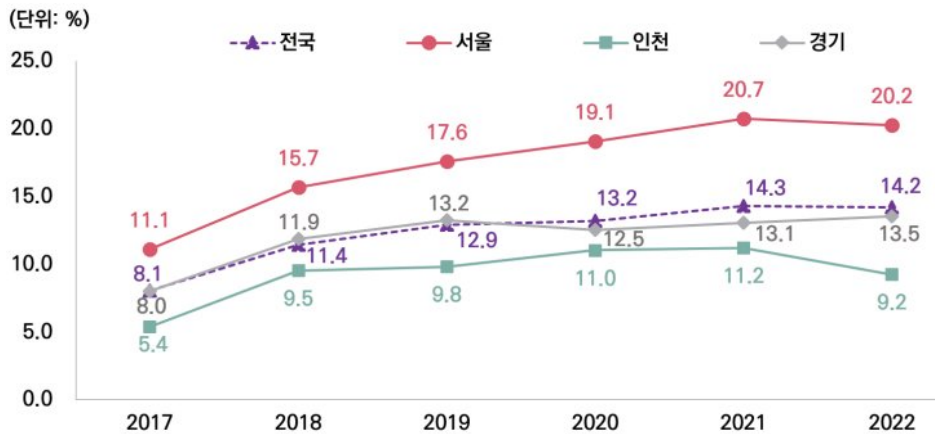
증가하였다. 서울의 4차 산업혁명 기업체 또한 2022년에 977개로 전체 기업체 (4,825개)의 2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528개, 전체 기업체의 11.1%) 대비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그림 3-46〉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체 중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체가 차지 하는 비중은 서울이 20.2%로 전국 평균(14.2%)보다 높고, 매년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반면, 초반에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던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4차 산업혁명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4차 산업혁명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다.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그림 3-47〉 4차 산업혁명 기업 비중

2. 소득과 고용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의 평균 가구 소득과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소득 격차와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진단과 노력 추가가 필요

1인당 GRDP가 꾸준히 증가한 것처럼, 서울의 가구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434만 원에서 2023년 575만 원으로 지난 9년간 월 141만 원이 증가했다. 가구 소득 증가율은 2017년 마이너스(-1.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되어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했다(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2년 10.1%, 2023년 8.0%).

한편 2023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0.88로, 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111.59)보다는 낮았고 가구 소득 증가는 높았으므로, 서울 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계 살림이 덜 팍팍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의 꾸준한 가구 소득 증가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가구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4년 5.55에서 2018년 6.80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5.47로 하락했으나 2022년 5.72, 2023년 5.86으로 다소 심화되었다.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인구가 몰리는 대도시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상 전국보다는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여왔다. 2023년 서울 고용률은 61.1%로 경기(64.0%)나 전국(62.6%)보다 낮았다. 같은 기간 서울 실업률은 2.7%로 전국(2.7%)과 유사했다. 기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고용률은 2021년 59.2%를 바닥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22년 60.4%, 2023년 61.1%였다. 전 기간 동안 고용 회복되는 모습은 서울 실업률이 2021년 4.8%, 2022년 3.4%, 2023년 2.7%로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구직단념자 비율도 감소하여 2020년 3.1%의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22년 1.7%, 2023년 1.9%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청년 니트 비율 감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021~2023년 각각 13.8%, 12.4%, 11.3%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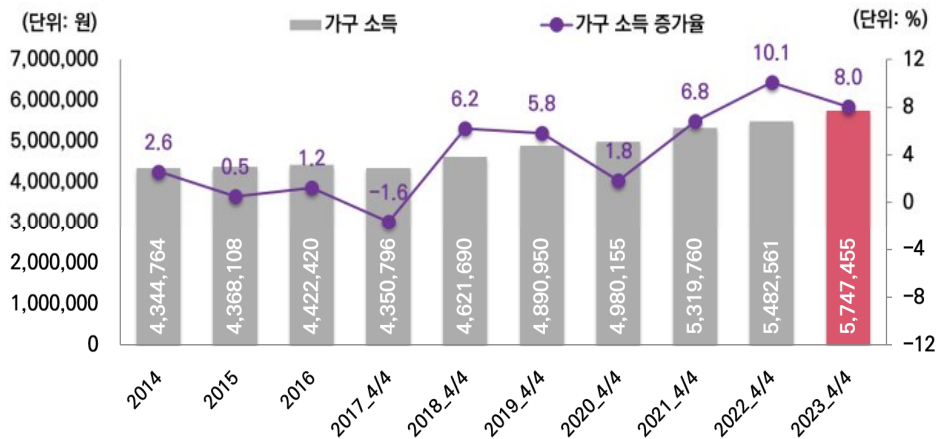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고용 형태는 서울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3.1%p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자영업자(13.7%, 전년 대비 -2.4%p),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13.5%, 전년 대비 -0.7%p), 특수고용종사자(1.1%, 전년 대비 0.3%p), 무급가족종사자(0.8%, 전년 대비 -0.2%p) 순이었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여 가구소득 안정성이 확보되기는 하였으나,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소득 불안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표 설명

• 가구 소득 증가율

통계청은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계동향조사에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 이상 결과표는 20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전국)에 의하면 2023년 4/4분기 기준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7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 분기 대비 4.8% 증가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4년 434만 원에서 지난 10년간 140만 원가량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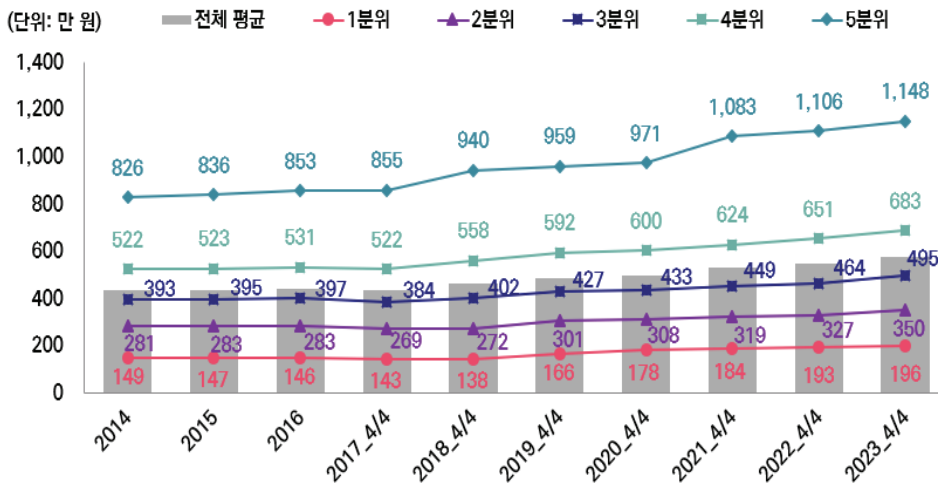
주: 1)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48〉 전국의 가구 소득 증가율

• 분위별 소득 분포(소득 5분위배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4/4분기 기준 전국의 도시 1인 이상 근로자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5분위별 평균소득은 1분위 196만 원, 2분위 350만 원, 3분위 495만 원, 4분위 683만 원, 5분위 1,148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1분위의 평균소득이 47만 원(31.6%) 증가한 데 비해, 5분위는 322만 원(38.9%)이나 증가해 분위별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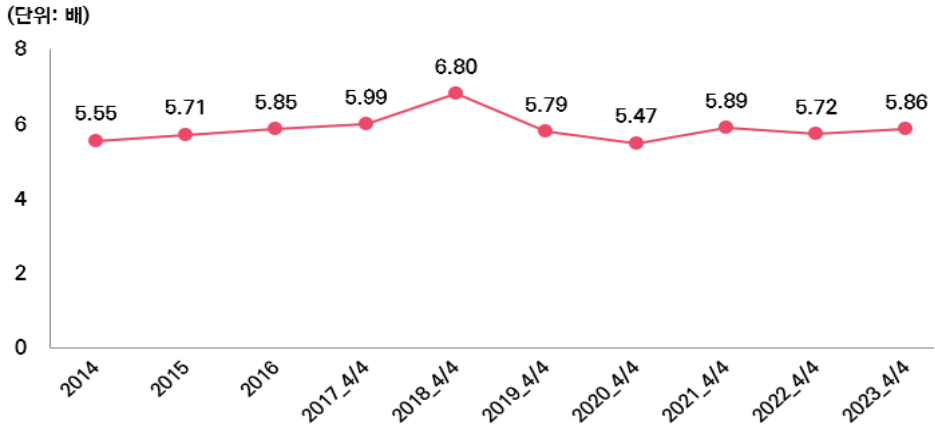


주: 1)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49〉 전국의 분위별 가구 소득 분포

전국의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을 살펴보면, 2023년 4/4분기 기준 5.86배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배율은 2018년 4/4분기에 6.8배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1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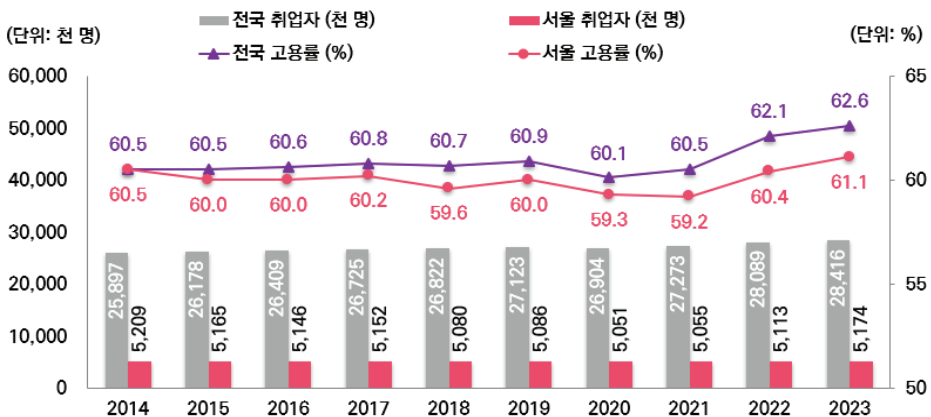


주: 1) 2011~2018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비농림어가)
 2) 2019~2020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3) 2017년 이후: 4/4분기 기준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50〉 전국의 소득 5분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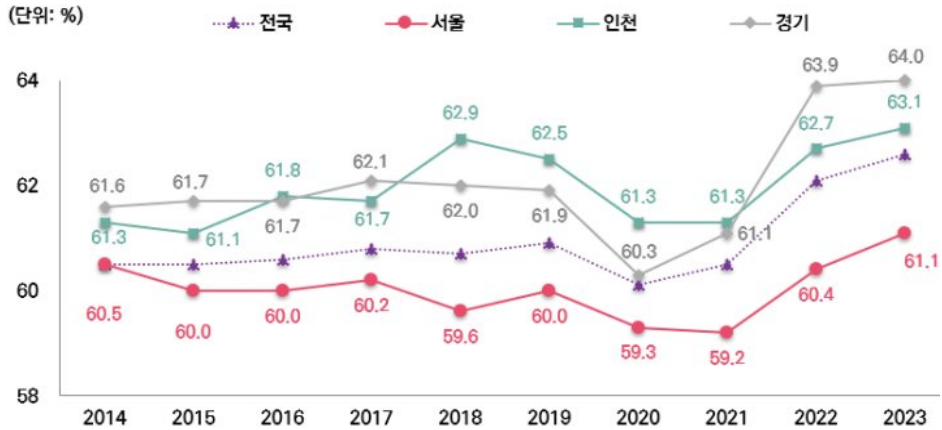
• 고용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인 서울시 고용률은 2023년에 61.1%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59~60% 사이에서 정체하던 서울시 고용률은 2023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국 고용률과의 격차는 2022년 1.7%p에서 2023년에 1.5%p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인천과 경기도의 고용률은 각각 63.1%, 64.0%로 서울보다 높으며, 전년 대비 각각 0.4%p, 0.1%p 상승하였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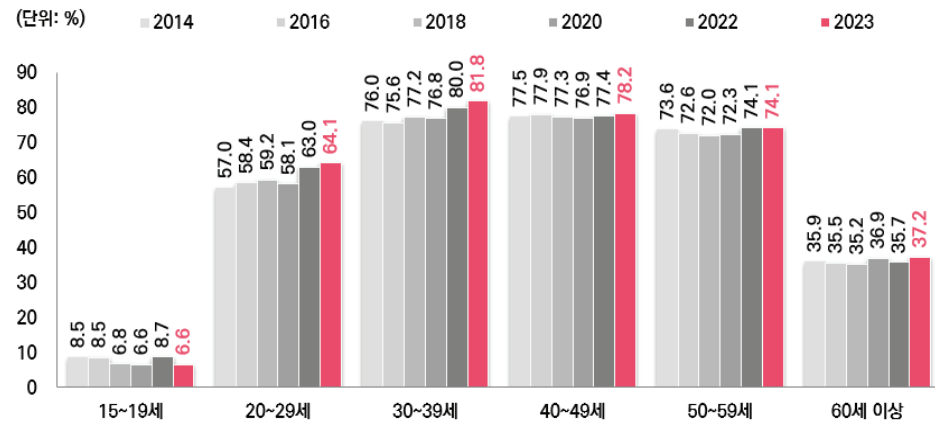
〈그림 3-51〉 전국과 서울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2〉 수도권별 고용률

연령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30~39세의 고용률이 81.8%로 가장 높고, 40~49세 78.2%, 50~59세 74.1%, 20~29세 64.1%, 60세 이상 37.2%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20~29세와 30~39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고(각각 7.1%p, 5.8%p), 15~19세의 고용률은 감소하였다(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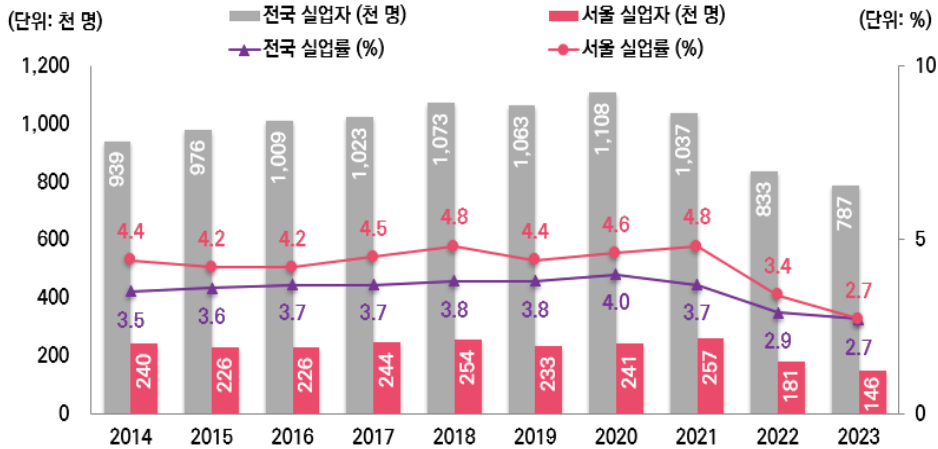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3〉 서울의 연령별 고용률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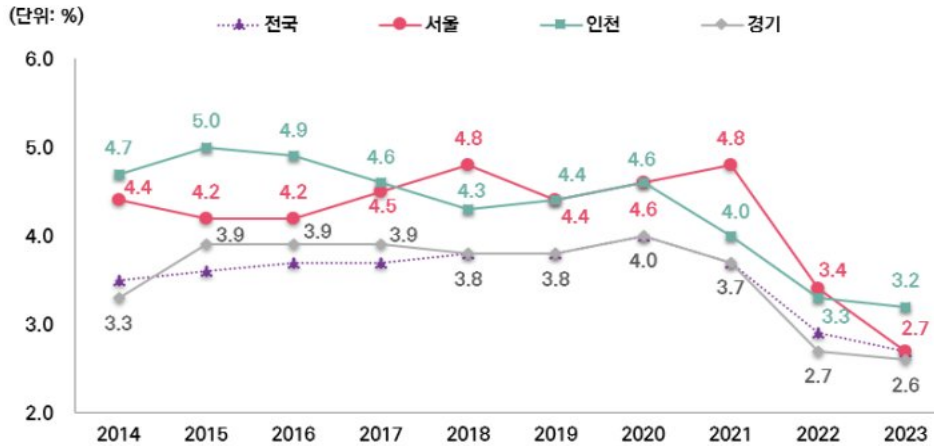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4〉 전국과 서울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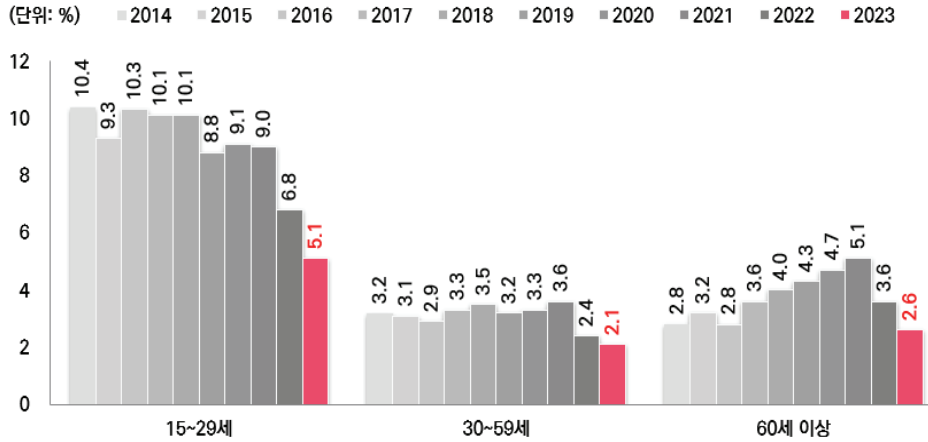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인천의 실업률은 3.2%, 경기도의 실업률은 2.6%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수도권의 실업률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실업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0.7%p).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5〉 수도권별 실업률

연령별로 서울시민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15~29세의 실업률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 2.6%, 30~59세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 연령에서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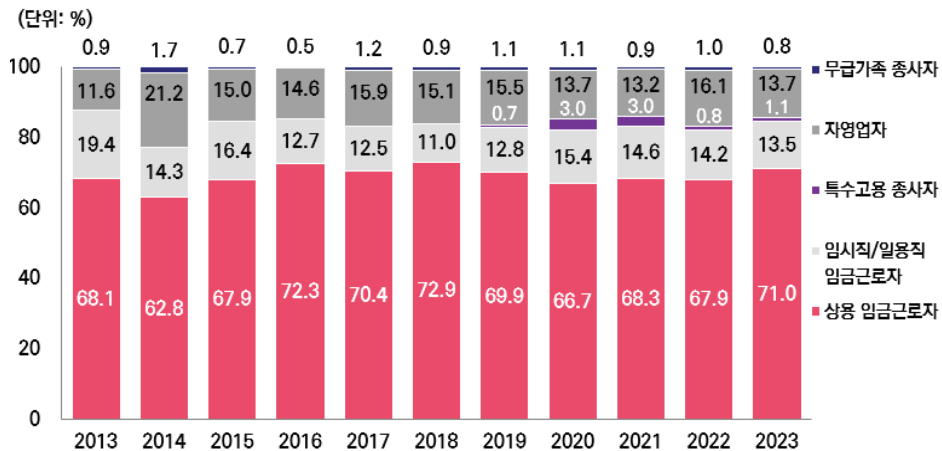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6〉 서울의 연령별 실업률

• 고용형태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직업이 있는 응답자 기준), 2023년 서울시민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71.0%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13.7%),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13.5%), 특수고용종사자(1.1%), 무급가족종사자(0.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용직 임금근로자(3.1%p)와 특수고용종사자(0.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2.4%p)와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0.7%p) 비율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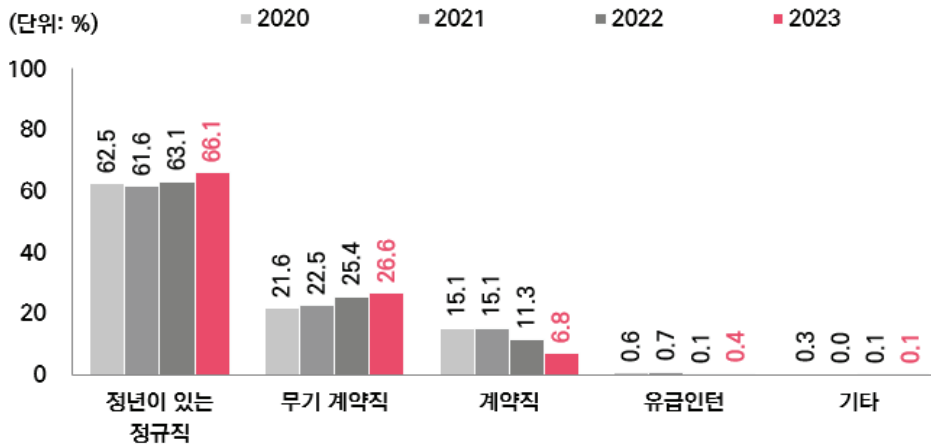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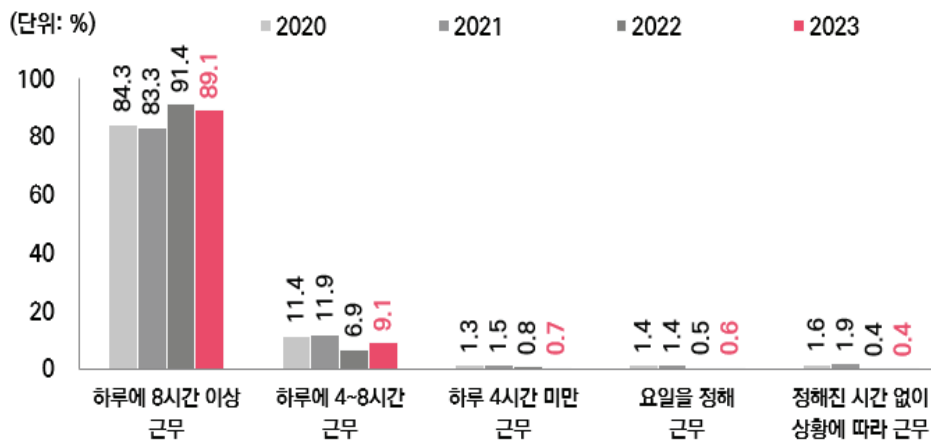
〈그림 3-57〉 서울시 근로자의 고용형태

직업이 있는 서울시민 중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계약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년이 있는 정규직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계약직 26.6%, 계약직 6.8%, 유급인턴 0.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정년이 있는 정규직은 3.0%p, 무기 계약직은 1.2%p, 유급 인턴은 0.3%p 증가한 반면, 계약직 비율은 4.5%p 감소하였다. 이들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89.1%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4~8시간 근무하는 비율은 9.1%로 조사되었다.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58〉 서울시 근로자의 고용계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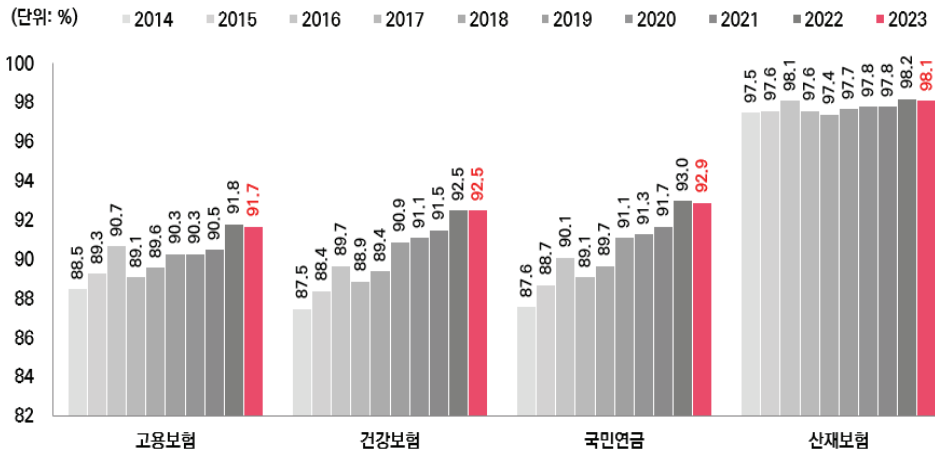


주) 직업이 있는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기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59〉 서울시 근로자의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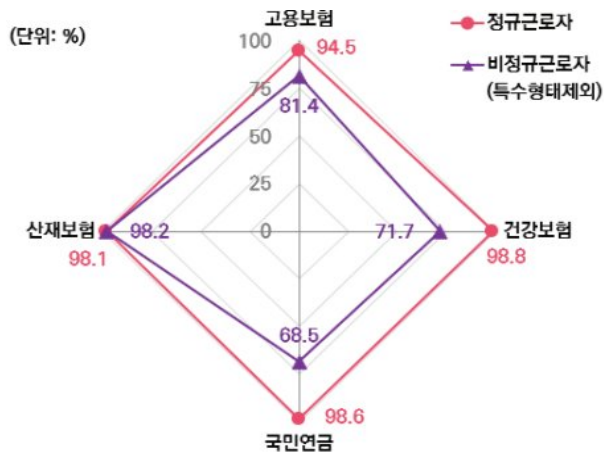
•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23년 전국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비율은 평균 93.8%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 가입률이 98.1%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연금(92.9%), 건강보험(92.5%), 고용보험(91.7%)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10년 전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5.3%p)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5.0%p), 고용보험(3.2%p), 산재보험(0.6%p)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3-60〉 전국의 사회보험 가입률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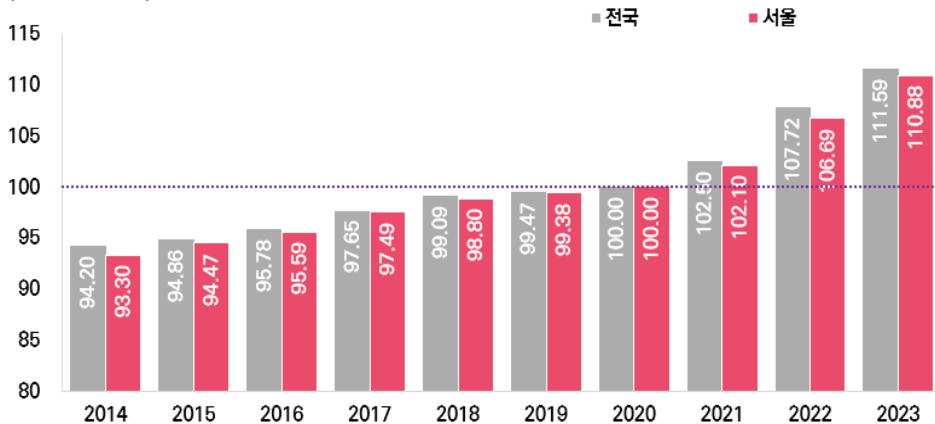
〈그림 3-61〉 전국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94~99%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근로자(특수형태제외)의 4대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가입률(98.2%)을 제외하면 68~81%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68.5%에 불과하였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71.7%, 고용보험 가입률은 81.4% 수준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100 기준)는 110.88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위: 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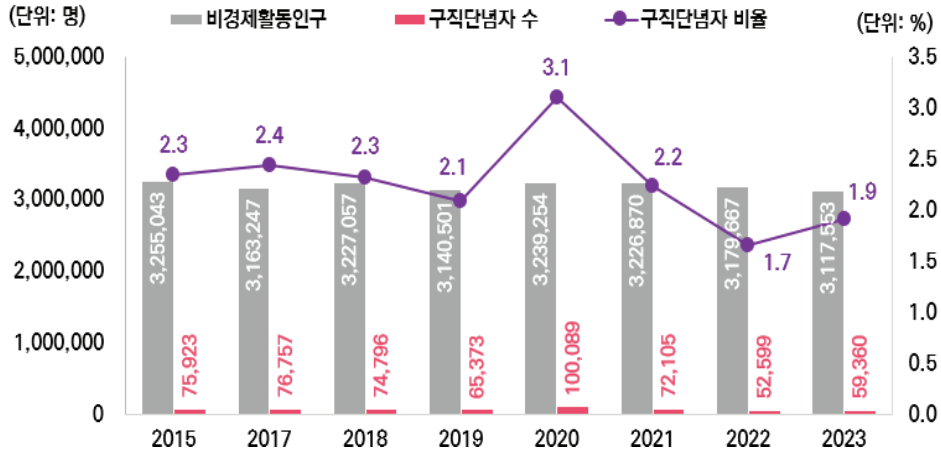
주) 2020년=100 기준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시도)

〈그림 3-62〉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 구직단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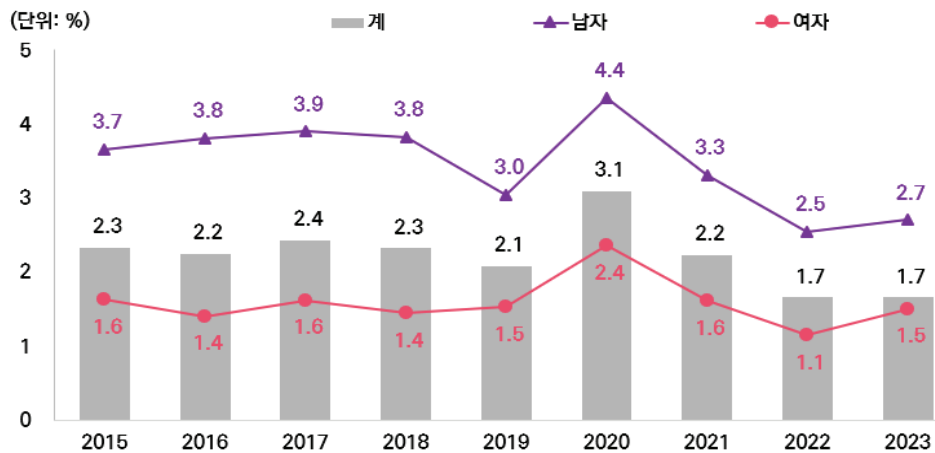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2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구직단념자 수는 59,360명(1.9%)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구직단념자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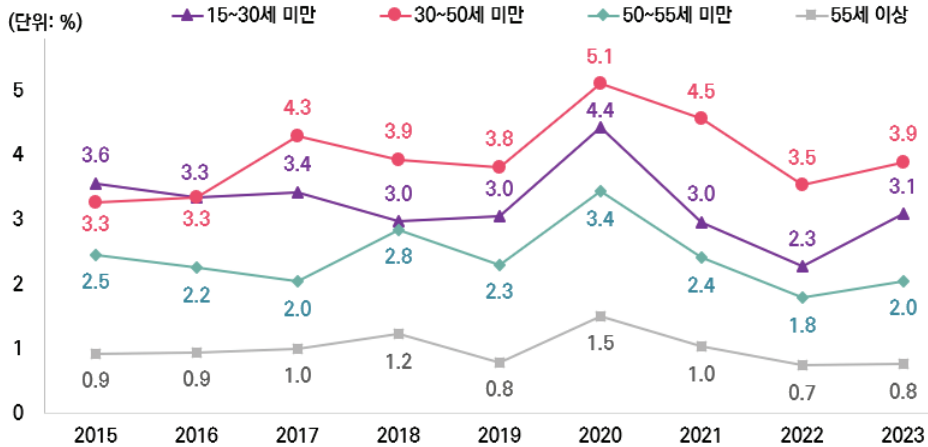
〈그림 3-63〉 서울의 구직단념자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남성의 구직단념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30~5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서울 남성 중 구직단념자 비율은 2.7%, 여성 중 구직단념자 비율은 1.5%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50세 미만의 구직단념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고, 15~30세 미만(3.1%), 50~55세 미만(2.0%), 55세 이상(0.8%)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15~3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 이후 30~50세 미만 연령층의 구직단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64〉 서울의 성별 구직단념자 비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65〉 서울의 연령별 구직단념자 비율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 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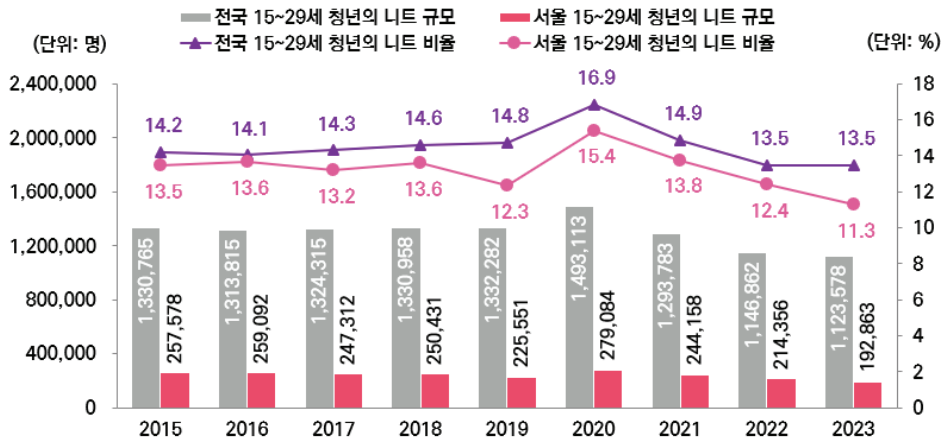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청년 니트 비율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 거주 15~29세 청년의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인구는 192,86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15~29세 청년 인구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15~2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15.4%까지 증가하였지만,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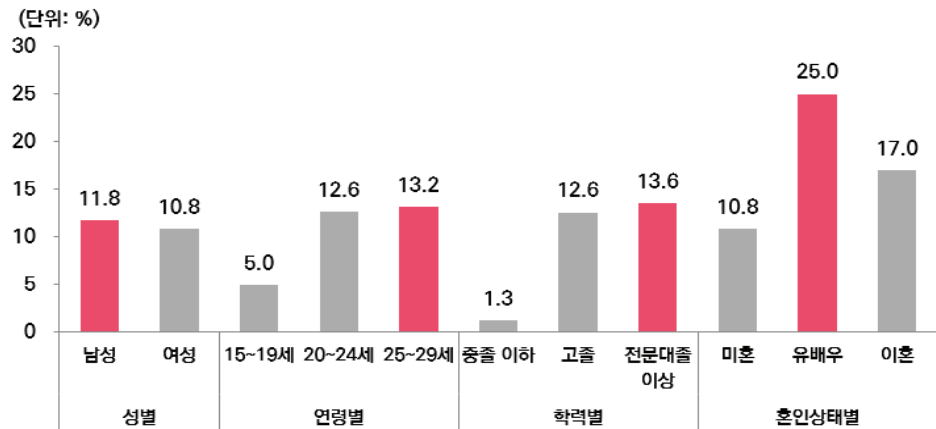
2023년 서울 거주 15~2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을 인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 25~29세 연령층, 전문대졸 이상, 유배우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남성의 11.8%, 청년 여성의 10.8%가 니트 인구로 분석되었으며, 25~2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이 13.2%로 가장 높았다. 그 외 20~24세 청년의 니트 비율은 12.6%, 15~19세 청년의 니트 비율은 5.0%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집단에서 니트 비율이 13.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학력에서는 12.6%,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1.3%가 니트 인구로 분석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청년

니트 비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유배우 집단(육아, 가사 등)에서 니트 비율이 25.0%로 가장 많았다.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66〉 서울 청년 니트 규모 및 비율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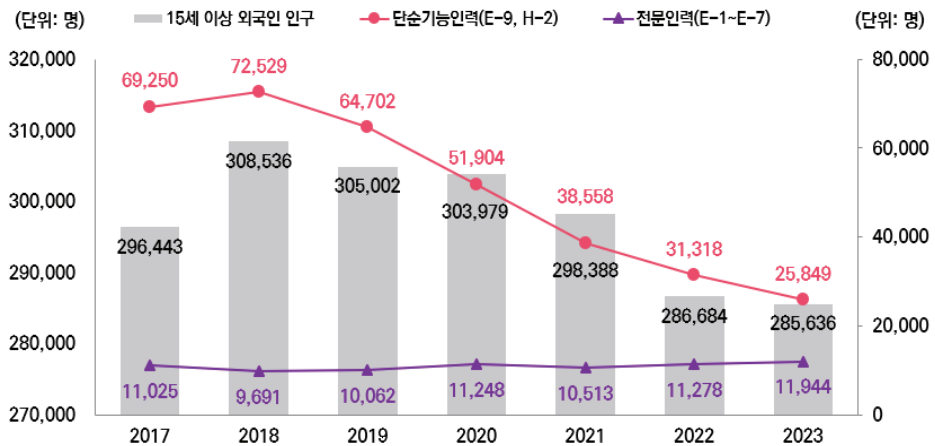
〈그림 3-67〉 인구특성별 서울 청년 니트 비율

• 청년 니트 비율

-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함
- 니트 규모 : 실업자+기초(학원) 통학자 제외 비경제활동(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수업+기타)
- 청년 니트 비율: 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통학자'를 제외한 청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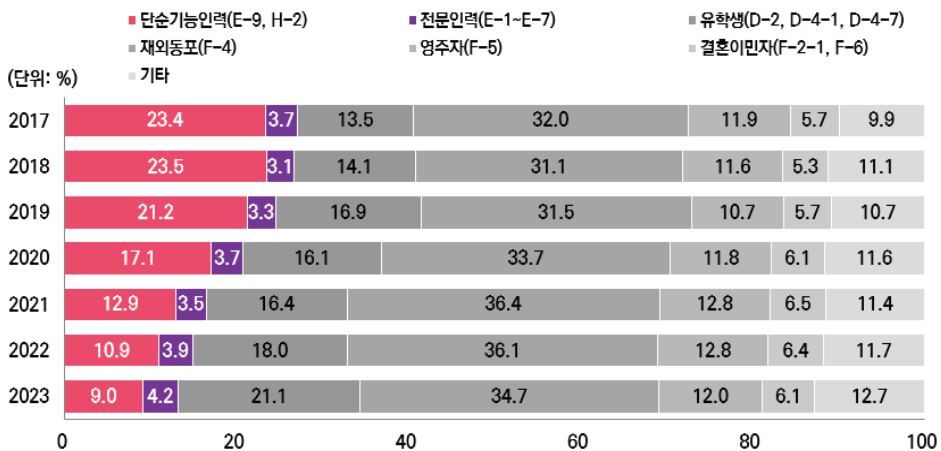
•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에 체류 중인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는 총 285,63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현재 취업비자를 소지한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과 전문인력(E-1~E-7)은 37,793명(단순기능인력 25,849명, 전문인력 11,944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그림 3-68〉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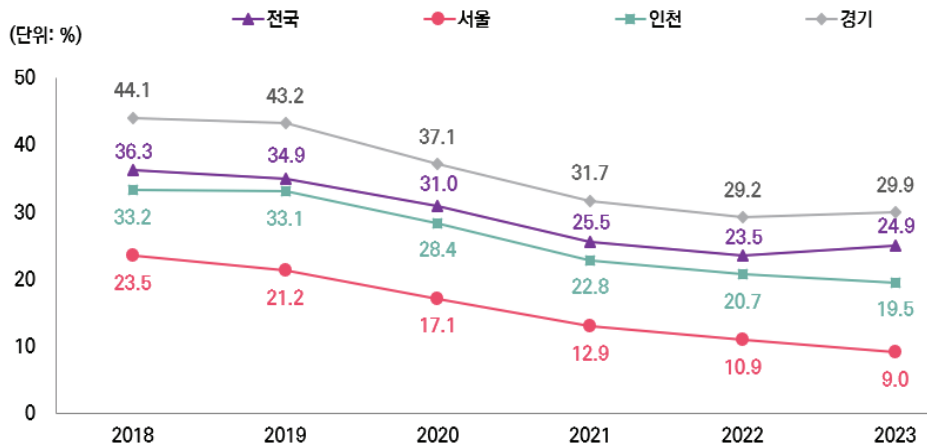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그림 3-69〉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

2018년 이후 외국인 인구의 감소세와 더불어 단순기능인력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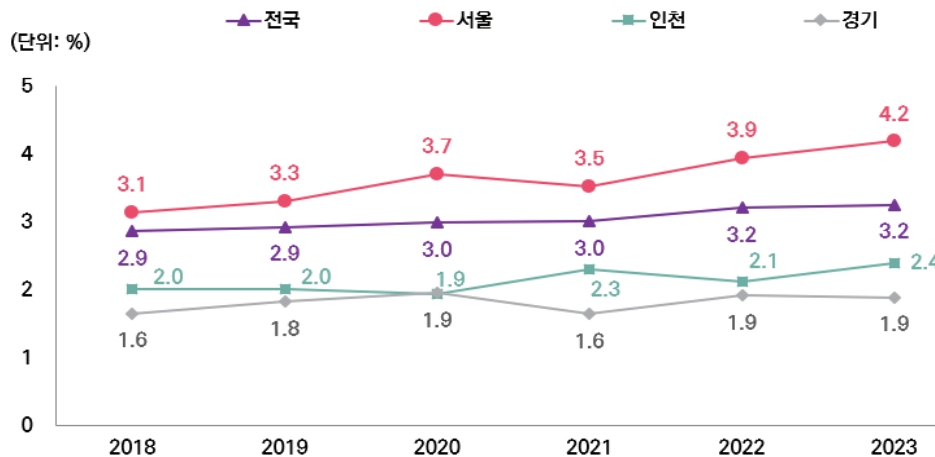
있는 반면, 전문인력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전체 외국인의 23.4%를 차지하던 단순기능인력은 2023년에 9.0%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문인력은 2017년 3.7%에서 2023년에 4.2%로 증가하였다.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인구 중에서 단순기능인력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인력 비율은 조금씩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단순기능인력 비율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은 반면, 전문인력 비율은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가장 낮다.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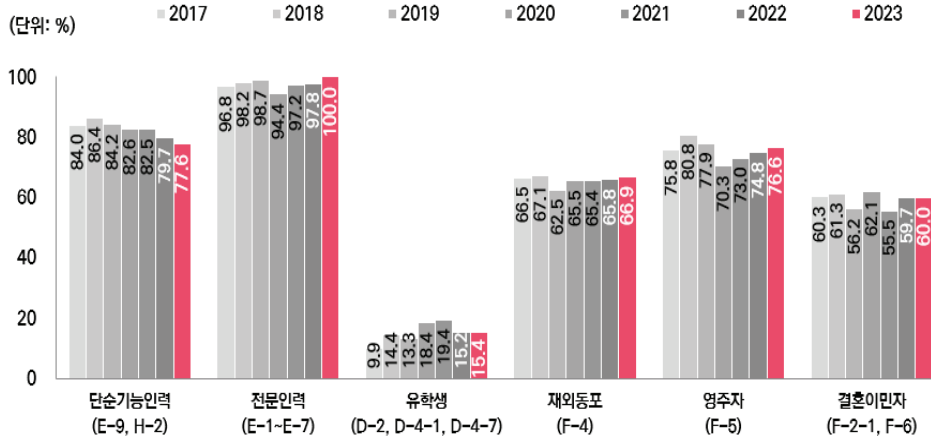
〈그림 3-70〉 수도권별 단순기능인력 외국인 노동자 비율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그림 3-71〉 수도권별 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 비율

서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86% 사이에 머무는 반면, 전문인력(E-1~E-7)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4%~100%로 차이를 보였다.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그림 3-72〉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제3절 도시생활과 주거

1. 주거

1) 요약 및 정책 제언

주택가격 하락으로 내 집 마련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부담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택매매가격이 2022년 이후 하락했다. 그 후 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팬데믹 이후 정점에 달했던 가격수준까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감소하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IR은 여전히 10배를 상회 할 정도로 높은 부담 수준이며,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주택구입물량지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약간의 개선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주거비 과부담 상태인 임차가구 증가

전세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2021년까지 지속 상승했고, 월세가격은 2019년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주거비부담이 과중한 임차가구의 비중도 늘어났는데, 임차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중이 2021년에는 14.7%였지만 2022년에는 22.9%까지 증가했다. 한편, 중·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 내외의 규모로 신규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2023년 말 기준으로 주택재고량이 전체 가구의 10%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비 과부담 상태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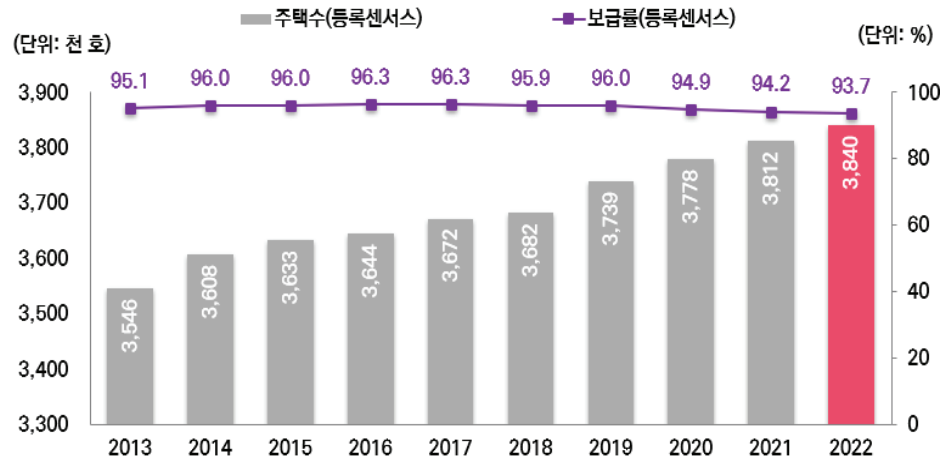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2022년 73.2만 호에서 2023년 82만 호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전체 주택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6%에서 26%로 증가했다. 또한 주거환경 만족도는 2022년 7.20점에서 2023년 6.89점

으로 하락했다. 향후 노후주택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주택이 늘어날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성능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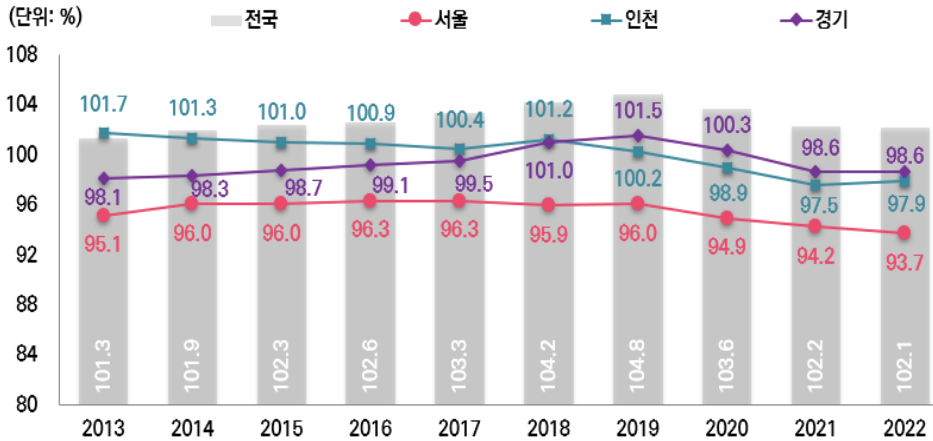
•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주택 수는 총 384만 호이며, 주택보급률은 93.7%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서울의 전체 주택 수는 0.7% 증가 하였지만, 주택보급률은 0.5%p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102.1%)과 수도권(98~99%)의 주택보급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그림 3-73〉 서울의 주택수 및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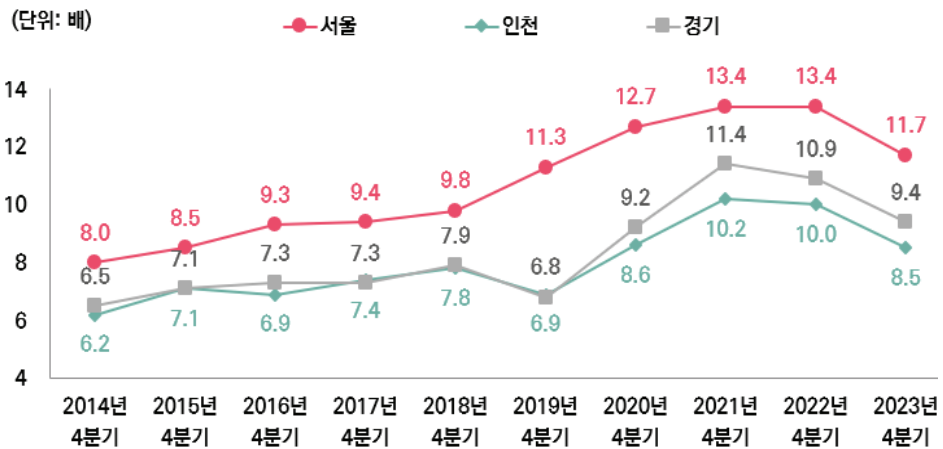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그림 3-74〉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

•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던 서울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은 2023년(4분기)에 11.7배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수도권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과 경기의 PIR 지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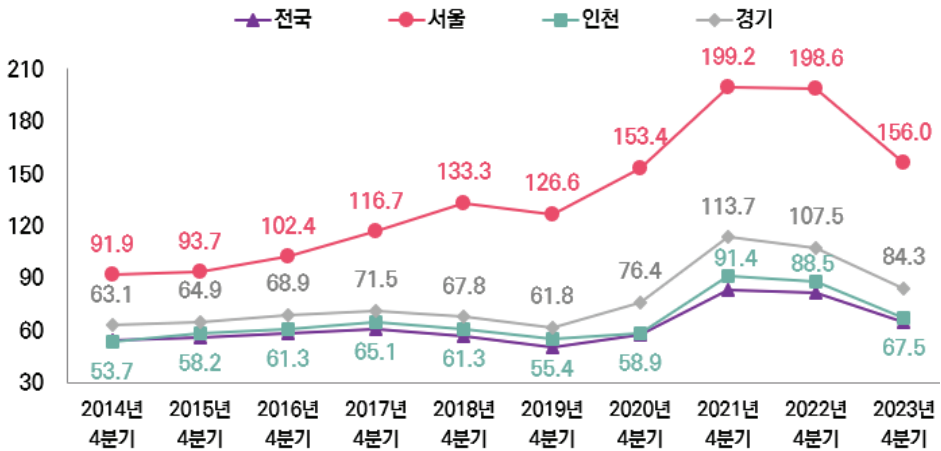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그림 3-75〉 소득 대비 주택가격

• 소득대비주택가격 (PIR) = 주택가격/가구 소득

- 가구 소득: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
- 주택가격: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실행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

한편,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⁹⁾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4분기)에는 100을 넘었고, 2021년(4분기)에는 199.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4분기)에는 크게 하락하여 156.0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42.6p 감소하면서,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다소 개선되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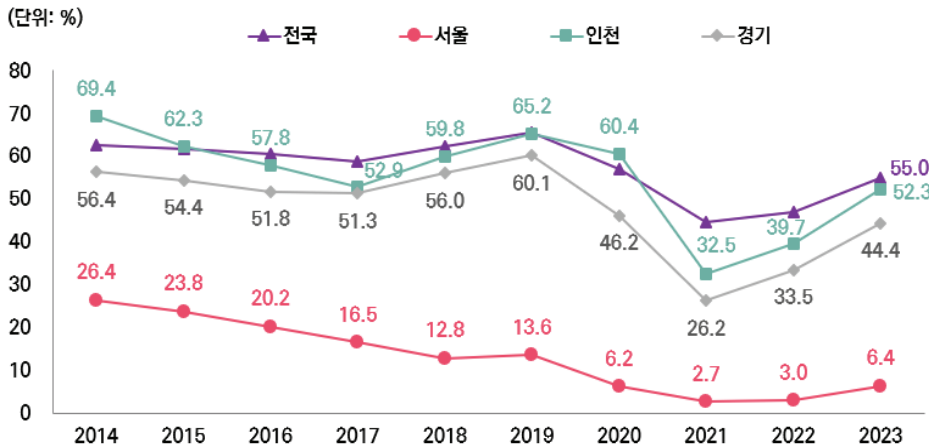
〈그림 3-76〉 주택구입부담지수

•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

- 지수의 정의: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
- 산출방식: $(\text{대출상환가능소득} / \text{중간가구소득(월)}) \times 100 = (\text{원리금 상환액(DTI)} / \text{중간가구소득(월)}) \times 100$
- 지수 수치의 의미: 예를 들어 서울 K-HAI 90.1인 경우, 이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지역의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의 90.1%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됨)

9)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했을 때 소득에 대한 상환의 부담비율을 의미하는 지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할 시 100으로 산출됨. 따라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함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¹⁰⁾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3년 전국의 주택구입 물량지수가 7.5%p 하락(62.5%→55.0%)한데 비해, 서울은 20.0%p(26.4%→6.4%) 하락하였다. 이는 인천이 17.1%p(69.4%→52.3%), 경기도가 12.0%p(56.4%→44.4%) 하락한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에 비해 서울에서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비록 2023년에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가 6.4%로 전년 대비 상승(3.4%p)하여 주택물량이 증가하였지만, 인천(12.6%p)과 경기도(10.9%p)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그림 3-77〉 주택구입물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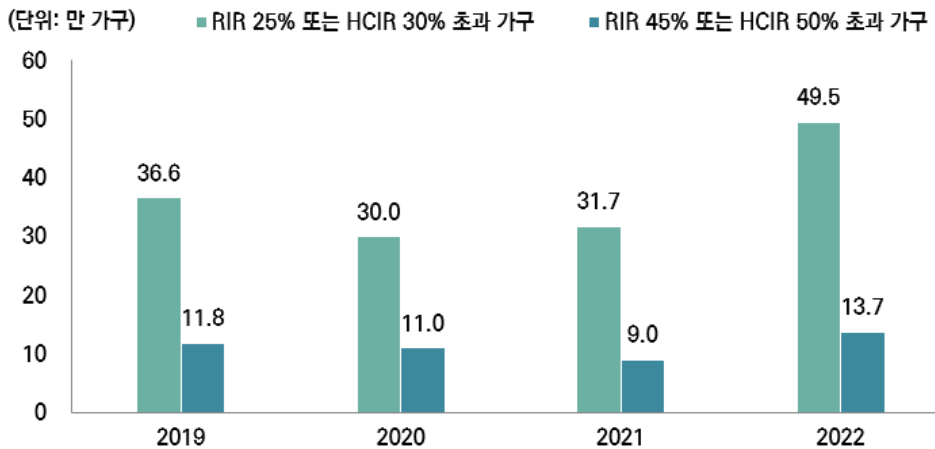
• 주택구입물량지수 (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

- 지수의 정의: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0~100)로, 지역별 주택구입가능물량을 나타내는 지수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아파트)물량을 전체 주택(아파트)물량으로 나눈 값)
- 산출방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전체주택물량) X 100
- 지수 수치의 의미: 예를 들어, 서울 K-HOI의 27.4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27.4%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반대로 코이가 높을수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것을 뜻함).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은 중위소득 가구가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100% 구입 가능함을 의미

¹⁰⁾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는 전체 주택에서 중위소득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수로, 중위소득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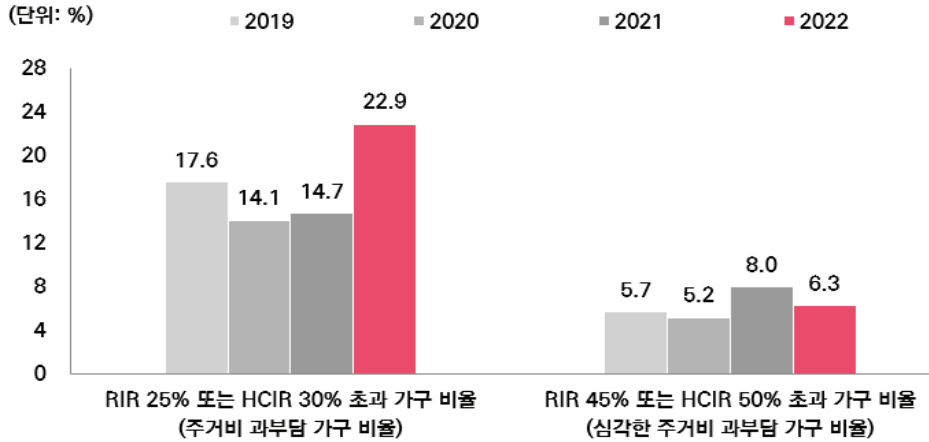
•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과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 비율(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은 주거비 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임차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 25% 또는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 30% 초과 가구는 임차 거주 가구의 22.9%(49만 5천 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45% 또는 50%를 초과하는 '심각한 과부담' 가구는 임차 거주 가구의 6.3%(13만 7천 가구)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임차 거주 가구는 17만 8천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RIR 45% 또는 HCIR 50% 초과 가구는 4만 7천 가구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임차 거주 가구 비율은 8.2%p로 크게 증가한데 반해, RIR 45% 또는 HCIR 50% 초과 임차 거주 가구 비율은 1.7%p 감소하였다.



주) 2023년 비조사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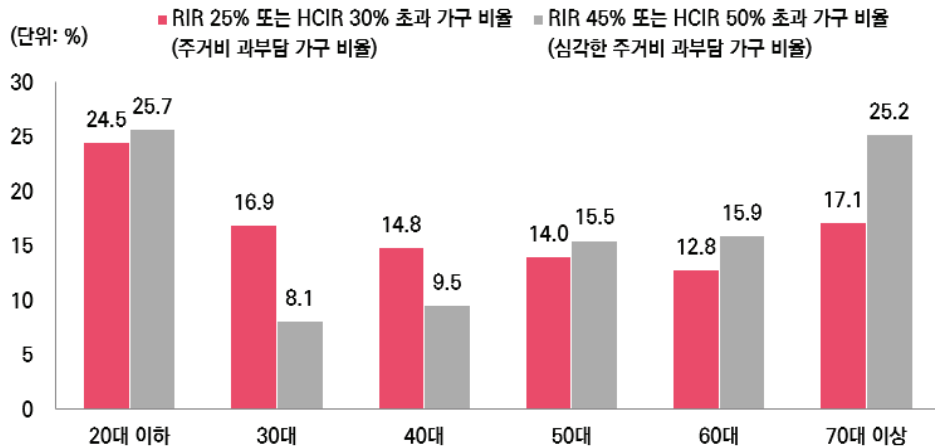
〈그림 3-78〉 주거비 과부담 가구 수



주) 2023년 비조사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그림 3-79〉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가구주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RIR 25% 또는 HCIR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20대 이하 24.5%, 70대 이상 17.1%로 나타났으며, RIR 45% 또는 HCIR 50%를 초과하는 ‘심각한 과부담’ 가구 비중은 20대 이하 25.7%, 70대 이상 25.2%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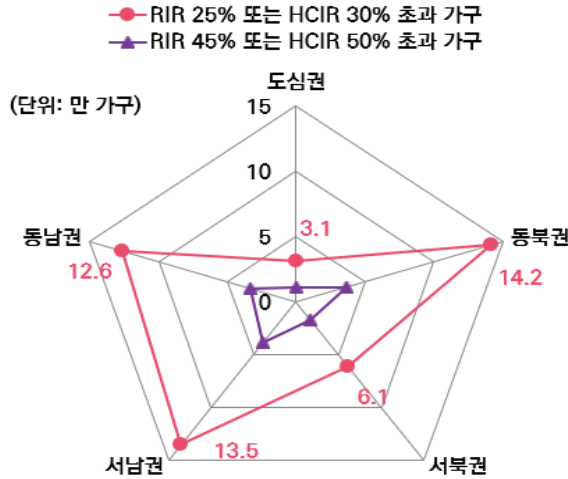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2

〈그림 3-80〉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연령별)

5대 권역별로는 2022년에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가구는 동북권(14만 2천 가구), 서남권(13만 5천 가구), 동남권(12만 6천 가구) 서북권(6만 1천 가구), 도심

권(3만 1천 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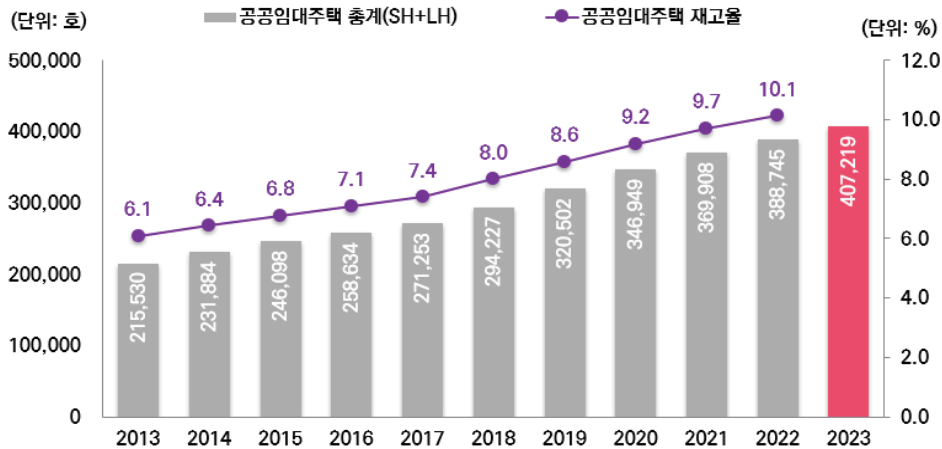
〈그림 3-81〉 주거비 과부담 가구 수(권역별)

-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 = (월 임대료/가구 월 소득)×100
-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 = ((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가구 월 소득)×1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공공임대주택은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공급한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07,219호로, 전년 대비 18,474호가 늘어났으며, 2013년 대비 19만여 호가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22년 기준 10.1%로 2013년 대비 4.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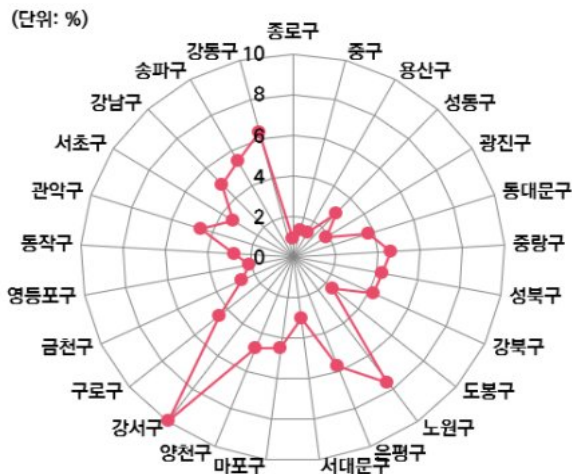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서울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40,466호(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노원구 30,929호(7.6%), 강동구 25,916호(6.4%), 은평구 23,445호(5.8%), 송파구 22,000호(5.4%), 강남구 19,856호(4.9%), 양천구 19,622호(4.8%)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종로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3,739호(0.9%)로 가장 적었으며, 중구(5,664호, 1.4%)와 용산구(5,693호, 1.4%)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주) 2023년 전체 주택 수 데이터 미공개(2024.10.31. 기준)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그림 3-82〉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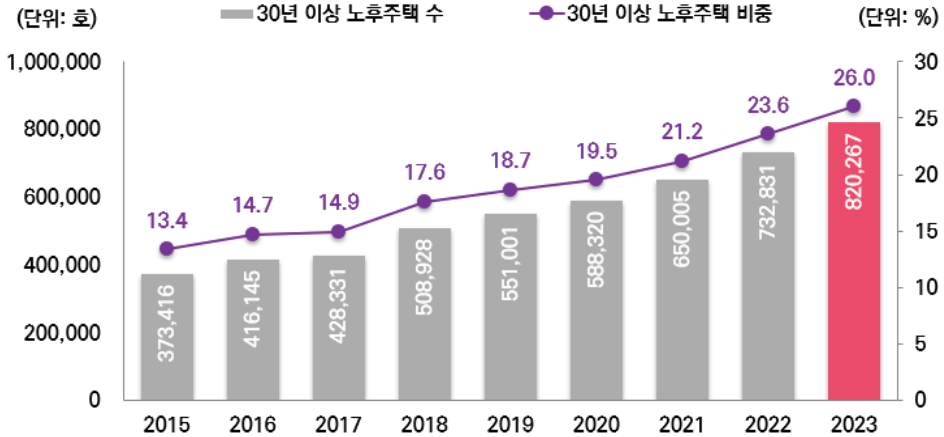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2023

〈그림 3-83〉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구별)

•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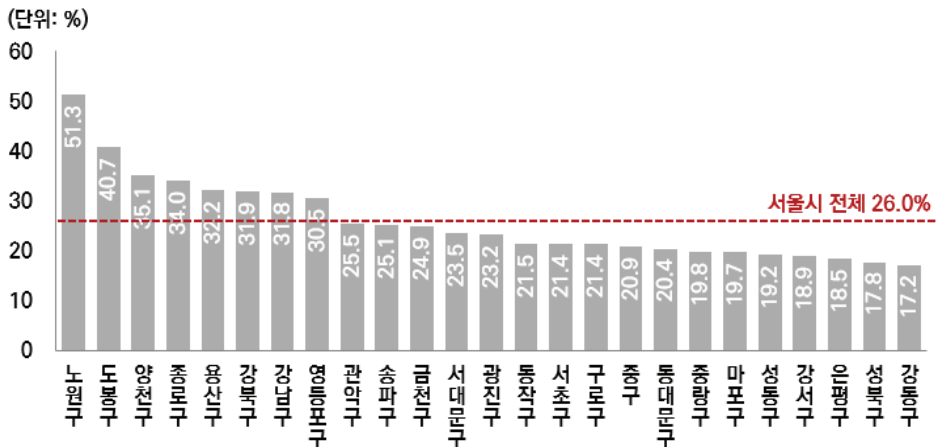
통계청의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26.0%(820,267호)로, 2015년의 13.4%(373,416호)에 비해 12.6%p(446,851호)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그림 3-84〉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51.3%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도봉구(40.7%), 양천구(35.1%), 종로구(34.0%), 용산구(32.2%)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강동구(17.2%)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성북구(17.8%), 은평구(18.5%), 강서구(18.9%)에서도 노후주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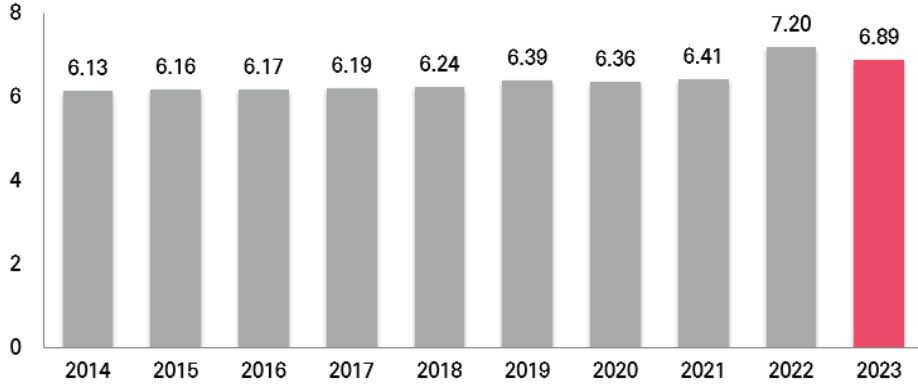
〈그림 3-85〉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구별)

•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상하수도, 주택, 전기, 녹지 등에 대한 주거

환경 만족도는 2023년에 6.89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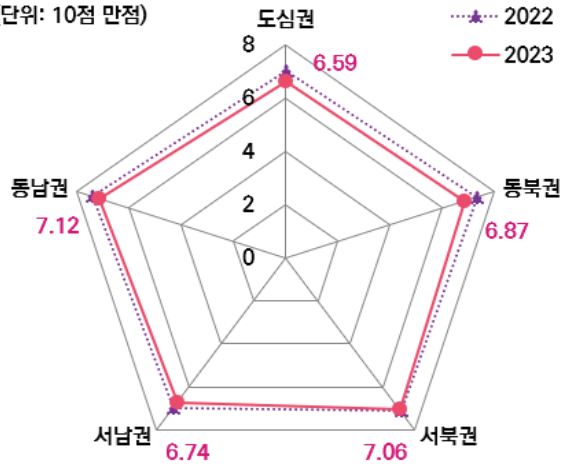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비스, 가구주조사

〈그림 3-86〉 주거환경 만족도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7.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7.06점), 동북권(6.87점), 서남권(6.74점), 도심권(6.5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모든 권역에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감소하였는데, 동북권이 가장 많이 감소(0.46점)하였고, 서북권이 가장 적게 감소(0.07점)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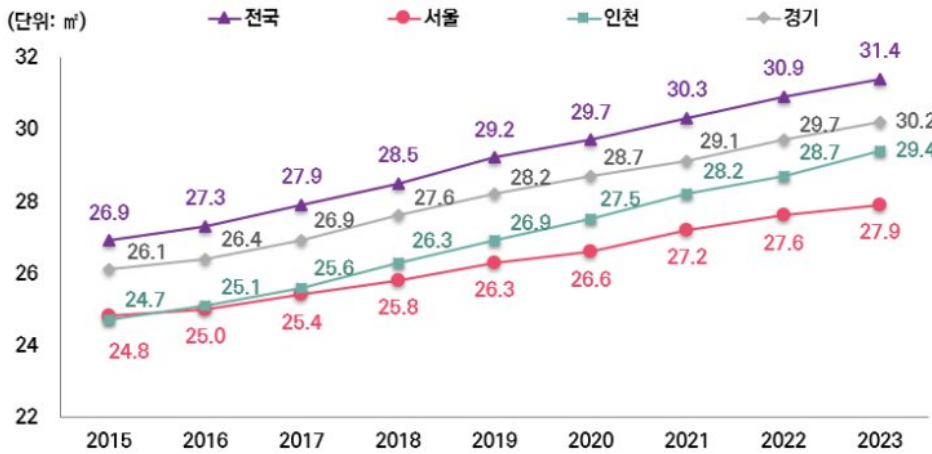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비스, 가구주조사

〈그림 3-87〉 주거환경 만족도(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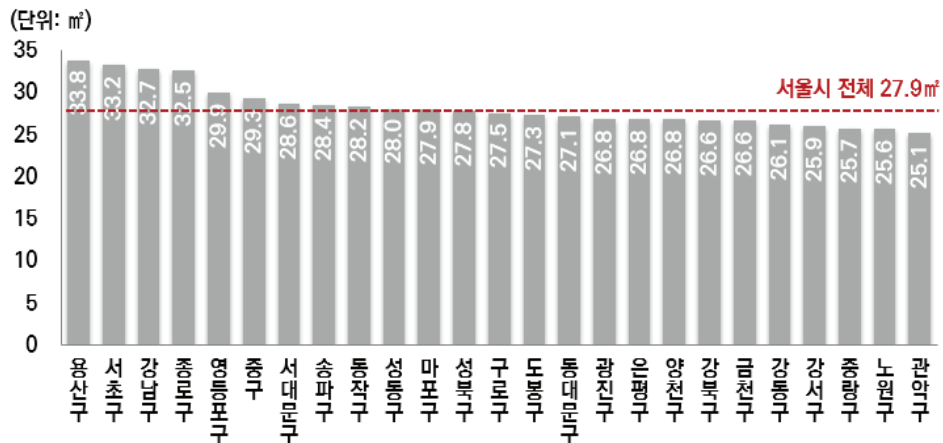
•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주거면적은 2023년 기준 27.9㎡로 조사되었으며, 전국(31.4㎡) 대비 3.5㎡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도에 비해 면적이 작고, 전국 대비 주거면적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88〉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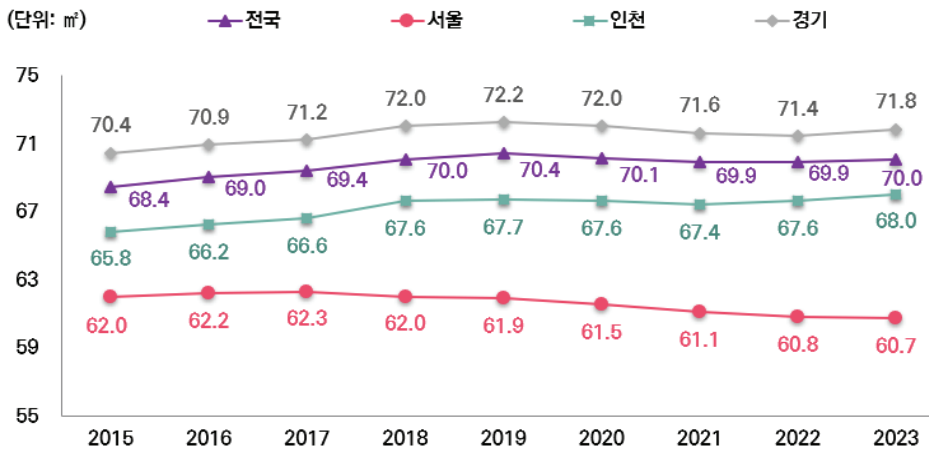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그림 3-89〉 1인당 주거면적(구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용산구(33.8㎡)

로 조사되었으며, 서초구(33.2㎡), 강남구(32.7㎡), 종로구(32.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관악구(25.1㎡), 노원구(25.6㎡), 중랑구(25.7㎡), 강서구(25.9㎡)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편 서울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2023년 기준 60.7㎡로 조사되었으며, 전국(70.0㎡) 대비 9.3㎡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전국과 경기, 인천의 가구당 주거면적이 증가한 것에 반해 서울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다(1.3㎡).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 추세와 달리 가구당 주거면적의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은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 분화의 확대, 소형주택 증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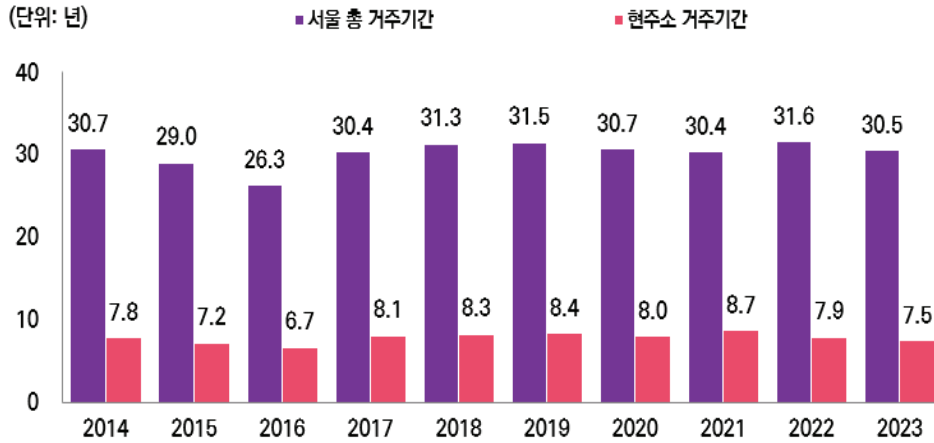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3-90〉 가구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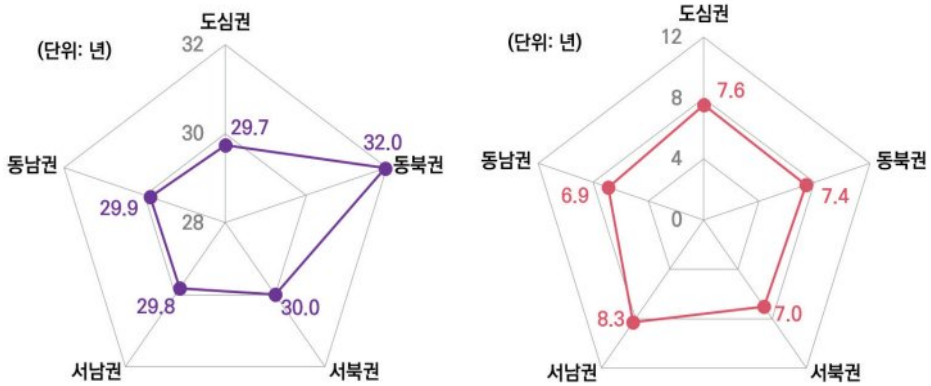
• 평균 거주기간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총 서울 거주기간은 평균 30.5년,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7.5년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32.0년), 서북권(30.0년), 동남권(29.9년), 서남권(29.8년), 도심권(29.7년) 순으로 총 서울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현재 주택 거주기간은 서남권(8.3년), 도심권(7.6년), 동북권(7.4년), 서북권(7.0년), 동남권(6.9년) 순으로 길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91〉 평균 거주기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92〉 총 서울 거주기간(좌) 및 현재 주택 거주기간(우)

2. 스마트도시 역량

1) 요약 및 정책 제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도시 역량을 높이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을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대외로 확산하기 위해 지표 기반의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3개 분야에 대해 총 63개 세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을 진단해보면 '서비스 기술·인프라' 분야의 세부지표 중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주차면 비율,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4개 지표에서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역시 다양한 디지털기본계획을 통해 개선되는 중이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은 2023년 기준 4,905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서울시 예산의 1.04%를 차지한다.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하였다. 스마트도시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노력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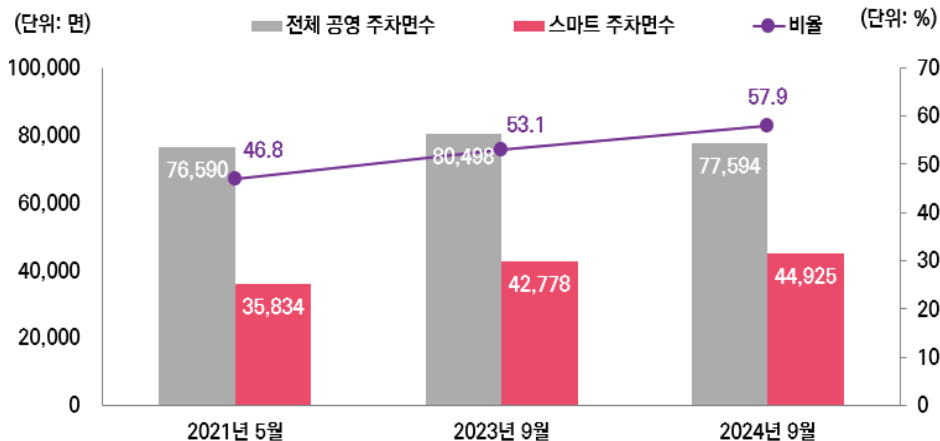
2) 지표 설명

•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을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대외로 확산하기 위해 지표 기반의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3개 분야에 대해 총 63개 세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를 평가받는다.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서비스 기술·인프라' 분야에 속해 있는 여러 세부지표 중 '실시간 도로 위험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주차면 비율,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서울의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서 실시간으로 소
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https://topis.seoul.go.kr>).

서울의 ‘스마트 주차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서울의
스마트 주차면수는 44,925면으로 전체 공영 주차면수(77,594면)의 57.9%로 조사되
었으며, 전년 대비 4.8%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2021~2023
서울시 주차계획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2024

〈그림 3-93〉 스마트주차장 비율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예산사업을 직접 발굴·제안·심사·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스템(<https://yesan.seoul.go.kr>)을 2013년 8월에 오픈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런’ 멘토서비스(slearn.seoul.go.kr/front/mainView.do),
‘서울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엠보팅’ 전자투표(mvoting.seoul.go.kr),
시민 기자 뉴스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상상대로 서울’ 시민제
안(idea.seoul.go.kr)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다음으로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 인증에 필요한 여러 세부지표 중 ‘거버넌스·제도’ 분야에 속해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여부, 스마트도시 조례 여부,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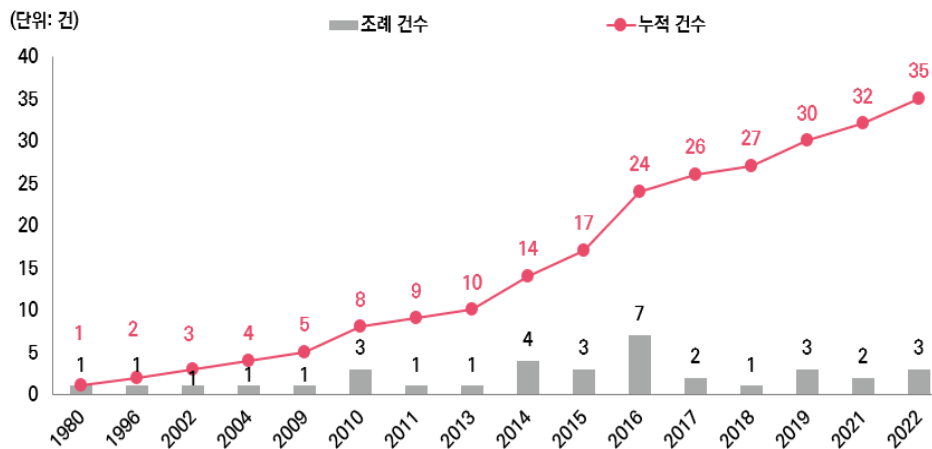
연도	계획명	수립일
2016년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2016~2020)	2016. 1.
2018년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기본계획 (2018~2022)	2018. 7.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2018~2022)	2018. 8.
2019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0~2022)	2019. 8.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0~2022)	2019. 10.
2021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2021~2025)	2021. 12
2022년	제4차(2023~20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2. 8.
2023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본계획 (2023~202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2024~2026)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3~2025)	-

주: 1) 스마트도시나 관련 계획이 아니라 지자체 발전방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

2) 관련 계획: 디지털, 정보통신, 데이터 등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건수는 2016년 이후 총 11건이 수립되었다. 2016년 1월에 최초로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2016~2020)’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 8월에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2018~2020)’을 수립하였다. 또한 2021년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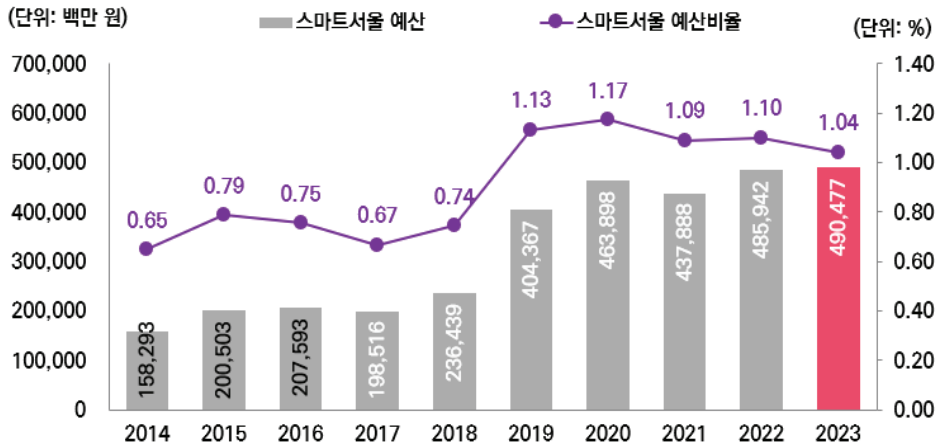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그림 3-94〉 스마트도시 조례 건수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2024년 9월 기준 총 35건으로 조사되었다. 조례

명에 스마트도시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조례 내용이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대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7건)에 가장 많이 제정되었다. 스마트도시와 직접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2019년 3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은 2023년 기준 4,905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서울시 예산의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0.06%p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서울시 한눈에 보는 서울 예산

〈그림 3-95〉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3. 스마트도시 격차

1) 요약 및 정책 제안

디지털포용도시로의 노력이 진행 중, 디지털접근성 수준과 격차도 개선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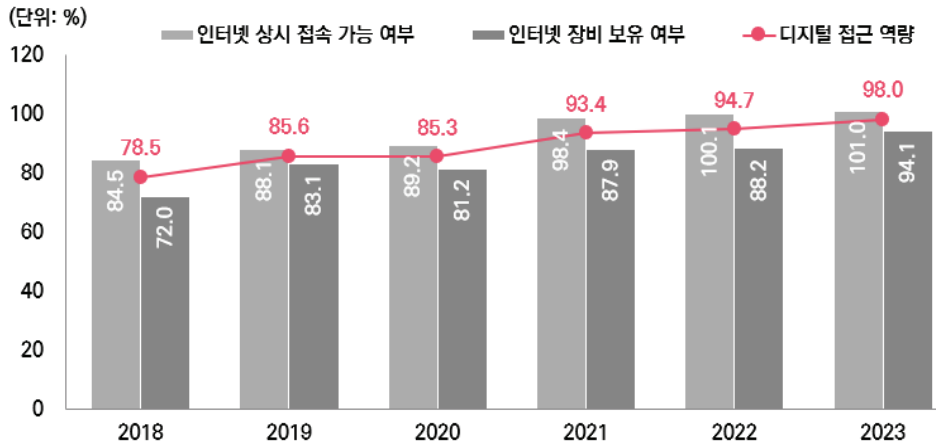
민선8기는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약자동행도시, 포용적 도시를 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포용성 영역은 서울시의 중요한 시정목표 중 일부이다.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디지털정보격차 현황을 재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98.0%로 조사되었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무려 19.5%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디지털 활용성 수준 역시 일반 시민 대비 고령자의 활용성이 개선되는 중이다.

디지털 포용성은 인공지능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이다. 서울은 대부분의 시민이 디지털기술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도시이다.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SNS 이용률은 2023년에 87.0%,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38분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SNS 이용률은 5.2%p 증가하였으며,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4분 이상 증가하였다. 디지털사회가 일상의 시민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NS가 최신 정보 수집(7.12점)과 정치 참여도 제고(5.71점)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각각 0.59점, 0.51점), SNS를 통해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0.15점 감소하였다. 그리고 SNS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 요청(6.96점)이나 SNS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타인의 반응이 신경 쓰인다(5.89점)는 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51점, 0.70점). 디지털사회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그 모습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디지털포용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표 설명

• 접근성 격차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을 재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98.0%로 조사되었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9.5%p 증가하였다.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로 평가된다. 2023년에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는 101.0%,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는 94.1%로 조사되었는데, 두 항목 모두 2018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각각 16.5%p, 22.1%p).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 접근 역량 조사 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출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그림 3-96〉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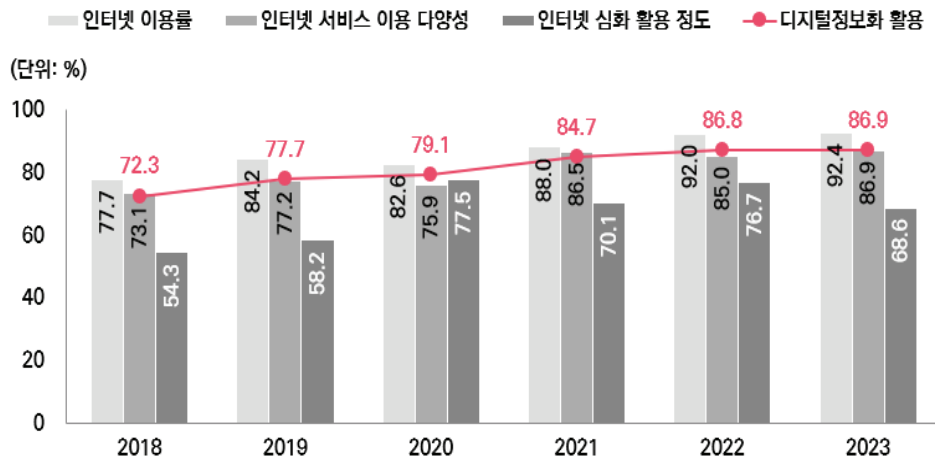
- **디지털 접근 수준:**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서울 시민 대비 정보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의미
- 조사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 활용성 격차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을 재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시민(100점) 대비 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86.9%로 조사되었다.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14.6%p 증가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성 수준은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로 평가된다. 2023년에 서울 시민 대비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2.4%,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은 86.9%,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는 68.6%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인터넷 이용률'(0.4%p)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1.9%p)은 증가하였지만,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8.1%p)는 감소하였다.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수준(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성, 인터넷 장비 보유)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률과 다양한 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심화 활용성(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 활동)은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다.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출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그림 3-97〉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서울 시민 대비 각 정보취약계층(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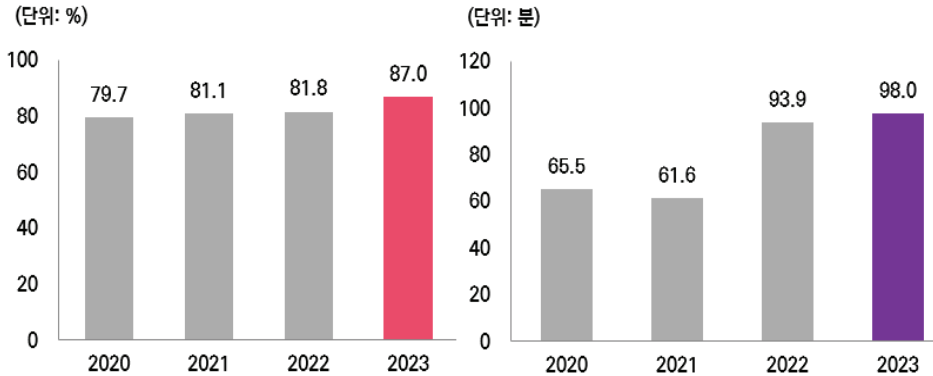
-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1)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검색·이메일·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2)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 활동

• SNS 이용 현황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SNS 이용률은 2023년에 87.0%,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38분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SNS 이용률은 5.2%p 증가하였으며,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4분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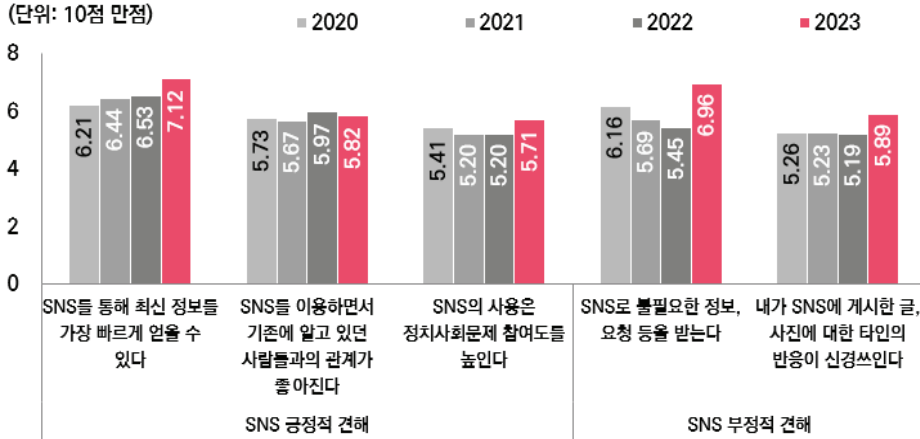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98〉 SNS 이용률(좌) 및 이용 시간(우)

전년 대비 SNS 사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SNS를 통한 대인관계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SNS가 최신 정보 수집(7.12점)과 정치 참여도 제고(5.71점)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각각 0.59점, 0.51점), SNS를 통해 대인관계가 좋아진(5.82점)는 의견은 전년 대비 0.15점 감소하였다. 그리고 SNS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 요청(6.96점)이나 SNS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타인의 반응이 신경 쓰인다(5.89점)는 견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각각 1.51점, 0.70점).

SNS 사용에 대한 견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SNS 이용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以下是 SNS가 정보 수집(7.93점), 대인관계 개선(6.07점), 정치사회문제 참여도 제고(5.92점)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시에, SNS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며(7.60점), 자신이 게시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많이 신경 쓰고(6.33점) 있었다. 30대 또한 SNS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SNS를 통해 대인관계가 개선(5.53점)된다거나, 정치사회문제 참여도를 높인다(5.57점)는 의견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의율이 가장 낮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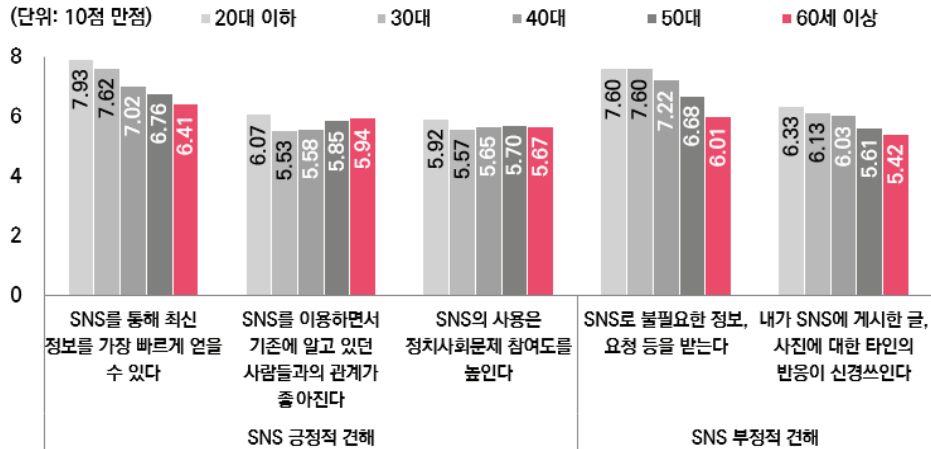
통한 정보 이용과 노출이 적은 편이며, 타인의 반응에도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는 것 (5.42점)으로 나타났다.



주)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99〉 SNS 사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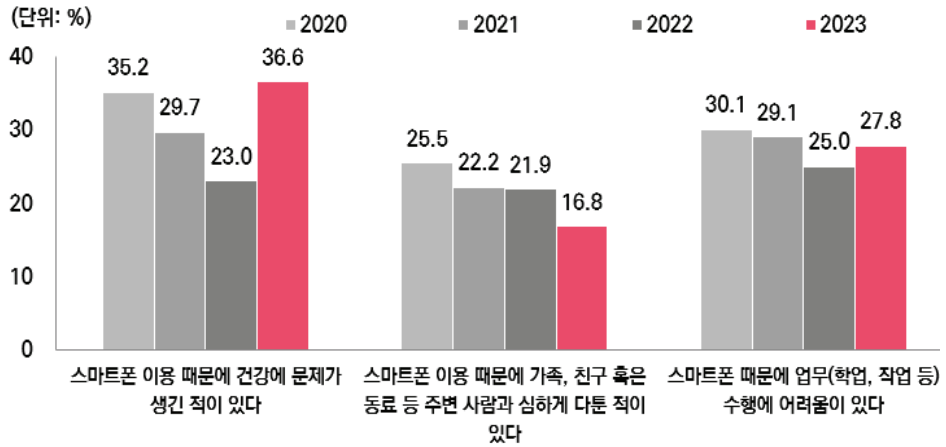


주)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100〉 SNS 사용에 대한 견해(연령별)

한편,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다툼 경험은 16.8%로 감소하였지만,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36.6%)와 업무/학업 수행 어려움(27.8%)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각각 13.6%p, 2.8%p).



주) 그렇다: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그림 3-101〉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 경험

제4절 건강과 보건

1. 건강한 삶

1) 요약 및 정책 제언

팬데믹 이후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률 지속적 증가, 시민 마음건강 돌봄 중요성 더욱 커져

2022년 기준 전국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감소하였으며, 남성(79.9년)과 여성(85.6년) 모두 감소하였다(각각 0.7년, 1.0년). 또한 2022년 기준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83.2년으로 남성(80.9년)보다 여성(85.5년)이 4.6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시점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서울의 기대수명이 0.5년 더 길다. 서울시의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는 2.9년으로, 2018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ealth Plan 2030)」에서는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별 상위 20% 건강수명과 하위 20% 건강수명의 격차를 2.9년 이하로 낮추는 것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9~2021년에 2.6~2.7년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2.9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주관적 건강수준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과 삶의 질을 반영한다. 2023년 지역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민 중 주관적 건강수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지한 비율은 53.7%로 전년에 비해 소폭(0.8%p)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높은 중구(63.6%)와 가장 낮은 서대문구(45.2%)와의 차이는 18.4%p로, 자치구 간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기준 8.3%로 전년 대비 1.2%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23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체 23.2명(남자 31.2명, 여자 15.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당 1.8명 증가하였고,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목해야 할 결과는 서울시민의 우울감 경험률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15년 이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만연해짐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

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심리지원으로의 확장 및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에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만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먹거리 취약계층 지속적 증가로 발굴 및 지원 필요

서울시민의 비만율(자가보고)은 2023년 기준 28.8%로 전년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가 꺾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자치구 간 비만율 격차는 9.5%p로 2021년도(11.7%p)와 2022년도 자치구 간 격차(10.4%p)에 비해서 그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강북구, 중랑구의 비만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의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민 중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62.1%,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자치구 간 격차 34.7%p로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고, 저학력, 저소득, 무직자 등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생활권 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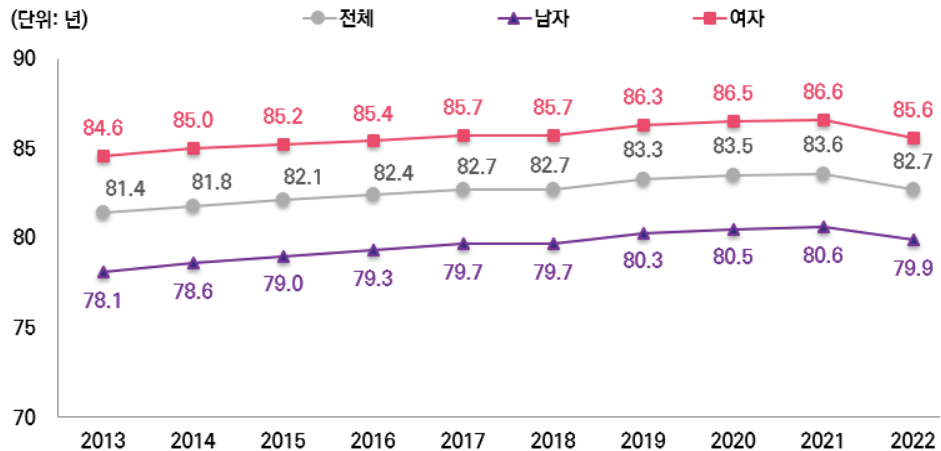
서울시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때에 양적으로 충분한 먹거리가 확보된 가구의 비율이 2020년 기준 94.4%에서 2023년 89.8%로 감소하였는데, 양적으로는 충분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한 양적·질적 먹거리 보장 인구 비율은 2020년 76.6%에서 2023년 61.2%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먹거리 미보장 비율은 고령인구, 저소득층, 1인가구, 무직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모든 시민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다양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정할 때 그동안의 ‘소득기준’ 중심의 선정방식에서 ‘1인가구’ 등을 새로운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먹거리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그동안의 현물 지원 중심에서 식품바우처 도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지표 설명

• 기대수명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22년에 전국의 기대수명은 82.7년(남자 79.9년, 여자 85.6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보다 0.9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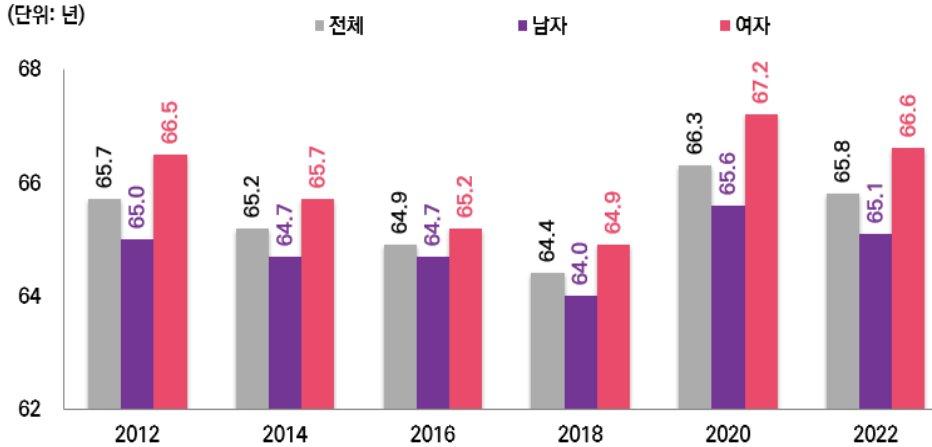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_간이생명표

〈그림 3-102〉 전국의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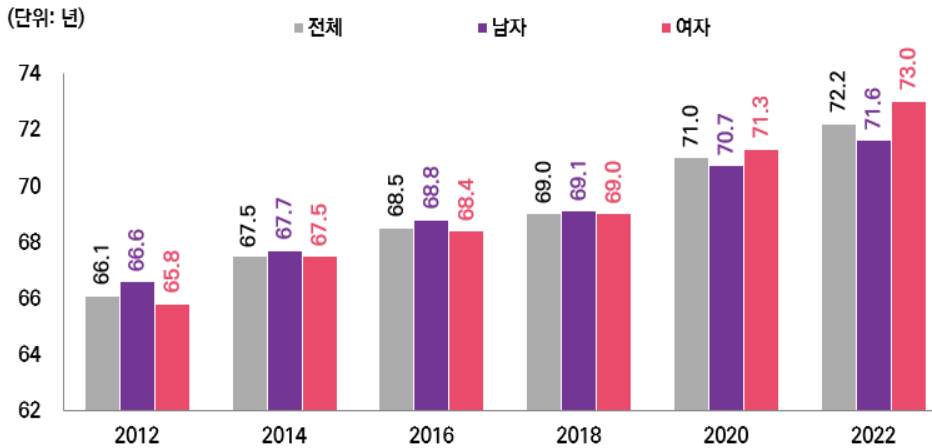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출생아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프지 않은 기간은 65.8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66.6년, 남성은 65.1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하락하다가 2020년에 반등하였지만, 2022년에 감소하였다.

또한 전국 출생아의 기대수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은 2022년에 72.2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73.0년, 남성은 71.6년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12년에 비해 평균 6.1년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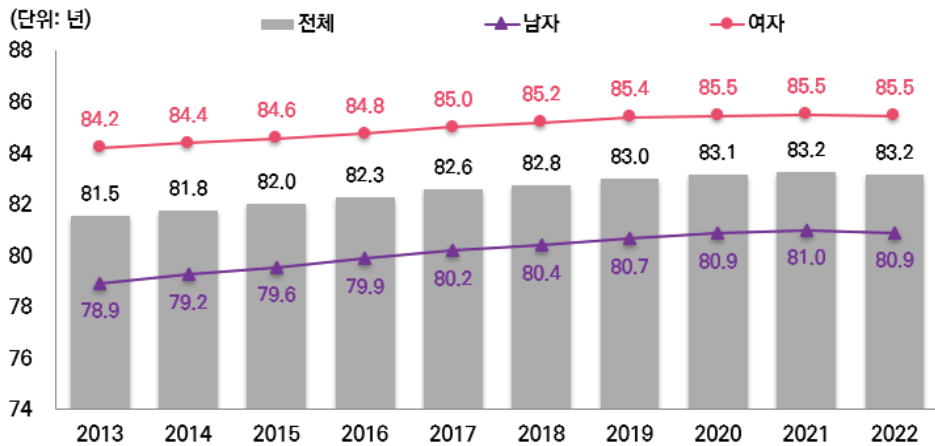
〈그림 3-103〉 전국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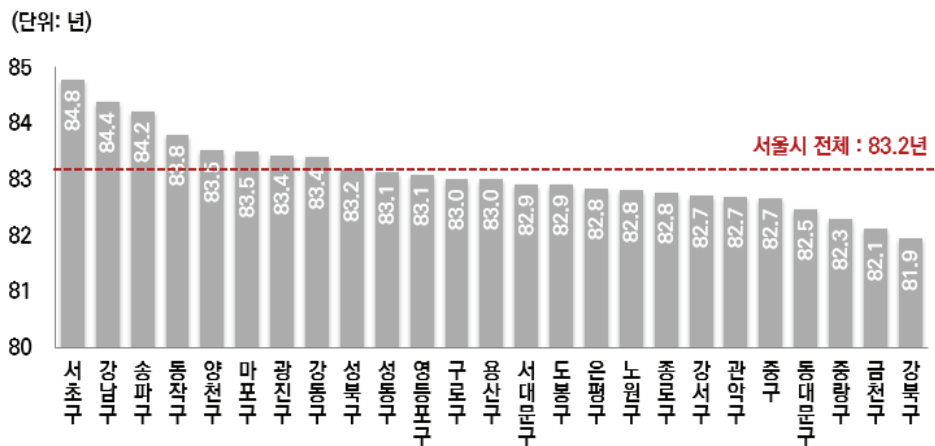
〈그림 3-104〉 전국의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

한편 서울시의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3.2년(남자 80.9년, 여자 85.5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2013년에 비해 전체 평균 1.7년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기대수명(2.0년)이 여자(1.3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서초구의 기대수명이 84.8년으로 가장 높고, 강북구가 81.9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돼,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는 2.9년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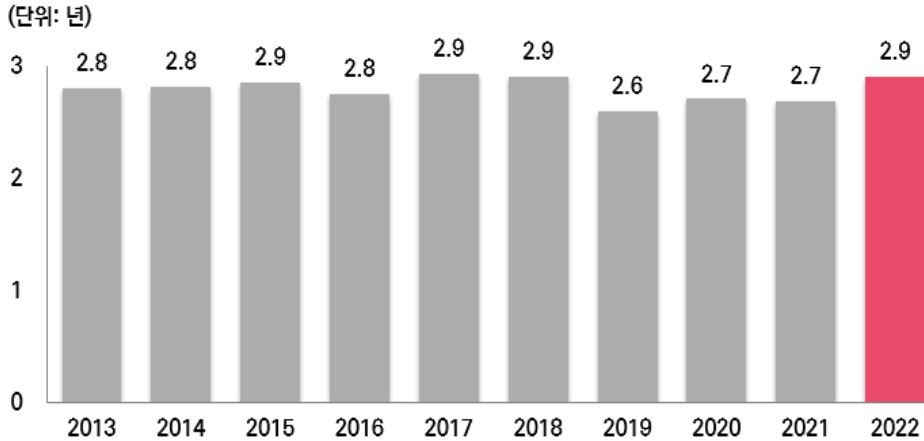
〈그림 3-105〉 서울의 기대수명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2022

〈그림 3-106〉 서울의 기대수명(구별)

-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통계청은 시도별 생명표는 2007년(2005년 기준)에 처음 작성하였으며, 3년 주기로 자료를 생성하고 있음
- **기대여명:** 특정 연령 x세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연령별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출생자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 연령별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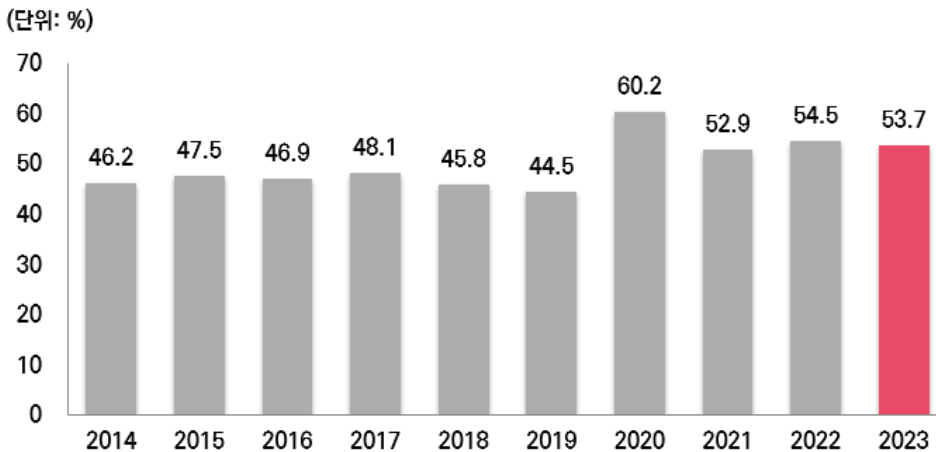


주) 기대수명 격차: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자치구 -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자치구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그림 3-107〉 서울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

• 주관적 건강수준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본인의 건강수준을 양호(“매우 좋음” 또는 “ 좋음”)하다고 인지하는 비율(표준화율)은 2023년에 53.7%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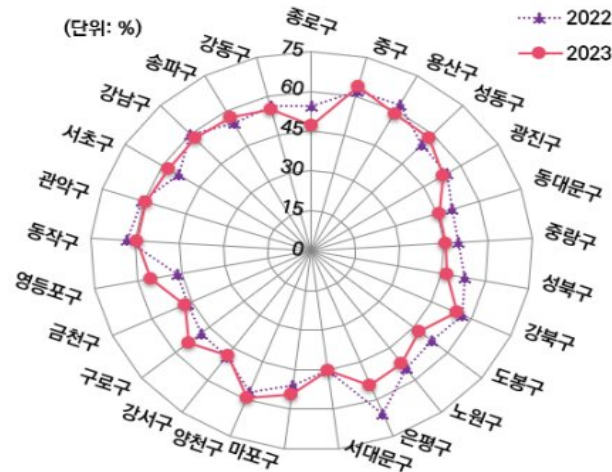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08〉 주관적 건강수준

자치구별로는 중구(63.6%), 관악구·동작구·양천구(59.3%), 용산구(58.9%), 성동구(58.4%)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대문구(45.2%)와 동대문

구·중랑구(45.8%), 성북구(46.9%)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15개 자치구에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 하락하였는데, 은평구(11.4%p), 종로구(7.1%p), 성북구(6.3%p), 도봉구(5.5%p)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영등포구(9.3%p), 구로구(5.8%p), 서초구·성동구(4.0%p)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식이 증가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09〉 주관적 건강수준(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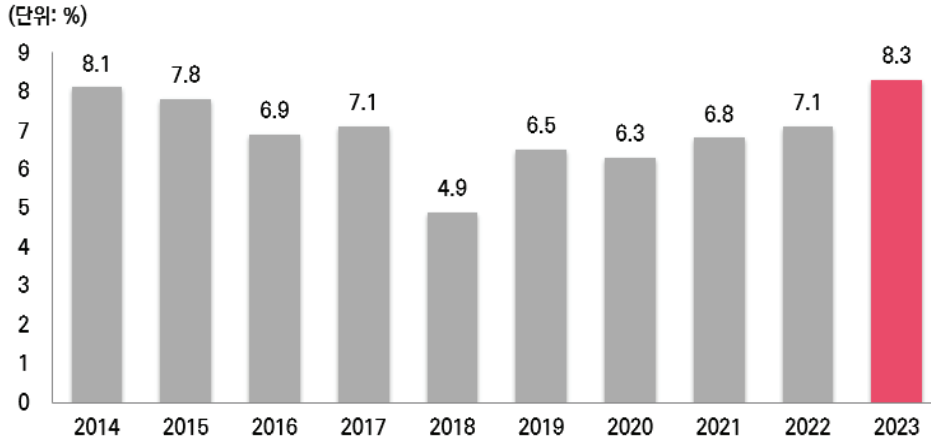
-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 조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 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우울감 경험률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2023년에 8.3%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2018년에 4.9%까지 하락하였지만,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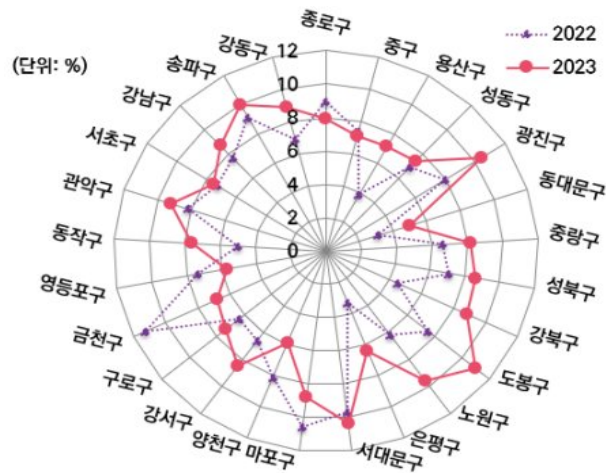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도봉구(11.0%), 광진구·서대문구(10.4%), 송파구(10.0%) 등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대문구(5.0%), 영등포구(5.7%), 양천구(5.9%)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강북구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많이 증가(4.3%p)하였으며, 도봉구(3.5%p)와 노원구(3.4%p)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에 금천구(4.5%p)와 양천구(2.2%p)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10〉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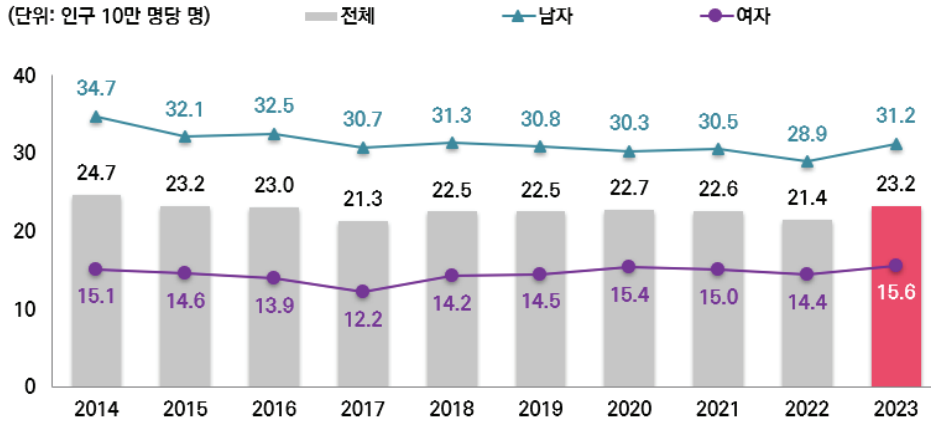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11〉 우울감 경험률(구별)

• 자살률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23년 서울의 자살 사망자 수는 2,163명(남자 1,411명, 여자 752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체 23.2명(남자 31.2명, 여자 15.6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서울시민의 자살률은 1.8명 증가하였는데, 남성 자살률은 2.3명, 여성 자살률은 1.2명 증가하였다. 서울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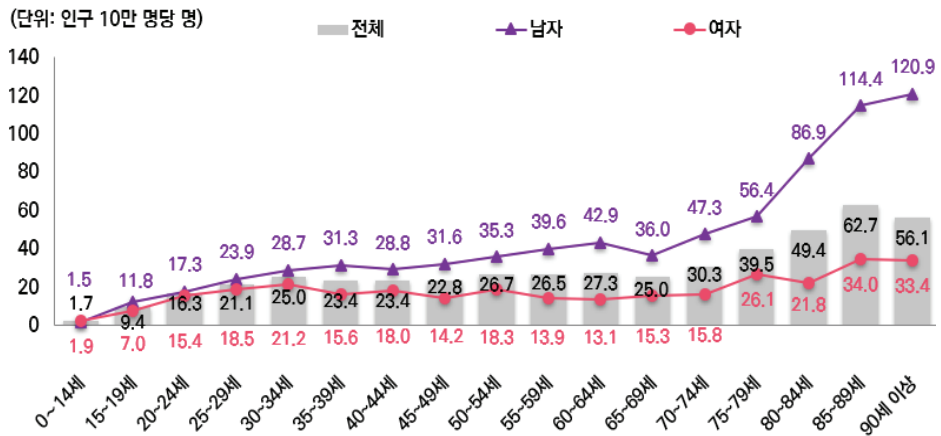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평균 21~25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112〉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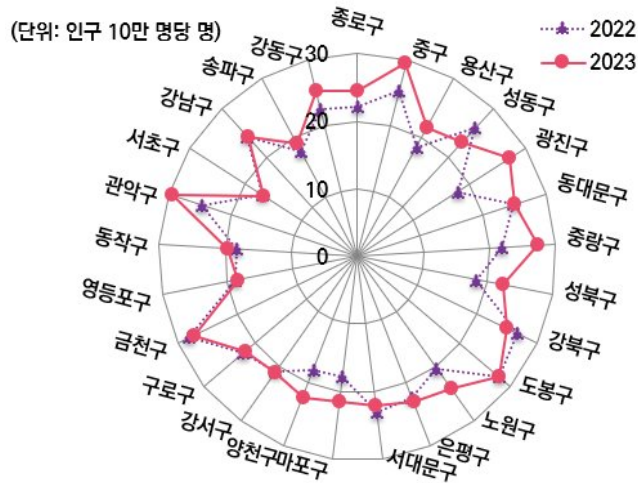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20대~60대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6~27명 수준인 반면, 70대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8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0~63명의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8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87~121명 수준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고령층 남성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3

〈그림 3-113〉 자살률(성별·연령별)

자치구별로는 중구(29.4명), 관악구(29.3명), 도봉구(27.7명) 등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았으며, 서초구(16.7명), 영등포구(18.3명), 송파구(19.0명), 동작구(19.6명)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동구(2.9명)와 강북구(1.7명) 등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감소한 반면, 광진구(9.3명)와 중랑구(5.4명), 관악구(4.6명) 등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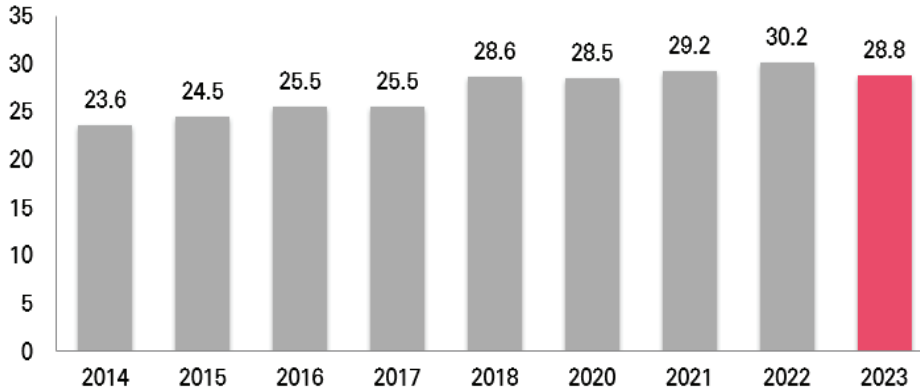
〈그림 3-114〉 자살률(구별)

• 비만율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비만율(표준화율)은 2014년(23.6%)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 30.2%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28.8%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33.9%), 강북구(33.2%), 중랑구(32.7%), 종로구(32.1%)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24.4%), 영등포구(24.5%), 중구(24.8%), 송파구(24.9%)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종로구(5.0%p), 강동구(3.9%p)에서 비만율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영등포구(5.1%p), 동작구(4.9%p), 송파구(3.9%p), 성북구(3.5%p)에서 비만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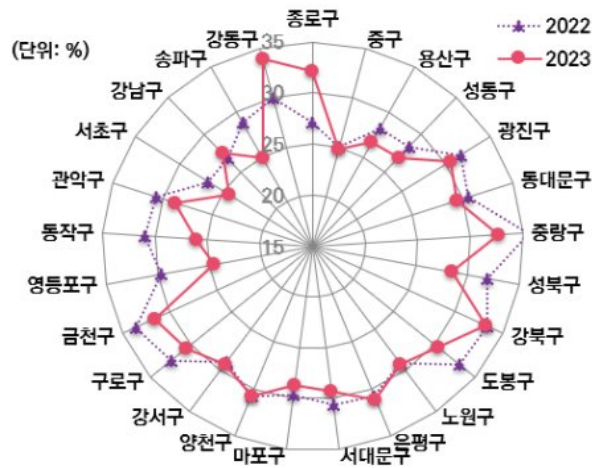
주: 1) 2018년 연도 비교 및 해석 시 주의

- 2018년: 자가보고 키/몸무게 설문 시 신체계측을 병행하여 실시
- 2008~2017년, 2020년: 자가보고 키/몸무게만 설문

2) 2019년 조사 시 자가보고 키/몸무게를 설문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15〉 비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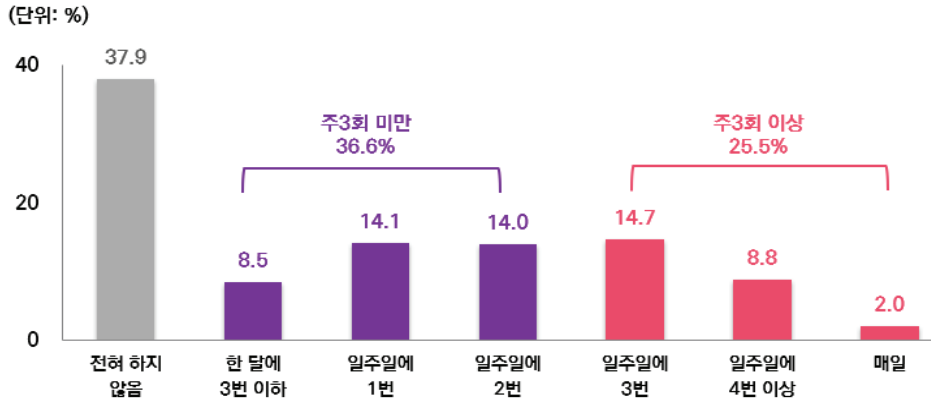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16〉 비만율(구별)

•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62.1%가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37.9%가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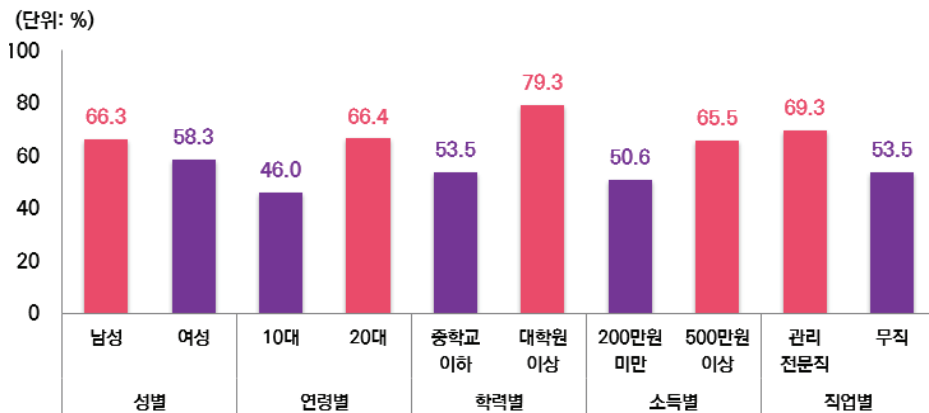
고 응답하였으며, 36.6%가 주 3회 미만, 25.5%가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17〉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0대가 가장 체육활동 참여율이 높고, 10대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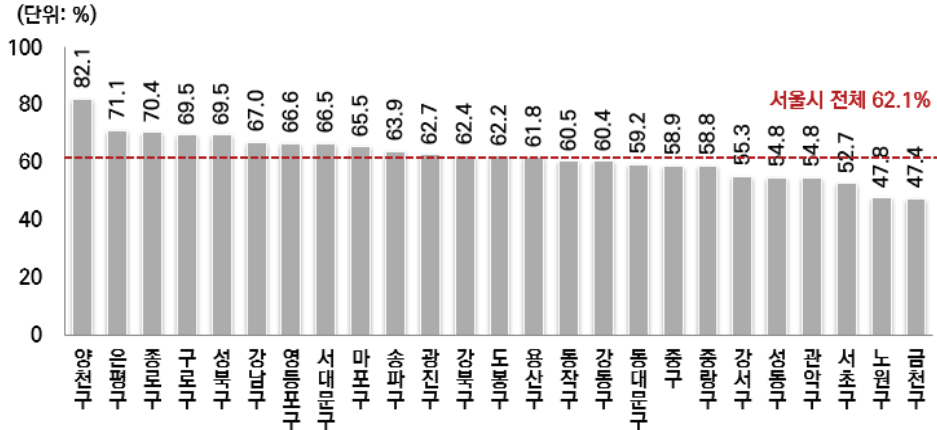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18〉 인구특성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

지역별로는 양천구(82.1%), 은평구(71.1%), 종로구(70.4%)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천구(47.4%), 노원구(47.8%), 서초구(52.7%)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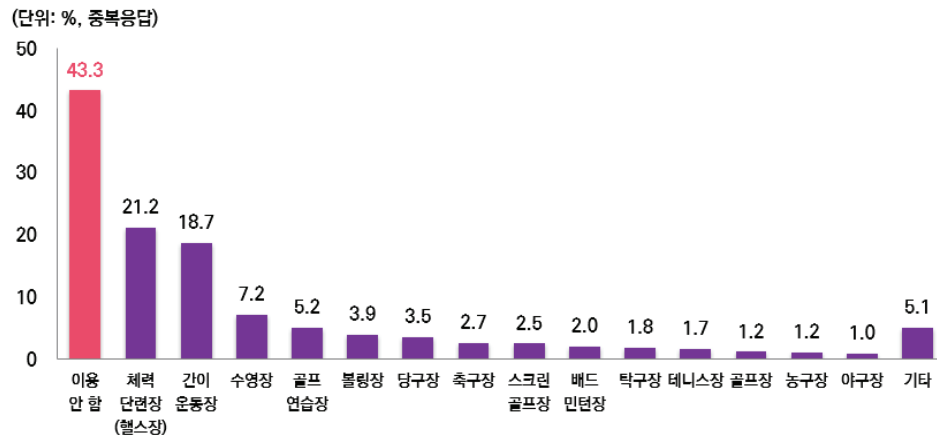
참여율이 낮았다. 자치구 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격차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늘리고 생활권 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19〉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구별)

한편,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중복응답)은 56.7%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간이 운동장(야외운동기구)이 각각 21.2%와 18.7%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는 수영장(7.2%), 골프연습장(5.2%), 볼링장(3.9%), 당구장(3.5%), 축구장(2.7%), 스크린 골프장(2.5%), 배드민턴장(2.0%), 탁구장(1.8%), 테니스장(1.7%), 골프장(1.2%), 농구장(1.2%), 야구장(1.0%), 기타(5.1%) 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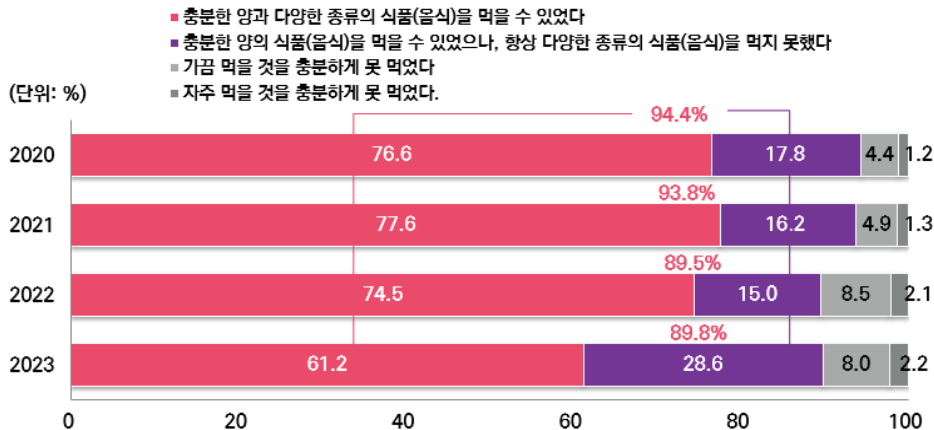


주) 기타 : 롤러스케이트장, 방상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사격장, 스크린야구장, 양궁장, 승마장, 육상경기장, 인공암벽장, 기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20〉 이용하는 체육시설

•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서울시민의 식생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2023년에 89.8%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고,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28.6%),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8.0%),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양적, 질적 모두 보장 상태’는 61.2%, ‘양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질적으로는 미보장 상태’가 28.6%, ‘양적, 질적 모두 미보장인 상태’는 10.2%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양적, 질적 모두 충분’은 13.3%p 감소하였으며, ‘양적 충분, 질적 부족’은 13.6%p 증가하고, ‘양적 질적 모두 부족’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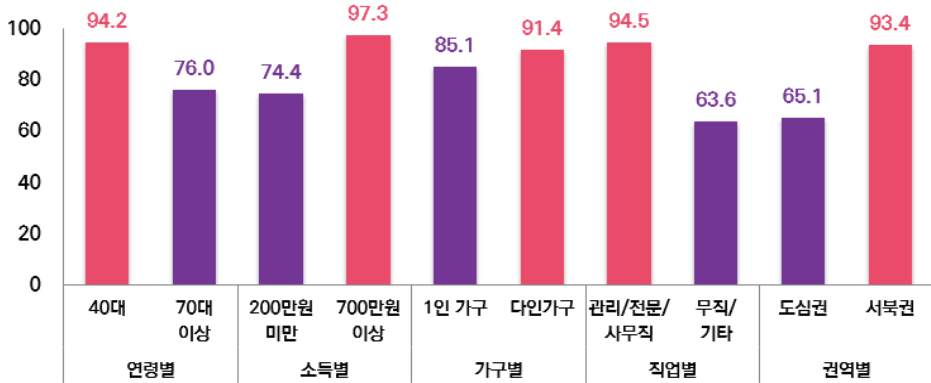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그림 3-121〉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가구소득이 낮고, 혼자 살고, 직업이 없을수록 식품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이 89~94%로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76.0%, 60대는 86.6%로 낮았다. 또한 혼자 사는 가구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85.1%인데 반해, 다인가구는 91.4% 수준이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도 낮았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가 74.4%로 가장 낮고, 700만 원 이상 가구가 97.3%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기타가 63.6%로 가장 낮았고, 관리/전문/사무직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이 94.5%로 가장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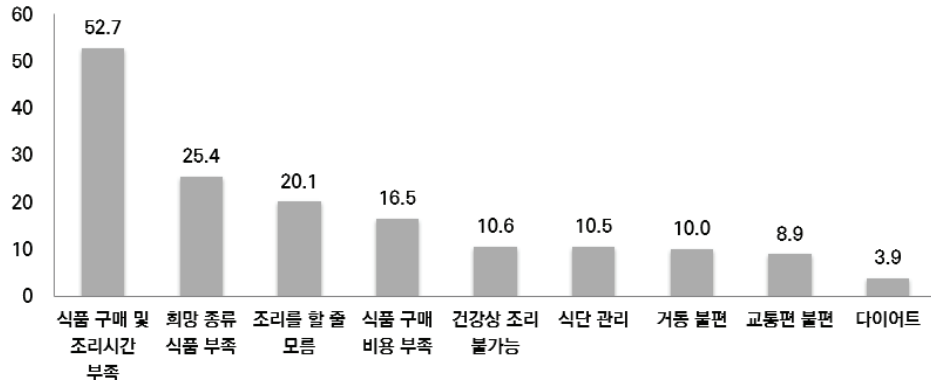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2023

〈그림 3-122〉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취약계층별)

먹거리부족 이유(중복응답)로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5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25.4%), ‘조리를 할 줄 몰라서’(20.1%),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16.5%)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먹거리 부족 이유로 ‘식품을 구매하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조리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년층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단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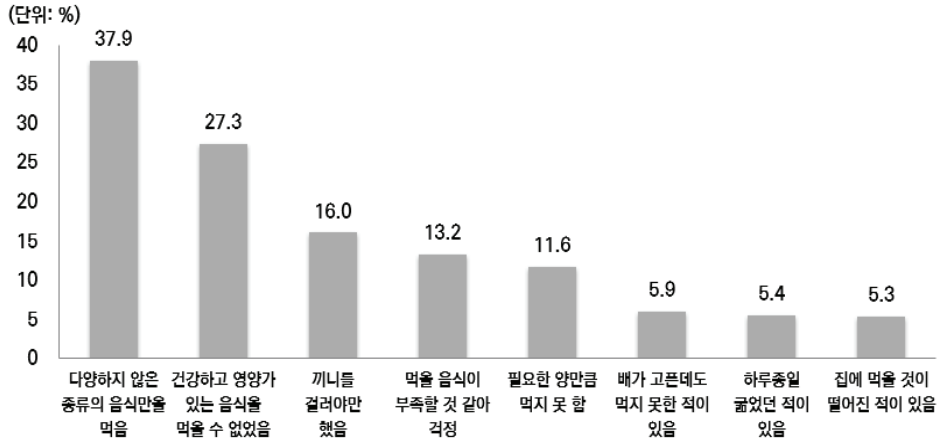
주: 1) 2023년 문항 변경

2) 충분한 양을 먹지 못했거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한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2023

〈그림 3-123〉 먹거리부족 이유

한편 서울시민의 37.9%는 최근 1년간 ‘다양하지 않은 종류의 음식만을 먹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3%가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으며’, 16.0%는 돈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원이 부족해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었고, 5.4%는 ‘하루종일 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2023

〈그림 3-124〉 최근 1년간 먹거리 불안 경험

•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2. 지역보건

1) 요약 및 정책 제안

미충족의료 경험률 증가, 인구 대비 병상 수 감소, 공공의료의 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

2023년 서울시민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4.4%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의 자치구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구 간 격차가 2021년 7.7%p, 2022년 8.5%p 차이에서 2023년에는 10.2%p 차이로 증가하였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는 2023년 기준 937.2개로 전년 대비 20.4개 감소하면서, 2015년 이후 증가하던 추세가 반전되었다.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자치구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종로구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2,487개로 나타난 반면 마포구는 275개로 나타나, 자치구 간 병상 수 격차가 약 9배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미충족의료 경험률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약자와의 동행 및 공공의료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민 중에서도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존재하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 약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외상, 암·심뇌혈관질환, 중증감염병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나 임산부, 신생아, 소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예방-조기진단-치료-돌봄 포괄하는 ‘차매 안심도시 서울’ 구축해야

2023년 서울시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88%로 전년 대비 0.15%p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7.14%로 전년 대비 0.21%p 증가하였다. 통계청 2024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2025년에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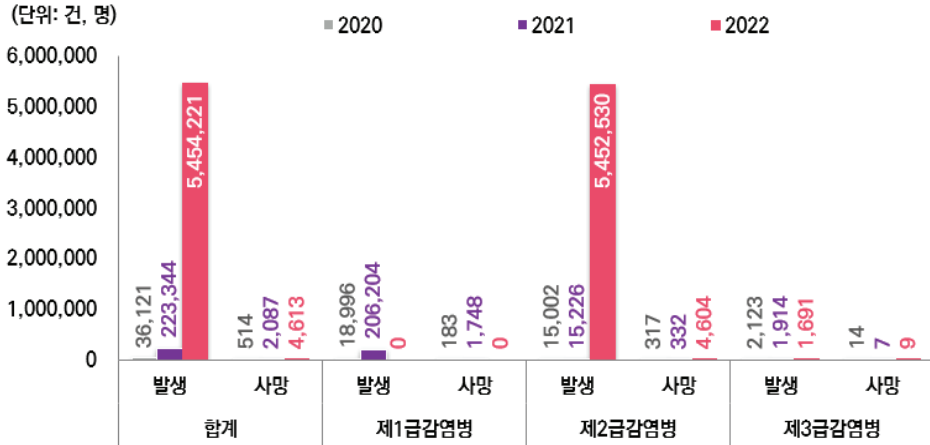
인구 구성비가 19.9%로 예상되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치매 안심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광역 및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지원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중증치매 환자 치료병원(서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의 예방-조기진단-치료-돌봄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매환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감염병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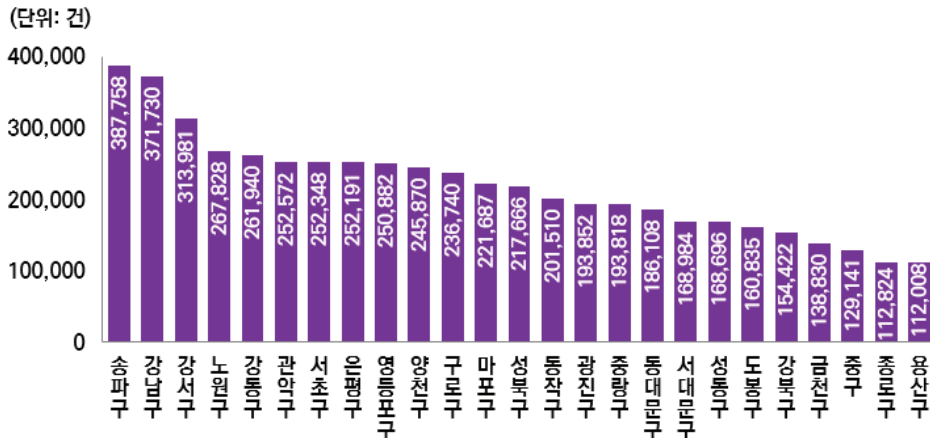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총 545만 4,221건, 사망자 수는 4,613명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전체 사망자는 총 55,296명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2020~2021년에 제1급감염병에 속했던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이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에 따라 제2급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되면서 2022년에 제1급감염병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없으며, 제2급감염병은 5,452,530건(사망 4,604명), 제3급감염병은 1,691건(사망 9명)으로 신고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감염병 발생건수는 24.4배 증가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생신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20년 1.42%, 2021년 0.93%, 2022년 0.08%로 크게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 2022년 감염병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송파구(387,758건), 강남구(371,730건), 강서구(313,981건)에서 감염병 발생건수가 많았으며, 용산구(112,008건), 종로구(112,824건), 중구(129,141건), 금천구(138,830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출처)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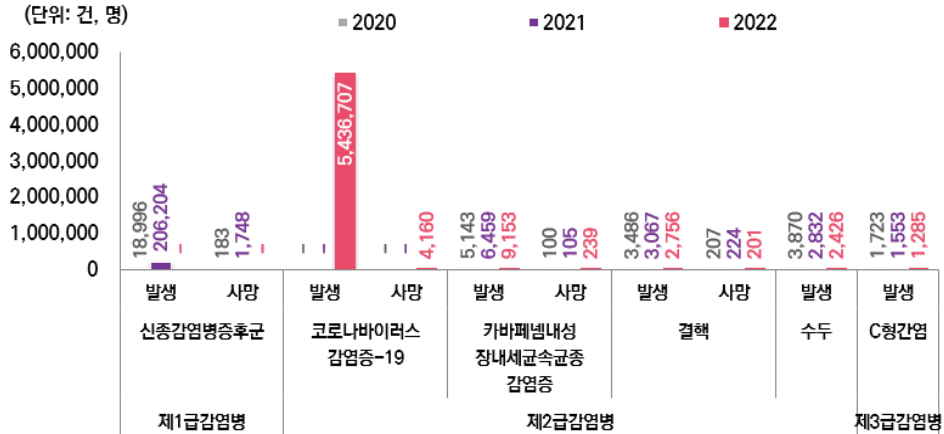
〈그림 3-125〉 감염병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출처)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2022

〈그림 3-126〉 감염병 발생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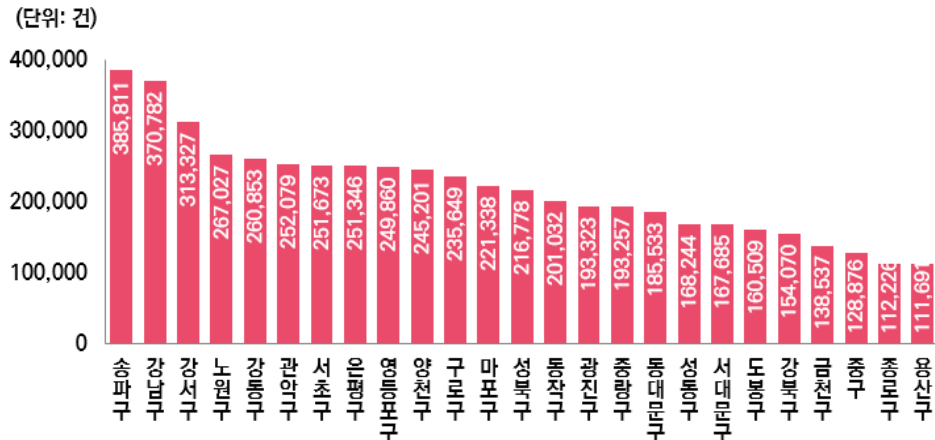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건수는 543만 6,707건(사망 4,160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9,153건(사망 239명), 결핵 2,756건(사망 201명), 수두 2,426건, C형간염 1,285건이 신고되었다. 2022년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망자가 90.2%로 가장 많았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5.2%,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4.4%로 조사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2022

〈그림 3-127〉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자치구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송파구(385,811건), 강남구(370,782건), 강서구(313,327건)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용산구(111,691건), 종로구(112,226건), 중구(128,876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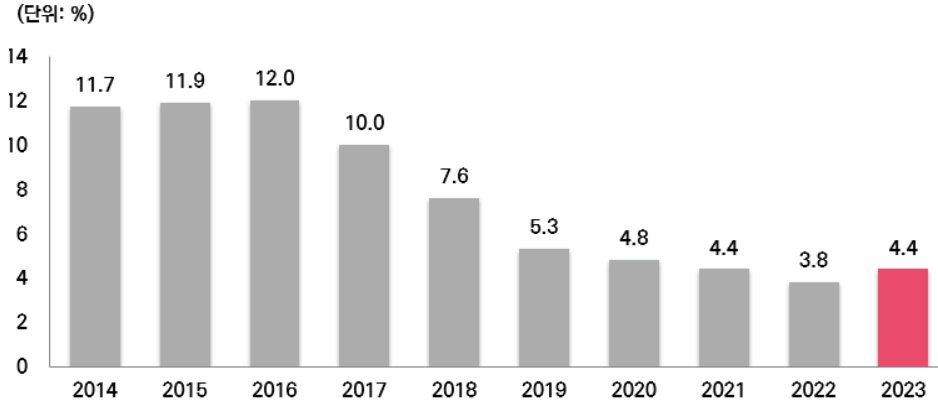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2022

〈그림 3-12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건수(구별)

• 미충족의료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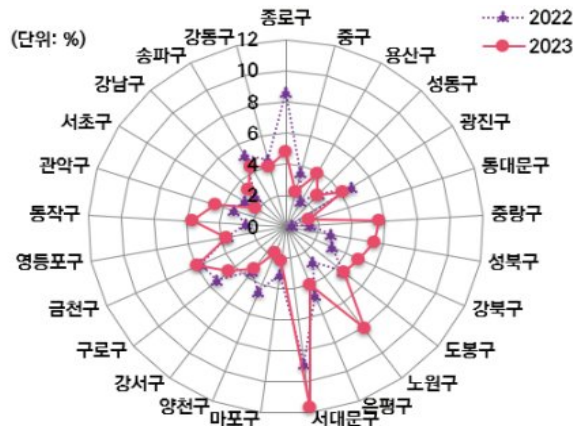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4.4%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그동안 감소추세였으나,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p)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29〉 미충족의료 경험률

자치구별로는 전년도에 이어 서대문구에서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8.1%)와 금천구(5.9%), 동작구·중랑구(5.7%), 성북구(5.5%)가 뒤를 이었다. 반면에 동대문구는 1.5% 수준으로 가장 낮았으며, 양천구(1.8%)와 마포구·서초구(2.2%)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종로구(3.8%p)와 양천구(2.7%p)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노원구(5.3%p), 중랑구(4.2%p), 동작구(3.3%p), 서대문구(2.8%p), 성북구(2.7%p)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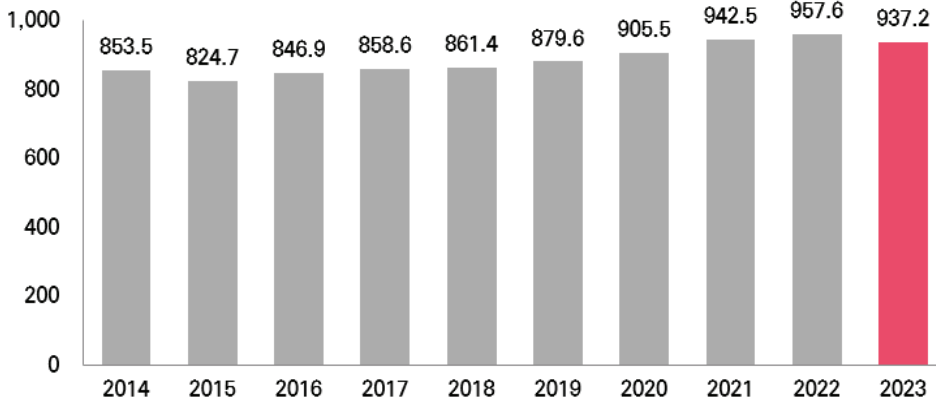
〈그림 3-130〉 미충족 의료경험률(구별)

- **미충족 의료율(병의원):**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 미충족 의료 이유: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 이유, 교통 불편,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진료 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입원실 병상 수는 937.2개로 전년 대비 20.4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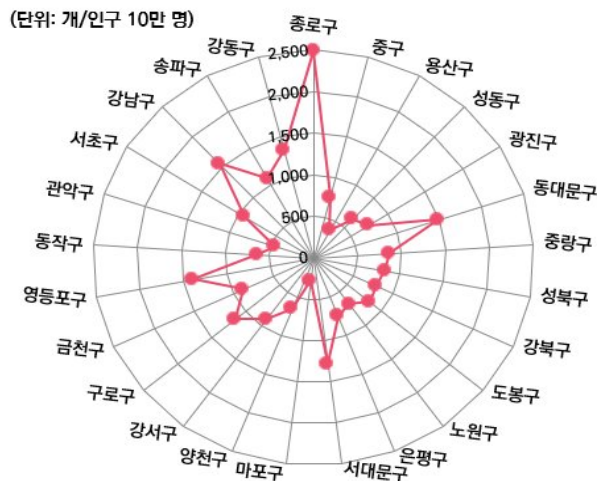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만 명)



주) 매년 4/4분기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외국인 인구 포함)

〈그림 3-131〉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출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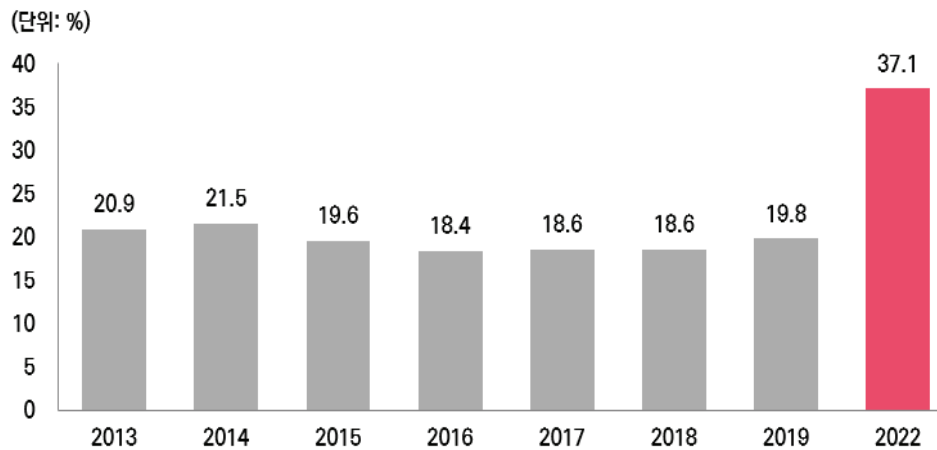
2)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외국인 인구 포함), 2023

〈그림 3-132〉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구별)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2,487개로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1,555개), 동대문구(1,486개), 영등포구(1,38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마포구(275개), 용산구(380개), 관악구(458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자치구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

• 보건기관 이용률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표준화율)은 2022년에 37.1%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기관 이용률이 급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7.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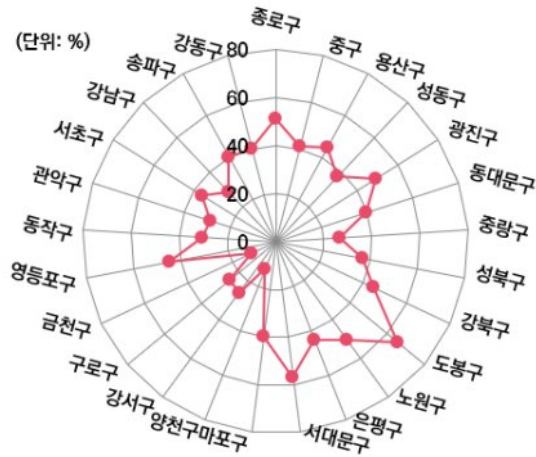


주: 1) 2009년 신규 도입 후 2019년까지 매년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2021년 일시 중단 후 2022년 조사 재개

2) 보건기관 이용률: 지난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133〉 보건기관 이용률

자치구별로는 도봉구(65.4%), 서대문구(56.7%), 종로구(51.2%), 노원구(50.5%)에서 보건기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천구(11.0%), 양천구(11.9%), 구로구(24.9%)에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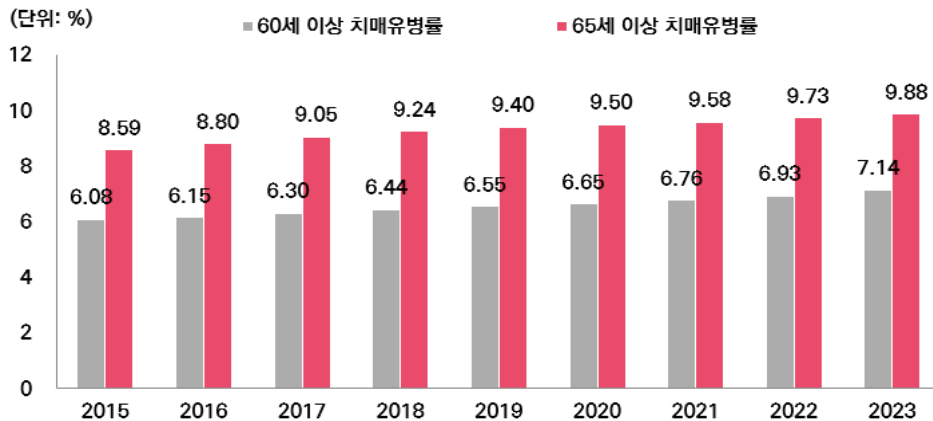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2

〈그림 3-134〉 보건기관 이용률(구별)

• 치매유병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7.14%(170,366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9.88%(166,167명)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0.21%p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0.15%p 증가하였다.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유병현황

〈그림 3-135〉 치매유병률

• 치매유병률 = (연령별 추정 치매환자 수 / 연령별 노인인구 수) × 100

제5절 안전과 재난

1. 자연재난

1) 요약 및 정책 제언

도시형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취약지 중심의 풍수해 대책 수립과 비상 대응이 필요

서울의 풍수해는 여름철에 10년 주기로 2회가량 발생하는데 일부 국지적 돌발성 집중 강우 형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국지적 돌발성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1980년대 한강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천이 월류하는 외수 침수가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불투수층이 많은 시가화 지역에서 강우가 집중되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수관거의 배수용량 한계로 인한 내수 침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은 과밀한 도시화로 인하여 기존의 배수특성이 변화하여 수해에 취약한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2010년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의 침수가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주거지 인근의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8명에 이르는 큰 피해를 일으켰다. 2018년에도 사망 및 실종자가 4명 발생하였고, 2022년 8월에는 1시간 강우량이 141.5mm에 달해 서울시 최고치로 나타나면서 사망 및 실종자가 10명 발생하는 등 10년 주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풍수해 피해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관거 개량, 저류시설 신설, 펌프장 등 폭우 대비 방재시설의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침수 취약지역 3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¹¹⁾ 그런데 2023년에 2014년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강수일수(109일)를 기록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불규칙적으로 강수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지적 돌발성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향후 집중호우 기상재난의 취약성이 심화될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강화, 도로시설물 침수방지 시설 확충, 재해취약 반지하주택 안전대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침수 등의 상황에서 인명

¹¹⁾ 서울특별시, 2021, “2040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https://news.seoul.go.kr/env/files/2023/02/641cf2548cead8.28422527.pdf>.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침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구급 방안을 수립하여 비상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안전 약자를 재정의하고 피해에 대처할 필요

기후변화는 기온의 급격한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2100년에 4℃까지 상승할 수 있고 평균 폭염일수도 5.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¹²⁾ 서울에서는 2023년도에 온열질환자가 201명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 대비 7.1%였다. 특히 전국의 온열질환자 발생은 7월과 8월에 전체의 85.2%가 집중되었다. 8월 초에 온열질환 발생 비중이 전체의 25.2%로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연중 더위의 절정인 시기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비 온열질환자 비율과 전국 대비 서울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폭염피해가 낮다고 판단되어 서울의 폭염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노인, 택배 종사자, 공사장의 실외작업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폭염대책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전파, 상황관리, 취약계층 특별 보호, 실외근무자 안전관리 강화 등의 기존 대책을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 기간이 늘어나고 온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 열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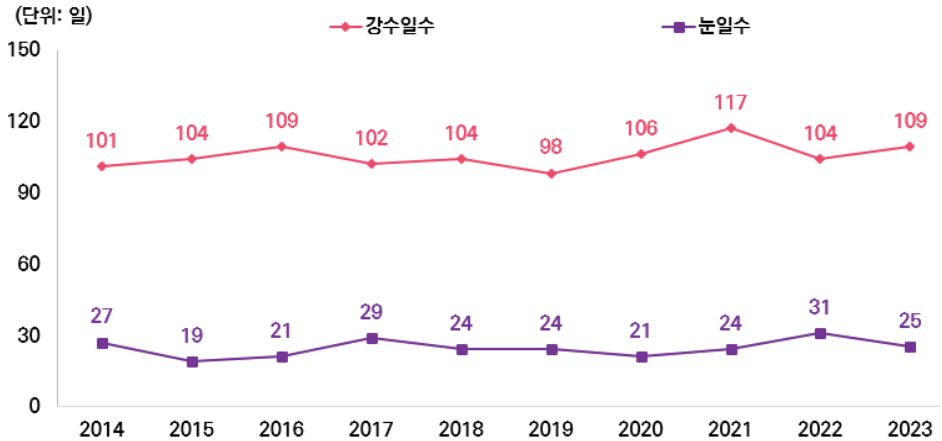
한편 한파는 극지방 제트기류 약화로 일시적으로 한랭기류가 남하해서 발생한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서울의 한랭질환자는 51명으로 전국 대비 11.4%를 나타냈다. 기상이변 대책에서 한파가 중요시되지 않는 이유는 폭염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고 대책의 대상이 주로 노숙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파 대책 역시 대상자의 폭을 넓혀 노숙자 이외에 실외작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과 보호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12)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의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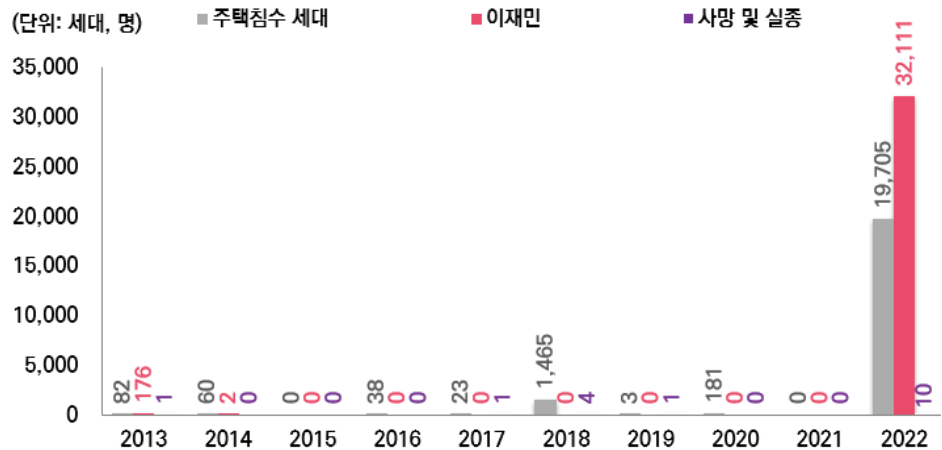
• 풍수해·폭설 피해

기상청의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지난해 강수일수(1mm 이상) 및 눈일수를 합한 기간은 총 134일(강수일수 109일, 눈일수 25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 2021년(141일)과 2022년(135일)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그림 3-136〉 강수일수 및 눈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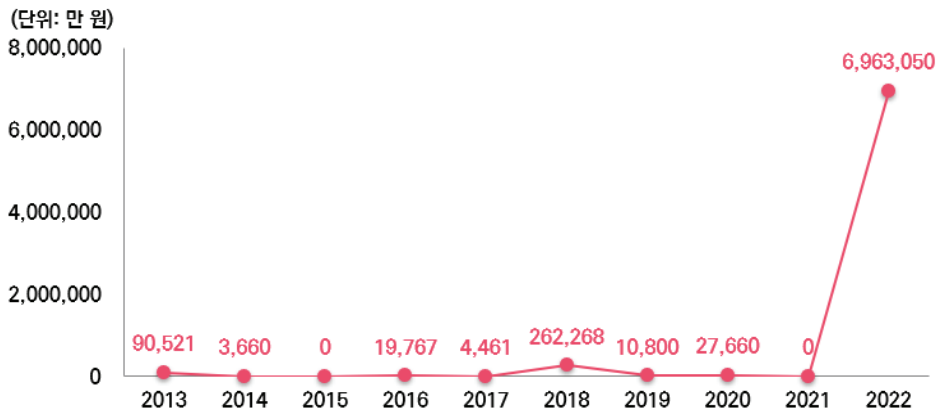


주) 2015년,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음

출처)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그림 3-137〉 자연재난 발생 피해 현황

서울시 치수안전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에 서울시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주택침수로 인한 피해 세대가 19,705세대였으며, 이재민이 32,111명 발생하였으며, 사망 및 실종자도 10명 발생하였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696억 3,050만 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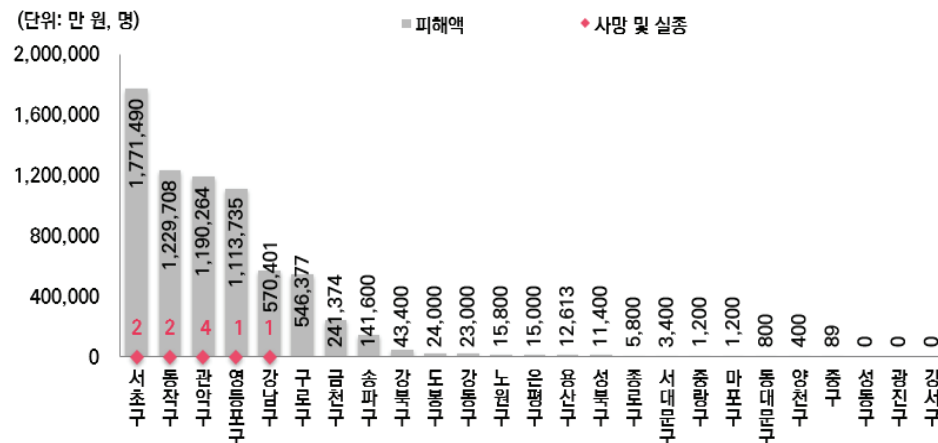


주) 2015년,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음

주) 2020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그림 3-138〉 자연재난 발생 피해액 현황



출처)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2022

〈그림 3-139〉 자연재난 발생 피해액 현황(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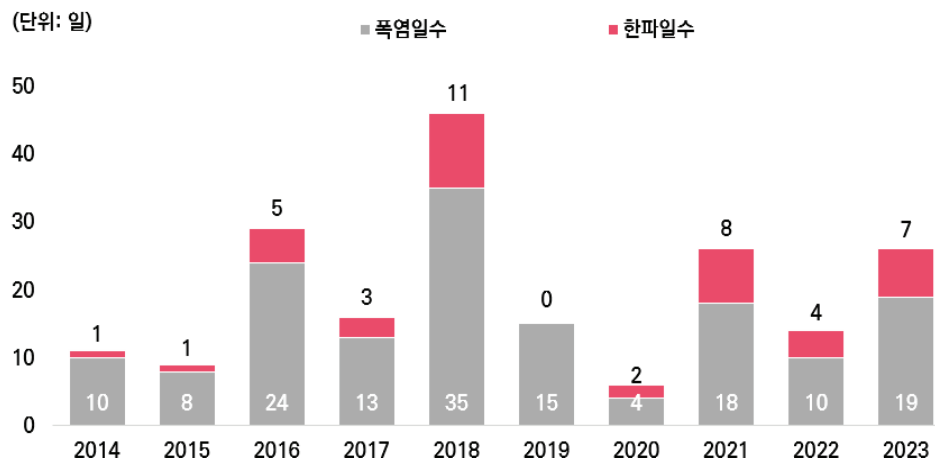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풍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반면, 강서구, 광진

구, 성동구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서초구(177억 1,490만 원), 동작구(122억 9,708만 원), 관악구(119억 264만 원), 영등포구(111억 3,735만 원)에서 가장 컸으며, 사망 및 실종자는 관악구(4명), 동작구·서초구(2명), 강남구·영등포구(1명)에서 발생하였다.

•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 폭염·한파 피해

기상청의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2023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19일, 한파일수는 7일로 기록되었다. 전년 대비 폭염은 9일 한파는 3일 증가하였다.



주) 서울 지점 기준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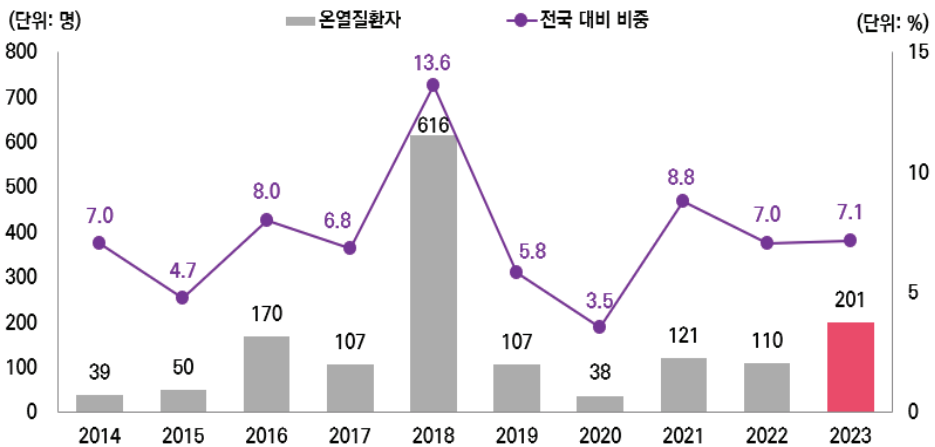
〈그림 3-140〉 폭염 및 한파일수

질병관리청의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여름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지속적 영향으로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4위로 집계되었으며, 여름철(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로 평년(과거 30년) 23.7℃보다 1.0℃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밤(18:01~익일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8.1일로 평년(6.4일)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2-2023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2-2023절기(2022.12.~2023.2.)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2℃로 평년(-0.3℃)과 비슷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2월과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이 큰 폭으로 번갈아 나타났으며, 2월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한파일수**: 아침(03:00~09:00)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인 날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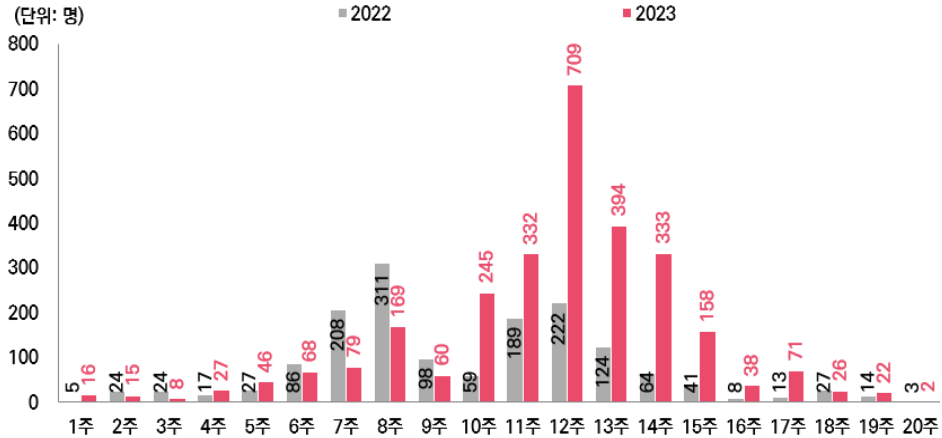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의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3년(2023.5.20.~9.30.) 서울의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201명(사망자 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2,818명) 대비 7.1%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91명(1.8배)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은 2018년(전국 4,526명, 서울 616명)에 이어 2023년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그림 3-141〉 폭염 피해

2023년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규모는 7월부터 8월(85.2%)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8월 첫째 주(7.30.~8.5.)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709명,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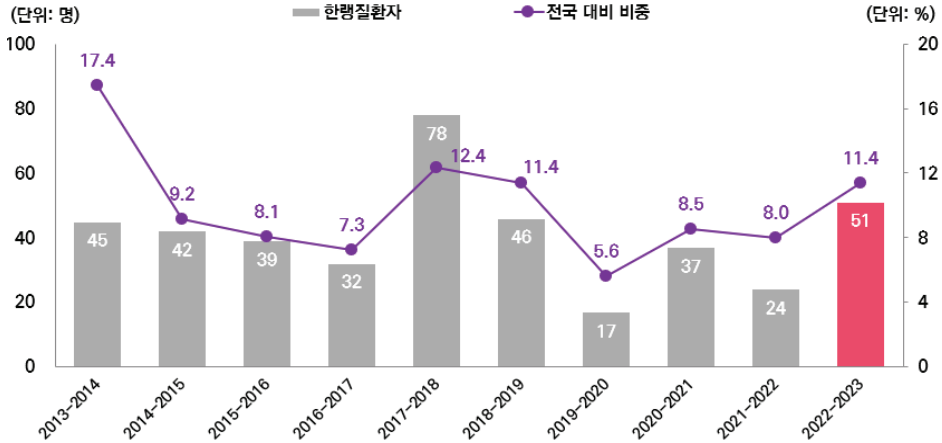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2022년~2023년 (5월~9월)

〈그림 3-142〉 전국의 주별 폭염 피해

- **온열질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등
 -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매년 5월~9월 기간 중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자료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자료로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참여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 본 자료의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0℃ 이상인 날의 일수로, 전국 62개 지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일수임(기상자료개발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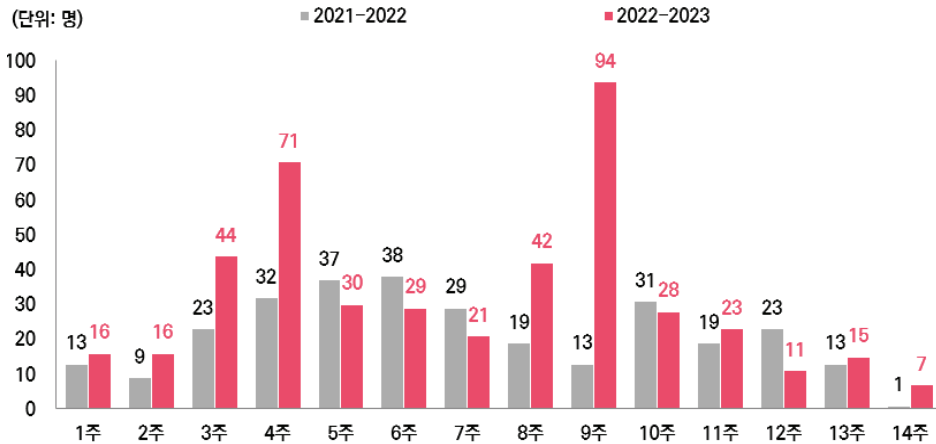
한편 「2022-2023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2-2023절기(2022.12.~2023.2.) 서울의 한랭질환자 수는 모두 51명(사망자 2명)으로 전국(447명) 대비 11.4%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24명) 대비 27명(2.1배)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규모는 2022년 12월 넷째 주(71명)와 2023년 1월 넷째 주(94명)에 가장 컸으며, 2023년 2월까지 피해가 지속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전년 12월~2월)

〈그림 3-143〉 한파 피해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전년 12월~2월)

〈그림 3-144〉 전국의 주별 한파 피해

• **한랭질환:** 자체온증, 동상, 비동결, 기타 등

-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매해 전년도 12월~당해연도 2월 기간 중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 본 연보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 개)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 자료로 한랭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참여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랭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함
- 본 연보의 '한랭질환자'는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시·도'는 '중상발생장소' 기준임

2. 사회재난

1) 요약 및 정책 제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교통약자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안전 대책 추진 필요

서울시 교통사고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에 힘입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대책, 교통안전기반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피해 사고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에 14명, 2023년에 15명을 기록하여 2020년 이후의 감소 추세가 둔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대책에 대한 한계가 보이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개정 법령이 2020년 3월에 시행된 이후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부터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5건, 부상자 수는 6명으로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도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등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발생 건수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자치구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감소는 서울시 교통사고 안전대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교통사고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주정차 규제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는 교통사고의 취약 부문인 교통약자, 보행안전 시설물,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발생 지역 차원의 세부적인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맞춤형 교통사고 개선대책을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교통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 취약성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필요

화재사고도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나, 2021년 이후로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감소하였다. 소방관서의 화재 대응 및 인명 구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종로고시원 화재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인명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의 화재안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취약계층과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시민 대상 안전수칙 준수 개발 등 다채널 홍보전략 필요

주요 사고인 교통사고, 화재, 붕괴 이외의 안전사고(일반 안전사고)는 전체 안전사고 대비 발생 비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전체 사고 대비 안전사고 발생 비중은 2021년 7.2%에서 2022년에 11.4%로 증가하였다. 서울시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에 서울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대비 6.0%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896건 증가하였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외활동과 대면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2021년에는 안전사고가 줄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격리가 해제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안전사고는 물론 일반 놀이시설 사고까지 안전사고의 관리 영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일반 안전사고는 관리주체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범위한 개별 안전대책을 서울시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통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관리주체의 안전대책 공통 요소로는 안전 수칙 홍보가 있다. 이를 잘 시행하기 위한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공통 이용자 안전 수칙을 개발하고 서울시 안전 앱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수칙 인식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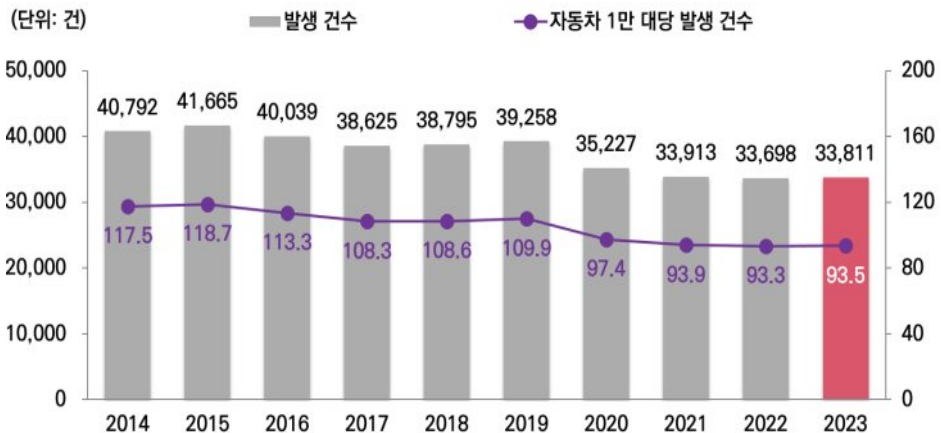
야간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서울시민을 위하여 안전 정책 홍보 강화, 안전행정 시설 보완 및 치안대책 강화 등 시행

서울시민이 야간보행 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건과 사고 보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의 야간 안전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치안시설이 부족하다고 실제적인 안전 행정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범죄 피해 취약도가 높은 지점부터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드문 인적과 우범 지대도 야간 보행 불안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역 치안 특성을 조사하여 안심귀가 스카우트나 경찰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지표 설명

•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811건으로 전년 대비 113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3.5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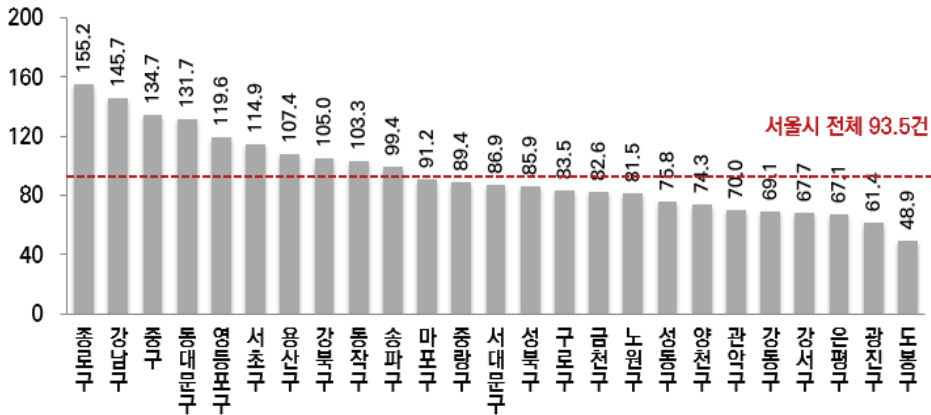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45〉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치구별로는 종로구(155건), 강남구(146건), 중구(135건), 동대문구(132건) 등에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49건), 광진구(61건), 은평구(67건) 등에서 낮게 나타나,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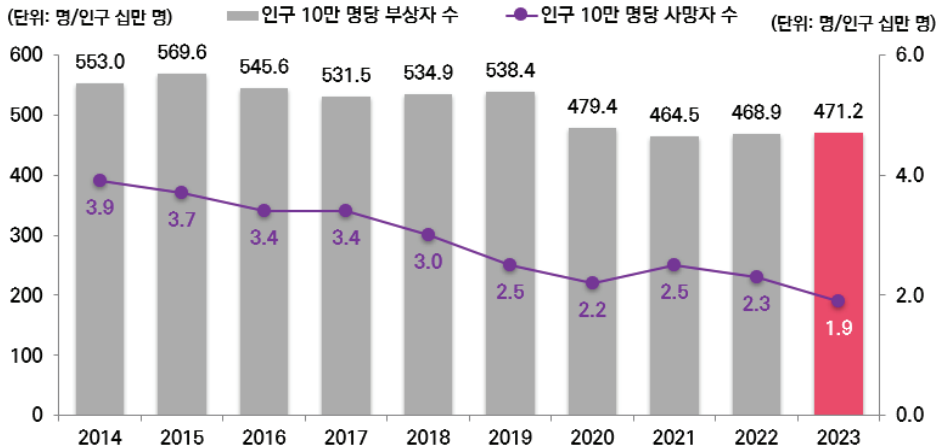
(단위: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2023

〈그림 3-146〉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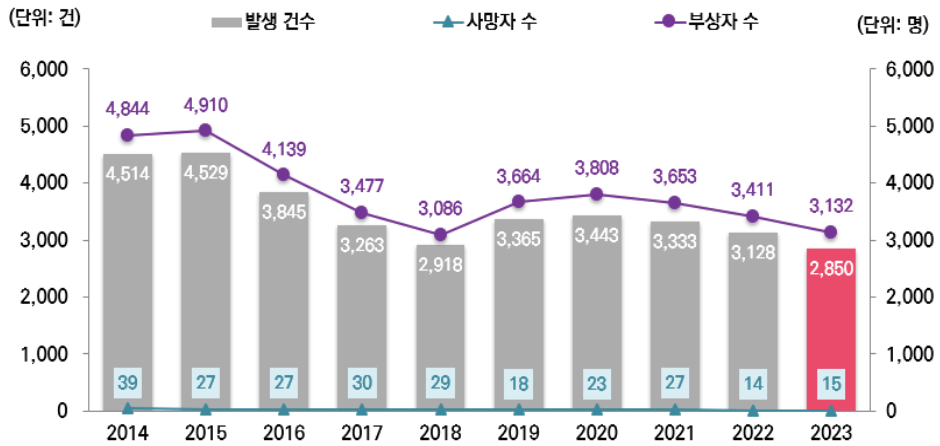
2023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471.2명, 사망자 1.9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는 2.3명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0.4명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47〉 자동차 교통사고 사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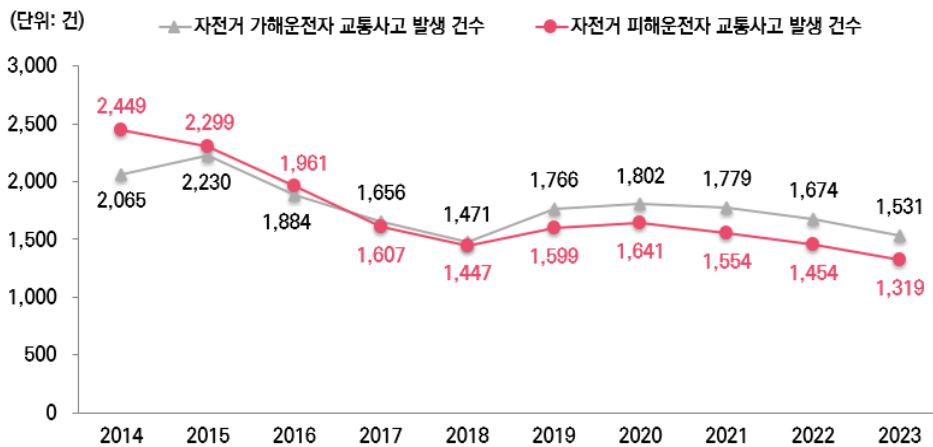
한편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의하면, 2023년 서울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50건, 부상자 수 3,132명, 사망자 1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8건 감소하였고, 부상자 수는 279명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명 증가하였다. 10년 전에는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주)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48〉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주) 1)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1당사자 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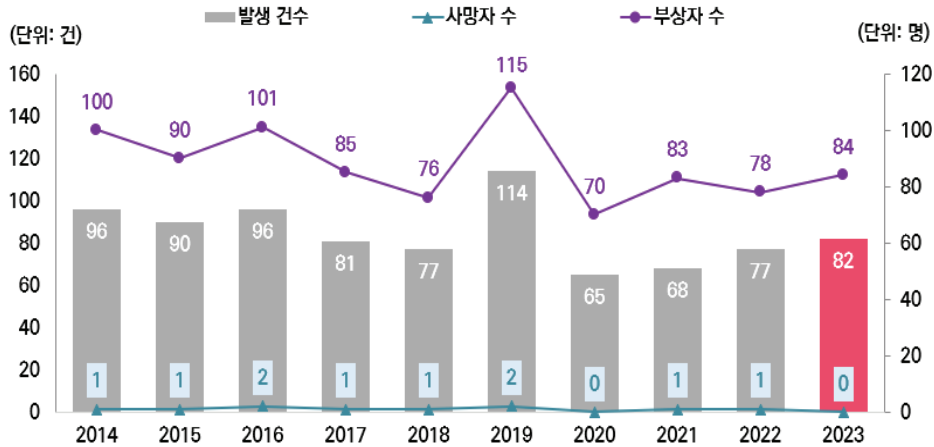
2)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2당사자 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49〉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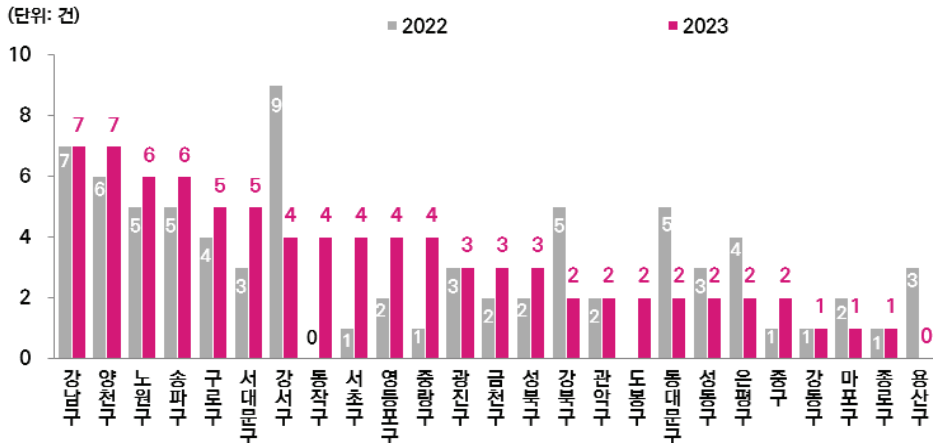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 의하면,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는 총 84명(부상자 84명, 사망자 0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증가하였다.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그림 3-150〉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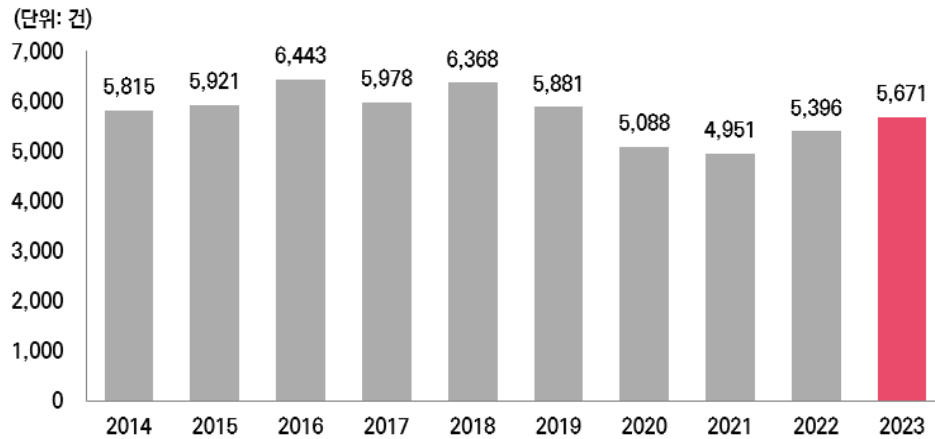
〈그림 3-15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구별)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양천구(7건), 노원구·송파구(6건)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 건사고가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용산구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건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한 자치구는 총 7곳(강서구 5건, 강북구·동대문구·용산구 3건, 은평구 2건, 성동구·마포구 1건)이며, 전년 대비 증가한 자치구는 13곳(동작구 4건, 서초구·중랑구 3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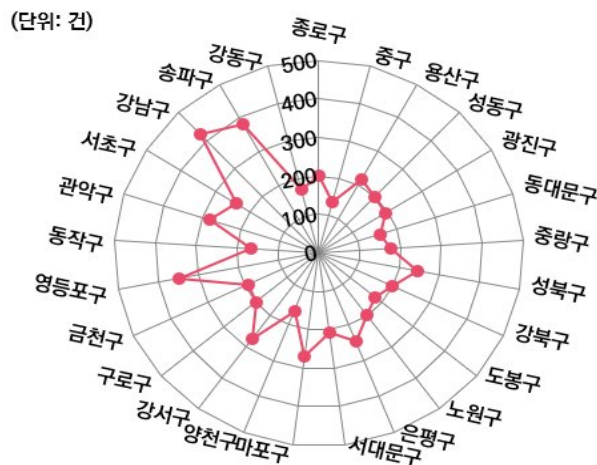
•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화재 발생 건수는 5,671건(실화 5,039건, 방화 109건, 기타 523건)으로 전년 대비 275건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그림 3-152〉 화재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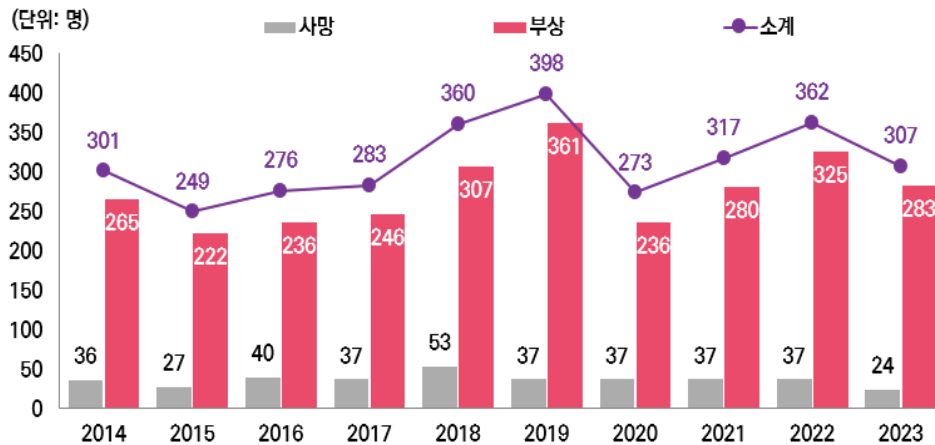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2023

〈그림 3-153〉 화재 발생 건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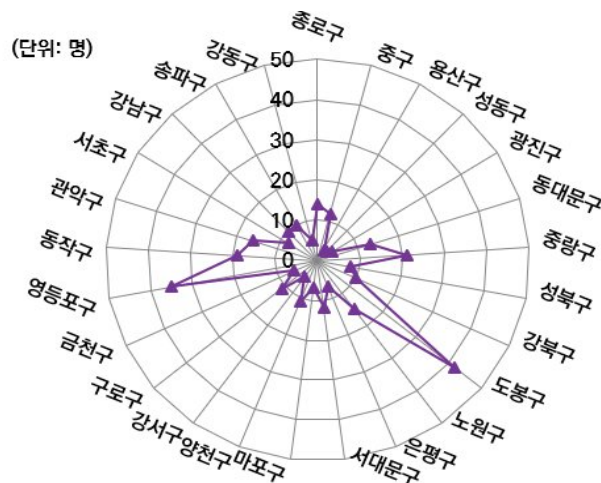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22건), 송파구(382건), 영등포구(348건), 관악구(281건) 등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137건), 동대문구(158건), 양천구(162건), 동작구(167건)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2023년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307명(사망 24명, 부상 283명)으로 전년 대비 55명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명, 부상자 수는 42명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그림 3-154〉 화재 사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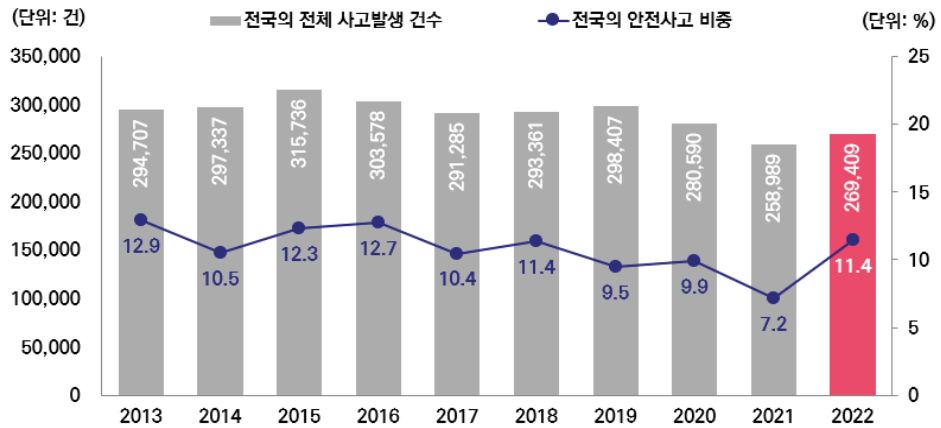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2023

〈그림 3-155〉 화재 사상자 수(구별)

자치구별로는 도봉구(42명), 영등포구(35명), 중랑구(21명) 등에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성동구·용산구(3명), 광진구(4명), 강동구·강서구(5명) 등에서 사상자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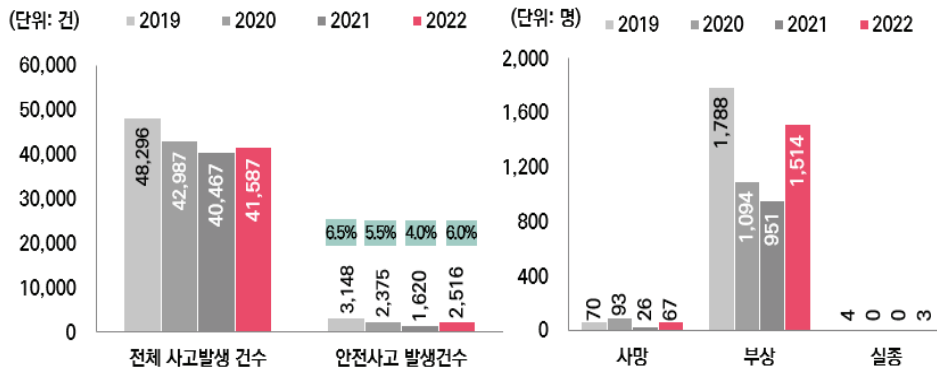
•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행정안전부의 사고발생현황 통계 중 전국의 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각종 안전사고(지하철, 열차, 산불, 해양, 폭발, 전기(감전), 승강기, 수난, 등산, 추락,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 사고 등) 발생 건수는 2022년에 30,835건으로 전체 사고발생의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2,305건(66.4%) 증가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그림 3-156〉 전국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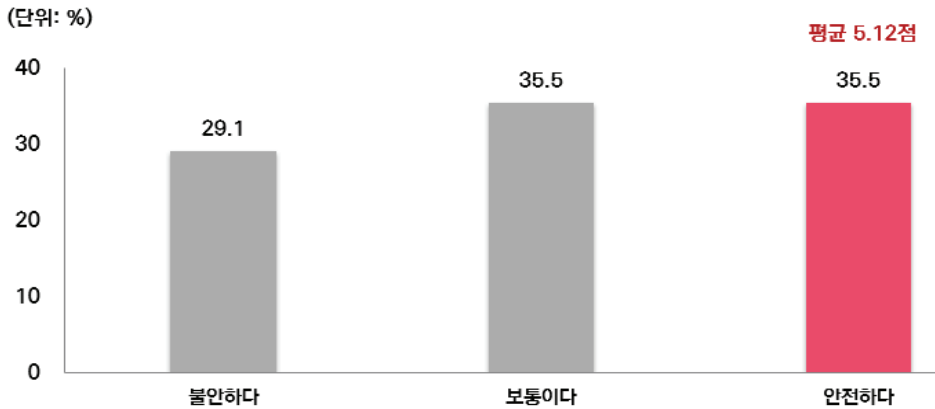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그림 3-157〉 서울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

서울의 안전사고 건수는 2022년에 2,51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수 67명, 부상자 수 1,514명, 실종 3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896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41명, 563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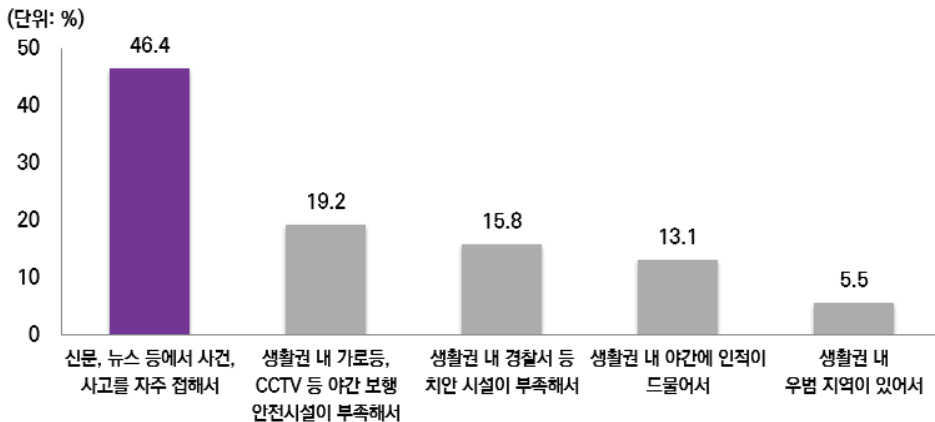
• 야간보행 안전도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35.5%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29.1%는 야간보행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10점,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58〉 야간보행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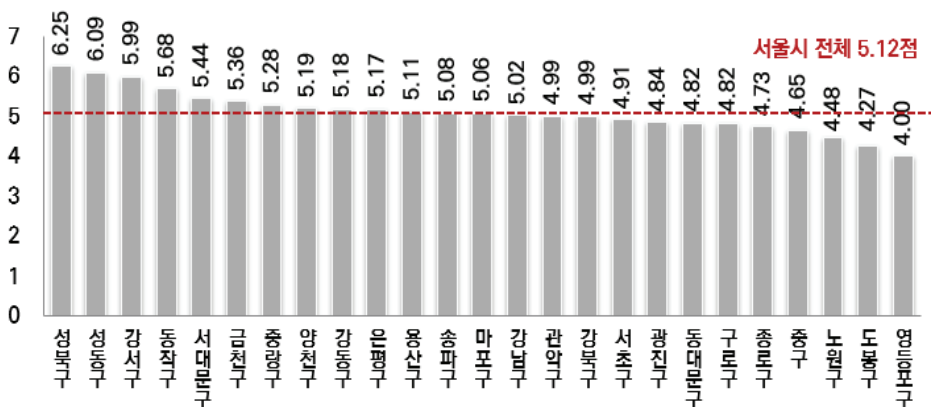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59〉 야간보행 불안 이유

밤에 혼자 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권 내 가로등,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 부족’ 19.2%, ‘생활권 내 경찰서 등 치안 시설 부족’ 15.8%, ‘생활권 내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 13.1%, ‘생활권 내 우범지역이 있어서’ 5.5%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6.25점), 성동구(6.09점), 강서구(5.99점) 등에서 야간 보행 안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4.00점), 도봉구(4.27점), 노원구(4.48점), 중구(4.65점), 종로구(4.73점) 등에서 야간보행 안전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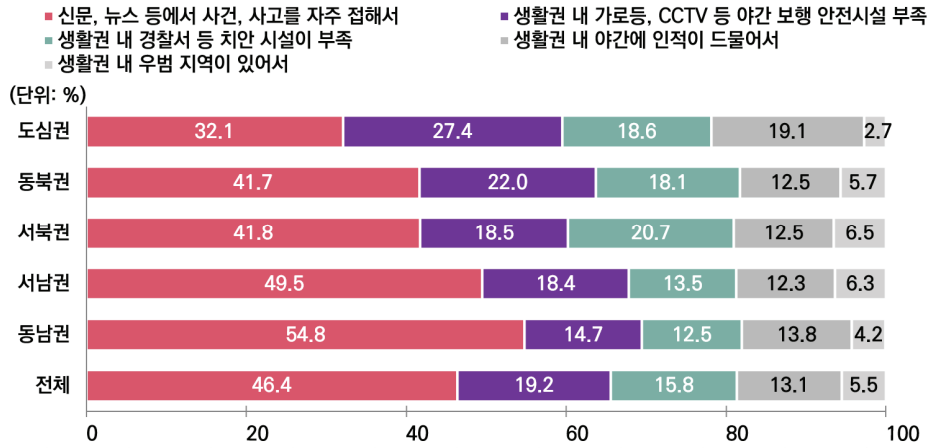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10점,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60〉 야간보행 안전도(구별)

권역별로 야간보행이 불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동남권과 서남권은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도심권과 동북권은 ‘생활권 내 가로등,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야간보행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반면에 서북권은 ‘생활권 내 경찰서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61〉 야간보행 불안 이유(권역별)

3. 사회안전

1) 요약 및 정책 제언

강력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최근 2년 소폭 증가

서울의 5대 강력범죄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에 폭력이 23.7%, 절도가 20.6%, 강간강제추행이 24.1%, 살인 및 강도가 9.6%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나고 비대면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유형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감소 비율이 20%를 상회했는데 이는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이 살인보다 우발적 대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격리가 완화된 이후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은 2022년의 64.7건으로 증가 추세로 변화되었고 2023년에 65.0건으로 전년 대비 0.3건 증가하였다. 2023년에 전년도 대비 살인 및 강도는 소폭 늘어났으나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은 소폭 줄었다. 지역적으로도 강남구,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에서 다른 자치구에 대비 높은 5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차원의 범죄 안전대책이 보완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폭력 중 가정폭력 비중이 높고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여전히 높은 편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율도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비중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실외 이동 안전 중심의 여성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3년에 719건으로 전년 대비 103건(16.7%) 증가하였다.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676건)과 2021년(736건)에 급등하였지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6.3%(120건)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23년 전국의 노인 학대 사례는 7,02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경기도(23.2%, 1,6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반등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의 2023년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총 2,766건,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59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아동학대 사례는 133건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 1,812건(2.9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판단 건수가 최근 10년간 증가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23년에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59명으로, 전년도 대비 인구 천 명당 0.02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4년 대비 4배 이상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시 안전약자에 대한 예방적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서울시에서는 여성, 노인, 아동에 대해 안전약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여성안심특별시를 선언하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4시 스마트 안심망,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심 경보기 보급 등의 사업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교보안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방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여성안전 대책에 비해 노인과 아동에 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성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도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 상담, 지원, 보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방지 행동요령을 다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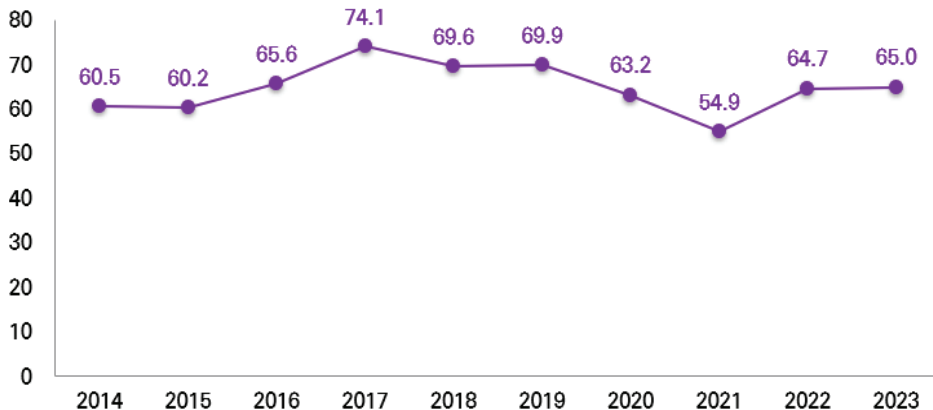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2023년 4,472억 원 이상으로, 국민의 고통이 크고 범죄예방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 8,902건으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 범정부 통합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되었다. 경찰, 금융, 인터넷관리 등 관련 기관에서 신속한 대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링크와 더불어 관련 피해 방지 행동요령을 제공하도록 하여 시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야 한다.

2) 지표 설명

• 강력범죄 발생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치안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65.0건으로 전년 대비 0.3건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4.5건 증가하였다.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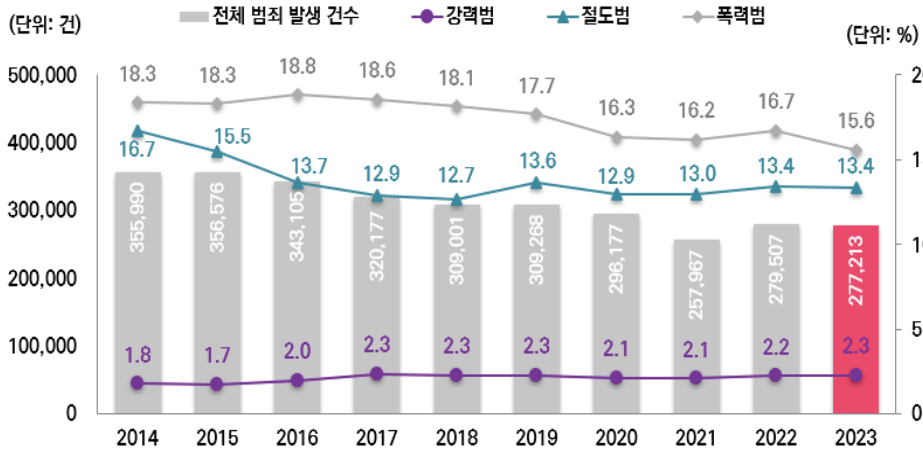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162〉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최근 10년간 서울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전년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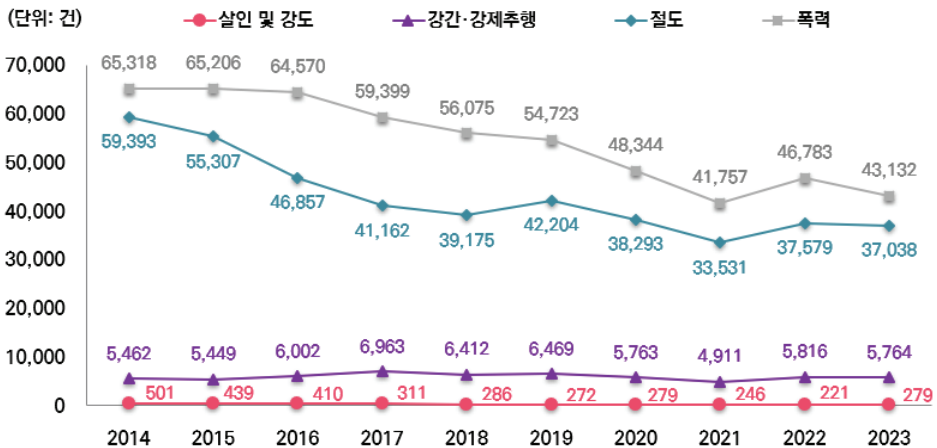
비해 2,294건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발생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전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그림 3-163〉 범죄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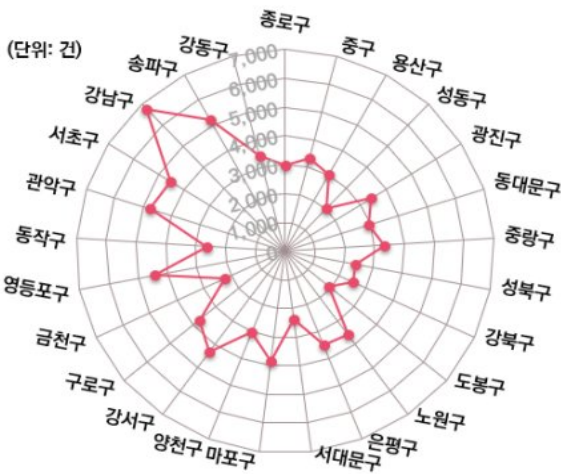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 5대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폭력 범죄가 43,1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절도 37,038건, 강간·강제추행 5,764건, 강도 129건, 살인 150건 발생하였다. 전년 대비 살인과 강도 범죄가 증가한 반면(각각 46건, 12건), 폭력, 절도,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그림 3-164〉 5대범죄 발생 건수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5대범죄는 강남구(6,763건), 송파구(5,223건), 관악구(4,769건), 서초구(4,522건)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도봉구(1,921건), 성동구(2,023건), 금천구(2,240건) 등에서 적게 발생하였다.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중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277건)하였으며,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감소(401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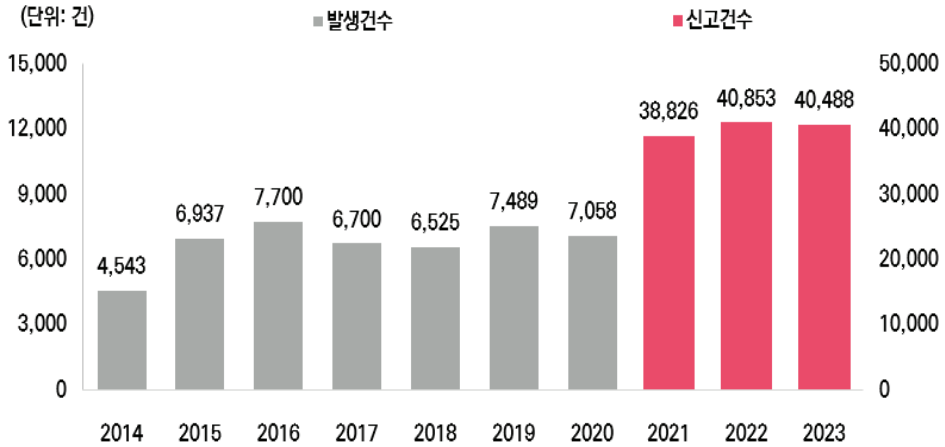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2023
〈그림 3-165〉 5대범죄 발생 건수(구별)

•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민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0,488건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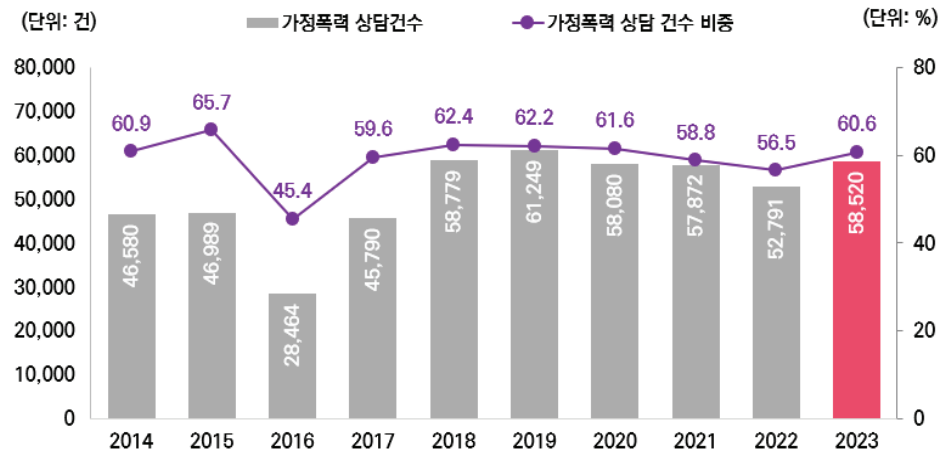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의 여성폭력상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3년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상담 건수는 총 96,5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정폭력에 따른 여성 상담 건수는 60.6%(58,520건)를 차지하였다. 201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729건 증가(4.1%p)하였다.



주) 2020년 이전: 발생건수, 2021년 이후: 신고건수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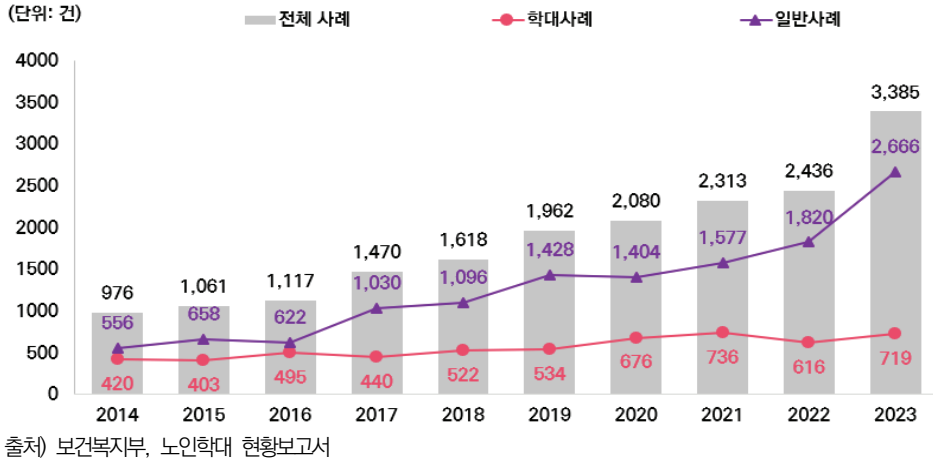
〈그림 3-166〉 가정폭력 발생 현황



출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그림 3-167〉 가정폭력 상담건수

한편,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 신고 건수는 3,385건으로, 전년 대비 949건(39.0%)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노인학대 사례로 신고된 접수 건수는 719건으로 전년 대비 103건(16.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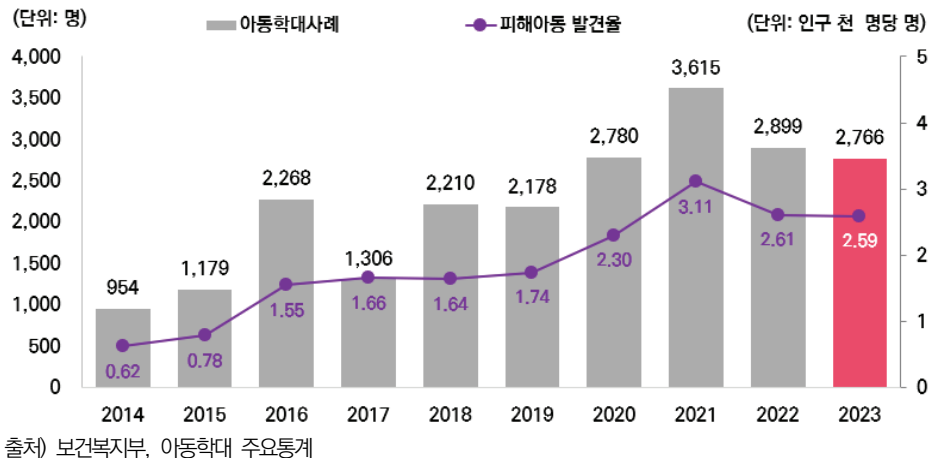


〈그림 3-168〉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됨
- 일반사례건수: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건수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3년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총 2,766건,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59명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33명 감소하였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2.9배(1,812명) 증가하였다.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년 대비 0.02명 감소하였으나, 2014년(0.62명)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높다.



〈그림 3-169〉 아동학대 피해 건수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본 자료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06년 최초 발생 이후 2019년에 37,667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23년에 전국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8,902건,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2,930건, 966억 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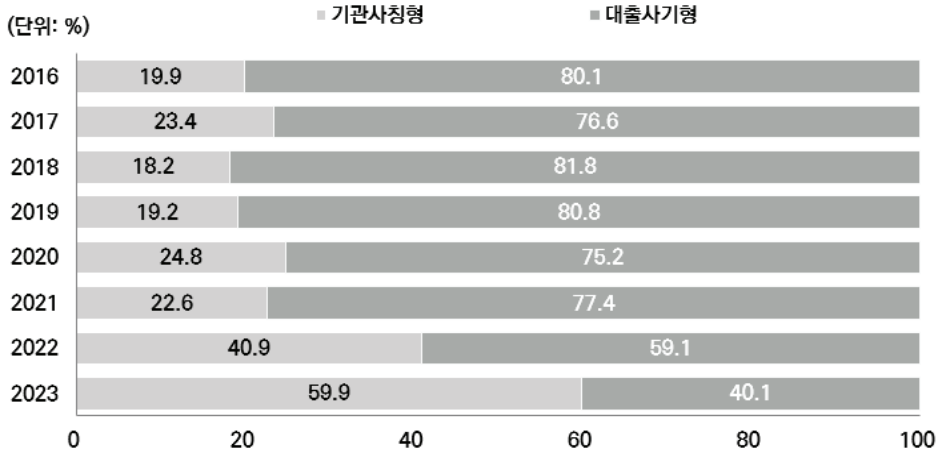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그림 3-170〉 전국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¹³⁾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¹⁴⁾으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대출사기형 피해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기관사칭형 피해율이 40.9%로 급등하였으며, 2023년에는 59.9%로 증가하면서 대출사기형 피해율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¹³⁾ 대출사기형의 대표적인 유형은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유도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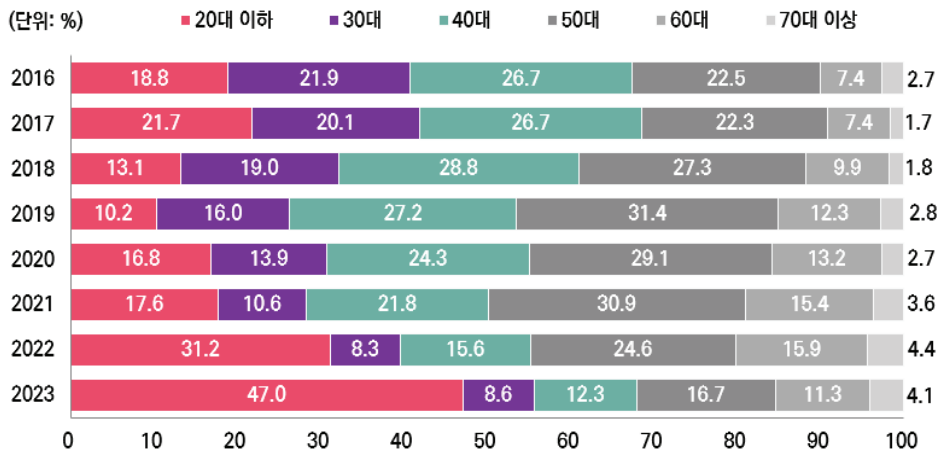
¹⁴⁾ 기관사칭형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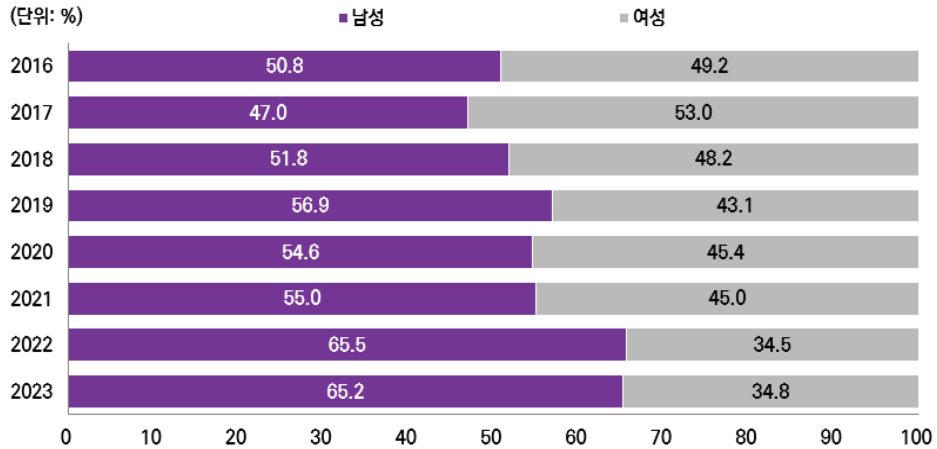
〈그림 3-171〉 전국의 유형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대 이하와 남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과 달리 모든 연령층에서 피해 경험이 있으며, 40~50대의 피해 경험이 6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20대 이하의 피해율이 47.0%로 가장 높았고, 50대(16.7%), 40대(12.3%), 60대(11.3%), 30대(8.6%), 70대 이상(4.1%)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30대의 피해율이 증가한 반면, 40대 이상의 피해율은 감소하였다.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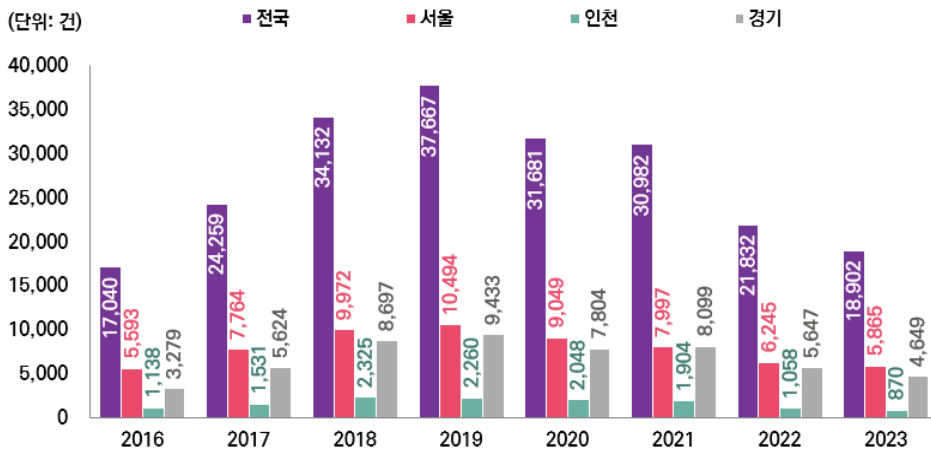
〈그림 3-172〉 전국의 연령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그림 3-173〉 전국의 성별 보이스피싱 발생 비율

한편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수도권(60.2%)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2023년 기준 전국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서울 31.0%, 경기도 24.6%, 인천 4.6%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023년에는 5,8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10,494건) 이후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다.



출처)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 피해 현황

〈그림 3-174〉 수도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제6절 환경

1. 대기와 녹지

1) 요약 및 정책 제언

(초)미세먼지 외에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오존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상황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요 관심 대상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농도 수준에는 못 미치나 중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는 2022년 발표한 '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서 2032년 전국 PM2.5 연평균 농도 목표를 $12\mu\text{g}/\text{m}^3$ 로 설정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계획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에서 2030년 서울시 PM2.5 연평균 농도 목표를 $13\mu\text{g}/\text{m}^3$ 로 설정하고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각각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므로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서울의 오존 농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성과는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과학에 기반한 효과적 대책 발굴, 적극적 대책 추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존도 (초)미세먼지 처럼 배출, 반응, 생성, 제거 등의 과정이 매우 복잡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밟았던 단계와 쏟은 노력을 이제는 오존 문제 해결을 위해 밟고 쏟아야 할 시점이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과 정온한 생활환경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 발굴·추진 필요

녹지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에서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에 속한다. 서울시민 대상의 서울서베이 조사에서 녹지환경 만족도는 최근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인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2021년 5.99점에서 2022년 6.17점, 2023년 6.31점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 등 정원이 도시와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서울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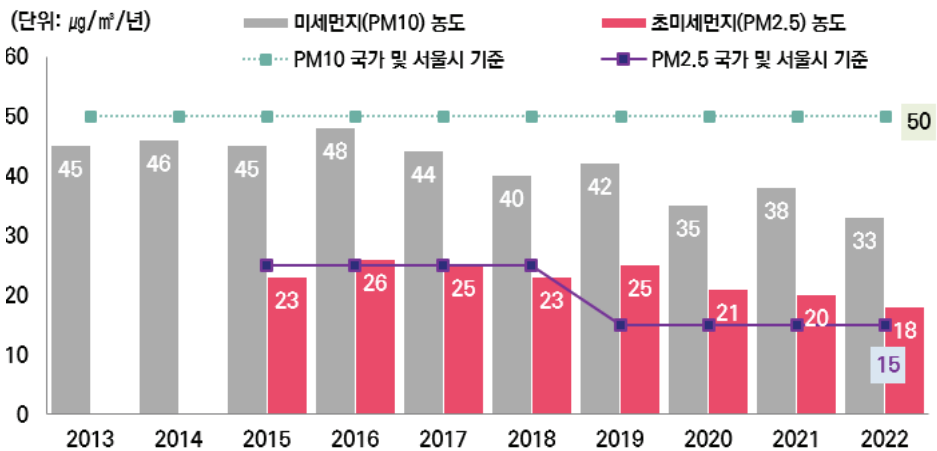
과 사업의 성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녹지환경 만족도가 자치구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서울시 평균치를 상회하는 자치구와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녹지 면적 및 접근성,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등을 비교해 녹지환경의 질적, 양적 개선점을 찾고, 지역별 녹지환경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도,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서울처럼 도로와 인접해 주거지역이 형성된 대도시에서 주요 소음원 중 하나는 차량 등 교통이다. 서울의 도로변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낮 동안 소음도는 일반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소음도보다 꾸준히 10dB(A) 이상 높다. 문제는 일반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소음도가 2021년부터 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인 55dB(A)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일반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소음도는 2021년, 2022년보다는 1dB(A) 낮아졌지만, 주간소음 기준은 초과해 56dB(A)를 보였다.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시 지역의 주요 소음원인 교통, 공사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음 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2) 지표 설명

• (초)미세먼지 농도

국가 및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은 $50\mu\text{g}/\text{m}^3$ 이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2015년 $25\mu\text{g}/\text{m}^3$ 에서 2018년 $15\mu\text{g}/\text{m}^3$ 로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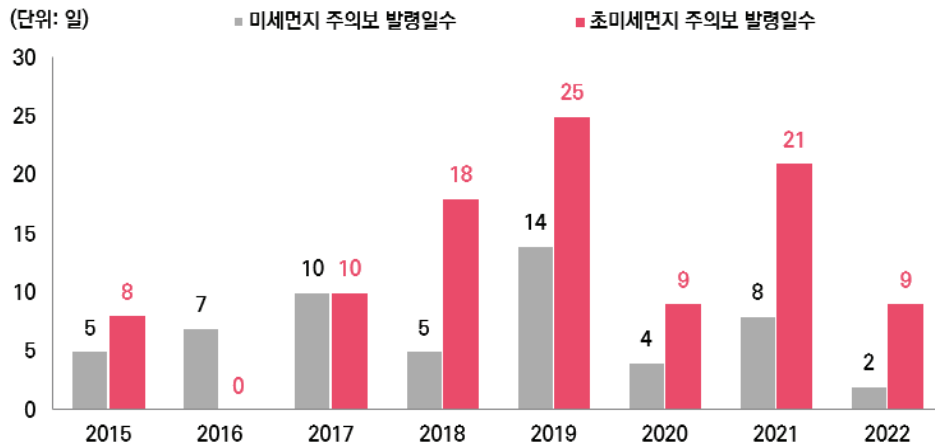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그림 3-175〉 (초)미세먼지 농도

서울시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정보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33\mu\text{g}/\text{m}^3$ 으로, 2011년 이후 환경기준치인 $50\mu\text{g}/\text{m}^3$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연간 $18\sim 26\mu\text{g}/\text{m}^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8년 이후 환경기준치인 $15\mu\text{g}/\text{m}^3$ 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2022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환경기준은 여전히 초과하였다.

환경부의 대기정보 예보/경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역에 2022년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9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각각 6일, 12일 감소하였다.



주) 2022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 예보/경보

〈그림 3-176〉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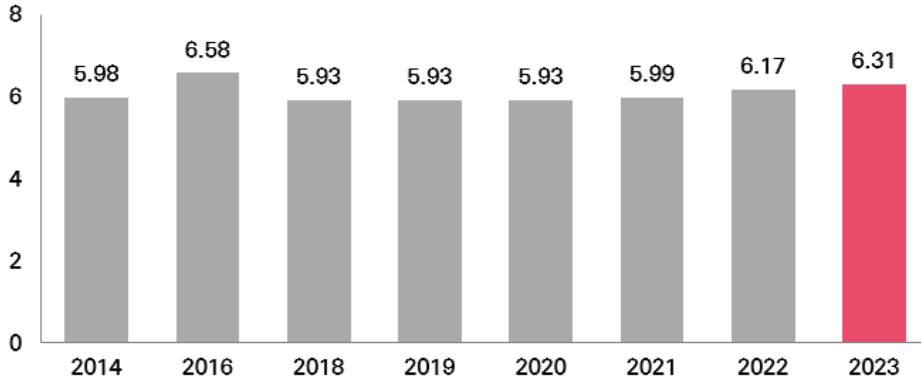
-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23년에 6.31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0.14점) 상승하였다. 서울시민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최근 10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

로 5.9점~6.6점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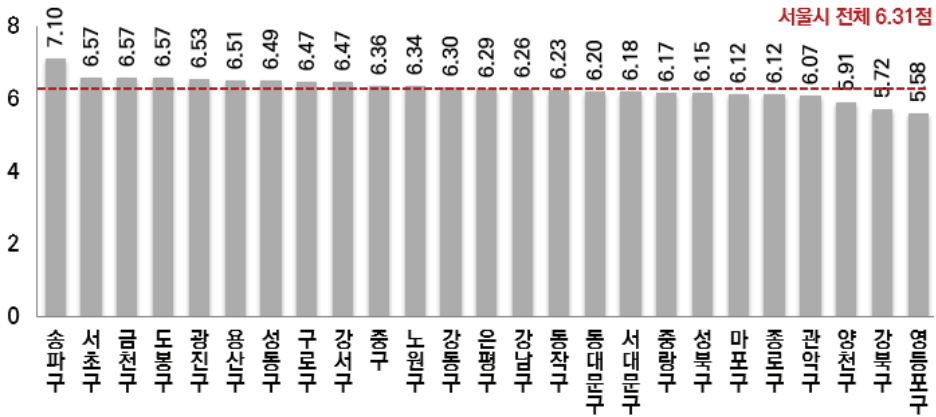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1)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77〉 녹지환경 만족도

(단위: 10점 만점)



주: 1)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78〉 녹지환경 만족도(구별)

자치구별로는 송파구(7.10점), 서초구(6.57점), 금천구(6.57점), 도봉구(6.57점) 등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5.58점), 강북구(5.72점), 양천구(5.91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개 자치구에서 녹지환경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9개 자치구에서는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광진구는 1점, 금천구와 송파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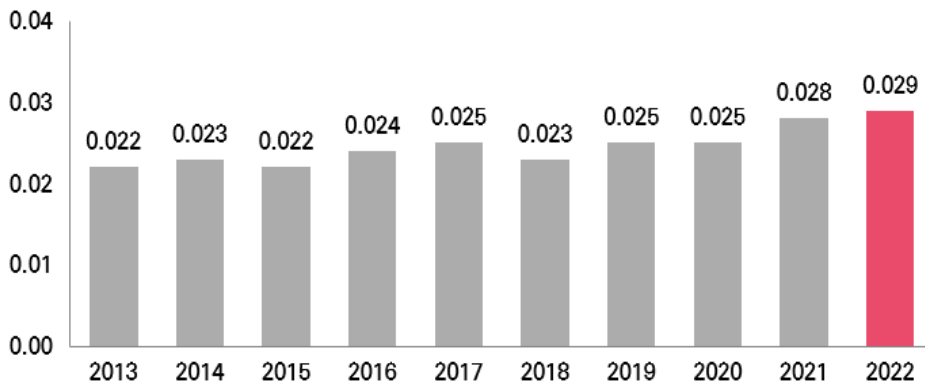
0.7점, 구로구는 0.6점 상승하였으며, 영등포구는 0.5점, 강남구와 강북구는 0.4점, 강동구는 0.3점 감소하였다.

• 오존 농도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29ppm으로 2013년(0.022ppm) 대비 0.007pp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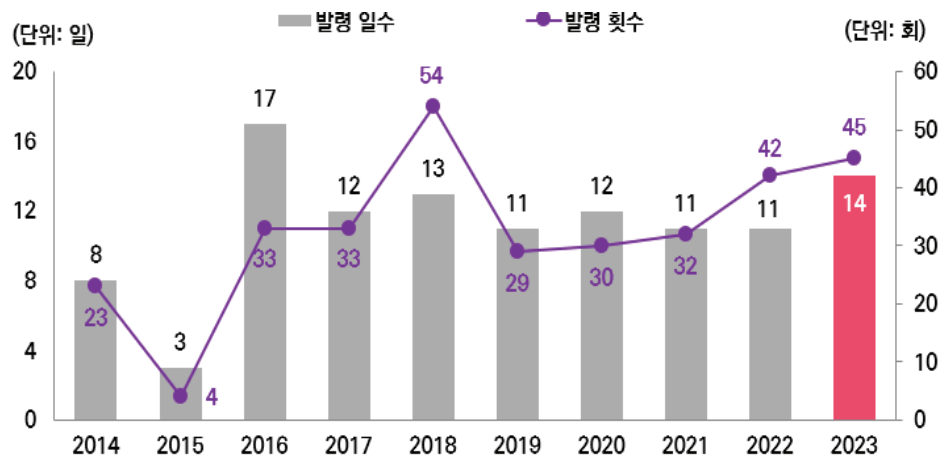
(단위: ppm/년)

※ 국가 및 서울시기준: 0.06(ppm/8시간)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

〈그림 3-179〉 오존 연평균 농도



출처)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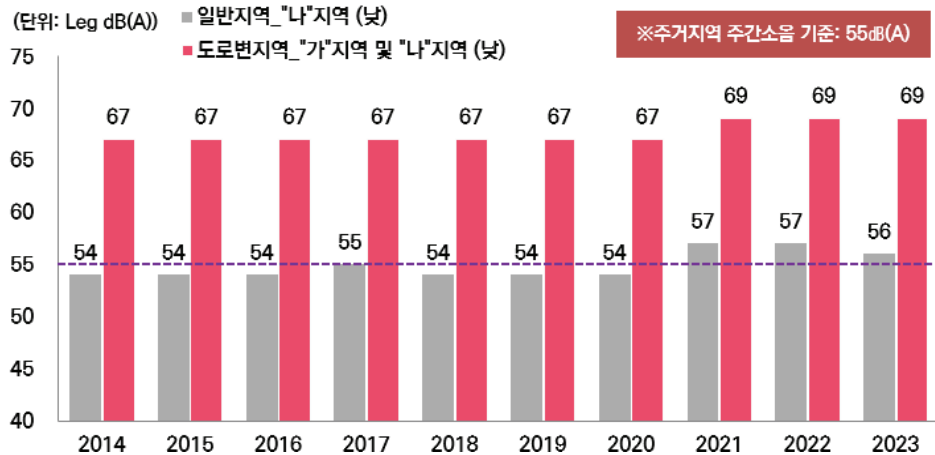
〈그림 3-180〉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또한 2023년 서울의 오존 주의보 발령 일수는 총 14일로 전년 대비 3일 증가하였으

며,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45회로 전년 대비 3회 증가하였다. 이처럼 서울의 오존 농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 환경소음도

2023년 서울시 일반지역 중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나"지역)의 낮(6:00~22:00) 동안 연평균 환경소음도는 56dB(A)로 나타났으며, 도로변지역 중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가"지역 및 "나"지역)의 낮 동안 환경소음도는 69dB(A)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5dB(A)로서, 도로변과 인접한 주거지역("가"지역 및 "나"지역)의 낮 동안 환경소음도는 최근 10년간 67~69dB(A)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반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환경소음도는 2021년 이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전년 대비 일반 (준)주거지역의 낮 동안 환경소음도는 1dB(A) 감소하였으며, 도로변과 인접한 주거지역("가"지역 및 "나"지역)의 환경소음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주) 서울시 소음측정망 설치 현황: 녹지, 주거, 상업지역 등 30개 지역 150개 측정망

- "가" 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

- "나" 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출처)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그림 3-181〉 주간 환경소음도

2. 물순환과 자원순환

1) 요약 및 정책 제언

물순환 회복 중장기 계획의 선제적 정책 이행 및 물순환 평가지표 마련, 유역 통합적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회복 체계 구현 필요

서울시계 한강 본류와 지천의 수질 측정 결과, 서울시 25개 모든 하천지점에서 깨끗한 물 달성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도림천, 성내천, 뚝도, 영등포 지점 등 중·소규모 하천의 수질은 상대적으로 덜 양호하거나, 일부 지점에서는 기준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물관리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계획의 선제적 이행을 통해 도시 물순환 개선과 함께 악화된 물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순환 계획 및 정책의 이행과 적극적인 예산 활용 유도를 위해 서울시 물순환 회복 계획에 따른 물순환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물순환 건전성 지표 개발이 시급하며, 이행평가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물 부족,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촉진법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된 지역이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고, 물순환촉진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유역 물순환 왜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근거로 한강유역 타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주요 기관,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유역 차원의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사업장 책임 강화와 재활용 확대, 다각화를 통한 제로웨이스트 도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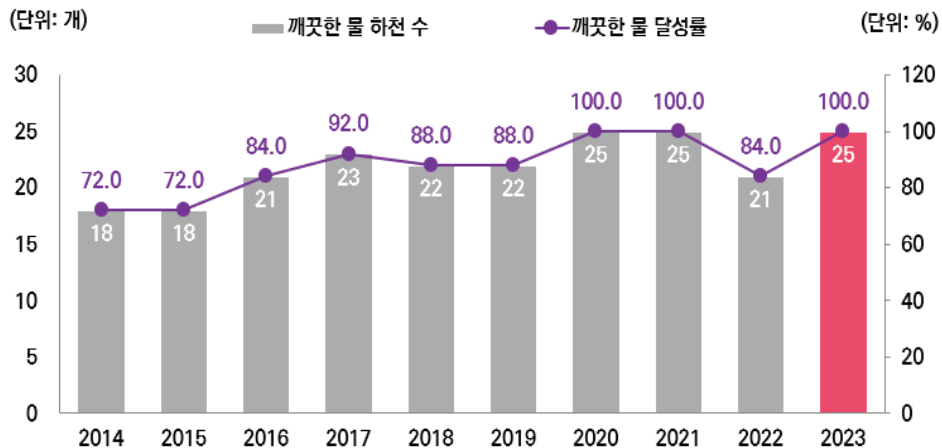
서울시의 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직매립되는 종량제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식당, 가게, 사무실, 대형마트 등 비배출시설계 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가정생활폐기물의

경우 거주 인구 대비 발생량이 일정하고, 공공 재활용·소각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폐비닐 특별분리배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처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커피박, 폐섬유원단 등 품목별 재활용률을 높이고 화학적 재활용 등 처리방법을 다각화하여 종량제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량제 처리 최소화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가정생활폐기물 처리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민간 소각·매립·재활용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잔재물 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이 필요하며, 특히 서울 외 지역 의존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 도시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재생자원 제품 소비 촉진, 제로웨이스트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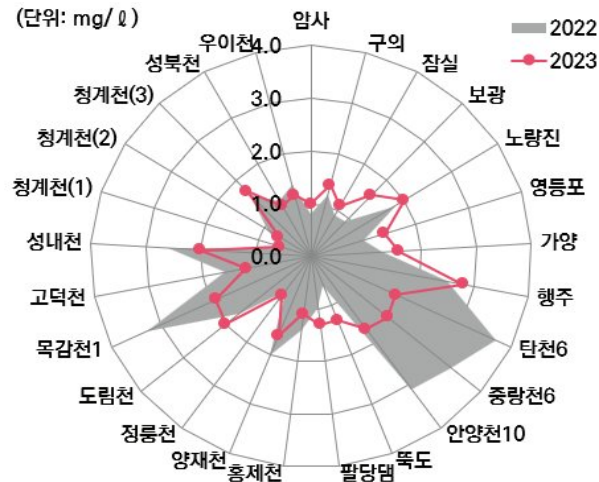
•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의 수질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하천 중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mg/ℓ 이하인 ‘깨끗한 물’에 해당하는 하천의 비율은 2023년에 100.0%(25개)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수질현황

〈그림 3-182〉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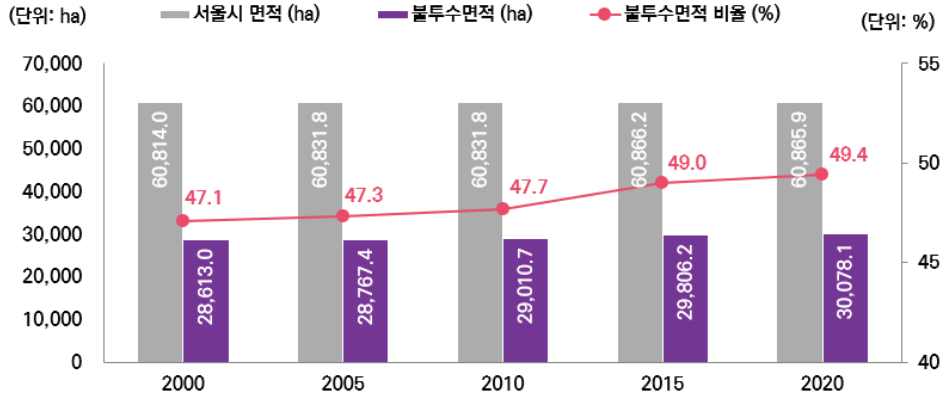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수질현황

〈그림 3-183〉 서울시계 한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서울시 전체 25개 측정지점 중 청계천, 정릉천, 암사, 성북천, 홍제천, 잠실 지점이 1.1mg/l 이하로 수질이 가장 좋으며, 행주, 노량진, 도림천, 성내천의 수질이 2.0~2.8mg/l 수준으로 수질이 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BOD가 3mg/l 이상이었던 탄천6, 중랑천6, 안양천10, 목감천1 지점(3.1~3.7mg/l)의 수질이 1.7~1.9mg/l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뚝도, 보광, 영등포 지점의 수질이 0.6~1.0mg/l 수준에서 1.3~1.6mg/l 수준으로 조금 악화되었다.

• 불투수면적 비율

불투수면적이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으로, 불투수면적이 늘어질수록 도시침수나 열섬현상이 심화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49.4%로, 2015년(49.0%)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비해 2.3%p 증가하였다. 불투수면적 규모 역시 2020년에 30,078.1ha로 2000년(28,613ha)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수질오염 심화와 생물 종다양성 감소가 우려된다.



주) 5년 주기 조사

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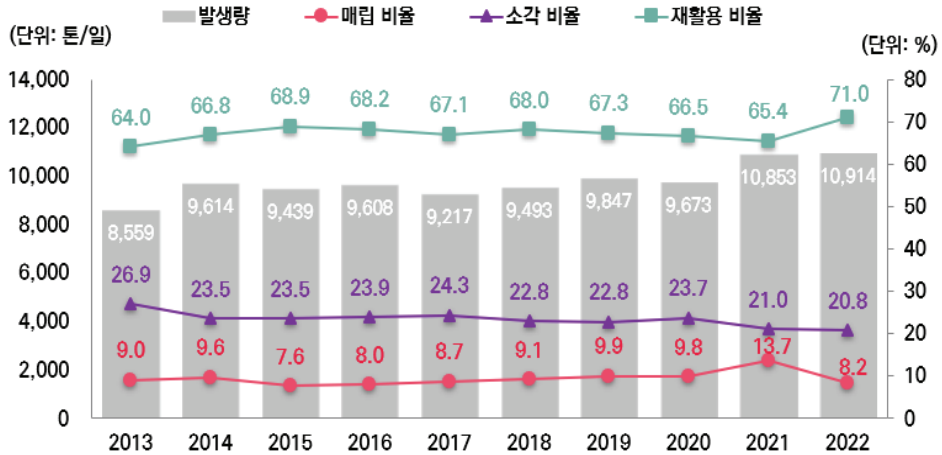
〈그림 3-184〉 불투수면적 비율

• 생활폐기물 매립률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2년 동안은 증가 추세다.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기준 1일 평균 10,914톤으로 전년 대비 61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매립 비율은 8.2%로 전년 대비 5.5%p 감소하였다. 반면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71.0%로 전년 대비 5.6%p 증가하였으며,¹⁵⁾ 소각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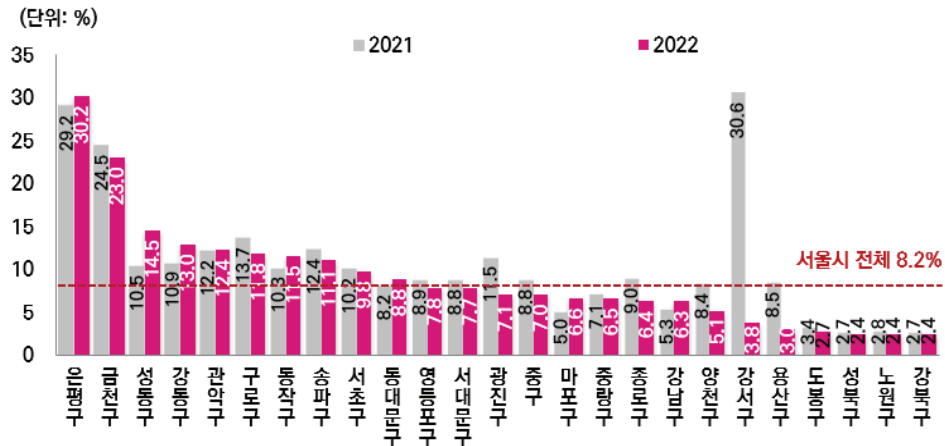
자치구의 매립률은 소각률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2년 기준 자치구 평균값인 서울시 매립률(8.2%)보다 높은 매립률을 나타낸 자치구는 은평구(30.2%), 금천구(23.0%), 성동구(14.5%),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동대문구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구 평균값인 서울시 매립률(8.2%)보다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노원구·성북구(2.4%), 도봉구(2.7%), 용산구(3.0%), 강서구(3.8%), 양천구(5.1%) 등이다. 전년 대비 강서구에서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가장 많이 감소(26.8%p)하였으며, 용산구(5.5%p), 광진구(4.4%p), 양천구(3.3%p), 종로구(2.6%p) 등도 매립률을 줄였다. 반면에 성동구(4.0%p), 강동구(2.1%p), 마포구(1.6%p) 등에서는 전년 대비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¹⁵⁾ 재활용 비율: 2019년부터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로 분리되었으나, '기타' 항목을 '재활용'에 포함하여 계산함
(※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림 3-185〉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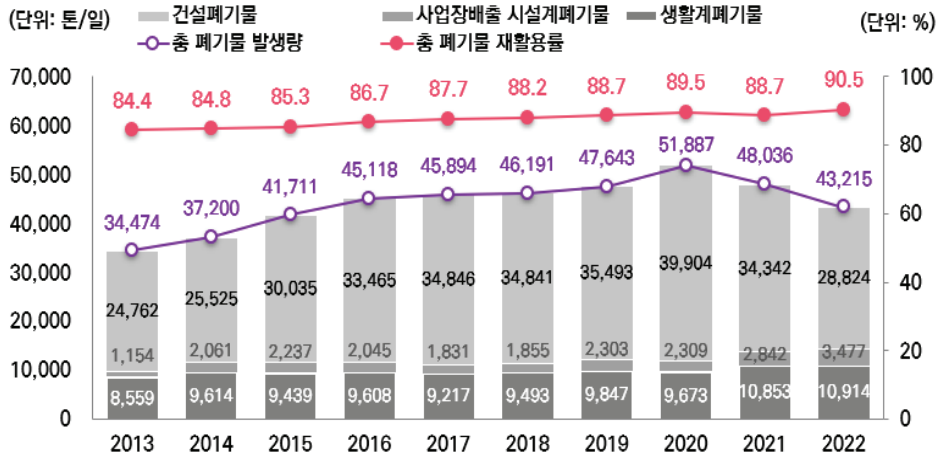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그림 3-186〉 생활폐기물 매립률(구별)

• 총 폐기물 재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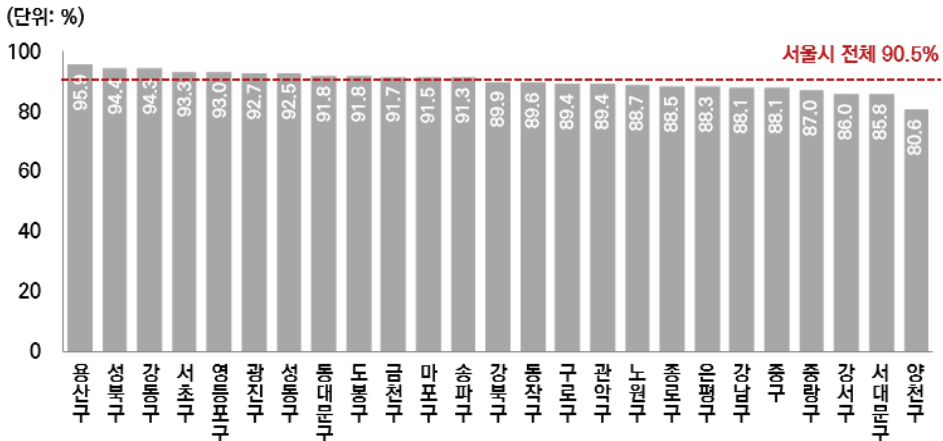
서울의 총 폐기물(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중 건설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43,215톤으로 전년 대비 4,821톤 감소하였으며,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90.5%가 재활용되었다.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그림 3-187〉 총 폐기물 재활용률

자치구별로는 2022년에 용산구의 총 폐기물 재활용률이 95.9%로 가장 높았으며, 성북구(94.4%), 강동구(94.3%), 서초구(93.3%), 영등포구(93.0%) 등에서 재활용률이 높았다. 반면에 양천구는 80.6%로 총 폐기물 재활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서대문구(85.8%), 강서구(86.0%), 중랑구(87.0%) 등에서도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2022

〈그림 3-188〉 총 폐기물 재활용률(구별)

3. 에너지

1) 요약 및 정책 제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정체, 온실가스 배출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다소 증가

2022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17,023toe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2.7%(8,714toe)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생산량 비율을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28.3%(89,647toe)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료전지 에너지 22.5%(71,483toe), 폐기물 에너지 21.9%(69,477toe), 태양광 에너지 20.7%(65,697toe), 지열 6.3%(20,070toe), 태양열 0.2%(503toe) 순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면서, 201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 72.4%를 차지하던 것에서 그 비중이 1/3 이상 축소되었다. 반면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 이후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직접배출보다는 간접배출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서울시의 전체적인 배출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한 것을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이후에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소비의 증가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일수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322천 톤 CO₂,eq(2.7%)이 감소하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68천 톤 CO₂,eq(약 4.6%)이 감소하였는데,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를 COVID-19로 인해 에너지 생산, 제조, 산업, 농업 등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에 의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150천 톤CO₂eq.(약 2.6%)가 증가하였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8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11.8%)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2.9%) 순이

다. 에너지 부문에는 건물과 수송 부문 배출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6.5%와 18.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폐기물 부문을 포함하면 이들 세 부문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6.3%에 달하여, 향후 이들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성과가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 2033년 5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교통·폐기물·에너지·흡수 부문 감축정책 적극 추진해야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하였다. 지난 2024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2024~2033) 2005년 대비 5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숲(흡수), 시민협력 부문 총 76개 사업을 통해 13,974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사업을 지속 강화, 온실가스 총량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 부분에서는 2033년까지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공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원천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의 경제적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 도시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태양광 466MW, 연료전지 700MW, 지열 970MW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옥상녹화, 가로변 녹지, 신규 숲 조성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흡수원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서울시의 주요 배출원인 건물, 교통, 폐기물 부문의 감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 폭염과 폭우로 인한 기후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체감, 도시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시의 적응 대책 적극 추진 필요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23년에 10점 만점에 6.78점으로 전년 6.12점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이상기온(폭염/한파 등)’에 대한 심각성이 7.44점으로 가장 높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심각성이 6.93점, ‘가뭄’ 심각성 6.47점, ‘폭설’ 심각성 6.2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별로는 중구(7.33점), 강북구(7.27점), 구로구(7.24점), 광진구(7.18점), 송파구(7.16점) 등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양천구(5.53점), 영등포구(6.34점), 마포구(6.36점), 강서구(6.43점), 중랑구(6.49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 체감도가 낮았다. 한편,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체감도는 강북구(7.75점), 송파구(7.59점), 광진구(7.52점), 구로구(7.48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5.67점), 중랑구(6.29점), 금천구(6.46점), 동대문구(6.50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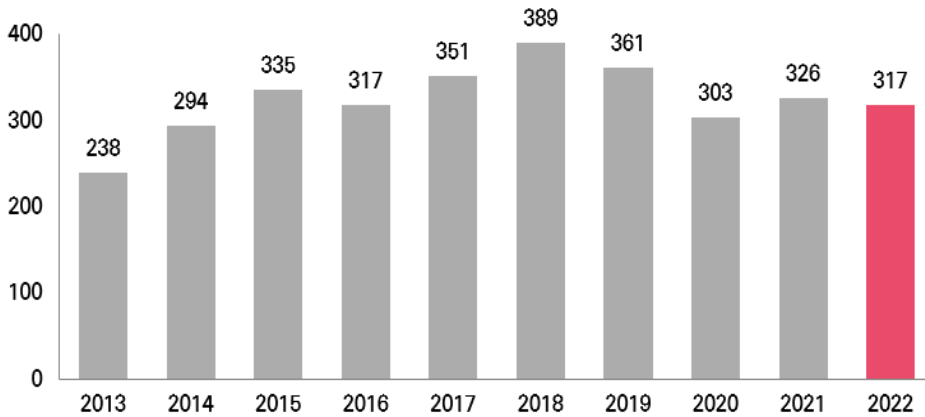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결과 이상기온과 폭우에 대한 시민의 기후 위기 체감도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상기온, 홍수, 가뭄 등 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이 서울시의 가장 큰 기후 변화 리스크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 서울시는 기존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에 ‘기후 위기 적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폭우 풍수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 상향, 반지하 주택 안전망 마련, 과학적·체계적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풍수해 대응 정책과 불투수층 개선, 물 재이용 확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울시 물순환 체계 구축 정책, 공원녹지 확충, 가로공원 조성 등 도시숲 확충 정책, 노후건물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상수도 및 집단에너지 공급 등 도시시설 관리 정책, 그리고 시민 및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 포함되었다. 향후 이들 적응 대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2) 지표 설명

• 신재생에너지 비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17,023toe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2.7%(8,714toe)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33.1% 증가하였다.

(단위: 천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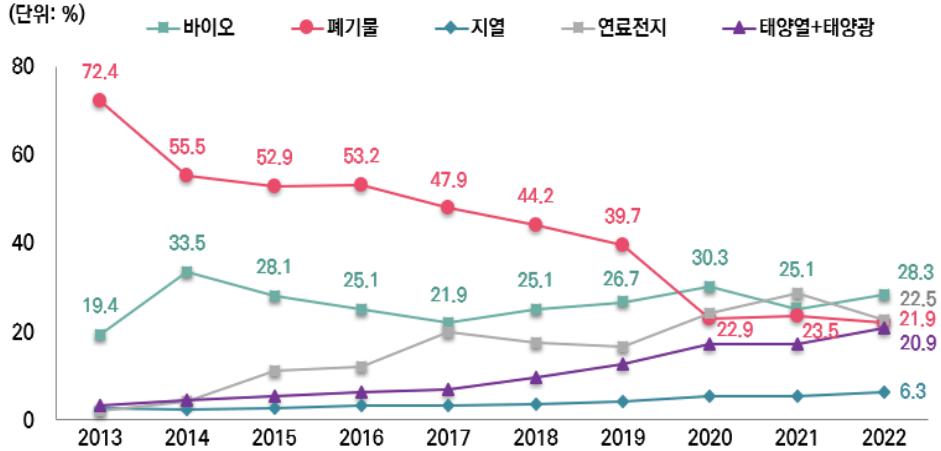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해 자가소비 후 상계된 잉여전력 생산량을 추가함

2) 2019~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그림 3-189〉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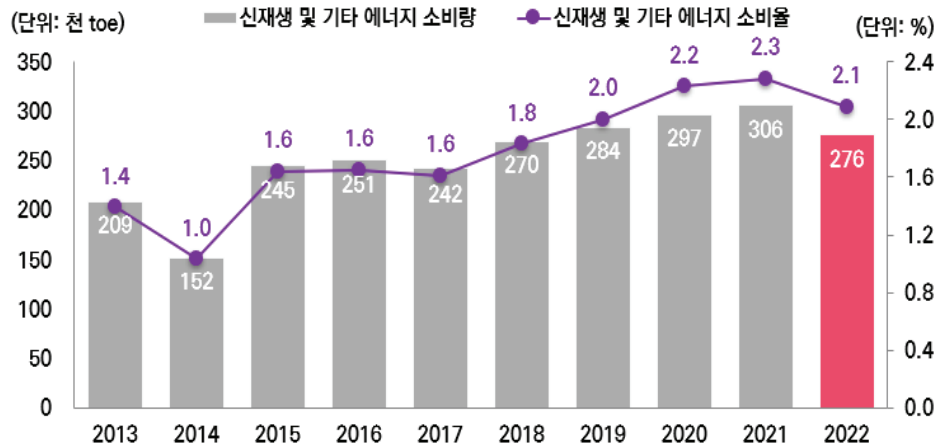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생산량 비율을 살펴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28.3%(89,647toe)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료전지 에너지 22.5%(71,483toe), 폐기물 에너지 21.9%(69,477toe), 태양광 에너지 20.7%(65,697toe), 지열 6.3%(20,070toe), 태양열 0.2%(503toe) 순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면서, 201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중 72.4%를 차지하던 것에서 그 비중이 1/3 이상 축소되었다. 반면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해 자가소비 후 상계된 잉여전력 생산량을 추가함
 2) 2019~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그림 3-19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종류별)

한편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서울의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소비율은 2022년에 2.1%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다.



주)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소비율 =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소비량 / 최종 에너지 소비량) × 100
 출처)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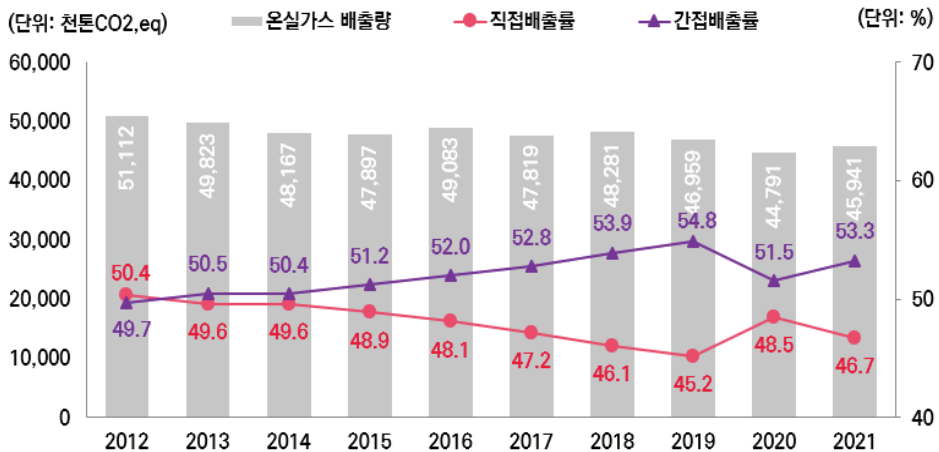
〈그림 3-191〉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연간 총 45,941천 톤 CO₂eq.으로, 전년 대비 2.6%(1,150천 톤 CO₂eq.) 증가하였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부터 간접배출량이 직접배출량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COVID-19 등의 영향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최근 10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접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 1)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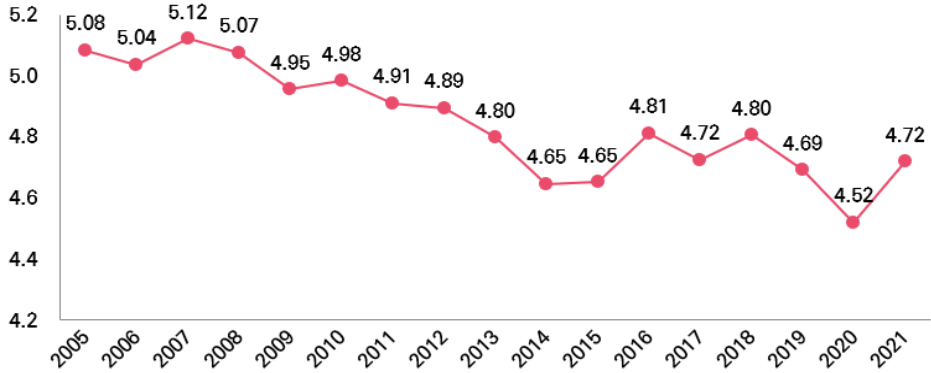
2) 2022년 데이터는 2024년 12월에 공표 예정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림 3-192〉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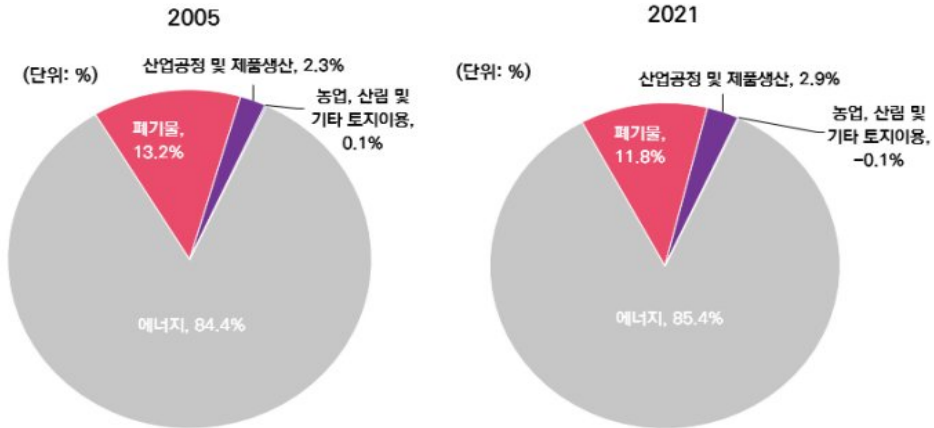
또한 서울시민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감소추세였으나, 2021년에 4.72톤 CO₂eq.으로 전년 대비 0.2톤 CO₂eq. 증가하였다.

(단위: tonCO₂eq/yr)



주)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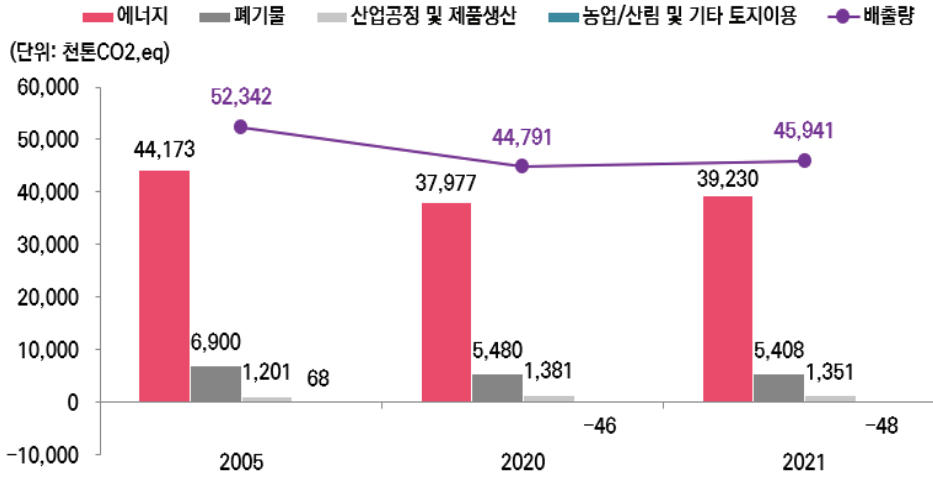
〈그림 3-193〉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주)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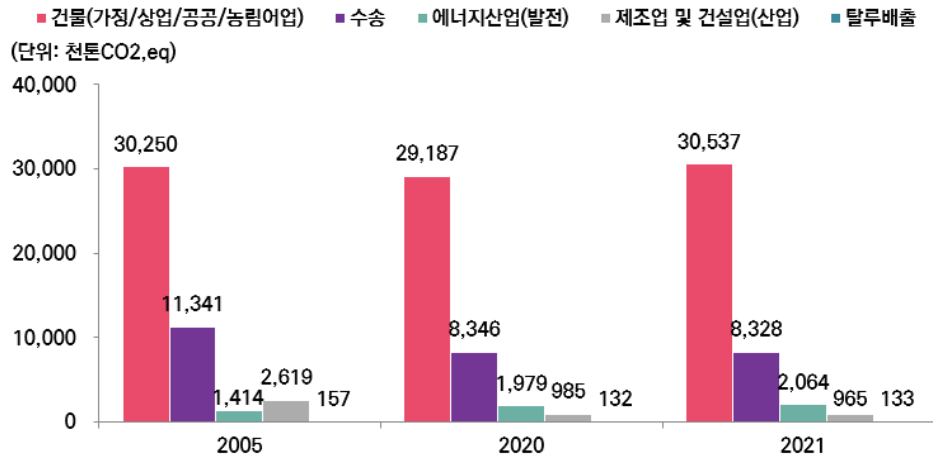
〈그림 3-19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4%는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11.8%)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2.9%)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대비 2021년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4,943천 톤 CO₂,eq.(11.2%) 감소하였고, 폐기물 부문은 1,492천 톤 CO₂,eq.(21.6%)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문의 배출량은 150천 톤 CO₂,eq.(12.5%) 증가하였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은 2005년 대비 116천 톤 CO₂,eq. 감소하였다.



주)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림 3-19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주: 1) 간접배출-생산 부문 고려하지 않음
2)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림 3-196〉 에너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너지 분야 배출량에서는 2021년에 건물(가정/상업/공공/농림어업)(30,537천 톤 CO₂eq., 72.7%)과 수송(8,328천 톤CO₂eq., 19.8%) 부문이 92.5%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1년에 965천 톤CO₂eq.로 2005년(2,619천 톤CO₂eq.) 대비 63.2%(1,654천 톤CO₂eq.) 감소하여 에너지 분야 중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수송 부문의 경우 202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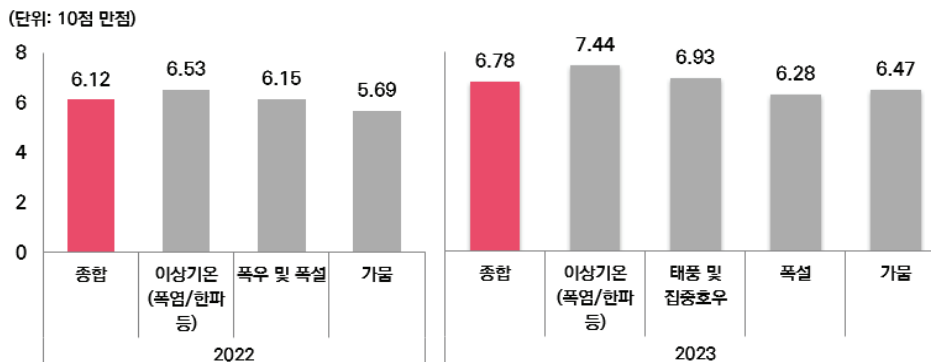
2005년 대비 3,013천 톤CO₂eq.(26.6%)이 감소하여, 에너지 분야 중 가장 많은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루배출¹⁶⁾은 2005년 대비 24천 톤CO₂eq. 감소하였다. 반면에 에너지산업 부문과 건물 부문은 2005년 대비 각각 650천 톤CO₂eq., 287천 톤CO₂eq. 증가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량

- **직접 배출량:** 배출원에서의 활동으로 배출원 경계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의미함
(예, 주택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사용 시 나오는 온실가스의 경우 주택의 직접 배출에 해당)
- **간접 배출량:** 배출원에서의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원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배출량을 의미함
(예, TV,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제품 사용을 위한 전력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경우 배출원은 주택에 있으나 실제 배출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주택의 간접 배출에 해당)

• 기후 위기 심각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23년에 10점 만점에 6.78점으로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이상기온(폭염/한파 등)’에 대한 심각성이 7.44점으로 가장 높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심각성이 6.93점, ‘가뭄’ 심각성 6.47점, ‘폭설’ 심각성 6.2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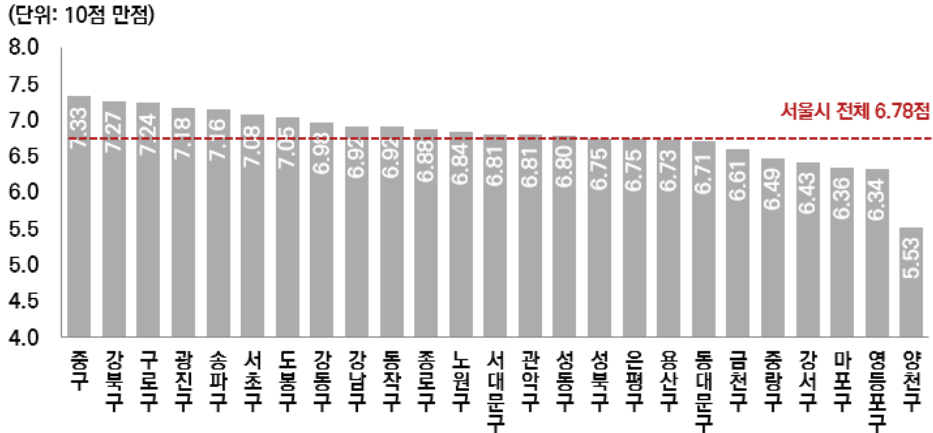


주: 1) 2022년 조사 '2) 폭우 및 폭설' 문항을 2023년 조사에서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 2개 문항으로 분리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심각함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197〉 기후 위기 체감 정도

¹⁶⁾ 2006 IPCC G/L 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준용한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류체계에 의하면 에너지 분야는 크게 연료연소와 연료로부터의 탈루배출로 구분됨. 탈루배출은 화석연료의 채굴, 처리, 저장 및 수송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카테고리로서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배출만 산정하였음

자치구별로는 중구(7.33점), 강북구(7.27점), 구로구(7.24점), 광진구(7.18점), 송파구(7.16점) 등에서 기후 변화 체감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양천구(5.53점), 영등포구(6.34점), 마포구(6.36점), 강서구(6.43점), 중랑구(6.49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 체감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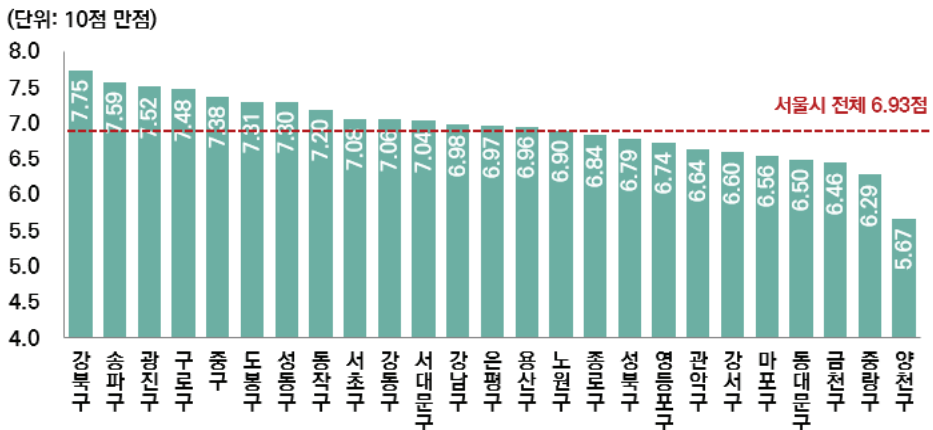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심각함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98〉 종합 기후 위기 체감 정도(구별)

한편, 여러 기후 위기 현상 중에서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체감도를 살펴 보면, 강북구(7.75점), 송파구(7.59점), 광진구(7.52점), 구로구(7.48점)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5.67점), 중랑구(6.29점), 금천구(6.46점), 동대문구(6.50점)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199〉 자치구별 '태풍 및 집중호우' 체감 정도

제7절 교통

1. 교통인프라

1) 요약 및 정책 제언

교통인프라의 친환경화 지속 추진 중, 자율주행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준비 필요

서울시는 2014년 이후 모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보급하고 있다. 2023년 서울의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는 131대이며, 누적대수는 7,385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는 531대 감소하였고, 누적대수는 22대 증가하였다. 2017년까지 서울의 버스는 100% 천연가스(CNG)버스로 운행되었으나, 2018년에 전기(수소)버스는 30대(0.4%)가 최초 도입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누적대수가 1,227대로 2018년 대비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버스뿐만 아니라 대체연료차량¹⁷⁾의 보급률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서울시내 대체연료차량은 293,91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체연료차량은 2014년 대비 7.2배 증가하였는데, 대체연료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2년에 총 5,707개(급속충전기 126개, 완속충전기 1,362개, 콘센트형 4,219개)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2,957개 증가하였다.

서울시 교통인프라의 친환경화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교통인프라는 최근 기술의 발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등과 같은 기존과는 다른 교통수단의 출현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시범운행에 그치고 있지만 본운행을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17) 대체연료차량이란 대체 연료(代替燃料)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차량으로, 기존의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Liquefied Petroleum Gas) 대신에 '전기',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수소 등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연료를 사용한 차량을 의미함

향후 본 과업에 포함시켜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무렵을 시작으로 보급이 서서히 이루어져 2023년 기준 대체연료차량 보급률은 1.1%에서 9.2%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기(수소)버스의 보급률 또한 2018년 0.4%에서 2023년에 16.6%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증가 추세는 서울시 교통인프라의 친환경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상버스와 보도면적의 확대로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 도시 구축 추진 중

저상버스 운행은 도시철도의 자동이동수단 설치와 함께 누구에게나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는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상버스 누적 운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2년 70.5%에서 2023년 75%로 증가하였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시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보도면적은 2023년 6,782,891㎡으로 2022년 대비 1,511㎡ 증가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저상버스와 증가하는 보도 면적이 해당 년도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서울시가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철도 및 버스의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서울시 도시철도 총연장은 371.7km로 전년 대비 14.3km 증가하였는데, 이는 4호선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는 2023년 총연장이 204.8km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버스전용차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22년 131.2km에서 2023년 134.4km로 증가하였다. 도시철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증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장거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도시철도는 신규 노선 건설보다 기존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연장되고 있어 서울 내부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이 어렵고, 버스는 광역버스의 증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부의 도시철도 신규노선 공급과 중앙버스전용차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관련 제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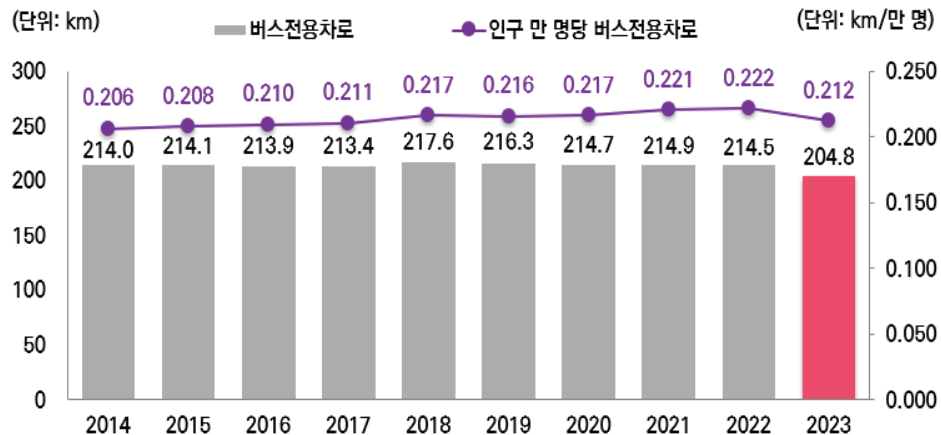
자전거 전용도로의 꾸준한 확대 지속 필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 수와 운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통행 공간 확보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23년에 자전거 도로율은 16.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2023년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889.5km로 가장 길며, 자전거우선도로(191.2km), 자전거전용도로(182.1km), 자전거전용차로(73.9km) 순으로 나타났다. 쾌적한 자전거 통행 환경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요한데, 자전거 전용도로의 연장은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행수단으로 자전거가 제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꾸준히 확대가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버스전용차로 연장

서울시 교통운영과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버스전용차로 총연장은 204.8km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서울시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2022년에 0.222km/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에 0.212km/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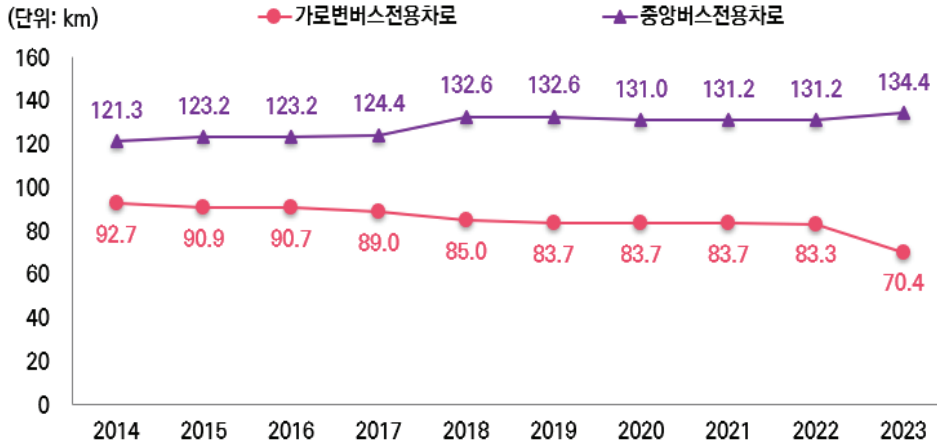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200〉 버스전용차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며, 2023년에 134.4km까지 연장되었다. 반면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계속 감소추세로, 2023년에 70.4km로 10

년 전에 비해 22.3km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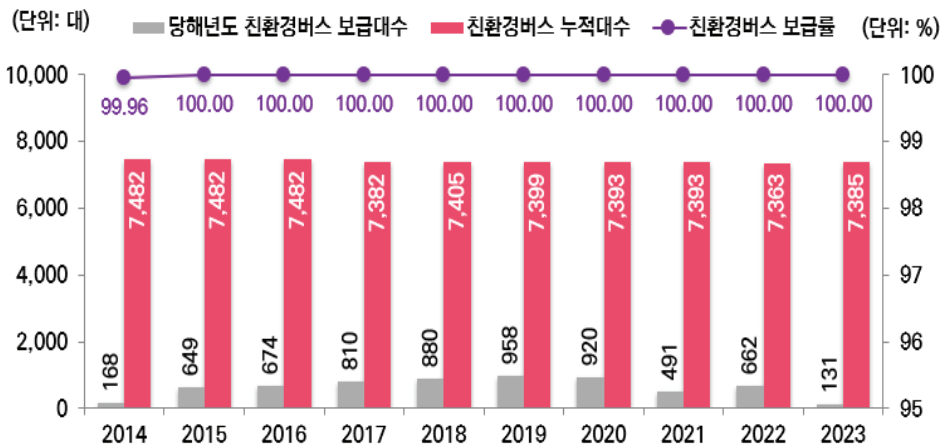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그림 3-201〉 버스전용차로 연장(유형별)

•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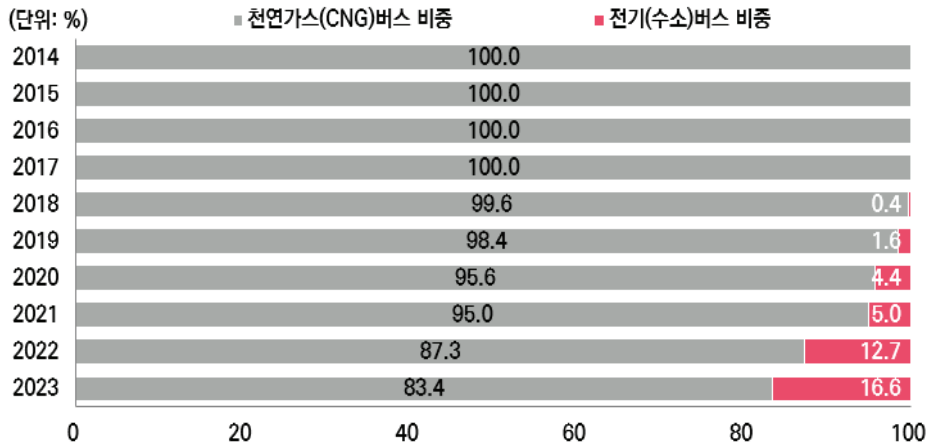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시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100%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는 131대이며, 누적대수는 7,385대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는 531대 감소하였고, 누적대수는 22대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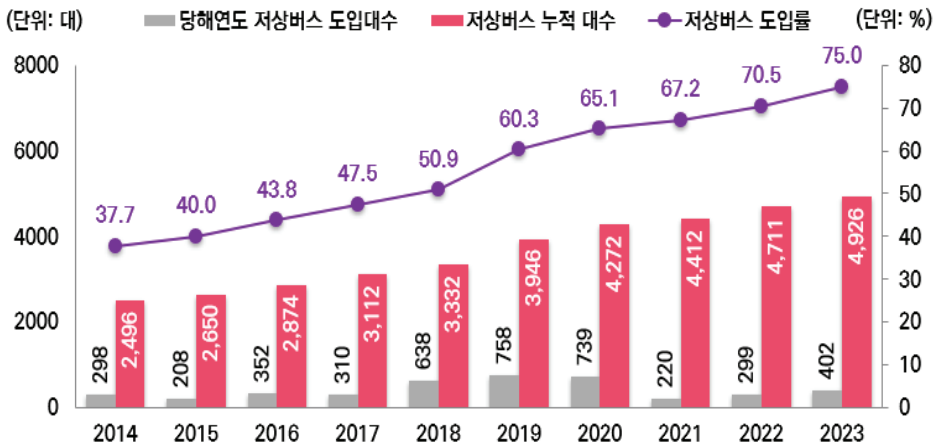
〈그림 3-202〉 친환경버스 도입대수

친환경버스 중 천연가스(CNG)버스는 2023년 누적대수가 6,158대로 전체 버스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수소)버스는 1,227대로 전체 버스의 16.6%로 조사되었다. 2017년까지 서울의 버스는 100% 천연가스(CNG)버스로 운행되었으나, 2018년에 전기(수소)버스가 도입되면서 그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기(수소)버스는 2018년에 30대(0.4%)가 최초 도입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누적대수가 1,227대로 2018년 대비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그림 3-203〉 친환경버스 누적대수



주: 1)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의 경우 일부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또는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변경되는 경우로 인해 누적대수와 연도별 도입대수의 계산 합에서 차이가 존재함

2) 저상버스 도입률: 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등록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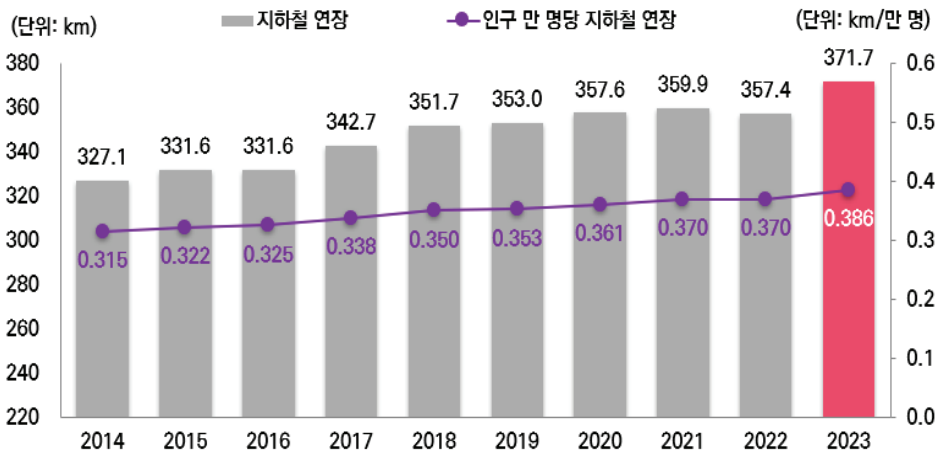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그림 3-204〉 저상버스 도입대수

한편,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023년에 402대가 도입되었으며, 총 누적대수는 4,926대로 집계되었다.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37.7%에서 2023년에 75.0%로 증가하였다.

• 도시철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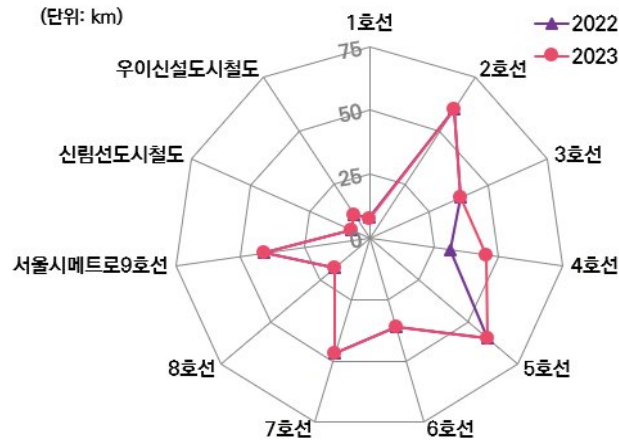
서울시 도시철도과의 지하철운영현황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서울의 도시철도 총연장은 371.7km로 전년 대비 14.3km 증가하였다. 서울시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은 0.386km/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서울시 도시철도 총연장은 2014년(327.1km)에 비해 44.6km 증가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은 2014년(0.315km/만 명)에 비해 0.071km/만 명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영현황;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그림 3-205〉 도시철도 연장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60.2km로 가장 길고, 1호선과 신림선 도시철도가 7.8km로 가장 짧았다. 대부분의 호선이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가운데, 4호선이 전년 대비 14.3km 연장되었으며, 1호선은 0.2km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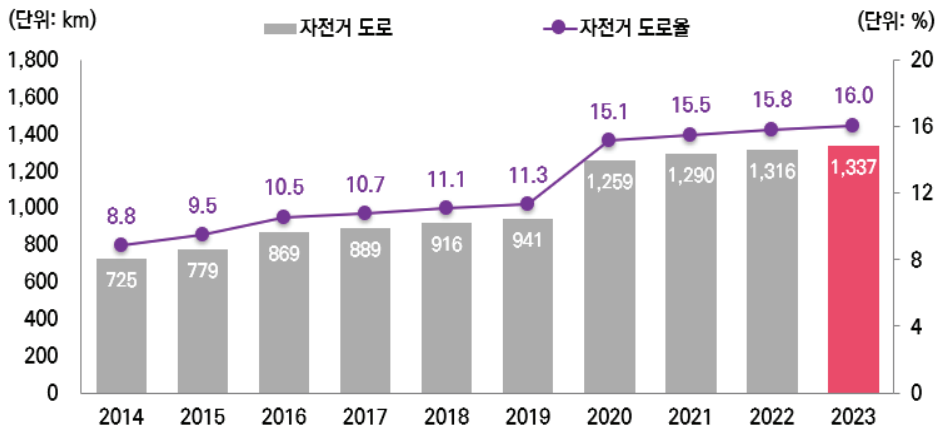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영현황

〈그림 3-206〉 호선별 도시철도 연장

• 자전거 도로율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한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와 도로계획과의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및 도로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1,337km 길이로, 서울시 전체 도로 대비 1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전거 도로율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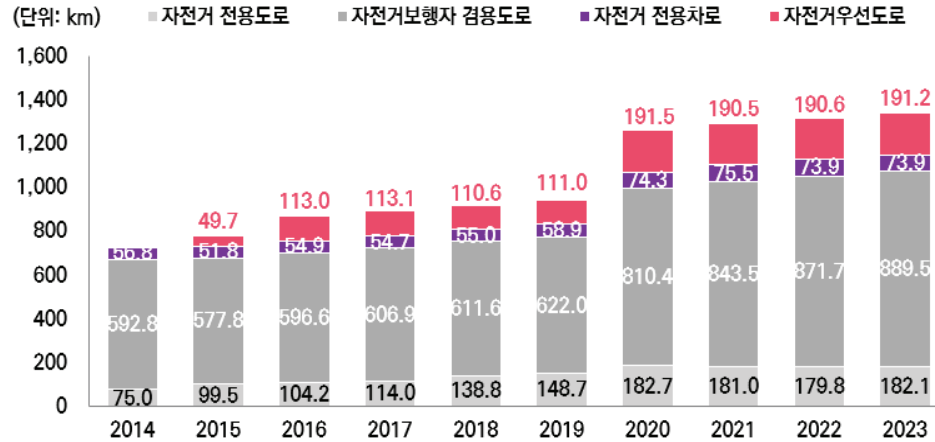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그림 3-207〉 자전거 도로율

2023년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889.5k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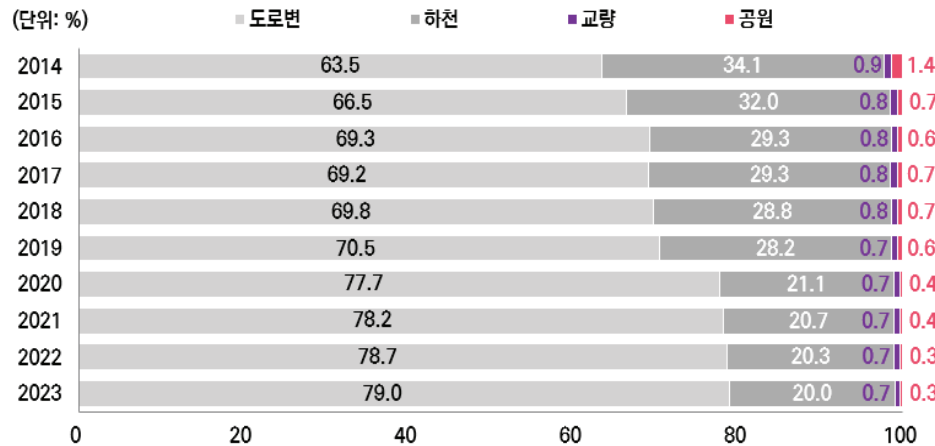
가장 길며, 자전거우선도로(191.2km), 자전거전용도로(182.1km), 자전거전용차로(73.9km) 순이다.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그림 3-208〉 자전거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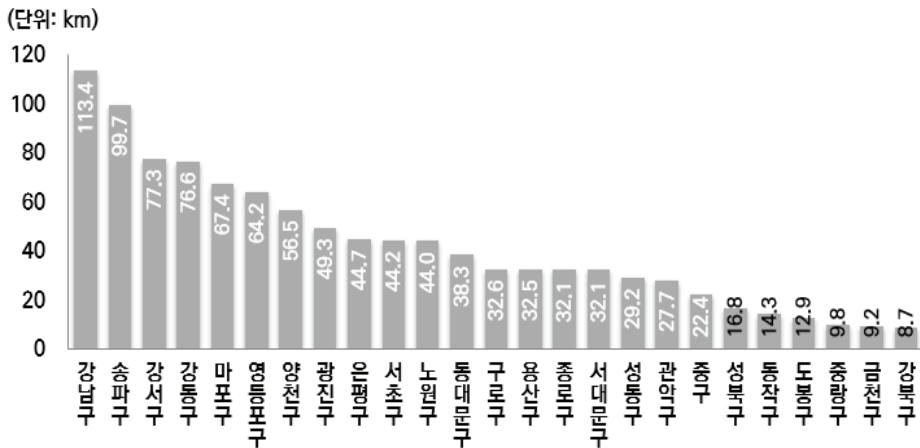
서울시 장소별 자전거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가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79.0%(1,055.9km)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20.0%(267.4km), 교량 0.7%(8.9km), 공원 0.3%(4.6km) 순으로 조성돼 있었다. 2014년 이후 하천과 교량, 그리고 공원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도로변 자전거도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대비 도로변 자전거도로 비율은 15.5%p 증가하였으며, 하천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비율은 14.1%p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그림 3-209〉 자전거도로 현황(장소별)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13.4km)의 자전거도로 길이가 가장 길었으며, 송파구(99.7km), 강서구(77.3km), 강동구(76.6km), 마포구(67.4km), 영등포구(64.2km) 등에서 자전거도로가 길었다. 반면에 강북구(8.7km), 금천구(9.2km), 중랑구(9.8km), 도봉구(12.9km), 동작구(14.3km), 성북구(16.8km)의 경우 자전거도로 길이가 20km 미만으로, 자치구 간 자전거도로 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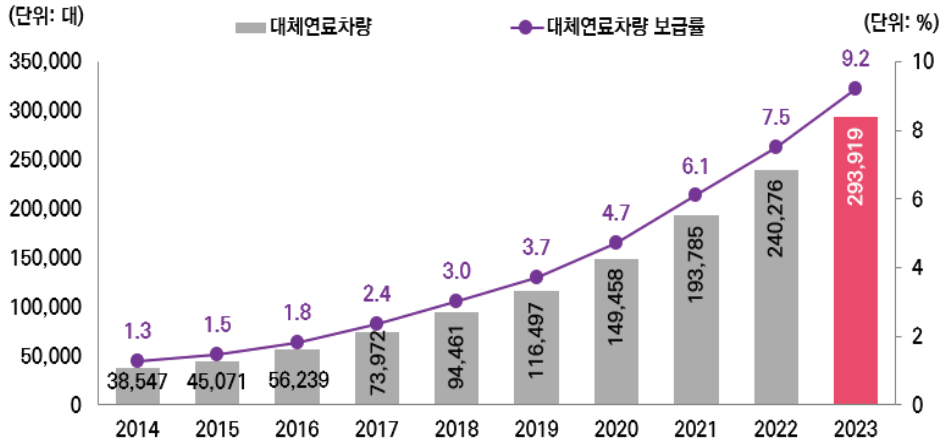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2023

〈그림 3-210〉 자전거도로 현황(구별)

•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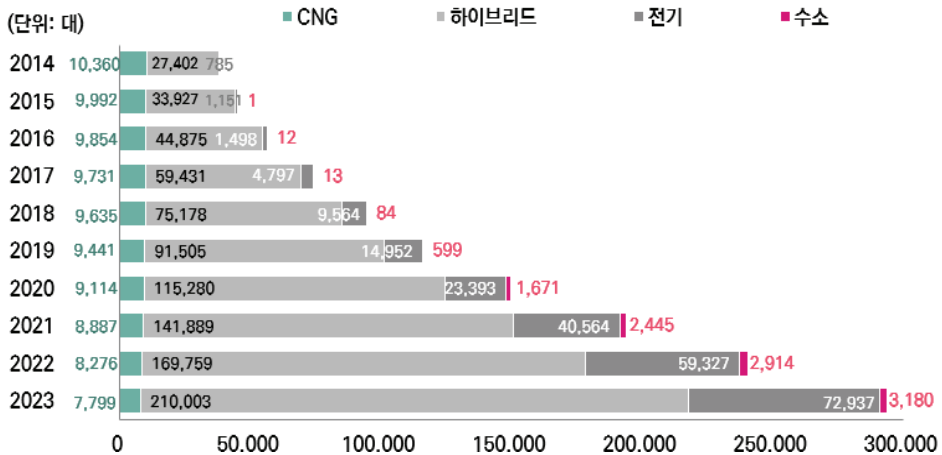
서울의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내 대체연료차량은 293,91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연료차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대비 7.2배 증가하였다.

서울시 대체연료차량의 급속한 증가는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하이브리드차량은 2014년 27,402대에서 2023년에 210,003대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량은 2014년 785대에서 2023년에 72,937대까지 증가하였다. 수소차량의 경우에도 2015년 1대에서 2023년에 3,180대까지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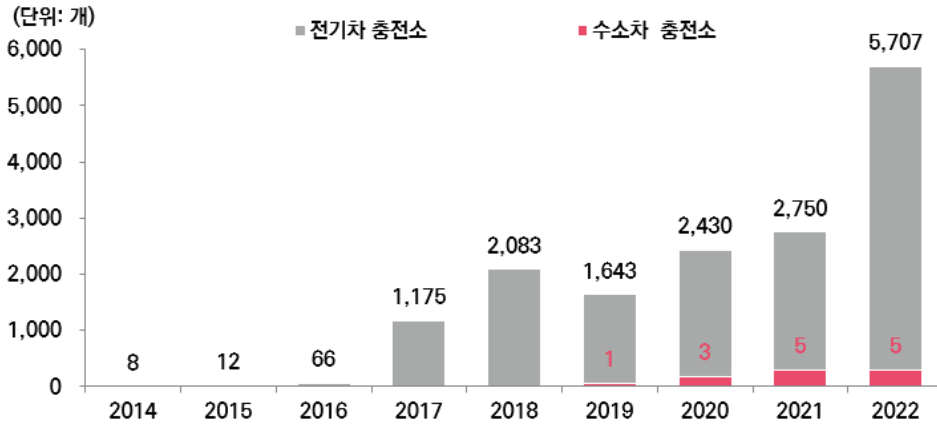
〈그림 3-211〉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그림 3-212〉 대체연료차량 보급대수(연료별)

한편,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기차 충전기(설치 누계)는 2022년에 총 5,707개(급속충전기 126개, 완속충전기 1,362개, 콘센트형 4,219개)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2,957개 증가하였다. 서울의 전기차 충전기는 2013년에 10개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 대폭 설치된 후 증가 추세에 있다. 수소차 충전소 또한 2019년 1개에서 2022년에 5개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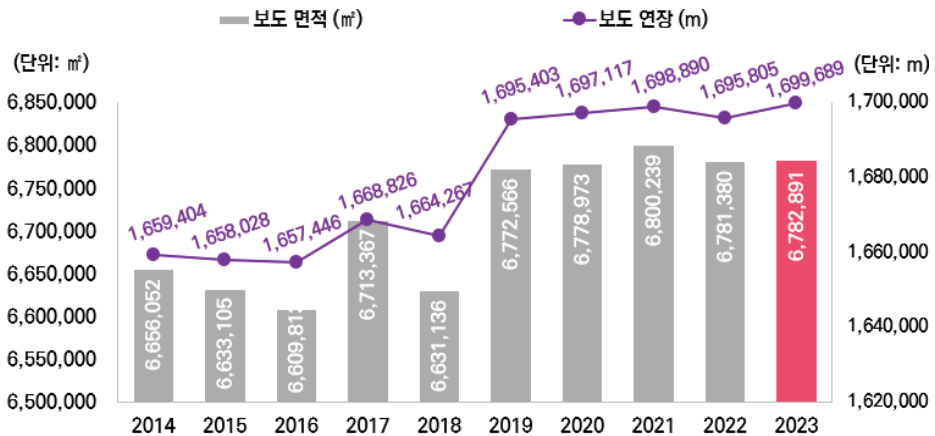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그림 3-213〉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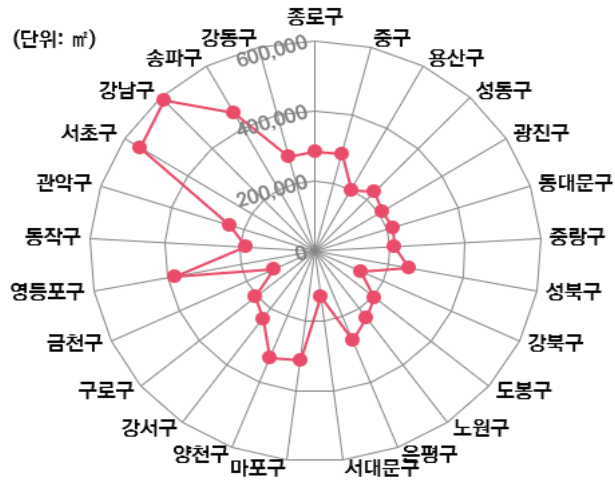
• 보도 면적

2023년 서울의 보도 면적(특별시도상)은 6,782,891㎡로 전년 대비 1,511㎡ 증가하였으며, 10년 전 대비 126,839㎡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587,291㎡)와 서초구(549,459㎡), 송파구(447,584㎡) 등의 보도 면적이 넓은 반면, 금천구(119,374㎡), 서대문구(130,028㎡), 강북구(134,366㎡) 등의 보도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전년 대비 노원구(9,017㎡)와 서대문구(7,733㎡)의 보도 면적이 증가한 데 비해, 도봉구(7,985㎡), 성북구(4,087㎡), 성동구(3,811㎡), 서초구(2,408㎡), 관악구(2,160㎡) 등에서는 보도 면적이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그림 3-214〉 보도 면적



출처)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2023

〈그림 3-215〉 보도 면적(구별)

2. 교통서비스

1) 요약 및 정책 제안

코로나19 종식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일부 회복하였으나 인구감소 영향을 받고 있는 중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3년에 911만 8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일 평균 56만 명 증가하였으나, 2014년(1,098만 명) 대비해서는 186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2023년 지하철 이용객 수는 469만 명(51.4%), 버스 이용객 수는 443만 명(48.6%)으로 조사되었는데, 지하철이 이용자 비율은 증가하였고 버스 이용자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일부 회복하였으나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 수요의 회복을 위해서는 파릉이, PM, DRT 등 접근 기능을 하는 통행수단과 기존 대중교통 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제고, 신규노선 공급, 혼잡도 완화방안 등 다양한 정책 수립 필요

교통이용수단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03점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주 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이용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3년 서울 지하철 최고혼잡도(1호선~8호선) 평균은 136.2%로 2021년 대비 9.4%p 증가하였는데,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하고 노후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며 신규인프라의 공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통이용수단 만족도와 같이 서울시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도 하락하였는데 2023년 서울의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11점 감소하였다. 항목별로는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6.29점)가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6.1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행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도면적 증가, 보행밀집지역 관리 등 다양한 보행관련 정책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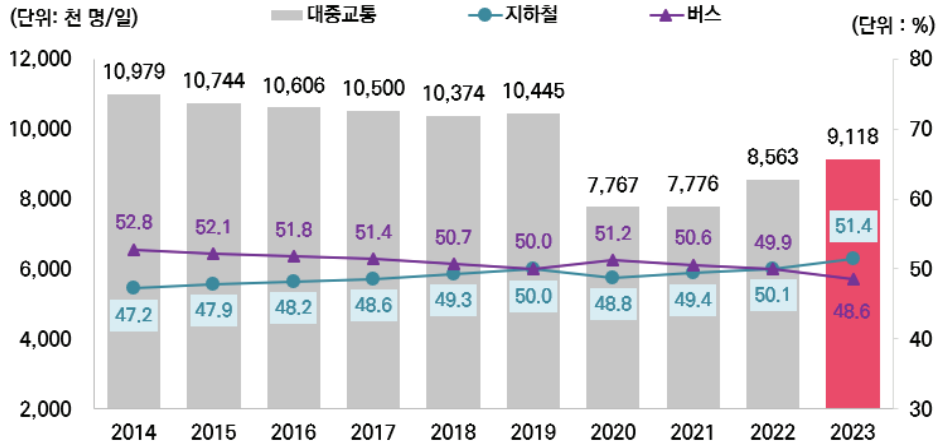
따릉이 이용량 향상으로 녹색교통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간 이용 건수는 2023년에 4,491만 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395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4년간 정기권 이용 비율을 보면 2020년 74.8%(1,774만 건)에서 2023년 83.1%(3,733만 건)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정수요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자전거 대수와 거치대 수의 증가와 맥을 같이하는데, 공공자전거 대수는 2016년 5,600대에서 2023년 45,00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 역시 2016년 450개소에서 2023년 2,762개소로 증가하였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수요 증가는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및 기후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따릉이 이용률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등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대중교통 이용객 수

서울시 교통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3년에 911만 8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1일 평균 56만 명 증가하였으며, 2014년(1,098만 명) 대비 186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2023년 지하철 이용객 수는 469만 명(51.4%), 버스 이용객 수는 443만 명(48.6%)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지하철 이용자뿐만 아니라 버스 이용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버스 이용자 비율이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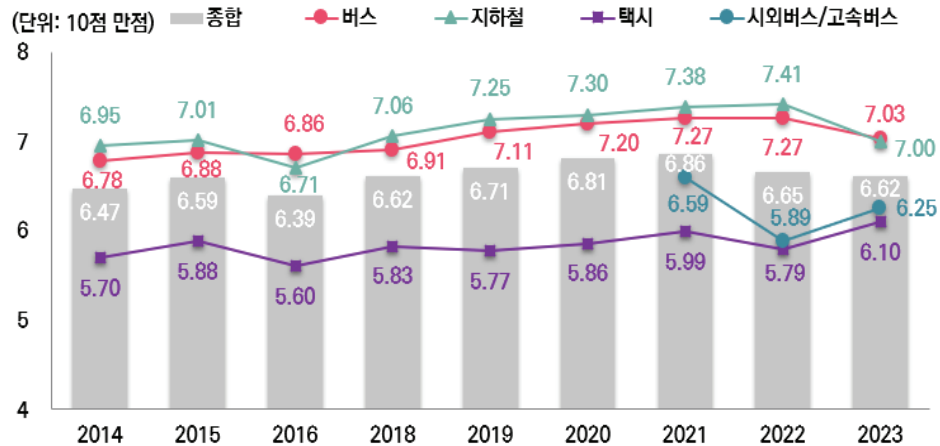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그림 3-216〉 대중교통 이용객 수

•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교통이용수단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2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03점 감소하였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버스(7.03점), 지하철(7.00점), 시외버스/고속버스(6.25점), 택시(6.1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각각 0.24점, 0.41점), 시외버스/고속버스와 택시 이용 만족도는 증가하였다(각각 0.36점, 0.31점).



주: 1) 2017년 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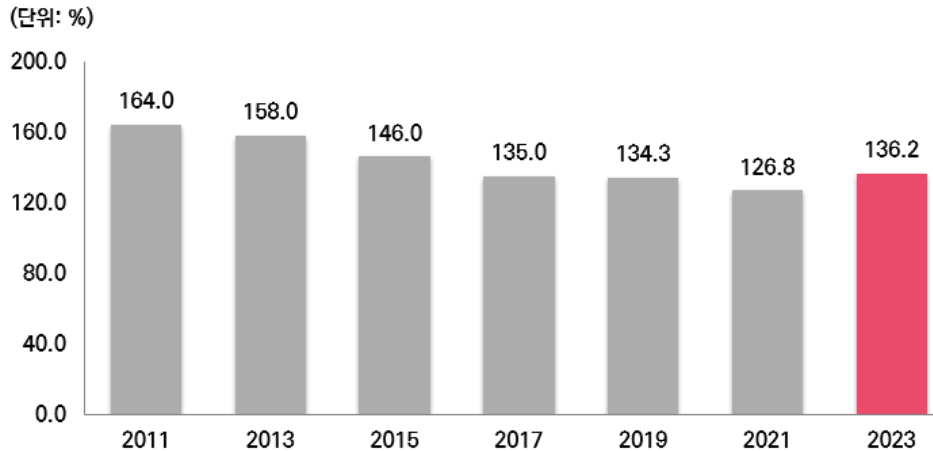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17〉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 지하철 최고혼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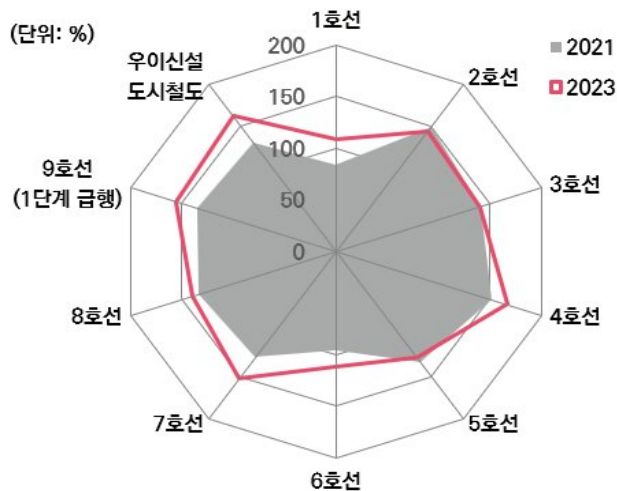
서울시 지하철 최고혼잡도는 최고 혼잡구간의 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인원을 산출한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 지하철 최고혼잡도(1호선~8호선) 평균은 136.2%로 2021년 대비 9.4%p 증가하였다.



주) 2005년부터 2년 주기 조사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1~8호선)

〈그림 3-218〉 지하철 최고혼잡도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1~8호선)

〈그림 3-219〉 지하철 호선별 최고혼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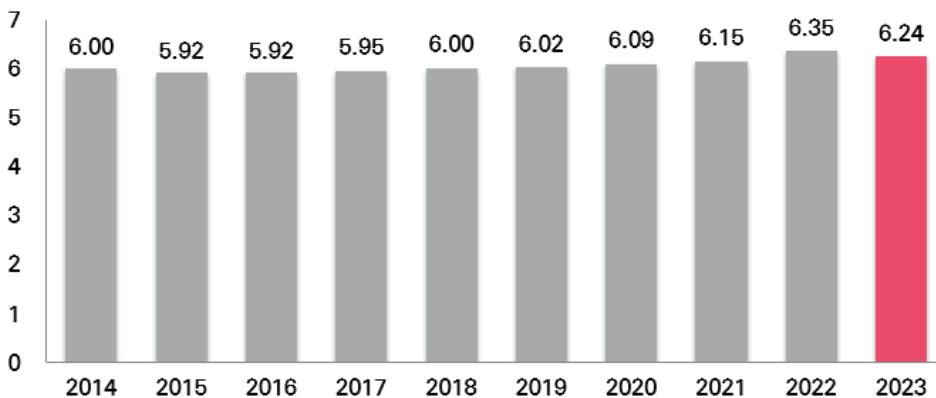
지하철 호선별 혼잡도는 4호선이 166.2%로 가장 혼잡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우이신설

도시철도(161.7%), 9호선 1단계 급행열차(156%), 7호선(152.7%), 2호선(144.0%), 신림선(141.9%), 3호선(140.1%) 순으로 혼잡하였으며, 1호선이 109.1%로 혼잡도가 가장 낮았다. 9호선 급행열차의 경우 1단계 급행열차(156%)와 일반열차(101%)의 최고 혼잡도는 55%p 차이를 보였다. 2021년 대비 대부분의 호선에서 최고혼잡도가 증가하였는데, 우이신설도시철도가 가장 많이 증가(30.9%p)하였으며, 7호선과 1호선도 많이 증가하였다(각각 25.7%p, 25.1%p). 반면에 2호선, 5호선, 3호선의 최고혼잡도는 2021년 대비 감소하였다(각각 5.4%p, 5.0%p, 0.5%p).

• 보행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의 종합 보행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11점 감소하였다. 항목별로는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6.29점)가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6.1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는 0.50점 감소하였고,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는 0.29점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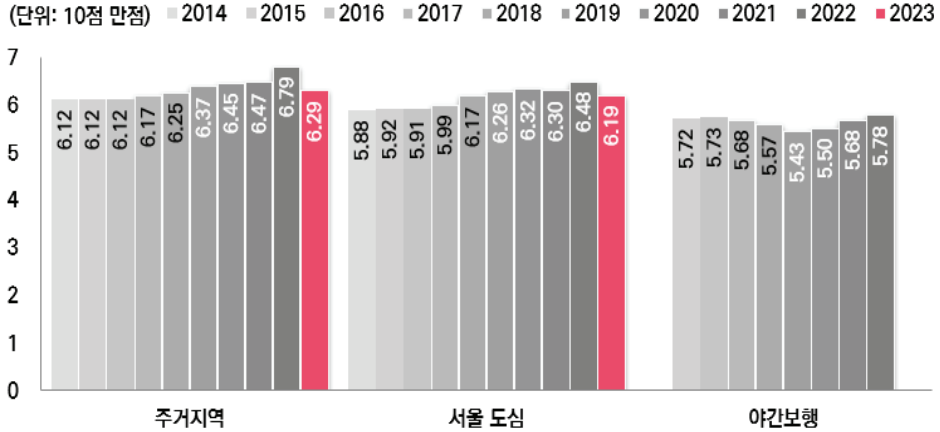
주: 1) 2023년: 하위 항목 변경으로(아전보행 만족도 문항 삭제), 연도 비교 및 해석 시 주의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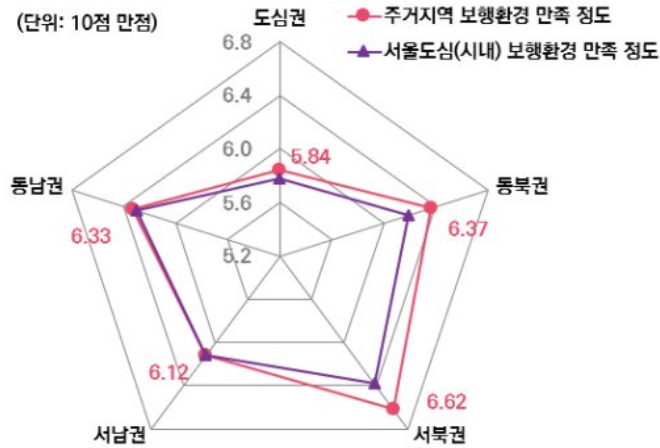
〈그림 3-220〉 보행환경 만족도

권역별로는 서북권이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6.62점)와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6.3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심권이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5.84점)와 서울 도심 보행환경 만족도(5.7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 1) 2014년, 2023년: 야간보행 만족도 비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1〉 항목별 보행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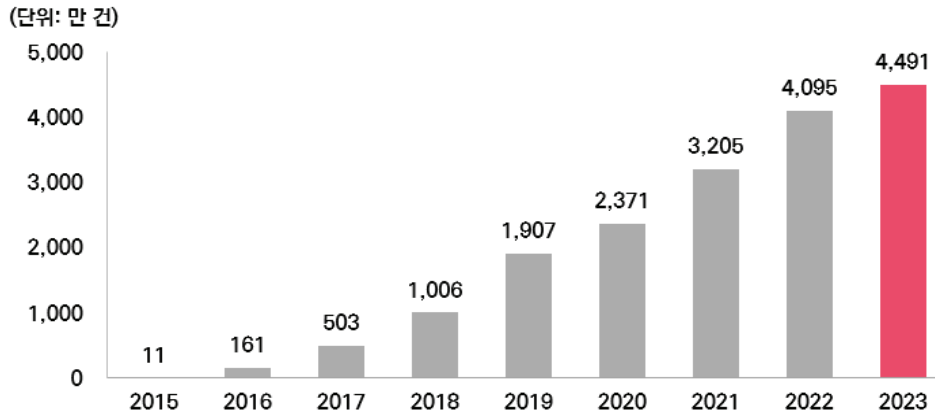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22〉 항목별 보행환경 만족도(권역별)

•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 말 ‘서울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상암지구에서 대여소 44개소 자전거 44대로 최초 시범운영 시행 후 2015년 ‘파랑이’ 이름으로 5대 거점(4대문 안,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동)에 대여소 150개소, 자전거 2,000대로 확대·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지속 발전 중인 대표적인 공유정책이다. 서울시 보행 자전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파랑이 연간 이용 건수는 2023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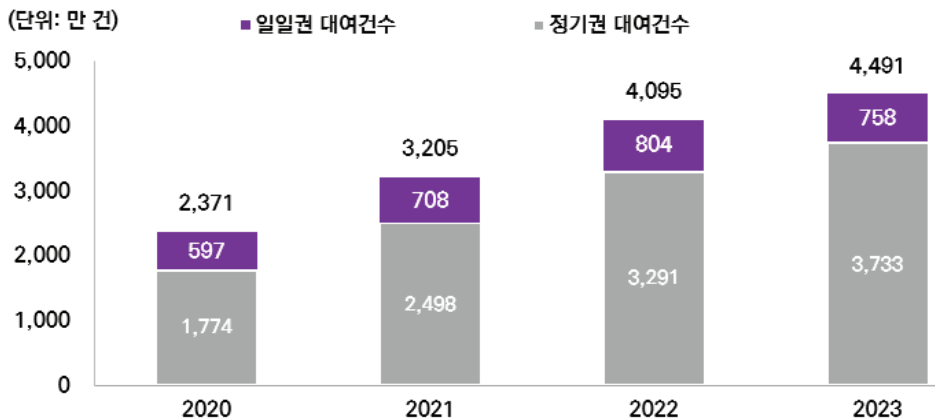
4,491만 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395배나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그림 3-223〉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정기권 이용 비율을 보면 2020년 74.8%(1,774만 건)에서 2023년 83.1%(3,733만 건)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정수요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일권 대여 건수 또한 2020년 597만 건에서 2023년 758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그림 3-224〉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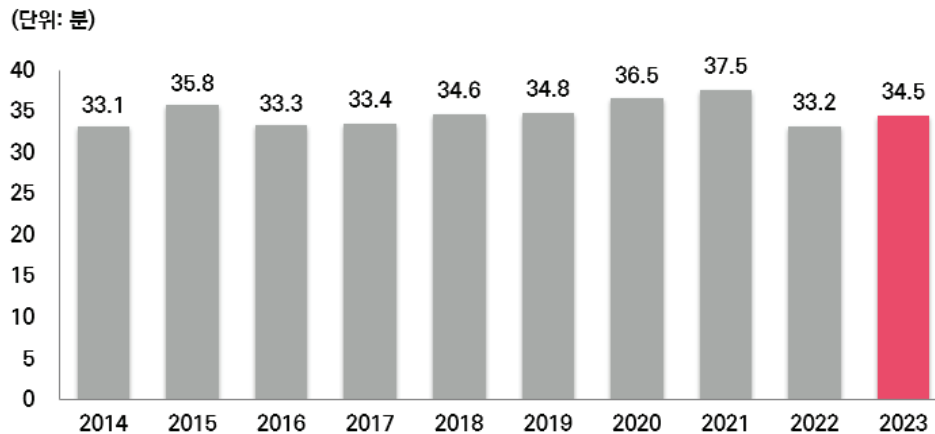
서울시설공단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따릉이) 수는 2016년 5,600대에 서 2023년 45,000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 역시 2016년 450개소에 서 2023년 2,762개소로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공공자전거 수는 3.4%(1,500대) 증

가하였으며, 자전거 대여소는 1.6%(43개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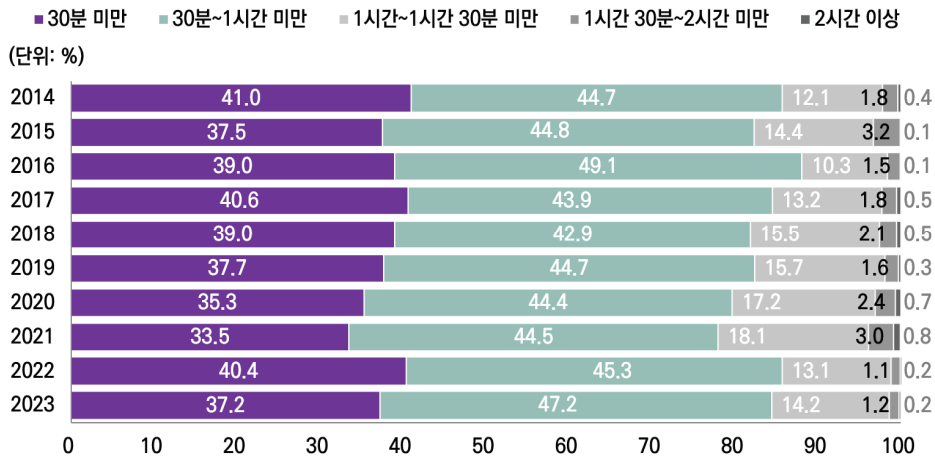


• 통근/통학 소요 시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에 서울시민의 75.3%가 통근 또는 통학을 하고 있었으며, 평균 통근/통학 소요 시간은 34.5분으로 조사되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0분~1시간 미만 소요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 소요가 37.2%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1시간~1시간 30분 미만 소요가 14.2%, 1시간 30분~2시간 미만 소요가 1.2%, 2시간 이상 소요가 0.2%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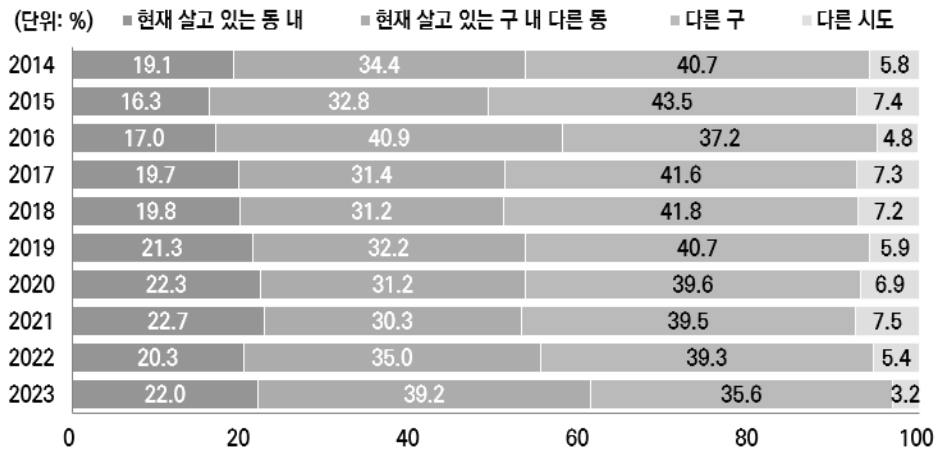
〈그림 3-226〉 평균 통근/통학 소요 시간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7〉 통근/통학 소요 시간(구간별)

서울시민의 통근/통학 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39.2%), ‘다른 구’(35.6%), ‘현재 살고 있는 동 내’(22.0%), ‘다른 시도’(3.2%)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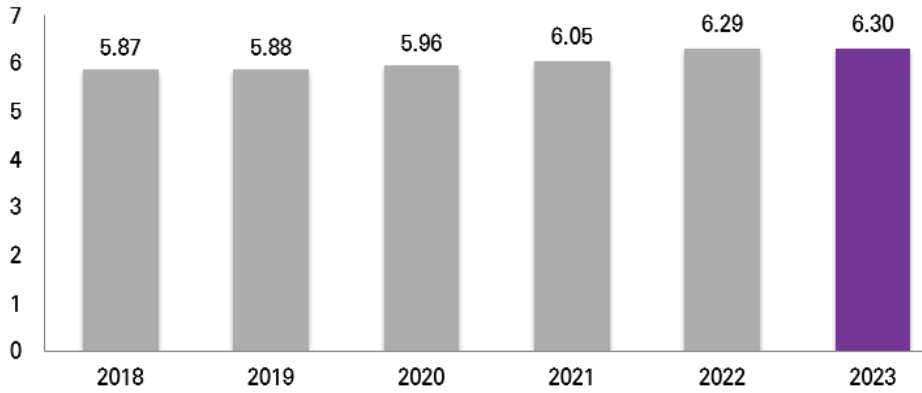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8〉 통근/통학 지역

서울시민의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는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는 2018년 5.87점에서 2023년에 6.30점으로 0.43점 증가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주: 1)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29〉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제8절 문화와 여가

1. 문화활동과 향유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시민의 문화소비 양상이 변화하는 중이며 문화예술소비 경험은 증가해

서울시민의 지난 1년 동안 현장 및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4.6%가 연간 1회 이상 관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0.8%p), 2021년에 크게 줄어든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소비 유형은 영화관람이 평균 3.18회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경기 관람 2.48회, 박물관 관람 2.03회, 전시회 관람 1.9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박물관, 전시회, 연극공연 관람 횟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현장 관람 횟수는 감소하였다. 지난 1년간 온라인을 통한 문화 활동 정도를 보면 온라인 운동경기 관람이 평균 5.74회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관람 5.29회, 전통예술공연 3.82회, 대중공연 2.4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관람은 팬데믹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평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대중공연(123,285원) 관람에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연극공연(88,430원), 음악 및 무용발표회(84,321원), 영화(47,791원), 운동 경기(44,291원) 순으로 지출을 많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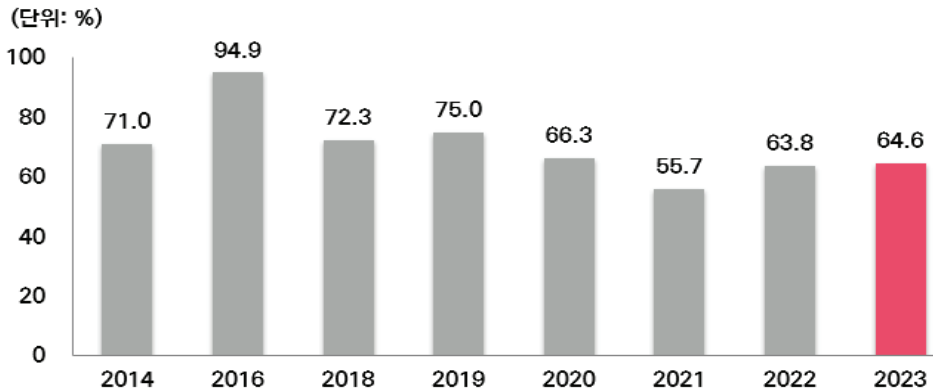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에서 문화시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간 문화환경 만족도 차이는 여전하게 나타나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에서는 문화시설 만족도가 가장 높고(6.34점) 문화비용에 대한 만족도(5.19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6.30점), 송파구(6.17점), 성동구(6.13점), 구로구(6.12점), 양천구(6.10점) 등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등포구(4.65점)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시설 만족도는 동작구(6.82점)가 가장 높았고, 문화프로그램 만족도는 양천구(6.36점)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비용 만족도는 성북구(6.04점)가 가장 높았다.

2) 지표 설명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서울서베이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현장 및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64.6%가 연간 1회 이상 관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0.8%p), 2021년에 크게 줄어든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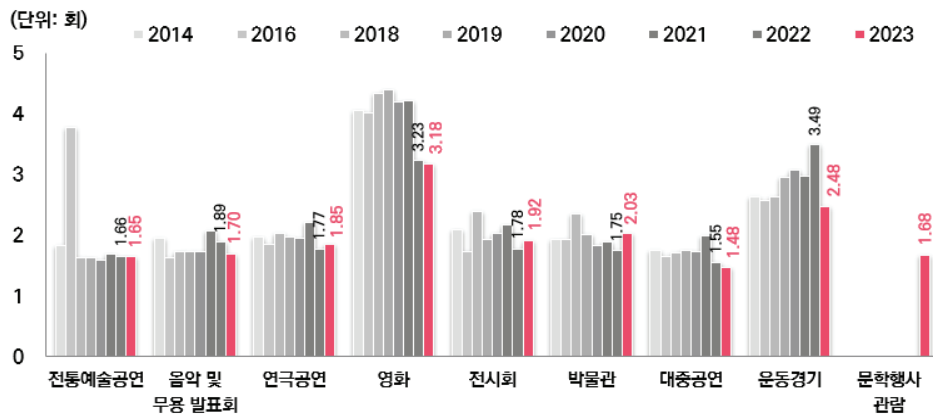


주: 1)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 2020년 이전: 현장 관람률,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활동 경험 가구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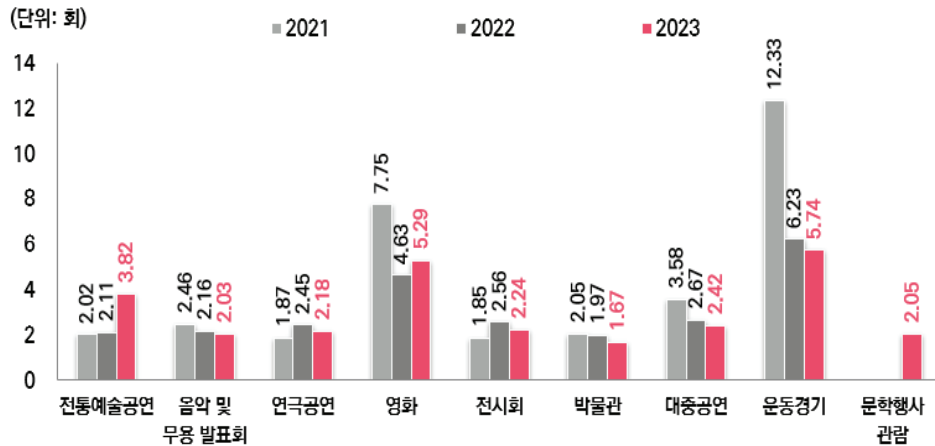
2)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023년: 문학행사 관람 항목 추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1〉 현장 방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운동경기 관람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항목별로 현장 관람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영화관람이 평균 3.18회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 경기 관람 2.48회, 박물관 관람 2.03회, 전시회 관람 1.9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박물관, 전시회, 연극공연 관람 횟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현장 관람 횟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온라인을 통한 문화 활동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운동경기 관람이 평균 5.74회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관람 5.29회, 전통예술공연 3.82회, 대중공연 2.42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온라인 전통예술공연과 영화 관람 횟수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온라인 관람 횟수는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되었던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활동 경험 가구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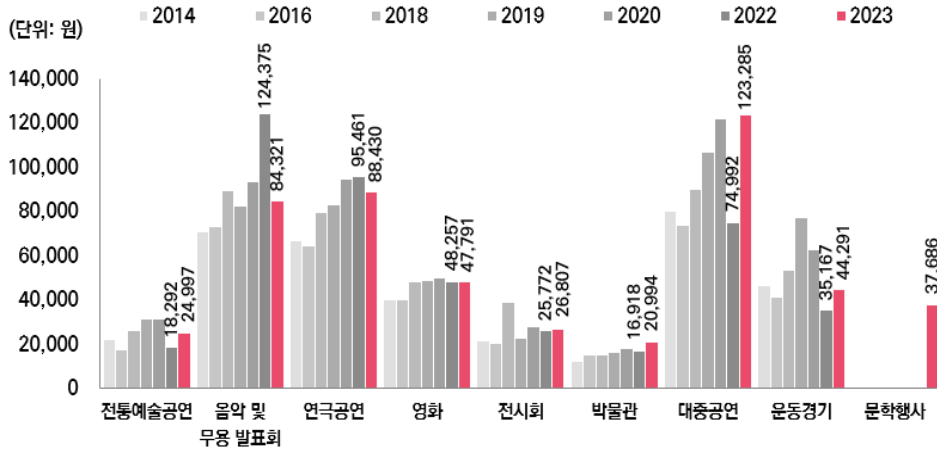
2) 2023년: 문학행사 관람 항목 추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2〉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지난 1년간 현장 및 온라인 문화 활동 경험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대중공연(123,285원) 관람에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 연극공연(88,430원), 음악 및 무용발표회(84,321원), 영화(47,791원), 운동 경기(44,291원) 순으로 지출을 많이 하였다.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활동 경험 가구원 대상
 2)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023년: 문학행사 관람 항목 추가
 3) 2020년 이전: 현장 관람 비용,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 비용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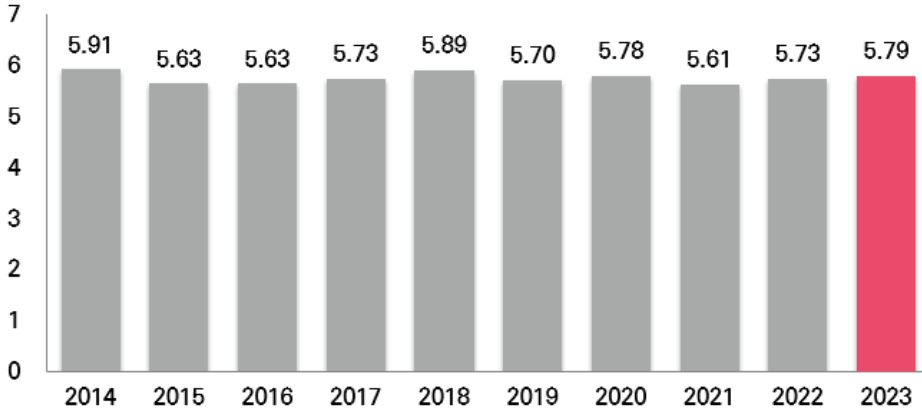
전년 대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은 항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음악 및 무용 발표회 관람 비용이 전년 대비 32.2%(40,054원)나 감소하였으며, 연극공연과 영화 관람 또한 각각 7.4%(7,031원), 1.0%(466원) 감소하였다. 반면에, 대중공연 관람 비용은 64.4%(48,293원) 증가했으며, 전통공연예술 36.7%(6,705원), 운동 경기 25.9%(9,124원), 박물관 24.1%(4,076원), 전시회 4.0%(1,035원) 증가하였다.

•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주관적 만족도는 5.79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06점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6.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5.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문화시설 만족도와 문화비용 만족도는 상승하였지만(각각 0.02점, 0.27점), 문화프로그램 만족도는 하락하였다(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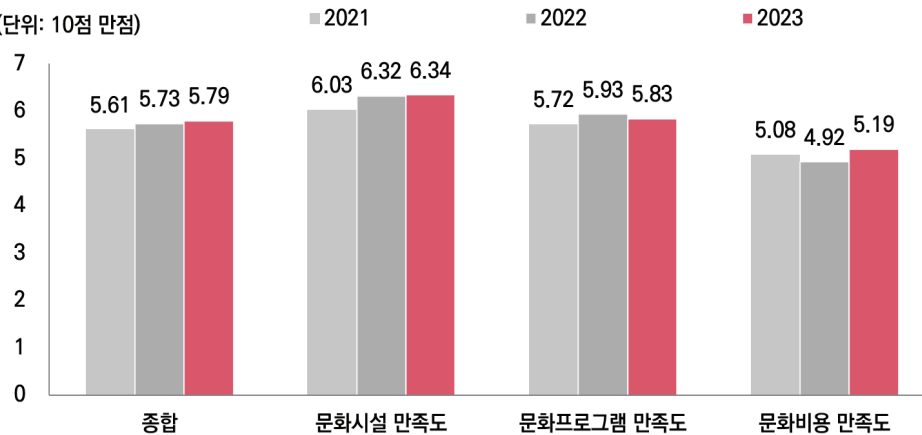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1) 2020년 이전: '전반적인 문화환경 만족도' 1개 문항의 값
 2) 2021년 이후: '문화시설 만족도, 문화프로그램 만족도, 문화비용 만족도' 3개 문항의 평균값
 3)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4〉 문화환경 만족도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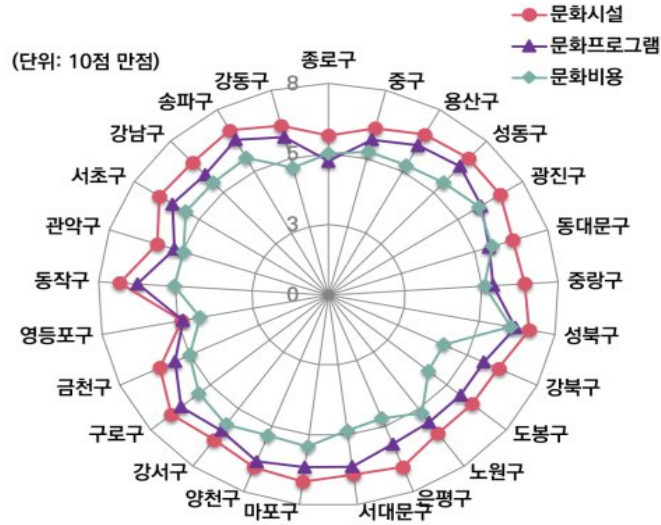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35〉 영역별 문화환경 만족도

자치구별로는 성북구(6.30점), 송파구(6.17점), 성동구(6.13점), 구로구(6.12점), 양천구(6.10점) 등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등포구(4.65점)의 문화환경 만족도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시설 만족도는 동작구(6.82점)가 가장 높았고, 문화프로그램 만족도는 양천구(6.36점)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문화비용 만족도는 성북구(6.04점)가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는 전

항목에서 만족도가 4점대로 낮았다.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36〉 문화환경 만족도(구별)

2. 문화기반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년 대비 8개소 증가했으나 지역간 차이는 나타나

서울시 도서관 수(학교도서관 제외)는 2023년에 478개소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도서관 수는 2020년 정점을 찍은 다음 2021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 시설의 포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2022년과 2023년 서울시 도서관 수는 동일한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8개소 증가한 것은 도서관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서울시의 정책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자치구별 도서관 수는 서초구(46개소), 종로구(41개소), 중구(38개소), 강남구(31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6개소), 중랑구(8개소), 관악구·도봉구·성동구(10개소)의 도서관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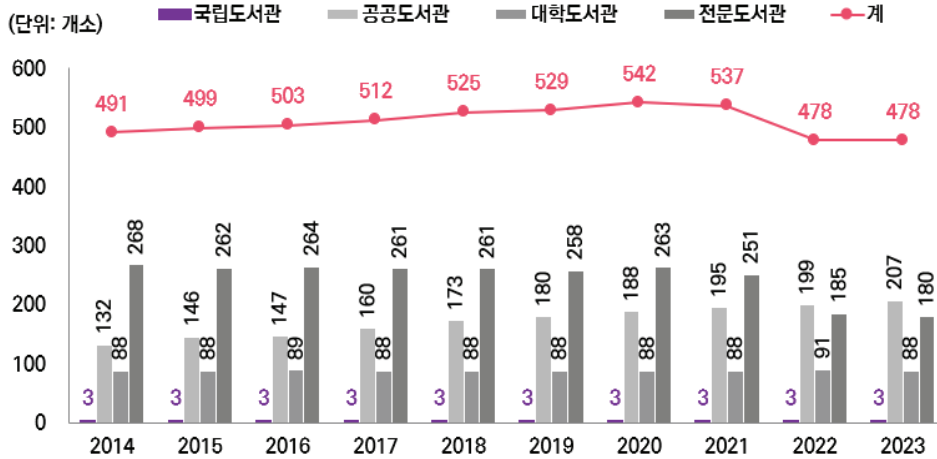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서울시 지역문화시설은 계속 증가 추세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지역문화시설 수는 전체 307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275개소(89.6%),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은 32개소(10.4%)이다. 서울의 지역문화시설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최근 10년간 47개소(18.1%)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는 2022년 기준 지역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20개소)이며, 그다음으로 중구·노원구(17개소), 강남구·동작구·서초구(15개소) 순이다.

2) 지표 설명

• 도서관 수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도서관통계조사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서울시 도서관 수는 2023년에 478개소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도서관 수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감소추세이다. 전년 대비 전체 도서관 수는 동일한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8개소 증가하고, 대학도서관이 3개소, 전문도서관이 5개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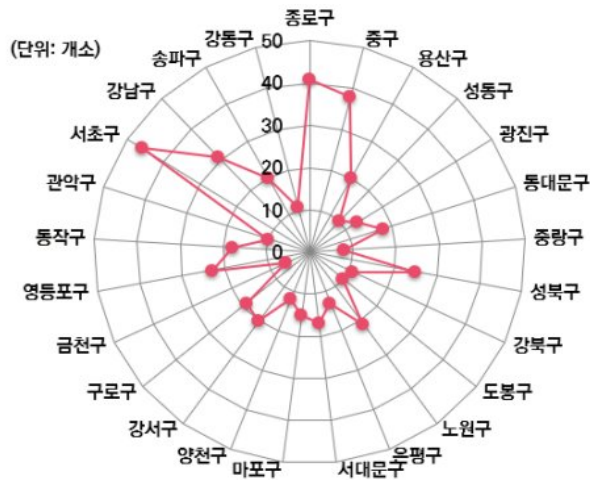


주)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그림 3-237〉 도서관 수

자치구별로는 서초구(46개소), 종로구(41개소), 중구(38개소), 강남구(31개소) 등에 도서관 수가 많았으며, 금천구(6개소), 중랑구(8개소), 관악구·도봉구·성동구(10개소)에서는 10개 이하로 적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전년도에 비해 종로구(2개소)와 강남구·구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1개소)에서 도서관 수가 증가하였으며, 서대문구(2개소)와 마포구(1개소)에서는 도서관 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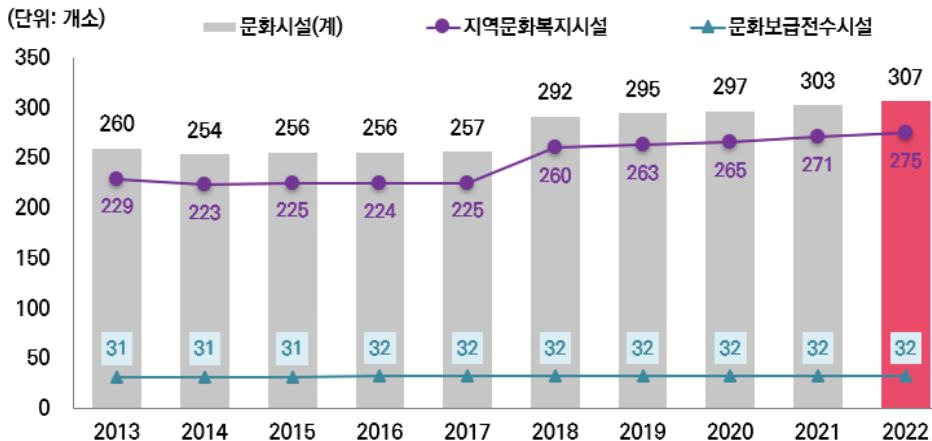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2023

〈그림 3-238〉 도서관 수(구별)

-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및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4항)
-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수치임
-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
- **전문도서관**: 해당 설립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지역문화시설 수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지역문화시설 수는 전체 307개소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275개소(89.6%),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은 32개소(10.4%)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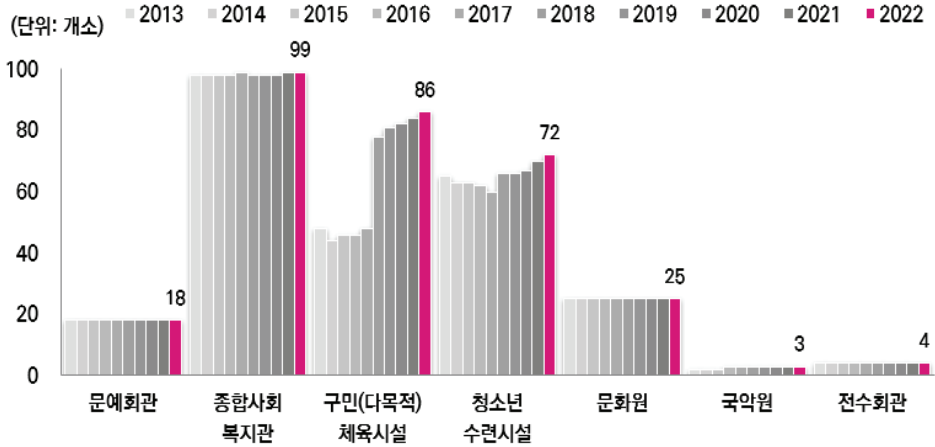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그림 3-239〉 지역문화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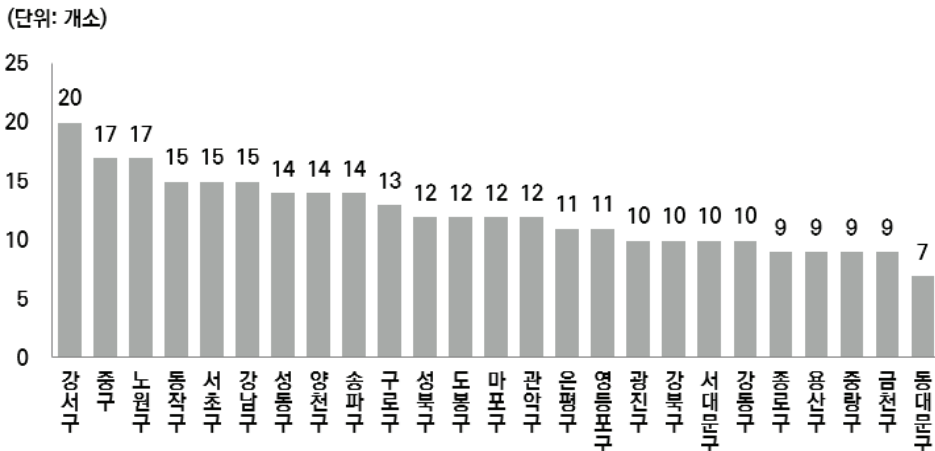
서울의 지역문화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47개소(18.1%) 증가하였다. 문예회관, 문화원, 전수회관 시설 수는 2013년 이후 동일하지만, 구민(다목적) 체육시설(38개소, 79.2%)과 청소년 수련시설(7개소, 10.8%)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국악원은 각각 1개소씩 증가하였다.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그림 3-240〉 지역문화시설 수(유형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지역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20개소)로 집계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중구·노원구(17개소), 강남구·동작구·서초구(15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동대문구(7개소)와 금천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9개소)에서는 지역문화시설 수가 10개 미만으로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022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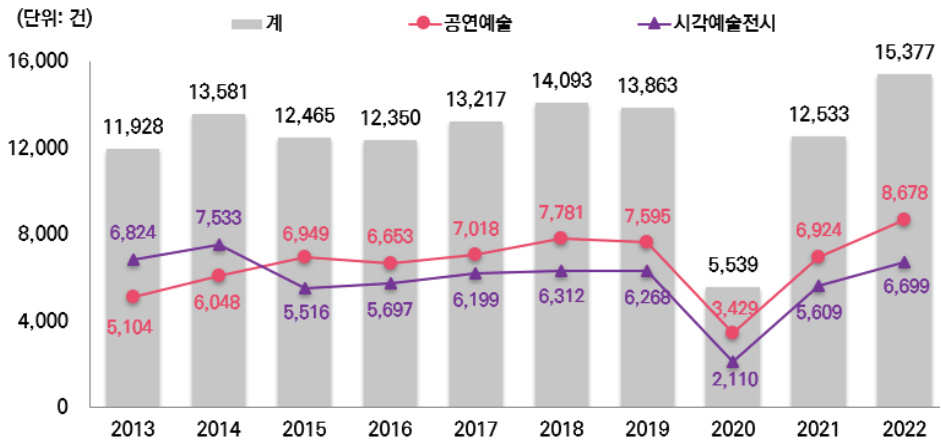
〈그림 3-241〉 지역문화시설 수(구별)

• 지역문화시설(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 문화보급전수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화관

•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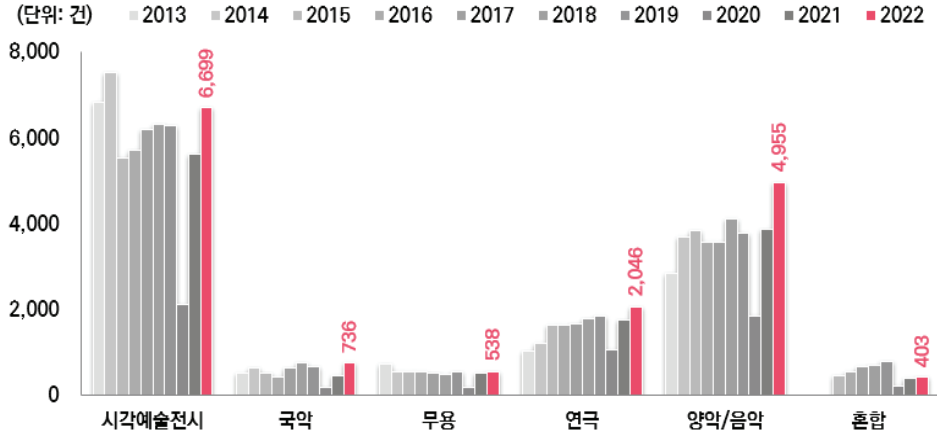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전시 건수는 총 15,377건(공연예술 8,678건, 시각예술전시 6,699건)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는 22.7%(2,844건) 증가하였는데, 공연예술 행사 건수는 25.3%(1,754건), 시각예술전시 횟수가 19.4%(1,090건) 증가하면서 공연 및 전시 상황은 크게 회복되었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그림 3-242〉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시각예술전시 횟수가 6,699건(43.6%)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 양악 4,955건(32.2%), 연극 2,046건(13.3%), 국악 736건(4.8%), 무용 538건(3.5%) 순으로 개최되었다. 전년 대비 국악 1.7배(305건), 양악 1.3배(1,081건), 시각예술전시 횟수 1.2배(1,090건), 연극 1.2배(292건), 무용 1.1배(47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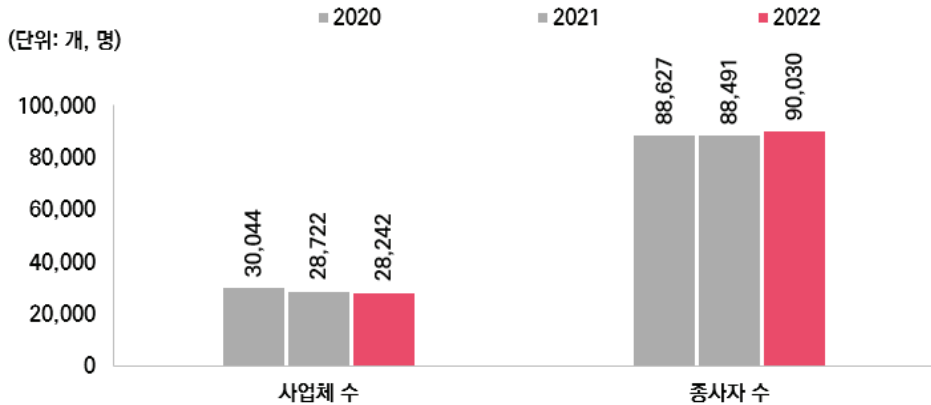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그림 3-243〉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유형별)

• 문화예술사업체 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문화예술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8,242개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는 90,03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480개(1.6%)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1,539명(1.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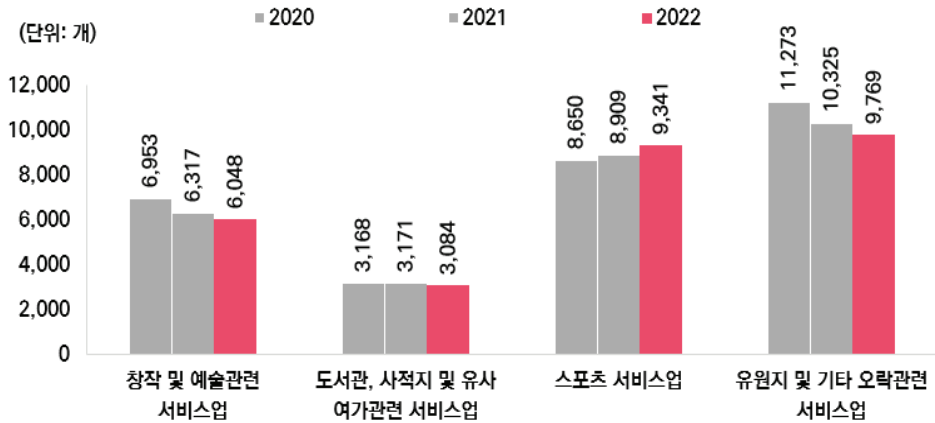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44〉 문화예술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769개, 스포츠 서비스업 관련 사업체는 9,341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6,048개,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사업체는 3,084개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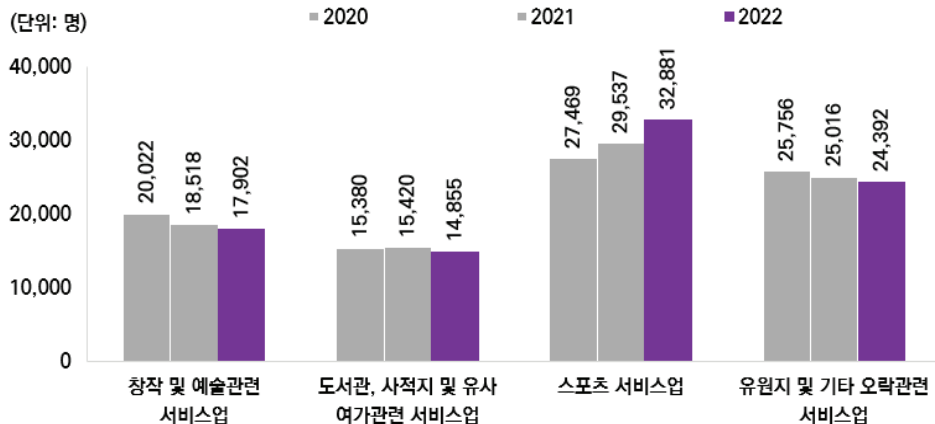
스업 사업체,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관련 서비스업 사업체가 감소(각각 5.4%, 4.3%, 2.7%)한 반면, 스포츠 서비스업 사업체는 증가(4.8%)하였다.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45〉 문화예술사업체 수(사업체별)

한편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의 36.5%가 스포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에는 27.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는 19.9%,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는 16.5%가 종사하고 있었다. 전년 대비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3.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3.3%,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2.5%가 감소한 반면,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는 11.3% 증가하였다.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46〉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사업체별)

3. 여가활동과 향유

1) 요약 및 정책 제안

시민들의 웰빙과 행복을 제고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Beyond GDP’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요즘이다.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프로젝트의 보고서인 ‘How’s Life?’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의 균형’이 OECD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기준 5.70점(1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증가했으나, ‘여가생활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023년에 37.8%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여가생활 만족률을 살펴보면, 20~30대의 42~43%가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10대는 여가생활 만족률이 28.9%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의 여가생활 만족률이 46.7%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의 여가생활 만족률이 28.6%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민의 여가 생활의 주요 동반자는 가족이나 친구이다. 시민의 38.0%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33.0%가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였다. 그러나 25.6%는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거나(3.3%p),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0.5%p)은 감소한 반면,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3.0%p)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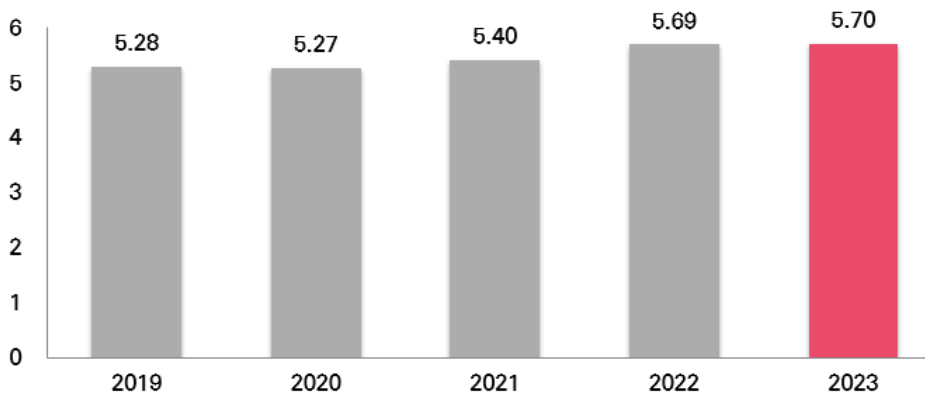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은 7점 만점에 3.80점으로 나타나 삶의 균형 측면에서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민의 35.3%만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9.8%가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6.9%, 평균 4.20점)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50대(36.3%, 3.79점), 20대(35.7%, 3.66점) 순으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에 10대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은 33.0%(평균 3.36점)로 집단 내 가장 낮았으며, 52.5%가 일(학습)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의 65.8%가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여행경험률이 73~76%로 나타나 가장 높은 여행경험률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지표 설명

• 여가생활 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에 5.70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01점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42~43%로 높았으며, 10대가 28.9%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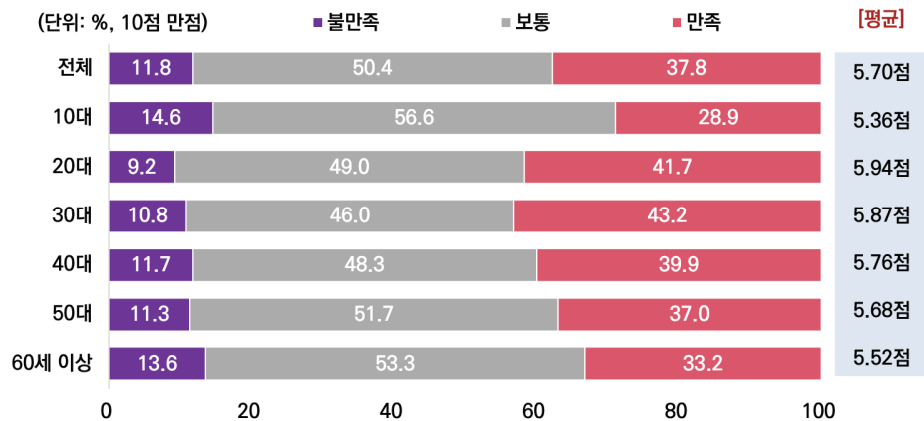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47〉 여가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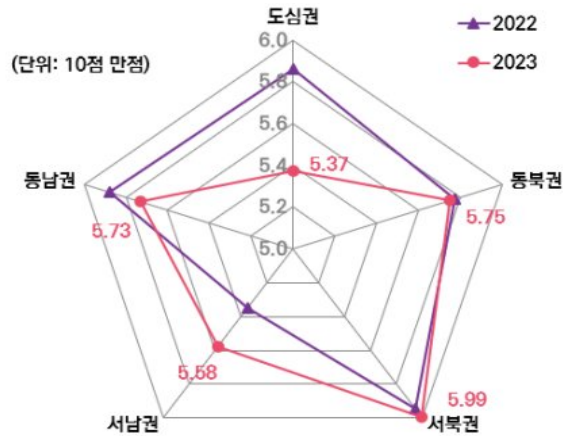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48〉 여가생활 만족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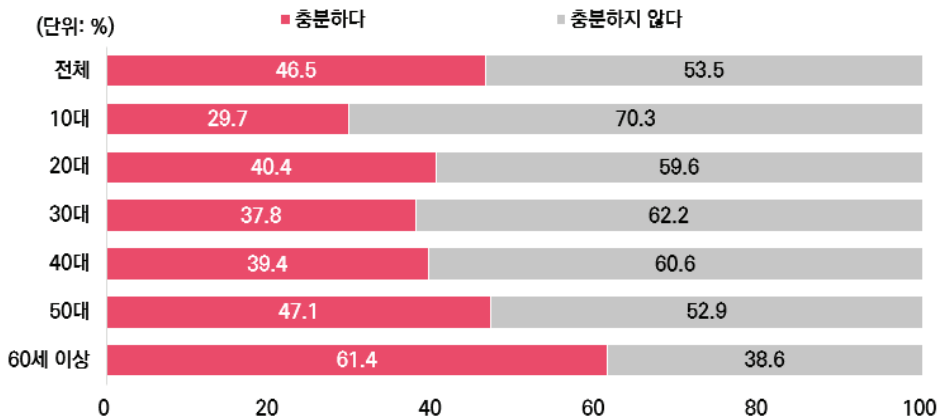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서북권(5.99점)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심권(5.37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서남권과 서북권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각각 0.22점, 0.05점),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에서는 감소하였다(각각 0.49점, 0.15점, 0.02점).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49〉 여가생활 만족도(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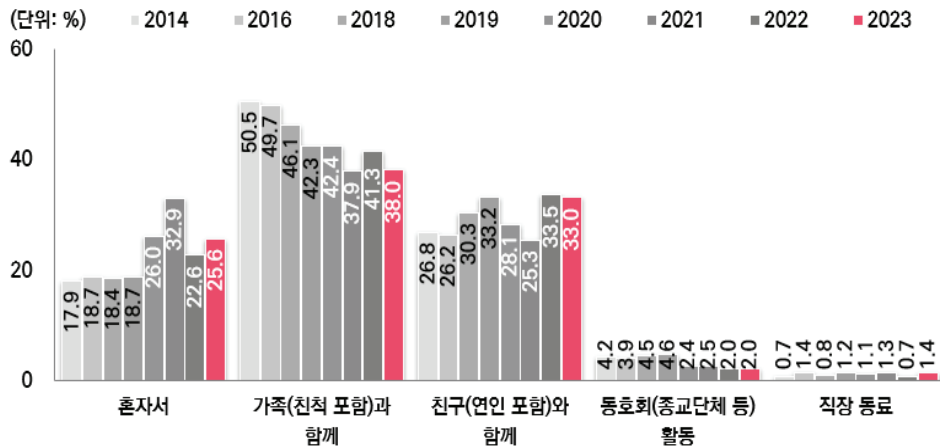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46.5%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53.5%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61.4%가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 47.1%, 20대 40.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10대는 70.3%가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0〉 여가시간 충분성

한편, 서울시민의 38.0%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33.0%가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25.6%가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거나(3.3%p),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0.5%p)은 감소한 반면, 혼자서 여가 활동을 하는 비율은(3.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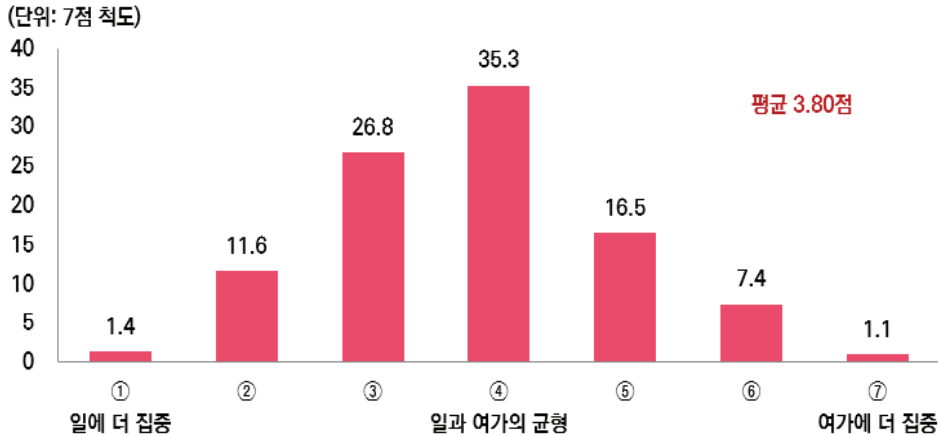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51〉 여가활동 동반자

•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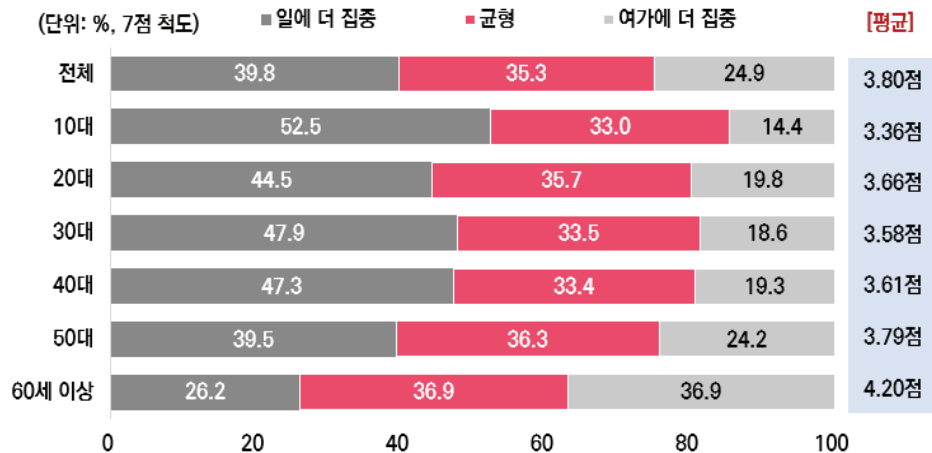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은 7점 만점에 3.80점으로 나타나 여가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민의 35.3%가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9.8%가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4.9%는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6.9%, 평균 4.20점)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50대(36.3%, 3.79점), 20대(35.7%, 3.66점) 순으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에 10대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은 33.0% (평균 3.36점)로 집단 내 가장 낮았으며, 52.5%가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2〉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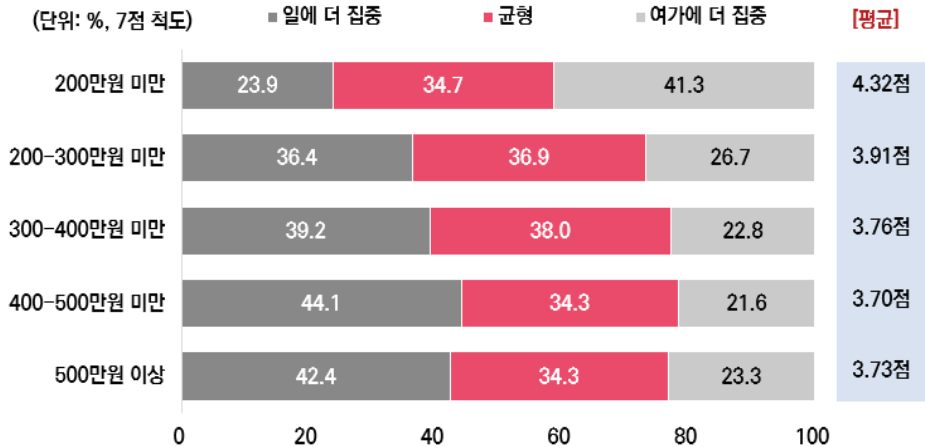


주) 7점 척도: 일에 더 집중 1점, 균형 4점, 여가에 더 집중 7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3〉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연령별)

서울시민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300~400만 원 미만 집단(38.0%, 평균 3.76점)이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별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에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에 더 집중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200만 원 미만 집단의 41.3%가 여가에 더 집중하고, 23.9%가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0만 원 이상 집단은 42~44%가 일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22~23%가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 7점 척도: 일에 더 집중 1점, 균형 4점, 여가에 더 집중 7점

출처) 서울서비스,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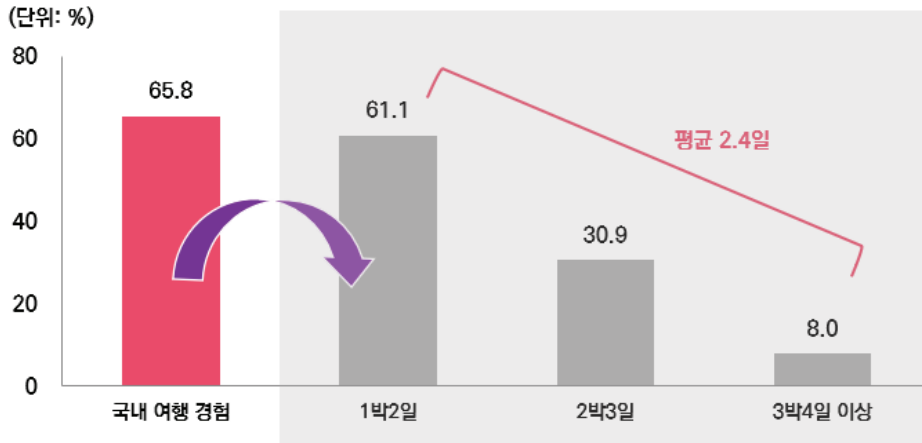
〈그림 3-25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소득별)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을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일(학업)과 여가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상태를 말함

• 여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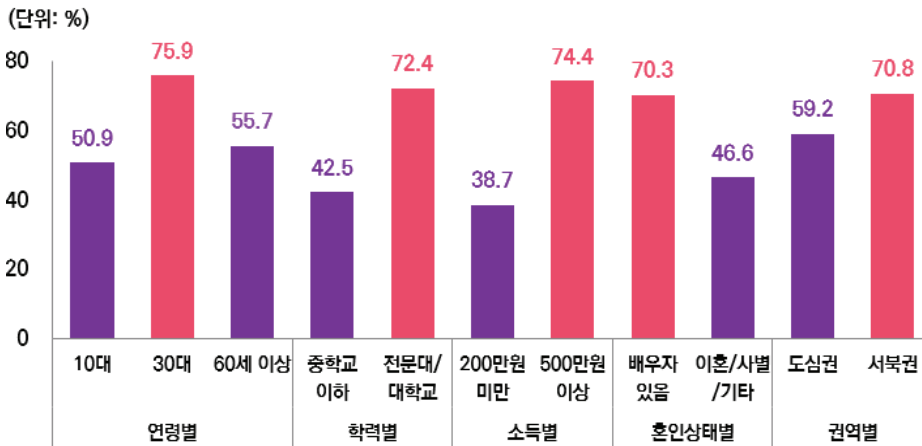
서울서비스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65.8%가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은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평균 1.92회 국내 숙박 여행을 하였으며,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61.1%가 1박 2일, 38.9%가 2박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30~40대, 유배우자, 학력과 소득이 높고, 서북권 거주자들의 국내 숙박 여행 경험률이 높았다. 30~40대는 73~76%가 여행 경험이 있는 반면, 10대는 50.9%, 60세 이상은 55.7% 만이 국내 여행 경험이 있었다. 전문대 이상 학력은 72%가 국내 여행을 한 반면, 중학교 이하 학력은 42.5%에 불과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집단의 74.4%가 국내 여행 경험이 있는 반면, 200만원 미만 집단은 38.7%로 매우 낮았다. 또한 유배우자의 70.3%가 국내 여행을 한 반면, 이혼/사별/기타 집단은 46.6%에 불과해 집단 내 차이를 보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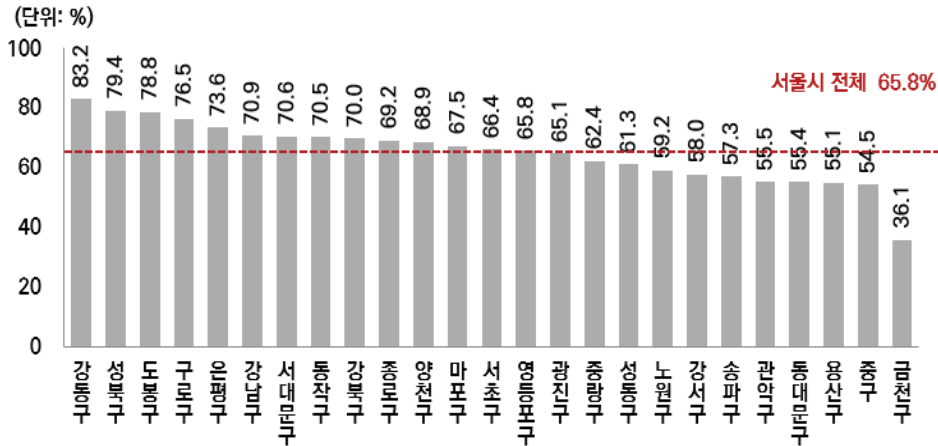
〈그림 3-255〉 국내 숙박 여행 평균 기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6〉 인구특성별 국내 숙박 여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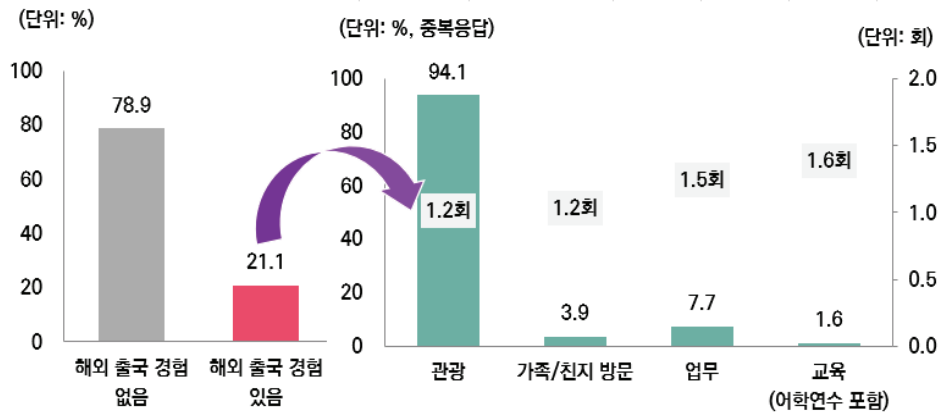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주민들의 국내 숙박 여행 경험률이 83.2%로 가장 높았으며, 성북구(79.4%), 도봉구(78.8%), 구로구(76.5%), 은평구(73.6%) 등에서도 국내 숙박 여행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에 금천구는 36.1%로 가장 낮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7〉 자치구별 국내 숙박 여행 경험

한편,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서울시민의 21.1%가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 중의 94.1%가 관광 목적 또는 관광을 수반한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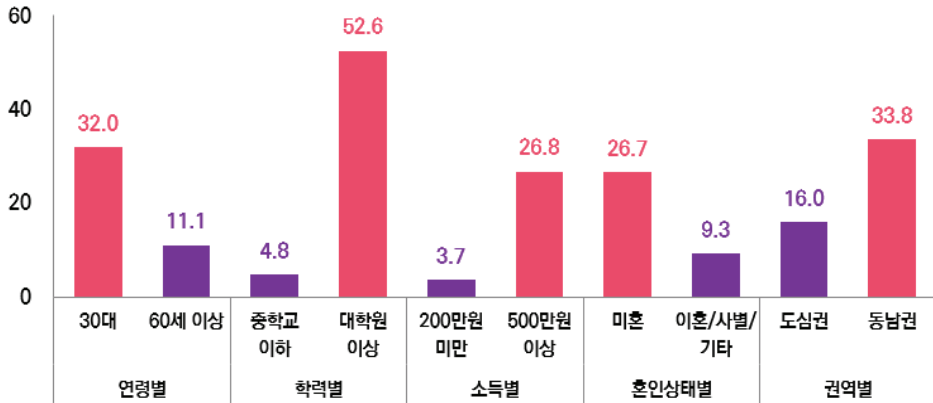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8〉 해외 출국 경험 및 목적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20~30대, 학력과 소득이 높고, 미혼, 동남권 거주자들의 해외 출국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30대는 27~32%가 해외를 다녀온 반면, 60세 이상은 11.0%, 10대는 12.0% 만이 해외로 출국한 경험이 있었다. 대학원 이상 학력은 52.6%가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반면, 중학교 이하 학력의 해외 출국 경험은 4.8%에 불과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집단의 26.8%가 해외

출국 경험이 있는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3.7%에 불과하였다. 또한 미혼인 경우 26.7%가 해외를 다녀왔지만, 이혼/사별/기타 집단은 해외 출국 경험이 9.3%에 불과해 집단 내 큰 차이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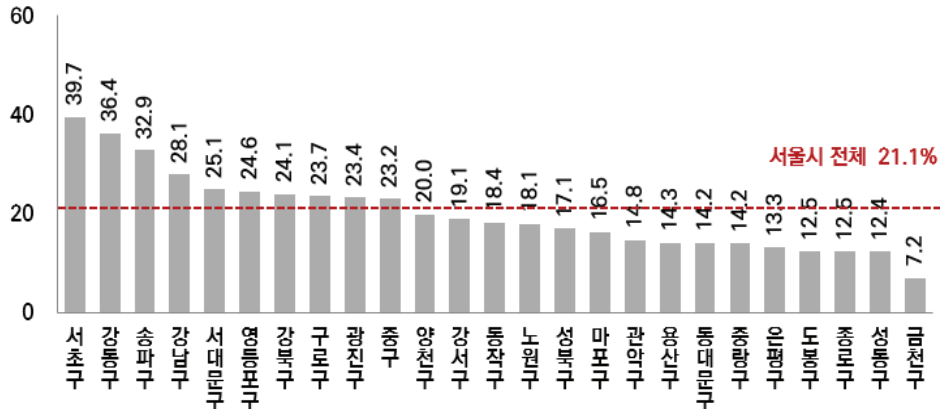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59〉 인구특성별 해외 출국 경험률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9.7%로 해외 출국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동구(36.4%)와 송파구(32.9%)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금천구의 해외 출국률은 7.2%로 가장 낮았으며, 성동구(12.4%), 도봉구·종로구(12.5%), 은평구(13.3%) 등에서도 해외 출국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단위: %)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60〉 자치구별 해외 출국 경험

제9절 교육과 돌봄

1. 교육 및 보육환경

1) 요약 및 정책 제언

교육만족도는 10년 동안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지역 간 격차도 크게 줄어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거주지역의 교육만족도는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에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데 이어 2023년에도 소폭 증가하여 교육영역의 일상회복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교육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23 서울서베이 가구조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동남권과 서북권의 교육만족도(교육비, 교육여건 등) 인식은 서울시 전체 평균(6.27점)보다 높았고, 서남권과 도심권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동북권은 평균과 유사했다. 동남권의 교육만족도 인식이 가장 높고 서남권이 가장 낮은 것은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이나, 두 지역의 점수 차이가 2022년 0.95점에서 2023년에는 0.39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동남권의 교육만족도가 0.2점 감소하고 동시에 서남권이 0.36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2023년에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⁸⁾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심화 추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 지역 간 교육재정, 교육 인프라, 학교시설 등의 격차가 심하고,¹⁹⁾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기 교육 기회와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²⁰⁾

1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2년 11.8%에서 2023년 5.8%로 절반 정도 하락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거의 유지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4.8% 증가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3.14.,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20077>).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시 학교 1개당 평균학생수; 각급 학교 현황, 사설학원 현황 등 참고

20) 김수혜·손수경·임혜정·노언경, "OECD 형평성 지표로 본 교육격차 추이: 서울교육종단연구 1~9차년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도시연구』, 2020, vol.21, no.2, pp.127~144.

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제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

나아가 미래 인구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추진도 중요하다. 서울시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폐교 부지 활용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학교 정책,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시·도교육청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시·도 관할의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과 같은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교육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직업교육에서 나아가 전생애 삶의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이 확대되어야

건강수명의 증가, 폭발적인 기술발전 속도, 평생직장의 퇴색과 이직 활성화, 불안정·비정형 일자리의 증가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목적의 평생교육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성인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32%이다. 평생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의미하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나누었을 때, 형식교육 참여율은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형식교육임을 알 수 있다. 비형식교육 참여자의 1/3 정도는 직업 관련 목적의 비형식교육에 참여하였다. 경인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울 성인이 평생교육 참여율, 비형식교육 참여율 모두 가장 높았다. 서울 성인은 경기도와 인천 성인에 비해 직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비형식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대면·비대면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²¹⁾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조성하여 온·오프라인 교육과 경력설계 상

21) 서울시는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40~64세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5개 권역별 캠퍼스를 조성했다. 2023년에는 40~60대 대상 연령대별 5개 분야 48개 사업을 담은 “서울런4050”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중장년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청년 대상으로는 자기 이해와 주체적인 진로 탐색을 위해 5주간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가 2024년 현재 5기가 진행 중이다. 청년들의 신기술 역량과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는 19개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도 운영 중에 있다.

담,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고, 2024년에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도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직업교육에서 나아가 가속화된 사회변화,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세대 간 통합을 이루며 길어진 생애주기 전반 동안 주체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관점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영유아 인구 감소와 정책 변화를 교육·보육 질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유보통합)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법령, 설립·운영·교사자격 제도, 관리체계와 같은 핵심 부분의 통합까지 추진되고 있는 2024년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5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이용률”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영유아 공공교육 보육 이용률”로 변경하였다. 2023년 기준 서울시 0~5세 영유아의 80.9%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다닌다. 공공교육 보육 이용률은 39.8%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교육 보육을 설립유형으로 세분화하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의 증가 폭이 가장 커 2023년 기준 30%에 가까운 이용률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취원율은 부모의 맞벌이 비율을 훨씬 상회 할 정도로 높아 1세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관에 다닌다.²²⁾ 2013년부터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 보육이 도입되어 공공, 민간 등 모든 설립유형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관의 비율이 높아,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오랜 국가적 과제였다. 영유아의 공공교육 보육 이용률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이 40%가 되지 않는다. 공공교육 보육 이용률의 상승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확충 정책과 출생아 수 급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²³⁾ 현재의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적 상황과 서울의 출생아 수 급감이라는 인구학적 상황이 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22) 2023년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0세 25.7%, 1세 89.2%, 2세 94.3%, 3세 90.4%, 4세 89.6%, 5세 89.3%(육아정책연구소, 2023 영유아 주요 통계)

23) 2014년 대비 2023년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수는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영유아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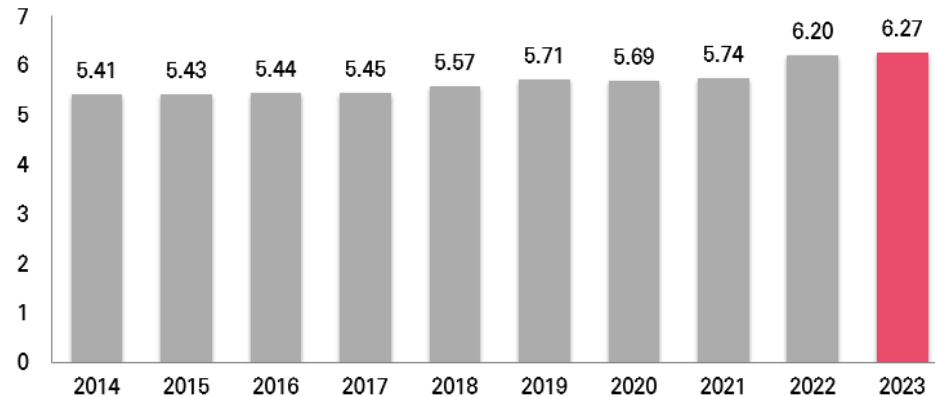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질을 높이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을 합하면 기관 비율이 57.6%로 나타난다. 어린이집 간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인근 어린이집들의 공동 운영, 보육 전문성 향상, 지역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모아어린이집도 확대하고 있다.

2) 지표 설명

•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결과, 거주지역의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는 2023년에 6.27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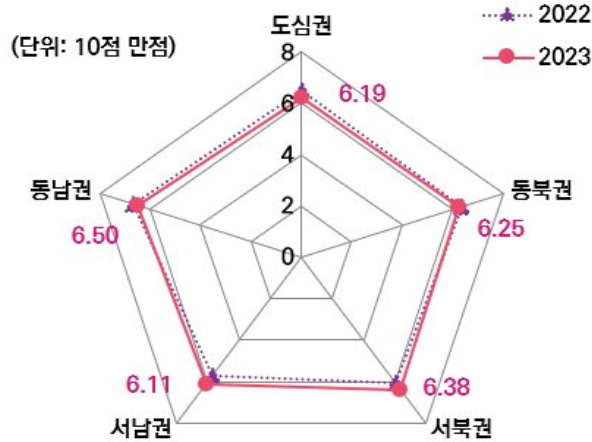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26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권역별로는 동남권(6.50점), 서북권(6.38점), 동북권(6.25점), 도심권(6.19점), 서남권(6.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서남권(0.35점)과 서북권(0.33점)에서 교육환경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도심권(0.29점), 동남권(0.20점), 동북권(0.12점)에서는 교육환경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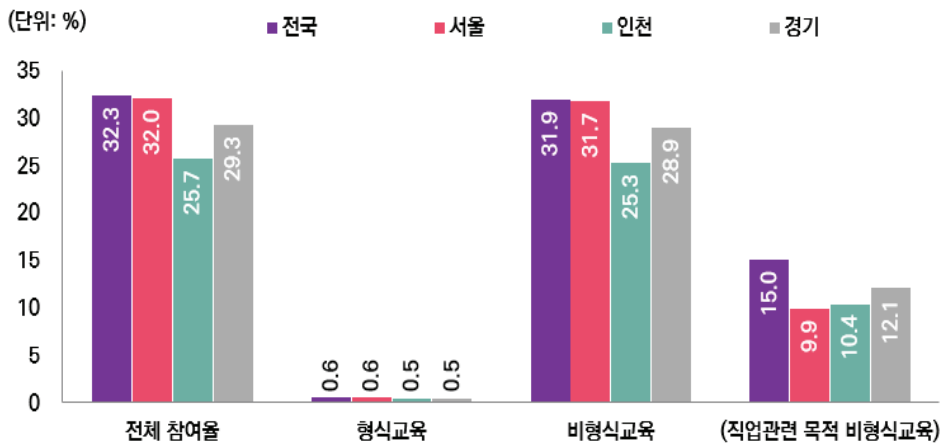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3-262〉 거주지역 교육만족도(권역별)

• 평생교육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1월~12월) 한 해 동안 만 25세~79세 서울시민의 평생학습(형식교육+비형식교육) 참여율은 32.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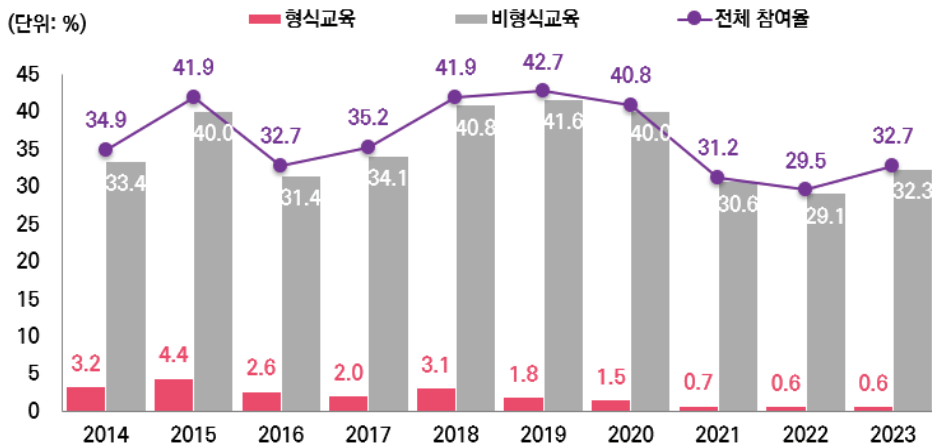
주) 직업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취업, 이직, 창업',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급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3

〈그림 3-263〉 평생교육 참여율

학습 영역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대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형식교육 참여율은

0.6%,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31.7%로 조사되었으며, 비형식교육 중에서도 직업관련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수도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3%, 인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5.7%로 서울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직업관련 목적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각각 12.1%, 10.4%로 서울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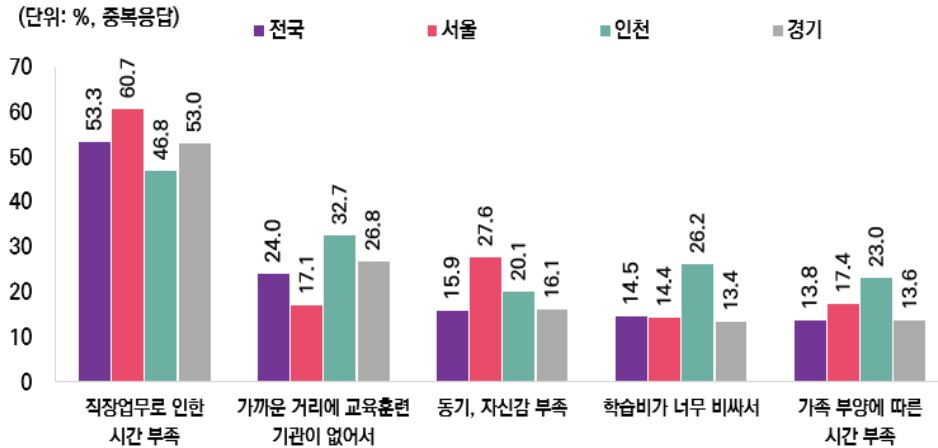
한편, 최근 10년간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43%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32.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3.2%p).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그림 3-264〉 서울 및 광역시의 평생교육 참여율

서울 및 광역시 성인의 10명 중 1명 정도(14.8%)가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중복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경우 60.7%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동기, 자신감 부족’(27.6%),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17.4%),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17.1%),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14.4%) 순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인천 역시 평생학습 불참요인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46.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32.7%),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26.2%),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23.0%)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국과 서울보다 높았다. 경기도의 평생학습 불참요인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53.0%로 가장 많았으며,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26.8%)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국과 서울보다 높았다.



주)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만 25~79세) 대상(중복응답)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23

〈그림 3-265〉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 요인(상위 5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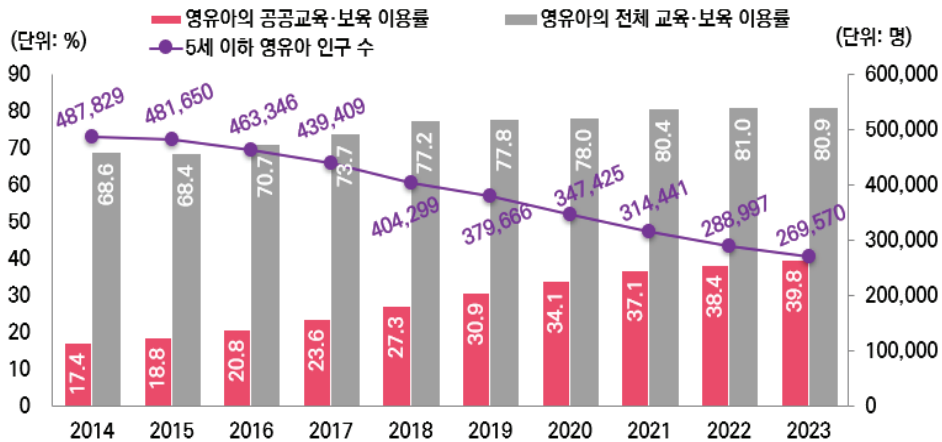
- **평생학습**: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된다.
- **형식교육**: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자속적인 스터디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한다.

•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0세~5세 영유아의 전체 교육·보육(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80.9%로 나타났으며, 0세~5세 영유아의 공공교육·보육(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39.8%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5세 이하 영유아의 공공교육·보육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5세 이하 영유아의 전체 교육·보육 이용률은 12.3%p 증가하였으며, 공공교육·보육 이용률은 22.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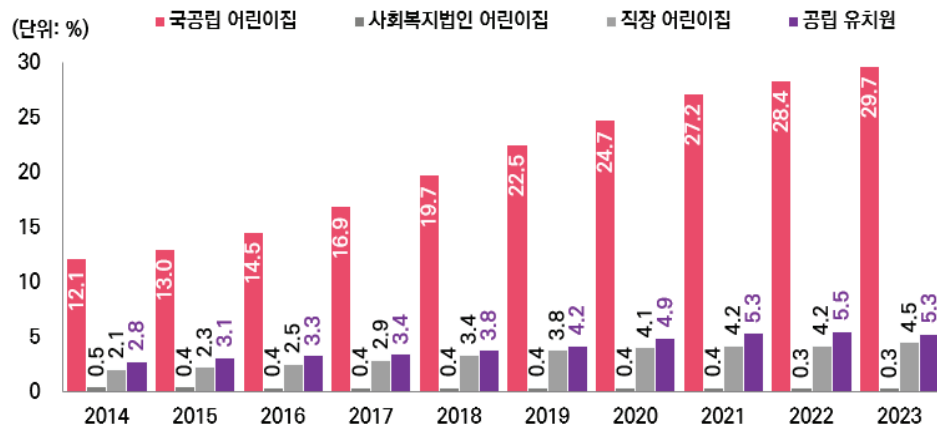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 5세 이하 영유아의 공공교육·보육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설립유형별 이용률에는 차이를 보였다. 2023년에 서울시 5세 이하 영유아의

29.7%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공립유치원 5.3%, 직장어린이집 4.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0.3%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10년 전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17.6%p), 공립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소폭 증가(각각 2.5%p, 2.4%p)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0.2%p 감소하였다.



주: 1) 5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 등록외국인 포함
 2)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합동
 3) 전체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4) 영유아 전체 교육·보육 이용률: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 수 + 전체 유치원 이용아 수 / 5세 이하 영유아 인구 수) × 100
 5)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 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아 수 + 직장어린이집 이용아 수 + 국공립유치원 이용아 수) / 영유아 인구 수 × 100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266〉 5세 이하 영유아의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267〉 5세 이하 영유아 대비 공공교육·보육 설립유형별 이용 비율

2. 사회적 약자 보호

1) 요약 및 정책 제안

지속적 복지예산 증가로 노인빈곤율 감소하였으나, 근로연령층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필요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2014년에 6조 8,42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 15조 9,506억 원(38.4%)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빈곤율(전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전국)은 2013년 47.7%에서 2022년 39.7%로 하락하였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²⁴⁾ 이 같은 빈곤율 감소는 복지예산 투입이 빈곤, 특히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유추하게 한다.

노인빈곤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5세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전국)은 2013년 13.8%에서 2020년 10.3%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대상이 아닌 새로운 빈곤 위험계층인 근로가능한 연령층을 위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대상은 대부분 근로가능한 청년, 중장년이 있는 가구였다. 서울시는 근로연령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소득시범사업 등 다양한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디딤돌소득은 시범사업으로 그 대상자 규모가 크지 않다.²⁵⁾ 2022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인 가구 총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가구²⁶⁾의 서울형기초보장 신청률

24)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199p)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0.4%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OECD가 2009년 노인빈곤율 데이터를 공개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ensions-at-a-glance-2023_678055dd-en.html).

25)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3년간 약 2,1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https://ssi.welfare.seoul.kr/web/contents/bizguide.do>)

26) 2022년 기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평가액(주거, 근로소득 일부 공제)이 기준중위소득 46%(1인가구 기준 연소득 1,073만 원 이하)이다.

은 11%에 불과하였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자연증가가 대부분, 약자동행 정책을 통한 예산 투입의 성과 모니터링 해야

서울시 복지예산 증가를 주도한 세부 영역은 노인, 주거이다. 노인 복지예산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것이며, 주거복지 예산 증가는 부동산, 건축비용 등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 복지예산 증가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정의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민선8기 핵심 정책 방향은 약자동행 매력도시이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여 서울시의 약자동행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3년 약자동행지수 성과 분석 결과,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²⁷⁾ 복지예산의 증가가 이러한 약자동행 정책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예산 증가가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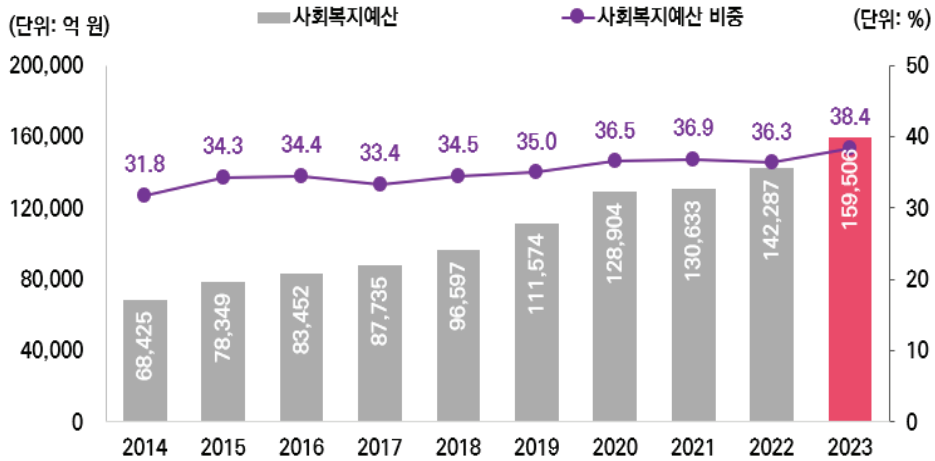
2) 지표 설명

• 사회복지예산 비중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15조 9,5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1%p(1조 7,219억 원) 상승하였다. 세부 영역별로는 저소득(23.8%)과 어르신(23.3%) 예산이 가장 많고, 여성보육 예산 19.3%, 주거 예산 16.9%, 장애인 예산 9.5%, 보건 예산 4.0%, 교육 예산 3.2%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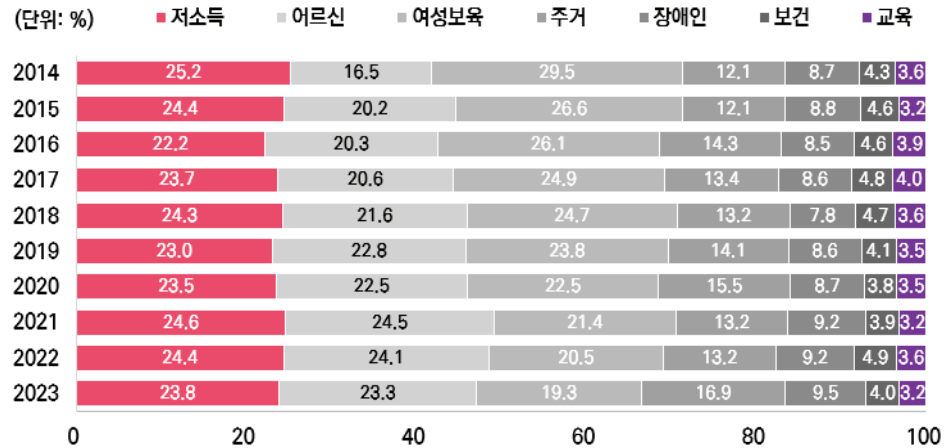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6.6%p(9조 1,081억 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부 영역별 예산 비중은 차이를 보였는데, 2014년 대비 어르신(6.8%p), 주거(4.8%p), 장애인(0.8%p) 예산은 증가한 반면, 여성보육(10.2%p), 저소득(1.4%p), 교육(0.4%p), 보건(0.3%p) 예산은 감소하였다.

27) 서울정보소통광장 “주거·안전 등 상성...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 2024년 10월 31일,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31198892>.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그림 3-268〉 사회복지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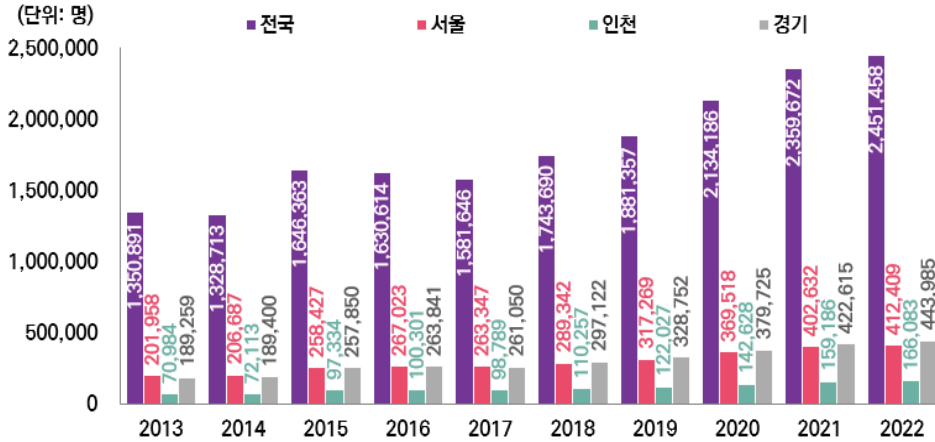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그림 3-269〉 사회복지예산 비중(영역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총 2,451,45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서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412,409명, 인천 166,083명, 경기 443,985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서울은 2.0배(210,451명), 인천은 2.3배(95,099명), 경기도는 2.3배(254,726명)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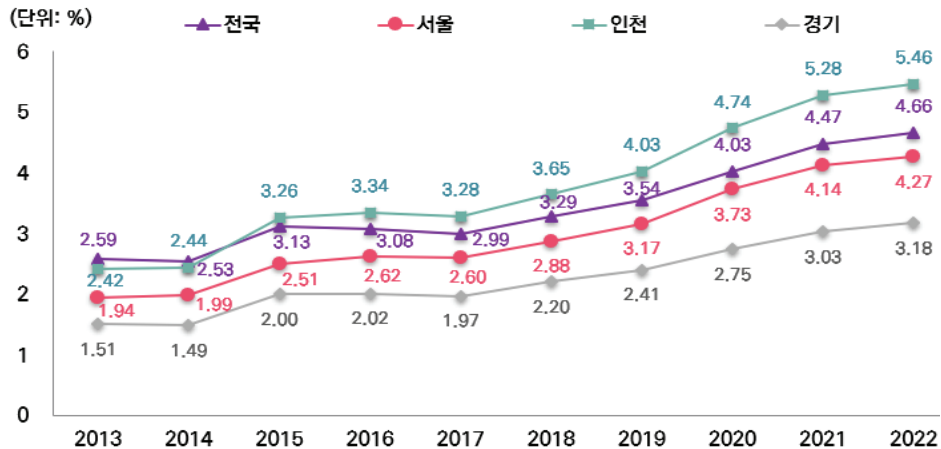


주)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그림 3-27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주민등록인구(등록 외국인 포함)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2022년 기준 전국이 4.66%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은 4.27%, 인천 5.46%, 경기 3.18%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전국적으로 2.07%p 증가하였으며, 서울 2.33%p, 인천 3.04%p, 경기 1.6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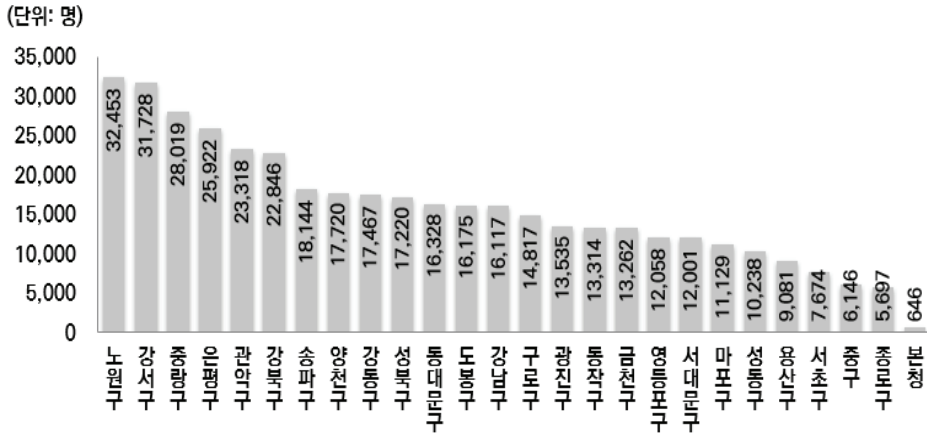
주)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그림 3-2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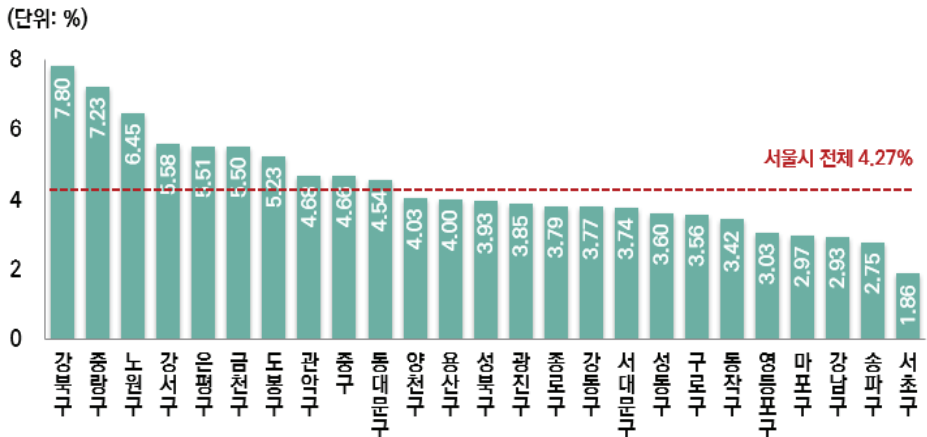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32,453명), 강서구(31,728명), 중랑구(28,019명), 은평구(25,922명)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로구(5,697

명), 중구(6,146명), 서초구(7,674명)에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등록 외국인 포함)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강북구(7.80%), 중랑구(7.23%), 노원구(6.4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1.86%), 송파구(2.75%), 강남구(2.93%), 마포구(2.97%) 순으로 낮았다.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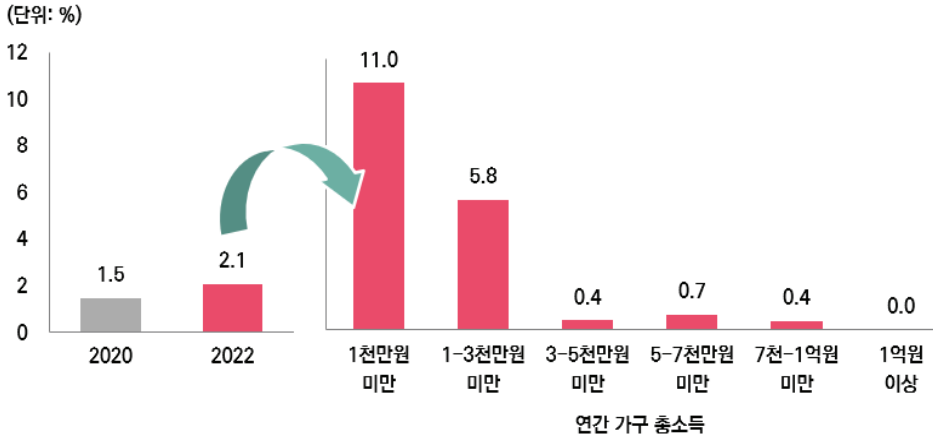
〈그림 3-272〉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구별)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2022

〈그림 3-273〉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율(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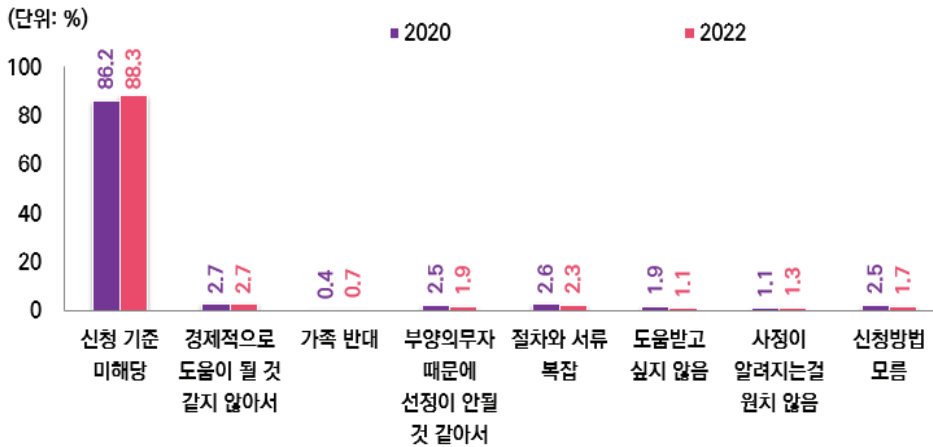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대표사업인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률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기준 지난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서울시민은 63명으로, 전체 응답자(3,019명)의 2.1%로 확인되었다.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그림 3-274〉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 가구 비율

조사 대상자의 97.9%가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신청 기준 미해당’ 이유가 88.3%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7%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3%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 1.9%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1.7%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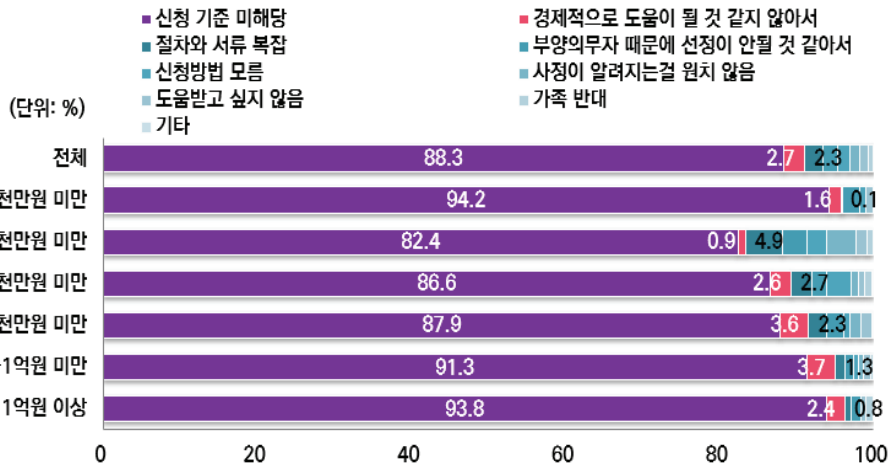
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가구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그림 3-275〉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이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연간 가구 총 소득이 1천만 원 미만 집단은 11.0%가, 1~3천만 원 미만인 집단은 5.8%가 최근 1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천만 원 이상 집단은 0.7%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저소득가구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연간 가구 총 소득 1천만 원 미만 집단은 '신청 기준 미해당' 이유가 94.2%로 가장 많았으며,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2.2%,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 '도움받고 싶지 않아서' 1.0%, '신청 방법을 몰라서' 0.9%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연간 가구 총 소득 1~3천만 원 미만 집단은 '신청 기준 미해당' 이유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와 서류 복잡' 4.9%, '사정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3.8%,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3.1%, '신청 방법을 몰라서' 2.7%, '도움받고 싶지 않아서' 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가구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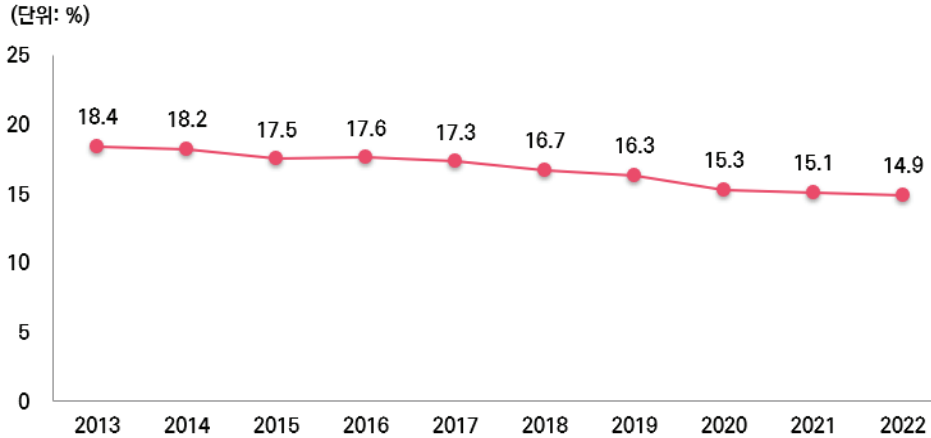
(그림 3-276) 가구소득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미신청 이유

•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²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²⁸⁾ 빈곤선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기준을 말하며,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최근 OECD 방식)으로 나눈 소득을 말함. 처분가능소득이란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로 계산되며, 공적 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이 포함되며, 공적 이전지출에는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됨

상대적 빈곤가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기준 14.9%로 나타났으며, 10년 전 대비 3.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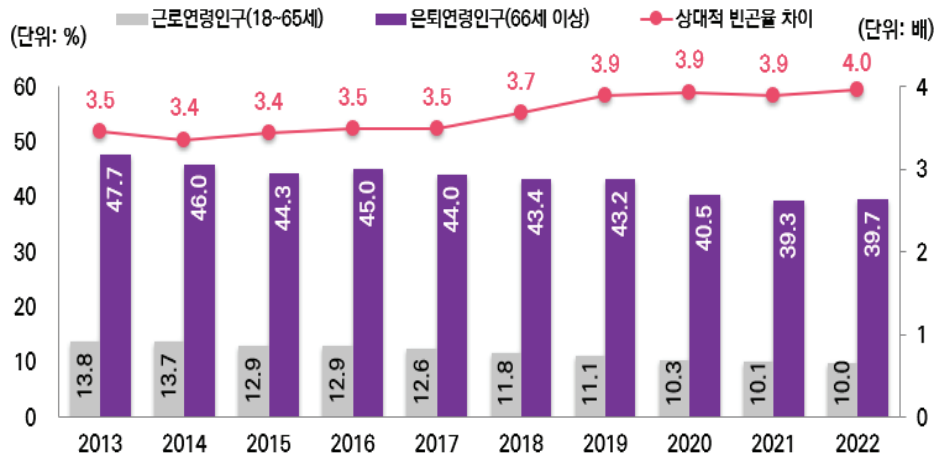


주: 1)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277〉 전국의 상대적 빈곤율



주: 1)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2)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3) 상대적 빈곤율 차이 =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 빈곤율 - 근로연령인구(18~65세)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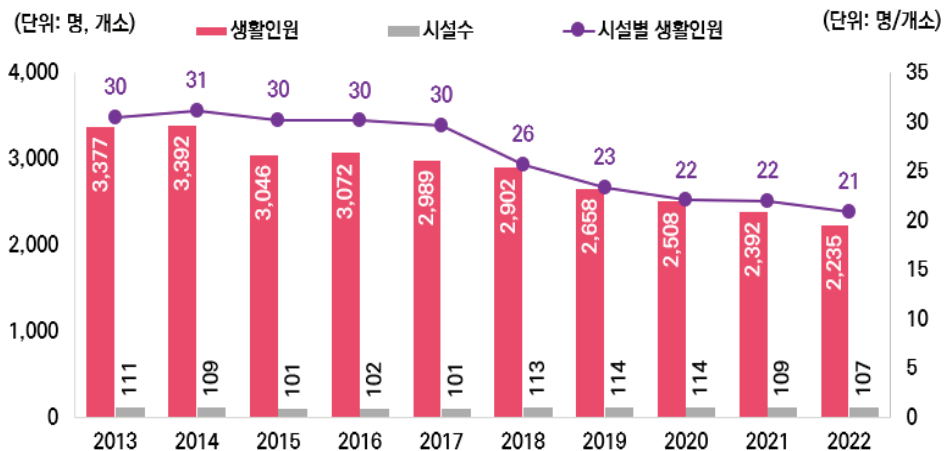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278〉 전국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전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10.0%로 나타난 반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 전에 비해 근로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지만(각각 3.8%p, 8.0%p), 전년도에 비해서는 근로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0.6%p)한 반면,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0.4%p)하였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10년에 걸쳐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은퇴 이후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4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근로연령인구와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는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4.0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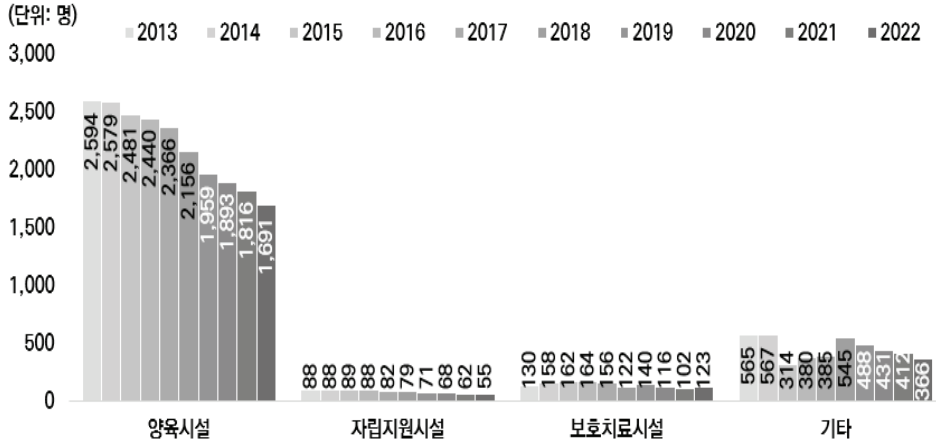
서울시의 아동복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수는 전체 107개소 조사되었으며, 생활인원 수는 총 2,235명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그림 3-279〉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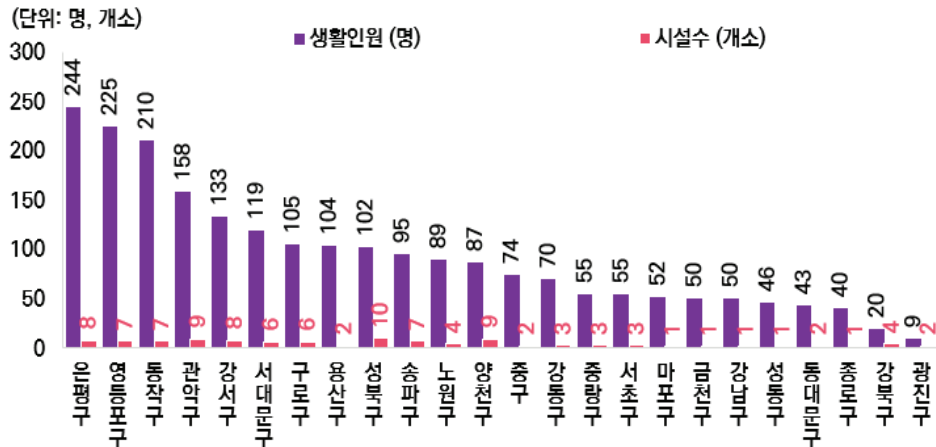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 생활인원 수가 1,691명(35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치료시설 생활인원 수가 123명(3개소), 자립지원시설 생활인원 수가 55명(3개소)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1,142명 감소하였다.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그림 3-280〉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시설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가 244명(8개소)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225명, 7개소), 동작구(210명, 7개소), 관악구(158명, 9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도봉구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생활인원이 없으며, 광진구 9명(2개소), 강북구 20명(4개소), 종로구 40명(1개소)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2022

〈그림 3-281〉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수(구별)

3. 성평등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고 의사결정과 가족 분야 성평등 수준 매우 낮아

OECD의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1996년 OECD 가입 이래 26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2022년 OECD 평균 11.4%, 한국 31.2%).²⁹⁾ 다만 전국의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2015년 (62.8%)부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68.1%로 나타나 성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완화 추세인 것과 더불어, 지역별로 나누었을 때 서울은 “경제활동(2위)”과 “교육직업훈련(2위)” 분야의 성평등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시작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격차가 완화된 것은 고무적이나, 절대적인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의 “의사결정”, “보전” 분야 성평등 순위는 2016년부터 하락 추세이다.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성평등지수가 100점 만점에 46.6점으로 매우 낮고 “가족” 분야는 68.8점으로 두 번째로 낮다.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여성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로 구성된다. “가족” 분야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유아휴직자 성비로 구성된다.

서울의 성별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여성의 사회적 의사결정 권한과 가정에서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 즉 부부간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불균등한 수행이 지속되는 이상, 사회적 노력만으로 성평등 달성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²⁹⁾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중위 소득에 대한 여성 중위 소득 간의 차이로, 2023년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 29.3%, 일본 22.0%, 미국 16.4%, 호주 11.3%, 스웨덴 7.3%, 뉴질랜드 4.2%로 나타났다(2024년 10월 31일 조회 기준,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gender-wage-gap.html?oecdcontrol=96565bc25e-var3=2023>).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가족 웰빙 높이기 위해 가사와 육아 분담 이뤄져야

최근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부부간 가사·육아의 불균등한 분담”이다.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³⁰⁾ 한국은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정도와 합계출산율 모두 가장 낮은 나라이다. 현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과 육아의 병행이 핵심이라는 판단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축 가운데 직장 내 육아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가정 내 유급·무급노동 분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부부의 불균등한 가사노동 분담은 10년 동안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76.3%의 부부가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도한다고 응답했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22.2%,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였다.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연령대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높고 아내가 주도한다는 응답은 적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장 어린 20대 이하 부부조차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고 38.8%는 아내가 주도한다고 응답한 것은 젊은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아지고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이 여전히 확고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가 갖는 가치가 성평등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같은 거시적 현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성인기 적응의 중요한 요소이며, 장시간 근로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남성의 건강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아버지의 활발한 양육참여가 남성과 자녀의 건강과 웰빙을 높인다고 일관되게 보여준다. 부부의 역할분담은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직접 개입하거나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분야이다. 정부와 전문가의 꾸준한 관심과 함께 인식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할 때이다.

30) 1980년에는 OECD 국가 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낮았으나, 2000년에는 그 관계가 반대로 뒤집혔고, 특히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정도가 높은 나라가 합계출산율이 높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https://cepr.org/voxeu/columns/new-era-economics-fertility>).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보다 유연하게, 남성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정부는 초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근 몇 년간 대폭 확대하고 있다.³¹⁾ 이러한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남성 사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가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육아에만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실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8년이지만 이용률이 미미하다가 2020년부터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남성의 사용률이 매우 낮다. 직종 특성에 따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더 편리한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직장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³²⁾

그런데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를 ‘여성만’ 사용할 경우 몇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여성을 주양육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남성 근로자의 제도 사용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도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8%가 되었지만(여성가족부,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10% 정도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당해연도에 출산한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6.8%에 더욱 낮은 비율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률의 남녀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여성 위주로 사용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남성의 이용 확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시는 최근에 도입한 “중소

31) 최근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1.5배 늘어났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현행 8세 이하(초2 이하)에서 12세 이하(초6 이하)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출산 초기에는 집중적인 육아가 필요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고 부모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초등교육 프로그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원(교)시간이 오히려 빨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타당한 제도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직장생활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방학과 같은 짧은 육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점도 고무적이다.

32) 해외 주요국가들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휴가”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의 비율을 유연하게 정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기업 워라밸 포인트제”³³⁾에서는 육아지원제도를 남성 근로자가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해 준다. 우리나라가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듯이, 일본은 300명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이용 확대 전략이 꾸준히 요구된다. 나아가, 신생아기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아-부모 간 애착이 형성되고 부모 자신의 부모라는 정체성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출산 직후 남성의 휴직을 의무화하고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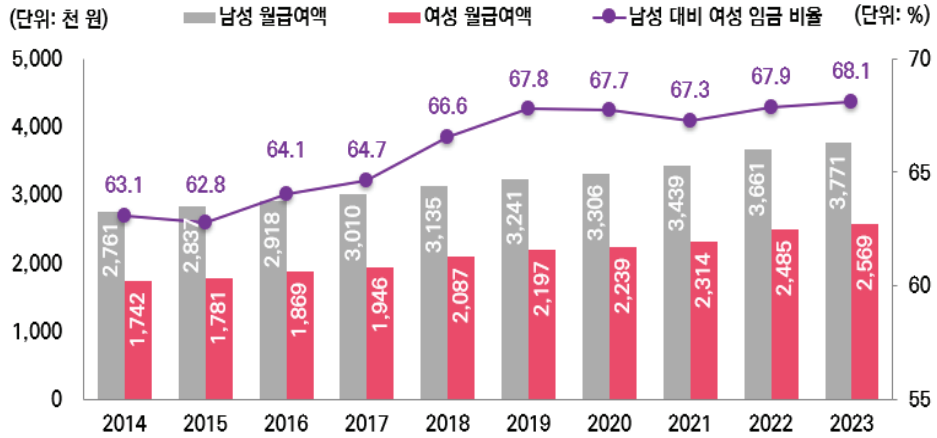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육아휴직통계”를 해석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육아휴직통계는 다양한 지표를 담고 있는데, 크게 1)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모든 사람, 2)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 전체 혹은 육아휴직 대상인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당해연도”에 시작한 사람, 3) “한 자녀 부모” 중 각 연도부터 9년 후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아동의 부모 중에서 일부만이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고(공무원,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등),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한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 정보는 집계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통계 생산을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2) 지표 설명

• 성별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국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근로자 임금의 68.1%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남성 소득=100),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15년에 62.8%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3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33)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들을 각각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https://www.pointseo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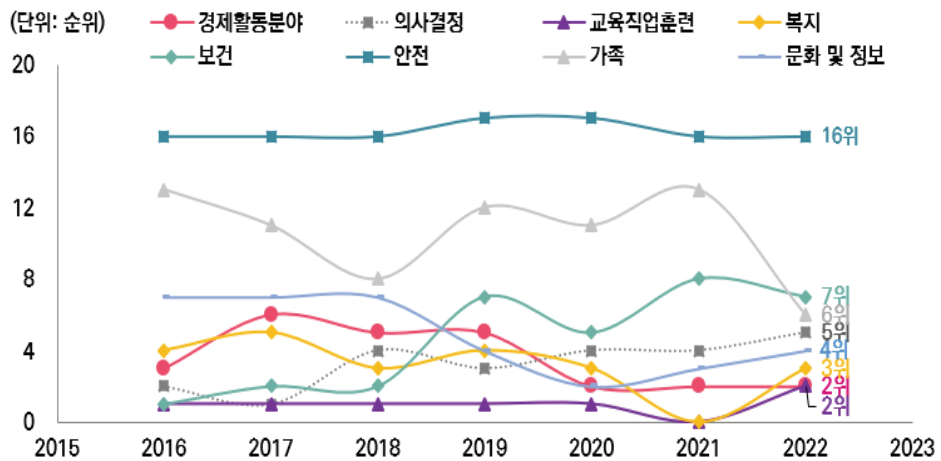
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남성 소득=100) = (여성 월 급여액 / 남성 월 급여액) × 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그림 3-282〉 전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성평등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성평등지수 종합평가는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의 부문별 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분야와 교육직업훈련 분야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복지 분야 3위, 문화 정보 분야 4위, 의사결정 분야 5위, 가족 분야 6위, 보건 분야 7위를 차지하였으며, 안전 분야는 16위로 여전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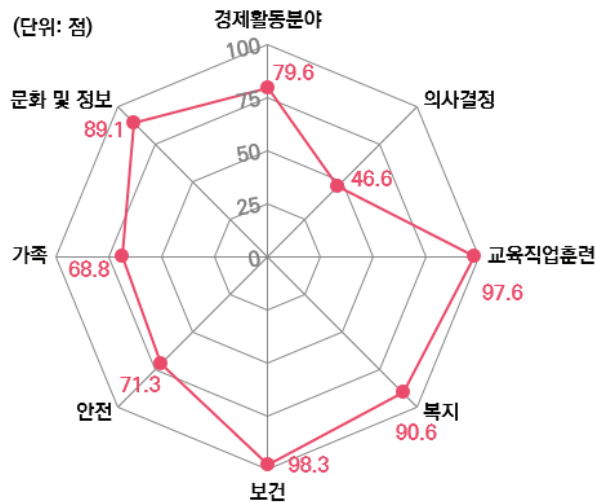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그림 3-283〉 분야별 서울의 성평등 순위

지표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위원 비율,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안전 분야는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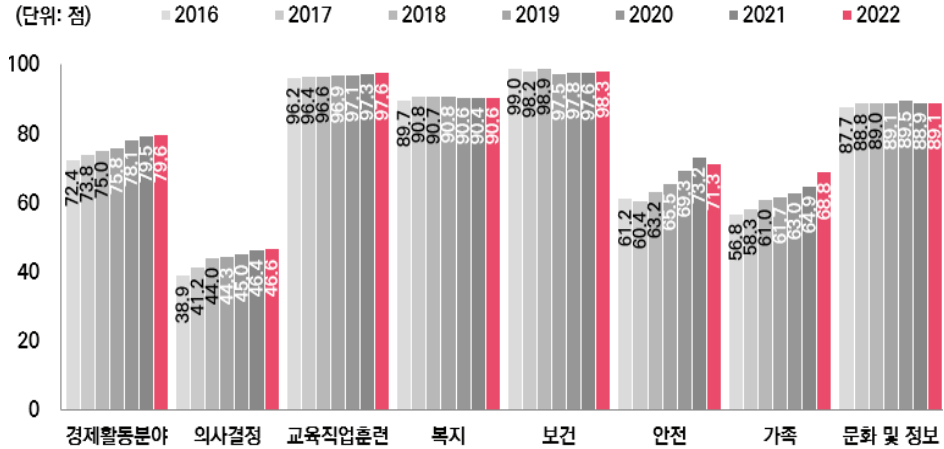
2022년 서울의 분야별 성평등지수는 보건(98.3점), 교육직업훈련(97.6점), 복지(90.6점), 문화 및 정보(89.1점)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79.6점), 안전(71.3점), 가족(68.8점), 의사결정(46.6점) 분야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2022

〈그림 3-284〉 성평등지수

2016년 대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12.0점)과 안전(10.1점) 분야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며, 의사결정(7.7점)과 경제활동(7.2점) 분야에서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 대비 성평등지수가 오히려 0.7점 하락하였으며, 안전 분야의 경우 2016년 이후 성평등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위권(16위~17위)에 머무르고 있다.



주) 2017~2021년 일부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그림 3-285〉 성평등지수(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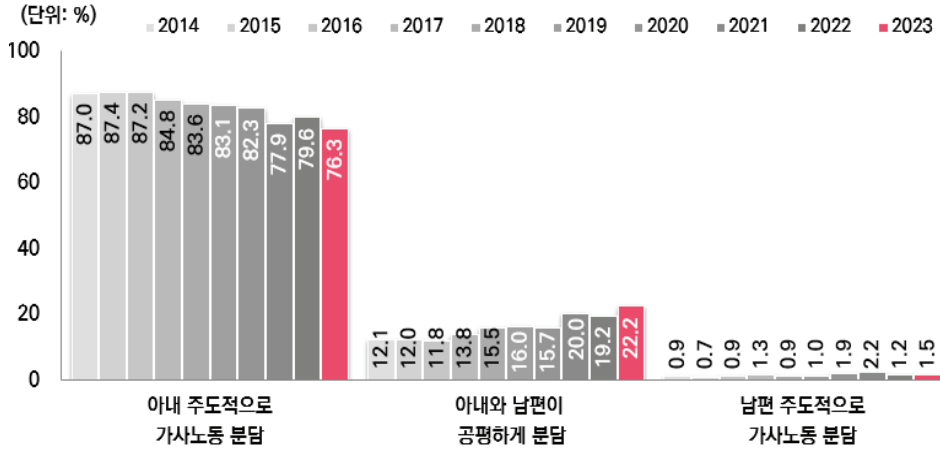
• 지역성평등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 (완전 불평등 0.0점, 완전 평등 100.0점)
-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지수값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시도별로 성평등이 취약한 영역을 보여주어, 분야별 성평등 정책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짐

• 가사노동 분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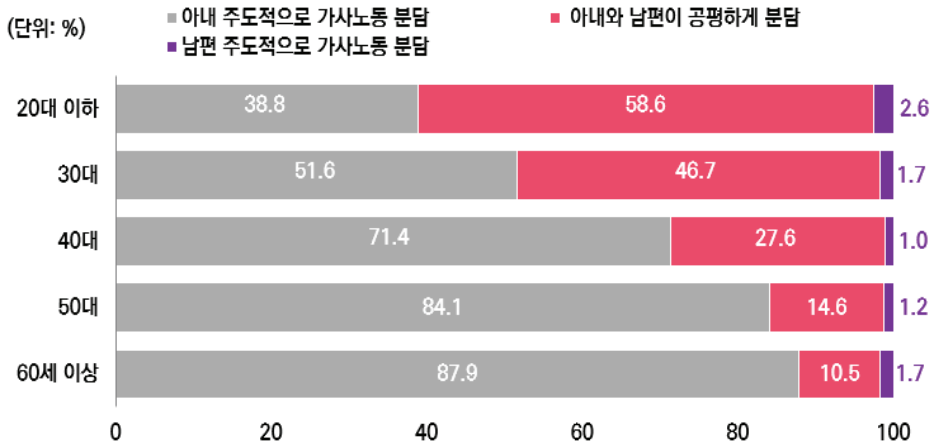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결과 여성 주도의 가사노동 분담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아내와 남편의 공평 분담은 증가하였다. 2023년 ‘아내가 주도적으로 가사 노동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76.3%로 전년 대비 3.3%p 감소하였으며,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2.2%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별로 가사노동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가구주에서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30대 가구주는 46.7%로 조사되었다. 반면, 50대 가구주와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사노동 공동 분담률은 각각 14.6%와 1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구조조사

〈그림 3-286〉 가사노동 분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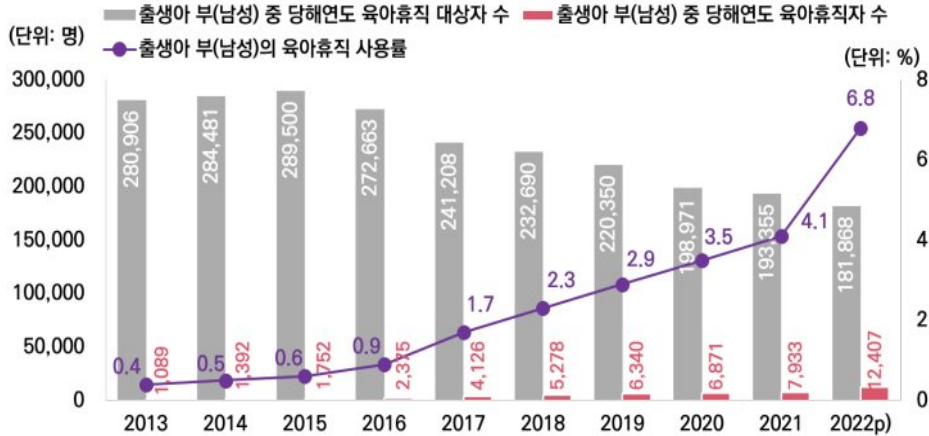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구조조사, 2023

〈그림 3-287〉 가사노동 분담 정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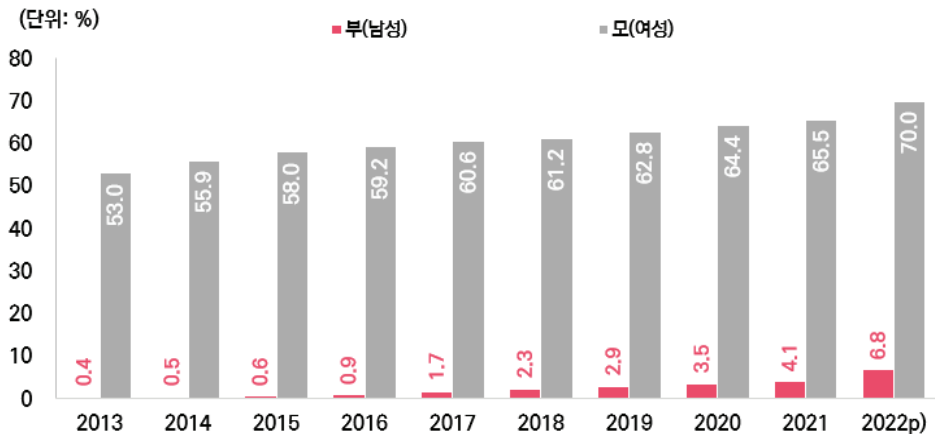
•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전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잠정치 기준) 출생아 부(남성) 중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는 181,868명이며, 이들 중 2022년 육아휴직자 사용자 수는 12,407명(6.8%)으로 조사되었다.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남성) 중에서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013년에 0.4%였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그림 3-288〉 전국의 연도별 출생아 부(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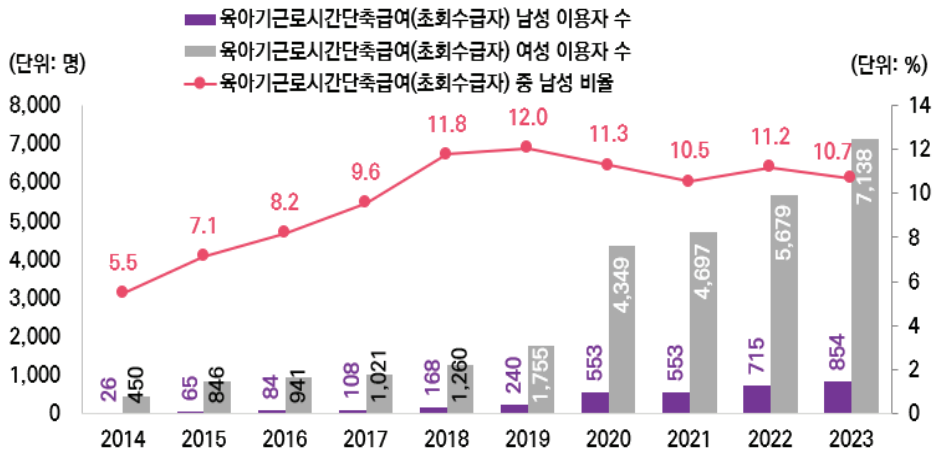
〈그림 3-289〉 전국의 육아휴직 대상자인 당해연도 출생아 부(남성)와 모(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22년(잠정치 기준) 전국의 당해연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운데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70.0%로 2013년 대비 17.0%p 증가 하였으며, 남성과의 격차는 2013년 52.6%p에서 2022년(잠정치 기준) 63.2%p로 더욱 증가하였다.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정도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 × 100

한편, 육아휴직제도에 이어 최근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육아 병행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초회수급자)를 이용한 서울시민은 총 7,992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 동안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남성(부) 이용자 수는 2014년 26명(5.5%)에서 2023년에 854명(10.7%)으로 증가하였다.



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초회수급자 수: 연도별 1월~12월까지 이용자 수의 총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

〈그림 3-290〉 서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

제10절 가치와 의식

1. 시민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전반적으로 시민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관련 항목도 낮아지는 추세

지난 1년간 서울시민의 8.4%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SNS에 정치사회적 의견을 달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원 제안 및 제기와 정책제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사회 참여율은 2022년 조사에 비해 하락하였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자원봉사에 참여한 서울시민은 6.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11.5%로 두 자릿수였으나, 2021년 7.2%를 기록한 이후 10% 미만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유지되고 있다.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이며,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 참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23년 조사에서 6.84점으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의 7.05점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값은 최근 10년 중 다소 낮은 편이다.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게 느끼는(7점 이상) 사람은 절반 이상인 63.6%인데, 이는 전년 대비 5.1%p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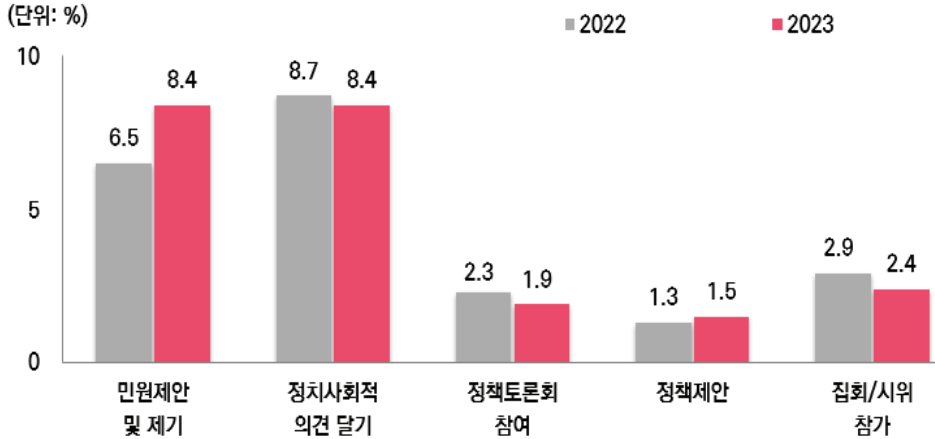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와 같은 공적·사회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감소하였다.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공적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민수요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표 설명

• 지역사회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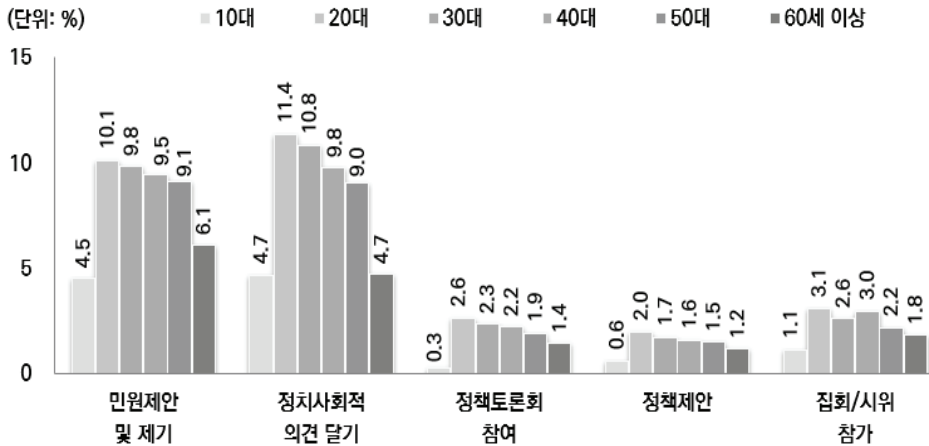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서울시민의 8.4%가 ‘민원제안 및 제기’(정보공개 청구 등)와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페이스북, 트윗 댓글 달기 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집회/시위 참가’ 경험은 2.4%, ‘정책토론회 참여’ 경험은 1.9%, ‘정책제안’ 경험은 1.5%로 조사되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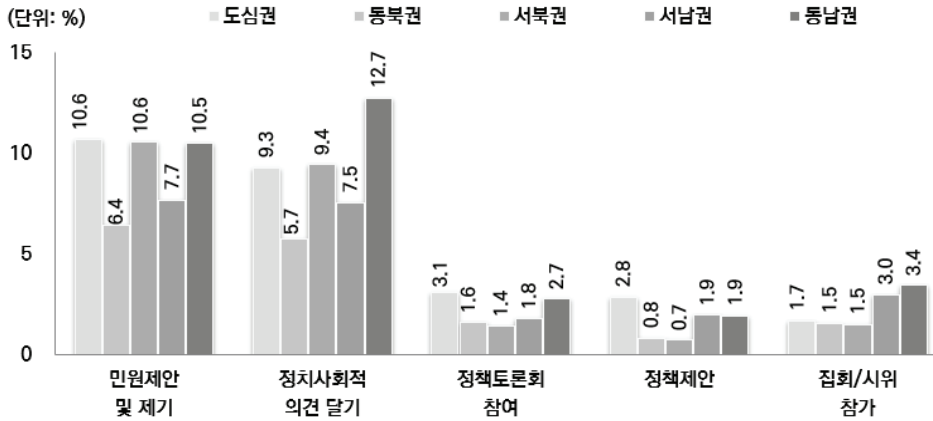
〈그림 3-291〉 지역사회 참여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92〉 지역사회 참여율(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사회 참여율을 보였으며, 10대가 가장 낮은 지역사회 참여율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에서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12.7%)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도심권·서북권·동남권에서 ‘민원제안 및 제기’ 참여율이 10% 이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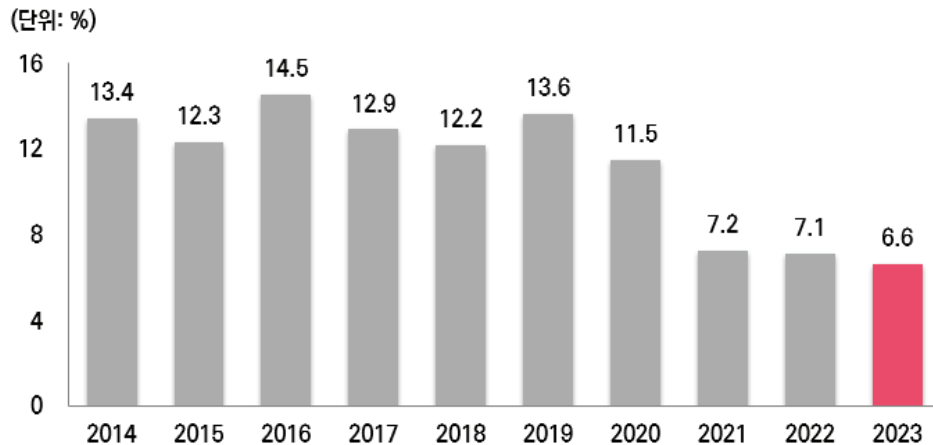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93〉 지역사회 참여율(권역별)

•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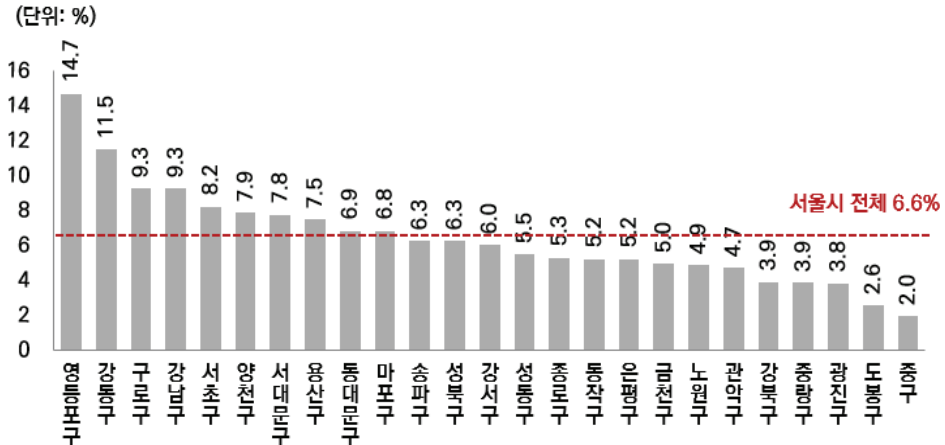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3년에 6.6%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계속 감소 추세로 2021년에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4〉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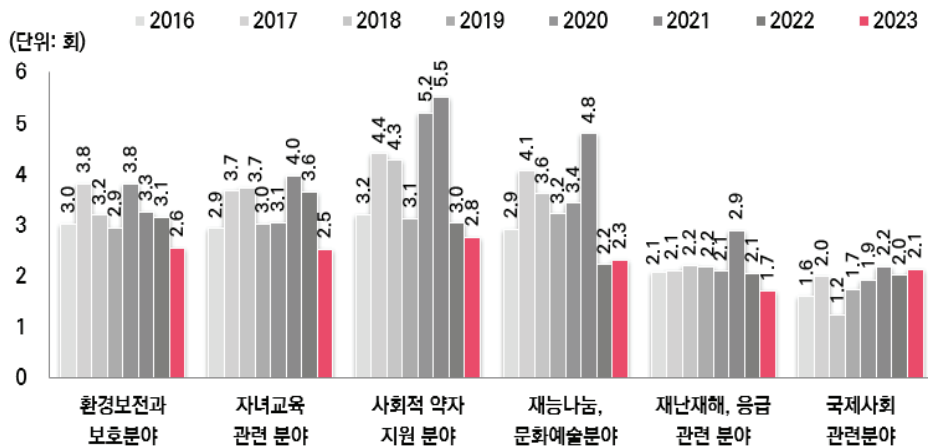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14.7%), 강동구(11.5%), 강남구·구로구(9.3%), 서초구(8.2%) 등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2.0%), 도봉구(2.6%), 광진구(3.8%), 강북구·중랑구(3.9%)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295〉 자원봉사 참여율(구별)

2023년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자원봉사 유형은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로 평균 2.8회 참여하였다. 그다음으로 ‘환경보전과 보호 분야’ 2.6회, ‘자녀교육 관련 분야’ 2.5회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원봉사 참여 횟수가 감소하였으나,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와 ‘국제사회 관련분야’ 자원봉사율은 소폭 증가하였다(0.1회).



주) 자원봉사 참여 경험 있는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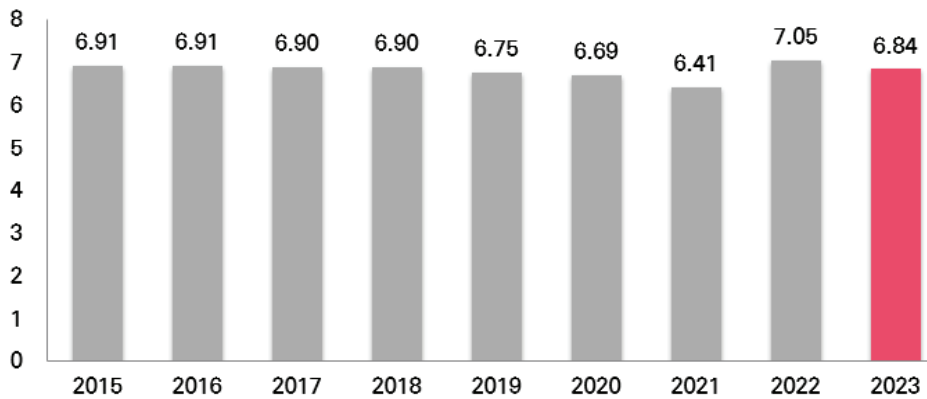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6〉 자원봉사 참여 횟수

• 시민자부심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10점 만점)은 2023년에 평균 6.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21점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계속 감소 하던 서울시민 자부심은 2022년에 7.0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23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게 느끼는(7점 이상) 사람의 비율은 2023년에 63.6%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5.1%p 감소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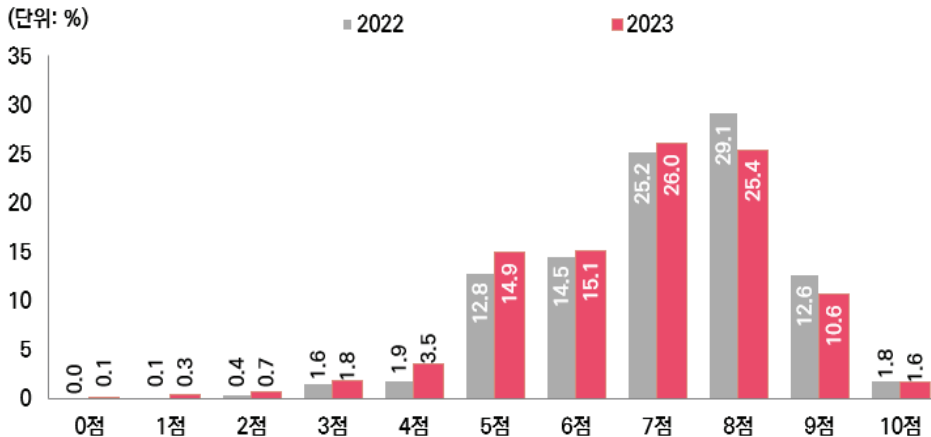


주) 매우 자부심을 느낌 10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시민조사(2019~2021년)

〈그림 3-297〉 시민자부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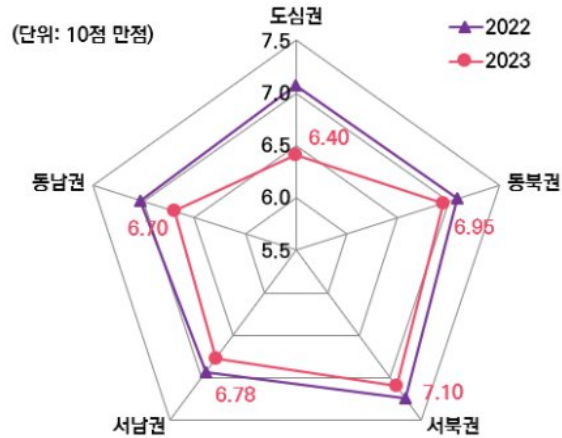


주) 매우 자부심을 느낌 10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8〉 시민자부심(점수별)

권역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살펴보면, 서북권이 7.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다음으로 동북권(6.95점), 서남권(6.78점), 동남권(6.70점), 도심권(6.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 권역에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감소하였으며, 도심권(0.66점)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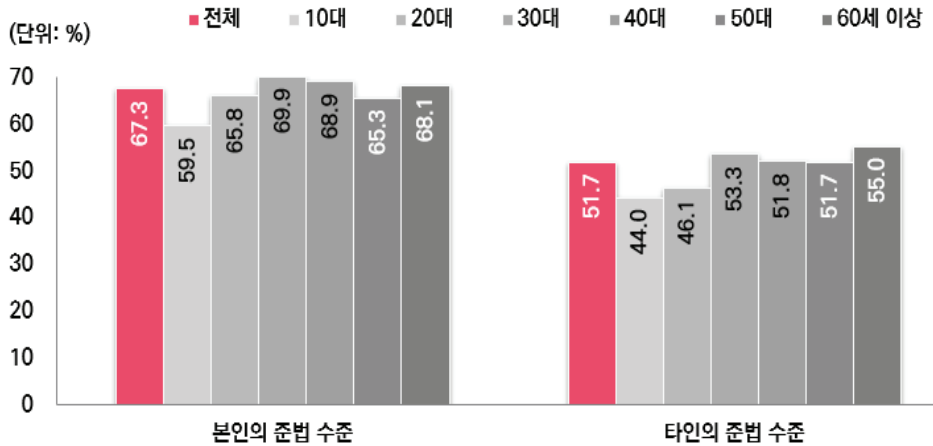


주) 매우 자부심을 느낌 10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299〉 시민자부심(권역별)

• 시민 준법의식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67.3%가 본인이 평소에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51.7%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의 준법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본인의 준법의식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세 이상은 타인에 대한 준법의식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는 본인과 타인의 준법의식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본인과 타인의 준법의식 격차는 20대(19.7%p)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13.1%p)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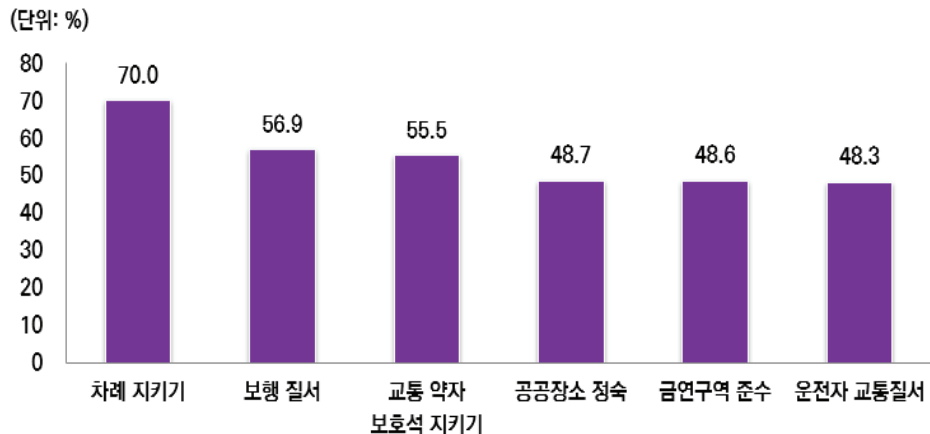


주) 잘 지킨다: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00〉 준법 준수 정도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타인의 공공질서 준수율은 '차레 지키기'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보행 질서' 준수율과 '교통 약자 보호석 지키기'가 55~57%로 조사되었으며, '공공장소 정숙', '금연구역 준수', '운전자 교통질서 준수'는 48~49%로 낮게 평가되었다.



주) 잘 지킨다: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01〉 타인의 공공질서 준수 정도

2. 포용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서울시민 사회적 신뢰는 전년 대비 미세하게 증가,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은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

사회가 성숙되고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시민들의 포용성 인식은 대체로 약한 긍정 값을 나타내었다. 서울시민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포용성 정도는 2023년 기준으로 5.52점으로 2022년에 비해 0.01점 상승하였다.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5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의 조사된 값은 다소 낮은 편이다. 전년 대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보다 포용적으로 바뀌었으나, 노인에 대한 포용성은 0.2점 감소하였다.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 점수는 6.04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증가하였다.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는 가족 신뢰가 8.42점으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 신뢰 5.16점, 이웃 신뢰 4.53점 순이었다. 서울시민들의 공공기관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수용도 영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들 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직장 동료’나 ‘친구’로의 수용 의사는 대체로 60~70% 수준의 수용 의사가 측정되나,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향은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유입될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새터민 등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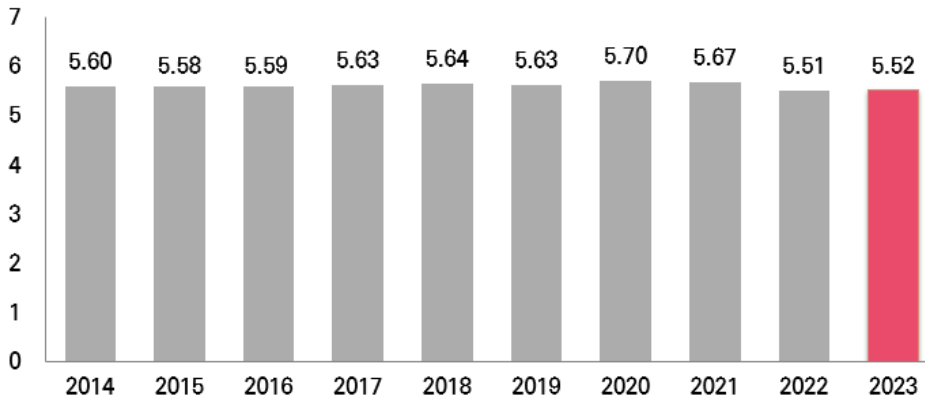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은 종합 평균 5.31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이며, 교육 기회 영역의 공정성 인식 하락이 0.34점으로 가장 컸다.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영역은 정치활동 영역으로 4.87점으로 파악되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공정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0대와 20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표 설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종합)는 2023년에 평균 5.5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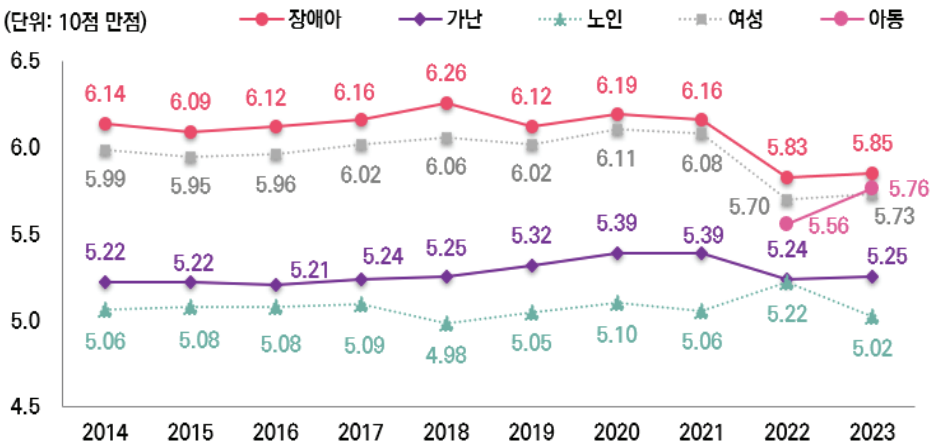
주: 1) 2022년 이후: 아동(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항 추가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음 10점, 매우 낮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02〉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단위: 10점 만점)



주: 1) 2022년 이후: 아동(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문항 추가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음 10점, 매우 낮음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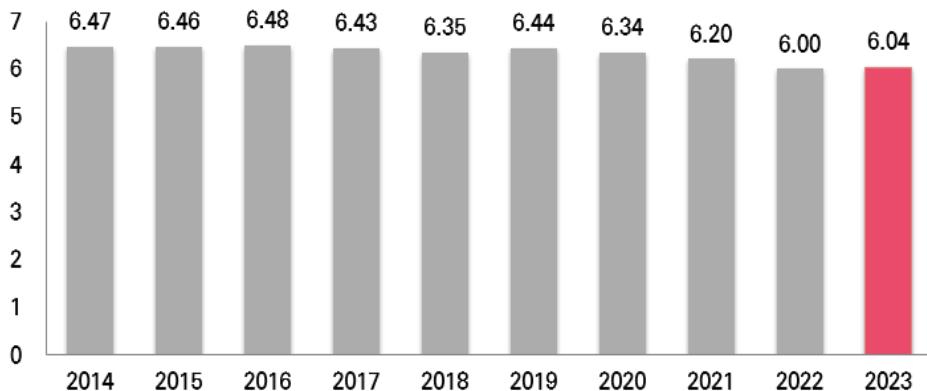
〈그림 3-30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항목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아 포용’(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이 5.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 기본권 보호’(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5.76점, ‘여성제도 개선’(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73점, ‘가난의 사회적 책임’(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5.25점, ‘노인사회복지 확대’(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5.0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대부분의 항목에서 포용성은 증가하였지만, 노인에 대한 포용성은 감소하였다(0.20점).

• 사회적 신뢰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가족, 이웃,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사회적 신뢰도는 2023년에 평균 6.0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 대비 0.04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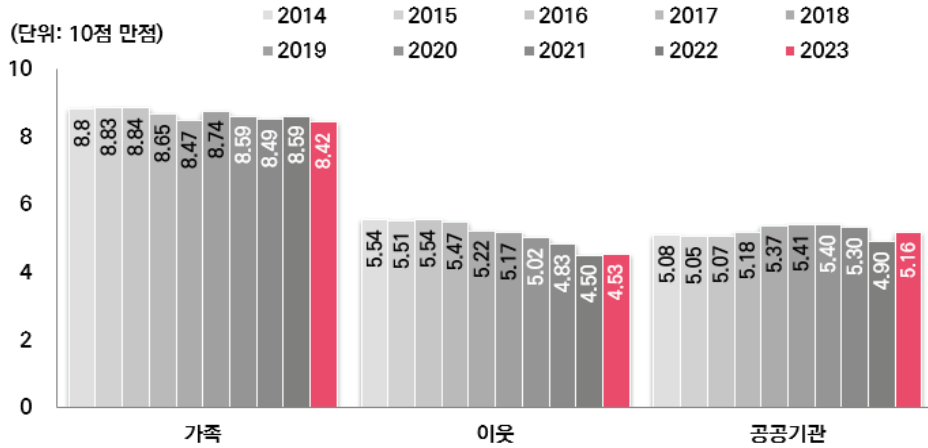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주: 1) 사회적 신뢰: 가족, 이웃, 공공기관 신뢰도의 평균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04〉 사회적 신뢰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가 8.42점으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 신뢰 5.16점, 이웃 신뢰 4.53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족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였고(0.17점), 공공기관과 이웃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였다(각각 0.26점, 0.03점). 사회적 신뢰는 최근 10년간 감소추세이며 2014년 대비 0.43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는 10년 전에 비해 이웃 신뢰가 가장 많이 감소(1.01점)하였으며, 가족 신뢰는 0.38점 감소, 공공기관 신뢰는 0.08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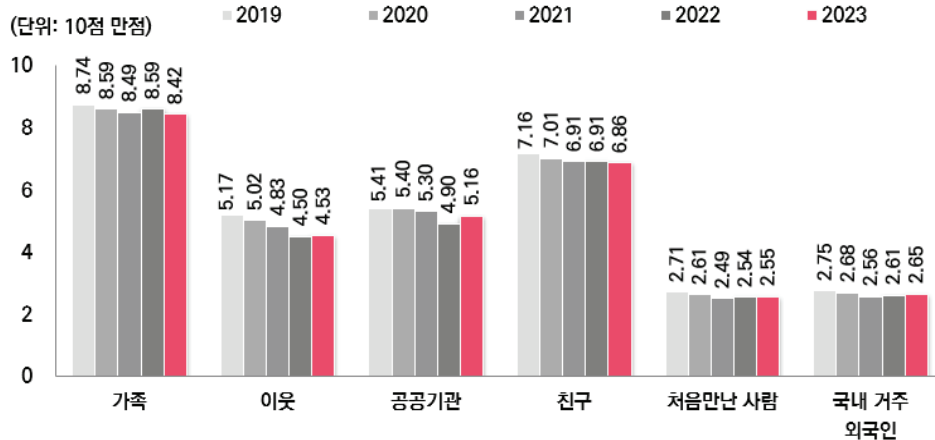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05〉 사회적 신뢰(가족, 이웃, 공공기관)

그 외 친구 신뢰는 6.8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2.65점)과 처음 만난 사람(2.55점)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종합하면, 서울시민은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처음 만난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 가까운 사람을 제외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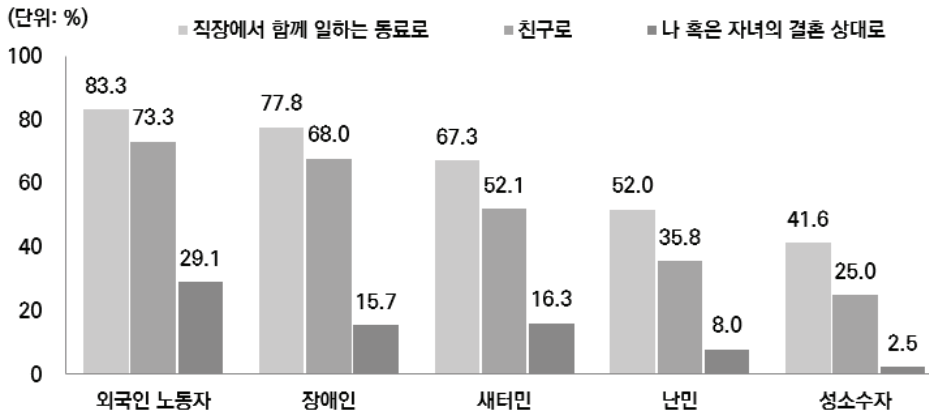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06〉 사회적 신뢰(항목별)

• 다양성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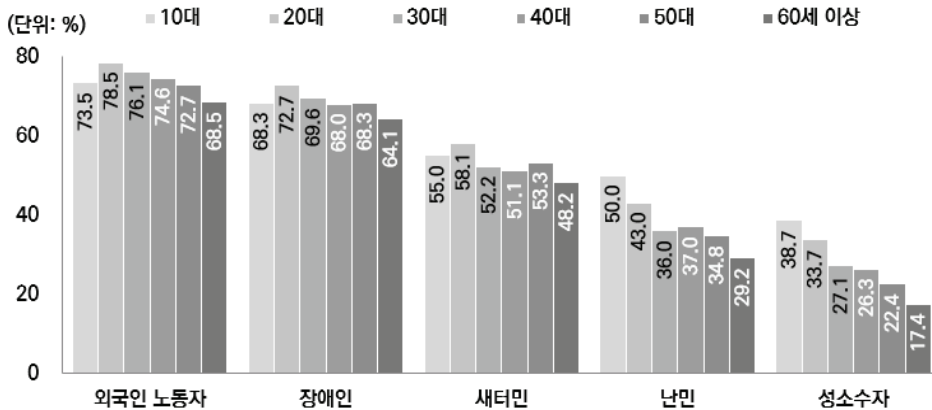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에 대한 수

용도는 높은 반면,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을 직장 동료 또는 친구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 상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2023년 가구원조사 결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83.3%, 장애인 77.8%, 새터민 67.3%, 난민 52.0%, 성소수자 41.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친구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73.3%, 장애인 68.0%, 새터민 52.1%, 난민 35.8%, 성소수자 2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외국인 노동자 29.1%, 장애인 15.7%, 새터민 16.3%, 난민 8.0%, 성소수자 2.5%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07〉 다양성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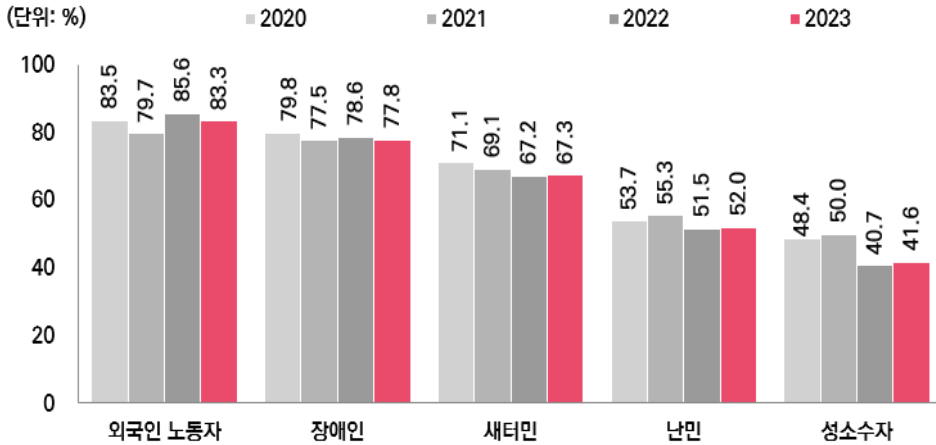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08〉 연령별 친구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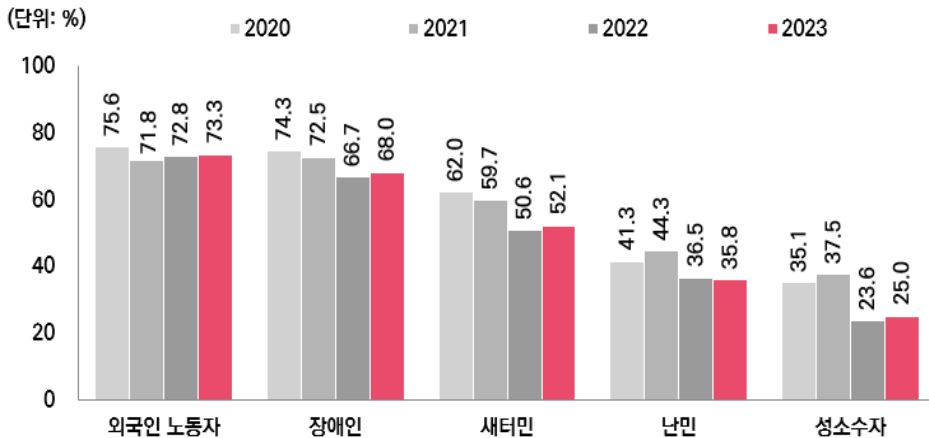
연령별로 이들 집단에 대해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에서 다양성 수용도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이들 집단에 대한 수용도는 대체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은 감소하였다(각각 2.3%p, 0.8%p). 또한 난민에 대한 ‘친구’ 수용도와 성소수자를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률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각각 0.7%p, 0.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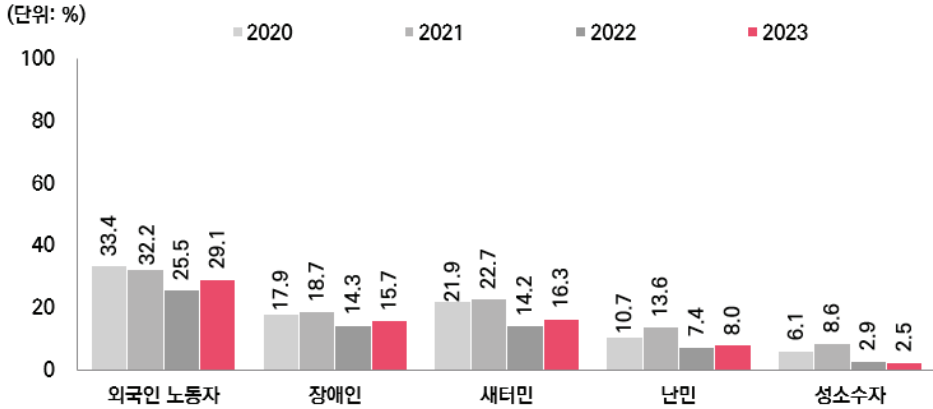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09〉 집단별 직장 동료 수용도 변화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10〉 집단별 친구 수용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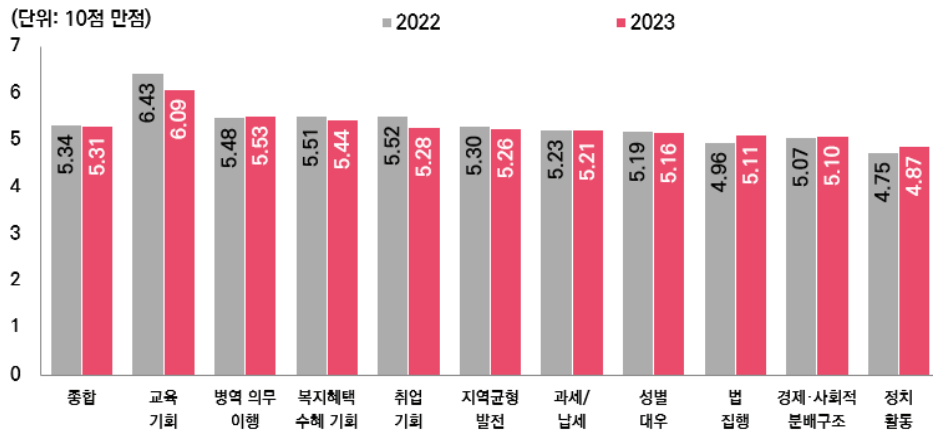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11〉 집단별 결혼 상대 수용도 변화

• 공정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은 종합 평균 5.31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교육 기회와 취업에 대한 기회 공정성 인식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각각 0.34점, 0.24점).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 기회 공정성(6.09점),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5.53점), 복지혜택 수혜 기회 공정성(5.44점)이 평균 이상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취업 기회(5.28점), 지역균형발전(5.26점), 과세/납세(5.21점), 성별 대우(5.16점), 법 집행(5.11점),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5.10점), 정치 활동(4.87점)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평균 이하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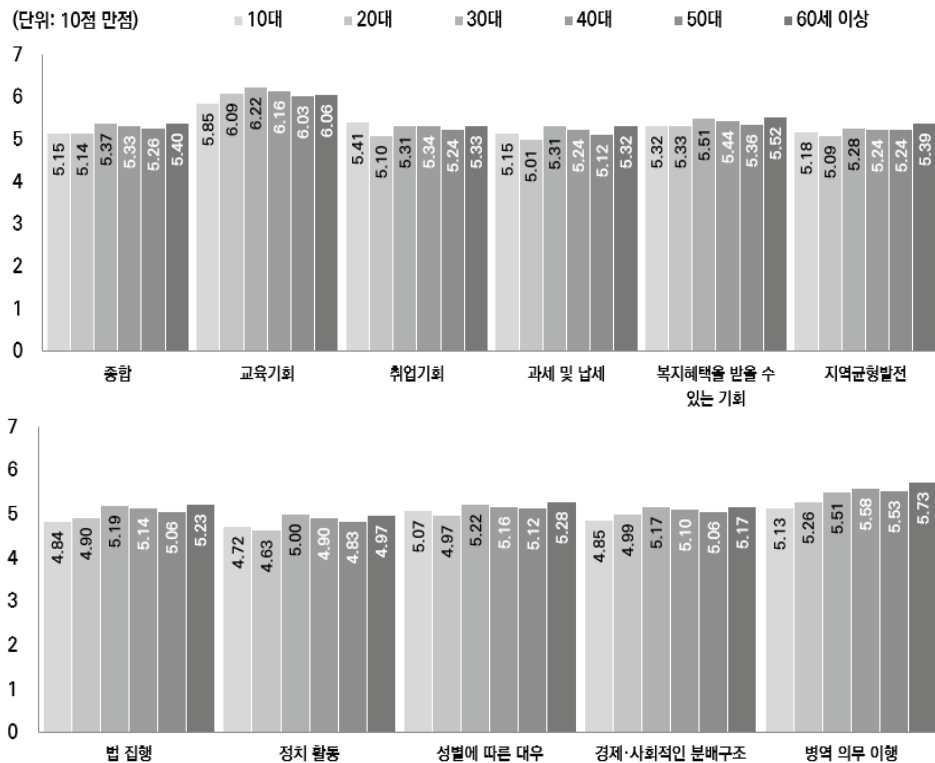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 매우 공정하다 1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12〉 공정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공정성 인식이 종합 평균 5.40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30대(5.37점), 40대(5.33점), 50대(5.26점), 10대(5.15점), 20대(5.14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은 대체로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10대와 20대는 우리사회를 불공정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 전체 평균 대비 각 항목들의 공정성 인식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는 병역 의무 이행(-0.40점), 법집행(-0.27점), 분배구조(-0.25점), 교육기회(-0.24점) 등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20대는 병역 의무 이행(-0.27점), 정치활동(-0.24점), 법 집행(-0.21점), 과세 및 납세(-0.20점), 성별에 따른 대우(-0.19점), 취업기회(-0.18점) 등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주) 평균값 환산 기준: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 매우 공정하다 1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13〉 공정성(연령별)

3. 통합성

1) 요약 및 정책 제언

지역사회 소속감은 증가하나, 지역사회 참여는 낮아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4.18점으로,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사회 소속감 영역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항목은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의 5.10점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로 3.54점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지역사회 참여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 상태의 서울시민 비율은 15.3%로, 전년 조사 대비 3.2%p 증가하였다.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은 2020년 21.8%에서 2021년에 26.7%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감소하여 10%대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로 고립도를 보면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응답이 22.5%로 가장 높았고,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고립 정도는 2015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신체적 고립(0.7%p)이 증가하였다.

서울시민 행복감은 평년 수준, 계층이동 가능성 정도는 개선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2023년 6.61점으로 2021년의 코로나19 때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평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시민 행복도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6.95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상태’(6.11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전년도에 비해 ‘사회생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행복지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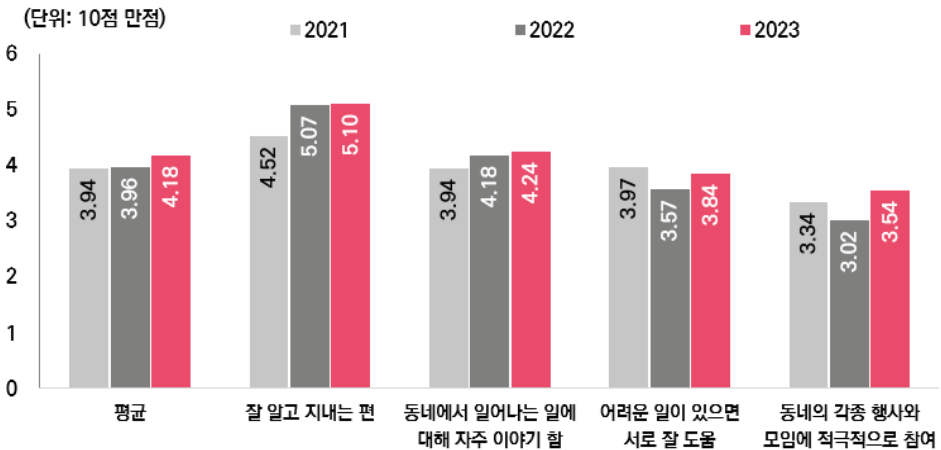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28.8%(10점 만점에 5.19점)가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39.6%(10점 만점에 5.63점)가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본인 및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2022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중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는 집단은 고소득, 고학력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불안 요인

(1순위)으로는 자연재해(18.8%)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보 문제(15.9%)가 꼽혔다. 중복응답을 고려할 경우 범죄에 대한 불안이 43.1%로 가장 높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4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2) 지표 설명

• 지역사회 소속감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10점 만점)은 4.1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전년 대비 0.22점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라는 응답이 5.10점으로 가장 높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는 응답이 4.24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는 응답이 3.84점, 그리고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3.54점으로 조사되었다. 전년 대비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0.52점)는 응답과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0.27점)는 응답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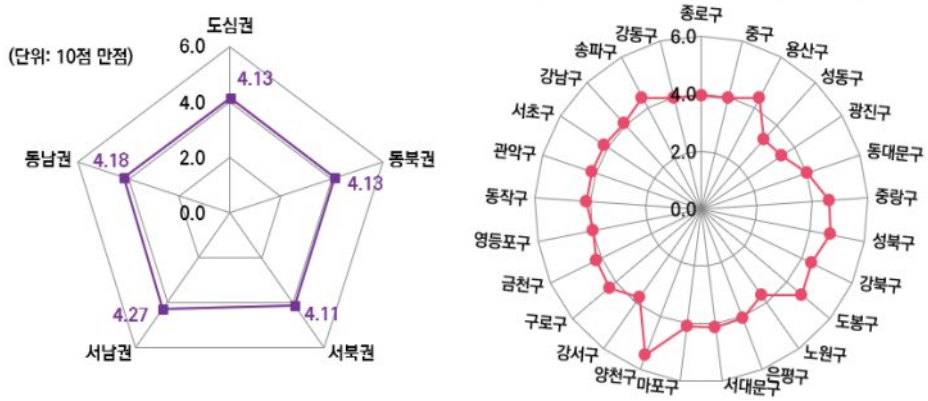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아니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14〉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별로는 서남권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4.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북권이 4.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5.45점), 성북구(4.73점), 도봉구(4.69점), 중랑구(4.61점)에서 지역소속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동구(3.31점), 광진구(3.45점),

노원구(3.71점), 강서구(3.8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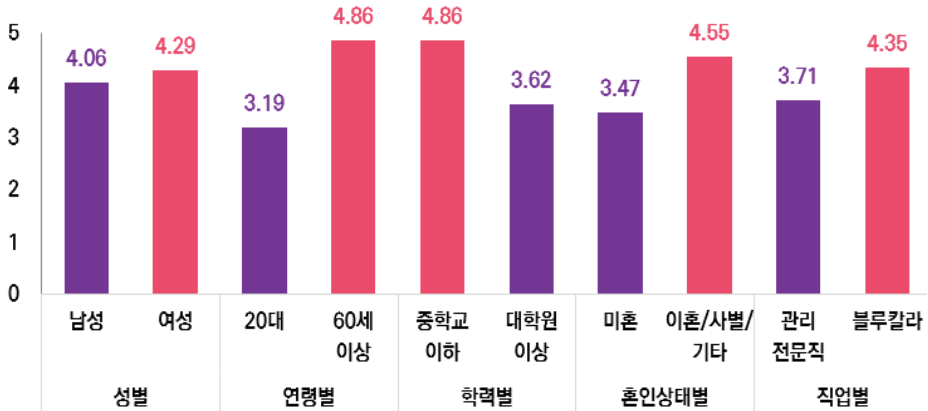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아니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15〉 지역사회 소속감(권역별, 구별)

인구특성별로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으며, 여성, 이혼/사별/기타 집단, 블루칼라 계층이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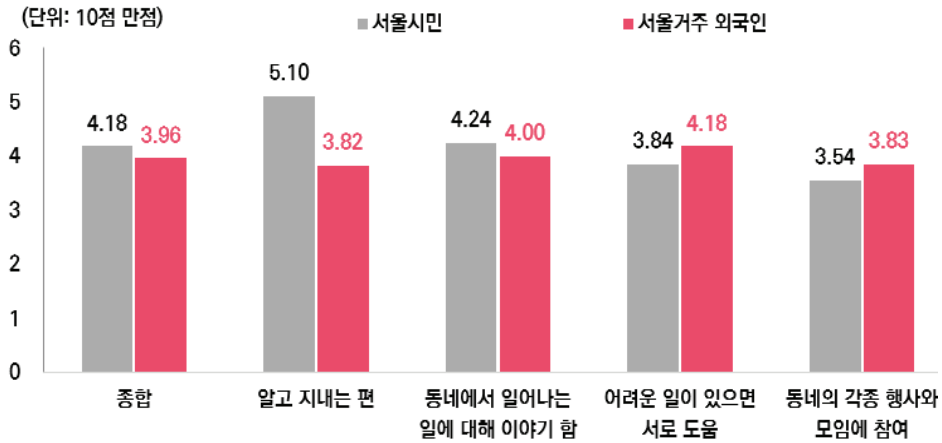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아니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16〉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소속감

한편, 서울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2023년에 3.96점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서울시민들에 비해 지역(동네)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는 편이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가 서울시민보다 높았다.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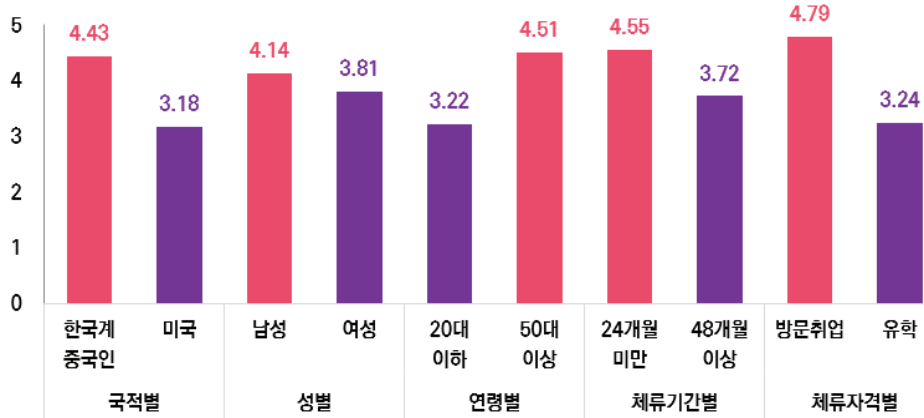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외국인조사, 2023

〈그림 3-317〉 서울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소속감

그리고 서울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별, 성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체류자격별로 지역사회 소속감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연령이 높고,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는데, 한국계 중국인(4.43점), 남성(4.14점), 50대 이상(4.51점), 12개월~24개월 미만(4.55점)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집단 내 가장 높았으며, 미국 국적(3.18점), 여성(3.81점), 20대 이하(3.22점), 48개월 이상(3.72점)의 지역사회 소속감이 가장 낮았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 목적 외국인의 사회적 소속감이 4.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주자(4.52점), 재외동포(4.21점), 결혼이민자(4.02점), 전문인력(3.54점), 방문동거/거주/동반(3.30점), 유학(3.24점) 순으로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았다.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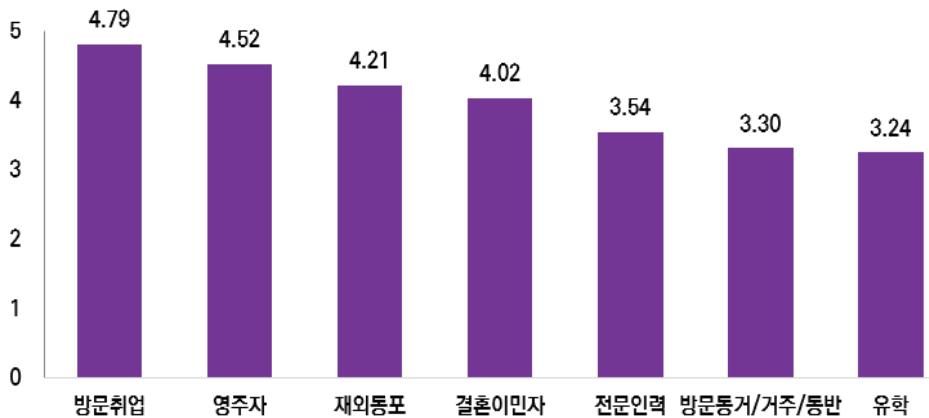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023

〈그림 3-318〉 서울 거주 외국인의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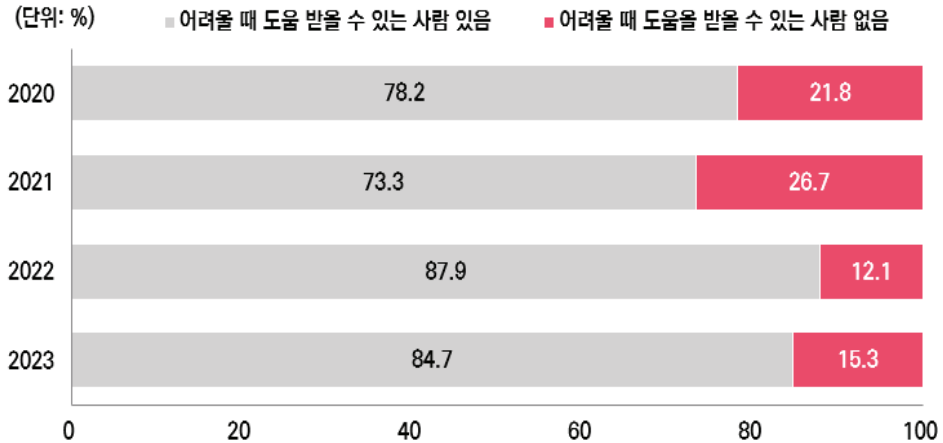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023

〈그림 3-319〉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지역사회 소속감

•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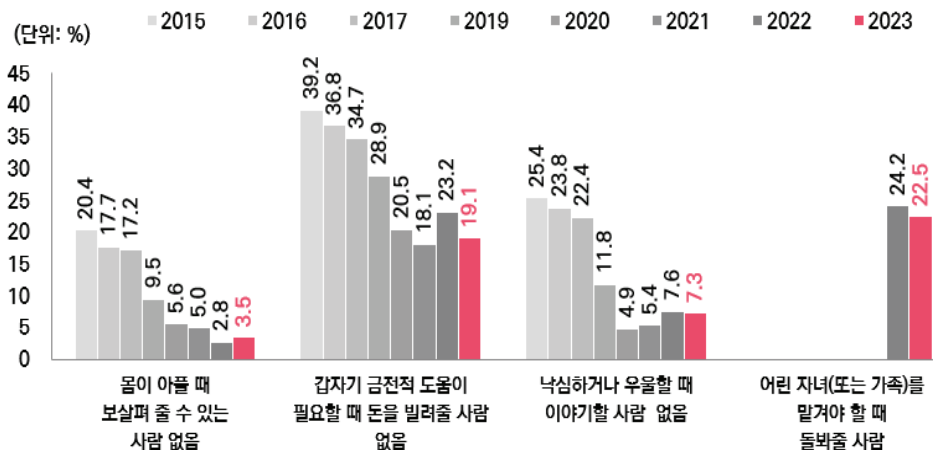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도는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없다’는 응답 비율로 측정된다. 2023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15.3%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3.2%p 증가하였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0〉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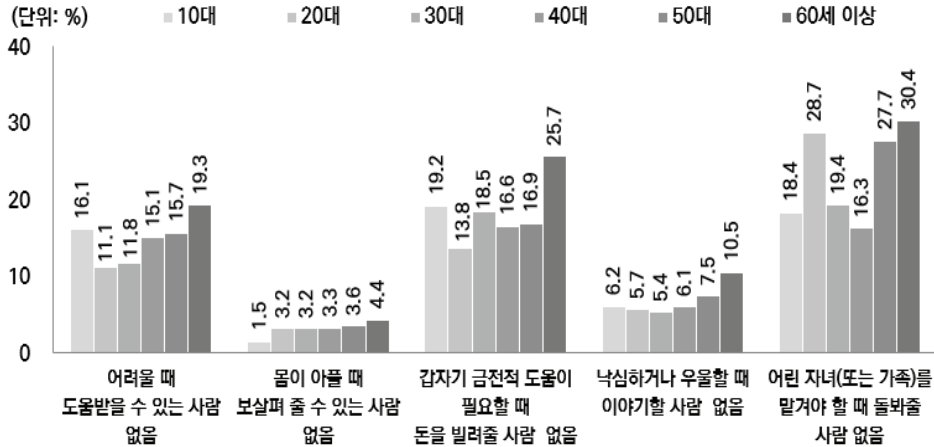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된 항목별 고립도를 살펴보면,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22.5%)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19.1%, ‘낙심,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7.3%,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3.5%로 나타났다. 항목별 사회적 고립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전년 대비 신체적 고립도는 증가하였다(0.7%p).



주) 돌봄 고립도: 비해당 제외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1〉 사회적 고립도(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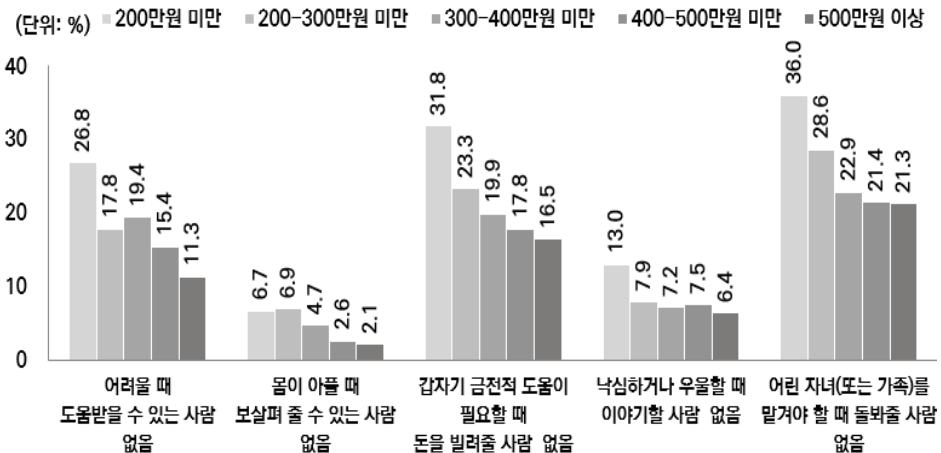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22〉 사회적 고립도(연령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도는 60세 이상과 1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19.3%, 16.1%),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11.1%). 60세 이상은 모든 항목에서 고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 고립도(30.4%)와 금전적 고립도(25.7%)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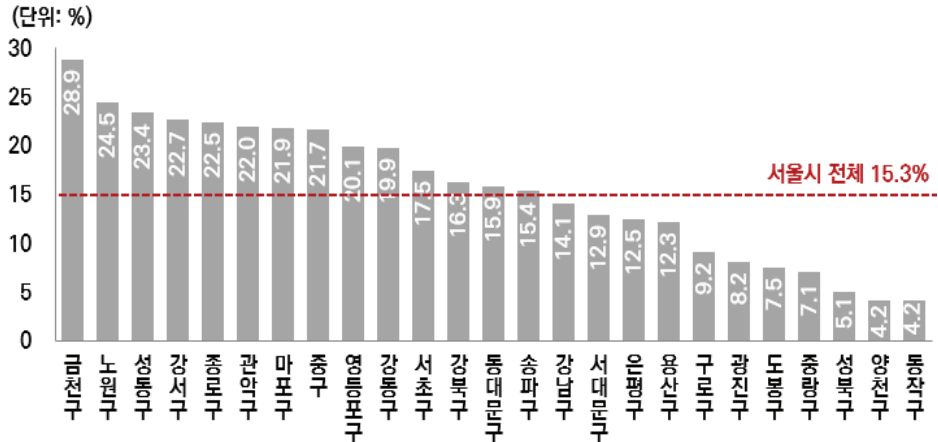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고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돌봄에 대한 고립도는 36.0%, 금전적 고립도는 31.8%로 높았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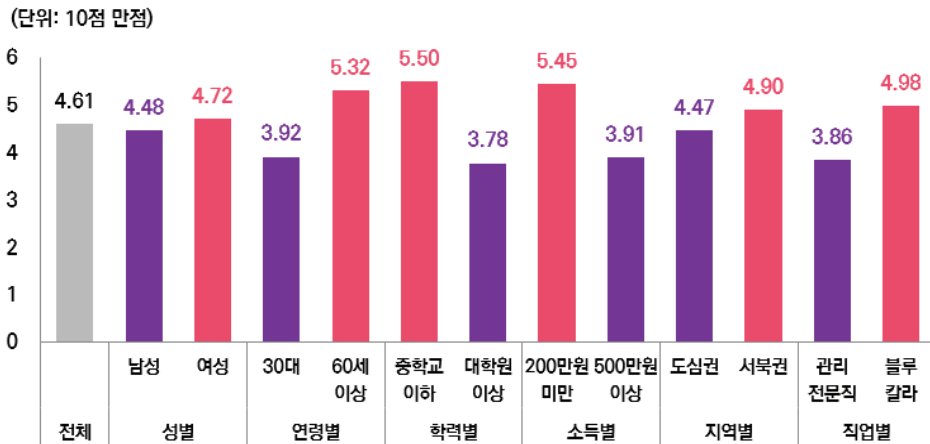
〈그림 3-323〉 사회적 고립도(소득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28.9%), 노원구(24.5%), 성동구(23.4%), 강서구(22.7%), 종로구(22.5%) 등에서 사회적 고립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작구·양천구(4.2%), 성북구(5.1%), 중랑구(7.1%), 도봉구(7.5%)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24〉 사회적 고립도(구별)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2023

〈그림 3-325〉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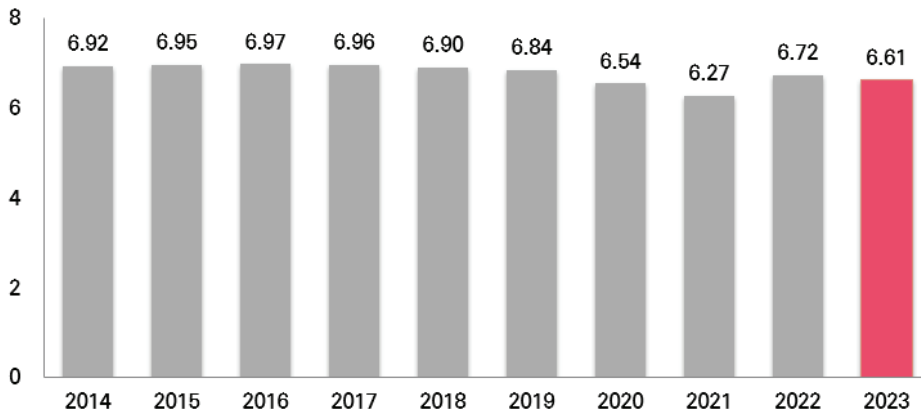
한편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결과, 서울시 1인가구의 29.3%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고 응답하였다(10점 만점에 4.61점). 인구특성별로는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여성(4.72점), 60세 이상(5.32점), 중학교 이하 학력(5.50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45점), 서북권(4.90점), 블루칼라(4.98점) 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도가 집단 내 가장 높았으며, 남성(4.48점), 30대(3.92점), 대학원 이상(3.78점),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3.91점), 도심권(4.47점), 관리 전문직(3.86점) 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도가 집단 내 가장 낮았다.

• 행복지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2023년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1점으로 조사되었다. 행복지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6.54점, 2021년 6.27점까지 하락하였으나, 2022년에 6.72점으로 급등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0.11점).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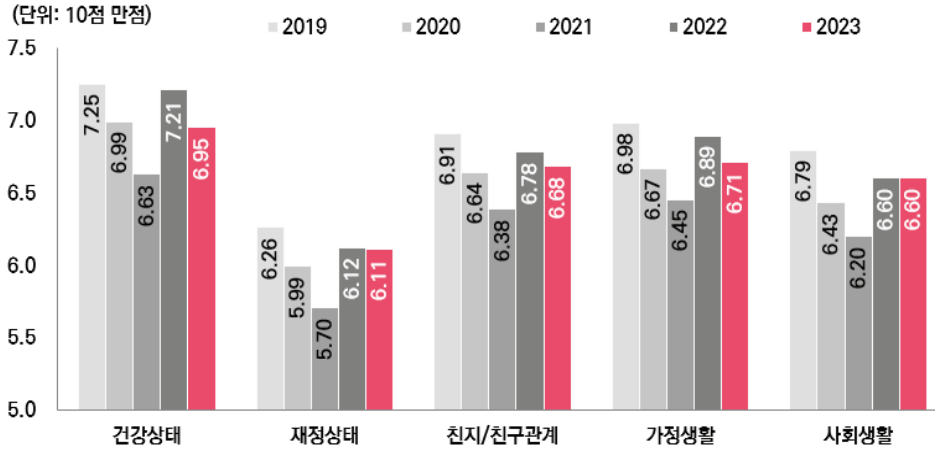
주: 1) 종합 행복지수: 가구원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친구/친지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행복도의 평균

2)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6〉 종합 행복지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대한 행복지수가 6.95점으로 가장 높고, ‘가정생활’(6.71점), ‘친지 및 친구와의 관계’(6.68점), ‘사회생활’(6.60점), ‘재정상태’(6.1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항목의 행복지수가 감소하였는데, 건강상태와 가정생활에 대한 행복지수가 많이 감소하였다(각각 0.26점, 0.1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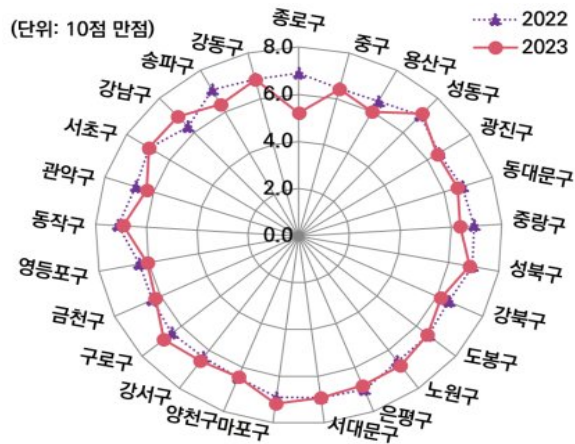


주)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7〉 행복지수(항목별)

자치구별로는 마포구(7.19점), 성동구(7.10점), 서초구(6.97점), 강남구(6.95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로구(5.21점), 용산구(6.00점), 영등포구(6.06점), 강북구(6.18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강남구(0.60점), 구로구(0.42점), 마포구(0.27점), 노원구(0.21점), 강서구(0.20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증가하였으며, 종로구(1.69점), 송파구(0.70점), 중랑구(0.56점), 용산구(0.51점), 관악구(0.45점) 등에서 행복지수가 감소하였다.



주)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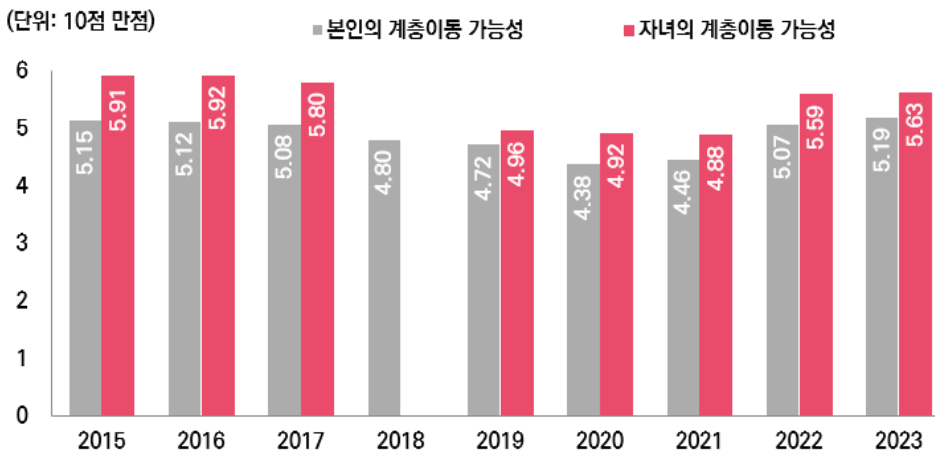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8〉 종합 행복지수(구별)

• 계층이동 가능성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28.8%는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10점 만점에 5.19점), 39.6%는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10점 만점에 5.63점). 서울시민은 본인보다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0.12점,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0.04점 상승하였다.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은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가장 낮았다. 또한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에 대한 인식 격차도 인구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60세 이상의 본인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격차는 0.71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는 0.08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학교 이하 학력은 인식 격차가 0.77점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대학교는 0.33점으로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인식 격차는 0.60점인 반면, 400~500만 원 집단은 인식 격차가 0.35점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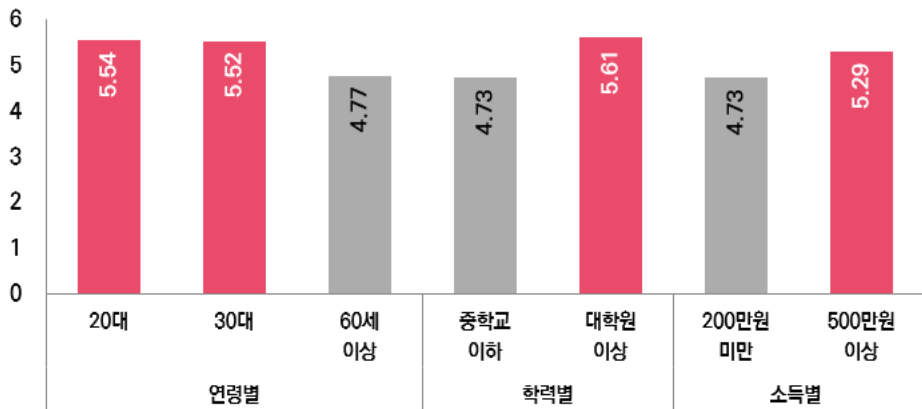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다 10점, 매우 낮다 0점

2) 2018년: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비조사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3-329〉 계층이동 가능성

(단위: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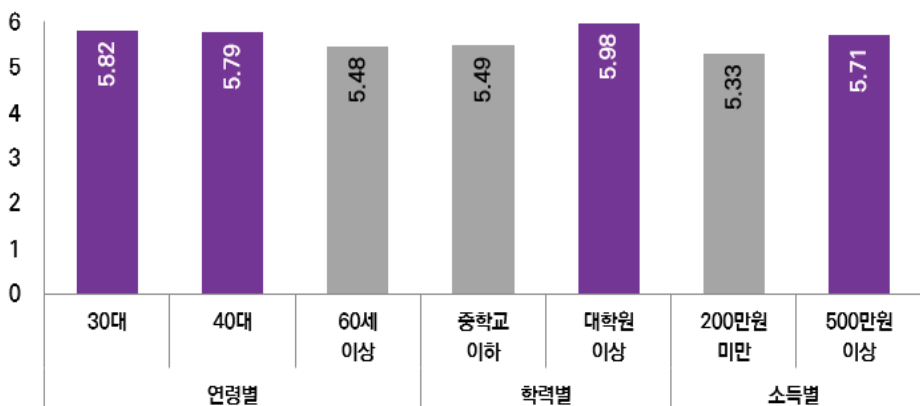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다 10점, 매우 낮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30〉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인구특성별)

(단위: 10점 만점)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다 10점, 매우 낮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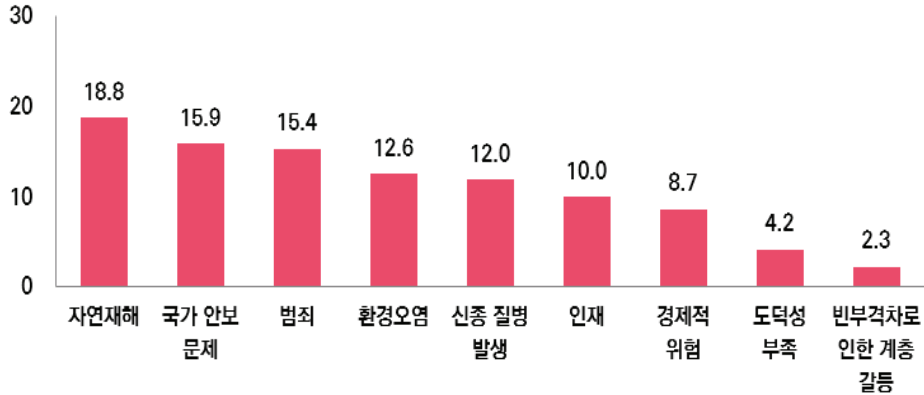
〈그림 3-331〉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인구특성별)

• 미래 불안 요인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자연재해(18.8%)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국가 안보 문제(15.9%), 범죄(15.4%), 환경오염(12.6%), 신종 발병 발생(12.0%) 문제 등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 외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에 대한 중복응

답(1+2+3순위)으로는 ‘범죄’(43.1%)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자연재해(42.7%), 신종 질병 발생(41.9%), 환경오염(36.1%), 인재(32.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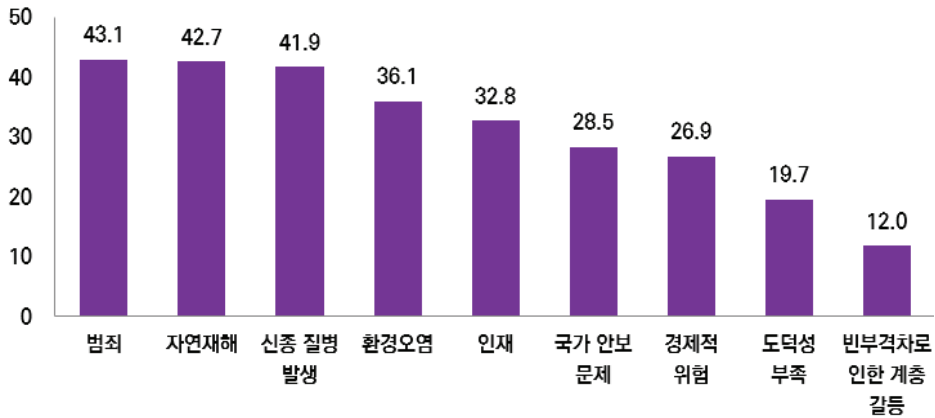
(단위: %, 1순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32〉 미래 불안 요인(1순위)

(단위: %, 1+2+3순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23

〈그림 3-333〉 미래 불안 요인(1+2+3순위)

[부록1]

2024 도시정책지표 정의서

1. 인구와 가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A. 인구와 가구 (11)	서울 인구 (5)	A1	총인구	•서울거주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거주 인구의 총합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2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한 여성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3	고령화지수	•한 사회의 생산가능 역량의 변화를 파악 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의 고령집단 다양성을 파악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x 100 •{고령자 연령별 인구(65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 / 0~14세 인구 x 100	•행정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 체류외국인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A4	순이동률	•서울시민과 청년의 순이동 인구 비율 파악	•(이동자 수/연앙 인구)x100(=전입률-전출률) •(연령별 순이동자 수/연령별 연앙인구)x100(=연령별 전입률-연령별 전출률)	•행정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서울 가구 (3)	A12	초혼연령	•초자출생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5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6	가족다양성 분포	•다양한 가족형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가족 분포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서울 거주 외국인 (3)	A11	가족 친밀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식사, 대화, 여가생활 등)에 대한 빈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A7	외국인 총인구	•서울거주 외국인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총합	•행정자료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A9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서울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파악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행정자료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A10	외국인 삶의 질 만족도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파악	•서울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파악(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 경제와 노동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B. 경제와 노동 (17)	경제 활력 (7)	B1	지역내총생산	•서울의 거시경제 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GRDP)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1인당 GRDP,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행정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B15	서비스업 생산지수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기준 연도(2020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행정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B14	대형소매점 판매액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사업체 (194개 대표업종) 대상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월간 상품판매액	•행정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B2	사업체 창업·폐업률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창업률(신생률)= 신생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폐업률(소멸률)= 소멸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행정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B3	외국인 투자유치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액 현황	•행정자료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 투자 현황
		B4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상대적 규모 파악	•(서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금액/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100	•행정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B17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서울의 기업혁신성을 측정하는 지표	•4차 산업혁명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의 수	•행정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소득과 고용 (10)	B6	가구 소득 증가율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소득 동향 파악	•{(당해년도 근로자 가구 소득/전년도 근로자가구 소득) -1}×100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B7	분위별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소득 5분위별 가구 당 월 소득 분포 •소득 5분위배율=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B8	고용률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9	실업률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B10	고용형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고용계약 형태, 근무형태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B11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보장 관련 통계	•전체 근로자(특수형태 제외)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비율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B12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연도별 변화량을 측정	•행정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B13	구직단념자	•경기 변화와 고용시장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은 등)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행정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B16	청년 니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로, 만 15세~29세 서울시 청년의 비경제활동 특성을 조사•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인구를 제외한 청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니트(NEET): 실업자+기관(학원) 통학자 제외 비경제활동 인구(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쉬었음+기타)•청년 니트 비율: (만 15~29 청년 NEET 인구/만 15~29세 청년 인구) x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자료-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B18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동시장 내 외국인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자료-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3. 도시생활과 주거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C. 도시 생활과 주거 (14)	주거 (8)	C20	주택보급률	•주택의 양적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 지표	•(주택 수/일반가구 수)×100	•행정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C15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평균주택가격/연평균소득	•행정자료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C4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주거비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RIR: Rent to Income Ratio,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월 임대료/월 소득)×100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월 소득×100	•행정자료 -서울시, 주거 실태조사
		C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서울시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공공임대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행정자료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C11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노후주택 비중이 커질수록 주택개량, 정비사업 등의 정책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행정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C1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C12	1인당 주거면적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늘어 나갈 필요 있음	•1인당 주거면적(㎡)	•행정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C17	평균 거주기간	•해당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서울 거주기간 •현재 주택 거주기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스마트 도시 역량 (3)	C13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스마트도시 수준 파악 및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실시간 도로위험상 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 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 반 사회적 약자 서 비스 수혜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스마 트도시 인증 공 모 관련 자료
		C14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	•스마트도시계획 수 립 여부, 스마트도 시 조례 여부, 스마 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스마 트도시 인증 공 모 관련 자료
		C21	AI 수용성	•시민들의 AI활용역 량과 AI 사회변화 에 대한 태도를 파 악하기 위한 지표	•AI 활용성 역량 조 사(10점 척도) •AI 사회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 역량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스마트 도시 격차 (3)	C9	접근성 격차	•스마트도시에서 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접근성 격차 지표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수준(100점)- 정보취약계층의 디 지탈 접근 수준	•행정자료 -서울시 데이터 전략과, 디지털 정보격차실태 조사(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 원) 자료를 활 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C10	활용성 격차	•스마트도시에서 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활용 격차 지표	•서울 시민의 디지털 활용수준(100점)-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	•행정자료 -서울시 데이터 전략과, 디지털 정보격차실태 조사(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 원) 자료를 활 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C19	SNS 이용 현황	•서울시민의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긍정적 측 면과 부정적 측면 에 대한 인식, 스 마트폰 과의존 정 도를 파악	•SNS 이용 시간 (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와 스마트 폰 과의존 현황 조 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4. 건강과 보건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D. 건강과 보건 (12)	건강한 삶 (7)	D1	기대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의 기대여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유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생명표(전국)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D2	주관적 건강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확인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D3	우울감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확인하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D11	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률=(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명 •연령별 자살률=(특정연령의 자살자 수/특정연령의 연앙인구)×10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D5	비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비만율을 확인하는 지표 •비만율(BMI)은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질량지수(kg/m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D12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D13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서울시 및 자치구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추정하여, 보건 및 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지역보건 (5)	D6	감염병 환자 수	•지역건강과 관련되는 지표	•서울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감염병) 발생 신고 수	•행정자료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D7	미충족의료 경험률	•건강격차를 확인하는 지표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D8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공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총 병상 수/주민등록인구) × 100,000명	•행정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D9	보건기관 이용률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행정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D10	치매유병률	•지역연계모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추정치매유병률=(추정치매환자 수/노인인구 수) × 100	•행정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유병현황

5. 안전과 재난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E. 안전과 재난 (10)	자연 재난 (2)	E1	풍수해·폭설 피해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강수일수 및 눈일수	•행정자료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E2	폭염·한파 피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한랭질환자 및 사망자 수 •폭염 및 한파일수	•행정자료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사회 재난 (5)	E3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교통정책 입안 시 참고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사고 건수/(자동차 수+이륜차수)}×10,000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행정자료 -경찰청,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E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 +인명피해 수	•행정자료 -경찰청, 경찰접수 교통사고현황
		E5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실화, 방화, 기타에 의한 화재 발생 건수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E7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지표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 건수	•행정자료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사회 안전 (3)		E11	야간보행 안전도	•야간보행 안전도 조사	•가구의 야간보행 안전도 및 야간보행 불안 이유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E8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현황 파악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 x100,000명	•행정자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E10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발생원인 파악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신고) 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가정폭력 상담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피해 건수(아동학대사례, 피해 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망사례)	•행정자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E12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로, 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행정자료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전국)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6. 환경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F. 환경 (11)	대기와 녹지 (4)	F1	(초)미세먼지 농도	•자동차 배출, 난방 등 연소기기 배출, 도로 비산먼지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PM10과 PM2.5의 연평균 환경기준 및 서울시 연평균 농도	•행정자료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예보/경보
		F2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F3	오존 농도	•여름철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오염물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오존 농도 및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행정자료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 현황
		F4	환경소음도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환경소음도는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소음도 측정 수치	•행정자료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물순 환과 자원 순환 (4)	F5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 관리 정책에 활용	•서울시 하천수질 측정망 25개소 중 BOD 기준 3mg/l 이하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관측소 개수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수질현황
		F6	불투수면적 비율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 비율	•행정자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F7	생활폐기물 매립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가장 지양해야 할 처리방법인 매립률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처리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가정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매립률=(매립 처리량/생활폐기물 발생량)×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F8	총 폐기물 재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처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총 폐기물 재활용률=(총 재활용량/총 발생량)×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에너지 (3)	F9	신재생에너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사용 비율을 파악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저감 정책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신재생에너지 소비량/최종 에너지 소비량)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F10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말하며, 국가감축대상으로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총 배출량/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F11	기후 위기 심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체감에 대한 심각도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 -가우원조사

7. 교통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G. 교통 (12)	교통 인프라 (6)	G1	버스전용차로 연장	•대중교통의 편리성 과 효율성을 측정하 는 척도	•인구 만 명당 버스 전용차로 연장(중앙 버스전용차로+가로 변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총 연장/주민등록인 구)×10,000명	•행정자료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 로 현황 통계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G2	저상버스 (친환경버스) 도입대수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와 관련된 지표	•연도별 친환경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대 수, 누적도입대수	•행정자료 -서울시 버스정책과, 천 연가스버스 현황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G3	도시철도 연장	•도시 간 비교지표이 며, 도시의 인구 대 비 도시철도시설 공 급 수준 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 공 급 수준 파악	•인구 만 명당 서울 시 지하철 연장=(지 하철 총 연장/주민 등록인구) ×10,000명	•행정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G8	자전거 도로율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 파악	•(자전거 도로/전체 도로)×100	•행정자료 -서울시 보행자전거 과, 자전거도로 현 황 통계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G10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전기, CNG, 하이브 리드, 수소 등 대체 연료차량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대체연료차량대수 /전체 차량등록대 수)×100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행정자료 -서울시,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서울시 미래첨단교 통과, 전기차 충전 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G11	보도 면적	•보행환경의 질적 수 준을 나타내는 지표 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보도 연장 및 면적	•행정자료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보도 현황 (특별시도상)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교통 서비스 (6)	G4	대중교통 이용객 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객 수	•행정자료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G5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이용 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G6	지하철 최고혼잡도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의 혼잡 정도	•혼잡도=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 인원	•행정자료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
		G7	보행환경 만족도	•보행자의 질적 보행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가구원 대상 주거지와 서울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G9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공공자전거 활성화 파악	•공공자전거 도입 및 누적 대수, 이용자 수	•행정자료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G13	통근/통학 소요 시간	•주요 교통지표로, 서울시민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파악	•가구원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8. 문화와 여가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H. 문화와 여가 (11)	문화 활동과 향유 (4)	H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지표	•가구의원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에 대한 지표	•가구의원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3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가구원 대상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16	디자인환경 만족도	•서울의 매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도시의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서울시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문화 기반 (4)	H5	도서관 수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개소 수	•행정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H12	지역문화시설 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현황 파악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수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수	•행정자료 -서울시 문화예술과·복지정책과·체육진흥과·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H9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공연 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 문화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미술 전시 횟수, 공연예술(국악, 양악, 무용, 연극, 혼합) 행사 건수	•행정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H10	문화예술 사업체 수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 (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창작 및 예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업체,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사업체 수의 총합	•행정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여가 활동과 향유 (3)	H13	여가생활 만족도	•개인이 느끼는 여가시간 충분성과 주관적 여가생활 만족도 파악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성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14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서울시민들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 파악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H15	여행 건수	•서울시민들의 국내 외 여행 실태 조사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9. 교육과 돌봄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I. 교육과 돌봄 (11)	교육 및 보육 환경 (3)	1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초·중·고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환경(교육비, 교육 여건 등)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12	평생교육 참여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지난 1년간 만 25세부터 만 79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 •평생학습 참여율 = {(형식교육자 + 비형식교육자 - 동시참여자) / 한국의 성인 인구} × 100	•행정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 태조사
		114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미취학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 교육·보육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0~5세 영유아의 유아교육·보육 이용 현황 파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 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아 수 + 직장어린이집 이용아 수 + 국공립유치원 이용아 수) / 영유아 인구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 수 + 전체 유치원 이용아 수) / 영유아 인구 수] × 100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사회적 약자 보호 (4)	15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세부 영역별(저소득, 어르신, 여성보육, 주거, 장애인, 보건, 교육) 예산 비율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전체 예산) × 100 •(세부 영역별 예산/서울시 사회복지예산) × 100	•행정자료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최근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구 비율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112	빈곤율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전국)
		1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인원 수	•행정자료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성평등성 (4)	17	성별 임금 격차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통해 고용·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성 파악	•(여성 월 급여액/ 남성 월 급여액) × 100	•행정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19	성평등지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는 지표	•지역성평등지수: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행정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110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부부 분담 정도를 통해 부부의 무급노동 역할 수행의 평등성을 파악	•가구주(가사노동 분담 해당자)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 정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18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성평등한 자녀 돌봄 및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를 정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 ×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	•행정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

10. 가치와 의식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J. 가치와 의식 (13)	시민성 (4)	J11	지역사회 참여율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성 정도를 파악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활동 경험에 있는 응답자 비율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2	자원봉사 참여율	•주인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서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데 일조	•가구원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3	시민자부심	•서울시민의 자부심 파악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인식 정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시민조사)
		J13	시민 준법의식	•서울 시민들의 준법의식 인식 파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포용성 (4)	J4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가구원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5	사회적 신뢰	•일반사람, 이웃,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수준 파악	•가구원에게 가족, 이웃, 공공기관,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6	다양성 수용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집단을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가구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를 직장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그렇다' 응답 비율)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12	공정성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교육, 취업, 과세, 복지, 지역균형, 법치, 정치활동, 성별, 분배, 병역 등에 대한 공정성 정도 인식 조사(10점 척도)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분야	영역	번호	지표명	개념	산출방법	출처
	통합성 (5)	J7	지역사회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정도 조사 (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8	사회적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지표로 물리적 고립감(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주관적 지표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돌봄 가족을 맡겨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주관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J10	행복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 상태 조사(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14	계층이동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정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에 대해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조사 (10점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J15	미래 불안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사회 안전 위협 불안 요소(1순위~3순위 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부록2]

2024 도시정책지표 통계표

제1장 인구와 가구

제1절 서울인구

1. 총인구

개념	서울거주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서울거주 인구의 총합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총인구]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총인구	인구 성장률
1970년	30,882,386	-	5,433,198	-	-	-	3,296,950	-
1975년	34,706,620	12.38	6,889,502	26.80	-	-	4,039,132	22.51
1980년	37,436,315	7.87	8,364,379	21.41	-	-	4,933,862	22.15
1985년	40,448,486	8.05	9,639,110	15.24	1,386,911	-	4,794,135	-2.83
1990년	43,410,899	7.32	10,612,577	10.10	1,817,919	31.08	6,155,632	28.40
1995년	44,608,726	2.76	10,231,217	-3.59	2,308,188	26.97	7,649,741	24.27
2000년	46,136,101	3.42	9,895,217	-3.28	2,475,139	7.23	8,984,134	17.44
2005년	47,278,951	2.48	9,820,171	-0.76	2,531,280	2.27	10,415,399	15.93
2010년	48,580,293	2.75	9,794,304	-0.26	2,662,509	5.18	11,379,459	9.26
2015년	51,069,375	5.12	9,904,312	1.12	2,890,451	8.56	12,479,061	9.66
2016년	51,269,554	0.39	9,805,506	-1.00	2,913,024	0.78	12,671,956	1.55
2017년	51,422,507	0.30	9,741,871	-0.65	2,925,967	0.44	12,851,601	1.42
2018년	51,629,512	0.40	9,673,936	-0.70	2,936,117	0.35	13,103,188	1.96
2019년	51,779,203	0.29	9,639,541	-0.36	2,952,237	0.55	13,300,900	1.51
2020년	51,829,136	0.10	9,586,195	-0.55	2,945,454	-0.23	13,511,676	1.58
2021년	51,738,071	-0.18	9,472,127	-1.19	2,957,044	0.39	13,652,529	1.04
2022년	51,692,272	-0.09	9,417,469	-0.58	2,989,125	1.08	13,717,827	0.48
2023년	51,774,521	0.16	9,384,512	-0.35	3,025,950	1.23	13,815,367	0.71

주: 1) 2015년 이전 5년 주기 조사, 2015년 이후 매년 조사 (외국인 인구 포함)

2) 2019년 변경된 총인구 데이터 반영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추계인구]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1970년	32,240,827	5,685,932	803,730	2,636,096
1975년	35,280,725	7,005,007	981,336	3,124,725
1980년	38,123,775	8,516,450	1,253,487	3,774,067
1985년	40,805,744	9,725,447	1,541,084	4,696,641
1990년	42,869,283	10,473,252	1,896,801	5,972,092
1995년	45,092,991	10,342,224	2,333,769	7,737,864
2000년	47,008,111	10,078,434	2,522,462	9,146,445
2005년	48,184,561	10,028,631	2,581,406	10,625,127
2010년	49,554,112	10,088,611	2,722,990	11,618,962
2015년	51,014,947	9,941,162	2,882,868	12,423,017
2020년	51,836,239	9,617,795	2,951,065	13,452,422
2023년	51,712,619	9,400,365	3,008,826	13,781,261
2025년	51,684,564	9,339,904	3,058,301	13,948,740
2030년	51,305,713	9,096,161	3,097,645	14,283,573
2035년	50,824,868	8,902,414	3,122,875	14,475,519
2040년	50,059,218	8,709,899	3,121,546	14,505,838
2045년	48,835,031	8,439,022	3,083,039	14,350,771
2050년	47,106,960	8,090,025	3,005,872	14,007,393

주: 1) 2024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3)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4) 197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5) 중위추계(기본추계)로 출생-사망-국제 이동 중위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합계출산율

개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산출방법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2014년	435,435	1.205	83,711	0.983	25,786	1.212	112,169	1.241
2015년	438,420	1.239	83,005	1.001	25,491	1.216	113,495	1.272
2016년	406,243	1.172	75,536	0.940	23,609	1.144	105,643	1.194
2017년	357,771	1.052	65,389	0.836	20,445	1.007	94,088	1.069
2018년	326,822	0.977	58,074	0.761	20,087	1.006	88,175	1.002
2019년	302,676	0.918	53,673	0.717	18,522	0.940	83,198	0.943
2020년	272,337	0.837	47,445	0.642	16,040	0.829	77,737	0.878
2021년	260,562	0.808	45,531	0.626	14,947	0.778	76,139	0.853
2022년	249,186	0.778	42,602	0.593	14,464	0.747	75,323	0.839
2023년	230,028	0.721	39,456	0.552	13,659	0.694	68,817	0.766

3. 고령화지수

개념	한 사회의 생산가능역량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의 고령집단 다양성을 파악
산출방법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 {고령자 연령별 인구(65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 0~14세 인구×100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연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65세 이상)	고령집단별 고령화지수		
				고령 전기 고령화지수 (65~74세)	고령 중기 고령화지수 (75~84세)	고령 후기 고령화지수 (85세 이상)
2014년	16.0	15.5	96.7	62.1	27.3	7.3
2015년	15.6	16.2	104.2	66.1	30.1	8.0
2016년	15.2	16.8	110.8	68.5	33.6	8.8
2017년	14.9	17.9	120.1	72.4	38.0	9.7
2018년	14.4	18.8	130.0	77.6	41.7	10.7
2019년	14.1	19.9	141.2	84.0	45.2	12.1
2020년	13.8	21.4	154.9	92.8	48.3	13.8
2021년	13.5	22.4	166.0	99.9	51.6	14.4
2022년	13.0	23.6	180.7	108.0	57.0	15.8
2023년	12.6	24.9	197.3	117.1	62.4	17.8

주: 1) 등록외국인 포함
2)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년부양비=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연령인구(15~64세)*100
4) 고령화지수=고령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 고령 전기 고령화지수=(65~74세 인구)/(0~14세 인구)*100
 - 고령 중기 고령화지수=(75~84세 인구)/(0~14세 인구)*100
 - 고령 후기 고령화지수=(8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5)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수도권별]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노년 부양비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고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고령화 지수
2014년	16.9	89.6	15.5	96.7	13.4	70.7	13.3	64.2
2015년	17.5	95.5	16.2	104.2	13.9	75.7	13.7	68.8
2016년	18.0	100.6	16.8	110.8	14.3	79.8	14.1	72.4
2017년	19.0	107.7	17.9	120.1	15.3	86.6	14.9	77.8
2018년	19.8	114.5	18.8	130.0	16.0	93.1	15.5	82.8
2019년	20.9	123.0	19.9	141.2	17.1	101.0	16.3	89.2
2020년	22.4	133.5	21.4	154.9	18.5	111.5	17.5	97.0
2021년	23.6	143.1	22.4	166.0	19.7	120.7	18.5	104.7
2023년	26.3	169.9	24.9	197.3	22.4	143.1	20.8	126.0

주: 1) 등록외국인 포함

2) 노년부양비=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연령인구(15~64세)×100

3) 고령화지수=고령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4)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5) 2022년의 경우 등록외국인 65세 이상 연령 데이터 불충분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음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4. 순이동률

개념	서울시민과 청년의 순이동 인구 비율 파악
산출방법	•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전입률-전출률) • (연령별 순이동자 수/연령별 연앙인구)×100 (=연령별 전입률-연령별 전출률)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단위: %)

연도	서울			인천			경기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2014년	15.8	16.7	-0.9	15.8	15.5	0.3	15.5	15.0	0.5
2015년	16.0	17.4	-1.4	16.4	16.1	0.3	16.2	15.4	0.8
2016년	15.4	16.9	-1.4	15.2	15.0	0.2	15.7	14.6	1.1
2017년	15.1	16.2	-1.0	14.0	14.1	-0.1	14.9	14.0	0.9
2018년	14.9	16.1	-1.1	14.8	14.8	0.0	15.9	14.6	1.3
2019년	14.9	15.4	-0.5	14.3	14.4	-0.1	14.9	13.8	1.0
2020년	16.6	17.2	-0.7	15.2	15.8	-0.5	16.3	15.0	1.3
2021년	15.0	16.1	-1.1	14.8	14.4	0.4	15.2	14.1	1.1
2022년	12.8	13.2	-0.4	13.4	12.5	1.0	12.2	11.9	0.3
2023년	12.9	13.3	-0.3	14.3	13.2	1.1	12.4	12.1	0.3

주: 1) 전입률: 전입자 수/연앙인구×100, 전출률: 전출자 수/연앙인구×100

2) 순이동률: (이동자 수/연앙인구)×100 (=전입률-전출률)

3) 주민등록연앙인구: (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서울시 연령별]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0.9	-1.4	-1.4	-1.0	-1.1	-0.5	-0.7	-1.1	-0.4	-0.3
0~4세	-3.3	-4.0	-4.4	-3.8	-4.7	-3.2	-3.2	-3.6	-3.0	-2.9
5~9세	-1.2	-1.7	-2.0	-1.5	-2.0	-0.9	-1.2	-1.6	-0.9	-0.4
10~14세	-0.3	-0.6	-0.8	-0.5	-0.8	-0.2	-0.4	-0.8	-0.2	-0.1
15~19세	0.4	0.1	0.1	0.5	0.6	1.1	0.8	0.5	2.0	1.9
20~24세	2.7	2.1	2.5	3.1	3.6	4.4	4.4	4.1	6.0	5.2
25~29세	1.1	0.4	0.7	1.4	2.0	2.4	2.1	1.2	2.3	2.1
30~34세	-2.4	-2.9	-2.9	-2.1	-2.3	-1.5	-1.5	-2.8	-1.7	-1.5
35~39세	-2.1	-2.9	-3.0	-2.5	-3.2	-2.2	-2.4	-3.0	-2.2	-1.9
40~44세	-1.2	-1.6	-1.8	-1.5	-2.0	-1.3	-1.6	-2.0	-1.3	-1.1
45~49세	-0.9	-1.3	-1.5	-1.2	-1.4	-1.0	-1.2	-1.5	-1.0	-0.8
50~54세	-1.0	-1.5	-1.6	-1.4	-1.5	-1.2	-1.3	-1.6	-1.1	-1.0
55~59세	-1.3	-1.8	-1.9	-1.6	-1.7	-1.3	-1.4	-1.7	-1.3	-1.2
60~64세	-1.4	-2.1	-2.1	-1.8	-1.8	-1.2	-1.4	-1.7	-1.2	-1.2
65~69세	-1.4	-1.9	-2.0	-1.7	-1.7	-1.2	-1.4	-1.5	-1.1	-1.0
70~74세	-1.3	-1.8	-1.7	-1.5	-1.5	-1.0	-1.2	-1.3	-0.9	-0.8
75~79세	-1.1	-1.5	-1.5	-1.3	-1.4	-0.9	-1.2	-1.2	-0.8	-0.7
80세 이상	-0.9	-1.2	-1.3	-1.2	-1.5	-1.0	-1.1	-1.5	-1.1	-1.0

[서울시 자치구별]

(단위: %)

구분		총이동률		시·도내 이동률			시·도간 이동률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시군구내 이동률	시군구간 이동률	시도간 전입률	시도간 전출률	
					전입률	전출률			
2014년		15.8	16.7	-0.9	5.0	6.0	6.0	4.8	5.7
2015년		16.0	17.4	-1.4	5.3	6.1	6.1	4.6	6.0
2016년		15.4	16.9	-1.4	5.0	5.9	5.9	4.6	6.1
2017년		15.1	16.2	-1.0	4.7	5.8	5.8	4.7	5.7
2018년		14.9	16.1	-1.1	4.5	5.7	5.7	4.8	5.9
2019년		14.9	15.4	-0.5	4.2	5.7	5.7	5.0	5.5
2020년		16.6	17.2	-0.7	4.7	6.5	6.5	5.3	6.0
2021년		15.0	16.1	-1.1	4.1	6.0	6.0	4.9	6.0
2022년		12.8	13.2	-0.4	3.2	5.0	5.0	4.6	5.0
2023년		12.9	13.3	-0.3	3.2	5.1	5.1	4.6	4.9
구 별	종로구	13.2	14.2	-1.1	1.8	6.4	7.7	5.0	4.8
	중구	15.8	14.8	1.0	2.0	8.3	8.0	5.4	4.8
	용산구	13.4	15.8	-2.5	2.6	6.0	7.9	4.7	5.3
	성동구	12.6	13.9	-1.3	2.3	6.0	7.2	4.2	4.3
	광진구	13.5	13.9	-0.5	3.4	5.2	5.7	4.8	4.8
	동대문구	15.0	13.4	1.6	3.2	6.6	5.5	5.2	4.7
	중랑구	10.8	11.5	-0.6	3.5	4.2	3.7	3.2	4.3
	성북구	10.9	11.9	-1.0	2.5	4.5	5.2	3.9	4.1
	강북구	10.0	11.4	-1.4	2.9	4.0	4.6	3.0	3.9
	도봉구	9.1	10.3	-1.2	2.5	3.9	3.9	2.8	4.0
	노원구	10.3	11.2	-0.9	3.0	3.7	3.6	3.6	4.6
	은평구	12.1	11.8	0.3	3.8	4.4	3.3	3.9	4.7
	서대문구	13.1	12.9	0.1	2.3	5.8	5.9	5.0	4.7
	마포구	14.0	14.2	-0.2	2.8	6.2	6.5	5.0	4.9
	양천구	10.1	11.1	-1.0	2.7	4.3	4.3	3.2	4.1
	강서구	12.2	13.3	-1.0	3.6	4.2	4.0	4.5	5.7
	구로구	10.5	11.2	-0.7	2.0	4.0	3.8	4.4	5.4
	금천구	12.5	13.3	-0.8	2.9	4.2	4.0	5.4	6.4
	영등포구	14.7	14.9	-0.3	2.7	6.2	6.6	5.7	5.6
	동작구	14.4	14.8	-0.4	2.6	6.1	6.7	5.7	5.4
	관악구	16.2	17.0	-0.8	4.0	4.8	6.3	7.4	6.7
	서초구	15.4	14.6	0.8	3.9	6.8	6.2	4.7	4.5
	강남구	18.5	15.5	2.9	4.7	7.7	5.8	6.0	5.0
	송파구	12.9	13.6	-0.8	3.8	4.6	4.6	4.5	5.2
	강동구	12.3	12.5	-0.2	4.1	4.1	3.6	4.1	4.8

5. 초혼연령

개념	초저출생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남편과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단위: 세)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2014년	32.4	29.8	32.8	30.7	32.3	29.6	32.4	29.9
2015년	32.6	30.0	33.0	30.8	32.5	29.9	32.6	30.0
2016년	32.8	30.1	33.2	31.0	32.7	30.1	32.8	30.2
2017년	32.9	30.2	33.4	31.2	32.8	30.2	32.9	30.3
2018년	33.2	30.4	33.5	31.3	33.0	30.4	33.1	30.5
2019년	33.4	30.6	33.7	31.6	33.3	30.6	33.4	30.7
2020년	33.2	30.8	33.6	31.6	33.0	30.7	33.2	30.8
2021년	33.4	31.1	33.9	31.9	33.2	31.0	33.3	31.1
2022년	33.7	31.3	34.2	32.2	33.6	31.3	33.7	31.3
2023년	34.0	31.5	34.4	32.4	33.8	31.6	34.0	31.6

제2절 서울가구

1. 1인가구 비율

개념	1인가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전국]

(단위: 가구, %, 순위)

2023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순위
전국	22,073,158	7,829,035	35.5	-
서울	4,141,659	1,627,480	39.3	2
부산	1,462,404	532,509	36.4	10
대구	1,033,238	359,048	34.7	11
인천	1,242,168	395,278	31.8	15
광주	627,602	228,970	36.5	9
대전	654,809	257,934	39.4	1
울산	458,129	141,595	30.9	17
세종	156,444	51,655	33.0	14
경기	5,500,024	1,714,629	31.2	16
강원	698,410	271,097	38.8	3
충북	720,231	277,373	38.5	4
충남	948,631	354,747	37.4	7
전북	786,775	296,799	37.7	6
전남	793,249	294,583	37.1	8
경북	1,166,594	444,108	38.1	5
경남	1,404,476	487,491	34.7	12
제주	278,315	93,739	33.7	13

[수도권별]

(단위: 가구,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2015년	5,203,440	27.2	1,115,744	29.5	243,678	23.3	1,026,471	23.4
2016년	5,397,615	27.9	1,138,860	30.1	254,076	23.9	1,067,916	23.8
2017년	5,618,677	28.6	1,180,540	31.0	266,434	24.7	1,124,541	24.4
2018년	5,848,594	29.3	1,229,421	32.0	275,898	25.2	1,197,586	25.2
2019년	6,147,516	30.2	1,299,787	33.4	297,865	26.6	1,290,893	26.3
2020년	6,643,354	31.7	1,390,701	34.9	324,841	28.3	1,406,010	27.6
2021년	7,165,788	33.4	1,489,893	36.8	355,657	30.0	1,543,100	29.2
2022년	7,502,350	34.5	1,564,187	38.2	376,392	31.0	1,634,147	30.2
2023년	7,829,035	35.5	1,627,480	39.3	395,278	31.8	1,714,629	31.2

[서울시 연령별]

(단위: %)

연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15년	29.5	75.6	36.9	20.7	17.9	20.9	30.7
2016년	30.1	77.5	37.5	20.8	18.0	21.7	31.0
2017년	31.0	77.7	38.7	21.5	18.6	22.6	31.1
2018년	32.0	78.3	40.3	22.2	18.9	23.3	31.4
2019년	33.4	79.2	42.6	23.0	19.5	24.0	32.1
2020년	34.9	79.9	45.1	24.0	20.2	25.2	32.9
2021년	36.8	81.3	48.5	25.4	21.4	26.7	34.1
2022년	38.2	82.8	51.3	26.5	22.0	27.4	34.7
2023년	39.3	84.1	53.7	27.4	22.7	28.2	35.4

[서울시 자치구별]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2015년		3,784,490	1,115,744	29.5
2016년		3,784,705	1,138,860	30.1
2017년		3,813,260	1,180,540	31.0
2018년		3,839,766	1,229,421	32.0
2019년		3,896,389	1,299,787	33.4
2020년		3,982,290	1,390,701	34.9
2021년		4,046,799	1,489,893	36.8
2022년		4,098,818	1,564,187	38.2
2023년		4,141,659	1,627,480	39.3
구 별	종로구	64,507	29,334	45.5
	중구	59,265	28,293	47.7
	용산구	98,322	42,482	43.2
	성동구	123,124	48,111	39.1
	광진구	158,612	71,959	45.4
	동대문구	159,457	70,959	44.5
	종량구	171,823	66,906	38.9
	성북구	184,404	69,148	37.5
	강북구	131,363	52,659	40.1
	도봉구	129,149	41,525	32.2
	노원구	205,769	65,275	31.7
	은평구	198,534	68,850	34.7
	서대문구	138,166	56,170	40.7
	마포구	167,410	72,112	43.1
	양천구	169,479	47,106	27.8
	강서구	255,617	104,509	40.9
	구로구	171,257	61,318	35.8
	금천구	111,789	52,033	46.5
	영등포구	174,908	77,895	44.5
	동작구	173,897	74,443	42.8
	관악구	263,166	150,745	57.3
	서초구	157,290	48,756	31.0
	강남구	218,895	76,809	35.1
	송파구	265,857	87,140	32.8
	강동구	189,599	62,943	33.2

2. 가족다양성 분포

개념	다양한 가족형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가족 분포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세대구성별 가구]

(단위: 가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가구		3,784,705	3,813,260	3,839,766	3,896,389	3,982,290	4,046,799	4,098,818	4,141,659
1세대 가구	계	15.8	16.1	16.3	16.6	16.7	16.8	16.8	16.5
	부부	13.4	13.7	13.9	14.1	14.3	14.4	14.4	14.2
	부부+미혼형제자매	0.1	0.1	0.1	0.1	0.1	0.1	0.1	0.1
	부부+기타 친인척	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6	1.6	1.6	1.7	1.7	1.7	1.7	1.6
	가구주+기타 친인척	0.1	0.1	0.1	0.1	0.1	0.1	0.1	0.1
	기타	0.5	0.5	0.5	0.5	0.5	0.5	0.5	0.5
2세대 가구	계	47.7	46.6	45.3	43.9	42.5	40.6	39.3	38.5
	부부+미혼자녀	31.9	31.1	30.1	29.1	28.3	27.0	26.0	25.4
	부+미혼자녀	2.4	2.3	2.3	2.2	2.1	2.0	2.0	1.9
	모+미혼자녀	8.0	7.9	7.8	7.6	7.4	7.2	7.0	6.8
	부부+양친	0.1	0.1	0.1	0.1	0.1	0.1	0.1	0.1
	부부+한부모	0.4	0.4	0.4	0.4	0.4	0.4	0.4	0.3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0.4	0.4	0.4	0.4	0.3	0.3	0.3	0.3
	조부모+미혼손자녀	0.2	0.2	0.2	0.2	0.2	0.2	0.2	0.2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0.3	0.3	0.3	0.3	0.3	0.3	0.3	0.3
	기타	3.9	3.8	3.8	3.7	3.3	3.2	3.1	3.1
3세대 가구	계	4.8	4.6	4.3	4.0	3.6	3.3	3.1	2.9
	부부+미혼자녀+양친	0.6	0.5	0.5	0.5	0.4	0.4	0.3	0.3
	부부+미혼자녀+부친	0.4	0.4	0.3	0.3	0.3	0.3	0.3	0.2
	부부+미혼자녀+모친	1.8	1.7	1.6	1.5	1.3	1.2	1.1	1.1
	기타	2.0	2.0	1.8	1.7	1.6	1.4	1.4	1.3
4세대 이상 가구		0.04	0.03	0.03	0.03	0.02	0.02	0.01	0.01
1인가구		30.1	31.0	32.0	33.4	34.9	36.8	38.2	39.3
비친족가구		1.6	1.8	2.0	2.2	2.3	2.5	2.6	2.7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단위: %)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년	16.3	17.0	21.7	32.1	12.9
2001년	17.5	17.6	21.7	31.1	12.0
2002년	18.5	18.2	21.7	30.3	11.3
2003년	19.4	18.7	21.7	29.5	10.6
2004년	20.3	19.2	21.7	28.8	10.0
2005년	20.5	20.1	22.1	27.8	9.5
2006년	21.3	20.4	22.2	27.0	9.1
2007년	22.1	20.8	22.3	26.1	8.7
2008년	22.9	21.2	22.3	25.2	8.3
2009년	23.7	21.6	22.4	24.3	8.0
2010년	24.7	22.0	22.4	23.1	7.7
2011년	25.3	22.4	22.5	22.4	7.4
2012년	26.0	22.8	22.5	21.5	7.1
2013년	26.6	23.2	22.6	20.8	6.8
2014년	27.3	23.6	22.7	20.0	6.5
2015년	29.5	24.5	21.6	18.6	5.8
2016년	30.1	24.5	21.6	18.2	5.6
2017년	30.9	25.0	21.4	17.5	5.2
2018년	31.7	25.4	21.2	16.7	4.9
2019년	32.4	25.9	21.1	16.0	4.6
2020년	34.4	25.9	20.1	15.3	4.2
2021년	36.1	26.1	19.4	14.5	3.8
2022년	36.7	26.5	19.3	13.9	3.7
2023년	37.1	26.9	19.1	13.4	3.5
2024년	37.5	27.3	19.0	12.8	3.3
2025년	37.9	27.7	18.8	12.3	3.2
2026년	38.2	28.2	18.7	11.9	3.1
2027년	38.4	28.6	18.6	11.4	2.9
2028년	38.7	29.0	18.5	11.0	2.8
2029년	38.8	29.3	18.5	10.7	2.7
2030년	39.0	29.7	18.4	10.3	2.6
2031년	39.1	30.1	18.3	9.9	2.5
2032년	39.3	30.5	18.3	9.6	2.4
2033년	39.4	30.8	18.2	9.3	2.3
2034년	39.5	31.1	18.1	9.0	2.3
2035년	39.7	31.4	18.0	8.7	2.2
2036년	39.8	31.7	17.9	8.5	2.1
2037년	40.0	32.0	17.8	8.2	2.1
2038년	40.1	32.3	17.7	8.0	2.0
2039년	40.2	32.6	17.5	7.7	1.9
2040년	40.4	32.8	17.4	7.5	1.9
2041년	40.5	33.1	17.3	7.3	1.8
2042년	40.6	33.4	17.2	7.1	1.7
2043년	40.6	33.7	17.1	6.9	1.7
2044년	40.6	34.0	17.0	6.7	1.6
2045년	40.7	34.3	17.0	6.5	1.6
2046년	40.7	34.6	16.9	6.3	1.5
2047년	40.7	34.8	16.9	6.1	1.5
2048년	40.7	35.1	16.8	6.0	1.4
2049년	40.7	35.3	16.8	5.8	1.4
2050년	40.8	35.5	16.7	5.7	1.3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 가족 친밀성

개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식사, 대화, 여가생활 등에 대한 빈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가족과 식사	자녀-부모와 대화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와 대화	부부/형제간 가정 문제 상의	가족과 여가생활
2019년		5.53	6.79	5.91	5.13	5.17	4.91
2020년		5.53	6.70	5.86	5.16	5.12	4.95
2021년		5.56	6.56	5.92	5.22	5.16	5.03
2022년		5.67	6.97	5.94	5.11	5.28	5.06
2023년		5.44	6.66	5.69	5.12	5.14	4.85
연령 별	10대	5.43	6.73	5.93	5.56	4.75	4.39
	20대	5.13	5.96	5.51	5.43	4.84	4.46
	30대	5.52	6.69	5.67	5.35	5.27	5.06
	40대	5.82	7.16	6.09	5.29	5.38	5.38
	50대	5.55	6.88	5.76	5.17	5.25	4.97
	60대	5.44	6.77	5.58	4.93	5.26	4.83
	70대	5.02	6.27	5.25	4.63	4.84	4.34
	80대	4.77	6.08	5.37	4.33	4.31	3.76
	90대 이상	4.80	7.28	5.13	3.57	4.02	3.94
가구 별	1인 가구	5.44	6.66	5.69	5.12	5.14	4.85
	2인 가구	5.60	7.04	5.61	5.03	5.31	5.08
	3인 가구	5.86	7.20	6.08	5.34	5.44	5.25
	4인 이상 가구	5.73	7.16	6.04	5.32	5.18	5.04
소득 별	200만원 미만	4.33	5.06	4.77	4.13	4.19	3.68
	200~300만원 미만	4.79	5.75	5.20	4.48	4.62	4.13
	300~400만원 미만	5.25	6.37	5.54	5.09	5.12	4.62
	400~500만원 미만	5.34	6.65	5.62	5.07	5.03	4.67
	500만원 이상	5.87	7.21	6.02	5.43	5.45	5.33
직업 별	관리전문직	5.16	6.28	5.36	4.87	4.85	4.75
	화이트칼라	5.65	6.83	5.86	5.40	5.36	5.16
	블루칼라	5.25	6.47	5.42	4.97	5.04	4.69
	학생	5.26	6.28	5.80	5.52	4.74	4.29
	무직	4.74	5.91	5.07	4.28	4.63	3.97
	기타	5.65	7.11	5.87	5.09	5.29	5.01
권역 별	도심권	4.79	6.00	4.96	4.78	4.55	3.96
	동북권	5.46	6.60	5.66	5.14	5.31	4.78
	서북권	5.62	7.17	5.89	5.14	5.03	5.00
	서남권	5.61	6.75	5.95	5.31	5.23	5.13
	동남권	5.22	6.49	5.39	4.89	5.00	4.65

주) 평균값 환산 기준: 항상 한다 10점, 거의 안 한다 0점

제3절 서울 거주 외국인

1. 외국인 총인구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 인구 총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의 총합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단위: 명, %)

구분		계	한국인	등록외국인	등록외국인 비중
2014년		10,369,593	10,103,233	266,360	2.6
2015년		10,297,138	10,022,181	274,957	2.7
2016년		10,204,057	9,930,616	273,441	2.7
2017년		10,124,579	9,857,426	267,153	2.6
2018년		10,049,607	9,765,623	283,984	2.8
2019년		10,010,983	9,729,107	281,876	2.8
2020년		9,911,088	9,668,465	242,623	2.4
2021년		9,736,027	9,509,458	226,569	2.3
2022년		9,667,669	9,428,372	239,297	2.5
2023년		9,638,799	9,386,034	252,765	2.6
구 별	종로구	150,453	139,417	11,036	7.3
	중구	131,793	121,312	10,481	8.0
	용산구	227,106	213,151	13,955	6.1
	성동구	284,766	277,361	7,405	2.6
	광진구	351,180	335,554	15,626	4.4
	동대문구	359,873	341,149	18,724	5.2
	종랑구	387,470	382,155	5,315	1.4
	성북구	438,168	425,602	12,566	2.9
	강북구	292,977	288,113	4,864	1.7
	도봉구	309,494	306,948	2,546	0.8
	노원구	502,925	498,213	4,712	0.9
	은평구	470,869	466,770	4,099	0.9
	서대문구	320,629	306,231	14,398	4.5
	마포구	375,162	363,697	11,465	3.1
	양천구	439,252	436,028	3,224	0.7
	강서구	568,826	563,058	5,768	1.0
	구로구	415,651	392,405	23,246	5.6
	금천구	241,105	227,481	13,624	5.7
	영등포구	397,800	374,794	23,006	5.8
	동작구	389,714	378,769	10,945	2.8
	관악구	497,883	481,956	15,927	3.2
	서초구	412,078	407,664	4,414	1.1
	강남구	550,282	544,873	5,409	1.0
	송파구	660,025	654,166	5,859	0.9
	강동구	463,318	459,167	4,151	0.9

[성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단위: 명, %)

연도	합계	남자		여자	
		계	%	계	%
2014년	266,360	129,245	48.5	137,115	51.5
2015년	274,957	132,607	48.2	142,350	51.8
2016년	273,441	130,590	47.8	142,851	52.2
2017년	267,153	127,651	47.8	139,502	52.2
2018년	283,984	136,950	48.2	147,034	51.8
2019년	281,876	133,666	47.4	148,210	52.6
2020년	242,623	114,799	47.3	127,824	52.7
2021년	226,569	103,937	45.9	122,632	54.1
2022년	239,297	105,512	44.1	133,785	55.9
2023년	252,765	109,415	43.3	143,350	56.7

[연령별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

(단위: 명, %)

연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계	%	계	%	계	%	계	%	계	%	계	%
2014년	19,544	7.3	63,173	23.7	51,204	19.2	55,653	20.9	62,550	23.5	14,236	5.3
2015년	22,726	8.3	65,090	23.7	52,054	18.9	52,877	19.2	66,433	24.2	15,777	5.7
2016년	26,662	9.8	67,048	24.5	51,441	18.8	48,446	17.7	62,644	22.9	17,200	6.3
2017년	27,604	10.3	68,427	25.6	52,443	19.6	45,324	17.0	57,510	21.5	15,845	5.9
2018년	28,381	10.0	74,390	26.2	53,890	19.0	46,028	16.2	63,701	22.4	17,594	6.2
2019년	29,219	10.4	77,151	27.4	52,619	18.7	43,166	15.3	60,152	21.3	19,569	6.9
2020년	23,540	9.7	64,458	26.6	48,103	19.8	36,365	15.0	50,520	20.8	19,637	8.1
2021년	22,027	9.7	63,519	28.0	44,919	19.8	32,053	14.1	45,774	20.2	18,277	8.1
2022년	23,228	9.7	76,783	32.1	45,281	18.9	31,668	13.2	41,523	17.4	20,814	8.7
2023년	25,217	10.0	84,373	33.4	47,386	18.7	33,412	13.2	39,543	15.6	22,834	9.0

2.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 주민등록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
출처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총계	비율	총계	비율
소계	239,297	100.0	252,765	100.0
한국계중국인	71,158	29.7	70,051	27.7
중국	56,258	23.5	63,160	25.0
베트남	21,684	9.1	23,705	9.4
미국	11,079	4.6	10,974	4.3
일본	9,822	4.1	10,275	4.1
몽골	7,834	3.3	9,187	3.6
타이완	7,588	3.2	7,801	3.1
필리핀	3,446	1.4	3,500	1.4
프랑스	3,159	1.3	3,492	1.4
우즈베키스탄	3,031	1.3	3,418	1.4
러시아(연방)	2,768	1.2	3,274	1.3
인도	2,672	1.1	2,866	1.1
타이	2,220	0.9	2,606	1.0
네팔	1,768	0.7	2,291	0.9
미얀마	1,572	0.7	2,156	0.9
영국	2,005	0.8	2,139	0.8
독일	2,060	0.9	2,084	0.8
인도네시아	1,735	0.7	1,902	0.8
말레이시아	1,599	0.7	1,797	0.7
캐나다	1,649	0.7	1,634	0.6
기타	24,190	10.1	24,453	9.7

[중국 국적 외국인]

(단위: 명, %)

연도	합계	비율	한국계 중국인		중국	
			계	비율	계	비율
2014년	193,381	72.6	144,358	54.2	49,023	18.4
2015년	198,773	72.3	142,168	51.7	56,605	20.6
2016년	192,060	70.2	126,697	46.3	65,363	23.9
2017년	180,716	67.6	114,687	42.9	66,029	24.7
2018년	190,060	66.9	124,250	43.8	65,810	23.2
2019년	181,690	64.5	115,637	41.0	66,053	23.4
2020년	149,620	61.7	94,744	39.0	54,876	22.6
2021년	129,120	57.0	79,337	35.0	49,783	22.0
2022년	127,416	53.2	71,158	29.7	56,258	23.5
2023년	133,211	52.7	70,051	27.7	63,160	25.0

[외국인 체류자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266,360	274,957	273,441	267,153	283,984	281,876	242,623	226,569	239,297	252,765
유학	22,448	25,531	30,056	35,041	40,746	45,477	37,840	39,590	50,855	56,537
영주	43,916	45,751	46,439	46,657	46,466	47,606	47,720	47,550	47,555	48,257
방문취업	97,308	96,194	83,172	71,327	80,127	70,387	45,436	36,308	29,506	28,740
결혼이민	22,605	21,785	21,188	20,904	20,830	21,180	21,130	20,707	20,986	21,656
일반연수	10,490	13,302	16,376	16,002	16,515	16,604	13,437	13,616	16,865	19,369
방문동거	15,535	17,605	20,540	20,831	21,284	20,554	16,912	14,114	13,296	14,254
거주	12,433	12,429	12,421	12,294	12,153	12,717	12,609	12,609	11,866	13,605
동반	7,757	7,952	7,996	7,853	7,465	7,358	6,443	6,437	6,824	7,210
특정활동	7,494	7,898	7,965	7,225	7,106	6,740	5,722	5,981	6,359	7,143
구직	2,078	2,395	2,536	2,871	2,848	2,368	3,040	2,854	3,660	4,763
회화지도	4,338	3,960	3,845	3,550	3,294	3,458	3,270	3,533	3,873	3,793
기업투자	3,234	3,217	3,164	3,071	2,995	2,957	2,630	2,661	2,831	2,936
비전문취업	4,964	4,457	3,365	3,553	3,400	3,442	3,183	2,684	2,716	2,928
관광취업	1,386	1,306	1,478	1,758	2,164	2,294	648	192	1,580	2,785
예술흥행	504	497	522	561	557	648	725	1,012	1,471	1,671
연구	597	616	663	690	688	683	665	805	926	916
상사주재	754	755	746	730	693	682	550	535	582	561
교수	927	878	840	806	766	697	636	613	589	518
종교	603	565	624	637	511	456	341	350	362	374
무역경영	852	603	525	400	430	385	322	359	345	370
전문직업	573	525	532	522	511	515	307	217	214	208
취재	85	87	86	76	91	86	103	121	134	140
기술지도	53	64	57	52	57	70	69	49	56	54
산업연수	55	55	45	45	44	43	40	40	38	39
문화예술	38	39	34	40	35	31	19	29	19	21
선원취업	4	6	2	4	3	2	2	4	2	3
기타	5,329	6,485	8,224	9,653	12,205	14,436	18,824	14,595	15,787	13,914

주) 유학(D2), 영주(F5),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일반연수(D4),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특정활동(E7), 구직(D10), 회화지도(E2), 기업투자(D8),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 예술흥행(E6), 연구(E3), 상사주재(D7), 교수(E1), 종교(D6), 무역경영(D9), 전문직업(E5), 취재(D5), 기술지도(E4), 산업연수(D3), 문화예술(D1), 선원취업(E10)

3. 외국인 삶의질 만족도

개념	서울거주 외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서울거주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삶의질 만족도 파악(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주거 환경	경제 환경	복지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	도시 안전	기타
2014년		6.97	7.60	6.58	-	7.12	-	-	-
2015년		7.23	7.62	6.63	7.61	7.15	7.00	7.40	-
2016년		6.52	6.83	6.55	6.36	6.29	6.07	6.76	-
2017년		6.86	7.13	7.01	6.68	6.57	6.61	7.15	4.65
2018년		6.89	7.26	6.82	6.82	6.61	6.64	7.21	4.40
2019년		6.90	6.55	7.19	6.96	6.75	6.88	7.06	-
2020년		6.96	6.90	7.10	6.91	6.65	6.91	7.26	-
2021년		7.00	7.14	6.80	6.86	6.62	7.05	7.51	-
2022년		6.91	6.72	6.82	7.06	6.59	6.96	7.30	-
2023년		6.72	6.39	6.65	6.90	6.62	6.79	6.95	-
국 적 별	한국계 중국인	6.62	6.15	6.57	6.93	6.47	6.69	6.88	-
	중국	6.60	6.57	6.25	6.66	6.37	6.93	6.84	-
	일본	6.46	6.65	6.43	6.46	6.56	6.21	6.46	-
	타이완	6.95	7.30	6.57	7.11	6.82	7.00	6.87	-
	베트남	7.22	6.46	7.59	7.24	7.57	7.09	7.36	-
	아시아 기타	7.09	7.07	7.12	7.18	7.10	6.95	7.14	-
	미국	6.57	6.14	6.54	6.76	6.40	6.57	7.01	-
	영미권 기타	6.91	6.65	6.80	6.95	7.00	7.10	6.95	-
	유럽권	6.75	6.44	6.66	6.52	6.86	6.75	7.25	-
	기타	7.11	6.83	7.40	7.16	6.67	7.26	7.34	-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2) 삶의질 만족도: 세부 문항 차이로 연도별 비교 시 주의 필요

제2장 경제와 노동

제1절 경제활력

1. 지역내총생산

개념	서울의 거시경제 규모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표(GRDP)
산출방법	•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1인당 GRDP,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명목 지역내총생산]

(단위: 억 원, %)

연도	전국	서울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서울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13년	15,052,386	3,407,116	22.6	1.91
2014년	15,660,884	3,502,584	22.4	2.80
2015년	16,608,443	3,701,679	22.3	5.68
2016년	17,435,747	3,873,644	22.2	4.65
2017년	18,403,489	4,040,796	22.0	4.32
2018년	19,025,279	4,237,421	22.3	4.87
2019년	19,274,212	4,359,272	22.6	2.88
2020년	19,446,444	4,445,449	22.9	1.98
2021년	20,837,950	4,720,402	22.7	6.19
2022년p)	21,657,173	4,857,479	22.4	2.90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 천 원)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3년	29,849	34,105	24,526	27,492
2014년	30,861	35,113	26,068	28,638
2015년	32,556	37,236	27,798	30,748
2016년	34,042	39,356	29,120	32,336
2017년	35,831	41,374	30,284	35,307
2018년	36,866	43,664	30,194	36,821
2019년	37,274	45,118	30,584	36,064
2020년	37,515	46,221	30,367	36,521
2021년	40,271	49,680	33,551	38,879
2022년p)	41,948	51,612	35,295	39,969

2.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념	한국표준분류상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3개 산업(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산출방법	기준 연도(2020년)를 100.0으로 하여 월별로 산정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단위: 2020=100)

연도	경상지수			불변지수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2014년	80.6	89.4	81.4	86.5	97.1	88.5
2015년	82.9	92.3	84.3	88.5	100.2	91.5
2016년	86.4	96.8	88.3	91.3	104.1	94.5
2017년	90.3	101.1	92.2	93.8	106.5	96.8
2018년	94.8	105.8	96.3	97.1	109.3	99.3
2019년	97.4	107.9	99.5	98.8	110.6	101.0
2020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1년	108.6	105.7	108.3	105.1	102.2	104.7
2022년	123.4	121.5	121.8	114.5	112.7	113.0
2023년	133.4	133.1	126.9	121.4	120.8	115.2

- 주: 1) 2021~2022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 2)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업동향 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자료에 활용
- 3) 서비스업생산지수 시도별지수: 시도별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을 추가하고 시도 업종별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한 지수
- 4) 경상지수: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5) 불변지수: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디플레이터: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구분	경상지수			불변지수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총지수	133.4	133.1	126.9	121.4	120.8	11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0.6	258.8	222.3	243.1	243.6	198.3
운수 및 창고업	234.0	190.8	121.0	200.1	173.8	114.4
부동산업	180.3	151.0	152.5	163.4	132.4	134.4
숙박 및 음식점업	156.5	124.2	142.2	134.4	107.4	12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1.9	118.2	112.5	130.2	106.5	100.2
금융 및 보험업	130.5	119.8	127.0	122.3	112.6	11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6	130.6	132.1	120.2	122.6	124.0
정보통신업	119.7	111.5	133.1	113.2	107.0	125.5
도매 및 소매업	118.2	124.3	119.3	103.6	109.5	10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7.4	110.1	124.0	107.2	99.3	111.7
교육 서비스업	112.8	109.9	111.9	103.5	99.9	10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1.3	112.6	110.9	104.3	105.6	103.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4.9	91.4	100.7	88.1	85.0	93.6

3. 대형소매점 판매액

개념	• 유통 및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13개 대분류 사업체 (194개 대표업종) 대상
산출방법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의 월간 상품판매액
출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단위: 억 원)

연도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백화점		대형마트	
		경상금액	비율(%)	경상금액	비율(%)
2020년	186,410	119,694	64.2	66,716	35.8
2021년	215,250	149,326	69.4	65,923	30.6
2022년	231,995	165,776	71.5	66,219	28.5
2023년	256,667	186,190	72.5	70,477	27.5

[수도권]

(단위: 억 원)

연도	인천	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계)	백화점		대형마트	
			경상금액	비율(%)	경상금액	비율(%)
2020년	23,523	158,426	53,519	33.8	104,908	66.2
2021년	25,353	174,631	65,741	37.6	108,890	62.4
2022년	25,906	183,983	73,541	40.0	110,442	60.0
2023년	28,471	195,845	77,965	39.8	117,881	60.2

주) 인천: '백화점' 과 '대형마트'의 판매액 데이터 미제공

4. 사업체 창업·폐업률

개념	연간 경제활동의 성과, 특히 사업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 창업률(신생률)=신생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 폐업률(소멸률)=소멸기업 수/활동기업 수×100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단위: 개, %)

연도	서울시 전체 활동기업 수	신생		소멸	
		신생기업 수	사업체 창업률	소멸기업 수	사업체 폐업률
2013년	1,258,913	168,444	13.4	150,831	12.0
2014년	1,285,993	181,546	14.1	187,370	14.6
2015년	1,251,857	170,506	13.6	138,672	11.1
2016년	1,289,498	185,710	14.4	133,722	10.4
2017년	1,341,909	194,913	14.5	151,262	11.3
2018년	1,372,239	194,668	14.2	146,353	10.7
2019년	1,416,327	204,014	14.4	157,448	11.1
2020년	1,461,453	217,009	14.8	167,851	11.5
2021년	1,477,255	200,029	13.5	151,670	10.3
2022년	1,506,361	195,073	12.9	-	-

- 주: 1) 2022년 소멸기업수 데이터 미제공(2024.10.31. 기준),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2) 활동기업: 비영리를 제외한 영리기업 중 기준 연도에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
3) 신생기업: 기준 연도와 전년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
※ 기준 기업일자리도 대표자, 주소, 산업활동(중분류기준)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변한 경우는 신생기업으로 분류
4) 소멸기업: 전년도와 기준 연도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경제활동을 중지한 기업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은 소멸기업으로 분류

출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서울시 기술기반업종 창업률]

(단위: 개, %)

연도	총 창업기업 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기술기반업종 창업률
2016년	240,617	48,158	20.0
2017년	249,581	49,332	19.8
2018년	289,280	51,615	17.8
2019년	262,970	53,568	20.4
2020년	309,896	55,049	17.8
2021년	276,758	56,809	20.5
2022년	249,175	53,265	21.4
2023년	230,141	52,387	22.8

- 주: 1)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2)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3)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5. 외국인 투자유치

개념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적 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액 현황
출처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서울시 외국인 투자건수	서울시 외국인 투자액
2013년	1,192	6,144
2014년	1,055	5,487
2015년	1,311	8,529
2016년	1,493	9,558
2017년	1,231	6,834
2018년	1,325	8,952
2019년	1,291	10,083
2020년	1,135	10,192
2021년	1,416	18,003
2022년	1,566	10,725

6. 전국 대비 R&D 투자 비중

개념	서울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상대적 규모 파악
산출방법	(서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금액/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1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단위: 억 원,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금액 (억 원)	금액 (억 원)	비중 (%)	금액 (억 원)	비중 (%)	금액 (억 원)	비중 (%)
2013년	593,009	107,027	18.0	21,328	3.6	273,095	46.1
2014년	637,341	96,356	15.1	22,829	3.6	310,330	48.7
2015년	659,594	100,306	15.2	24,996	3.8	318,390	48.3
2016년	694,055	104,839	15.1	23,895	3.4	330,506	47.6
2017년	787,892	131,697	16.7	25,482	3.2	384,625	48.8
2018년	857,287	134,754	15.7	27,613	3.2	436,153	50.9
2019년	890,471	134,449	15.1	28,459	3.2	459,348	51.6
2020년	930,717	144,320	15.5	29,366	3.2	470,451	50.5
2021년	1,021,352	162,043	15.9	32,270	3.2	519,571	50.9
2022년	1,126,460	176,885	15.7	36,029	3.2	577,028	51.2

7.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개념	서울의 기업혁신성을 측정하는 지표
산출방법	4차 산업혁명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업의 수
출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단위: 기업체,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4산업혁명 기업 비중 (%)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4산업혁명 기업 비중 (%)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4산업혁명 기업 비중 (%)	4차 산업혁명 기업 수	4산업혁명 기업 비중 (%)
2017년	1,014	(8.1)	528	(11.1)	30	(5.4)	215	(8.0)
2018년	1,500	(11.4)	708	(15.7)	55	(9.5)	357	(11.9)
2019년	1,711	(12.9)	875	(17.6)	56	(9.8)	382	(13.2)
2020년	1,773	(13.2)	941	(19.1)	63	(11.0)	379	(12.5)
2021년	1,924	(14.3)	969	(20.7)	66	(11.2)	416	(13.1)
2022년	1,961	(14.2)	977	(20.2)	57	(9.2)	447	(13.5)

- 주: 1) 대상산업: 모든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T,U 제외)
2)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체 (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3)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제공)'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4)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5G(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 Chain), 3D프린팅, 로봇공학(Robotics), 가상·증강현실(VR, AR)을 포함함
- 사물인터넷(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 클라우드(Cloud): 데이터센터 속에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함
 - 빅데이터(Big Data):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 모바일 5G(Mobile): 4G 이동통신보다 1천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블록체인(Block Chain):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 3D프린팅: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출력소스로 활용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를 사용해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
 - 로봇공학(Robotics): 로봇에 관한 기술인 로봇의 설계, 구조, 제어, 지능, 운용 등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의 한 분야로서,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외에도 생체공학 등 여러 공학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학문분야
 - 가상현실(VR): 자신(객체)과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
 - 증강현실(AR):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제2절 소득과 고용

1. 가구소득 증가율

개념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소득 동향 파악
산출방법	$\{(\text{당해년도 근로자가구 소득}/\text{전년도 근로자가구 소득})-1\} \times 1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단위: 원, %)

구분	전국		
	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득증가율
2014	4,344,764	3,491,013	2.6
2015	4,368,108	3,509,591	0.5
2016	4,422,420	3,550,440	1.2
2017_4/4	4,350,796	3,462,335	-1.6
2018_4/4	4,621,690	3,611,099	6.2
2019_4/4	4,890,950	3,875,284	5.8
2020_4/4	4,980,155	3,948,264	1.8
2021_4/4	5,319,760	4,225,853	6.8
2022_4/4	5,482,561	4,327,947	10.1
2023_4/4	5,747,455	4,515,614	8.0

- 주: 1) 연도별 전국 집계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포함)
- 가계동향조사(2019년 이후):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 전체 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 제공
- 1인 이상 결과표는 20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
3)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농림어가 제외)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이전, 소득부문 2017~2019년): 가구원 수 1인 이상 비농림어가
4) 도시근로자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하며, 1963년부터 이에 대한 통계 시계열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5)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 소득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구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6) 분기별 소득 자료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동분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

2. 분위별 소득 분포(소득 5분위배율)

개념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 소득 분포 • 소득 5분위배율=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소득 하위 20% 평균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전국)

(단위: 원, 배)

구분	전국						
	전체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5분위배율
2014	4,344,764	1,488,609	2,811,430	3,927,901	5,223,409	8,262,445	5.55
2015	4,368,108	1,465,467	2,826,397	3,953,294	5,229,384	8,360,541	5.71
2016	4,422,420	1,458,305	2,829,323	3,968,661	5,310,358	8,531,024	5.85
2017_4/4	4,350,796	1,428,536	2,691,846	3,836,796	5,218,994	8,554,637	5.99
2018_4/4	4,621,690	1,382,833	2,718,909	4,022,105	5,578,013	9,399,742	6.80
2019_4/4	4,890,950	1,655,297	3,011,013	4,273,678	5,916,948	9,585,409	5.79
2020_4/4	4,980,155	1,775,622	3,079,645	4,332,115	5,996,725	9,712,654	5.47
2021_4/4	5,319,760	1,839,052	3,186,197	4,492,502	6,242,999	10,831,710	5.89
2022_4/4	5,482,561	1,932,886	3,269,704	4,635,813	6,505,001	11,062,644	5.72
2023_4/4	5,747,455	1,959,665	3,499,240	4,952,292	6,834,723	11,478,837	5.86

- 주: 1) 연도별 전국 집계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 시 유의
2) 2019년 이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 (농림어가 포함)
- 가계동향조사(2019년 이후): 1인가구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포괄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1인 이상 전체 가구(농림어가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표 제공
- 1인 이상 결과표는 '06년부터 소급하여 제공
3) 2018년 이전: 도시 1인 이상 근로자가구 (농림어가 제외)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소득부문 2017~2019년): 가구원 수 1인 이상 비농림어가
4) 5(또는 10)분위별 소득이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또는 10)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금액임. 따라서 구간별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0(또는 10)%임
- 여기서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또는 10)분위임
5) 분기별 소득 자료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동분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함

3. 고용률

개념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산출방법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 및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
2014년	42,795	25,897	60.5	8,612	5,209	60.5	2,403	1,472	61.3	10,179	6,272	61.6
2015년	43,239	26,178	60.5	8,611	5,165	60.0	2,433	1,488	61.1	10,365	6,393	61.7
2016년	43,606	26,409	60.6	8,583	5,146	60.0	2,461	1,520	61.8	10,548	6,504	61.7
2017년	43,931	26,725	60.8	8,557	5,152	60.2	2,485	1,533	61.7	10,760	6,685	62.1
2018년	44,182	26,822	60.7	8,521	5,080	59.6	2,503	1,575	62.9	10,959	6,790	62.0
2019년	44,504	27,123	60.9	8,478	5,086	60.0	2,529	1,581	62.5	11,234	6,952	61.9
2020년	44,785	26,904	60.1	8,516	5,051	59.3	2,544	1,560	61.3	11,456	6,909	60.3
2021년	45,080	27,273	60.5	8,533	5,055	59.2	2,548	1,563	61.3	11,695	7,150	61.1
2022년	45,260	28,089	62.1	8,465	5,113	60.4	2,575	1,614	62.7	11,883	7,597	63.9
2023년	45,407	28,416	62.6	8,469	5,174	61.1	2,623	1,655	63.1	11,961	7,653	64.0

주)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연령별 고용률]

(단위: %)

연도	서울시 연령별 고용률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4년	60.5	8.5	57.0	76.0	77.5	73.6	35.9
2015년	60.0	8.2	57.9	75.6	76.4	73.4	35.4
2016년	60.0	8.5	58.4	75.6	77.9	72.6	35.5
2017년	60.2	9.6	58.1	77.7	76.4	73.3	36.4
2018년	59.6	6.8	59.2	77.2	77.3	72.0	35.2
2019년	60.0	7.6	60.0	78.0	76.3	72.5	36.9
2020년	59.3	6.6	58.1	76.8	76.9	72.3	36.9
2021년	59.2	9.5	61.6	77.3	76.0	72.1	35.1
2022년	60.4	8.7	63.0	80.0	77.4	74.1	35.7
2023년	61.1	6.6	64.1	81.8	78.2	74.1	37.2

4. 실업률

개념	경기의 주기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자료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
2014년	26,836	939	3.5	5,449	240	4.4	1,544	72	4.7	6,488	216	3.3
2015년	27,153	976	3.6	5,391	226	4.2	1,567	79	5.0	6,653	261	3.9
2016년	27,418	1,009	3.7	5,372	226	4.2	1,598	78	4.9	6,767	264	3.9
2017년	27,748	1,023	3.7	5,396	244	4.5	1,607	75	4.6	6,953	269	3.9
2018년	27,895	1,073	3.8	5,335	254	4.8	1,645	70	4.3	7,058	268	3.8
2019년	28,186	1,063	3.8	5,319	233	4.4	1,653	72	4.4	7,226	274	3.8
2020년	28,012	1,108	4.0	5,293	241	4.6	1,634	74	4.6	7,193	285	4.0
2021년	28,310	1,037	3.7	5,312	257	4.8	1,629	66	4.0	7,422	272	3.7
2022년	28,922	833	2.9	5,295	181	3.4	1,670	56	3.3	7,809	211	2.7
2023년	29,203	787	2.7	5,319	146	2.7	1,709	54	3.2	7,860	206	2.6

주: 1)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2)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2014년	3.5	9.0	2.5	2.3	4.4	10.4	3.2	2.8
2015년	3.6	9.1	2.6	2.5	4.2	9.3	3.1	3.2
2016년	3.7	9.8	2.5	2.7	4.2	10.3	2.9	2.8
2017년	3.7	9.8	2.5	2.9	4.5	10.1	3.3	3.6
2018년	3.8	9.5	2.8	3.1	4.8	10.1	3.5	4.0
2019년	3.8	8.9	2.7	3.4	4.4	8.8	3.2	4.3
2020년	4.0	9.0	3.0	3.6	4.6	9.1	3.3	4.7
2021년	3.7	7.8	2.7	3.8	4.8	9.0	3.6	5.1
2022년	2.9	6.4	2.1	2.8	3.4	6.8	2.4	3.6
2023년	2.7	5.9	2.0	2.6	2.7	5.1	2.1	2.6

5. 고용형태

개념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상용고용, 임시고용, 자영업 등), 고용계약 형태, 근무형태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연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고용 종사자
2014년	62.8	14.3	4.8	16.4	1.7	-
2015년	67.9	16.4	4.6	10.4	0.7	-
2016년	72.3	12.7	5.1	9.5	0.5	-
2017년	70.4	12.5	5.0	10.9	1.2	-
2018년	72.9	11.0	5.3	9.8	0.9	-
2019년	69.9	12.8	5.1	10.4	1.1	0.7
2020년	66.7	15.4	4.0	9.7	1.1	3.0
2021년	68.3	14.6	4.3	8.9	0.9	3.0
2022년	67.9	14.2	5.7	10.4	1.0	0.8
2023년	71.0	13.5	4.5	9.2	0.8	1.1

- 주: 1)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워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음
2)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나 일용근로가 아닌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일급, 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5)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고용계약 형태]

(단위: %)

연도	정년이 있는 정규직	무기 계약직	계약직	유급인턴	기타	계
2020년	62.5	21.6	15.1	0.6	0.3	100.0
2021년	61.6	22.5	15.1	0.7	-	100.0
2022년	63.1	25.4	11.3	0.1	0.1	100.0
2023년	66.1	26.6	6.8	0.4	0.1	100.0

[근무형태]

(단위: %)

연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4~8시간 근무	하루 4시간 미만 근무	요일을 정해 근무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근무	계
2020년	84.3	11.4	1.3	1.4	1.6	100.0
2021년	83.3	11.9	1.5	1.4	1.9	100.0
2022년	91.4	6.9	0.8	0.5	0.4	100.0
2023년	89.1	9.1	0.7	0.6	0.4	100

6. 사회보험 가입률

개념	사회보험/보장 관련 통계
산출방법	전체 근로자(특수형태 제외)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비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단위: %)

연도	전국의 전체 근로자 (특수형태 제외)				고용형태별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제외)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산재 보험
2014년	88.5	87.5	87.6	97.5	95.4	97.8	97.6	97.7	63.0	51.2	48.2	96.5
2015년	89.3	88.4	88.7	97.6	95.4	97.9	97.8	98.0	66.7	55.5	52.7	96.4
2016년	90.7	89.7	90.1	98.1	95.7	98.3	98.2	98.3	72.1	59.4	56.7	97.4
2017년	89.1	88.9	89.1	97.6	94.7	98.0	97.8	97.8	68.7	58.1	54.9	96.8
2018년	89.6	89.4	89.7	97.4	94.6	98.1	97.9	97.5	70.8	59.5	56.5	96.7
2019년	90.3	90.9	91.1	97.7	94.4	98.2	98.0	97.8	74.0	64.2	61.0	97.3
2020년	90.3	91.1	91.3	97.8	94.4	98.5	98.3	97.9	74.4	64.9	61.7	97.5
2021년	90.5	91.5	91.7	97.8	94.2	98.5	98.3	97.8	76.1	66.4	63.0	97.6
2022년	91.8	92.5	93.0	98.2	94.6	98.6	98.5	98.1	80.7	70.3	67.5	98.4
2023년	91.7	92.5	92.9	98.1	94.5	98.8	98.6	98.1	81.4	71.7	68.5	98.2

주: 1)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2)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3)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4)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 어업 제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고객을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에 있음

7. 소비자물가지수

개념	가구에서 일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
산출방법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연도별 변화량을 측정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4년	94.196	93.300	93.832	94.038
2015년	94.861	94.470	94.760	94.734
2016년	95.783	95.585	95.571	95.624
2017년	97.645	97.494	97.383	97.545
2018년	99.086	98.799	98.960	98.994
2019년	99.466	99.382	99.222	99.396
2020년	100.00	100.00	100.00	100.00
2021년	102.50	102.10	102.62	102.57
2022년	107.72	106.69	107.96	107.72
2023년	111.59	110.88	111.92	111.55

8. 구직단념자

개념	경기 변화와 고용시장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은 등)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경기 악화 시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수	구직단념자 비율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수	구직단념자 비율
2015년	15,998,317	370,608	2.3	3,255,043	75,923	2.3
2016년	16,038,172	422,073	2.6	3,170,305	71,142	2.2
2017년	16,094,726	411,851	2.6	3,163,247	76,757	2.4
2018년	16,199,406	441,635	2.7	3,227,057	74,796	2.3
2019년	16,227,781	429,805	2.6	3,140,501	65,373	2.1
2020년	16,735,898	577,022	3.4	3,239,254	100,089	3.1
2021년	16,619,992	448,090	2.7	3,226,870	72,105	2.2
2022년	16,192,043	367,247	2.3	3,179,667	52,599	1.7
2023년	16,061,727	348,389	2.2	3,117,553	59,360	1.9

주)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성별 구직단념자]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2015년	204,826	3.7	165,782	1.6	41,320	3.7	34,603	1.6
2016년	246,116	4.5	175,957	1.7	42,197	3.8	28,945	1.4
2017년	230,790	4.1	181,061	1.7	43,705	3.9	33,052	1.6
2018년	243,256	4.3	198,378	1.9	45,417	3.8	29,380	1.4
2019년	239,229	4.1	190,576	1.8	35,092	3.0	30,281	1.5
2020년	305,995	5.1	271,027	2.5	51,671	4.4	48,418	2.4
2021년	253,115	4.2	194,976	1.8	39,393	3.3	32,712	1.6
2022년	205,619	3.5	161,628	1.6	29,469	2.5	23,130	1.1
2023년	183,959	3.1	164,430	1.6	30,776	2.7	28,583	1.5

주)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연령별 구직단념자]

(단위: 명, %)

연도	서울							
	15세~30세 미만		30세~50세 미만		50세~55세 미만		55세 이상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구직단념자 수	비율
2015년	36,121	3.6	22,629	3.3	4,707	2.5	12,465	0.9
2016년	31,649	3.3	22,628	3.3	3,988	2.2	12,878	0.9
2017년	32,054	3.4	27,023	4.3	3,487	2.0	14,194	1.0
2018년	27,033	3.0	24,242	3.9	4,977	2.8	18,544	1.2
2019년	26,594	3.0	23,178	3.8	3,851	2.3	11,750	0.8
2020년	38,299	4.4	32,231	5.1	6,097	3.4	23,462	1.5
2021년	23,824	3.0	26,934	4.5	4,409	2.4	16,938	1.0
2022년	18,050	2.3	19,088	3.5	3,229	1.8	12,231	0.7
2023년	23,468	3.1	19,754	3.9	3,532	2.0	12,606	0.8

주)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9. 청년 니트 비율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NEET: Not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취업’하거나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이들로, 만 15세~29세 서울시 청년의 비경제활동 특성을 조사• 만 15~29세 청년 인구 대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인구를 제외한 청년 비율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NEET): 실업자+기관(학원) 통학자 제외 비경제활동인구(육아+가사+취업준비+진학준비+심신장애+군입대 대기+쉬었음+기타)• 청년 니트 비율: (만15~29세 청년 NEET 인구/만15~29세 청년 인구)×10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단위: 명, %)

연도	서울 청년 (15~29세)								
	15세~29세 청년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NEET	
	규모 (명)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규모 (명)	비율 (%)
2015년	1,914,661	829,121	43.3	68,575	3.6	1,016,965	53.1	257,578	13.5
2016년	1,898,497	857,841	45.2	90,937	4.8	949,719	50.0	259,092	13.6
2017년	1,872,858	849,977	45.4	85,433	4.6	937,448	50.1	247,312	13.2
2018년	1,840,721	840,175	45.6	89,018	4.8	911,528	49.5	250,431	13.6
2019년	1,826,684	889,734	48.7	62,285	3.4	874,665	47.9	225,551	12.3
2020년	1,811,294	856,031	47.3	87,702	4.8	867,561	47.9	279,084	15.4
2021년	1,773,609	895,475	50.5	70,866	4.0	807,268	45.5	244,158	13.8
2022년	1,725,997	867,063	50.2	63,214	3.7	795,720	46.1	214,356	12.4
2023년	1,712,013	902,141	52.7	46,776	2.7	763,096	44.6	192,863	11.3

주)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인구특성별 청년 니트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국 청년 (15~29세)		서울 청년 (15~29세)	
		니트 규모 (명)	니트 비율 (%)	니트 규모 (명)	니트 비율 (%)
2015년		1,330,765	14.2	257,578	13.5
2016년		1,313,815	14.1	259,092	13.6
2017년		1,324,315	14.3	247,312	13.2
2018년		1,330,958	14.6	250,431	13.6
2019년		1,332,282	14.8	225,551	12.3
2020년		1,493,113	16.9	279,084	15.4
2021년		1,293,783	14.9	244,158	13.8
2022년		1,146,862	13.5	214,356	12.4
2023년		1,123,578	13.5	192,863	11.3
성별	남성	569,442	13.6	91,883	11.8
	여성	554,136	13.3	100,980	10.8
연령별	15~19세	88,274	3.9	18,172	5.0
	20~24세	383,334	14.8	66,246	12.6
	25~29세	651,971	18.7	108,445	13.2
학력별	중졸 이하	43,739	2.4	3,357	1.3
	고졸	553,179	15.3	92,322	12.6
	전문대졸 이상	526,660	18.3	97,184	13.6
취업형태	미혼	994,306	12.6	179,667	10.8
	유배우	124,729	31.6	13,017	25.0
	이혼	4,543	36.0	179	17.0
	사별	-	-	-	-

주)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0.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수

개념	노동시장 내 외국인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산출방법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의 비율
출처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 수]

(단위: 명, %)

연도	전체	단순기능인력			전문 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D-4-7)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2-1, F-6)	기타
		소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2017년	296,443	69,250	2,169	67,081	11,025	39,884	94,889	35,143	16,795	29,457
2018년	308,536	72,529	3,101	69,428	9,691	43,585	96,064	35,780	16,493	34,394
2019년	305,002	64,702	1,264	63,438	10,062	51,559	96,147	32,503	17,250	32,779
2020년	303,979	51,904	1,887	50,017	11,248	48,810	102,309	35,742	18,655	35,311
2021년	298,388	38,558	1,556	37,002	10,513	48,905	108,575	38,257	19,532	34,048
2022년	286,684	31,318	1,554	29,764	11,278	51,707	103,560	36,792	18,365	33,664
2023년	285,636	25,849	1,623	24,226	11,944	60,373	99,209	34,408	17,508	36,345

주: 1)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 대상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

(단위: %)

연도	전체	단순기능인력			전문 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D-4-7)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2-1, F-6)	기타
		소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2017년	100.0	23.4	0.7	22.6	3.7	13.5	32.0	11.9	5.7	9.9
2018년	100.0	23.5	1.0	22.5	3.1	14.1	31.1	11.6	5.3	11.1
2019년	100.0	21.2	0.4	20.8	3.3	16.9	31.5	10.7	5.7	10.7
2020년	100.0	17.1	0.6	16.5	3.7	16.1	33.7	11.8	6.1	11.6
2021년	100.0	12.9	0.5	12.4	3.5	16.4	36.4	12.8	6.5	11.4
2022년	100.0	10.9	0.5	10.4	3.9	18.0	36.1	12.8	6.4	11.7
2023년	100.0	9.0	0.6	8.5	4.2	21.1	34.7	12.0	6.1	12.7

주: 1)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 대상

[수도권별 외국인 노동자 비율]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단순기능 인력 비율	전문인력 비율	단순기능 인력 비율	전문인력 비율	단순기능 인력 비율	전문인력 비율	단순기능 인력 비율	전문인력 비율
2018년	36.3	2.9	23.5	3.1	33.2	2.0	44.1	1.6
2019년	34.9	2.9	21.2	3.3	33.1	2.0	43.2	1.8
2020년	31.0	3.0	17.1	3.7	28.4	1.9	37.1	1.9
2021년	25.5	3.0	12.9	3.5	22.8	2.3	31.7	1.6
2022년	23.5	3.2	10.9	3.9	20.7	2.1	29.2	1.9
2023년	24.9	3.2	9.0	4.2	19.5	2.4	29.9	1.9

주: 1)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단순기능인력 :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3) 전문인력 : 전문인력(E-1~E-7)

[서울의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연도	전체	단순기능 인력 (E-9, H-2)	전문 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D-4-7)	재외 동포 (F-4)	영주자 (F-5)	결혼 이민자 (F-2-1, F-6)	기타
2017년	62.5	84.0	96.8	9.9	66.5	75.8	60.3	42.9
2018년	64.9	86.4	98.2	14.4	67.1	80.8	61.3	53.1
2019년	60.1	84.2	98.7	13.3	62.5	77.9	56.2	51.7
2020년	60.5	82.6	94.4	18.4	65.5	70.3	62.1	50.0
2021년	60.6	82.5	97.2	19.4	65.4	73.0	55.5	57.0
2022년	59.5	79.7	97.8	15.2	65.8	74.8	59.7	59.9
2023년	58.4	77.6	100.0	15.4	66.9	76.6	60.0	61.4

주: 1) 동 분석 자료는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2)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3)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5세 이상 인구
4) 단순기능인력 : 비전문취업(E-9) + 방문취업(H-2)
5) 15세 이상 외국인 인구 대상

제3장 도시생활과 주거

제1절 주거

1. 주택보급률

개념	주택의 양적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주택정책의 대표 지표
산출방법	(주택 수/일반가구 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단위: 천 호,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주택 수	보급률	주택 수	보급률	주택 수	보급률	주택 수	보급률
2014년	18,742.1	101.3	3,546	95.1	1,016.7	101.7	4,118.7	98.1
2015년	19,161.2	101.9	3,608	96.0	1,035.2	101.3	4,218.9	98.3
2016년	19,559.1	102.3	3,633	96.0	1,055.4	101.0	4,328.5	98.7
2017년	19,877.1	102.6	3,644	96.3	1,072.9	100.9	4,444.4	99.1
2018년	20,313.4	103.3	3,672	96.3	1,084.2	100.4	4,579.8	99.5
2019년	20,818.0	104.2	3,682	95.9	1,107.8	101.2	4,798.0	101.0
2020년	21,310.1	104.8	3,739	96.0	1,123.3	100.2	4,979.0	101.5
2021년	21,673.5	103.6	3,778	94.9	1,134.8	98.9	5,113.9	100.3
2022년	21,917.2	102.2	3,812	94.2	1,154.3	97.5	5,217.8	98.6
2023년	22,236.9	102.1	3,840	93.7	1,187.8	97.9	5,330.2	98.6

주) 등록센서스 기준

2.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개념	주택 구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방법	평균주택가격/연평균소득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단위: 만 원, 배)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가구 소득	주택 가격	PIR
2014년 4분기	4,710	38,000	8.0	3,811	23,750	6.2	3,914	25,500	6.5
2015년 4분기	5,159	44,000	8.5	3,753	27,000	7.1	4,150	29,500	7.1
2016년 4분기	4,960	46,500	9.3	3,653	25,425	6.9	3,970	29,000	7.3
2017년 4분기	5,095	48,000	9.4	3,348	25,100	7.4	3,858	28,500	7.3
2018년 4분기	4,962	49,000	9.8	3,360	26,500	7.8	3,800	30,155	7.9
2019년 4분기	5,713	65,000	11.3	3,000	20,850	6.9	3,490	24,000	6.8
2020년 4분기	5,589	71,500	12.7	3,772	32,500	8.6	4,314	39,700	9.2
2021년 4분기	6,002	80,625	13.4	4,207	43,000	10.2	4,680	53,450	11.4
2022년 4분기	4,289	57,500	13.4	3,717	37,500	10.0	3,893	42,750	10.9
2023년 4분기	7,813	92,000	11.7	4,705	40,000	8.5	5,298	50,000	9.4

주: 1) 소득대비주택가격 (PIR) = 주택가격/가구 소득
2) 가구 소득: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
3) 주택가격: 분기단위 해당 지역 내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 실행시 조사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
4) 2023년(4분기)의 경우 KB국민은행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서울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11.7배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였음을 의미

출처: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주택구입부담지수]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4년 4분기	54.3	91.9	53.7	63.1
2015년 4분기	56.4	93.7	58.2	64.9
2016년 4분기	58.9	102.4	61.3	68.9
2017년 4분기	61.3	116.7	65.1	71.5
2018년 4분기	56.6	133.3	61.3	67.8
2019년 4분기	50.5	126.6	55.4	61.8
2020년 4분기	57.4	153.4	58.9	76.4
2021년 4분기	83.5	199.2	91.4	113.7
2022년 4분기	81.4	198.6	88.5	107.5
2023년 4분기	64.6	156.0	67.5	84.3

주: 1)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Housing Affordability Index)

-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 (대출상환가능소득/중간가구소득(월)) × 100
= (원리금 상환액/DTI) / 중간가구소득(월) × 100
- 원리금상환액은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균등 상환대출의 매월 상환액
-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
-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됨

-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02.24)의 가계소득 시계열 수치 변경에 따라 과거 시계열 전체 변경 (2011.3월)
 -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월급여액 수치 변경으로 2011.2/4분기 말 K-HAI 수치 조정 (2011.12월)
 -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주택구입능력지수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로 명칭 변경 (2012.1월)
 - 주택가격동향조사가 KB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지수 산출을 위한 주택가격도 '13.1/4분기 시점 이후 지수에 대해서는 KB 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으로 변경 적용 ('14.3월)

- 3) K-HAI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신규 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중간주택가격은 '12년 12월까지의 국민은행의 'KB0파트 시세와 '13년 1월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를, 중간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5·6분위 소득에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급여 총액의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였음

- 4) 지수 수치의 의미: 서울 K-HAI 90.1은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지역의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부담액(소득의 약 25%)의 90.1%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4년	62.5	26.4	69.4	56.4
2015년	61.7	23.8	62.3	54.4
2016년	60.4	20.2	57.8	51.8
2017년	58.7	16.5	52.9	51.3
2018년	62.4	12.8	59.8	56.0
2019년	65.6	13.6	65.2	60.1
2020년	56.9	6.2	60.4	46.2
2021년	44.6	2.7	32.5	26.2
2022년	47.0	3.0	39.7	33.5
2023년	55.0	6.4	52.3	44.4

주: 1) 주택구입물량지수(K-HOI, Housing Opportunity Index)

-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가능한 주택물량 / 전체 주택물량) x 100
-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가구 구입가능 주택 비율로 지역별 주택구입가능물량을 나타내는 지수
- K-HOI는 중위소득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수의 비율(0~100)로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은 중위소득 가구가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100% 구입 가능함을 의미
- 2)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주택구입기회지수에서 주택구입가능물량지수로 명칭 변경(2014.3월)
 - 소득기준은 『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경상소득+비경상소득』으로 소득산출기준 변경(2014.3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순자산 중위값에 순자산 평균값 대비 거주 주택자산 평균 금액 비율(전국 평균)을 자기자본으로 반영 추가(2014.3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매년 11월 공표) 및 한국은행의 신규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기준시점에서부터 2개월 후 공표)의 공표시점으로 인해 주택구입가능물량지수는 매년 3월 공표
 - 고용노동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자료 변경에 따라 2020년 이후 '세종'지역 신규 추가(21.3월)
- 3) K-HOI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신규취급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중간주택가격은 '12년 12월까지의 국민은행의 'KB0파트 시세를, '13년 1월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를, 중간가구소득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5·6분위 소득에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급여 총액의 전국 대비 지역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였음
- 4) 지수 수치의 의미: 서울 K-HOI의 27.4가 의미하는 바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서울 전체 아파트 중에서 27.4%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반대로 코이가 높을수록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구입이 쉽다는 것을 뜻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물량지수

3.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개념	주거비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RIR: Rent to Income Ratio, 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산출방법	•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RIR)=(월 임대료/월 소득)×100 •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HCIR)={(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월 소득}×100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단위: 만 가구, %)

구분		RIR 25% 또는 HCIR 30% 초과 가구		RIR 45% 또는 HCIR 50% 초과 가구	
		가구 수(만 가구)	비율(%)	가구 수(만 가구)	비율(%)
2019년		36.6	17.6	11.8	5.7
2020년		30.0	14.1	11.0	5.2
2021년		31.7	14.7	9.0	8.0
2022년		49.5	22.9	13.7	6.3
권역별	도심권	3.1	6.3	1.1	8.0
	동북권	14.2	28.7	3.6	26.3
	서북권	6.1	12.3	1.7	12.4
	서남권	13.5	27.3	3.9	28.5
	동남권	12.6	25.5	3.3	24.1
연령별	20대 이하	12.2	24.5	3.5	25.7
	30대	8.4	16.9	1.1	8.1
	40대	7.3	14.8	1.3	9.5
	50대	6.9	14.0	2.1	15.5
	60대	6.3	12.8	2.2	15.9
	70대 이상	8.5	17.1	3.5	25.2

주) 2023년 비조사

4.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개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서울시에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공공임대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출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단위: 호, 천 호, %)

연도	공공임대주택(호)			주택 수 (천 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계 (SH+LH)	SH공사	LH공사		
2013년	215,530	155,049	60,481	3,546,400	6.1
2014년	231,884	165,043	66,841	3,607,600	6.4
2015년	246,098	174,399	71,699	3,633,000	6.8
2016년	258,634	184,753	73,881	3,644,100	7.1
2017년	271,253	189,704	81,549	3,671,500	7.4
2018년	294,227	206,740	87,487	3,682,400	8.0
2019년	320,502	220,974	99,528	3,738,600	8.6
2020년	346,949	239,661	107,288	3,778,400	9.2
2021년	369,908	254,556	115,352	3,811,900	9.7
2022년	388,745	268,957	119,788	3,839,800	10.1
2023년	407,219	282,187	125,032	-	-

주: 1) 주택 수: 등록센서스 기준
2) 2023년 전체 주택 수 데이터 미공개(2024.10.31. 기준)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단위: 호, %)

구분		계 (SH+LH)	비율	SH공사	LH공사
2023년		407,219	100.0	282,187	125,032
구 별	종로구	3,739	0.9	2,298	1,441
	중구	5,664	1.4	5,033	631
	용산구	5,693	1.4	4,027	1,666
	성동구	12,069	3.0	10,754	1,315
	광진구	7,656	1.9	3,722	3,934
	동대문구	15,379	3.8	10,471	4,908
	종량구	18,845	4.6	11,609	7,236
	성북구	17,360	4.3	12,888	4,472
	강북구	17,059	4.2	7,584	9,475
	도봉구	9,756	2.4	5,368	4,388
	노원구	30,929	7.6	19,795	11,134
	은평구	23,445	5.8	17,475	5,970
	서대문구	12,209	3.0	9,407	2,802
	마포구	18,375	4.5	15,211	3,164
	양천구	19,622	4.8	15,286	4,336
	강서구	40,466	9.9	24,804	15,662
	구로구	18,313	4.5	13,295	5,018
	금천구	10,870	2.7	7,603	3,267
	영등포구	8,477	2.1	5,583	2,894
	동작구	11,277	2.8	7,837	3,440
	관악구	18,685	4.6	9,758	8,927
	서초구	13,559	3.3	9,991	3,568
	강남구	19,856	4.9	12,789	7,067
	송파구	22,000	5.4	17,973	4,027
	강동구	25,916	6.4	21,626	4,290

5.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중

개념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노후주택 비중이 커질수록 주택개량, 정비사업 등의 정책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
산출방법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수/전체 주택 수×100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단위: 호, %)

연도	전국			서울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2015년	16,367,006	2,669,226	16.3	2,793,244	373,416	13.4
2016년	16,692,230	2,804,707	16.8	2,830,857	416,145	14.7
2017년	17,122,573	2,889,416	16.9	2,866,845	428,331	14.9
2018년	17,633,327	3,084,267	17.5	2,894,078	508,928	17.6
2019년	18,126,954	3,291,159	18.2	2,953,964	551,001	18.7
2020년	18,525,844	3,596,661	19.4	3,015,371	588,320	19.5
2021년	18,811,627	3,974,580	21.1	3,068,494	650,005	21.2
2022년	19,155,585	4,492,064	23.5	3,111,323	732,831	23.6
2023년	19,546,299	5,044,681	25.8	3,155,331	820,267	26.0

(단위: 호, %)

2023년		전체 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
구 별	종로구	47,025	15,977	34.0
	중구	44,191	9,239	20.9
	용산구	77,734	25,029	32.2
	성동구	91,252	17,561	19.2
	광진구	95,286	22,130	23.2
	동대문구	110,169	22,516	20.4
	종량구	119,961	23,805	19.8
	성북구	143,240	25,463	17.8
	강북구	100,418	32,058	31.9
	도봉구	109,465	44,591	40.7
	노원구	192,926	99,028	51.3
	은평구	165,462	30,579	18.5
	서대문구	106,640	25,105	23.5
	마포구	129,421	25,520	19.7
	양천구	147,619	51,797	35.1
	강서구	203,887	38,610	18.9
	구로구	137,863	29,436	21.4
	금천구	72,901	18,168	24.9
	영등포구	114,173	34,814	30.5
	동작구	122,058	26,210	21.5
	관악구	130,244	33,258	25.5
	서초구	136,528	29,209	21.4
	강남구	184,608	58,670	31.8
	송파구	221,082	55,482	25.1
	강동구	151,178	26,012	17.2

6. 주거환경 만족도

개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4년		11.4	36.3	52.3	6.13
2015년		10.9	36.2	52.8	6.16
2016년		10.9	36.1	53.1	6.17
2017년		11.0	38.6	50.5	6.19
2018년		12.6	33.2	54.2	6.24
2019년		9.4	33.2	57.4	6.39
2020년		11.2	30.8	58.0	6.36
2021년		9.9	32.3	57.7	6.41
2022년		3.2	20.8	76.0	7.20
2023년		3.5	26.7	69.8	6.89
권역별	도심권	7.7	29.9	62.4	6.59
	동북권	2.4	27.4	70.2	6.87
	서북권	2.1	24.0	73.9	7.06
	서남권	5.0	27.7	67.3	6.74
	동남권	2.5	24.6	73.0	7.12

주: 1) 가구주의 상하수도, 주택, 전기, 녹지 등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7. 1인당 주거면적

개념	주거수준 관련 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늘어나갈 필요 있음
산출방법	1인당 주거면적(㎡)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단위: ㎡)

연도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5년	68.4	62.0	65.8	70.4	26.9	24.8	24.7	26.1
2016년	69.0	62.2	66.2	70.9	27.3	25.0	25.1	26.4
2017년	69.4	62.3	66.6	71.2	27.9	25.4	25.6	26.9
2018년	70.0	62.0	67.6	72.0	28.5	25.8	26.3	27.6
2019년	70.4	61.9	67.7	72.2	29.2	26.3	26.9	28.2
2020년	70.1	61.5	67.6	72.0	29.7	26.6	27.5	28.7
2021년	69.9	61.1	67.4	71.6	30.3	27.2	28.2	29.1
2022년	69.9	60.8	67.6	71.4	30.9	27.6	28.7	29.7
2023년	70.0	60.7	68.0	71.8	31.4	27.9	29.4	30.2

(단위: ㎡)

2023년		가구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구 별	종로구	66.3	32.5
	중구	57.8	29.3
	용산구	69.2	33.8
	성동구	60.4	28
	광진구	54.9	26.8
	동대문구	56.2	27.1
	중랑구	55.2	25.7
	성북구	62.3	27.8
	강북구	56.1	26.6
	도봉구	62.2	27.3
	노원구	59.5	25.6
	은평구	60.2	26.8
	서대문구	61.2	28.6
	마포구	57.8	27.9
	양천구	65.9	26.8
	강서구	55.1	25.9
	구로구	61.8	27.5
	금천구	53.1	26.6
	영등포구	61.9	29.9
	동작구	59.5	28.2
	관악구	44.9	25.1
	서초구	80.1	33.2
	강남구	75.3	32.7
	송파구	66.2	28.4
	강동구	60.4	26.1

8. 평균 거주기간

개념	해당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 서울 거주기간 • 현재 주택 거주기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서울 총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2014년		5.3	15.6	25.5	25.2	17.7	10.6	30.7
2015년		5.1	18.1	28.6	26.5	14.9	6.9	29.0
2016년		12.0	17.5	27.9	24.0	12.3	6.2	26.3
2017년		6.9	15.4	24.8	24.4	16.7	11.7	30.4
2018년		6.7	14.3	23.8	24.2	18.2	12.8	31.3
2019년		7.0	14.6	22.8	22.7	18.2	14.7	31.5
2020년		10.7	15.1	20.0	20.5	17.5	16.2	30.7
2021년		11.3	15.8	20.2	19.3	17.6	15.9	30.4
2022년		8.1	14.9	22.5	20.4	17.8	16.4	31.6
2023년		9.1	16.5	20.8	22.3	17	14.5	30.5
권역별	도심권	11.3	17.1	20.8	19.8	15.9	15.0	29.7
	동북권	6.3	16.2	20.1	23.3	18.8	15.3	32.0
	서북권	11.2	16.1	19.6	20.7	17.5	14.9	30.0
	서남권	10.6	15.9	21.8	21.9	16.0	13.9	29.8
	동남권	9.2	17.8	21.0	22.7	15.8	13.6	29.9

[현재 주소 거주기간]

(단위: %, 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년)
2014년		67.8	24.0	6.1	1.6	0.4	0.1	7.8
2015년		71.7	22.3	4.5	1.1	0.3	0.1	7.2
2016년		74.0	20.8	3.8	0.9	0.4	0.1	6.7
2017년		65.5	24.6	7.3	1.9	0.6	0.2	8.1
2018년		64.1	26.6	6.9	1.7	0.5	0.2	8.3
2019년		64.1	25.9	7.0	2.2	0.7	0.2	8.4
2020년		66.4	23.9	7.0	1.9	0.6	0.2	8.0
2021년		63.0	25.2	8.4	2.5	0.7	0.3	8.7
2022년		67.7	23.6	6.7	1.7	0.3	0.1	7.9
2023년		69.0	24.5	4.9	1.1	0.3	0.1	7.5
권역별	도심권	68.5	24.2	5.6	1.1	0.2	0.4	7.6
	동북권	70.3	25.5	3.2	0.7	0.2	0.1	7.4
	서북권	72.2	22.1	4.4	1.0	0.2	0.1	7.0
	서남권	64.3	24.8	8.0	2.2	0.6	0.1	8.3
	동남권	72.1	24.1	3.2	0.4	0.1	0.2	6.9

제2절 스마트도시 역량

1. 스마트도시 서비스 역량

개념	스마트도시 수준 파악 및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
산출방법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도입 여부, 전체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스마트 공공주차장, 시민 참여 시스템 존재 유무,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구분	도입 여부	서비스 내용	제공시스템	유관 기관
도로위험상황 안내서비스	○	사고, 공사, 통제 등	- 교통종합정보 (topis.seoul.go.kr) 모바일앱, VMS -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경찰청

주) 교통사고, 공사, 통제 등 도로위험상황 발생 시 안내 및 우회도로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도입

원자료: 1) 교통종합정보: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https://topis.seoul.go.kr/>)

2)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실시간 돌발 정보(2016.8.17. 공개)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3315/A/1/datasetView.do>)

[스마트 공공주차장 주차면 비율]

(단위: 면, %)

구분	전체 주차장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장 비율
	계	공영	민간		
2021년 5월	76,590	76,590	-	35,834	46.8
2023년 9월	80,498	80,498	-	42,778	53.1
2024년 9월	77,594	77,594	-	44,925	57.9

원자료)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http://parking.seoul.go.kr/>)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현황

[시민 참여 시스템]

(단위: 건, 명)

연도	명칭	내용	사이트	참여수(건, 명)
2013년	'13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460 (건, 명)
2014년	'14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533 (건, 명)
2015년	'15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593 (건, 명)
2016년	'16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979 (건, 명)
2017년	'17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432 (건, 명)
2018년	'18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288 (건, 명)
2019년	'19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3,511 (건, 명)
2020년	'20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2,923 (건, 명)
2021년	'21년 참여예산	참여예산 제안건수	yesan.seoul.go.kr	1,996 (건)
2022년	서울런	멘토서비스	slearn.seoul.go.kr/front/mainView.do	17,640 (명)
2021년- 2022년	서울시 여론조사	여론조사	research.seoul.go.kr	108 (건)
	엠보팅	전자투표	mvoting.seoul.go.kr	634,824 (명)
	내 손안에 서울	시민 기자 뉴스	mediahub.seoul.go.kr	4,340 (건)
	상상대로 서울	시민 제안	idea.seoul.go.kr	3,963 (건)
2023년	시 대표 SNS	시민정책참여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official/)	451,424 (명)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kr)	394,768 (명)
			엑스구 트위터 (twitter.com/seoulmania)	276,230 (명)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seoul)	196,110 (명)
	응답소 민원 수	민원접수 및 처리	eungdapso.seoul.go.kr	4,590 (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 발굴	yesan.seoul.go.kr/intro/index.do	626 (건)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 활용 참여	data.seoul.go.kr/dataVisual/gallery/galleryList.do	924 (건)
	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 신고	smartreport.seoul.go.kr	5,816,749 (건)
2024년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 발굴	yesan.seoul.go.kr/intro/index.do	1,004 (건)

주) 시민이 서울시 예산사업을 직접 발굴·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시스템 운영
원자료)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ICT 기반 사회적 약자 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명(가구))

구분	서비스명	주요대상	수혜자 수 (수혜가구 수)	소관부서	비고
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827	데이터센터	'24.1.~'24.9.
2	시각장애인 소비재 정보 음성변환시스템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518,464	장애인 자립지원과	'24.1.~'24.9.
3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위험가구	4,035	고독대응과	'24.9월 말
4	AI 안부확인 서비스	고독사 위험가구	17,847	고독대응과	'24.9월 말
5	스마트기술 활용 집중돌봄 사업(반려로봇)	정서취약 어르신	744	고독대응과	'24.9월 말
6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보급	안전취약 어르신	13,070	고독대응과	'24.9월 말
7	사랑의 PC 보급	장애인,저소득층 등	2,310	정보통신과	'24.1.~'24.9.

주) 2024년 9월 기준

2. 스마트도시 제도 기반

개념	스마트도시에 대한 수준 진단
산출방법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 스마트도시 조례 여부,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출처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관련 자료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연도	계획명	수립일
2016년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2016~2020)	2016. 1.
2018년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기본계획 (2018~2022)	2018. 7.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2018~2022)	2018. 8.
2019년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0~2022)	2019. 8.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2020~2022)	2019. 10.
2021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2021~2025)	2021. 12
2022년	제4차(2023~20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2022. 8.
2023년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기본계획(2023~202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4년~26년)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2025)	-

주: 1) 스마트도시 또는 관련 계획이 아닌 지자체 발전방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
2) 관련 계획: 디지털, 정보통신, 데이터 등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비율]

(단위: 백만 원, %)

연도	서울시 총예산	스마트서울 예산 (본청·사업소)	스마트서울 예산 비율
2012년	21,782,900	126,151	0.58
2013년	23,506,900	149,109	0.63
2014년	24,413,332	158,293	0.65
2015년	25,518,445	200,503	0.79
2016년	27,503,758	207,593	0.75
2017년	29,801,117	198,516	0.67
2018년	31,814,065	236,439	0.74
2019년	35,741,608	404,367	1.13
2020년	39,535,900	463,898	1.17
2021년	40,156,200	437,888	1.09
2022년	44,219,049	485,942	1.10
2023년	47,190,512	490,477	1.04

원자료)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각 연도

[스마트도시 조례]

연도	조례명	제정일	담당부서	스마트도시 관련성
198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1980.7.25.	건축기획과	스마트 건축, 스마트 기술
1996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1996.5.20.	기후환경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2002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2002.1.5.	경제정책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2004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004.9.24.	경제정책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2009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9.11.11.	대기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2010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0.1.7.	기후환경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2010.3.2.	녹색에너지과	지속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2010.9.30.	대기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201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1.7.28.	전략산업기반과	스마트도시 조성
2013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13.3.28.	전략산업기반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201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014.1.9.	건축기획과	스마트도시 환경 분야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2014.10.20.	창의행정담당관	도시문제 해결 연구기관 설립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5.14.	사회협력과	사회문제 해결 위한 시설 설립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4.7.17.	현장대응단	스마트도시 안전 분야
201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15.1.12.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10.8.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스마트 인프라 설치 운영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8.	뷰티패션산업과	스마트기기 활용 등 디지털화

연도	조례명	제정일	담당부서	스마트도시 관련성
20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1.7.	디지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 업무 위한 기관 설립 운영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2016.1.7.	관광정책과	스마트관광산업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6.1.7.	생활환경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3.24.	빅데이터담당관	데이터 기반 도시 문제 해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016.7.14	대기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2016.7.14.	미래첨단교통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9.29.	디지털정책담당관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2017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7.1.5.	평가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7.13.	경제정책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2018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1.4.	캠퍼스타운 활성화과	도시재생 관련 캠퍼스타운 조성
201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1.3.	대기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2019.3.28.	디지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 조성 전반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7.18.	전략산업기반과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 지원
202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1.12.30.	보행자전거과	스마트도시 안전 분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3.25.	재난상황관리과	스마트도시 안전 분야
202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022.10.17.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 사업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택시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022.7.11.	기후환경정책과	스마트도시 환경 에너지 분야

주) 2024년 9월 기준

3. AI 수용성

개념	시민들의 AI활용역량과 AI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 AI 활용성 역량 조사(10점 척도) • AI 사회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역량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주) 2024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신규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5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제3절 스마트도시 격차

1. 접근성 격차

개념	스마트도시에서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접근성 격차 지표
산출방법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수준(100점)-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
출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서울 시민]

(단위: 점, %)

연도	디지털 접근 역량		1)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2)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90.1	100.0	93.5	100.0	86.8	100.0
2019년	92.4	100.0	94.1	100.0	90.6	100.0
2020년	92.0	100.0	95.2	100.0	88.8	100.0
2021년	93.3	100.0	99.2	100.0	87.3	100.0
2022년	90.8	100.0	99.5	100.0	82.1	100.0
2023년	88.0	100.0	99.0	100.0	77.0	100.0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 접근 역량 조사 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정보취약계층: 고령층]

(단위: 점, %)

연도	디지털 접근 역량		1)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2)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70.7	78.5	79.0	84.5	62.5	72.0
2019년	79.1	85.6	82.9	88.1	75.3	83.1
2020년	78.5	85.3	84.9	89.2	72.1	81.2
2021년	87.1	93.4	97.6	98.4	76.7	87.9
2022년	86.0	94.7	99.6	100.1	72.4	88.2
2023년	86.2	98.0	100.0	101.0	72.4	94.1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 접근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 접근 역량 조사 부문: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인터넷 장비 보유 여부

2. 활용성 격차

개념	스마트도시에서의 디지털 포용을 나타내는 정보화 활용 격차 지표
산출방법	서울 시민의 디지털 활용수준(100점)-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
출처	서울시 데이터전략과,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의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재계산

[서울 시민]

(단위: 점, %)

연도	디지털정보화 활용 역량		1) 인터넷 이용률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3)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82.8	100.0	91.3	100.0	85.2	100.0	61.0	100.0
2019년	84.6	100.0	93.5	100.0	88.3	100.0	59.4	100.0
2020년	81.9	100.0	92.1	100.0	82.9	100.0	59.6	100.0
2021년	85.4	100.0	93.4	100.0	88.2	100.0	63.5	100.0
2022년	87.4	100.0	95.1	100.0	91.3	100.0	64.4	100.0
2023년	83.7	100.0	94.6	100.0	86.5	100.0	56.1	100.0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활동

[정보취약계층: 고령층]

(단위: 점, %)

연도	디지털정보화 활용 역량		1) 인터넷 이용률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3)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점수 (점)	접근 수준 (%)
2018년	59.9	72.3	70.9	77.7	62.3	73.1	33.1	54.3
2019년	65.7	77.7	78.7	84.2	68.2	77.2	34.6	58.2
2020년	64.8	79.1	76.1	82.6	62.9	75.9	46.2	77.5
2021년	72.3	84.7	82.2	88.0	76.3	86.5	44.5	70.1
2022년	75.9	86.8	87.5	92.0	77.6	85.0	49.4	76.7
2023년	72.7	86.9	87.4	92.4	75.2	86.9	38.5	68.6

주: 1) 서울 시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기준
2) 디지털정보화 활용 조사 부문: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검색,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사회적 관계 이용률, 생활서비스 이용률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활동

3. SNS 이용 현황

개념	서울시민의 SNS 이용 시간, SNS 이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SNS 이용 시간(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와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SNS 하루 평균 이용 빈도]

(단위: %, 회)

구분		SNS 이용함	하루 이용 빈도							하루 평균 (회)
			1회 미만	1-2회 미만	2-3회 미만	3-5회 미만	5-10회 미만	10-20회 미만	20회 이상	
2020년		79.7	21.8	7.8	11.1	16.9	17.4	18.5	6.5	5.4회
2021년		81.1	20.4	10.7	10.6	15.8	18.7	17.0	6.8	6.2회
2022년		81.8	22.6	7.6	11.8	15.0	14.8	16.8	11.5	7.1회
2023년		87.0	30.5	11.7	4.8	10.1	17.8	16.9	8.2	5.9회
연령별	20대 이하	94.3	25.4	10.0	2.7	10.6	20.8	21.7	8.8	6.2회
	30대	93.6	29.0	12.3	5.3	11.2	18.5	14.7	8.9	6.1회
	40대	90.6	28.6	13.4	4.6	10.0	16.8	18.7	7.9	5.9회
	50대	86.8	31.7	12.7	5.5	9.6	15.6	15.3	9.6	6.7회
	60세 이상	75.5	36.8	10.9	6.0	9.4	16.6	13.9	6.4	4.7회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분)

구분		하루 이용 시간						하루 평균 (분)
		5분 미만	5-15분 미만	15-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020년		17.9	14.5	15.5	23.1	15.4	13.6	65.5분
2021년		18.5	18.8	18.2	19.3	13.8	11.4	61.6분
2022년		19.4	17.6	17.3	18.7	14.3	12.6	93.9분
2023년		26.9	13.7	10.5	16.2	14.4	18.2	98.0분
연령별	20대 이하	19.2	10.5	8.3	18.6	19.9	23.4	130.1분
	30대	24.5	12.5	11.2	16.5	14.5	20.8	103.7분
	40대	24.7	14.4	11.6	18.5	11.9	18.9	103.7분
	50대	29.8	14.3	10.0	15.8	15.2	14.9	73.1분
	60세 이상	35.5	16.8	11.7	12.4	10.2	13.4	77.7분

[SNS 사용에 대한 견해]

(단위: 10점 만점)

구분		SNS 긍정적 견해			SNS 부정적 견해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	SNS를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SNS의 사용은 정치사회문제 참여도를 높인다	SNS로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을 받는다	내가 SNS에 게시한 글, 사소한 태만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신경 쓰인다
2020년		6.21	5.73	5.41	6.16	5.26
2021년		6.44	5.67	5.20	5.69	5.23
2022년		6.53	5.97	5.20	5.45	5.19
2023년		7.12	5.82	5.71	6.96	5.89
연령별	20대 이하	7.93	6.07	5.92	7.60	6.33
	30대	7.62	5.53	5.57	7.60	6.13
	40대	7.02	5.58	5.65	7.22	6.03
	50대	6.76	5.85	5.70	6.68	5.61
	60세 이상	6.41	5.94	5.67	6.01	5.42

주)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작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평균(점)	그렇다(%)	평균(점)	그렇다(%)	평균(점)
2020년		35.2	3.88	25.5	3.31	30.1	3.62
2021년		29.7	3.64	22.2	3.00	29.1	3.39
2022년		23.0	3.05	21.9	2.72	25.0	2.85
2023년		36.6	3.97	16.8	2.60	27.8	3.41
연령별	20대 이하	41.3	4.25	19.3	2.69	42.6	4.29
	30대	46.8	4.71	20.8	2.93	36.8	4.04
	40대	46.3	4.72	24.5	3.30	31.0	3.82
	50대	34.7	3.93	12.9	2.56	17.5	2.96
	60세 이상	22.3	2.89	10.5	1.95	15.4	2.40

주: 1) 그렇다: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2) 10점 평균 환산 값: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제4장 건강과 보건

제1절 건강한 삶

1. 기대수명

개념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및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0세의 기대여명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유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통계청, 생명표(전국)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전국의 기대수명]

(단위: 년)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13년	81.4	78.1	84.6
2014년	81.8	78.6	85.0
2015년	82.1	79.0	85.2
2016년	82.4	79.3	85.4
2017년	82.7	79.7	85.7
2018년	82.7	79.7	85.7
2019년	83.3	80.3	86.3
2020년	83.5	80.5	86.5
2021년	83.6	80.6	86.6
2022년	82.7	79.9	85.6

주: 1) 기대여명(전체):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2) 2016.12.2일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출처) 통계청, 생명표_간이생명표

[전국의 건강한 기대수명]

(단위: 년)

연도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년	65.7	65.0	66.5	66.1	66.6	65.8
2014년	65.2	64.7	65.7	67.5	67.7	67.5
2016년	64.9	64.7	65.2	68.5	68.8	68.4
2018년	64.4	64.0	64.9	69.0	69.1	69.0
2020년	66.3	65.6	67.2	71.0	70.7	71.3
2022년	65.8	65.1	66.6	72.2	71.6	73.0

출처) 통계청, 생명표_건강수준별 기대여명(2년 주기)

[서울시 기대수명]

(단위: 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년		81.5	78.9	84.2
2014년		81.8	79.2	84.4
2015년		82.0	79.6	84.6
2016년		82.3	79.9	84.8
2017년		82.6	80.2	85.0
2018년		82.8	80.4	85.2
2019년		83.0	80.7	85.4
2020년		83.1	80.9	85.5
2021년		83.2	81.0	85.5
2022년		83.2	80.9	85.5
구 별	종로구	82.8	80.3	85.3
	중구	82.7	79.9	85.7
	용산구	83.0	80.4	85.6
	성동구	83.1	80.8	85.5
	광진구	83.4	81.1	85.8
	동대문구	82.5	79.7	85.4
	중랑구	82.3	79.8	84.9
	성북구	83.2	80.8	85.6
	강북구	81.9	79.4	84.5
	도봉구	82.9	80.8	85.0
	노원구	82.8	80.4	85.1
	은평구	82.8	80.4	85.2
	서대문구	82.9	80.6	85.2
	마포구	83.5	81.1	85.7
	양천구	83.5	81.6	85.5
	강서구	82.7	80.3	85.1
	구로구	83.0	80.7	85.4
	금천구	82.1	79.6	84.8
	영등포구	83.1	80.6	85.8
	동작구	83.8	81.7	85.9
	관악구	82.7	80.2	85.3
	서초구	84.8	83.2	86.3
	강남구	84.4	83.0	85.8
	송파구	84.2	82.4	86.1
	강동구	83.4	81.4	85.5

주: 1)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 '0세의 기대여명
2) 출생 시 기대여명은 3년 이동합계 평균값임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서울시 자치구 간 기대수명 격차]

(단위: 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치구 간 격차	2.8	2.8	2.9	2.8	2.9	2.9	2.6	2.7	2.7	2.9

주) 자치구 간 격차: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자치구 - 0세 기준 기대여명이 가장 낮은 자치구

출처)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2. 주관적 건강수준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p)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46.2	47.5	46.9	48.1	45.8	44.5	60.2	52.9	54.5	53.7
구 별	종로구	43.3	51.6	48.7	49.3	46.4	38.0	69.7	51.4	54.4	47.3
	중구	44.9	44.0	47.3	50.9	42.4	52.8	69.2	59.7	62.1	63.6
	용산구	53.5	56.8	55.1	55.5	55.1	59.9	71.6	54.6	62.7	58.9
	성동구	45.7	48.7	42.9	50.1	40.2	39.9	65.3	52.6	54.4	58.4
	광진구	64.2	48.2	42.6	49.5	46.0	45.3	60.4	54.1	54.4	52.9
	동대문구	45.7	47.4	45.8	41.9	35.8	39.4	59.7	43.6	50.3	45.8
	중랑구	44.9	43.7	41.0	42.5	45.7	40.2	54.6	47.2	49.8	45.8
	성북구	46.8	48.6	45.0	44.0	41.1	38.3	54.9	46.3	53.2	46.9
	강북구	41.0	48.0	43.0	38.6	40.4	42.1	59.6	48.1	56.7	54.5
	도봉구	41.9	45.3	38.9	40.5	34.1	40.5	55.2	46.7	53.1	47.6
	노원구	42.6	48.8	46.5	43.7	41.0	41.7	65.3	59.9	54.7	52.3
	은평구	48.6	48.8	43.7	45.7	38.6	38.9	54.5	60.6	65.7	54.3
	서대문구	45.3	49.7	54.3	52.7	52.5	46.9	65.3	52.0	45.1	45.2
	마포구	41.9	47.0	49.9	42.2	59.7	40.1	67.7	59.2	51.0	54.5
	양천구	46.7	51.1	48.6	47.9	47.2	47.2	63.2	52.0	57.0	59.3
	강서구	43.4	43.1	46.5	40.8	34.1	43.9	57.2	55.5	49.0	48.5
	구로구	44.1	43.6	41.1	42.4	44.9	38.9	55.5	49.4	48.6	54.4
	금천구	42.4	38.7	42.5	42.3	46.2	41.9	53.6	40.3	46.7	47.6
	영등포구	46.1	50.6	52.1	54.0	50.8	44.6	49.4	47.2	46.2	55.5
	동작구	43.3	41.6	48.8	45.7	32.0	49.7	61.6	54.8	63.0	59.3
	관악구	43.2	45.1	41.8	55.8	48.6	40.3	60.7	52.3	60.5	59.3
	서초구	49.0	51.4	50.3	52.4	54.6	61.7	69.0	58.8	53.6	57.6
	강남구	50.5	48.7	54.3	56.3	42.8	48.0	61.1	58.3	60.2	57.9
	송파구	47.9	50.6	53.4	59.6	63.2	47.3	61.3	52.5	54.7	57.0
	강동구	44.8	48.5	44.8	52.0	55.6	51.8	56.4	55.4	56.0	54.9
자치구 간 격차		23.2	18.1	16.2	21.0	31.2	23.7	22.2	20.3	20.6	18.4

주: 1) 양호함(%): 좋음 + 매우 좋음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3) 자치구 간 격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

3. 우울감 경험률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우울감 경험률을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p)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8.1	7.8	6.9	7.1	4.9	6.5	6.3	6.8	7.1	8.3
구 별	종로구	8.5	10.0	6.8	5.4	5.6	3.4	4.9	5.5	9.0	7.9
	중구	8.3	11.1	7.2	5.0	3.2	2.1	3.1	8.6	7.4	7.1
	용산구	9.4	4.5	5.6	5.6	1.9	2.3	2.7	6.9	3.9	7.2
	성동구	9.3	4.5	7.4	5.1	6.1	7.9	4.8	8.6	6.9	7.4
	광진구	7.6	10.9	9.4	9.9	6.2	6.8	7.6	7.7	8.0	10.4
	동대문구	9.2	7.6	7.5	8.1	2.2	8.7	4.5	3.4	3.1	5.0
	중랑구	10.6	10.1	8.2	9.9	6.1	8.1	8.1	4.3	6.6	8.2
	성북구	7.5	6.1	6.9	7.9	7.3	7.3	8.0	7.9	7.1	8.6
	강북구	9.4	7.1	7.4	8.6	5.5	6.3	6.9	5.6	4.5	8.8
	도봉구	6.4	9.0	8.6	6.4	6.0	4.5	5.8	7.3	7.5	11.0
	노원구	5.3	3.6	5.3	5.0	6.3	6.5	4.8	6.7	6.2	9.6
	은평구	9.0	6.9	7.9	7.5	7.0	8.2	7.7	8.1	3.3	6.4
	서대문구	9.7	8.7	5.3	4.6	2.5	6.5	3.9	11.4	9.7	10.4
	마포구	8.3	11.5	5.2	6.7	2.6	7.7	6.2	4.8	10.6	8.8
	양천구	5.6	6.5	6.6	6.1	3.4	6.5	5.7	5.8	8.1	5.9
	강서구	7.1	5.9	4.5	7.0	3.6	5.4	6.8	8.3	6.6	8.5
	구로구	6.6	7.8	5.2	5.9	5.0	5.3	5.5	4.7	6.4	7.3
	금천구	7.3	6.4	4.2	4.9	5.1	7.3	8.2	11.7	11.3	6.8
	영등포구	8.6	6.5	6.7	5.1	3.0	8.2	5.6	7.2	7.4	5.7
	동작구	6.3	9.7	10.3	7.7	10.6	4.3	5.9	5.4	5.0	7.6
	관악구	8.4	8.5	6.2	7.3	3.9	7.1	4.3	4.2	8.2	9.2
	서초구	9.8	9.0	8.3	7.9	5.0	6.7	6.9	6.0	7.3	7.5
	강남구	7.2	8.5	4.4	7.6	5.4	6.6	9.7	7.2	7.7	8.7
	송파구	9.3	8.6	9.3	7.2	2.5	6.1	7.5	8.2	9.1	10.0
	강동구	10.5	9.1	8.2	10.7	6.2	6.6	5.7	6.3	6.9	8.9
자치구 간 격차		5.3	7.9	6.1	6.1	8.7	6.6	7.0	8.3	8.2	6.0

주: 1)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2) 자치구 간 격차: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

4. 자살률

개념	정신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지표
산출방법	• 자살률=(자살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명 • 연령별 자살률=(특정연령의 자살 사망자 수/특정연령의 연앙인구) ×100,000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자살 사망자 수(명)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4년		2,467	1,705	762	24.7	34.7	15.1
2015년		2,301	1,566	735	23.2	32.1	14.6
2016년		2,261	1,567	694	23.0	32.5	13.9
2017년		2,067	1,462	605	21.3	30.7	12.2
2018년		2,172	1,475	697	22.5	31.3	14.2
2019년		2,151	1,438	713	22.5	30.8	14.5
2020년		2,161	1,409	752	22.7	30.3	15.4
2021년		2,133	1,402	731	22.6	30.5	15.0
2022년		2,009	1,313	696	21.4	28.9	14.4
2023년		2,163	1,411	752	23.2	31.2	15.6
연령 별	0~14세	15	7	8	1.7	1.5	1.9
	15~19세	36	23	13	9.4	11.8	7.0
	20~24세	92	46	46	16.3	17.3	15.4
	25~29세	169	92	77	21.1	23.9	18.5
	30~34세	191	110	81	25.0	28.7	21.2
	35~39세	153	102	51	23.4	31.3	15.6
	40~44세	170	104	66	23.4	28.8	18.0
	45~49세	158	108	50	22.8	31.6	14.2
	50~54세	210	137	73	26.7	35.3	18.3
	55~59세	182	133	49	26.5	39.6	13.9
	60~64세	192	144	48	27.3	42.9	13.1
	65~69세	147	99	48	25.0	36.0	15.3
	70~74세	124	89	35	30.3	47.3	15.8
	75~79세	123	78	45	39.5	56.4	26.1
	80~84세	110	82	28	49.4	86.9	21.8
	85~89세	66	43	23	62.7	114.4	34.0
	90세 이상	25	14	11	56.1	120.9	33.4

[자치구별]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자살 사망자수 (명)			자살률 (10만 명당 명)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023년		2,163	1,411	752	23.2	31.2	15.6
구 별	종로구	34	20	14	24.5	29.9	19.5
	중구	35	25	10	29.4	43.3	16.3
	용산구	46	29	17	21.7	28.4	15.4
	성동구	64	44	20	23.1	32.7	14.0
	광진구	91	64	27	27.2	39.8	15.6
	동대문구	84	62	22	25.0	37.5	12.8
	중랑구	104	69	35	27.3	36.9	18.0
	성북구	95	58	37	22.3	28.4	16.7
	강북구	72	46	26	24.9	32.9	17.5
	도봉구	85	58	27	27.7	38.9	17.1
	노원구	120	73	47	24.1	30.5	18.1
	은평구	107	72	35	23.1	32.6	14.4
	서대문구	67	43	24	22.1	29.8	15.1
	마포구	78	40	38	21.6	23.7	19.8
	양천구	97	63	34	22.3	29.6	15.2
	강서구	119	70	49	21.1	25.9	16.7
	구로구	86	59	27	21.9	30.7	13.5
	금천구	62	49	13	27.3	42.9	11.5
	영등포구	68	50	18	18.3	27.4	9.5
	동작구	74	49	25	19.6	26.9	12.8
	관악구	141	95	46	29.3	39.3	19.2
	서초구	67	48	19	16.7	25.1	9.0
	강남구	128	69	59	24.2	27.2	21.3
	송파구	124	77	47	19.0	24.6	13.9
	강동구	115	79	36	25.2	35.4	15.4

5. 비만율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비만율을 확인하는 지표 비만율(BMI)은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
산출방법	체질량지수(kg/m 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p)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23.6	24.5	25.5	25.5	28.6	28.5	29.2	30.2	28.8
자치구	종로구	23.9	24.2	25.9	25.3	32.5	28.9	26.3	27.1	32.1
	중구	25.7	23.4	25.1	24.0	26.1	25.4	28.2	25.1	24.8
	용산구	24.5	24.6	23.1	25.7	24.0	24.6	26.0	28.2	26.6
	성동구	23.9	24.0	26.2	26.4	29.3	28.7	26.5	28.3	26.9
	광진구	21.0	24.7	26.6	25.2	30.4	24.5	28.5	31.6	30.5
	동대문구	26.1	24.8	27.0	26.8	29.4	30.5	31.2	30.5	29.4
	종량구	27.8	25.1	27.9	30.7	34.1	31.8	31.3	35.5	32.7
	성북구	24.4	24.5	27.7	22.9	32.2	27.0	28.1	31.9	28.4
	강북구	23.4	29.5	28.9	29.1	29.3	31.2	32.1	33.3	33.2
	도봉구	23.5	25.6	27.9	27.9	27.5	36.0	34.6	33.1	30.4
	노원구	25.3	23.9	26.5	27.1	30.4	31.7	29.6	29.1	29.2
	은평구	22.8	24.1	27.3	27.5	33.6	27.7	30.4	30.7	31.1
	서대문구	24.2	23.5	23.0	26.1	28.3	27.2	33.8	30.6	29.3
	마포구	23.0	25.0	22.9	22.4	25.6	27.7	26.6	29.7	28.7
	양천구	21.6	22.8	25.7	25.3	29.1	28.9	33.6	30.8	30.7
	강서구	23.7	24.5	25.7	25.3	30.7	31.2	30.6	29.0	29.2
	구로구	26.4	25.1	28.9	27.7	30.3	28.7	28.2	32.5	30.6
	금천구	25.4	29.9	26.8	28.7	28.2	29.6	35.6	33.6	31.6
	영등포구	21.4	26.5	24.4	26.5	29.2	28.0	27.9	29.6	24.5
	동작구	20.7	25.6	21.5	25.0	27.4	28.9	29.6	31.0	26.1
	관악구	27.0	24.1	26.0	25.0	26.1	25.5	29.8	30.7	28.7
	서초구	22.3	23.0	21.6	24.3	24.1	24.7	24.4	26.8	24.4
	강남구	17.7	22.8	20.9	23.1	24.1	26.3	23.9	26.8	27.5
	송파구	22.5	23.5	21.2	21.6	25.1	26.7	28.1	28.8	24.9
	강동구	24.9	23.4	31.3	24.6	29.6	32.0	27.9	30.0	33.9
자치구 간 격차		10.1	7.1	10.4	9.1	10.1	11.5	11.7	10.4	9.5

주: 1) 2018년 연도비교 및 해석 시 주의

- 2018년: 자가보고 키/몸무게 설문 시 신체계측을 병행하여 실시

- 2008-2017년, 2020년: 자가보고 키/몸무게만 설문

2) 2019년 조사시 자가보고 키/몸무게를 설문하지 않음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

3)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4) 자치구 간 격차: 비만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 비만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

6. 생활체육활동 참여 현황

개념	서울시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 파악
산출방법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규칙적 체육 활동	주3회 미만			주3회 이상		
				한 달에 3번 이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매일
2023년		37.9	62.1	8.5	14.1	14.0	14.7	8.8	2.0
성 별	남성	33.7	66.3	9.1	15.5	15.4	15.7	8.7	1.8
	여성	41.7	58.3	8.1	12.7	12.8	13.8	8.8	2.2
연 령 단 위	10대	54.0	46.0	16.6	12.9	6.9	7.3	1.9	0.4
	20대	33.6	66.4	8.7	17.4	15.1	16.8	6.6	1.8
	30대	35.2	64.8	7.7	14.9	16.8	15.8	8.1	1.6
	40대	35.5	64.5	9.5	14.5	13.6	15.2	10.3	1.4
	50대	35.6	64.4	8.0	14.6	14.1	16.7	9.1	1.9
	60세 이상	41.9	58.1	7.4	11.4	13.2	12.8	10.3	3.0
학 력 단 위	중학교 이하	46.5	53.5	7.2	9.0	12.9	11.3	9.4	3.7
	고등학교	43.5	56.5	9.6	13.2	11.8	11.8	8.1	2.0
	전문대/대학교	33.8	66.2	8.2	15.5	15.2	16.7	9.0	1.6
	대학원 이상	20.7	79.3	12.8	10.9	24.0	18.1	8.4	5.1
소 득 단 위	200만원 미만	49.4	50.6	5.8	9.4	12.8	10.1	9.5	3.0
	200~300만원 미만	43.5	56.5	8.1	13.8	13.0	10.8	8.0	2.7
	300~400만원 미만	38.8	61.2	6.9	14.1	14.5	15.4	8.1	2.1
	400~500만원 미만	36.7	63.3	9.1	15.1	15.3	13.4	8.1	2.2
	500만원 이상	34.5	65.5	9.5	14.6	14.0	16.6	9.2	1.6
직 업 단 위	관리전문직	30.7	69.3	9.1	13.2	17.7	18.5	8.5	2.3
	화이트칼라	34.4	65.6	8.1	15.8	15.4	17.2	7.6	1.5
	블루칼라	42.3	57.7	7.8	14.6	14.8	12.0	7.0	1.6
	학생	42.3	57.7	14.0	15.3	11.1	10.7	4.9	1.6
	무직	46.5	53.5	7.5	7.4	10.3	11.2	13.4	3.7
	기타	37.0	63.0	7.4	11.8	11.7	14.8	14.2	3.1

[자치구별 규칙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규칙적 체육 활동	주3회 미만			주3회 이상		
				한 달에 3번 이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이상	매일
2023년		37.9	62.1	8.5	14.1	14.0	14.7	8.8	2.0
구 별	종로구	29.6	70.4	9.8	23.6	23.8	8.4	2.2	2.7
	중구	41.1	58.9	6.8	11.8	12.2	17.7	9.5	1.0
	용산구	38.2	61.8	11.3	10.3	15.2	12.5	9.2	3.3
	성동구	45.2	54.8	13.1	16.9	10.8	9.2	3.0	1.8
	광진구	37.3	62.7	8.9	17.3	20.1	10.6	5.2	0.7
	동대문구	40.8	59.2	9.1	12.9	13.8	13.8	9.1	0.5
	종량구	41.2	58.8	9.3	14.3	15.7	11.3	7.0	1.1
	성북구	30.5	69.5	5.1	7.6	17.7	23.4	12.1	3.6
	강북구	37.6	62.4	8.5	9.2	13.9	14.1	12.8	3.9
	도봉구	37.8	62.2	5.7	24.0	13.8	14.9	3.8	0.0
	노원구	52.2	47.8	6.0	10.5	8.8	10.1	12.1	0.4
	은평구	28.9	71.1	8.0	27.0	17.8	12.6	3.2	2.5
	서대문구	33.5	66.5	4.3	21.2	16.7	14.8	5.6	3.9
	마포구	34.5	65.5	14.0	6.9	11.4	17.8	9.7	5.7
	양천구	17.9	82.1	7.0	6.5	3.5	41.2	23.9	0.0
	강서구	44.7	55.3	17.1	10.3	10.1	7.9	7.3	2.5
	구로구	30.5	69.5	4.9	14.7	18.6	14.7	13.0	3.8
	금천구	52.6	47.4	3.3	10.7	15.5	7.0	5.3	5.5
	영등포구	33.4	66.6	8.7	23.3	16.3	11.7	5.8	0.9
	동작구	39.5	60.5	11.0	13.5	15.3	12.3	7.2	1.1
	관악구	45.2	54.8	8.4	12.1	15.4	11.4	6.8	0.7
	서초구	47.3	52.7	5.2	11.7	11.5	12.5	10.6	1.1
	강남구	33.0	67.0	10.4	17.1	13.3	14.9	10.0	1.3
	송파구	36.1	63.9	8.7	10.0	16.0	17.9	8.4	2.9
	강동구	39.6	60.4	5.2	16.3	12.1	16.9	8.6	1.3

[이용하는 체육시설]

(단위: %)

구분		이용 안함	체력 단련 장	간이 운동 장	수영 장	골프 연습 장	볼링 장	당구 장	축구 장	스크린골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장	농구장	야구장	기타
2023년		43.3	21.2	18.7	7.2	5.2	3.9	3.5	2.7	2.5	2.0	1.8	1.7	1.2	1.2	1.0	5.1
성별	남성	38.4	24.5	17.3	5.4	7.0	4.1	6.0	4.7	3.8	2.2	1.8	2.1	1.8	1.8	1.5	5.3
	여성	47.9	18.1	20.0	8.8	3.4	3.7	1.2	0.8	1.3	1.8	1.8	1.3	0.6	0.6	0.5	4.9
연령별	10대	54.5	10.2	10.8	5.2	0.0	5.2	2.3	8.7	0.1	5.1	3.1	3.6	0.2	8.6	1.7	8.3
	20대	41.6	29.2	11.9	7.1	1.9	6.2	4.6	4.8	1.1	2.0	2.0	2.2	0.3	3.1	1.4	6.6
	30대	39.2	30.8	12.4	8.0	4.7	5.1	4.6	3.1	2.6	1.9	1.6	2.1	0.9	0.8	1.2	4.6
	40대	39.5	24.4	17.5	8.0	8.0	4.3	4.0	1.9	4.1	1.7	1.7	1.7	2.2	0.4	1.0	4.9
	50대	40.4	20.3	20.6	7.7	8.9	3.7	3.8	2.0	4.5	2.4	2.0	1.9	1.7	0.2	1.0	4.9
	60세 이상	48.7	11.6	27.1	6.2	4.1	1.6	2.0	1.1	1.6	1.4	1.6	0.8	1.2	0.2	0.4	4.3
	총평균	26.0	45.3	16.2	6.8	6.2	1.6	1.1	0.2	1.3	0.5	0.2	1.6	0.0	0.0	0.3	4.5
구별	중구	44.8	21.3	17.4	7.7	4.4	0.3	2.7	4.4	0.2	0.8	2.2	1.9	0.1	1.2	0.1	1.6
	용산구	37.7	17.6	22.6	6.8	5.5	4.7	3.3	3.5	1.7	1.1	2.6	2.2	2.3	1.6	0.9	8.7
	성동구	47.3	13.7	13.9	11.4	10.4	12.5	5.5	0.6	1.6	2.4	1.9	2.5	0.4	1.1	2.6	12.8
	광진구	37.0	30.6	17.1	6.5	2.5	2.6	2.4	3.4	2.3	1.6	0.5	2.3	1.1	0.9	0.7	5.2
	동대문구	39.1	25.5	23.4	5.2	5.5	3.4	3.4	3.1	2.1	2.0	1.2	1.4	0.4	0.7	0.3	4.6
	종로구	44.4	24.4	21.8	3.2	3.5	2.5	3.1	3.1	1.8	1.4	0.2	1.6	0.4	1.2	0.3	3.8
	성북구	30.3	25.6	25.9	10.3	5.9	10.2	6.0	1.6	0.2	1.3	4.8	3.3	0.4	0.6	1.9	4.2
	강북구	51.1	19.4	10.1	3.6	2.5	2.4	2.0	1.0	5.3	1.6	0.6	2.5	0.2	1.1	0.0	9.8
	도봉구	36.4	15.2	28.6	5.8	2.3	0.5	3.3	5.7	0.2	3.9	3.4	1.4	0.1	3.2	0.1	2.5
	노원구	54.6	18.5	21.5	3.3	2.3	1.0	2.7	1.7	2.6	0.6	1.5	1.1	0.3	0.4	0.3	1.8
	은평구	46.0	20.3	20.1	6.3	4.2	4.5	2.4	2.3	0.9	1.4	1.1	1.1	0.4	1.2	1.3	2.6
	서대문구	39.0	19.9	28.2	7.5	4.8	4.0	1.1	2.7	2.6	2.3	0.5	3.2	1.9	1.3	1.0	1.7
	마포구	34.9	20.3	24.7	10.0	7.2	6.6	5.7	2.1	3.7	1.5	1.7	1.9	1.5	1.3	0.5	11.5
	양천구	38.3	21.8	3.8	19.9	0.7	0.4	5.7	5.4	0.3	1.0	0.5	0.5	2.4	1.8	0.6	2.9
	강서구	46.2	18.1	26.3	3.2	3.2	2.0	1.9	1.9	1.7	2.0	0.9	2.0	0.9	1.1	0.4	2.4
	구로구	37.3	28.3	21.2	5.7	3.8	3.0	2.6	5.6	2.9	2.2	1.2	1.0	1.8	2.4	0.3	4.0
	금천구	59.5	14.9	11.6	3.4	1.4	5.0	2.6	1.0	1.7	0.9	1.4	0.5	0.2	0.0	0.2	2.9
	영등포구	43.1	24.6	9.5	18.3	7.6	7.5	3.3	1.9	2.0	6.1	7.3	1.6	1.3	1.7	9.9	21.7
	동작구	40.3	23.3	29.9	1.9	1.6	4.4	4.7	1.0	1.2	3.1	2.7	0.7	0.5	1.1	0.4	3.3
	관악구	55.5	13.8	4.6	6.6	3.8	4.6	5.4	3.2	2.8	1.2	1.4	1.5	0.4	1.2	0.2	4.5
	서초구	46.0	17.4	13.9	10.6	9.9	2.6	4.7	1.4	2.1	1.0	2.2	0.2	2.7	0.2	0.5	3.0
	강남구	39.1	20.5	14.4	7.1	15.2	5.7	4.9	5.0	7.6	3.4	1.6	4.5	3.9	2.0	0.4	8.2
	송파구	42.7	25.7	24.3	6.1	4.3	2.3	3.0	1.4	2.7	1.7	1.5	0.9	1.0	0.9	0.5	3.3
	강동구	52.0	14.9	13.1	3.7	9.1	3.0	2.2	3.0	7.4	3.1	2.6	1.6	3.7	0.8	0.2	1.5

7.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

개념	서울시 및 자치구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추정하여, 보건 및 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최근 1년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비율
출처	서울시,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

[식품 보장 수준]

(단위: %)

구분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식품 보장 수준			
			양적, 질적 모두 보장 상태	양적 보장, 질적 미보장 상태	양적, 질적 모두 미보장 상태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한 양의 식품(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음식)을 먹지 못했다	가끔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자주 먹을 것을 충분하게 못 먹었다.
2020년		94.4	76.6	17.8	4.4	1.2
2021년		93.8	77.6	16.2	4.9	1.3
2022년		89.5	74.5	15.0	8.5	2.1
2023년		89.8	61.2	28.6	8.0	2.2
연령 별	20대 이하	92.5	66.6	25.9	6.0	1.5
	30대	89.3	60.3	29.0	9.5	1.2
	40대	94.2	70.5	23.7	4.3	1.6
	50대	93.5	64.3	29.2	4.2	2.4
	60대	86.6	58.1	28.5	10.2	3.2
	70대 이상	76.0	34.3	41.7	19.2	4.7
가구 별	1인 가구	85.1	51.0	34.1	12.8	2.0
	다인가구	91.4	64.6	26.8	6.4	2.3
소득 별	200만원 미만	74.4	22.1	52.3	22.6	2.9
	200~350만원 미만	85.0	57.6	27.4	8.7	6.2
	350~500만원 미만	89.9	61.0	28.9	8.6	1.5
	500~700만원 미만	94.4	67.0	27.4	5.4	0.3
	700만원 이상	97.3	77.5	19.8	2.4	0.4
직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94.5	71.9	22.6	5.0	0.6
	서비스/판매직	89.2	60.1	29.1	7.2	3.6
	기능/노무직	87.5	48.0	39.5	8.5	4.0
	학생	91.6	55.4	36.2	8.3	0.0
	주부	87.8	60.4	27.4	11.1	1.1
	무직/기타	63.6	21.9	41.7	26.5	9.8

[먹거리 부족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식품을 구매하 거나 조리할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주변에 원하는 종류의 식품이 없어서	조리를 할 줄 몰라서	식품을 구매할 돈이 충분 하지 않아서	건강 상의 이유로 조리를 할 수 없어서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식사조절 (식단관 리)이 필요해서	식료품점 까지 가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해서	식료품점 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다이 어트 중잉 라서
2023년		52.7	25.4	20.1	16.5	10.6	10.5	10.0	8.9	3.9
연령 별	20대 이하	62.8	22.1	34.8	18.5	5.4	1.7	8.4	5.6	9.0
	30대	64.7	25.4	20.5	9.9	6.1	8.7	9.7	8.7	5.7
	40대	61.0	27.8	15.2	9.5	4.4	11.8	7.4	12.0	1.6
	50대	55.0	27.5	9.7	8.5	5.6	12.5	8.6	10.9	4.4
	60대	42.4	31.0	20.0	12.3	14.2	12.7	8.4	9.3	2.2
	70대 이상	32.7	16.0	19.9	43.5	27.6	15.9	18.0	7.3	0.0
가구 별	1인 가구	53.5	18.6	26.2	25.0	15.4	7.6	9.3	6.6	7.5
	다인가구	52.4	28.4	17.3	12.6	8.5	11.9	10.2	10.0	2.2
소득 별	200만원 미만	41.3	16.2	20.7	43.7	25.8	13.8	12.3	6.0	4.2
	200~350만원 미만	51.2	15.4	25.8	14.5	9.5	8.4	15.7	10.5	1.7
	350~500만원 미만	58.0	29.7	18.2	9.0	8.5	8.7	4.4	9.6	7.0
	500~700만원 미만	58.4	34.5	20.9	8.1	4.2	11.8	8.9	9.2	4.2
	700만원 이상	55.9	38.6	9.3	3.0	2.7	10.9	5.3	8.7	1.7
직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60.8	26.7	18.9	7.7	6.0	8.4	10.1	10.2	5.8
	서비스/판매직	56.0	25.3	18.0	6.7	4.4	10.5	11.4	8.4	3.9
	기능/노무직	43.9	22.2	40.5	18.7	23.5	6.3	2.8	8.6	0.6
	학생	74.4	23.1	20.1	39.8	0.0	0.8	1.0	0.8	10.8
	주부	34.6	31.9	5.9	25.6	16.1	19.9	13.9	11.0	2.3
	무직/기타	43.1	18.1	19.9	38.9	24.1	16.8	17.6	10.3	0.0

주: 1) 2023년 문항 변경

2)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먹지 못한 응답자 대상

[먹거리 불안 경험]

(단위: %)

구분		먹을 음식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음	다양하지 않은 종류의 음식만을 먹음	끼니를 걸러야만 했음	필요한 양만큼 먹지 못 함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있음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음	하루종일 굶었던 적이 있음
2023년		13.2	27.3	37.9	16.0	11.6	5.3	5.9	5.4
연령 별	20대 이하	9.2	28.0	32.8	20.7	17.6	5.8	4.9	9.2
	30대	11.1	25.9	37.0	14.6	7.4	5.8	6.1	6.6
	40대	9.4	19.2	32.9	13.4	7.6	3.8	8.2	3.7
	50대	9.6	22.4	36.5	15.1	10.0	5.1	5.8	4.5
	60대	18.5	27.1	39.6	15.4	13.9	6.5	5.1	4.5
	70대 이상	28.6	56.1	60.6	16.8	12.9	4.3	5.2	1.7
가구 별	1인 가구	20.1	35.1	41.3	18.5	14.1	9.6	6.2	6.6
	다인가구	10.9	24.8	36.8	15.1	10.8	3.9	5.8	5.0
소득 별	200만원 미만	29.8	61.6	64.5	14.8	14.0	6.4	5.1	2.4
	200~350만원 미만	20.7	31.3	38.4	19.5	18.2	10.1	7.6	6.8
	350~500만원 미만	12.8	28.7	40.3	20.8	14.6	6.4	5.7	5.1
	500~700만원 미만	8.1	25.8	34.9	13.1	7.9	2.8	5.7	6.6
	700만원 이상	3.3	7.6	26.1	10.9	4.4	1.4	4.8	4.1
직업 별	관리/전문/사무직	7.4	19.9	29.6	15.4	9.3	4.3	5.7	6.0
	서비스/판매직	16.8	26.5	35.9	16.7	11.4	6.1	7.6	5.5
	기능/노무직	12.3	31.7	43.1	15.8	13.7	3.7	3.7	3.6
	학생	12.6	33.1	45.4	23.4	17.1	5.7	7.5	11.1
	주부	16.1	31.9	45.2	12.3	11.8	6.6	3.5	2.8
	무직/기타	31.6	61.9	74.9	17.0	18.7	8.6	7.0	3.5

제2절 지역보건

1. 감염병 환자 수

개념	지역건강과 관련되는 지표
산출방법	서울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감염병) 발생 신고 수
출처	질병관리청·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단위: 건, 명)

연도	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발생 신고 수	사망자 수
2020년	36,121	514	18,996	183	15,002	317	2,123	14
2021년	223,344	2,087	206,204	1,748	15,226	332	1,914	7
2022년	5,454,221	4,613	-	-	5,452,530	4,604	1,691	9

- 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중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 2) 옴폭스: 2022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신규 지정
- 3)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변경 사항(2020년 1월 1일 시행)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4) 재·개정 이유: 질환의 특성별로 분류한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제로 개편
- 5) 감염병 분류 체계: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균보균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1급: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중후군,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CRE) 감염증)
- 3급: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종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자카바이러스 감염증)
- 6) 환자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하며, 2020년 환자 발생이 신고된 감염병만 제시함
- 2020년 신종감염병중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로 신고지 기준이며 잠정통계로 추후 변동 가능

[자치구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022년	5,454,221	4,613	-	-	5,452,530	4,604	1,691	9
구 별	종로구	112,824	13	-	112,792	13	32	-
	중구	129,141	3	-	129,104	3	37	-
	용산구	112,008	8	-	111,936	8	72	-
	성동구	168,696	12	-	168,636	11	60	1
	광진구	193,852	23	-	193,797	23	55	-
	동대문구	186,108	13	-	186,043	12	65	1
	중랑구	193,818	12	-	193,746	12	72	-
	성북구	217,666	18	-	217,601	17	65	1
	강북구	154,422	13	-	154,342	12	80	1
	도봉구	160,835	11	-	160,792	11	43	-
	노원구	267,828	18	-	267,763	17	65	1
	은평구	252,191	31	-	252,123	30	68	1
	서대문구	168,984	80	-	168,948	80	36	-
	마포구	221,687	7	-	221,633	7	54	-
	양천구	245,870	5	-	245,814	5	56	-
	강서구	313,981	19	-	313,890	19	91	-
	구로구	236,740	31	-	236,633	31	107	-
	금천구	138,830	10	-	138,767	9	63	1
	영등포구	250,882	17	-	250,774	16	108	1
	동작구	201,510	12	-	201,439	11	71	1
	관악구	252,572	7	-	252,464	7	108	-
	서초구	252,348	34	-	252,293	34	55	-
	강남구	371,730	27	-	371,645	27	85	-
	송파구	387,758	13	-	387,673	13	85	-
	강동구	261,940	16	-	261,882	16	58	-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 (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단위: 건, 명)

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¹⁾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결핵		수두	C형간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발생
2020년		18,996	183	5,143	100	3,486	207	3,870	1,723
2021년		206,204	1,748	6,459	105	3,067	224	2,832	1,553
2022년		5,436,707	4,160	9,153	239	2,756	201	2,426	1,285
구 별	종로구	112,226	...	448	12	49	1	35	27
	중구	128,876	...	124	-	53	3	32	32
	용산구	111,691	...	73	-	85	8	47	52
	성동구	168,244	...	216	2	73	9	56	52
	광진구	193,323	...	248	14	112	9	87	40
	동대문구	185,533	...	239	1	128	10	79	56
	종랑구	193,257	...	185	1	126	11	109	60
	성북구	216,778	...	523	5	123	12	110	54
	강북구	154,070	...	47	-	98	12	79	59
	도봉구	160,509	...	72	-	77	10	80	31
	노원구	267,027	...	388	6	155	11	113	43
	은평구	251,346	...	453	19	127	11	125	47
	서대문구	167,685	...	1,023	71	77	9	107	26
	마포구	221,338	...	5	-	96	7	101	46
	양천구	245,201	...	318	-	119	4	114	43
	강서구	313,327	...	180	7	167	12	128	64
	구로구	235,649	...	639	24	166	7	112	96
	금천구	138,537	...	48	-	105	9	48	51
	영등포구	249,860	...	614	4	168	12	83	93
	동작구	201,032	...	173	6	99	5	78	52
	관악구	252,079	...	87	2	152	5	79	71
	서초구	251,673	...	417	28	62	6	88	29
	강남구	370,782	...	545	21	71	6	149	62
	송파구	385,811	...	1,441	7	142	6	199	63
	강동구	260,853	...	647	9	126	6	188	36

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2021년 1급 신종감염병증후군(COVID-19)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22.4.5.)' 따라 2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변경됨

2) ...: 미상자료

2. 미충족의료 경험률

개념	건강격차를 확인하는 지표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p)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11.7	11.9	12.0	10.0	7.6	5.3	4.8	4.4	3.8	4.4
종로구	13.6	11.9	8.0	7.3	9.6	3.7	6.9	4.5	8.6	4.8
중구	12.3	12.8	12.8	5.7	7.9	2.7	3.0	3.2	3.6	2.3
용산구	9.6	6.4	10.5	8.0	3.7	0.9	1.7	3.0	1.9	3.9
성동구	17.9	14.0	17.0	15.7	13.8	6.1	5.2	3.5	2.9	2.8
광진구	7.2	16.5	11.1	8.5	9.3	6.2	4.9	6.5	4.7	4.1
동대문구	7.8	5.5	7.9	10.3	3.3	6.6	1.9	2.6	0.4	1.5
종랑구	8.7	14.6	11.8	12.5	8.0	7.9	7.7	2.9	1.5	5.7
성북구	14.9	14.0	14.1	12.6	13.0	5.0	5.8	5.8	2.8	5.5
강북구	11.8	14.7	8.6	12.4	7.9	5.2	3.3	3.6	3.1	4.9
도봉구	11.7	10.8	9.3	11.2	9.8	7.6	4.2	9.4	4.5	4.6
노원구	10.7	6.9	4.4	7.3	4.6	3.9	3.5	2.6	2.8	8.1
은평구	9.1	10.8	12.6	11.4	8.0	6.0	6.7	6.9	4.7	4.0
서대문구	12.4	12.3	12.7	11.0	4.9	3.0	2.6	4.9	8.9	11.7
마포구	10.6	10.9	11.1	9.8	4.6	3.9	5.6	1.7	3.1	2.2
양천구	10.6	9.9	13.8	9.6	6.2	6.1	3.2	4.9	4.5	1.8
강서구	16.9	15.7	16.5	11.1	7.0	6.4	5.4	3.2	3.5	3.3
구로구	13.0	13.9	10.7	12.4	7.1	5.4	2.3	3.6	5.4	4.5
금천구	13.7	17.4	16.0	16.0	16.7	13.0	8.3	7.1	5.7	5.9
영등포구	9.0	10.5	9.4	9.0	3.5	4.6	12.9	4.6	3.6	3.7
동작구	12.3	11.5	19.5	8.7	14.6	4.7	4.2	3.3	2.4	5.7
관악구	9.4	9.8	11.5	7.1	6.8	6.3	3.4	2.8	3.3	4.5
서초구	11.1	8.4	9.8	9.5	6.7	2.6	4.5	4.0	3.0	2.2
강남구	12.2	12.7	11.4	9.7	8.6	3.3	6.7	5.2	2.7	3.3
송파구	12.9	12.4	12.7	5.2	3.9	6.3	3.0	6.3	5.2	4.4
강동구	12.1	12.2	14.9	10.6	7.2	5.9	4.4	4.3	4.4	4.0
자치구 간 격차	10.7	11.9	15.1	10.8	13.4	12.1	11.2	7.7	8.5	10.2

주: 1) 미충족의료 이유: 시간이 없어서, 증세가 가벼워서, 경제적 이유, 교통 불편,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진료받기가 무서워서, 기타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3) 자치구 간 격차: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 미충족의료 경험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

3.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개념	병상자원에 대한 적정 수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적정 관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총 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단위: 개, 명, 개/인구 10만 명)

구분		병상 수	주민등록인구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014년		88,509	10,369,593	853.5
2015년		84,919	10,297,138	824.7
2016년		86,420	10,204,057	846.9
2017년		86,925	10,124,579	858.6
2018년		86,566	10,049,607	861.4
2019년		88,059	10,010,983	879.6
2020년		89,744	9,911,088	905.5
2021년		91,765	9,736,027	942.5
2022년		92,577	9,667,669	957.6
2023년		90,338	9,638,799	937.2
구 별	종로구	3,741	150,453	2,486.5
	중구	992	131,793	752.7
	용산구	863	227,106	380.0
	성동구	1,830	284,766	642.6
	광진구	2,580	351,180	734.7
	동대문구	5,349	359,873	1,486.4
	종랑구	3,349	387,470	864.3
	성북구	3,604	438,168	822.5
	강북구	2,310	292,977	788.5
	도봉구	2,564	309,494	828.4
	노원구	3,461	502,925	688.2
	은평구	3,546	470,869	753.1
	서대문구	4,114	320,629	1,283.1
	마포구	1,032	375,162	275.1
	양천구	2,888	439,252	657.5
	강서구	5,152	568,826	905.7
	구로구	4,776	415,651	1,149.0
	금천구	2,125	241,105	881.4
	영등포구	5,520	397,800	1,387.6
	동작구	2,483	389,714	637.1
	관악구	2,280	497,883	457.9
	서초구	3,834	412,078	930.4
	강남구	8,559	550,282	1,555.4
	송파구	7,179	660,025	1,087.7
	강동구	6,207	463,318	1,339.7

주: 1) 매년 4/4분기 기준
 2)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인구 포함

4. 보건기관 이용률

개념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이용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서울시	20.9	21.5	19.6	18.4	18.6	18.6	19.8	37.1
종로구	23.3	23.9	15.3	20.1	19.2	18.8	26.3	51.2
중구	23.7	18.9	17.7	21.7	21.3	18.6	21.1	41.0
용산구	25.1	20.7	22.6	16.8	19.6	17.9	22.6	44.9
성동구	20.1	19.8	23.9	16.3	19.2	17.1	18.1	37.6
광진구	24.7	20.5	15.2	16.8	16.9	19.0	17.6	49.5
동대문구	19.4	15.9	18.9	18.3	19.5	21.0	21.3	39.3
종랑구	21.2	23.4	19.4	20.8	20.0	19.7	20.8	26.5
성북구	25.8	26.5	22.7	22.0	20.3	20.3	21.1	36.8
강북구	24.3	27.9	23.4	24.9	21.2	20.9	21.7	44.7
도봉구	17.8	21.9	25.1	24.4	21.8	21.3	26.0	65.4
노원구	21.9	22.6	15.8	15.5	18.8	19.6	20.3	50.5
은평구	23.5	22.7	21.3	18.8	21.9	17.4	21.4	44.1
서대문구	20.2	27.1	20.8	19.2	20.0	22.0	19.1	56.7
마포구	15.7	20.9	17.9	15.9	16.8	17.1	16.6	39.8
양천구	19.9	23.0	16.6	20.5	20.4	20.6	21.3	11.9
강서구	21.6	21.3	21.7	19.4	16.8	21.3	15.6	26.1
구로구	17.7	20.5	24.2	16.9	20.6	15.3	16.1	24.9
금천구	20.9	20.0	21.2	20.1	20.5	20.4	23.6	11.0
영등포구	16.3	18.5	17.8	17.9	17.9	14.3	20.2	44.9
동작구	20.3	19.7	15.7	16.9	19.0	18.6	20.7	30.6
관악구	19.9	20.4	21.7	16.7	16.0	18.3	21.4	28.5
서초구	18.6	18.7	17.3	16.8	17.5	15.1	16.6	36.1
강남구	17.1	17.1	15.9	13.9	13.9	14.2	13.3	28.3
송파구	22.4	24.2	19.9	17.7	20.3	19.5	21.9	40.4
강동구	23.3	20.6	19.9	19.3	15.4	18.2	21.7	40.1

주: 1) 2009년 신규 도입 후 2019년까지 매년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 2021년 일시 중단 후 2022년 조사 재개
2) 표준화율: 연도 및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결과

5. 치매유병률

개념	지역연계모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산출방법	추정치매유병률=(추정치매환자 수/노인인구 수)×100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유병현황

(단위: 명, %)

연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노인인구수	치매환자 수	치매유병률
2015년	1,751,289	106,475	6.08	1,201,412	103,186	8.59
2016년	1,827,309	112,456	6.15	1,237,366	108,940	8.80
2017년	1,903,090	119,817	6.30	1,283,754	116,132	9.05
2018년	1,981,401	127,519	6.44	1,339,176	123,699	9.24
2019년	2,064,957	135,181	6.55	1,396,110	131,204	9.40
2020년	2,158,167	143,574	6.65	1,468,916	139,480	9.50
2021년	2,243,671	151,772	6.76	1,540,884	147,595	9.58
2022년	2,317,875	160,699	6.93	1,608,995	156,478	9.73
2023년	2,385,807	170,366	7.14	1,682,571	166,167	9.88

주: 1) 노인인구수: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15~2023)
2) 2022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제5장 안전과 재난

제1절 자연재난

1. 풍수해·폭설 피해

개념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 강수일수 및 눈일수
출처	•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강수일수 및 눈일수]

(단위: 일)

연도	강수일수	눈일수	합계
2014년	101	27	128
2015년	104	19	123
2016년	109	21	130
2017년	102	29	131
2018년	104	24	128
2019년	98	24	122
2020년	106	21	127
2021년	117	24	141
2022년	104	31	135
2023년	109	25	134

[풍수해 피해]

(단위: 명, 세대, 천 원)

연도	사망 및 실종자 수	이재민	주택침수 세대	풍수해 피해액				
				계	건물	공공시설	농경지	사유시설
2013년	1	176	82	905,208	64,200	840,150	858	-
2014년	-	2	60	36,600	36,600	-	-	-
2015년	-	-	-	-	-	-	-	-
2016년	-	-	38	197,668	-	197,668	-	-
2017년	1	-	23	44,613	13,800	30,813	-	-
2018년	4	-	1,465	2,622,682	1,318,500	1,304,182	-	-
2019년	1	-	3	108,000	-	-	-	-
2020년	-	-	181	276,600	276,600	-	-	-
2021년	-	-	-	-	-	-	-	-
2022년	10	32,111	19,705	69,630,498	39,644,000	29,773,001	195,336	18,161

주: 1)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상황 총괄표 기준
2) 2015년, 2021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발생 재해 없었음, 2020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3) 자연 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4)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 지원액이며, 소상공 피해집계 제외됨
출처)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자치구별 풍수해 피해]

(단위: 명, 세대, 천 원)

연도	사망 및 실종자 수	이재민	주택침수 세대	풍수해 피해액					
				계	건물	공공시설	농경지	사유시설	
2022년	10	32,111	19,705	69,630,498	39,644,000	29,773,001	195,336	18,161	
구 별	종로구	-	9	3	58,000	58,000	-	-	-
	중구	-	-	-	886	-	886	-	-
	용산구	-	17	11	126,125	22,000	104,125	-	-
	성동구	-	-	-	-	-	-	-	-
	광진구	-	-	-	-	-	-	-	-
	동대문구	-	7	4	8,000	8,000	-	-	-
	중랑구	-	7	6	12,000	12,000	-	-	-
	성북구	-	52	31	114,000	114,000	-	-	-
	강북구	-	327	191	434,000	434,000	-	-	-
	도봉구	-	177	120	240,000	240,000	-	-	-
	노원구	-	119	79	158,000	158,000	-	-	-
	은평구	-	139	75	150,000	150,000	-	-	-
	서대문구	-	25	17	34,000	34,000	-	-	-
	마포구	-	6	6	12,000	12,000	-	-	-
	양천구	-	4	2	4,000	4,000	-	-	-
	강서구	-	-	-	-	-	-	-	-
	구로구	-	2,723	2,007	5,463,774	4,040,000	1,423,774	-	-
	금천구	-	2,056	1,187	2,413,744	2,374,000	39,744	-	-
	영등포구	1	7,470	4,145	11,137,351	8,290,000	2,847,351	-	-
	동작구	2	6,544	3,939	12,297,075	7,878,000	4,419,075	-	-
	관악구	4	7,049	4,813	11,902,639	9,678,000	2,224,639	-	-
	서초구	2	1,982	1,113	17,714,898	2,226,000	15,275,401	195,336	18,161
	강남구	1	1,971	1,133	5,704,006	2,266,000	3,438,006	-	-
	송파구	-	1,229	708	1,416,000	1,416,000	-	-	-
	강동구	-	198	115	230,000	230,000	-	-	-

주: 1)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상황 총괄표 기준
2) 자연 재난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함
3)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 지원액이며, 소상공 피해집계 제외됨
출처) 서울시 치수안전과, 자연재난 발생현황

2. 폭염·한파 피해

개념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한랭질환자 및 사망자 수 • 폭염 및 한파일수
출처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폭염 및 한파일수]

(단위: 일)

연도	폭염일수	한파일수
2014년	10	1
2015년	8	1
2016년	24	5
2017년	13	3
2018년	35	11
2019년	15	0
2020년	4	2
2021년	18	8
2022년	10	4
2023년	19	7

- 주: 1) 폭염일수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2) 한파일수는 아침(03:00-09:00)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의 수임
3) 서울 지점 기준

출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폭염 피해]

(단위: 명, 일, %)

연도	전국			서울		
	온열질환자	사망자	폭염일수	온열질환자	전국 대비	온열질환자 비중
2014년	556	1	6.6	39		7.0
2015년	1,056	11	9.6	50		4.7
2016년	2,125	17	22	170		8.0
2017년	1,574	11	13.5	107		6.8
2018년	4,526	48	31	616		13.6
2019년	1,841	11	12.9	107		5.8
2020년	1,078	9	7.7	38		3.5
2021년	1,376	20	11.8	121		8.8
2022년	1,564	9	10.6	110		7.0
2023년	2,818	32	14.2	201		7.1

- 주: 1)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3.5.20.~2023.9.30. 기간 중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게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자료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자료로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참여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3) 본 자료의 '온열질환자'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지역 구분은 2018년까지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2019년부터 '증상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함
4)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 33.0℃ 이상인 날의 일수로, 전국 62개 지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일수(기상자료기법포털)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연도별 발생주별 온열질환자 신고 현황]

(단위: 명)

구분		전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556	1,056	2,125	1,574	4,526	1,841	1,078	1,376	1,564	2,818
1주	2022.5.20.~5.21.	-	45	14	22	11	43	2	3	5	16
2주	2022.5.22.~5.28.	31	16	23	11	32	23	6	3	24	15
3주	2022.5.29.~6.4.	14	12	28	21	36	37	29	13	24	8
4주	2022.6.5.~6.11.	25	10	26	44	9	17	103	50	17	27
5주	2022.6.12.~6.18.	17	18	32	35	35	29	34	15	27	46
6주	2022.6.19.~6.25.	36	15	16	69	45	38	70	24	86	68
7주	2022.6.26.~7.2.	61	73	157	187	52	67	18	44	208	79
8주	2022.7.3.~7.9.	41	44	77	318	266	21	39	32	311	169
9주	2022.7.10.~7.16.	123	43	125	166	654	43	40	267	98	60
10주	2022.7.17.~7.23.	104	314	268	357	1017	176	13	239	59	245
11주	2022.7.24.~7.30.	66	315	337	205	1106	400	53	303	189	332
12주	2022.7.31.~8.6.	15	113	552	39	624	533	54	238	222	709
13주	2022.8.7.~8.13.	9	22	326	81	488	309	176	60	124	394
14주	2022.8.14.~8.20.	8	9	121	15	91	56	242	25	64	333
15주	2022.8.21.~8.27.	6	7	6	4	49	12	143	27	41	158
16주	2022.8.28.~9.3.	-	-	14	-	9	16	47	14	8	38
17주	2022.9.4.~9.10.	-	-	2	-	2	10	8	8	13	71
18주	2022.9.11.~9.17.	-	-	1	-	-	11	1	4	27	26
19주	2022.9.18.~9.24.	-	-	-	-	-	-	-	4	14	22
20주	2022.9.25.~9.30.	-	-	-	-	-	-	-	3	3	2

출처: 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한파 피해]

(단위: 명, °C, %)

절기	전국			서울	
	한랭질환자	사망자	평균 최저 기온(°C)	한랭질환자	전국 대비 한랭질환자 비중
2014~2015	458	12	-3.6	42	9.2
2015~2016	483	26	-2.7	39	8.1
2016~2017	441	4	-3.2	32	7.3
2017~2018	631	11	-5.5	78	12.4
2018~2019	404	10	-3.4	46	11.4
2019~2020	303	2	-1.4	17	5.6
2020~2021	433	7	-3.9	37	8.5
2021~2022	300	9	-4.8	24	8.0
2022~2023	447	12	-4.9	51	11.4

- 주: 1) 본 연보에 수록된 자료는 2022.12.1.~ 2023.2.28. 기간 중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자료로서 중복 및 미비 자료를 삭제 또는 보완하여 최종 정리한 것임. 따라서 감시체계 운영기간 중
계시·인용된 일일 통계 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2) 본 연보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500여개)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집된 신고 자료로 한랭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참여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랭질환 사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함
3) 본 연보의 '한랭질환자'는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집계이며 '시·도'는 '증상발생장소' 기준임
4) '날짜'는 '증상발생일', '주(Week)'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임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연도별 절기별 한랭질환자 신고 현황]

(단위: 명)

구분		전국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1- 2022	2022- 2023
전체		458	483	441	631	404	303	433	300	447
1주	2021.12.1.~12.4.	46	25	10	10	3	35	20	13	16
2주	2021.12.5.~12.11.	49	21	34	26	30	32	23	9	16
3주	2021.12.12.~12.18.	69	41	30	71	47	22	48	23	44
4주	2021.12.19.~12.25.	57	25	28	44	23	24	21	32	71
5주	2021.12.26.~2022.1.1.	53	27	29	35	49	30	39	37	30
6주	2022.1.2.~1.8.	38	20	24	41	43	25	127	38	29
7주	2022.1.9.~1.15.	29	24	38	67	36	25	40	29	21
8주	2022.1.16.~1.22.	21	105	66	31	24	16	27	19	42
9주	2022.1.23.~1.29.	21	77	58	112	28	14	27	13	94
10주	2022.1.30.~2.5.	14	45	30	62	28	28	21	31	28
11주	2022.2.6.~2.12.	33	19	29	63	27	19	17	19	23
12주	2022.2.13.~2.19.	13	27	26	41	30	25	16	23	11
13주	2022.2.20.~2.26.	15	17	30	23	26	8	7	13	15
14주	2022.2.27.~2.28.	-	10	9	5	10	-	-	1	7

출처) 질병관리청,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각 연도

제2절 사회재난

1.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대표적인 재난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교통정책 입안 시 참고
산출방법	·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사고 건수/(자동차 수+이륜차 수)}×10,000대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발생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	
2014년	40,792	117.5	400	3.9	57,345	553.0	
2015년	41,665	118.7	376	3.7	58,656	569.6	
2016년	40,039	113.3	348	3.4	55,669	545.6	
2017년	38,625	108.3	343	3.4	53,810	531.5	
2018년	38,795	108.6	304	3.0	53,751	534.9	
2019년	39,258	109.9	250	2.5	53,904	538.4	
2020년	35,227	97.4	219	2.2	47,513	479.4	
2021년	33,913	93.9	243	2.5	45,223	464.5	
2022년	33,698	93.3	221	2.3	45,329	468.9	
2023년	33,811	93.5	180	1.9	45,414	471.2	
구 별	종로구	988	155.2	8	5.3	1,331	884.7
	중구	931	134.7	3	2.3	1,194	906.0
	용산구	996	107.4	11	4.8	1,366	601.5
	성동구	919	75.8	6	2.1	1,221	428.8
	광진구	717	61.4	4	1.1	899	256.0
	동대문구	1,674	131.7	10	2.8	2,039	566.6
	종랑구	1,268	89.4	7	1.8	1,704	439.8
	성북구	1,256	85.9	8	1.8	1,581	360.8
	강북구	972	105.0	5	1.7	1,217	415.4
	도봉구	530	48.9	7	2.3	685	221.3
	노원구	1,366	81.5	9	1.8	1,869	371.6
	은평구	1,039	67.1	7	1.5	1,353	287.3
	서대문구	916	86.9	4	1.2	1,220	380.5
	마포구	1,250	91.2	14	3.7	1,715	457.1
	양천구	1,221	74.3	5	1.1	1,624	369.7
	강서구	1,518	67.7	9	1.6	2,112	371.3
	구로구	1,359	83.5	5	1.2	1,840	442.7
	금천구	876	82.6	7	2.9	1,232	511.0
	영등포구	1,900	119.6	7	1.8	2,619	658.4
	동작구	1,242	103.3	6	1.5	1,668	428.0
	관악구	980	70.0	10	2.0	1,252	251.5
	서초구	2,168	114.9	7	1.7	3,319	805.4
	강남구	3,926	145.7	7	1.3	5,229	950.2
	송파구	2,614	99.4	10	1.5	3,603	545.9
	강동구	1,185	69.1	4	0.9	1,522	328.5

주: 1) 2005년부터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2)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피해 사고는 미포함)

[자전거 교통사고]

(단위: 건, 명)

구분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4년		4,514	39	4,844	2,065	19	2,250	2,449	20	2,594
2015년		4,529	27	4,910	2,230	15	2,435	2,299	12	2,475
2016년		3,845	27	4,139	1,884	15	2,051	1,961	12	2,088
2017년		3,263	30	3,477	1,656	16	1,776	1,607	14	1,701
2018년		2,918	29	3,086	1,471	18	1,573	1,447	11	1,513
2019년		3,365	18	3,664	1,766	11	1,950	1,599	7	1,714
2020년		3,443	23	3,808	1,802	14	2,018	1,641	9	1,790
2021년		3,333	27	3,653	1,779	13	1,969	1,554	14	1,684
2022년		3,128	14	3,411	1,674	8	1,861	1,454	6	1,550
2023년		2,850	15	3,132	1,531	6	1,698	1,319	9	1,434
구 별	종로구	39	0	42	21	-	23	18	-	19
	중구	43	0	45	24	-	25	19	-	20
	용산구	62	1	66	32	1	34	30	-	32
	성동구	94	1	106	49	-	58	45	1	48
	광진구	69	0	75	38	-	40	31	-	35
	동대문구	221	1	240	119	-	130	102	1	110
	중랑구	161	1	180	88	-	101	73	1	79
	성북구	59	1	67	33	-	35	26	1	32
	강북구	67	0	70	45	-	47	22	-	23
	도봉구	73	1	77	36	-	40	37	1	37
	노원구	155	2	163	77	1	84	78	1	79
	은평구	70	0	77	32	-	39	38	-	38
	서대문구	43	0	46	23	-	24	20	-	22
	마포구	84	2	88	37	1	37	47	1	51
	양천구	118	1	131	67	1	73	51	-	58
	강서구	156	0	164	76	-	81	80	-	83
	구로구	136	0	148	78	-	85	58	-	63
	금천구	62	1	73	38	-	46	24	1	27
	영등포구	247	1	278	150	1	169	97	-	109
	동작구	82	0	90	48	-	52	34	-	38
	관악구	47	1	48	18	-	18	29	1	30
	서초구	81	0	87	47	-	50	34	-	37
	강남구	172	0	203	105	-	124	67	-	79
	송파구	359	1	407	181	1	208	178	-	199
	강동구	150	0	161	69	-	75	81	-	86

주)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1당사자 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 자전거 피해운전자 교통사고: 2당사자 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산출방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인명피해 수
출처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단위: 건, 명)

구분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4년		96	1	100
2015년		90	1	90
2016년		96	2	101
2017년		81	1	85
2018년		77	1	76
2019년		114	2	115
2020년		65	-	70
2021년		68	1	83
2022년		77	1	78
2023년		82	-	84
구 별	종로구	1	-	1
	중구	2	-	2
	용산구	-	-	-
	성동구	2	-	2
	광진구	3	-	3
	동대문구	2	-	2
	종량구	4	-	4
	성북구	3	-	3
	강북구	2	-	2
	도봉구	2	-	2
	노원구	6	-	6
	은평구	2	-	3
	서대문구	5	-	5
	마포구	1	-	1
	양천구	7	-	7
	강서구	4	-	4
	구로구	5	-	5
	금천구	3	-	3
	영등포구	4	-	4
	동작구	4	-	4
	관악구	2	-	2
	서초구	4	-	4
	강남구	7	-	7
	송파구	6	-	7
	강동구	1	-	1

3.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
산출방법	• 실화, 방화, 기타에 의한 화재 발생 총 건수 •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자 수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화재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화재 발생 건수				화재 사상자 수		
		계	실화	방화	기타	계	사망	부상
2014년		5,815	5,131	227	457	301	36	265
2015년		5,921	5,191	195	535	249	27	222
2016년		6,443	5,715	160	568	276	40	236
2017년		5,978	5,346	123	509	283	37	246
2018년		6,368	5,662	167	539	360	53	307
2019년		5,881	5,251	136	494	398	37	361
2020년		5,088	4,523	98	467	273	37	236
2021년		4,951	4,399	87	465	317	37	280
2022년		5,396	4,756	109	531	362	37	325
2023년		5,671	5,039	109	523	307	24	283
구 별	종로구	201	167	4	30	14	1	13
	중구	137	117	6	14	12	-	12
	용산구	219	188	5	26	3	1	2
	성동구	199	176	1	22	3	-	3
	광진구	193	180	1	12	4	-	4
	동대문구	158	141	3	14	13	2	11
	종랑구	175	152	5	18	21	-	21
	성북구	246	227	5	14	8	-	8
	강북구	200	184	5	11	10	2	8
	도봉구	179	161	10	8	42	3	39
	노원구	198	170	10	18	15	-	15
	은평구	248	224	6	18	7	-	7
	서대문구	209	189	1	19	12	-	12
	마포구	271	254	6	11	7	2	5
	양천구	162	134	5	23	11	-	11
	강서구	274	219	5	50	5	-	5
	구로구	200	179	2	19	11	2	9
	금천구	192	174	4	14	6	1	5
	영등포구	348	314	6	28	35	2	33
	동작구	167	147	2	18	19	1	18
	관악구	281	244	3	34	16	2	14
	서초구	239	209	1	29	8	1	7
	강남구	422	385	3	34	10	-	10
	송파구	382	354	10	18	10	3	7
	강동구	171	150	-	21	5	1	4

주) 국가화재분류체계(2007.1.1.) 변경: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 빨래삶기, 전기스파크 등 오인처리를 화재로 분류

4. 안전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

개념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사고, 화재사고, 붕괴사고’를 제외한 사고 발생 건수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

[전국]

(단위: 건, %)

연도	전체 사고 발생 현황	안전사고 건수	안전사고 비율
2013년	294,707	38,020	12.9
2014년	297,337	31,254	10.5
2015년	315,736	38,835	12.3
2016년	303,578	38,691	12.7
2017년	291,285	30,422	10.4
2018년	293,361	33,392	11.4
2019년	298,407	28,263	9.5
2020년	280,590	27,720	9.9
2021년	258,989	18,530	7.2
2022년	269,409	30,835	11.4

주: 1) 전체 사고발생현황: ‘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열차), 철도(지하철), 폭발, 해양, 가스, 유·도선(내수면), 유·도선(해수면),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전기(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공기, 붕괴, 수난(물놀이), 수난(익사 등),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생활체육), 놀이시설’ 사고발생 건수의 합계
2) 안전사고 건수: 사고발생유형 중 ‘도로교통, 화재, 붕괴’ 사고발생 건수를 제외한 사고발생 건수의 합계

[서울]

(단위: 건, %, 명)

연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인명 피해			
	전체 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발생 건수	안전사고 비율	소계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실종
2019년	48,296	3,148	6.5	1,862	70	1,788	4
2020년	42,987	2,375	5.5	1,187	93	1,094	-
2021년	40,467	1,620	4.0	977	26	951	-
2022년	41,587	2,516	6.0	1,584	67	1,514	3

5. 야간보행 안전도

개념	야간보행 안전도 조사
산출방법	가구원의 야간보행 안전도 및 야간보행 불안 이유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야간보행 안전도]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가			평균(점)
		불안함	보통	안전함	
2023년		29.1	35.5	35.5	5.12
구 별	종로구	25.7	54.1	20.2	4.73
	중구	34.2	37.6	28.1	4.65
	용산구	31.7	28.9	39.4	5.11
	성동구	13.4	36.3	50.2	6.09
	광진구	34.1	36.7	29.3	4.84
	동대문구	30.1	42.7	27.2	4.82
	종량구	25.4	41.7	32.8	5.28
	성북구	17.1	20.0	62.9	6.25
	강북구	28.7	37.8	33.6	4.99
	도봉구	42.5	23.3	34.2	4.27
	노원구	33.2	47.2	19.6	4.48
	은평구	25.3	43.2	31.5	5.17
	서대문구	30.3	26.4	43.3	5.44
	마포구	31.2	35.4	33.3	5.06
	양천구	37.0	20.3	42.7	5.19
	강서구	23.6	21.6	54.8	5.99
	구로구	38.3	26.7	35.0	4.82
	금천구	25.9	33.0	41.1	5.36
	영등포구	36.3	56.5	7.2	4.00
	동작구	21.5	34.4	44.1	5.68
	관악구	28.9	35.1	36.0	4.99
	서초구	29.2	46.4	24.4	4.91
	강남구	30.0	40.1	30.0	5.02
	송파구	33.9	27.7	38.4	5.08
	강동구	20.9	48.3	30.9	5.18
권 역 별	도심권	30.5	38.7	30.8	4.88
	동북권	28.1	36.0	35.8	5.12
	서북권	28.5	36.1	35.3	5.21
	서남권	30.1	31.6	38.3	5.19
	동남권	29.0	39.2	31.8	5.05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10점,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0점

[야간보행 불안 이유]

(단위: %)

구분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생활권 내 가로등,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생활권 내 경찰서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해서	생활권 내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	생활권 내 우범 지역이 있어서	기타
2023년		46.4	19.2	15.8	13.1	5.5	-
구 별	종로구	36.7	24.7	12.9	24.7	1.1	-
	중구	30.7	26.0	19.2	20.1	4.0	-
	용산구	30.4	29.8	21.4	15.5	2.8	-
	성동구	50.1	11.5	21.5	12.9	4.0	-
	광진구	42.4	10.8	26.2	14.0	6.7	-
	동대문구	35.7	23.4	14.0	15.5	11.3	0.1
	종랑구	30.5	15.2	20.1	23.1	11.2	-
	성북구	31.0	39.3	21.7	6.8	1.1	-
	강북구	68.9	8.1	12.8	5.3	4.8	-
	도봉구	22.0	48.0	22.1	6.1	1.9	-
	노원구	56.2	14.2	10.7	14.7	4.3	-
	은평구	34.4	21.4	25.6	13.7	4.9	-
	서대문구	44.6	15.3	26.9	8.3	4.9	-
	마포구	47.0	18.1	10.4	14.8	9.6	-
	양천구	84.2	2.0	4.1	3.9	5.8	-
	강서구	43.4	15.0	12.5	21.4	7.7	-
	구로구	48.0	25.7	11.2	10.8	4.1	0.2
	금천구	26.1	27.2	28.1	14.8	3.8	-
	영등포구	21.7	37.3	28.9	9.8	2.3	-
	동작구	68.4	8.0	10.1	10.8	2.8	-
	관악구	43.8	16.3	8.3	16.8	14.8	-
	서초구	63.2	13.7	8.0	9.7	5.3	0.2
	강남구	59.7	12.5	7.1	15.6	5.0	0.1
	송파구	51.0	17.1	18.7	10.9	2.3	-
	강동구	46.0	13.7	11.9	22.3	6.1	-
권 역 별	도심권	32.1	27.4	18.6	19.1	2.7	-
	동북권	41.7	22.0	18.1	12.5	5.7	-
	서북권	41.8	18.5	20.7	12.5	6.5	-
	서남권	49.5	18.4	13.5	12.3	6.3	-
	동남권	54.8	14.7	12.5	13.8	4.2	0.1

제3절 사회안전

1. 강력범죄 발생률

개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발생 현황 파악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강력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명
출처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건)

연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							
	소계	강력범죄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2014년	3,433	60.5	572.7	629.9	697.3	18.1	225.4	1,229.1
2015년	3,463	60.2	537.1	633.2	711.8	16.2	240.5	1,263.7
2016년	3,362	65.6	459.2	632.8	709.9	17.9	246.2	1,230.8
2017년	3,162	74.1	406.4	586.7	698.9	14.7	226.8	1,154.7
2018년	3,075	69.6	389.8	558.0	754.5	11.2	237.9	1,053.8
2019년	3,089	69.9	421.6	546.6	806.2	13.5	235.7	995.8
2020년	2,988	63.2	386.4	487.8	867.4	15.4	233.8	934.4
2021년	2,650	54.9	344.4	428.9	701.7	13.7	219.6	886.5
2022년	2,891	64.7	388.7	483.9	812.7	9.7	270.6	860.8
2023년	2,876	65.0	384.3	447.5	873.4	52.9	513.9	539.1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건, %)

연도	범죄발생 현황 (건)	범죄 유형별 발생 비중 (%)						
		강력범죄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2014년	355,990	1.8	16.7	18.3	20.3	0.5	6.6	35.8
2015년	356,576	1.7	15.5	18.3	20.6	0.5	6.9	36.5
2016년	343,105	2.0	13.7	18.8	21.1	0.5	7.3	36.6
2017년	320,177	2.3	12.9	18.6	22.1	0.5	7.2	36.5
2018년	309,001	2.3	12.7	18.1	24.5	0.4	7.7	34.3
2019년	309,268	2.3	13.6	17.7	26.1	0.4	7.6	32.2
2020년	296,177	2.1	12.9	16.3	29.0	0.5	7.8	31.3
2021년	257,967	2.1	13.0	16.2	26.5	0.5	8.3	33.5
2022년	279,507	2.2	13.4	16.7	28.1	0.3	9.4	29.8
2023년	277,213	2.3	13.4	15.6	30.4	1.8	17.9	18.7

[5대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5대범죄 발생 건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014년		130,674	158	343	5,462	59,393	65,318
2015년		126,401	163	276	5,449	55,307	65,206
2016년		117,839	148	262	6,002	46,857	64,570
2017년		107,835	142	169	6,963	41,162	59,399
2018년		101,948	143	143	6,412	39,175	56,075
2019년		103,668	136	136	6,469	42,204	54,723
2020년		92,679	141	138	5,763	38,293	48,344
2021년		80,445	124	122	4,911	33,531	41,757
2022년		90,399	104	117	5,816	37,579	46,783
2023년		86,213	150	129	5,764	37,038	43,132
구별	종로구	2,981	5	5	239	1,169	1,563
	중구	3,348	3	6	212	1,520	1,607
	용산구	3,021	3	3	245	978	1,792
	성동구	2,023	2	2	119	893	1,007
	광진구	3,424	2	5	238	1,616	1,563
	동대문구	2,957	5	4	146	1,280	1,522
	종랑구	3,324	6	2	169	1,402	1,745
	성북구	2,411	1	1	141	984	1,284
	강북구	2,497	7	1	141	917	1,431
	도봉구	1,921	7	4	90	995	825
	노원구	3,567	7	3	159	1,632	1,766
	은평구	3,493	7	3	153	1,614	1,716
	서대문구	2,385	5	-	160	1,194	1,026
	마포구	3,834	3	4	447	1,472	1,908
	양천구	3,019	6	2	113	1,404	1,494
	강서구	4,296	1	6	300	1,794	2,195
	구로구	3,737	12	7	194	1,624	1,900
	금천구	2,240	4	5	128	987	1,116
	영등포구	4,418	12	10	310	1,854	2,232
	동작구	2,642	3	3	191	1,183	1,262
	관악구	4,769	16	10	328	2,013	2,402
	서초구	4,522	7	9	412	1,941	2,153
	강남구	6,763	14	20	678	2,480	3,571
	송파구	5,223	8	9	307	2,416	2,483
	강동구	3,398	4	5	144	1,676	1,569

2. 가정폭력 발생 건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아동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발생원인 파악
산출방법	•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 발생(신고) 건수 • 가정폭력발생 건수, 가정폭력 상담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피해 건수(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망사례)
출처	•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가정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발생(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등)
2014년	4,543	4,543	4,892	49	4,843	-
2015년	6,937	6,914	8,106	77	8,029	-
2016년	7,700	7,745	9,142	74	9,068	-
2017년	6,700	6,721	7,952	62	7,890	-
2018년	6,525	6,978	7,364	47	7,317	-
2019년	7,489	8,145	9,693	85	2,780	6,828
2020년	7,058	7,460	8,771	49	2,214	6,508
2021년	38,826	7,898	9,469	63	2,834	6,572
2022년	40,853	7,730	9,024	68	2,493	6,463
2023년	40,488	6,926	8,594	94	2,389	6,111

주) 2020년 이전: 발생건수, 2021년 이후: 신고건수

출처)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통계

[여성폭력 상담 건수]

(단위: 건)

연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					
	전체	가정폭력 상담건수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피해
2014년	76,530	46,580	21,627	-	-	8,323
2015년	71,503	46,989	15,938	-	-	8,576
2016년	62,642	28,464	23,578	-	-	10,600
2017년	76,847	45,790	21,631	-	-	9,426
2018년	94,265	58,779	23,865	-	-	11,621
2019년	98,522	61,249	24,506	954	358	11,455
2020년	94,353	58,080	21,073	742	208	14,250
2021년	98,378	57,872	24,989	262	131	15,124
2022년	93,402	52,791	27,078	483	279	12,771
2023년	96,512	58,520	28,898	567	238	8,289

출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폭력상담

[노인학대 신고접수]

(단위: 건, 명, 건/인구 천 명당)

연도	전체 신고접수			65세 이상 인구 수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사례 신고접수율
	전체	학대사례	일반사례		
2014년	976	420	556	1,216,529	0.3
2015년	1,061	403	658	1,262,436	0.3
2016년	1,117	495	622	1,295,899	0.4
2017년	1,470	440	1,030	1,359,901	0.3
2018년	1,618	522	1,096	1,410,297	0.4
2019년	1,962	534	1,428	1,478,664	0.4
2020년	2,080	676	1,404	1,561,139	0.4
2021년	2,313	736	1,577	1,597,447	0.5
2022년	2,436	616	1,820	1,658,207	0.4
2023년	3,385	719	2,666	1,733,580	0.4

- 주: 1) 65세 이상 인구수: 주민등록인구로 내국인
2)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목적의 모든 사례를 의미하며, 신고 당시 수집한 기초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심으로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됨
3) 노인인구 천 명당 학대사례 신고접수율: (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
4) 일반사례건수: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보기 어려운 건수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 피해]

(단위: 명, 건, 명/인구 천 명당)

연도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당)	사망아동 인원
2014년	1,543,394	954	0.62	-
2015년	1,502,968	1,179	0.78	-
2016년	1,467,622	2,268	1.55	-
2017년	1,391,088	1,306	1.66	-
2018년	1,343,716	2,210	1.64	5
2019년	1,250,682	2,178	1.74	6
2020년	1,199,002	2,780	2.30	7
2021년	1,161,581	3,615	3.11	2
2022년	1,109,318	2,899	2.61	5
2023년	1,069,644	2,766	2.59	5

- 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함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3. 보이스피싱 피해

개념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로, 시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출처	•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전국)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전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단위: 건, %, 억 원)

연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보이스피싱 피해액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건수	%	건수	%			
2016년	17,040	3,384	19.9	13,656	80.1	1,468	541	927
2017년	24,259	5,685	23.4	18,574	76.6	2,470	967	1,503
2018년	34,132	6,221	18.2	27,911	81.8	4,040	1,430	2,610
2019년	37,667	7,219	19.2	30,448	80.8	6,398	2,506	3,892
2020년	31,681	7,844	24.8	23,837	75.2	7,000	2,144	4,856
2021년	30,982	7,017	22.6	23,965	77.4	7,744	1,741	6,003
2022년	21,832	8,930	40.9	12,902	59.1	5,438	2,077	3,361
2023년	18,902	11,314	59.9	7,588	40.1	4,472	2,364	2,108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전국: 보이스피싱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연령별						성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여성
2016년	17,040	3,209	3,735	4,542	3,834	1,261	459	8,660	8,380
2017년	24,259	5,273	4,887	6,473	5,412	1,807	407	11,391	12,868
2018년	34,132	4,480	6,483	9,842	9,313	3,389	625	17,673	16,459
2019년	37,667	3,855	6,041	10,264	11,825	4,617	1,065	21,424	16,243
2020년	31,681	5,323	4,406	7,704	9,217	4,188	843	17,293	14,388
2021년	30,982	5,459	3,299	6,755	9,564	4,778	1,127	17,027	13,955
2022년	21,832	6,805	1,821	3,413	5,378	3,462	953	14,308	7,524
2023년	18,902	8,886	1,621	2,325	3,149	2,144	777	12,319	6,583

출처: 1)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
2)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성별 현황

[서울: 보이сп싱 시도경찰청 피해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피해 건수 (건)	전국 대비 비중 (%)
2016년	17,040	5,593	32.8	1,138	6.7	3,279	19.2
2017년	24,259	7,764	32.0	1,531	6.3	5,624	23.2
2018년	34,132	9,972	29.2	2,325	6.8	8,697	25.5
2019년	37,667	10,494	27.9	2,260	6.0	9,433	25.0
2020년	31,681	9,049	28.6	2,048	6.5	7,804	24.6
2021년	30,982	7,997	25.8	1,904	6.1	8,099	26.1
2022년	21,832	6,245	28.6	1,058	4.8	5,647	25.9
2023년	18,902	5,865	31.0	870	4.6	4,649	24.6

출처)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시도경찰청별 피해 현황

제6장 환경

제1절 대기과 녹지

1. (초)미세먼지 농도

개념	자동차 배출, 난방 등 연소기기 배출, 도로 비산먼지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점 발굴
산출방법	PM10과 PM2.5의 연평균 환경기준 및 서울시 연평균 농도
출처	•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기정보 예보/경보

[오염 농도]

(단위: $\mu\text{g}/\text{m}^3/\text{년}$)

연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국가 및 서울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	국가 및 서울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2013년	50	45	-	-
2014년	50	46	-	-
2015년	50	45	25	23
2016년	50	48	25	26
2017년	50	44	25	25
2018년	50	40	25	23
2019년	50	42	15	25
2020년	50	35	15	21
2021년	50	38	15	20
2022년	50	33	15	18

- 주: 1)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2) PM2.5 연간 농도는 2015년도부터 발표하였으며, PM 2.5 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15\mu\text{g}/\text{m}^3$ (2018년 이후)
3) 미세먼지(PM-10): 흙먼지, 매연, 금속가루, 소금, 황산염, 질산염 등 많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지름 $10\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4) 초미세먼지(PM-2.5): 질산염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구성된 지름 $2.5\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하며, 영문자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임

[주의보 발행 현황]

(단위: 회, 일)

연도	미세먼지 주의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발령 일수	발령 횟수	발령 일수
2015년	3	5	6	8
2016년	6	7	0	0
2017년	6	10	5	10
2018년	5	5	8	18
2019년	8	14	15	25
2020년	4	4	5	9
2021년	8	8	11	21
2022년	5	2	3	9

주) 2022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2. 녹지환경 만족도

개념	서울시 녹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공원 및 녹지정책에 반영
산출방법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녹지 환경(공원, 숲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녹지환경 만족도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4년		7.4	48.8	43.8	5.98
2016년		9.2	27.5	63.3	6.58
2018년		13.3	39.7	47.0	5.93
2019년		9.3	50.4	40.3	5.93
2020년		15.2	40.0	44.8	5.93
2021년		15.3	38.6	46.1	5.99
2022년		6.3	48.0	45.8	6.17
2023년		5.8	42.6	51.6	6.31
구 별	종로구	3.4	55.6	41.0	6.12
	중구	13.4	26.3	60.3	6.36
	용산구	7.9	35.8	56.4	6.51
	성동구	2.2	44.0	53.8	6.49
	광진구	3.6	40.5	56.0	6.53
	동대문구	3.8	53.4	42.8	6.20
	종량구	4.4	51.0	44.6	6.17
	성북구	3.6	49.5	46.9	6.15
	강북구	17.7	36.7	45.5	5.72
	도봉구	7.6	24.3	68.1	6.57
	노원구	2.6	45.6	51.7	6.34
	은평구	3.5	46.6	49.9	6.29
	서대문구	9.2	38.0	52.9	6.18
	마포구	4.7	48.9	46.4	6.12
	양천구	.3	63.0	36.7	5.91
	강서구	6.0	39.0	55.1	6.47
	구로구	3.3	39.7	57.0	6.47
	금천구	4.4	32.9	62.7	6.57
	영등포구	18.0	45.9	36.1	5.58
	동작구	4.1	49.0	46.9	6.23
	관악구	9.8	41.6	48.7	6.07
	서초구	6.2	35.7	58.1	6.57
	강남구	3.9	46.4	49.7	6.26
	송파구	4.1	28.3	67.6	7.10
	강동구	5.9	39.3	54.8	6.30

주: 1) 2017년 이전 격년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3. 오존 농도

개념	여름철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생성 오염물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오존 농도 및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출처	•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오존 농도]

(단위: ppm)

연도	오존 연평균 농도 (ppm)
2013년	0.022
2014년	0.023
2015년	0.022
2016년	0.024
2017년	0.025
2018년	0.023
2019년	0.025
2020년	0.025
2021년	0.028
2022년	0.029

주) 오존(O₃): 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_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됨.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기도 하나 호흡기, 눈 등 인체의 약한 부분에 해로움

출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평균대기오염도)

[오존 주의보 발령 현황]

(단위: 일, 회)

연도	발령 일수	발령 횟수
2014년	8	23
2015년	3	4
2016년	17	33
2017년	12	33
2018년	13	54
2019년	11	29
2020년	12	30
2021년	11	32
2022년	11	42
2023년	14	45

출처) 서울시 기후대기과, 오존 주의보 발령현황

4. 환경소음도

개념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환경소음도는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
산출방법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소음도 측정 수치
출처	서울시 생활환경과, 소음도

(단위: Leq dB(A))

연도	시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다”지역
2014년	낮	52	54	61	67	70
2015년	낮	54	54	61	67	71
2016년	낮	54	54	62	67	70
2017년	낮	54	55	61	67	70
2018년	낮	54	54	60	67	70
2019년	낮	53	54	61	67	70
2020년	낮	53	54	61	67	70
2021년	낮	56	57	62	69	70
2022년	낮	57	57	63	69	70
2023년	낮	57	56	63	69	70

주: 1) 서울시 소음측정망 설치 현황: 녹지, 주거, 상업지역 등 30개 지역 150개 측정망

- “가”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지역, 학교지역
- “나”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다”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낮: 06:00~22:00, 밤: 22:00~06:00

제2절 물순환과 자원순환

1. 서울시계 하천의 깨끗한 물 달성률

개념	수질오염으로부터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물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에 활용
산출방법	서울시 하천수질측정망 25개소 중 BOD 기준 3mg/ℓ 이하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관측소 개수 비율
출처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수질현황

[깨끗한 물 달성률]

(단위: 개, %)

연도	깨끗한 물 하천 수	깨끗한 물 달성률
2014년	18	72.0
2015년	18	72.0
2016년	21	84.0
2017년	23	92.0
2018년	22	88.0
2019년	22	88.0
2020년	25	100.0
2021년	25	100.0
2022년	21	84.0
2023년	25	100.0

[하천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단위: mg/ℓ)

수질지역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암사	1.0	1.5	1.3	1.1	0.9	0.8	0.9	1.0	0.8	1.0
구의	1.7	2.1	2.0	1.5	1.5	1.4	1.3	1.3	1.2	1.4
잠실	1.0	1.3	1.6	1.2	1.1	1.0	1.1	1.2	0.9	1.1
보광	1.9	2.9	2.3	1.5	1.7	1.5	1.4	1.8	0.9	1.6
노량진	2.4	3.0	2.7	2.0	2.0	2.1	1.7	1.6	1.8	2.0
영등포	2.0	2.5	2.3	1.7	1.5	1.7	1.2	1.7	1.0	1.4
가양	2.4	3.2	3.0	1.9	1.8	1.9	1.5	2.0	1.3	1.6
행주	4.4	4.9	3.9	2.6	2.6	2.7	2.4	2.3	2.5	2.8
탄천6	4.7	3.5	2.4	3.1	4.4	3.4	2.0	2.0	3.7	1.7
중랑천6	7.5	7.0	6.7	5.9	5.6	4.2	1.8	2.4	3.3	1.8
안양천10	5.3	4.3	3.9	2.7	4.3	3.5	1.7	2.8	3.1	1.7
뚝도	1.4	2.0	1.8	1.3	1.2	1.4	1.4	1.6	0.6	1.3
팔당댐	1.2	1.3	1.3	1.1	1.2	1.2	1.1	1.1	1.0	1.3
홍제천	4.1	3.4	2.5	2.1	2.1	2.3	1.1	1.2	1.4	1.1
양재천	1.4	1.4	1.1	1.4	1.9	1.1	0.8	1.3	2.0	1.6
정릉천	1.5	1.1	0.8	1.0	0.9	0.8	0.7	1.0	0.8	0.9
도림천	2.0	1.5	1.6	1.2	1.6	1.7	1.0	1.5	1.7	2.0
목감천1	4.2	2.5	2.4	2.9	2.5	2.4	1.9	2.3	3.3	1.9
고덕천	3.1	3.9	3.0	2.2	1.6	1.7	1.1	1.2	1.6	1.2
성내천	2.5	2.9	3.3	2.5	2.4	2.3	1.6	2.1	2.6	2.0
청계천(1)	0.6	0.4	0.5	0.6	0.7	0.4	0.7	0.9	0.5	0.6
청계천(2)	0.8	0.7	0.8	0.8	0.9	0.5	0.7	1.2	0.9	0.7
청계천(3)	1.0	1.7	1.4	1.4	1.6	0.9	0.9	1.7	1.6	1.7
성북천	1.3	1.9	1.2	1.6	1.5	0.6	0.7	1.1	1.2	1.1
우이천	1.5	1.5	1.2	1.8	1.7	1.2	1.0	1.3	1.4	1.2

2. 불투수면적 비율

개념	물순환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산출방법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 비율
출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주) 5년 주기 조사

(단위: ha, %)

연도	서울시 면적 (ha)	불투수면적 (ha)	불투수면적 비율 (%)
2000년	60,814.0	28,613.0	47.1
2005년	60,831.8	28,767.4	47.3
2010년	60,831.8	29,010.7	47.7
2015년	60,866.2	29,806.2	49.0
2020년	60,865.9	30,078.1	49.4

주) 불투수면적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뜻하며, 불투수면적이 넓어질수록 도시침수나 열섬현상이 심화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3. 생활폐기물 매립률

개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가장 지양해야 할 처리방법인 매립률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처리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음식품 포함)+사업장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매립률=(매립 처리량/생활폐기물 발생량)×100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톤/일, %)

연도	발생량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매립		소각		재활용	
		매립량	비율	소각량	비율	재활용량	비율
2013년	8,559	774	9.0	2,304	26.9	5,481	64.0
2014년	9,614	927	9.6	2,263	23.5	6,424	66.8
2015년	9,439	719	7.6	2,218	23.5	6,501	68.9
2016년	9,608	766	8.0	2,292	23.9	6,550	68.2
2017년	9,217	799	8.7	2,238	24.3	6,180	67.1
2018년	9,493	869	9.1	2,168	22.8	6,457	68.0
2019년	9,847	979	9.9	2,246	22.8	6,623	67.3
2020년	9,673	949	9.8	2,289	23.7	6,436	66.5
2021년	10,853	1,485	13.7	2,275	21.0	7,094	65.4
2022년	10,914	899	8.2	2,265	20.8	7,750	71.0

- 주: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
 -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또는 남은 음식물로 배출하는 쓰레기
 - 사업장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질
 2)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
 3) 폐기물 처리방법별
 - 매립: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매립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소각: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소각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량
 4)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자치구별]

(단위: 톤/일, %)

구분		발생량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매립		소각		재활용	
			매립량	비율	소각량	비율	재활용량	비율
2022년		10,914	899	8.2	2,265	20.8	7,750	71.0
구 별	종로구	286	18	6.4	2,265	33.9	171	59.7
	중구	325	23	7.0	97	36.7	183	56.3
	용산구	593	18	3.0	119	14.4	490	82.6
	성동구	287	42	14.5	85	21.5	184	64.0
	광진구	331	24	7.1	62	13.7	262	79.2
	동대문구	296	26	8.8	45	27.8	188	63.4
	종량구	286	19	6.5	82	31.9	176	61.6
	성북구	345	8	2.4	91	23.8	255	73.8
	강북구	246	6	2.4	82	27.8	171	69.8
	도봉구	258	7	2.7	68	21.3	196	75.9
	노원구	399	10	2.4	55	24.2	293	73.3
	은평구	353	107	30.2	97	13.0	201	56.8
	서대문구	295	23	7.7	46	27.0	193	65.3
	마포구	418	27	6.6	80	27.7	275	65.7
	양천구	339	17	5.1	116	27.4	229	67.5
	강서구	1,605	61	3.8	93	7.9	1,418	88.4
	구로구	367	44	11.8	126	28.2	220	59.9
	금천구	274	63	23.0	104	11.3	180	65.7
	영등포구	458	36	7.8	31	23.7	314	68.5
	동작구	323	37	11.5	109	22.7	213	65.8
	관악구	443	55	12.4	73	19.9	300	67.8
	서초구	494	48	9.8	88	26.6	315	63.7
	강남구	721	45	6.3	131	30.8	454	62.9
	송파구	827	92	11.1	222	13.1	626	75.7
	강동구	346	45	13.0	109	15.6	247	71.4

주)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4. 총 폐기물 재활용률

개념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처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기타),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총 폐기물 재활용률=(총 재활용량/총 발생량)×100
출처	서울시 자원순환과·환경부, 폐기물 통계

(단위: 톤/일, %)

연도	총 폐기물 처리현황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2013년	34,474	29,110	84.4	5,481	64.0	532	46.1	23,097	93.3
2014년	37,200	31,532	84.8	6,424	66.8	805	39.1	24,303	95.2
2015년	41,711	35,576	85.3	6,501	68.9	880	39.3	28,194	93.9
2016년	45,118	39,120	86.7	6,550	68.2	604	29.5	31,967	95.5
2017년	45,894	40,258	87.7	6,180	67.1	605	33.0	33,473	96.1
2018년	46,191	40,725	88.2	6,457	68.0	981	52.9	33,286	95.5
2019년	47,643	42,249	88.7	6,623	67.3	933	40.5	34,693	97.7
2020년	51,887	46,451	89.5	6,436	66.5	1,077	46.6	38,938	97.6
2021년	48,036	42,624	88.7	7,094	65.4	1,686	59.3	33,845	98.6
2022년	43,215	39,090	90.5	7,750	71.0	2,564	73.7	28,775	99.8

주: 1)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기타
2)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3)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항목별 재활용 비율]

(단위: 톤/일, %)

연도	총 폐기물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량	재활용률
2013년	29,110	100.0	5,481	18.8	532	1.8	23,097	79.3
2014년	31,532	100.0	6,424	20.4	805	2.6	24,303	77.1
2015년	35,576	100.0	6,501	18.3	880	2.5	28,194	79.3
2016년	39,120	100.0	6,550	16.7	604	1.5	31,967	81.7
2017년	40,258	100.0	6,180	15.4	605	1.5	33,473	83.1
2018년	40,725	100.0	6,457	15.9	981	2.4	33,286	81.7
2019년	42,249	100.0	6,623	15.7	933	2.2	34,693	82.1
2020년	46,451	100.0	6,436	13.9	1,077	2.3	38,938	83.8
2021년	42,624	100.0	7,094	16.6	1,686	4.0	33,845	79.4
2022년	39,090	100.0	7,750	19.8	2,564	6.6	28,775	73.6

[자치구별]

(단위: 톤/일, %)

연도		총 폐기물 (합계)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재활용량	%
2022년		43,215	39,090	90.5	7,750	71.0	2,564	73.7	28,775	99.8
구 별	종로구	1,044	924	88.5	171	59.7	2	61.5	752	99.5
	중구	1,201	1,059	88.1	183	56.3	1	87.5	874	100.0
	용산구	2,595	2,487	95.9	490	82.6	1,001	99.9	997	99.7
	성동구	2,964	2,742	92.5	184	64.0	431	83.1	2,128	98.6
	광진구	948	879	92.7	262	79.2	6	98.4	611	100.0
	동대문구	1,476	1,355	91.8	188	63.4	28	69.2	1,140	100.0
	중랑구	866	754	87.0	176	61.6	9	85.6	569	99.8
	성북구	1,599	1,509	94.4	255	73.8	2	100.0	1,253	100.0
	강북구	739	665	89.9	171	69.8	2	100.0	492	99.9
	도봉구	757	695	91.8	196	75.9	3	97.1	495	100.0
	노원구	1,531	1,358	88.7	293	73.3	3	4.0	1,063	99.9
	은평구	1,309	1,156	88.3	201	56.8	-	100.0	956	100.0
	서대문구	721	618	85.8	193	65.3	-	60.0	426	100.0
	마포구	1,737	1,589	91.5	275	65.7	66	92.7	1,248	100.0
	양천구	833	672	80.6	229	67.5	20	27.5	423	100.0
	강서구	4,678	4,025	86.0	1,418	88.4	206	30.6	2,400	100.0
	구로구	1,395	1,247	89.4	220	59.9	4	95.3	1,023	100.0
	금천구	1,141	1,046	91.7	180	65.7	3	71.4	864	100.0
	영등포구	2,249	2,091	93.0	314	68.6	72	84.0	1,705	100.0
	동작구	1,064	953	89.6	213	65.7	6	100.0	735	100.0
	관악구	1,342	1,200	89.4	300	67.8	1	100.0	899	100.0
	서초구	2,811	2,623	93.3	315	63.7	8	50.6	2,301	100.0
	강남구	3,686	3,249	88.1	454	62.9	242	59.4	2,553	99.8
	송파구	2,463	2,249	91.3	626	75.7	181	93.3	1,442	99.9
	강동구	2,065	1,947	94.3	247	71.4	271	93.7	1,429	99.9

- 주: 1)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기타
 2)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량
 3) 합계에 지정폐기물은 제외됨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4) 2018년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재활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에, '재활용'에 '기타'를 포함하여 계산함

제3절 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비율

개념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사용 비율을 파악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저감 정책 방향 설정
산출방법	• 서울시의 연간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신재생에너지 소비량/최종 에너지 소비량)×100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단위: toe)

연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수력
2013년	238,239	1,076	7,011	46,236	41	172,422	6,191	5,263	-
2014년	293,656	1,043	11,813	98,477	41	162,844	7,250	11,949	240
2015년	335,139	976	16,676	94,097	43	177,290	8,790	36,965	301
2016년	316,806	920	19,355	79,517	43	168,614	9,906	38,137	315
2017년	350,881	836	23,664	77,003	46	168,115	11,270	69,689	258
2018년	388,944	775	36,471	97,562	48	172,088	13,334	68,432	236
2019년	361,228	695	45,303	96,475	44	143,488	15,002	59,848	373
2020년	303,099	621	51,584	91,892	47	69,519	16,451	72,749	237
2021년	325,737	561	55,298	81,856	45	76,416	17,900	93,510	132
2022년	317,023	503	65,697	89,647	46	69,477	20,070	71,483	81

주: 1) 2020년부터 집계방식 변경: 한전과의 상계거래계약 체결을 통해 자가소비 후 상계된 잉여전력 생산량을 추가함
2) 2019~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단위: 천 toe, toe/명, %)

연도	최종 에너지 소비량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명)	종류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석탄 소비량	석유 소비량	도시 가스 소비량	전력 소비량	열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소비량	비율
2013년	15,014	1.50	131	5,977	4,477	4,004	217	209	1.4
2014년	14,680	1.47	112	6,301	4,036	3,872	208	152	1.0
2015년	14,944	1.50	101	6,496	3,978	3,903	222	245	1.6
2016년	15,214	1.55	87	6,502	4,089	3,998	288	251	1.6
2017년	15,015	1.54	84	6,185	4,205	3,981	318	242	1.6
2018년	14,734	1.52	68	5,594	4,353	4,112	338	270	1.8
2019년	14,180	1.47	50	5,390	4,101	4,056	299	284	2.0
2020년	13,316	1.39	42	4,561	3,993	3,938	485	297	2.2
2021년	13,405	1.41	33	4,538	3,975	4,075	478	306	2.3
2022년	13,227	1.40	28	4,119	4,094	4,196	514	276	2.1

출처) 서울시, 에너지수급통계

2. 온실가스 배출량

개념	온실가스란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말하며, 국가감축대상으로 명문화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개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온실가스 총 배출량/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천 톤 CO₂eq./yr, %, 톤 CO₂eq./yr)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톤 CO ₂ eq.)
	총 배출량 (천 톤 CO ₂ eq.)	직접배출		간접배출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2005년	52,342	30,170	57.6	22,171	42.4	5.08
2006년	52,146	29,363	56.3	22,783	43.7	5.04
2007년	53,363	29,307	54.9	24,055	45.1	5.12
2008년	53,064	28,183	53.1	24,881	46.9	5.07
2009년	51,841	26,327	50.8	25,515	49.2	4.95
2010년	52,685	26,317	50.0	26,368	50.0	4.98
2011년	51,686	25,964	50.3	25,722	49.8	4.91
2012년	51,112	25,725	50.4	25,387	49.7	4.89
2013년	49,823	24,673	49.6	25,149	50.5	4.80
2014년	48,167	23,887	49.6	24,280	50.4	4.65
2015년	47,897	23,376	48.9	24,521	51.2	4.65
2016년	49,083	23,584	48.1	25,499	52.0	4.81
2017년	47,819	22,588	47.2	25,231	52.8	4.72
2018년	48,281	22,265	46.1	26,016	53.9	4.80
2019년	46,959	21,217	45.2	25,742	54.8	4.69
2020년	44,791	21,715	48.5	23,076	51.5	4.52
2021년	45,941	21,476	46.7	24,465	53.3	4.72

주: 1)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종류에 따라 대기 잔류 기간 동안 방열(radiative activity)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배출량의 수준 파악 및 상호 비교를 위해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사용하여 계산한 CO₂ 환산량(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으로 국가 총배출량을 산정함
2)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3) 2022년 데이터는 2024년 12월에 공표 예정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천 톤 CO₂eq./yr, %)

연도	총 배출량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2005년	52,342	44,173	84.4	6,900	13.2	1,201	2.3	68	0.1
2020년	44,791	37,977	84.8	5,480	12.2	1,381	3.1	-46	-0.1
2021년	45,941	39,230	85.4	5,408	11.8	1,351	2.9	-48	-0.1

주: 1)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2) 2022년 데이터는 2024년 12월에 공표 예정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에너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천 톤 CO₂eq./yr, %)

연도	총 배출량	에너지산업 (발전)		제조업 및 건설업(산업)		건물(가정/상업/ 공공/농림어업)		수송		탈루배출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배출량	비율
2005년	45,780	1,414	3.1	2,619	5.7	30,250	66.1	11,341	24.8	157	0.3
2020년	40,630	1,979	4.9	985	2.4	29,187	71.8	8,346	20.5	132	0.3
2021년	42,027	2,064	4.9	965	2.3	30,537	72.7	8,328	19.8	133	0.3

주: 1) 간접배출-생산 부문 고려하지 않음
2)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3.12. 기준 변경된 데이터 반영
3) 2022년 데이터는 2024년 12월에 공표 예정
출처)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3. 기후 위기 심각성

개념	서울시민의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
산출방법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체감에 대한 심각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연도		종합	이상기온 (폭염/한파등)	태풍 및 집중호우	폭설	가뭄
2022년		6.12	6.53	6.15		5.69
2023년		6.78	7.44	6.93	6.28	6.47
구 별	종로구	6.88	7.26	6.84	6.71	6.70
	중구	7.33	7.81	7.38	6.89	7.25
	용산구	6.73	7.39	6.96	6.21	6.38
	성동구	6.80	7.47	7.30	5.97	6.44
	광진구	7.18	7.81	7.52	6.77	6.63
	동대문구	6.71	7.22	6.50	6.39	6.73
	종량구	6.49	7.18	6.29	6.23	6.25
	성북구	6.75	7.30	6.79	6.49	6.43
	강북구	7.27	8.38	7.75	6.23	6.72
	도봉구	7.05	7.82	7.31	6.58	6.50
	노원구	6.84	7.57	6.90	6.35	6.55
	은평구	6.75	7.54	6.97	6.21	6.27
	서대문구	6.81	7.39	7.04	6.20	6.60
	마포구	6.36	7.03	6.56	5.81	6.03
	양천구	5.53	6.33	5.67	4.68	5.43
	강서구	6.43	7.40	6.60	5.87	5.86
	구로구	7.24	8.02	7.48	6.73	6.72
	금천구	6.61	7.27	6.46	6.26	6.45
	영등포구	6.34	6.26	6.74	6.21	6.15
	동작구	6.92	7.91	7.20	6.15	6.44
	관악구	6.81	7.38	6.64	6.35	6.86
	서초구	7.08	7.50	7.08	6.70	7.04
	강남구	6.92	7.49	6.98	6.62	6.60
	송파구	7.16	7.81	7.59	6.46	6.78
	강동구	6.98	7.54	7.06	6.56	6.77

주: 1) 2022년 조사 '2) 폭우 및 폭설' 문항을 2023년 조사에서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 2개 문항으로 분리 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심각함 10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0점

제7장 교통

제1절 교통인프라

1. 버스전용차로 연장

개념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산출방법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연장(중앙버스전용차로+가로변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총 연장/주민등록인구)×10,000명
출처	• 서울시 교통운영과,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현황 통계 •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단위: km, 명, km/만 명)

연도	버스전용차로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인구 만 명당 버스전용차로
	계	중앙버스 전용차로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2014년	214.0	121.3	92.7	10,369,593	0.206
2015년	214.1	123.2	90.9	10,297,138	0.208
2016년	213.9	123.2	90.7	10,204,057	0.210
2017년	213.4	124.4	89.0	10,124,579	0.211
2018년	217.6	132.6	85.0	10,049,607	0.217
2019년	216.3	132.6	83.7	10,010,983	0.216
2020년	214.7	131.0	83.7	9,911,088	0.217
2021년	214.9	131.2	83.7	9,736,027	0.221
2022년	214.5	131.2	83.3	9,667,669	0.222
2023년	204.8	134.4	70.4	9,638,799	0.212

주: 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도로명 기준)
2) 중앙 버스전용차로: 세부도로명 기준인 서울특별시 고시자료를 도로축 개념으로 재산정
3) 주민등록인구: 등록 외국인 포함

2. 저상버스(친환경버스) 도입대수

개념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보와 관련된 지표
산출방법	연도별 친환경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대수, 누적도입대수
출처	• 서울시 버스정책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친환경버스 도입대수]

(단위: 대, %)

연도	총 버스대수	친환경버스 누적대수				당해연도 친환경버스 보급대수
		계	친환경버스 보급률(%)	천연가스(CNG) 버스대수	전기(수소) 버스	
2014년	7,485	7,482	99.96	7,482	-	168
2015년	7,482	7,482	100.00	7,482	-	649
2016년	7,482	7,482	100.00	7,482	-	674
2017년	7,382	7,382	100.00	7,382	-	810
2018년	7,405	7,405	100.00	7,375	30	880
2019년	7,399	7,399	100.00	7,278	121	958
2020년	7,393	7,393	100.00	7,071	322	920
2021년	7,393	7,393	100.00	7,020	373	491
2022년	7,363	7,363	100.00	6,427	936	662
2023년	7,385	7,385	100.00	6,158	1,227	131

주) 총 버스대수는 폐차대수 제외된 수치임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천연가스버스 현황

[저상버스 도입대수]

(단위: 대, %)

연도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 누적대수	저상버스 도입률(%)
2014년	298	2,496	37.7
2015년	208	2,650	40.0
2016년	352	2,874	43.8
2017년	310	3,112	47.5
2018년	638	3,332	50.9
2019년	758	3,946	60.3
2020년	739	4,272	65.1
2021년	220	4,412	67.2
2022년	299	4,711	70.5
2023년	402	4,926	75.0

주: 1)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대수의 경우 일부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또는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변경되는 경우로 인해 누적대수와 연도별 도입대수의 계산 합에서 차이가 존재함

2) 저상버스 도입률: 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에서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등록대수 (저상버스 등록대수/저상버스가 운행가능한 노선 수)*100

출처) 서울시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현황

3. 도시철도 연장

개념	도시 간 비교지표이며, 도시의 인구 대비 도시철도시설 공급 수준 척도로서 대중교통의 시설공급수준 파악
산출방법	• 인구 만 명당 서울시 지하철 연장 =(지하철 총 연장/주민등록인구)× 10,000명
출처	•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운영현황 • 서울시,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

(단위: km, 명, km/만 명)

연도	지하철 연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인구 만 명당 지하철 연장
2014년	327.1	10,369,593	0.315
2015년	331.6	10,297,138	0.322
2016년	331.6	10,204,057	0.325
2017년	342.7	10,124,579	0.338
2018년	351.7	10,049,607	0.350
2019년	353.0	10,010,983	0.353
2020년	357.6	9,911,088	0.361
2021년	359.9	9,736,027	0.370
2022년	357.4	9,667,669	0.370
2023년	371.7	9,638,799	0.386

[서울시 호선별 지하철 연장]

(단위: km)

연도	합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우이 신설 도시 철도	신림선 도시 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014년	327.1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27.0	-	-
2015년	331.6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	-
2016년	331.6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	-
2017년	342.7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31.5	11.1	-
2018년	351.7	7.8	60.2	38.2	31.7	52.3	35.1	57.1	17.7	40.6	11.0	-
2019년	353.0	7.8	60.2	38.2	31.7	52.3	36.4	57.1	17.7	40.6	11.0	-
2020년	357.6	8.0	60.2	38.2	31.7	56.9	36.4	57.1	17.7	40.6	11.0	-
2021년	359.9	7.8	60.2	38.2	31.1	59.8	36.4	57.1	17.7	40.6	11.0	-
2022년	357.4	8.0	60.2	38.2	31.1	59.8	36.3	46.9	17.7	40.6	11.0	7.8
2023년	371.7	7.8	60.2	38.2	45.4	59.8	36.3	46.9	17.7	40.6	11.0	7.8

4. 자전거 도로율

개념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율 파악
산출방법	(자전거 도로/전체 도로)×100
출처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자전거도로 현황 통계 •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현황

(단위: km, %)

연도	서울시 전체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율
2014년	8,214.5	724.6	8.8
2015년	8,215.1	778.8	9.5
2016년	8,240.6	868.7	10.5
2017년	8,270.7	888.7	10.7
2018년	8,273.4	916.0	11.1
2019년	8,309.7	940.6	11.3
2020년	8,323.7	1,258.8	15.1
2021년	8,328.4	1,290.4	15.5
2022년	8,328.4	1,316.0	15.8
2023년	8,330.4	1,336.8	16.0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km)

연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2014년	724.6	75.0	592.8	56.8	.
2015년	778.8	99.5	577.8	51.8	49.7
2016년	868.7	104.2	596.6	54.9	113.0
2017년	888.7	114.0	606.9	54.7	113.1
2018년	916.0	138.8	611.6	55.0	110.6
2019년	940.6	148.7	622.0	58.9	111.0
2020년	1,258.8	182.7	810.4	74.3	191.5
2021년	1,290.4	181.0	843.5	75.5	190.5
2022년	1,316.0	179.8	871.7	73.9	190.6
2023년	1,336.8	182.1	889.5	73.9	191.2

- 주: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3)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4) 자전거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파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14.1.28. 신설)

[장소별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km, %)

연도	계	도로변		하천		교량		공원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2014년	724.6	460.2	63.5	247.4	34.1	6.7	0.9	10.4	1.4
2015년	778.8	517.8	66.5	249.4	32.0	6.3	0.8	5.3	0.7
2016년	868.7	601.7	69.3	254.4	29.3	7.3	0.8	5.3	0.6
2017년	888.7	614.6	69.2	260.8	29.3	7.3	0.8	6.0	0.7
2018년	916.0	639.0	69.8	263.7	28.8	7.3	0.8	6.0	0.7
2019년	940.6	662.7	70.5	265.3	28.2	6.6	0.7	6.0	0.6
2020년	1,258.8	978.5	77.7	266.2	21.1	8.9	0.7	5.2	0.4
2021년	1,290.4	1,009.4	78.2	266.9	20.7	8.9	0.7	5.2	0.4
2022년	1,316.0	1,035.1	78.7	267.4	20.3	8.9	0.7	4.6	0.3
2023년	1,336.8	1,055.9	79.0	267.4	20.0	8.9	0.7	4.6	0.3

주) 도로변 자치구별 구간 및 길이는 중복된 연장 및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km)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2023년		1,336.8	182.1	889.5	73.9	191.2
도 로 변	소계	1,055.9	152.0	638.9	73.9	191.2
	종로구	32.1	4.2	10.9	6.9	10.1
	중구	22.4	4.2	7.5	-	10.7
	용산구	32.5	1.9	10.2	-	20.4
	성동구	29.2	1.7	17.0	2.0	8.5
	광진구	49.3	0.2	44.2	0.3	4.6
	동대문구	38.3	2.8	8.1	-	27.4
	종랑구	9.8	3.7	6.0	-	-
	성북구	16.8	6.6	7.0	2.9	0.4
	강북구	8.7	-	3.2	5.5	-
	도봉구	12.9	1.4	11.5	-	-
	노원구	44.0	2.3	28.5	13.2	-
	은평구	44.7	0.4	39.6	4.6	-
	서대문구	32.1	0.7	7.7	1.8	21.9
	마포구	67.4	6.2	14.2	7.4	39.6
	양천구	56.5	20.6	30.1	-	5.8
	강서구	77.3	32.2	40.6	-	4.6
	구로구	32.6	1.8	29.8	-	1.0
	금천구	9.2	2.6	6.6	-	-
	영등포구	64.2	4.2	8.1	19.9	32.0
	동작구	14.3	-	13.6	-	0.8
	관악구	27.7	4.7	19.6	-	3.4
	서초구	44.2	2.1	38.0	4.1	-
	강남구	113.4	8.8	101.6	3.0	-
	송파구	99.7	21.0	76.9	1.8	-
	강동구	76.6	17.6	58.4	0.6	-
기 타	소계	280.8	30.2	250.7	-	-
	하천	8.9	1.1	7.8	-	-
	교량	267.4	28.1	239.3	-	-
	공원	4.6	1.0	3.6	-	-

주) 도로변 자치구별 구간 및 길이는 중복된 연장 및 노선을 포함하여 전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대체연료차량 보급률

개념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등 대체연료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 (대체연료차량대수/전체 차량등록대수)×100 •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출처	•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단위: 대, %)

구분		전체 차량 합계	대체연료차량					대체연료 차량 보급률
			계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2014년		3,013,541	38,547	785	10,360	27,402	-	1.3
2015년		3,056,588	45,071	1,151	9,992	33,927	1	1.5
2016년		3,083,007	56,239	1,498	9,854	44,875	12	1.8
2017년		3,116,256	73,972	4,797	9,731	59,431	13	2.4
2018년		3,124,651	94,461	9,564	9,635	75,178	84	3.0
2019년		3,124,157	116,497	14,952	9,441	91,505	599	3.7
2020년		3,157,361	149,458	23,393	9,114	115,280	1,671	4.7
2021년		3,176,743	193,785	40,564	8,887	141,889	2,445	6.1
2022년		3,193,351	240,276	59,327	8,276	169,759	2,914	7.5
2023년		3,191,162	293,919	72,937	7,799	210,003	3,180	9.2
차 종 별	승용차	2,776,116	274,598	61,304	237	209,947	3,110	9.9
	승합차	91,067	8,871	1,501	7,261	44	65	9.7
	화물차	312,590	10,405	10,087	301	12	5	3.3
	특수차	11,389	45	45	-	-	-	0.4

출처) 서울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친환경차량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개)

연도	충전기 유형별 설치 현황 (누계)				수소차 충전소
	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2013년	10	8	2	-	-
2014년	8	8	0	-	-
2015년	12	4	8	-	-
2016년	66	36	30	-	-
2017년	1,175	188	987	-	-
2018년	2,083	233	1,850	-	-
2019년	1,643	186	1,457	-	1
2020년	2,430	261	2,169	-	3
2021년	2,750	148	2,602	-	5
2022년	5,707	126	1,362	4,219	5

출처)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6. 보도 면적

개념	보행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요 보행로에 대한 시민 보행의 쾌적한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보도 연장 및 면적
출처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보도 현황(특별시도상)

(단위: m, m², %)					
구분	보도 연장 (m)	보도 면적 (m²)	보도 연장 비율 (%)	보도 면적 비율 (%)	
2014년	1,659,404	6,656,052	100.0	100.0	
2015년	1,658,028	6,633,105	100.0	100.0	
2016년	1,657,446	6,609,813	100.0	100.0	
2017년	1,668,826	6,713,367	100.0	100.0	
2018년	1,664,267	6,631,136	100.0	100.0	
2019년	1,695,403	6,772,566	100.0	100.0	
2020년	1,697,117	6,778,973	100.0	100.0	
2021년	1,698,890	6,800,239	100.0	100.0	
2022년	1,695,805	6,781,380	100.0	100.0	
2023년	1,699,689	6,782,891	100.0	100.0	
구 별	종로구	65,875	281,758	3.9	4.2
	중구	63,825	285,280	3.8	4.2
	용산구	55,857	197,725	3.3	2.9
	성동구	71,835	231,894	4.2	3.4
	광진구	51,072	213,180	3.0	3.1
	동대문구	63,915	216,194	3.8	3.2
	종랑구	67,277	211,820	4.0	3.1
	성북구	68,370	252,727	4.0	3.7
	강북구	43,625	134,366	2.6	2.0
	도봉구	59,348	206,165	3.5	3.0
	노원구	76,108	233,478	4.5	3.4
	은평구	62,140	272,875	3.7	4.0
	서대문구	46,384	130,028	2.7	1.9
	마포구	80,728	314,173	4.8	4.6
	양천구	84,018	328,170	4.9	4.8
	강서구	68,918	237,342	4.1	3.5
	구로구	62,082	204,869	3.7	3.0
	금천구	35,969	119,374	2.1	1.8
	영등포구	93,981	377,916	5.5	5.6
	동작구	44,219	185,497	2.6	2.7
	관악구	67,170	237,000	4.0	3.5
	서초구	94,824	549,459	5.6	8.1
	강남구	114,979	587,291	6.8	8.7
	송파구	75,699	447,584	4.5	6.6
	강동구	66,609	278,963	3.9	4.1
	시설관리공단	14,862	47,763	0.9	0.7

제2절 교통서비스

1. 대중교통 이용객 수

개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파악
산출방법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객 수
출처	서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 명/일, %)

연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지하철							버스			
		계	비율 (%)	1~4 호선	5~8 호선	9 호선	우이 신설선	신림 선	계	비율 (%)	시내 버스	마을 버스
2014년	10,979	5,183	(47.2)	3,093	1,865	253	-	-	5,796	(52.8)	4,574	1,222
2015년	10,744	5,144	(47.9)	3,020	1,851	278	-	-	5,600	(52.1)	4,404	1,196
2016년	10,606	5,114	(48.2)	3,004	1,843	294	-	-	5,492	(51.8)	4,280	1,212
2017년	10,500	5,102	(48.6)	2,939	1,827	298	38	-	5,398	(51.4)	4,200	1,198
2018년	10,374	5,119	(49.3)	2,929	1,842	306	42	-	5,255	(50.7)	4,079	1,176
2019년	10,445	5,222	(50.0)	2,952	1,867	359	44	-	5,223	(50.0)	4,053	1,170
2020년	7,767	3,791	(48.8)	2,063	1,419	275	34	-	3,976	(51.2)	3,125	851
2021년	7,776	3,842	(49.4)	2,045	1,470	291	36	-	3,934	(50.6)	3,121	813
2022년	8,563	4,288	(50.1)	2,319	1,561	333	41	34	4,275	(49.9)	3,439	836
2023년	9,118	4,691	(51.4)	2,550	1,689	367	45	40	4,427	(48.6)	3,610	817

주: 1) 2011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부터 신분당선 이용객을 포함함(신분당선 개통일: '11.10.28.)
2) 2015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은 9호선 2단계 이용객을 포함함(9호선 2단계 개통일: '15.3.28.)
3) 2018년 지하철 이용객 현황은 9호선 3단계 이용객을 포함함(9호선 3단계 개통일: '18.12.1.)
4) 순 승차 기준 이용객

2. 교통이용수단 만족도

개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의 이용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버스	지하철	택시	시외버스/고속버스	
2014년	6.47	6.78	6.95	5.70	-	
2015년	6.59	6.88	7.01	5.88	-	
2016년	6.39	6.86	6.71	5.60	-	
2018년	6.62	6.91	7.06	5.83	-	
2019년	6.71	7.11	7.25	5.77	-	
2020년	6.81	7.20	7.30	5.86	-	
2021년	6.86	7.27	7.38	5.99	6.59	
2022년	6.65	7.27	7.41	5.79	5.89	
2023년	6.62	7.03	7.00	6.10	6.25	
구 별	종로구	6.23	6.33	6.38	5.95	6.00
	중구	6.99	7.34	7.16	6.92	6.51
	용산구	6.56	6.61	6.76	6.44	6.36
	성동구	6.93	7.41	7.64	6.34	6.28
	광진구	6.73	7.05	7.10	6.10	6.58
	동대문구	6.56	6.78	6.43	6.37	6.64
	종랑구	6.32	6.47	6.61	6.03	6.10
	성북구	6.51	7.28	7.26	5.87	5.33
	강북구	6.74	7.09	7.13	6.21	6.54
	도봉구	6.87	7.22	7.14	6.25	6.85
	노원구	6.58	6.72	6.34	6.56	6.68
	은평구	6.36	7.11	7.26	5.50	5.46
	서대문구	6.72	7.34	7.33	5.82	6.43
	마포구	6.58	7.10	7.21	5.84	6.25
	양천구	5.88	6.90	6.33	4.54	5.76
	강서구	7.29	8.01	7.88	6.35	6.69
	구로구	6.96	7.31	7.32	6.50	6.61
	금천구	6.77	7.31	6.78	6.77	6.08
	영등포구	5.09	5.09	5.31	4.95	4.86
	동작구	6.90	7.73	7.32	6.15	6.21
	관악구	6.70	6.83	6.86	6.50	6.51
	서초구	6.73	7.07	7.52	5.61	6.67
	강남구	6.64	6.83	6.78	6.47	6.46
	송파구	6.93	7.27	7.37	6.47	6.40
	강동구	6.74	7.10	7.11	6.50	6.19

주: 1) 2017년 비조사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3. 지하철 최고혼잡도

개념	서울지역에서 운행중인(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의 혼잡 정도
산출방법	혼잡도=지하철 1량당 정원대비 승차 인원
출처	서울시 도시철도과, 지하철 혼잡도

[서울교통공사]

(단위: %)

연도	혼잡도 평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2011년	164.0	144.0	196.0	149.0	180.0	170.0	143.0	182.0	147.0
2013년	158.0	144.0	202.0	147.0	169.0	154.0	130.0	172.0	139.0
2015년	146.0	106.0	192.0	134.0	176.0	149.0	121.0	165.0	123.0
2017년	135.0	105.0	170.0	140.0	160.0	110.0	111.0	156.0	130.0
2019년	134.3	105.6	172.7	143.8	161.7	107.3	106.1	145.6	131.2
2021년	126.8	84.0	149.4	140.6	150.8	132.2	95.9	127.0	134.1
2023년	136.2	109.1	144.0	140.1	166.2	127.2	111.3	152.7	139.1

주: 1) 2005년부터 2년 주기 조사

2) 혼잡도는 열차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 인원으로, 승차인과 좌석수가 일치할 경우를 혼잡도 34%로 산정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단위: %)

연도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 도시철도	신림선
	9호선 (급행열차)	1단계	2단계	3단계		
2011년	-	-	-	-	-	-
2013년	115 (196)	-	-	-	-	-
2015년	114 (205)	-	-	-	-	-
2017년	91 (175)	-	-	-	-	-
2019년	-	87 (145)	20.7 (58.3)	7.5 (14.5)	161.0	-
2021년	-	75 (135)	130.8	-
2023년	-	101 (156)	27 (44)	7.4 (12.8)	161.7	141.9

주: 1) 2005년부터 2년주기 조사

2) 혼잡도: 열차 1량당 정원대비 이용승객 인원으로, 승차인과 정원수가 일치할 경우를 혼잡도 100%로 산정

3) 9호선 혼잡도는 가장 혼잡한 상위 5개역의 목적기준으로 07:00~09:00 평균값이며, 전체 노선의 평균 혼잡도 산출시 제외. ()는 급행열차의 혼잡도임

4) 우이신설선은 2019 2021년도는 혼잡 4개역(솔샘역~성신여대입구역) 기준, 07:00~09:00 평균값, 2023년도는 가장혼잡한 정릉역 기준 07:30~08:30 평균값임

5) 신림선은 가장 혼잡한 서울지방병무청역 기준, 07:30~08:30 평균값임(22년 5월 개통)

6) ... : 미상자료

4. 보행환경 만족도

개념	보행자의 질적 보행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향후 보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중요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주거지와 서울 도심의 보행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주거지역 보행환경	서울도심 보행환경	야간보행
2014년		6.00	6.12	5.88	-
2015년		5.92	6.12	5.92	5.72
2016년		5.92	6.12	5.91	5.73
2017년		5.95	6.17	5.99	5.68
2018년		6.00	6.25	6.17	5.57
2019년		6.02	6.37	6.26	5.43
2020년		6.09	6.45	6.32	5.50
2021년		6.15	6.47	6.30	5.68
2022년		6.35	6.79	6.48	5.78
2023년		6.24	6.29	6.19	-
권 역 별	도심권	5.81	5.84	5.78	-
	동북권	6.28	6.37	6.19	-
	서북권	6.50	6.62	6.38	-
	서남권	6.12	6.12	6.12	-
	동남권	6.32	6.33	6.30	-

주: 1) 2023년: 하위 항목 변경으로(야간보행 만족도 문항 삭제), 연도 비교 및 해석 시 주의
2)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5. 공공자전거 이용자 수

개념	공공자전거 활성화 파악
산출방법	공공자전거 도입 및 누적대수, 이용자 수
출처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단위: 건, %)

연도	공공자전거 이용 횟수	전년 대비 증감
2015년	113,708	-
2016년	1,611,637	1,317.3
2017년	5,031,039	212.2
2018년	10,061,684	100.0
2019년	19,074,794	89.6
2020년	23,705,176	24.3
2021년	32,054,693	35.2
2022년	40,950,000	27.8
2023년	44,905,313	9.7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자전거 대여 권종별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단위: 건)

구 분	정기권 대여 건수	일일권 대여 건수	전체 대여 건수
2020년	17,736,156	5,969,020	23,705,176
2021년	24,976,560	7,076,807	32,053,367
2022년	32,906,389	8,042,511	40,948,900
2023년	37,327,534	7,577,779	44,905,313

출처)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이용 건수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단위: 대, 개소)

연도	공공자전거 수	대여소 수
2016년	5,600	450
2017년	20,000	1,290
2018년	25,000	1,540
2019년	29,500	2,085
2020년	37,500	2,228
2021년	40,500	2,600
2022년	43,500	2,719
2023년	45,000	2,762

출처)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

6. 통근/통학 소요 시간

개념	주요 교통지표로, 서울시민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의 통근 및 통학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통근/통학 소요 시간]

(단위: %, 분, 10점 만점)

연도	통근/통학 비율(%)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점)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 (분)	
2014년	74.5	41.0	44.7	12.1	1.8	0.4	33.1	-
2015년	75.4	37.5	44.8	14.4	3.2	0.1	35.8	-
2016년	73.4	39.0	49.1	10.3	1.5	0.1	33.3	-
2017년	71.8	40.6	43.9	13.2	1.8	0.5	33.4	-
2018년	72.9	39.0	42.9	15.5	2.1	0.5	34.6	5.87
2019년	73.7	37.7	44.7	15.7	1.6	0.3	34.8	5.88
2020년	70.2	35.3	44.4	17.2	2.4	0.7	36.5	5.96
2021년	67.2	33.5	44.5	18.1	3.0	0.8	37.5	6.05
2022년	76.0	40.4	45.3	13.1	1.1	0.2	33.2	6.29
2023년	75.3	37.2	47.2	14.2	1.2	0.2	34.5	6.30

주: 1) 통근/통학 비율: 가구원 전체 대상
2)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환경 만족도: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3)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통근/통학 지역]

(단위: %)

연도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다른 구	다른 시도
2014년	19.1	34.4	40.7	5.8
2015년	16.3	32.8	43.5	7.4
2016년	17.0	40.9	37.2	4.8
2017년	19.7	31.4	41.6	7.3
2018년	19.8	31.2	41.8	7.2
2019년	21.3	32.2	40.7	5.9
2020년	22.3	31.2	39.6	6.9
2021년	22.7	30.3	39.5	7.5
2022년	20.3	35.0	39.3	5.4
2023년	22.0	39.2	35.6	3.2

주) 통근/통학 응답자 대상

제8장 문화와 여가

제1절 문화활동과 향유

1.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개념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연도	관람 경험 있음	관람 경험 없음	비고
2014년	71.0	29.0	현장 관람 경험
2016년	94.9	5.1	
2018년	72.3	27.7	
2019년	75.0	25.0	
2020년	66.3	33.7	
2021년	55.7	44.3	현장 및 온라인 관람 경험
2022년	63.8	36.2	
2023년	64.6	35.4	

주: 1)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 2021년 이후 온라인 관람 여부 추가

[현장 방문 관람 횟수]

(단위: 회)

연도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문학행사
2014년	1.84	1.95	1.98	4.05	2.10	1.94	1.75	2.63	-
2016년	3.77	1.64	1.85	4.02	1.74	1.92	1.65	2.57	-
2018년	1.64	1.73	2.02	4.34	2.40	2.36	1.72	2.63	-
2019년	1.63	1.72	1.97	4.41	1.93	2.02	1.76	2.96	-
2020년	1.60	1.73	1.96	4.21	2.04	1.83	1.74	3.08	-
2021년	1.70	2.07	2.21	4.21	2.18	1.89	2.00	2.98	-
2022년	1.66	1.89	1.77	3.23	1.78	1.75	1.55	3.49	-
2023년	1.65	1.70	1.85	3.18	1.92	2.03	1.48	2.48	1.68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가구원 대상
2)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온라인 관람 횟수]

(단위: 회)

연도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문학행사
2021년	2.02	2.46	1.87	7.75	1.85	2.05	3.58	12.33	-
2022년	2.11	2.16	2.45	4.63	2.56	1.97	2.67	6.23	-
2023년	3.82	2.03	2.18	5.29	2.24	1.67	2.42	5.74	2.05

주) 지난 1년간 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가구원 대상

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개념	시민들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영화,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에 대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난 1년간 현장과 온라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 비용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원)

연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지출액								
	전통예술 공연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물관	대중공연	운동경기	문학행사
2014년	21,991	70,674	66,455	40,022	21,327	12,020	80,228	46,488	-
2016년	17,010	73,229	64,403	39,943	20,054	15,016	73,718	41,330	-
2018년	25,773	89,475	79,302	47,844	38,997	14,855	89,850	53,263	-
2019년	31,012	82,457	83,008	48,714	22,218	16,345	106,438	77,012	-
2020년	31,197	93,312	94,617	49,545	27,887	17,660	121,908	62,432	-
2021년	27,767	59,606	79,094	47,911	28,130	17,606	44,079	19,849	-
2022년	18,292	124,375	95,461	48,257	25,772	16,918	74,992	35,167	-
2023년	24,997	84,321	88,430	47,791	26,807	20,994	123,285	44,291	37,686

주: 1) 지난 1년간 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 가구원 대상
2)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3) 2020년 이전: 현장 관람 비용, 2021년 이후: 현장 및 온라인 관람 비용

3. 문화환경 만족도

개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산출방법	가구원 대상 서울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문화환경 만족도			종합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비용	
2021년		6.03	5.72	5.08	5.61
2022년		6.32	5.93	4.92	5.73
2023년		6.34	5.83	5.19	5.79
구 별	종로구	5.65	4.74	5.01	5.13
	중구	6.10	5.68	5.25	5.68
	용산구	6.49	6.05	5.24	5.93
	성동구	6.65	6.26	5.47	6.13
	광진구	6.63	5.89	5.81	6.11
	동대문구	6.31	5.49	5.60	5.80
	중랑구	6.40	5.37	5.10	5.62
	성북구	6.66	6.20	6.04	6.30
	강북구	6.12	5.59	4.14	5.28
	도봉구	6.05	5.58	4.22	5.28
	노원구	6.06	5.57	5.19	5.61
	은평구	6.56	5.68	4.70	5.65
	서대문구	6.42	6.14	4.86	5.81
	마포구	6.68	6.17	5.42	6.09
	양천구	6.58	6.36	5.36	6.10
	강서구	6.34	5.93	5.67	5.98
	구로구	6.65	6.23	5.48	6.12
	금천구	6.06	5.53	4.99	5.53
	영등포구	4.87	4.83	4.25	4.65
	동작구	6.82	6.24	5.02	6.03
	관악구	5.86	5.28	4.96	5.37
	서초구	6.53	6.02	5.51	6.02
	강남구	6.45	5.87	5.47	5.93
	송파구	6.66	6.29	5.56	6.17
	강동구	6.20	5.79	4.66	5.55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4. 디자인환경 만족도

개념	서울의 매력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도시의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산출방법	서울시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주) 2024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신규문항으로, 관련 데이터는 2025년 보고서에 반영 예정

제2절 문화기반

1. 도서관 수

개념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화 생활기초시설
산출방법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개소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조사

(단위: 개소)

구분	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2014년	491	3	132	88	268	
2015년	499	3	146	88	262	
2016년	503	3	147	89	264	
2017년	512	3	160	88	261	
2018년	525	3	173	88	261	
2019년	529	3	180	88	258	
2020년	542	3	188	88	263	
2021년	537	3	195	88	251	
2022년	478	3	199	91	185	
2023년	478	3	207	88	180	
구 별	종로구	41	-	9	7	25
	중구	38	-	9	2	27
	용산구	20	-	4	3	13
	성동구	10	-	7	2	1
	광진구	13	-	7	3	3
	동대문구	18	-	9	4	5
	종량구	8	-	5	2	1
	성북구	25	-	13	8	4
	강북구	11	-	7	3	1
	도봉구	10	-	9	1	-
	노원구	21	-	9	7	5
	은평구	13	-	8	1	4
	서대문구	17	-	4	11	2
	마포구	15	-	6	2	7
	양천구	12	-	10	-	2
	강서구	20	-	9	4	7
	구로구	19	-	13	3	3
	금천구	6	-	4	1	1
	영등포구	23	1	6	2	14
	동작구	18	-	8	5	5
	관악구	10	-	5	3	2
	서초구	46	2	9	8	27
	강남구	31	-	16	3	12
	송파구	20	-	12	2	6
	강동구	11	-	9	1	1
	기타	2	-	-	-	2

주: 1)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
2) 전문도서관 기타: 지역은 서울이나 주소는 다른 시도인 경우

2. 지역문화시설 수

개념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현황 파악
산출방법	• 지역문화복지시설(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민(다목적)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수 •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수
출처	• 서울시 문화예술과·복지정책과·체육진흥과·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 서울시 문화예술과·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단위: 개소)

연도	문화시설 (계)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개	문예 회관	종합 사회 복지관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소개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13년	260	229	18	98	48	65	31	25	2	4
2014년	254	223	18	98	44	63	31	25	2	4
2015년	256	225	18	98	46	63	31	25	2	4
2016년	256	224	18	98	46	62	32	25	3	4
2017년	257	225	18	99	48	60	32	25	3	4
2018년	292	260	18	98	78	66	32	25	3	4
2019년	295	263	18	98	81	66	32	25	3	4
2020년	297	265	18	98	82	67	32	25	3	4
2021년	303	271	18	99	84	70	32	25	3	4
2022년	307	275	18	99	86	72	32	25	3	4

주) 구민(다목적)체육시설: 2018년부터 구자체 운영시설 포함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자치구별]

(단위: 개소)

구분		문화시설 (개)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계	문예 회관	종합 사회 복지관	구민 (다목적)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22년		307	275	18	99	86	72	32	25	3	4
구 별	종로구	9	5	1	1	3	-	4	1	1	2
	중구	17	15	1	3	7	4	2	1	1	-
	용산구	9	8	1	2	2	3	1	1	-	-
	성동구	14	13	2	3	6	2	1	1	-	-
	광진구	10	9	1	3	4	1	1	1	-	-
	동대문구	7	6	-	2	3	1	1	1	-	-
	중랑구	9	8	-	4	2	2	1	1	-	-
	성북구	12	11	-	5	3	3	1	1	-	-
	강북구	10	9	1	4	2	2	1	1	-	-
	도봉구	12	11	-	3	2	6	1	1	-	-
	노원구	17	16	1	9	2	4	1	1	-	-
	은평구	11	10	1	3	2	4	1	1	-	-
	서대문구	10	9	1	3	3	2	1	1	-	-
	마포구	12	11	1	3	3	4	1	1	-	-
	양천구	14	13	1	5	4	3	1	1	-	-
	강서구	20	19	-	10	6	3	1	1	-	-
	구로구	13	12	1	3	5	3	1	1	-	-
	금천구	9	8	1	2	3	2	1	1	-	-
	영등포구	11	10	1	2	2	5	1	1	-	-
	동작구	15	14	-	6	4	4	1	1	-	-
	관악구	12	11	1	5	3	2	1	1	-	-
	서초구	15	13	1	4	6	2	2	1	1	-
	강남구	15	13	-	6	4	3	2	1	-	1
	송파구	14	12	-	6	1	5	2	1	-	1
	강동구	10	9	1	2	4	2	1	1	-	-

주) 구민(다목적)체육시설: 2018년부터 구자체 운영시설 포함

출처: 1)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정책과, 문화공간(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서울시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공간(문화보급전수시설)

3. 공연 건수 및 전시 횟수

개념	공연 건수와 전시 횟수를 통해 문화시장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미술 전시 횟수, 공연예술(국악, 양악, 무용, 연극, 혼합) 행사 건수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단위: 건)

연도	계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시
		소계	국악	무용	연극	양악/음악	혼합	
2013년	11,928	5,104	505	721	1,032	2,846	-	6,824
2014년	13,581	6,048	636	528	1,212	3,672	-	7,533
2015년	12,465	6,949	502	537	1,635	3,821	454	5,516
2016년	12,350	6,653	411	527	1,615	3,568	532	5,697
2017년	13,217	7,018	619	507	1,667	3,571	654	6,199
2018년	14,093	7,781	751	479	1,777	4,101	673	6,312
2019년	13,863	7,595	662	544	1,835	3,779	775	6,268
2020년	5,539	3,429	184	173	1,042	1,842	188	2,110
2021년	12,533	6,924	431	491	1,754	3,874	374	5,609
2022년	15,377	8,678	736	538	2,046	4,955	403	6,699

4. 문화예술사업체 수

개념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출판, 음반,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기타)
산출방법	창작 및 예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업체,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사업체 수의 총합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문화예술사업체 수]

(단위: 개)

연도	합계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사업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2020년	30,044	6,953	3,168	8,650	11,273
2021년	28,722	6,317	3,171	8,909	10,325
2022년	28,242	6,048	3,084	9,341	9,769

주: 1) 문화예술사업체 유형은 2019년 이전까지 행정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등록된 업체를 기반으로 산정함
2) 2020년 자료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세세분류는 이를 참고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사업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2020년	88,627	20,022	15,380	27,469	25,756
2021년	88,491	18,518	15,420	29,537	25,016
2022년	90,030	17,902	14,855	32,881	24,392

제3절 여가활동과 향유

1. 여가생활 만족도

개념	개인이 느끼는 여가시간 충분성과 주관적 여가생활 만족도 파악
산출방법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여가시간 충분성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종합평가			평균(점)
		불만족	보통	만족	
2019년		20.3	48.9	30.8	5.28
2020년		20.4	47.8	31.8	5.27
2021년		18.4	47.3	34.4	5.40
2022년		13.7	46.2	40.2	5.69
2023년		11.8	50.4	37.8	5.70
연령별	10대	14.6	56.6	28.9	5.36
	20대	9.2	49.0	41.7	5.94
	30대	10.8	46.0	43.2	5.87
	40대	11.7	48.3	39.9	5.76
	50대	11.3	51.7	37.0	5.68
	60세 이상	13.6	53.3	33.2	5.52
소득별	200만원 미만	16.2	52.2	31.6	5.37
	200~300만원 미만	14.1	49.6	36.3	5.58
	300~400만원 미만	12.6	51.6	35.9	5.63
	400~500만원 미만	12.1	50.9	37.0	5.67
	500만원 이상	10.1	49.8	40.1	5.83
권역별	도심권	14.6	56.8	28.6	5.37
	동북권	10.8	50.3	38.8	5.75
	서북권	11.5	41.8	46.7	5.99
	서남권	12.9	52.5	34.6	5.58
	동남권	11.1	51.0	37.9	5.73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계
2023년		46.5	53.5	100.0
연령 별	10대	29.7	70.3	100.0
	20대	40.4	59.6	100.0
	30대	37.8	62.2	100.0
	40대	39.4	60.6	100.0
	50대	47.1	52.9	100.0
	60세 이상	61.4	38.6	100.0
소득 별	200만원 미만	64.5	35.5	100.0
	200~300만원 미만	51.5	48.5	100.0
	300~400만원 미만	46.2	53.8	100.0
	400~500만원 미만	42.6	57.4	100.0
	500만원 이상	43.3	56.7	100.0
권역 별	도심권	52.6	47.4	100.0
	동북권	48.5	51.5	100.0
	서북권	43.2	56.8	100.0
	서남권	47.8	52.2	100.0
	동남권	41.9	58.1	100.0

[여가생활 동반자]

(단위: %)

연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척 포함)	친구와 함께 (연인 포함)	동호회 활동 (종교단체 등)	직장 동료	기타
2014년		17.9	50.5	26.8	4.2	0.7	-
2016년		18.7	49.7	26.2	3.9	1.4	0.1
2018년		18.4	46.1	30.3	4.5	0.8	-
2019년		18.7	42.3	33.2	4.6	1.2	-
2020년		26.0	42.4	28.1	2.4	1.1	-
2021년		32.9	37.9	25.3	2.5	1.3	-
2022년		22.6	41.3	33.5	2.0	0.7	-
2023년		25.6	38.0	33.0	2.0	1.4	-
연령 별	10대	22.9	14.2	62.8	0.0	0.0	-
	20대	21.1	15.9	60.7	1.8	0.5	-
	30대	19.2	44.0	33.9	1.2	1.7	-
	40대	19.9	57.2	19.7	1.2	1.9	-
	50대	27.0	43.6	24.7	2.5	2.3	-
	60세 이상	34.9	35.7	25.2	3.2	1.1	-
소득 별	200만원 미만	51.7	14.2	29.9	3.7	0.5	-
	200~300만원 미만	34.2	21.0	40.8	2.6	1.4	-
	300~400만원 미만	28.6	32.6	34.7	2.1	1.9	-
	400~500만원 미만	22.6	43.0	31.2	1.7	1.6	-
	500만원 이상	18.8	46.8	31.4	1.7	1.3	-
권역 별	도심권	36.7	32.1	28.2	1.6	1.4	-
	동북권	24.7	35.3	36.7	2.0	1.3	-
	서북권	20.0	43.2	32.9	2.7	1.2	-
	서남권	30.5	35.2	31.2	1.9	1.2	-
	동남권	20.4	44.6	31.2	1.9	1.9	-

주) 2018년 이전 격년 조사

2.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개념	서울시민들의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인식 파악
산출방법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7점 척도)

구분		종합평가			평균(점)
		일에 더 집중	균형	여가에 더 집중	
2023년		39.8	35.3	24.9	3.80
연령 별	10대	52.5	33.0	14.4	3.36
	20대	44.5	35.7	19.8	3.66
	30대	47.9	33.5	18.6	3.58
	40대	47.3	33.4	19.3	3.61
	50대	39.5	36.3	24.2	3.79
	60세 이상	26.2	36.9	36.9	4.20
소득 별	200만원 미만	23.9	34.7	41.3	4.32
	200~300만원 미만	36.4	36.9	26.7	3.91
	300~400만원 미만	39.2	38.0	22.8	3.76
	400~500만원 미만	44.1	34.3	21.6	3.70
	500만원 이상	42.4	34.3	23.3	3.73
권역 별	도심권	39.8	35.3	24.9	3.80
	동북권	39.9	34.7	25.5	3.82
	서북권	41.2	41.7	17.1	3.69
	서남권	40.4	33.4	26.2	3.76
	동남권	37.3	36.3	26.4	3.89

주) 7점 척도: 일에 더 집중 1점, 균형 4점, 여가에 더 집중 7점

3. 여행 건수

개념	서울시민들의 국내외 여행 실태 조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국내 및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국내 여행 경험]

(단위: %, 회, 일)

구분		국내 여행 경험률	국내 숙박 여행 횟수	국내 숙박 여행 평균 기간				국내 당일 여행 횟수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상	평균(일)	
2023년		65.8	1.92	61.1	30.9	8.0	2.44	3.17
연령별	10대	50.9	1.80	64.4	30.8	4.8	2.28	3.16
	20대	69.7	2.00	61.1	30.9	8.1	2.46	3.38
	30대	75.9	2.06	57.8	33.1	9.1	2.50	3.29
	40대	72.7	2.02	59.6	32.7	7.8	2.46	3.49
	50대	66.4	1.81	58.5	32.0	9.5	2.52	3.00
	60세 이상	55.7	1.71	67.4	26.1	6.5	2.31	2.80
학력별	중학교 이하	42.5	1.60	68.7	25.2	6.1	2.25	2.57
	고등학교	60.6	1.79	66.6	26.7	6.7	2.35	2.82
	전문대/대학교	72.4	1.98	58.5	33.0	8.6	2.49	3.36
	대학원 이상	72.0	2.52	56.5	28.8	14.7	2.62	4.08
소득별	200만원 미만	38.7	0.92	70.5	22.9	6.6	2.25	2.46
	200~300만원 미만	56.4	1.35	73.4	21.1	5.5	2.25	2.75
	300~400만원 미만	61.1	1.41	65.4	25.8	8.9	2.38	2.97
	400~500만원 미만	65.4	1.44	61.2	32.1	6.7	2.42	3.10
	500만원 이상	74.4	1.59	57.2	34.1	8.7	2.50	3.39
혼인별	배우자 있음	70.3	1.91	59.2	32.6	8.2	2.48	3.20
	미혼	65.9	1.98	61.9	29.9	8.2	2.42	3.26
	이혼/사별/기타	46.6	1.71	73.2	21.4	5.4	2.22	2.71
권역별	도심권	59.2	2.32	72.3	23.4	4.3	2.12	3.21
	동북권	66.3	1.87	60.2	33.2	6.6	2.43	2.85
	서북권	70.8	1.82	61.1	32.3	6.6	2.39	2.83
	서남권	62.6	1.91	66.3	24.6	9.1	2.44	2.89
	동남권	68.4	2.00	53.7	36.4	10.0	2.54	4.21

[해외 출국 경험]

(단위: %, 중복응답, 회)

구분		해외 출국 경험률	해외 출국 경험 횟수			
			관광	가족/친지 방문	업무	교육 (어학연수 포함)
2023년		21.1	1.23 (94.1)	1.24 (3.9)	1.46 (7.7)	1.59 (1.6)
연령 별	10대	12.0	1.18	1.52	-	1.40
	20대	27.0	1.28	1.39	1.34	1.08
	30대	32.0	1.23	1.30	1.41	1.40
	40대	24.4	1.18	1.15	1.47	3.08
	50대	21.0	1.24	1.24	1.55	2.43
	60세 이상	11.1	1.20	1.23	2.05	3.04
학력 별	중학교 이하	4.8	1.15	1.17	1.00	1.00
	고등학교	13.1	1.17	1.16	1.40	2.61
	전문대/대학교	27.4	1.23	1.26	1.41	1.53
	대학원 이상	52.6	1.55	1.40	1.87	1.63
소득 별	200만원 미만	3.7	1.06	1.00	1.00	1.00
	200~300만원 미만	13.9	1.19	1.23	1.15	1.26
	300~400만원 미만	20.2	1.25	1.18	1.21	1.04
	400~500만원 미만	18.7	1.21	1.27	1.30	3.12
	500만원 이상	26.8	1.23	1.27	1.64	1.47
혼인 별	배우자 있음	20.9	1.19	1.27	1.56	3.14
	미혼	26.7	1.28	1.23	1.33	1.10
	이혼/사별/기타	9.3	1.20	1.11	1.53	3.68
권역 별	도심권	16.0	1.39	1.11	1.73	1.30
	동북권	17.1	1.22	1.37	1.33	2.55
	서북권	17.6	1.18	1.28	1.46	2.19
	서남권	18.8	1.22	1.27	1.28	1.22
	동남권	33.8	1.23	1.14	1.67	1.56

제9장 교육과 돌봄

제1절 교육 및 보육환경

1. 거주지역 교육만족도

개념	초·중·고교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만족도 조사 (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교육환경 만족도
2014년		5.41
2015년		5.43
2016년		5.44
2017년		5.45
2018년		5.57
2019년		5.71
2020년		5.69
2021년		5.74
2022년		6.20
2023년		6.27
권역별	도심권	6.19
	동북권	6.25
	서북권	6.38
	서남권	6.11
	동남권	6.50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만족 10점, 매우 불만족 0점

2. 평생교육 참여율

개념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년간 만 25세부터 만 79세까지 한국 성인 인구 중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 평생학습 참여율 = (형식교육자+비형식교육자-동시참여자)/한국의 성인 인구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평생교육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소계	직업관련 목적
2023년	전국	32.3	0.6	31.9	15.0
	서울	32.0	0.6	31.7	9.9
	인천	25.7	0.5	25.3	10.4
	경기	29.3	0.5	28.9	12.1

- 주: 1) 전체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 2) 평생학습 참여율: 지난 1년간(2022년 1월~12월), 만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율
- 3) 직업관련 목적: '취업, 이직, 창업',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 4) 서울과 인천의 형식교육 : 신뢰도가 다소 낮아 해석 시 주의 필요
- 5) 평생학습: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으로 분류
- 형식교육: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함
 -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함.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클럽, 개인교와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함

[서울 및 광역시 평생교육 참여율]

(단위: %)

연도	서울 및 광역시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었음
			소계	직업관련 목적	
2014년	34.9	3.2	33.4	23.0	-
2015년	41.9	4.4	40.0	27.3	-
2016년	32.7	2.6	31.4	13.5	69.3
2017년	35.2	2.0	34.1	13.8	33.2
2018년	41.9	3.1	40.8	17.1	33.7
2019년	42.7	1.8	41.6	18.0	33.0
2020년	40.8	1.5	40.0	19.7	30.2
2021년	31.2	0.7	30.6	16.3	24.3
2022년	29.5	0.6	29.1	13.7	16.6
2023년	32.7	0.6	32.3	14.3	14.8

- 주: 1) 전체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 평생학습 참여율: 지난 1년간(2022년 1월~12월), 만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율
3) 직업관련 목적: '취업, 이직, 창업',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4) 2016년 이전까지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017년 이후부터는 만 25~79세 성인 남녀를 조사
5) (2023년 기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동시에 학습한 만 25~79세 성인은 0.2%임

[평생학습 프로그램 불참요인 (상위 5위 항목)]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 기관이 없어서	동기, 자신감 부족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2023년	전국	53.3	24.0	15.9	14.5	13.8
	서울	60.7	17.1	27.6	14.4	17.4
	인천	46.8	32.7	20.1	26.2	23.0
	경기	53.0	26.8	16.1	13.4	13.6

- 주: 1) 참여하지 못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었음: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응답자(만 25~79세) 전체 대상
2)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요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만 25~79세)에 대한 현황이며 중복응답임

3.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학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보육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0~5세 영유아의 유아교육·보육 이용 현황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xt{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 수} + \text{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아 수} + \text{직장어린이집 이용아 수} + \text{국공립유치원 이용아 수}) / \text{영유아 인구 수}\} \times 100$• $\{(\text{전체 어린이집 이용아 수} + \text{전체 유치원 이용아 수}) / \text{영유아 인구 수}\} \times 100$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영유아의 전체 교육·보육 이용률]

(단위: 명, %)

연도	영유아 전체 교육·보육 이용아 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 수	영유아의 전체 교육·보육 이용률
	합계	어린이집 이용아 수	유치원 이용아 수		
2014년	334,627	243,432	91,195	487,829	68.6
2015년	329,497	238,103	91,394	481,650	68.4
2016년	327,576	236,550	91,026	463,346	70.7
2017년	323,854	234,867	88,987	439,409	73.7
2018년	312,172	226,959	85,213	404,299	77.2
2019년	295,453	217,444	78,009	379,666	77.8
2020년	270,917	196,260	74,657	347,425	78.0
2021년	252,880	182,922	69,958	314,441	80.4
2022년	233,951	167,427	66,524	288,997	81.0
2023년	218,131	155,251	62,880	269,570	80.9

주: 1) 5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 등록외국인 포함

2) 영유아 전체 교육·보육 이용률: $(\text{전체 어린이집 이용아 수} + \text{전체 유치원 이용아 수} / \text{5세 이하 영유아 인구 수}) \times 100$

3)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4) 전체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영유아의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단위: 명, %)

연도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아 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 수	영유아의 공공교육 ·보육 이용률
	합계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명)				공공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명)				
		소계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직장	소계	국립	공립		
2014년	84,882	71,330	59,036	2,214	10,080	13,552	-	13,552	487,829	17.4
2015년	90,592	75,485	62,556	2,088	10,841	15,107	-	15,107	481,650	18.8
2016년	96,525	81,045	67,240	2,005	11,800	15,480	-	15,480	463,346	20.8
2017년	103,719	88,716	74,098	1,878	12,740	15,003	-	15,003	439,409	23.6
2018년	110,521	95,155	79,732	1,714	13,709	15,366	-	15,366	404,299	27.3
2019년	117,267	101,378	85,465	1,580	14,333	15,889	-	15,889	379,666	30.9
2020년	118,596	101,403	85,925	1,393	14,085	17,193	-	17,193	347,425	34.1
2021년	116,662	99,938	85,501	1,187	13,250	16,724	-	16,724	314,441	37.1
2022년	111,060	95,089	81,969	991	12,129	15,971	-	15,971	288,997	38.4
2023년	107,186	92,900	79,939	872	12,089	14,286	-	14,286	269,570	39.8

주: 1) 5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 등록외국인 포함

2) 영유아 공공교육·보육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 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아 수 + 직장어린이집 이용아 수 + 국공립유치원 이용아 수) / 5세 이하 영유아 인구 수 × 100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5세 이하 영유아 대비 공공교육·보육 설립유형별 이용률]

(단위: %)

연도	공공교육·보육 설립유형별 이용률							
	계	공공 어린이집 이용률				공공 유치원 이용률		
		소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소계	국립	공립
2014년	17.4	14.6	12.1	0.5	2.1	2.8	-	2.8
2015년	18.8	15.7	13.0	0.4	2.3	3.1	-	3.1
2016년	20.8	17.5	14.5	0.4	2.5	3.3	-	3.3
2017년	23.6	20.2	16.9	0.4	2.9	3.4	-	3.4
2018년	27.3	23.5	19.7	0.4	3.4	3.8	-	3.8
2019년	30.9	26.7	22.5	0.4	3.8	4.2	-	4.2
2020년	34.1	29.2	24.7	0.4	4.1	4.9	-	4.9
2021년	37.1	31.8	27.2	0.4	4.2	5.3	-	5.3
2022년	38.4	32.9	28.4	0.3	4.2	5.5	-	5.5
2023년	39.8	34.5	29.7	0.3	4.5	5.3	-	5.3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제2절 사회적 약자 보호

1. 사회복지예산 비중

개념	• 전체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 • 세부 영역별(저소득, 어르신, 여성보육, 주거, 장애인, 보건, 교육) 예산 비율
산출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전체 예산)×100 • (세부 영역별 예산/서울시 사회복지예산) ×100
출처	서울시 예산담당관, 한눈에 보는 서울예산

(단위: 억 원, %)

연도	예산 총액 (순계)	사회복지예산								
		계	비율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보건	여성 보육	주거	교육
2014년	215,498	68,425	31.8	17,271	11,318	5,942	2,956	20,182	8,265	2,492
2015년	228,427	78,349	34.3	19,155	15,838	6,926	3,594	20,878	9,479	2,479
2016년	242,350	83,452	34.4	18,514	16,975	7,134	3,874	21,752	11,936	3,267
2017년	263,017	87,735	33.4	20,779	18,087	7,541	4,179	21,831	11,768	3,550
2018년	280,179	96,597	34.5	23,489	20,883	7,505	4,546	23,892	12,777	3,505
2019년	318,811	111,574	35.0	25,717	25,411	9,586	4,618	26,565	15,759	3,919
2020년	352,808	128,904	36.5	30,253	29,043	11,262	4,850	28,971	19,980	4,545
2021년	354,485	130,633	36.9	32,182	32,005	11,986	5,071	27,944	17,209	4,236
2022년	392,061	142,287	36.3	34,700	34,339	13,144	7,001	29,192	18,851	5,061
2023년	415,830	159,506	38.4	38,042	37,099	15,101	6,333	30,855	27,029	5,047

[항목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연도	사회복지예산 비중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보건	여성보육	주거	교육
2014년	25.2	16.5	8.7	4.3	29.5	12.1	3.6
2015년	24.4	20.2	8.8	4.6	26.6	12.1	3.2
2016년	22.2	20.3	8.5	4.6	26.1	14.3	3.9
2017년	23.7	20.6	8.6	4.8	24.9	13.4	4.0
2018년	24.3	21.6	7.8	4.7	24.7	13.2	3.6
2019년	23.0	22.8	8.6	4.1	23.8	14.1	3.5
2020년	23.5	22.5	8.7	3.8	22.5	15.5	3.5
2021년	24.6	24.5	9.2	3.9	21.4	13.2	3.2
2022년	24.4	24.1	9.2	4.9	20.5	13.2	3.6
2023년	23.8	23.3	9.5	4.0	19.3	16.9	3.2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념	전체 인구에서 법으로 지정된 저소득층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최근 1년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구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총 수급자	총 수급자율	총 수급자	총 수급자율	총 수급자	총 수급자율	총 수급자	총 수급자율
2013년	1,350,891	2.59	201,958	1.94	70,984	2.42	189,259	1.51
2014년	1,328,713	2.53	206,687	1.99	72,113	2.44	189,400	1.49
2015년	1,646,363	3.13	258,427	2.51	97,334	3.26	257,850	2.00
2016년	1,630,614	3.08	267,023	2.62	100,301	3.34	263,841	2.02
2017년	1,581,646	2.99	263,347	2.60	98,789	3.28	261,050	1.97
2018년	1,743,690	3.29	289,342	2.88	110,257	3.65	297,122	2.20
2019년	1,881,357	3.54	317,269	3.17	122,027	4.03	328,752	2.41
2020년	2,134,186	4.03	369,518	3.73	142,628	4.74	379,725	2.75
2021년	2,359,672	4.47	402,632	4.14	159,186	5.28	422,615	3.03
2022년	2,451,458	4.66	412,409	4.27	166,083	5.46	443,985	3.18

주: 1)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2) 총 수급자 =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총 수급자율 = (총수급자 인원/주민등록인구)×100
3) 주민등록인구: 등록 외국인 포함
4)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유형별 수급자 수]

(단위: 명)

연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13년	1,258,582	92,309	190,480	11,478	66,568	4,416	175,069	14,190
2014년	1,237,386	91,327	194,808	11,879	67,594	4,519	175,449	13,951
2015년	1,554,484	91,879	246,580	11,847	92,872	4,462	243,282	14,568
2016년	1,539,539	91,075	255,226	11,797	95,767	4,534	248,944	14,897
2017년	1,491,650	89,996	251,809	11,538	94,159	4,630	246,032	15,018
2018년	1,653,781	89,909	277,991	11,351	105,440	4,817	281,505	15,617
2019년	1,792,012	89,345	306,548	10,721	117,111	4,916	312,511	16,241
2020년	2,046,213	87,973	359,244	10,274	137,676	4,952	362,988	16,737
2021년	2,268,852	90,820	392,527	10,105	153,668	5,518	404,621	17,994
2022년	2,359,228	92,230	402,664	9,745	160,101	5,982	424,697	19,288

주) 데이터 출처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 시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시	202,991	207,736	259,446	267,978	264,227	290,222	318,127	370,226	403,311	413,055
본청	1,033	1,049	1,019	955	880	880	858	708	679	646
종로구	3,786	3,759	4,297	4,249	4,296	4,450	4,790	5,232	5,559	5,697
중구	3,454	3,287	3,983	3,972	3,966	4,266	4,611	5,299	5,905	6,146
용산구	4,582	4,766	5,965	5,978	5,940	6,515	6,957	8,265	8,882	9,081
성동구	5,651	5,624	7,242	7,221	7,003	7,839	8,488	9,718	10,241	10,238
광진구	5,052	5,296	7,444	7,588	7,411	8,720	9,684	11,864	13,261	13,535
동대문구	8,805	8,988	11,448	11,585	11,300	12,453	13,226	15,043	16,190	16,328
종랑구	9,569	9,932	14,836	15,194	15,228	17,070	19,885	24,833	27,154	28,019
성북구	9,818	10,348	12,564	12,888	12,434	12,909	13,719	15,634	16,740	17,220
강북구	11,087	11,431	13,838	15,325	14,953	16,175	17,723	19,846	21,917	22,846
도봉구	5,708	6,051	9,558	10,331	10,625	11,470	12,192	13,876	15,373	16,175
노원구	21,375	21,472	24,734	24,889	24,224	26,012	27,891	31,054	32,553	32,453
은평구	12,565	12,943	17,145	17,644	17,350	19,677	20,788	24,139	25,438	25,922
서대문구	5,538	5,779	7,148	7,563	7,719	8,820	9,224	10,614	11,834	12,001
마포구	6,331	6,412	7,694	7,717	7,444	8,206	8,891	10,160	10,969	11,129
양천구	6,906	6,881	10,299	10,660	10,419	12,118	13,811	16,060	17,463	17,720
강서구	17,561	18,042	19,891	21,071	20,765	22,252	24,152	27,797	31,000	31,728
구로구	6,032	6,191	8,384	8,660	8,463	8,906	10,334	12,329	13,861	14,817
금천구	7,875	7,715	9,451	9,545	9,454	9,820	10,524	11,637	12,625	13,262
영등포구	7,842	7,460	8,628	8,044	7,833	8,511	9,350	10,963	11,828	12,058
동작구	5,866	6,068	7,054	7,991	8,004	9,306	10,623	12,408	13,202	13,314
관악구	10,670	10,815	12,225	13,039	13,192	14,455	16,249	20,517	22,941	23,318
서초구	3,225	3,532	4,700	4,853	4,873	5,477	6,009	6,791	7,418	7,674
강남구	9,372	10,319	11,410	11,532	11,201	11,507	12,886	14,660	15,840	16,117
송파구	6,309	6,377	9,012	9,480	9,594	12,019	13,509	16,081	17,769	18,144
강동구	6,979	7,199	9,477	10,004	9,656	10,389	11,753	14,698	16,669	17,467

주)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출처) 서울시 복지정책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신청		미신청	
			(명)	(%)	(명)	(%)
2020년		3,027	45	(1.5)	2,982	(98.5)
2022년		3,019	64	(2.1)	2,955	(97.9)
권역별	도심권	162	2	(1.0)	160	(99.0)
	동북권	927	19	(2.0)	908	(98.0)
	서북권	367	1	(0.3)	366	(99.7)
	서남권	957	41	(4.3)	916	(95.7)
	동남권	606	1	(0.2)	605	(99.8)
연령별	20대 이하	407	1	(0.3)	406	(99.7)
	30대	606	3	(0.5)	603	(99.5)
	40대	576	7	(1.2)	569	(98.8)
	50대	600	7	(1.1)	593	(98.9)
	60대	525	13	(2.5)	512	(97.5)
	70대 이상	305	33	(10.9)	272	(89.1)
연간 가구 총 소득	1천만원 미만	240	26	(11.0)	214	(89.0)
	1~3천만원 미만	490	28	(5.8)	462	(94.2)
	3~5천만원 미만	894	4	(0.4)	890	(99.6)
	5~7천만원 미만	536	4	(0.7)	532	(99.3)
	7천~1억원 미만	566	2	(0.4)	564	(99.6)
	1억원 이상	293	0	(0.0)	293	(100.0)

주) 신청 여부: 전체 응답자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이유]

(단위: %)

연도		신청 기준 미해당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절차와 서류 복잡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될 것 같아서	신청 방법 모름	사정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음	도움 받고 싶지 않음	가족 반대	기타
2020년		86.2	2.7	2.6	2.5	2.5	1.1	1.9	0.4	0.1
2022년		88.3	2.7	2.3	1.9	1.7	1.3	1.1	0.7	0.1
연간 가구 총 소득	1천만원 미만	94.2	1.6	0.1	2.2	0.9	0.0	1.0	0.0	0.0
	1~3천만원 미만	82.4	0.9	4.9	3.1	2.7	3.8	1.5	0.8	0.0
	3~5천만원 미만	86.6	2.6	2.7	1.9	3.1	1.0	0.8	1.0	0.2
	5~7천만원 미만	87.9	3.6	2.3	2.2	0.9	1.4	1.5	0.2	0.0
	7천~1억원 미만	91.3	3.7	1.3	1.1	0.7	0.6	0.9	0.4	0.0
	1억원 이상	93.8	2.4	0.8	1.3	0.0	0.0	0.6	1.1	0.0

주) 미신청 이유: 미신청 가구 대상

출처)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년 주기)

3. 빈곤율

개념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
산출방법	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전국)

(단위: %)

연도	전국의 상대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근로연령인구 (18세~65세)	은퇴연령인구 (66세 이상)	노인인구 (65세 이상)
2013년	18.4	13.8	47.7	46.3
2014년	18.2	13.7	46.0	44.5
2015년	17.5	12.9	44.3	43.2
2016년	17.6	12.9	45.0	43.6
2017년	17.3	12.6	44.0	42.3
2018년	16.7	11.8	43.4	42.0
2019년	16.3	11.1	43.2	41.4
2020년	15.3	10.6	40.4	38.9
2021년	15.1	10.6	39.3	37.6
2022년*	14.9	10.0	39.7	38.1

주: 1)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3)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2022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소득 관련 항목은 2021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4.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개념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
산출방법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의 생활인원 수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생활)

(단위: 명, 개소)

구분	합계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기타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2013년	111	3,377	35	2,594	3	88	2	130	71	565
2014년	109	3,392	34	2,579	3	88	3	158	69	567
2015년	101	3,046	32	2,481	3	89	3	162	63	314
2016년	102	3,072	32	2,440	3	88	3	164	64	380
2017년	101	2,989	34	2,366	3	82	3	156	61	385
2018년	113	2,902	35	2,156	3	79	3	122	72	545
2019년	114	2,658	35	1,959	3	71	3	140	73	488
2020년	114	2,508	34	1,893	3	68	3	116	74	431
2021년	109	2,392	35	1,816	3	62	3	102	68	412
2022년	107	2,235	35	1,691	3	55	3	123	66	366
구 별	종로구	1	40	1	40	-	-	-	-	-
	중구	2	74	2	74	-	-	-	-	-
	용산구	2	104	2	104	-	-	-	-	-
	성동구	1	46	1	46	-	-	-	-	-
	광진구	2	9	-	-	-	-	-	2	9
	동대문구	2	43	-	-	-	-	-	2	43
	중랑구	3	55	1	47	-	-	-	2	8
	성북구	10	102	1	54	-	-	-	9	48
	강북구	4	20	-	-	-	-	-	4	20
	도봉구	-	-	-	-	-	-	-	-	-
	노원구	4	89	1	74	-	-	-	3	15
	은평구	8	244	5	222	-	-	-	3	22
	서대문구	6	119	2	100	-	-	-	4	19
	마포구	1	52	1	52	-	-	-	-	-
	양천구	9	87	1	45	-	-	-	8	42
	강서구	8	133	2	103	-	-	-	6	30
	구로구	6	105	2	86	-	-	-	4	19
	금천구	1	50	1	50	-	-	-	-	-
	영등포구	7	225	2	79	1	19	3	123	4
	동작구	7	210	4	182	1	18	-	2	10
	관악구	9	158	2	113	1	18	-	6	27
	서초구	3	55	1	50	-	-	-	2	5
	강남구	1	50	1	50	-	-	-	-	-
	송파구	7	95	-	56	-	-	-	7	39
	강동구	3	70	2	64	-	-	-	1	6

제3절 성평등성

1. 성별 임금 격차

개념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통해 고용·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성 파악
산출방법	(여성 월 급여액/남성 월 급여액)×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전국)

(단위: 천 원, %)

연도	전체	남성 월 급여액	여성 월 급여액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남성 소득=100)
2014년	2,353	2,761	1,742	63.1
2015년	2,415	2,837	1,781	62.8
2016년	2,498	2,918	1,869	64.1
2017년	2,578	3,010	1,946	64.7
2018년	2,702	3,135	2,087	66.6
2019년	2,808	3,241	2,197	67.8
2020년	2,866	3,306	2,239	67.7
2021년	2,974	3,439	2,314	67.3
2022년	3,172	3,661	2,485	67.9
2023년	3,267	3,771	2,569	68.1

주) 월 급여액: 정액급여+초과급여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2. 성평등지수

개념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는 지표
산출방법	지역성평등지수: 총 23개 지표를 통해 계산된 8개 분야(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성평등 지수값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주)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임

[성평등 수준]

(단위: 점)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한 의식·문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2016년	72.4	38.9	96.2	89.7	99.0	61.2	56.8	87.7
2017년	73.8	41.2	96.4	90.8	98.2	60.4	58.3	88.8
2018년	75.0	44.0	96.6	90.7	98.9	63.2	61.0	89.0
2019년	75.8	44.3	96.9	90.8	97.5	65.5	61.7	89.1
2020년	78.1	45.0	97.1	90.6	97.8	69.3	63.0	89.5
2021년	79.5	46.4	97.3	90.4	97.6	73.2	64.9	88.9
2022년	79.6	46.6	97.6	90.6	98.3	71.3	68.8	89.1

- 주: 1) 성평등 지수: 완전 불평등 0.0점, 완전 평등 100.0점
2) 지수값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성평등이 높다는 것은 성 격차가 낮다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성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3) 지역성평등지수는 2011년 이래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지표 구성에 있어 약간씩 변화해 왔으나, 2016년 이후 지표 구성이 3개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확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어짐
4) 2017~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성평등 순위]

(단위: 순위)

연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한 의식·문화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및 정보
2016년	3위	2위	1위	4위	1위	16위	13위	7위
2017년	6위	1위	1위	5위	2위	16위	11위	7위
2018년	5위	4위	1위	3위	2위	16위	8위	7위
2019년	5위	3위	1위	4위	7위	17위	12위	4위
2020년	2위	4위	1위	3위	5위	17위	11위	2위
2021년	2위	4위	1위	3위	8위	16위	13위	3위
2022년	2위	5위	2위	3위	7위	16위	6위	4위

주) 2021년 변경된 데이터 반영

3.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개념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부부 분담 정도를 통해 부부의 무급노동 역할 수행의 평등성을 파악
산출방법	가구주(가사노동 분담 해당자)의 남녀별 가사노동, 양육, 부양에 대한 역할 분담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단위: %)

구분		아내 주도적으로 가사노동 분담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적으로 가사노동 분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책임, 남편이 돕는 정도		남편이 주책임, 아내가 돕는 정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4년		29.3	57.7	12.1	0.7	0.2
2015년		24.6	62.8	12.0	0.6	0.1
2016년		26.5	60.7	11.8	0.7	0.2
2017년		26.8	58.0	13.8	1.0	0.4
2018년		24.3	59.3	15.5	0.6	0.3
2019년		25.7	57.4	16.0	0.8	0.2
2020년		25.9	56.4	15.7	1.7	0.2
2021년		20.4	57.5	20.0	1.5	0.6
2022년		17.8	61.8	19.2	0.8	0.4
2023년		13.3	63.0	22.2	1.3	0.2
연령별	20대 이하	7.0	31.9	58.6	2.6	0.0
	30대	6.2	45.4	46.7	1.6	0.2
	40대	8.6	62.7	27.6	0.9	0.1
	50대	13.7	70.4	14.6	1.0	0.2
	60세 이상	20.2	67.7	10.5	1.5	0.2

주) 응답자 중 비해당 가구(1인가구, 미혼가구 등) 제외

4. 남성의 육아지원제도 사용률

개념	성평등한 자녀 돌봄 및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를 정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산출방법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중 남성 비율
출처	•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

[전국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명, %)

연도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 대상자 수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2013년	404,481	280,906	123,575	66,529	1,089	65,440	16.4	0.4	53.0
2014년	411,167	284,481	126,686	72,157	1,392	70,765	17.5	0.5	55.9
2015년	421,604	289,500	132,104	78,395	1,752	76,643	18.6	0.6	58.0
2016년	398,966	272,663	126,303	77,089	2,375	74,714	19.3	0.9	59.2
2017년	356,402	241,208	115,194	73,962	4,126	69,836	20.8	1.7	60.6
2018년	346,914	232,690	114,224	75,227	5,278	69,949	21.7	2.3	61.2
2019년	331,409	220,350	111,059	76,136	6,340	69,796	23.0	2.9	62.8
2020년	303,693	198,971	104,722	74,275	6,871	67,404	24.5	3.5	64.4
2021년	299,467	193,355	106,112	77,391	7,933	69,458	25.8	4.1	65.5
2022년p)	288,509	181,868	106,641	87,092	12,407	74,685	30.2	6.8	70.0

주) 출생아 남성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수/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자 수)×100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전국)

[서울시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단위: 명, %)

연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초회수급자 이용자 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초회수급자 성비		
	계	부	모	계	부	모
2014년	476	26	450	100.0	5.5	94.5
2015년	911	65	846	100.0	7.1	92.9
2016년	1,025	84	941	100.0	8.2	91.8
2017년	1,129	108	1,021	100.0	9.6	90.4
2018년	1,428	168	1,260	100.0	11.8	88.2
2019년	1,995	240	1,755	100.0	12.0	88.0
2020년	4,902	553	4,349	100.0	11.3	88.7
2021년	5,250	553	4,697	100.0	10.5	89.5
2022년	6,394	715	5,679	100.0	11.2	88.8
2023년	7,992	854	7,138	100.0	10.7	89.3

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초회수급자 수: 연도별 1월~12월까지 이용자 수의 총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

제10장 가치와 의식

제1절 시민성

1. 지역사회 참여율

개념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시민성 정도를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민의 지난 1년간 사회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구분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정책토론회 참여	정책제안	집회/시위 참가
2022년		6.5	8.7	2.3	1.3	2.9
2023년		8.4	8.4	1.9	1.5	2.4
연령 별	10대	4.5	4.7	0.3	0.6	1.1
	20대	10.1	11.4	2.6	2.0	3.1
	30대	9.8	10.8	2.3	1.7	2.6
	40대	9.5	9.8	2.2	1.6	3.0
	50대	9.1	9.0	1.9	1.5	2.2
	60세 이상	6.1	4.7	1.4	1.2	1.8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4.5	3.2	0.9	0.8	0.9
	고등학교	6.9	5.2	1.6	1.1	1.6
	전문대/대학교	9.6	10.7	2.2	1.6	3.0
	대학원 이상	17.3	17.3	6.8	10.2	5.4
권 역 별	도심권	10.6	9.3	3.1	2.8	1.7
	동북권	6.4	5.7	1.6	0.8	1.5
	서북권	10.6	9.4	1.4	0.7	1.5
	서남권	7.7	7.5	1.8	1.9	3.0
	동남권	10.5	12.7	2.7	1.9	3.4

2. 자원봉사 참여율

개념	주인의식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서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을 고양시키는데 일조
산출방법	가구의원의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구분		자원봉사 참여 경험 있음
2014년		13.4
2015년		12.3
2016년		14.5
2017년		12.9
2018년		12.2
2019년		13.6
2020년		11.5
2021년		7.2
2022년		7.1
2023년		6.6
구 별	종로구	5.3
	중구	2.0
	용산구	7.5
	성동구	5.5
	광진구	3.8
	동대문구	6.9
	종랑구	3.9
	성북구	6.3
	강북구	3.9
	도봉구	2.6
	노원구	4.9
	은평구	5.2
	서대문구	7.8
	마포구	6.8
	양천구	7.9
	강서구	6.0
	구로구	9.3
	금천구	5.0
	영등포구	14.7
	동작구	5.2
	관악구	4.7
	서초구	8.2
	강남구	9.3
	송파구	6.3
	강동구	11.5

[자원봉사 참여 횟수]

(단위: 회)

연도	자원봉사 참여 횟수						
	환경보전과 보호 분야	자녀교육 관련 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재능나눔,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	국제사회 관련 분야	기타
2016년	3.0	2.9	3.2	2.9	2.1	1.6	1.0
2017년	3.8	3.7	4.4	4.1	2.1	2.0	32.4
2018년	3.2	3.7	4.3	3.6	2.2	1.2	9.7
2019년	2.9	3.0	3.1	3.2	2.2	1.7	6.7
2020년	3.8	3.1	5.2	3.4	2.1	1.9	9.1
2021년	3.3	4.0	5.5	4.8	2.9	2.2	9.8
2022년	3.1	3.6	3.0	2.2	2.1	2.0	14.7
2023년	2.6	2.5	2.8	2.3	1.7	2.1	2.3

주)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3. 시민자부심

개념	서울시민의 자부심 파악
산출방법	서울시민이라는 자부심 인식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시민조사)

주) 2019~2021년: 시민조사

(단위: %, 10점 만점)

구분		점수별 분포도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2015년		0.1	0.1	0.2	0.8	2.4	9.5	21.4	31.5	25.2	8.1	0.7	6.91
2016년		0.0	0.1	0.1	0.8	2.3	9.4	21.7	31.3	25.8	7.8	0.7	6.91
2017년		0.2	0.3	0.7	1.5	3.2	9.4	19.6	27.9	25.5	9.8	1.8	6.90
2018년		0.3	0.3	0.7	1.4	2.6	13.4	17.6	25.1	24.9	10.2	3.5	6.90
2019년*		0.0	0.2	0.5	2.2	3.7	16.0	15.2	27.7	24.8	7.8	1.9	6.75
2020년*		1.6	0.3	1.1	2.5	2.5	19.8	14.4	21.1	20.7	10.4	5.7	6.69
2021년*		1.6	0.7	0.9	2.0	2.7	22.9	19.2	20.7	20.0	6.1	3.3	6.41
2022년		0.0	0.1	0.4	1.6	1.9	12.8	14.5	25.2	29.1	12.6	1.8	7.05
2023년		0.1	0.3	0.7	1.8	3.5	14.9	15.1	26.0	25.4	10.6	1.6	6.84
권역별	도심권	0.0	0.0	0.5	2.3	8.6	18.2	20.1	25.5	17.1	5.6	2.1	6.40
	동북권	0.1	0.1	0.6	2.0	4.1	13.3	12.7	24.8	27.8	12.4	2.1	6.95
	서북권	0.1	0.1	0.7	1.0	2.6	14.4	12.2	22.9	27.7	15.2	3.1	7.10
	서남권	0.1	0.7	0.8	1.8	2.6	14.4	14.7	29.8	25.6	8.1	1.2	6.78
	동남권	0.1	0.3	0.5	1.7	3.0	17.2	19.5	24.3	22.3	10.4	0.6	6.70

주: 1) 매우 자부심을 느낌 10점,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음 0점
2) 2019~2021년: 시민조사

4. 시민 준법의식

개념	서울 시민들의 준법의식 인식 파악
산출방법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준법 준수 정도]

(단위: %, 10점 평균)

구분		본인의 준법 수준			평균	타인의 준법 수준			평균
		지키지 않는다	보통	잘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보통	잘 지킨다	
2023년		4.1	28.6	67.3	6.80	12.0	36.3	51.7	6.11
연령별	10대	5.1	35.5	59.5	6.55	15.3	40.7	44.0	5.80
	20대	5.2	29.0	65.8	6.75	16.4	37.5	46.1	5.84
	30대	3.3	26.8	69.9	6.89	11.6	35.1	53.3	6.16
	40대	3.8	27.3	68.9	6.86	12.1	36.1	51.8	6.12
	50대	4.0	30.7	65.3	6.76	11.8	36.4	51.7	6.11
	60세 이상	4.2	27.7	68.1	6.82	9.3	35.7	55.0	6.27
학력별	중학교 이하	4.4	27.2	68.4	6.80	8.7	33.5	57.8	6.35
	고등학교	3.8	30.3	65.9	6.76	10.9	36.8	52.3	6.17
	전문대/대학교	4.3	28.1	67.6	6.82	13.0	36.6	50.3	6.04
	대학원 이상	2.2	18.6	79.3	7.31	15.9	32.4	51.8	6.12
권역별	도심권	3.5	37.2	59.3	6.58	7.5	40.0	52.6	6.23
	동북권	2.5	30.1	67.5	6.80	9.5	36.6	53.9	6.24
	서북권	3.1	28.0	68.9	6.86	10.0	37.2	52.8	6.19
	서남권	7.7	25.1	67.2	6.74	15.6	32.5	51.9	6.06
	동남권	2.2	29.7	68.1	6.93	12.5	40.2	47.2	5.92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아주 잘 지킨다 10점, 전혀 지키지 않는다 0점
2) 잘 지킨다: 아주 잘 지킨다 + 비교적 잘 지킨다
3)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 전혀 지키지 않는다

[타인의 공공질서 준수 정도]

(단위: %)

구분		차레 지키기	보행 질서	교통 약자 보호석 지키기	공공장소 정숙	금연구역 준수	운전자 교통질서
2023년		70.0	56.9	55.5	48.7	48.6	48.3
연령 별	10대	65.6	55.5	54.1	44.6	44.6	44.4
	20대	70.8	56.4	51.6	45.8	46.6	46.6
	30대	70.9	57.6	57.7	49.1	49.4	49.5
	40대	69.9	57.8	55.5	50.0	46.4	45.5
	50대	66.9	56.7	55.1	49.2	48.5	49.6
	60세 이상	71.5	56.5	56.7	49.7	51.2	49.9
학력 별	중학교 이하	73.5	55.8	59.3	47.9	51.4	50.1
	고등학교	69.8	55.8	54.8	49.1	50.1	49.9
	전문대/대학교	69.3	57.4	55.1	48.7	47.3	47.1
	대학원 이상	76.9	69.1	56.9	48.1	47.5	49.9
권역 별	도심권	48.5	43.1	49.4	38.3	37.6	38.0
	동북권	73.1	57.8	58.8	51.6	54.1	53.1
	서북권	78.3	62.7	59.3	49.1	49.3	49.6
	서남권	67.5	56.3	51.8	45.7	45.0	44.0
	동남권	69.2	56.3	55.3	51.0	47.9	49.1

주) 잘 지킨다: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응답 비율

제2절 포용성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개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산출방법	가구의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 (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장애아에 대한 인식	가난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인식	여성 제도 개선인식	노키즈존 어린이 기본권 침해 인식	
2014년	5.60	6.14	5.22	5.06	5.99	-	
2015년	5.58	6.09	5.22	5.08	5.95	-	
2016년	5.59	6.12	5.21	5.08	5.96	-	
2017년	5.63	6.16	5.24	5.09	6.02	-	
2018년	5.64	6.26	5.25	4.98	6.06	-	
2019년	5.63	6.12	5.32	5.05	6.02	-	
2020년	5.70	6.19	5.39	5.10	6.11	-	
2021년	5.67	6.16	5.39	5.06	6.08	-	
2022년	5.51	5.83	5.24	5.22	5.70	5.56	
2023년	5.52	5.85	5.25	5.02	5.73	5.76	
구 별	종로구	4.56	4.02	3.85	3.99	4.71	6.22
	중구	5.58	5.64	5.53	5.04	5.98	5.73
	용산구	5.50	4.97	5.03	5.31	5.74	6.44
	성동구	5.99	6.22	5.80	5.63	6.15	6.15
	광진구	5.93	6.20	5.96	5.40	6.29	5.80
	동대문구	5.54	5.78	5.25	4.96	5.87	5.83
	중랑구	5.64	5.78	5.44	5.12	5.68	6.16
	성북구	5.95	6.29	5.87	5.74	5.98	5.88
	강북구	5.23	5.62	4.64	4.33	6.06	5.51
	도봉구	5.60	5.93	5.18	5.42	5.68	5.82
	노원구	5.34	5.46	4.97	4.64	5.53	6.09
	은평구	5.75	6.29	5.73	5.01	5.78	5.97
	서대문구	5.42	5.97	5.06	4.63	5.63	5.80
	마포구	5.62	6.48	5.33	5.10	5.96	5.23
	양천구	5.10	5.96	5.14	4.41	4.58	5.42
	강서구	5.25	5.85	5.08	4.67	5.37	5.28
	구로구	5.82	6.49	5.93	5.46	5.79	5.42
	금천구	5.52	5.57	5.16	5.16	5.60	6.12
	영등포구	5.07	4.74	4.71	4.82	5.27	5.82
	동작구	5.32	5.65	5.33	4.68	5.64	5.29
관악구	5.43	5.62	4.86	4.96	5.60	6.13	
서초구	5.44	5.88	4.72	5.08	6.18	5.33	
강남구	5.71	6.00	5.44	5.37	5.88	5.86	
송파구	5.83	6.03	5.60	5.43	6.29	5.78	
강동구	5.32	6.04	4.71	4.66	5.58	5.60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음 10점, 매우 낮음 0점

2. 사회적 신뢰

개념	일반사람, 이웃,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수준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에게 가족, 이웃, 공공기관,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연도	종합 평균	가족	이웃	공공 기관	친구	처음 만난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낯선 사람
2014년	5.11	8.8	5.54	5.08	-	3.16	2.97	-
2015년	5.53	8.83	5.51	5.05	-	-	-	2.73
2016년	6.49	8.84	5.54	5.07	-	-	-	-
2017년	6.43	8.65	5.47	5.18	-	-	-	-
2018년	6.54	8.47	5.22	5.37	7.08	-	-	-
2019년	5.33	8.74	5.17	5.41	7.16	2.71	2.75	-
2020년	5.22	8.59	5.02	5.40	7.01	2.61	2.68	-
2021년	5.10	8.49	4.83	5.30	6.91	2.49	2.56	-
2022년	5.01	8.59	4.50	4.90	6.91	2.54	2.61	-
2023년	5.03	8.42	4.53	5.16	6.86	2.55	2.65	-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가족, 이웃, 공공기관 신뢰도 평균]

(단위: 10점 만점)

연도	사회적 신뢰도			
	종합 평균	가족	이웃	공공기관
2014년	6.47	8.80	5.54	5.08
2015년	6.46	8.83	5.51	5.05
2016년	6.48	8.84	5.54	5.07
2017년	6.43	8.65	5.47	5.18
2018년	6.35	8.47	5.22	5.37
2019년	6.44	8.74	5.17	5.41
2020년	6.34	8.59	5.02	5.40
2021년	6.20	8.49	4.83	5.30
2022년	6.00	8.59	4.50	4.90
2023년	6.04	8.42	4.53	5.16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신뢰 10점, 전혀 신뢰 안함 0점

3. 다양성 수용도

개념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집단을 직장 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산출방법	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를 직장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 조사(‘그렇다’ 응답 비율)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단위: %)

연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2020년	83.5	79.8	71.1	53.7	48.4
2021년	79.7	77.5	69.1	55.3	50.0
2022년	85.6	78.6	67.2	51.5	40.7
2023년	83.3	77.8	67.3	52.0	41.6

[친구로]

(단위: %)

연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2020년		75.6	74.3	62.0	41.3	35.1
2021년		71.8	72.5	59.7	44.3	37.5
2022년		72.8	66.7	50.6	36.5	23.6
2023년		73.3	68.0	52.1	35.8	25.0
연령대	10대	73.5	68.3	55.0	50.0	38.7
	20대	78.5	72.7	58.1	43.0	33.7
	30대	76.1	69.6	52.2	36.0	27.1
	40대	74.6	68.0	51.1	37.0	26.3
	50대	72.7	68.3	53.3	34.8	22.4
	60세 이상	68.5	64.1	48.2	29.2	17.4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단위: %)

연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2020년	33.4	17.9	21.9	10.7	6.1
2021년	32.2	18.7	22.7	13.6	8.6
2022년	25.5	14.3	14.2	7.4	2.9
2023년	29.1	15.7	16.3	8.0	2.5

4. 공정성

개념	사회 다방면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산출방법	교육, 취업, 과세, 복지, 지역균형, 법치, 정치활동, 성별, 분배, 병역 등에 대한 공정성 정도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수혜 기회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 대우	경제· 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2022년	5.34	6.43	5.52	5.23	5.51	5.30	4.96	4.75	5.19	5.07	5.48
2023년	5.31	6.09	5.28	5.21	5.44	5.26	5.11	4.87	5.16	5.10	5.53
연령 별	10대	5.15	5.85	5.41	5.15	5.32	5.18	4.84	4.72	5.07	5.13
	20대	5.14	6.09	5.10	5.01	5.33	5.09	4.90	4.63	4.97	5.26
	30대	5.37	6.22	5.31	5.31	5.51	5.28	5.19	5.00	5.22	5.51
	40대	5.33	6.16	5.34	5.24	5.44	5.24	5.14	4.90	5.16	5.58
	50대	5.26	6.03	5.24	5.12	5.36	5.24	5.06	4.83	5.12	5.53
	60세 이상	5.40	6.06	5.33	5.32	5.52	5.39	5.23	4.97	5.28	5.73

주) 평균값 환산 기준: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점, 매우 공정하다 10점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단위: 점)

구분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2023년)										
		종합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수혜 기회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 대우	경제· 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연령 별	10대	-0.16	-0.24	0.13	-0.06	-0.12	-0.08	-0.27	-0.15	-0.09	-0.25	-0.40
	20대	-0.17	-	-0.18	-0.20	-0.11	-0.17	-0.21	-0.24	-0.19	-0.11	-0.27
	30대	0.06	0.13	0.03	0.10	0.07	0.02	0.08	0.13	0.06	0.07	-0.02
	40대	0.02	0.07	0.06	0.03	-	-0.02	0.03	0.03	-	-	0.05
	50대	-0.05	-0.06	-0.04	-0.09	-0.08	-0.02	-0.05	-0.04	-0.04	-0.04	-
	60세 이상	0.09	-0.03	0.05	0.11	0.08	0.13	0.12	0.10	0.12	0.07	0.20

주) 연령별 전체 평균 대비 격차 = 각 항목별 전체 평균값 - 각 항목별·연령별 점수

제3절 통합성

1. 지역사회 소속감

개념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조사
산출방법	가구원의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 정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인구특성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잘 알고 지내는 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1년		3.94	4.52	3.94	3.97	3.34
2022년		3.96	5.07	4.18	3.57	3.02
2023년		4.18	5.10	4.24	3.84	3.54
성 별	남성	4.06	4.95	4.12	3.72	3.45
	여성	4.29	5.24	4.35	3.95	3.63
연 령 별	10대	3.65	4.66	3.60	3.36	2.99
	20대	3.19	4.04	3.18	2.93	2.62
	30대	3.81	4.75	3.83	3.48	3.18
	40대	4.23	5.20	4.34	3.84	3.53
	50대	4.41	5.35	4.50	4.05	3.74
	60세 이상	4.86	5.75	4.94	4.50	4.24
	중학교 이하	4.86	5.77	5.01	4.48	4.19
학 력 별	고등학교	4.55	5.52	4.62	4.18	3.87
	전문대/대학교	3.88	4.78	3.92	3.56	3.27
	대학원 이상	3.62	4.42	3.72	3.44	2.91
	배우자 있음	4.47	5.45	4.56	4.10	3.77
혼 인 별	미혼	3.47	4.33	3.45	3.18	2.91
	이혼/사별/기타	4.55	5.37	4.65	4.24	3.95
직 업 별	관리전문직	3.71	4.63	3.80	3.51	2.91
	화이트칼라	4.04	4.95	4.07	3.72	3.44
	블루칼라	4.35	5.25	4.39	4.00	3.74
	기타	4.33	5.29	4.43	3.94	3.66
권 역 별	도심권	4.13	4.80	4.10	3.94	3.70
	동북권	4.13	5.21	4.16	3.82	3.32
	서북권	4.11	5.24	4.17	3.68	3.34
	서남권	4.27	5.10	4.34	3.86	3.78
	동남권	4.18	4.93	4.28	3.90	3.59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아니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치구별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잘 알고 지내는 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3년		4.18	5.10	4.24	3.84	3.54
구 별	종로구	3.92	4.51	3.51	3.90	3.78
	중구	3.96	4.40	4.21	3.79	3.46
	용산구	4.37	5.22	4.43	4.04	3.78
	성동구	3.31	4.51	3.52	2.93	2.28
	광진구	3.45	4.37	3.34	3.25	2.84
	동대문구	4.03	5.17	4.02	3.66	3.29
	종랑구	4.61	5.70	4.56	4.21	3.99
	성북구	4.73	5.40	4.66	4.82	4.02
	강북구	4.40	5.64	4.57	3.92	3.46
	도봉구	4.69	5.45	4.96	4.40	3.95
	노원구	3.71	5.23	3.71	3.24	2.64
	은평구	4.08	5.28	4.19	3.57	3.29
	서대문구	4.13	5.24	4.24	3.75	3.30
	마포구	4.12	5.19	4.09	3.77	3.43
	양천구	5.45	6.15	5.58	4.39	5.68
	강서구	3.80	5.08	3.91	3.31	2.91
	구로구	4.30	5.14	4.44	4.00	3.62
	금천구	4.19	4.83	4.12	4.01	3.81
	영등포구	3.97	4.49	4.16	3.64	3.56
	동작구	4.15	5.36	4.23	3.73	3.27
	관악구	4.14	4.61	4.02	4.11	3.82
	서초구	4.15	4.65	4.08	4.09	3.78
	강남구	4.09	4.85	4.17	3.91	3.42
	송파구	4.41	5.19	4.63	3.98	3.85
	강동구	3.96	4.91	4.07	3.62	3.25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기구원조사

[서울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잘 알고 지내는 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2023년		3.96	3.82	4.00	4.18	3.83
국 적 별	한국계중국인	4.43	4.10	4.56	4.76	4.30
	중국	3.42	3.61	3.20	3.72	3.14
	일본	3.92	3.92	3.84	4.25	3.68
	타이완	3.30	3.73	3.31	3.40	2.78
	베트남	3.74	3.49	3.85	4.05	3.55
	아시아기타	3.53	3.65	3.45	3.66	3.35
	미국	3.18	3.04	3.16	3.12	3.40
	영미권기타	3.44	3.41	3.78	3.04	3.52
	유럽권	3.60	3.68	3.42	3.41	3.90
	기타	4.28	3.96	4.71	4.44	4.00
성 별	남성	4.14	3.79	4.27	4.44	4.05
	여성	3.81	3.83	3.78	3.95	3.66
연 령 별	20대 이하	3.22	3.30	3.15	3.46	2.97
	30대	3.62	3.67	3.66	3.76	3.40
	40대	4.01	3.98	4.11	4.04	3.91
	50대 이상	4.51	4.12	4.60	4.82	4.50
학 력 별	12개월 미만	4.06	3.54	4.17	4.23	4.28
	12~24개월 미만	4.55	3.82	4.62	4.85	4.90
	24~36개월 미만	4.41	3.67	4.78	4.63	4.55
	36~48개월 미만	3.78	3.55	3.86	3.94	3.78
	48개월 이상	3.72	3.97	3.65	3.95	3.31
체 류 자 격 별	방문취업	4.79	4.03	4.97	5.34	4.83
	전문인력	3.54	3.37	3.60	3.66	3.51
	유학	3.24	3.35	3.10	3.47	3.05
	방문동거/가주/동반	3.30	3.45	3.30	3.48	2.98
	재외동포	4.21	4.11	4.24	4.45	4.03
	영주자	4.52	3.91	4.92	4.64	4.60
	결혼이민자	4.02	4.16	3.88	3.96	4.06
	기타	2.75	2.89	2.69	2.96	2.46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

2. 사회적 고립도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지표로 물리적 고립감(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 존재 여부) 파악 • 주관적 지표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돌봄 가족을 맡겨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주관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조사(10점 척도)
출처	•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가구주조사

[사회적 고립도]

(단위: %)

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사회적 고립도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없음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없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사람 없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	
2015년		-	20.4	39.2	25.4	-
2016년		-	17.7	36.8	23.8	-
2017년		-	17.2	34.7	22.4	-
2019년		-	9.5	28.9	11.8	-
2020년		21.8	5.6	20.5	4.9	-
2021년		26.7	5.0	18.1	5.4	-
2022년		12.1	2.8	23.2	7.6	24.2
2023년		15.3	3.5	19.1	7.3	22.5
연령 별	10대	16.1	1.5	19.2	6.2	18.4
	20대	11.1	3.2	13.8	5.7	28.7
	30대	11.8	3.2	18.5	5.4	19.4
	40대	15.1	3.3	16.6	6.1	16.3
	50대	15.7	3.6	16.9	7.5	27.7
	60세 이상	19.3	4.4	25.7	10.5	30.4
학력 별	중학교 이하	23.5	4.9	32.8	13.4	26.1
	고등학교	16.9	4.2	21.8	8.8	29.2
	전문대학/대학교	13.1	3.0	15.9	5.8	20.1
	대학원 이상	14.1	3.5	8.4	2.2	20.4
소득 별	200만원 미만	26.8	6.7	31.8	13.0	36.0
	200~300만원 미만	17.8	6.9	23.3	7.9	28.6
	300~400만원 미만	19.4	4.7	19.9	7.2	22.9
	400~500만원 미만	15.4	2.6	17.8	7.5	21.4
	500만원 이상	11.3	2.1	16.5	6.4	21.3

주: 1) 2018년 비조사

2)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비해당 제외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자치구별 사회적 고립도]

(단위: %)

구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없음	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사람 없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없음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없음
2023년		15.3	3.5	19.1	7.3	22.5
구 별	종로구	22.5	5.5	13.3	10.6	11.3
	중구	21.7	6.1	34.0	20.2	11.7
	용산구	12.3	8.2	24.7	10.2	61.2
	성동구	23.4	1.3	16.7	8.2	17.5
	광진구	8.2	6.9	8.5	5.2	12.8
	동대문구	15.9	5.3	7.2	6.5	10.9
	종량구	7.1	1.2	7.7	9.7	4.6
	성북구	5.1	1.2	28.8	14.3	15.7
	강북구	16.3	6.1	17.5	1.8	7.8
	도봉구	7.5	0.5	37.0	16.4	55.3
	노원구	24.5	0.7	19.4	5.5	3.2
	은평구	12.5	0.8	8.7	2.4	24.0
	서대문구	12.9	2.1	16.0	4.6	15.4
	마포구	21.9	3.2	16.4	3.6	26.6
	양천구	4.2	2.1	29.1	4.1	8.8
	강서구	22.7	3.6	39.8	7.7	54.0
	구로구	9.2	7.0	17.8	2.3	11.9
	금천구	28.9	7.8	18.3	11.0	20.3
	영등포구	20.1	2.2	23.1	12.1	19.7
	동작구	4.2	1.6	18.3	5.3	23.8
	관악구	22.0	8.4	12.5	4.5	18.0
	서초구	17.5	2.6	11.8	5.9	26.1
	강남구	14.1	2.3	12.8	7.2	13.2
	송파구	15.4	5.6	23.6	7.0	12.8
	강동구	19.9	2.9	15.0	12.3	37.8

주) 어린 자녀(또는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비해당 제외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단위: %, 10점 만점)

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로움			평균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2023년		39.0	31.6	29.3	4.61
성별	남성	41.5	31.7	26.8	4.48
	여성	37.0	31.6	31.4	4.72
연령별	20대 이하	47.5	28.5	23.9	4.12
	30대	52.1	29.2	18.6	3.92
	40대	43.3	30.6	26.1	4.34
	50대	41.8	27.2	31.0	4.61
	60세 이상	25.4	35.9	38.7	5.32
학력별	중학교 이하	21.7	37.1	41.2	5.50
	고등학교	33.3	31.2	35.5	4.95
	전문대학/대학교	48.3	29.9	21.7	4.11
	대학원 이상	56.7	21.4	21.9	3.78
소득별	200만원 미만	24.0	34.6	41.4	5.45
	200~300만원 미만	40.2	31.1	28.7	4.55
	300~400만원 미만	46.8	29.6	23.6	4.19
	400~500만원 미만	45.1	36.2	18.7	4.13
	500만원 이상	55.0	23.3	21.7	3.91
권역별	도심권	43.1	29.8	27.0	4.47
	동북권	34.4	37.0	28.6	4.75
	서북권	35.1	28.2	36.7	4.90
	서남권	42.6	28.3	29.1	4.49
	동남권	41.3	32.0	26.7	4.48
직업별	관리전문직	52.0	29.1	18.9	3.86
	화이트칼라	47.3	29.9	22.7	4.17
	블루칼라	32.2	33.7	34.0	4.98
	기타	27.8	33.1	39.1	5.22

주)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그렇다 10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3. 행복지수

개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상태를 파악
산출방법	가구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행복 상태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10점 만점)

구분		종합 평균	건강상태	재정상태	대인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2014년		6.92	7.16	6.21	7.08	7.14	7.01
2015년		6.95	7.18	6.28	7.09	7.16	7.04
2016년		6.97	7.20	6.29	7.11	7.18	7.05
2017년		6.96	7.19	6.29	7.10	7.19	7.05
2018년		6.90	7.22	6.13	7.09	7.13	6.91
2019년		6.84	7.25	6.26	6.91	6.98	6.79
2020년		6.54	6.99	5.99	6.64	6.67	6.43
2021년		6.27	6.63	5.70	6.38	6.45	6.20
2022년		6.72	7.21	6.12	6.78	6.89	6.60
2023년		6.61	6.95	6.11	6.68	6.71	6.60
구 별	종로구	5.21	5.62	4.64	5.16	5.30	5.31
	중구	6.42	6.59	5.96	6.56	6.43	6.55
	용산구	6.00	6.33	5.50	6.06	6.03	6.05
	성동구	7.10	7.63	6.65	7.12	7.10	6.99
	광진구	6.45	6.82	5.64	6.40	6.73	6.66
	동대문구	6.56	6.67	6.21	6.66	6.69	6.59
	종랑구	6.36	6.44	6.07	6.39	6.52	6.36
	성북구	6.85	7.20	6.43	6.94	7.07	6.61
	강북구	6.18	6.41	5.20	6.41	6.44	6.45
	도봉구	6.57	6.83	5.97	6.68	6.80	6.56
	노원구	6.81	7.04	6.26	6.99	6.96	6.78
	은평구	6.83	7.42	6.33	6.83	6.96	6.61
	서대문구	6.92	7.57	6.46	6.90	6.88	6.78
	마포구	7.19	7.58	6.90	7.20	7.21	7.03
	양천구	6.43	6.67	6.49	6.33	6.36	6.31
	강서구	6.57	6.99	5.98	6.66	6.56	6.66
	구로구	6.89	7.21	6.12	7.10	7.00	7.04
	금천구	6.22	6.40	5.77	6.33	6.21	6.41
	영등포구	6.06	6.42	5.88	5.95	6.15	5.88
	동작구	6.91	7.25	6.23	7.04	7.04	6.96
	관악구	6.28	6.71	5.56	6.41	6.21	6.52
	서초구	6.97	7.27	6.40	7.00	7.15	7.01
	강남구	6.95	7.31	6.38	7.07	7.10	6.88
	송파구	6.36	6.75	6.14	6.36	6.31	6.25
	강동구	6.85	7.20	6.09	6.97	7.15	6.83

주)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4. 계층이동 가능성

개념	본인의 노력에 따른 자신과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정도 파악
산출방법	가구원에게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조사(10점 척도)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단위: %, 10점 만점, 점)

구분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격차 (점)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2015년		25.7	41.9	32.4	5.15	17.7	35.6	46.6	5.91	(0.76)
2016년		25.7	42.3	32.0	5.12	17.4	35.7	46.9	5.92	(0.80)
2017년		25.3	45.0	29.7	5.08	17.5	38.4	44.1	5.80	(0.72)
2018년		27.7	48.4	24.0	4.80	-	-	-	-	-
2019년		32.0	45.1	22.9	4.72	28.7	41.6	29.7	4.96	(0.24)
2020년		36.9	45.9	17.2	4.38	26.2	47.8	26.0	4.92	(0.54)
2021년		32.9	49.8	17.3	4.46	24.2	52.6	23.3	4.88	(0.42)
2022년		25.3	46.8	27.9	5.07	20.8	38.1	41.1	5.59	(0.52)
2023년		22.3	48.9	28.8	5.19	17.2	43.2	39.6	5.63	(0.44)
연령	10대	21.0	43.0	36.0	5.51	21.6	38.6	39.8	5.59	(0.08)
	20대	18.3	45.7	36.0	5.54	18.0	43.5	38.5	5.65	(0.11)
	30대	17.2	48.5	34.3	5.52	14.6	42.2	43.3	5.82	(0.30)
	40대	18.6	50.4	31.0	5.34	16.0	39.7	44.3	5.79	(0.44)
	50대	23.7	52.5	23.8	5.02	18.1	44.2	37.8	5.54	(0.51)
	60세 이상	29.2	48.6	22.1	4.77	17.8	45.7	36.5	5.48	(0.71)
학력	중학교 이하	31.0	46.8	22.2	4.73	17.8	46.2	36.0	5.49	(0.77)
	고등학교	25.3	48.5	26.2	5.04	17.1	45.3	37.6	5.57	(0.53)
	전문대학/대학교	19.5	49.4	31.2	5.35	17.2	41.7	41.2	5.68	(0.33)
	대학원 이상	14.2	50.0	35.8	5.61	15.7	35.3	49.0	5.98	(0.37)
소득	200만원 미만	31.4	45.4	23.2	4.73	19.4	48.4	32.3	5.33	(0.60)
	200~300만원 미만	24.5	50.1	25.4	5.04	16.6	48.2	35.3	5.53	(0.49)
	300~400만원 미만	20.4	50.1	29.6	5.25	14.4	46.5	39.1	5.68	(0.43)
	400~500만원 미만	23.4	46.4	30.3	5.20	19.4	41.4	39.3	5.55	(0.35)
	500만원 이상	20.6	49.4	30.0	5.29	17.3	40.4	42.3	5.71	(0.42)
권역	도심권	20.0	54.6	25.4	5.11	16.2	47.6	36.2	5.58	(0.47)
	동북권	25.7	44.2	30.1	5.10	20.5	39.9	39.6	5.53	(0.43)
	서북권	22.6	45.4	32.0	5.32	20.7	37.7	41.6	5.64	(0.32)
	서남권	22.1	49.9	27.9	5.20	14.3	44.1	41.7	5.76	(0.56)
	동남권	18.1	54.8	27.1	5.27	14.9	48.7	36.4	5.60	(0.33)

주: 1) 평균값 환산 기준: 매우 높다 10점, 매우 낮다 0점
 2) 2018년: 자녀의 계층이동 가능성 비조사

5. 미래 불안 요인

개념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불안 요인에 대해 파악
산출방법	우리 사회 안전 위협 불안 요소(1순위~3순위까지)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미래 불안 요인: 1순위]

(단위: %)

구분		자연 재해	국가 안보 문제	범죄	환경 오염	신종 질병 발생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2023년		18.8	15.9	15.4	12.6	12.0	10.0	8.7	4.2	2.3
연령 별	10대	19.3	11.2	19.7	12.8	10.2	12.0	10.2	3.4	1.1
	20대	15.4	13.5	24.6	12.2	12.0	9.0	7.0	4.2	2.2
	30대	17.9	15.1	16.0	13.9	12.2	9.5	8.7	4.6	2.1
	40대	18.1	15.6	15.7	11.4	11.9	10.9	9.3	4.2	2.8
	50대	20.0	16.8	13.0	12.2	11.9	10.1	9.9	3.7	2.5
	60세 이상	20.8	18.0	10.7	12.9	12.3	10.0	8.4	4.5	2.3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21.2	15.5	11.8	12.2	12.4	9.0	9.2	5.5	3.1
	고등학교	19.3	17.7	13.3	13.5	11.6	10.1	8.2	4.3	2.1
	전문대학/대학교	18.3	15.1	16.9	12.3	12.0	10.2	8.9	4.0	2.2
	대학원 이상	10.8	11.7	27.3	9.0	17.0	7.3	9.0	3.0	5.1
소득 별	200만원 미만	18.3	13.8	15.4	12.8	13.1	10.2	8.5	3.3	4.5
	200~300만원 미만	18.0	16.9	15.0	12.9	12.8	9.2	8.6	4.9	1.8
	300~400만원 미만	17.7	17.4	14.8	12.6	11.8	9.3	9.3	4.7	2.5
	400~500만원 미만	17.2	15.7	16.7	11.5	11.5	10.8	10.7	4.0	1.8
	500만원 이상	19.9	15.5	15.3	12.7	11.8	10.2	8.0	4.2	2.2
권역 별	도심권	23.3	12.8	11.1	15.6	11.3	8.2	10.5	5.5	1.6
	동북권	19.5	13.3	13.1	13.4	13.6	9.9	10.2	4.6	2.6
	서북권	23.6	15.7	10.6	13.3	13.3	10.5	7.4	4.1	1.5
	서남권	17.4	18.7	16.5	10.7	11.4	10.7	8.7	3.9	2.0
	동남권	16.1	16.4	21.1	13.1	10.0	9.3	7.0	4.0	3.0

주) 기타 제외

[미래 불안 요인: 1+2+3순위]

(단위: %, 중복응답)

		범죄	자연 재해	신종 질병 발생	환경 오염	인재	국가 안보 문제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2023년		43.1	42.7	41.9	36.1	32.8	28.5	26.9	19.7	12.0
연령 별	10대	52.2	38.3	45.5	34.8	39.9	23.3	22.9	21.7	10.8
	20대	50.3	42.4	42.3	34.0	31.4	25.3	25.5	21.0	11.5
	30대	44.4	40.8	43.4	37.6	31.5	28.0	27.7	19.3	12.1
	40대	43.5	41.2	42.4	36.1	34.1	27.4	28.4	19.7	12.6
	50대	43.1	44.0	41.7	36.1	31.1	29.8	28.7	18.5	12.0
	60세 이상	36.6	44.8	40.0	36.8	33.3	31.4	26.0	19.6	12.2
학 력 별	중학교 이하	37.0	45.1	39.3	36.7	32.5	29.8	24.6	19.2	14.0
	고등학교	39.9	42.9	40.9	37.0	33.4	30.4	26.0	20.5	11.9
	전문대학/대학교	45.5	42.4	42.7	35.8	32.5	27.5	27.8	19.4	11.6
	대학원 이상	60.8	31.3	49.5	27.5	29.0	23.8	25.4	15.1	18.2
소 득 별	200만원 미만	41.8	43.7	41.5	40.2	30.8	25.6	24.8	17.4	12.4
	200~300만원 미만	40.9	42.8	41.5	36.4	32.4	28.7	26.6	19.9	11.4
	300~400만원 미만	39.9	40.9	39.3	38.6	31.6	30.7	27.8	20.0	11.4
	400~500만원 미만	47.0	38.4	42.9	32.4	32.5	26.6	29.7	19.4	14.5
	500만원 이상	43.8	44.3	42.6	35.7	33.7	28.8	26.3	20.0	11.7
권 역 별	도심권	34.5	40.2	35.3	36.7	23.5	19.9	22.5	22.9	7.4
	동북권	41.3	46.2	42.7	37.9	30.3	28.5	28.1	18.1	12.0
	서북권	38.8	45.0	46.8	37.5	35.0	32.7	25.2	19.4	13.3
	서남권	41.9	42.6	39.0	36.8	35.7	30.4	28.8	20.4	11.1
	동남권	52.0	36.9	43.7	31.6	33.0	25.4	24.4	20.2	13.8

주) 기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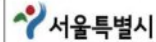
[부록3]

2023 서울서베이 조사표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서베이(가구조사표-가구주용)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만 15세 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서울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고자 매년 '서울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통계조사인 '서울서베이'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조사 결과는 서울 시민과 동행하는 매력있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가는 주요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통계조사는 만 15세 이상(2008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원 전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께서는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6188-6011
------	---------------	------	-------------------------

가구주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번호	
조 사 일 시	202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부터 ____분 동안	조사 표본	① 원표본 ② 대체표본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7F(오피스텔, 주택 이외 거쳐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집 ② 전세(월세임용)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관사, 사택 등)		

코드	만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보기1참조)	성별	출생년도	혼인상태 (보기2참조)	종교 (보기3참조)	국적 (보기4참조)	등록 장애인 여부 (보기5참조)	다문화 가정 여부 (보기6참조)	연접여부 (보기7참조)	개인 연락처
01	① 가구주	①남 ②여	년							
02		①남 ②여	년							
03		①남 ②여	년							
04		①남 ②여	년							
05		①남 ②여	년							
06		①남 ②여	년							
07		①남 ②여	년							

※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08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종교	(보기4) 국적	(보기6) 다문화가정 여부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④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⑥ 부모 (장인, 장모, 사부모) ⑦ 조부모 ⑧ 미혼형제, 자매 ⑨ 기타()	① 배우자 있음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보기2-① 응답자 혼인신고 여부) ① 혼인신고 함 ② 혼인신고 하지 않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천도교 ⑦ 대순종리회 ⑧ 대종교 ⑨ 이슬람교 ⑩ 기타() ⑪ 없음	① 대한민국 ② 결혼이민자 ③ 앞반귀화 ④ 기타 대한민국 외 (보기5) 등록장애인 여부 ① 장애인 ② 장애인 아님	① 다문화가정 ② 다문화가정 아님 (보기7) 면접 여부 ① 조사원료 ② 단기 출장/부재 ③ 정기 출장/부재 ④ 기타

문1. 귀하는 다음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2-----3-----4-----5				
1)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전기, 통신,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3)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4)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				

문2. 현재 귀댁의 공교육 및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용, 교육수준, 접근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사항 없음
1-----2-----3-----4-----5-----9					
1) 공교육 환경					
2) 사교육 환경					

문3. 귀댁에는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② 없다 ➡ (문4로)

문3-1. (문3의 ① 응답자만) 귀댁의 미취학 아동별로 출생년도 및 성별, 귀댁에서 하고 있는 주된 보육 방법을 보기[1]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된 보육방법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어디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2], [3]을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 구분	출생년도	성별	3-1-1. 주된 보육방법 (보기1)	3-1-2. 하루 평균 돌봄시간	3-1-3.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2)	3-1-4. 보육시설 만족도 (보기3)
1	년	① 남 ② 여		시간		
2	년	① 남 ② 여		시간		
3	년	① 남 ② 여		시간		
4	년	① 남 ② 여		시간		

문3-1-1. (보기1) 주된 보육방법

-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본다
③ 친인척 외에 개인에게 맡긴다 ④ 어린이집에 보낸다
⑤ 유치원에 보낸다 ⑥ 기타()

※ 미취학 아동 보육방법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문3-1-3. (보기2) 시설 유형	문3-1-4. (보기3) 보육시설 만족도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민간개인 ④ 가정어린이집 ⑤ 직장 ⑥ 품앗이 육아 (품앗이공동체, 공동육아방 등) ⑦ 시간제돌봄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시간제 서비스, 카즈파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문3-2. (문3의 ① 응답자만) 서울시의 전반적인 돌봄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문4. 귀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1로) ② 없다 ➡ (문5로)

문4-1. (문4의 ① 응답자만) 귀댁의 반려동물은 주로 어떤 경로로 취득하셨습니까?

- ① 동물판매업소(애견판매업소, 동물병원 등)
②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
③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
④ 인터넷을 통해 구입
⑤ 유기동물 입양
⑥ 원래 기르던 동물이 낳은 새끼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4-2. (문4의 ① 응답자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별 마리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개 (마리)
② 고양이 (마리)
③ 기타 (마리)

문4-3. (문4의 ① 응답자만) 귀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총 지출(양육)비용은 얼마입니까? (병원비 포함)

-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15만원 미만 ④ 15~20만원 미만
⑤ 20~25만원 미만 ⑥ 25~50만원 미만
⑦ 50~75만원 미만 ⑧ 75~100만원 미만
⑨ 100만원 이상

문5. 귀댁에서는 집안일(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계신지요?

(예 : 집안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 ①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②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③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④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⑥ 비해당(1인가구, 미혼가구, 한부모 가구 등)

문6. 귀댁에는 부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6-1로)
② 없다 ➡ (문7로)

문6-1. (문6의 ① 응답자만) 귀댁에 부채가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주주택 마련 ②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③ 전(월)세 보증금 마련 ④ 증권투자금 마련
⑤ 부채상환 ⑥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마련
⑦ 결혼자금 마련 ⑧ 의료비 마련
⑨ 교육비 마련 ⑩ 생활비 마련
⑪ 기타(구체적으로:)

문7. 귀댁에서는 현재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돌보고(부양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7-1로)
② 아니요 ➡ (문8로)



2022 서울서베이(가구조사표-가구원용) 서울특별시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	행정구역코드 □□□-□□□	가구원 코드 □□	출생년도	성명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터리서치 02-6188-6011	

■ 가족형성과 가치관 변화

문1.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이 부족해서
- ②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③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 ④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 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 ⑥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려거나 많아서
- ⑦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 ⑧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 ⑨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 귀하는 '살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6)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문3. 귀하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문4. 귀하는 평소 '가족'을 떠올릴 때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의무감, 책임감이 느껴져 부담스럽다.				
2) 의지할 수 있다고 느껴져 든든하다.				

■ 환경

문5. 귀하는 아래의 사항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전혀 실천하지 않음	실천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실천	항상 실천
1	2	3	4	5

- 1) 승용차 대신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
- 2) 펫병, 종이팩 등 주민센터, 회수기에 배출하기
- 3) 1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 4) 제로웨이스트가게 이용이나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노력

※ 제로웨이스트가게는 웨이스트(남비,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문6.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 과제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불필요	조금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1	2	3	4	5
1) 시내 녹지공간 및 공원 확충				
2) 미세먼지 저감				
3) 방음벽/방음시설 확충				
4) 오염/유해물질(온실가스, 폐수, 쓰레기) 배출시설 관리 및 단속 강화				
5) 화석연료를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문7. 아래 현상들에 귀하가 체감한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2	3	4	5
1) 이상기온(폭염/한파 등)				
2) 태풍 및 집중호우				
3) 폭설				
4) 가뭄				

문8. 귀하는 귀하가 사는 곳 근처(1km 이내, 걸어서 15분 거리)의 녹지(공원, 숲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약간 만족
- ⑤ 매우 만족

■ 주거와 생활

문9.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3-----4-----5				
1) 서로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				

■ 안전

문10. 귀하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오늘날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이 매우 커졌다 ② 위험이 약간 커졌다
 ③ 5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줄었다
 ⑤ 위험이 많이 줄었다

문11. 현재와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경험할 위험의 정도가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위험이 매우 커질 것이다 ② 위험이 다소 커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⑤ 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문12. 귀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국가 안보 문제(전쟁 가능성, 테러, 북핵문제 등)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 등)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 붕괴 등)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⑥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⑦ 신종 질병 발생(신종 바이러스 감염 등)
 ⑧ 범죄(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⑨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⑩ 기타(구체적으로:)

■ 교통

문13. 귀하는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이용하지 않음
1-----2-----3-----4-----5-----9					
1)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2) 지하철					
3) 택시					
4) 시외버스/고속버스					

문13-1. 서울의 교통수단이 교통약자(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14. 귀하의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시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2-----3-----4-----5				
1) 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 정도				
2) 서울도심(시내) 보행환경 만족 정도				

문15. 귀하가 보도를 걸어 다닐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보도의 폭 ② 보도의 경사도
 ③ 보도의 평탄한 정도(요철) ④ 보도상의 장애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⑥ 불편한 점이 없음

문16. 귀하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불안하다고 느낀다 ➡ (문16-1로)
 ② 약간 불안하다고 느낀다 ➡ (문16-1로)
 ③ 보통이다 ➡ (문17로)
 ④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낀다 ➡ (문17로)
 ⑤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 ➡ (문17로)

문16-1. (문16의 ①, ② 응답자만)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권 내 가로등, CCTV 등 야간 보행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② 생활권 내 경찰서 등 치안 시설이 부족해서
 ③ 생활권 내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서
 ④ 생활권 내 우범 지역이 있어서
 ⑤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문17.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 ① 통학을 한다 ➡ (문17-1로)
 ② 통근을 한다 ➡ (문17-1로)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18로)

문17-1. (문17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는 어디로 통근 또는 통학하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동 내
 ② 현재 살고 있는 구 내 다른 동
 ③ 다른 구 = ()구
 ④ 다른 시도 = ()시도

문17-2. (문17의 ①, ② 응답자만) 그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④ 오토바이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⑥ 지하철(철도) ⑦ 버스 + 지하철
 ⑧ 택시 ⑨ 승용차
 ⑩ 승용차 + 버스 ⑪ 승용차 + 지하철
 ⑫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⑬ 기타(구체적으로:)

문23-1. (문23의 ①, ② 응답자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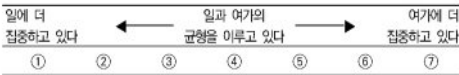
-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② 시간이 부족해서
- ③ 교통 혼잡 및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 ④ 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 ⑤ 여가 정보가 부족해서
- ⑥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⑦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 ⑧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⑨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4. 귀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충분하지 않다

문25. 귀하는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이란 하루 24시간의 생활시간을 직장일(학업)과 여가생활에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학업)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일(학업)과 여가생활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문2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6-1로)
- ② 없다 → (문27로)

문26-1. (문26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 국내여행(또는 관광)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숙박 및 당일 여행을 의미합니다).
※ 숙박 여행은 숙박 기준이 아니라 총 여행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3박 4일 여행은 '4일'로 작성)

1) 숙박 여행	번
(1회당 평균)	일
2) 당일 여행	번

문27.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7-1로)
- ② 없다 → (문28로)

문27-1. (문27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2.9.1.~2023.8.31.) 어떤 목적으로 몇 번 해외를 다녀오셨습니까?

1) 관광	번
2) 가족·친지 방문	번
3) 업무	번
4) 교육(여학연수 포함)	번

■ 건강

문28.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 ② 느끼지 않은 편이다 → (문28로)
- ③ 보통이다 → (문28-1로)
- ④ 느낀 편이다
- ⑤ 매우 많이 느꼈다 → (문28-1로)

문28-1. (문28의 ③, ④, ⑤번 응답자만) 귀하에게 스트레스를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요인: _____), (둘째 요인: _____)

- ① 건강상태(본인 혹은 가족)
- ② 재정상태
- ③ 가족, 친구와의 관계
- ④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 ⑤ 과도한 업무/과도한 학습량
- ⑥ 실직 및 미취업
- ⑦ 가족 돌봄, 가사노동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29. 귀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 생활체육활동

문30. 귀하는 최근 1년간(2022.9.1.~2023.8.31.) 규칙적 체육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일상생활의 걷기는 제외). 운동 횟수는 1일 1회 기준임
학생의 경우 학교 정규 체육수업은 제외하되, 방과 후 수업 및 스포츠 클럽은 포함함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3번 이하
- ③ 일주일에 1번
- ④ 일주일에 2번
- ⑤ 일주일에 3번
- ⑥ 일주일에 4번
- ⑦ 일주일에 5번
- ⑧ 일주일에 6번
- ⑨ 매일

문31. 귀하가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십니까? 이용 여부와 필요도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1) 이용 시설 : (_____)
- 2) 필요 시설 : (_____)

- ① 골프연습장
- ② 당구장
- ③ 롤러스케이트장
- ④ 볼링장
- ⑤ 병상장
- ⑥ 사격장
- ⑦ 수영장
- ⑧ 승마장
- ⑨ 야구장
- ⑩ 양궁장
- ⑪ 천천후게이트볼장
- ⑫ 탁구장
- ⑬ 테니스장
- ⑭ 체력단련장(헬스장)
- ⑮ 간이운동장(0.9운동장)
- ⑯ 축구장
- ⑰ 육상경기장
- ⑱ 배드민턴장
- ⑲ 농구장
- ⑳ 골프장
- ㉑ 인공암벽장
- ㉒ 스크린야구장
- ㉓ 스크린골프장
- ㉔ 기타(_____)
- ㉕ 이용 안 함/필요없음

■ 사회참여

문32.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32-1로)
- ② 아니요 → (문33으로)

문32-1. (문32의 ①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에 있으시다면, 다음 각 분야별로 연간 참여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활동분야	연간 참여횟수
1) 환경보전과 보호분야(마울청소, 쓰레기 줍기 등)	회
2)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아학교사 등)	회
3) 재능나눔, 문화예술 분야(문화예술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	회
4) 재난재해, 응급 관련 분야(재해지역 자원봉사 등)	회
5) 자녀교육 관련 분야(일일교사,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회
6) 국제사회 관련 분야(해외자원봉사 등)	회
7) 기타(구체적으로:)	회

문33. 귀하가 지난 1년간 행한 적이 있는 기부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 ②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방송사, 신문사 등)
- ③ 모금 단체(기관)를 통한 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 ④ 물품 후원 단체를 통한 후원(푸드뱅크, 아름다운 가게 등)
- ⑤ 종교 단체를 통한 후원(특별 헌금, 구제 헌금 등)
- ⑥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⑧ 기부한 적 없음

문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보기의 항목 중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있다	없다
1) 민원제안 및 제기(정보공개 청구 등)	①	②
2)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사장 페이스북, 트위터에 리플이나 댓글 달기 등)	①	②
3) 서울시 정책토론회 참여(시민대토론회, 정책토론회, 타운홀미팅 등)	①	②
4) 정책제안	①	②
5) 집회/시위 참가	①	②

문3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에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친목모임
- ② 동창회/동창모임
- ③ 지역모임/향우회/중친회
- ④ 온라인 커뮤니티
- ⑤ 동호회
- ⑥ 자원봉사단체
- ⑦ 시민단체
- ⑧ 노조 및 직능 단체
- ⑨ 정당
- ⑩ 종교단체
- ⑪ 기타(구체적으로:)
- ⑫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문36.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7.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지키지 않는다
- ②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잘 지킨다
- ⑤ 아주 잘 지킨다

문38. 귀하는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지키지 않는다
- ②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잘 지킨다
- ⑤ 아주 잘 지킨다

문39.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공공질서를 어느 정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보통이다	비교적 잘 지킨다	아주 잘 지킨다
1-----2-----3-----4-----5				
1) 차례 지키기(승강장, 극장, 화장실 등)				
2) 보행 질서(횡단보도 이용, 우측 보행 등)				
3) 운전자 교통질서(보행자 보호의무 지키기, 차선 지키기, 과속·음주운전 하지 않기, 주차 질서 지키기 등)				
4) 금연구역 준수				
5) 공공장소 정숙(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 조용히 말하기 등)				
6) 교통 약자 보호(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 비워 두기 등)				

■ 노후생활

문40. 귀하는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준비하고 있다 ➡ (문40-1로)
- ② 준비하고 있지 않다 ➡ (문41로)

문40-1. (문40의 ① 응답자만)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사립고원연금,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 ②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 ③ 은행 저축(적금, 예금, 주식, 펀드 등)
- ④ 보험(종신보험, 암보험 등)
- ⑤ 부동산투자
- ⑥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 활용
- ⑦ 기타(구체적으로:)

문41. 귀하는 은퇴 후의 월 생활비는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가구 기준으로 응답

- ① 50만원 미만
- ② 5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250만원 미만
- ⑥ 250-300만원 미만
- ⑦ 300-350만원 미만
- ⑧ 350-400만원 미만
- ⑨ 400-450만원 미만
- ⑩ 450-500만원 미만
- ⑪ 500만원 이상

■ 사회통합

문42.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 ① 있다(명) ➡ (문42-1로)
- ② 없다 ➡ (문43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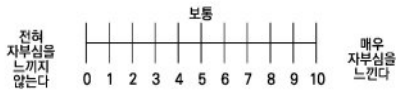
문42-1. (문42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1)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2) 갑자기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
4) 어린 자녀(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를 맡겨야 할 때 돌봐줄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⑨ 비해당

문43. 귀하는 다음 각 사람 또는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 안함	별로 신뢰 안함	보통	다소 신뢰	매우 신뢰
1-----2-----3-----4-----5				
1) 가족				
2) 친구				
3) 이웃				
4) 처음 만난 낯선 사람				
5) 국내 거주 외국인				
6) 공공 기관(서울시, 구청 등)				

문44.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문45.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46.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47.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다소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높다 ⑤ 매우 높다

문48.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	약간 공정한 편이다	매우 공정하다
1-----2-----3-----4-----5				
1) 교육기회				
2) 취업기회				
3) 과세 및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0) 병역 의무 이행				

문49. 귀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2-----3-----4-----5				
1)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3)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4)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5)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				
6) 우리 사회는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문50.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떤 요인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교육수준 ② 국적 ③ 나이 ④ 성별
⑤ 소득수준 ⑥ 외모 ⑦ 종교 ⑧ 직업
⑨ 출신지역 ⑩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51. 귀하는 다음 각 사람들을 다음의 각 상황에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친구로		나 혹은 자녀의 결혼 상대로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외국인 노동자	①	②	①	②	①	②
2) 장애인	①	②	①	②	①	②
3)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①	②	①	②
4) 난민	①	②	①	②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①	②	①	②

문52. 귀하는 '일자리가 귀할 때에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문53.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설명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2-----3-----4-----5				
1) 내 아이(있거나 있다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2)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 어르신(65세 이상)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4)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노키즈존: 식당 등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문54. 귀하의 가족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응답해 주십시오.

거의 안 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해당사항 없음
1-----2-----3-----4-----9				
1) 가족과의 식사				
2) 자녀 또는 부모님과 대화				
3) 자녀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대화				
4) 부부, 형제, 남매, 자매간 가정 문제 상의				
5) 가족과의 여가 생활				

문55.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가장 불행한 상태	0	1	2	3	4	5	6	7	8	9	10	가장 행복한 상태
1) 자신의 건강상태												점
2) 자신의 재정상태												점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점
4) 가정생활												점
5) 사회생활(직장, 학교, 종교, 취미, 게이트 등)												점

문56. 귀하가 평소 느끼고 있는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3-----4-----5				
1)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2)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문57. 귀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주문 또는 결제하는 기기(예 : 은행의 현금출금기(ATM), 음식점, 극장 등의 무인 주문결제기 등)

① 있다 ➡ (문57-1로) ② 없다 ➡ (문57-2로)

문57-1. (문57의 ① 응답자만)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유형입니다. 귀하가 이용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에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자주 이용하는(접하는) 서비스			
2) 가장 사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유형	구분
음식주문	① 카페(음료 및 디저트 주문)
	② 음식점(일반식당, 푸드코트, 영화관 간식 주문기, 휴게소 등)
	③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정보입력 (티켓, 서류발급, 검색 등)	④ 교통서비스(고속/시외버스, 지하철, KTX, 철도, 버스정류장 등)
	⑤ 행정서비스(관공서 민원, 안내, 증명서 발급)
	⑥ 영화관(티켓 판매기)
	⑦ 백화점, 마트 총별 안내
	⑧ 종합병원(진료접수/수납 등)
	⑨ 전시장(경기장,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
	⑩ 도서관/서점(도서검색대 등)
	⑪ 주차장안내
	⑫ 은행ATM
직접 계산	⑬ 무인매점(대형마트, 다이나믹, 무인편의점, 무인과자점, 이마트스마트점 등)
	⑭ 무인주유소/충전소

➡ (응답 후 문58로)

문57-2. (문57의 ② 응답자만) 귀하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②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③ 사용 중 기다리는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④ 신체적 제약(노안, 거동 불편, 신체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서
⑤ 필요가 없어서(이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어서)
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58. 귀하는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혼자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전혀 하지 못한다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2	3	4

스마트폰	1)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2) 카카오톡 등 메신저	
	3) 뉴스 및 정보(유튜브 등) 검색	
	4) 교통정보/지도검색	
	5) 예매/예약서비스	
	6) 결제수단 이용(상품구매, 배달주문 등)	
키오스크 (무인정보 단말기)	7) 음식주문	
	8) 티켓,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등	

※ 응답자 특성 문항 ※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2, 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 출업 상태
① 출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DQ2. 귀하는 서울에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서울에 사신 총 거주기간과 그 중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을 말씀해주시시오.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기간은 제외)

서울 거주 총 기간 : 약 ____ 년 ____ 개월
현재 사는 집 거주기간 : 약 ____ 년 ____ 개월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학생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⑪, ⑫ 응답인 경우 설문 종료)

DQ3-1.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받음)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나 임금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일급, 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④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 (④, ⑤, ⑥, ⑦ 응답인 경우 DQ3-2로 이동)

DQ3-1-1. (임금근로자만) 현재 다니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근무형태와 고용계약 형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보기
1) 근무형태	①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② 하루 4~8시간 미만 근무 ③ 하루 4시간 미만 근무 ④ 요일을 정해 근무 ⑤ 정해진 시간 없이 상황에 따라 근무 ⑥ 기타(_____)
2) 고용계약 형태	① 정년이 있는 정규직 ②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③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④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유급 인턴 ⑤ 기타(_____)

DQ3-2.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는 지난 1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몇 시간씩 일하십니까?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 : _____ 시간 _____ 분

DQ3-3.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는 현재 업무(업종)를 얼마 동안 하고 있습니까?

평균 종사 기간 : 약 ____ 년 ____ 개월

DQ3-4. (직업이 있는 경우만) 귀하의 현재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다소 불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만족 ⑤ 매우 만족

DQ3-5. (직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2022.9.1.~2023.8.31.) 세금납부(공제)전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금융소득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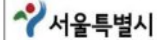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350만원 미만 ⑧ 350~400만원 미만
⑨ 400~450만원 미만 ⑩ 450~500만원 미만
⑪ 500~550만원 미만 ⑫ 550~600만원 미만
⑬ 600~650만원 미만 ⑭ 650~700만원 미만
⑮ 700~750만원 미만 ⑯ 750~800만원 미만
⑰ 800~850만원 미만 ⑱ 850~900만원 미만
⑲ 900~950만원 미만 ⑳ 950~1,000만원 미만
㉑ 1,000만원 이상(_____)만원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서베이 (시민조사표)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행정구역코드	전체 가구원수	만 15세 이상 가구원수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서울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고자 매년 '서울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통계조사인 '서울서베이'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조사 결과는 서울 시민과 동행하는 매력있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가는 주요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통계조사는 만 15세 이상(2008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구 대표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가구 대표자께서는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대표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생계책임자 또는 서울 시민패널을 말합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6188-6011
------	---------------	------	-------------------------

응답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번호		면접원 성명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년도	_____년	등록장애인 여부 ① 장애인 ② 장애인 아님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혼인신고 여부	① 혼인신고 함 ② 혼인신고 하지 않음	
조 사 일 시	202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부터 ____분 동안		조 사 표 본	① 원표본(a) ② 대체표본(b)
주 택 형 태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기타(오피스텔, 주택)의 거주 등			
주거점유형태	① 자가집 ② 전세(월세임용)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무상(관사, 사택 등)			

■ 주거와 환경

문1. 귀하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 ② 자신(혹은 자기 가족)과 타인을 구분해주는 공간
-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 ④ 근로 및 학습활동 공간
- ⑤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⑥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
- ⑧ 자녀를 양육하는 공간

■ 정보와 활용

문2. 귀하께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주로 이용하시는 디지털기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PC(데스크탑, 노트북) → (문3으로)
- ② 휴대전화 → (문3으로)
- ③ 스마트패드(태블릿 PC, 아이패드, 갤럭시 탭, G패드 등) → (문3으로)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3으로)
- ⑤ 이용하지 않음 → (문2-1로)

문2-1. (문2의 ⑤ 응답자만) 디지털기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한 번도 이용해본 적 없음
- ② 지난 1년 이상
- ③ 지난 3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④ 지난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⑤ 지난 1개월 미만

문2-2. (문2의 ⑤ 응답자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용방법을 몰라서
- ② 관심이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③ 이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서
- ④ 이용할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PC)가 없어서
- 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입하지 않아서)
- ⑥ 신체적 제약(노인, 거동불편, 신체장애 등) 때문에 이용이 어려워서
- ⑦ 이용법에 대해 배우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 ⑧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 ⑨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구)들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아서
- ⑩ 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 우려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응답 후 문4로)

문3. (문2의 ①, ②, ③, ④ 응답자만)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디지털기기(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 이용 빈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자주 이용한다
1	2	3	4
1) 생활정보 서비스(날씨, 뉴스, 버스 및 지하철 도착 정보, 정류장 및 역 정보, 길찾기 등)			
2) 전자상거래 서비스(온라인 쇼핑, 예약, 예매 등)			
3) 금융거래 서비스(인터넷 뱅킹, 계좌 확인, 이체 및 송금, 증권거래 등)			
4) 공공 서비스(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세금/공과금 조회 및 납부 등 교통·안전·작업·의료·문화·환경 등 정부의 복지정보서비스)			
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이메일, SNS, 메신저 등)			
6) 여가 서비스(영화,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책 등)			
7) 교육학습 서비스(온라인 교육, 각종 강좌 강의 수강 등)			
8) 모바일 결제(각종페이, 앱 카드 등)			

문4. 귀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주문 또는 결제하는 기기(예 : 은행의 현금출금기(ATM), 음식점, 극장 등의 무인 주문·결제기 등)

① 있다 ➡ (문4-1로) ② 없다 ➡ (문4-2로)

문4-1. (문4의 ① 응답자만)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유형입니다. 귀하가 이용해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에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 자주 이용하는(접하는) 서비스			
2) 가장 사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유형	구분		
음식주문	① 카페(음료 및 디저트 주문) ② 음식점(일반식당, 푸드코트, 영화관 간식 주문기, 휴게소 등) ③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④ 교통서비스 (고속/시외버스, 지하철, KTX, 철도, 버스정류장 등) ⑤ 행정서비스(관공서 민원, 안내, 증명서 발급) ⑥ 영화관(티켓 판매기) ⑦ 백화점, 마트 총별 안내 ⑧ 종합병원(진료접수/수납 등) ⑨ 전시장(경기장,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 ⑩ 도서관/서점(도서검색대 등) ⑪ 주차장산기 ⑫ 은행ATM		
	⑬ 무인매점(대형마트, 다이나, 무인편의점, 무인편자점, 아이스크림점 등) ⑭ 무인주유소/충전소		
직접 계산			

➡ (응답 후 문5로)

문4-2. (문4의 ② 응답자만) 귀하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②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③ 사용 중 기다리는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④ 신체적 제약(노년, 거동 불편, 신체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서
⑤ 필요가 없어서(이용하지 않아도 불편이 없어서)
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5. 귀하는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혼자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전혀 하지 못한다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2	3	4
스마트폰	1)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2) 카카오톡 등 메신저		
	3) 뉴스 및 정보(유튜브 등) 검색		
	4) 교통정보/지도검색		
	5) 예매/예약서비스		
	6) 결제수단 이용(상품구매, 배달주문 등)		
	7) 금융거래(계좌이체 등)		
키오스크	8) 음식주문		
	9) 티켓, 등차본 등 민원서류 발급 등		

문6.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평균 이용 빈도와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평균 횟수와 이용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 경우 0회, 0분 입력)

※ SNS는 특정관심사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 (카카오톡, 라인, 포털, 문자는 제외)

- ① 하루
② 1주일
③ 한 달 (평균 _____ 회, 1회 평균 _____ 분)
④ 6개월
⑤ 1년

문7. SNS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용하지 않음
1	2	3	4	5	9
1)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					
2) SNS를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3) SNS의 사용은 정치사회문제 참여도를 높인다					
4) SNS로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을 받는다					
5) 내가 SNS에 게시한 글,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신경쓰인다					

문8. 일상적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용하지 않음
1	2	3	4	9
1)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2)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동료 등 주변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3)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작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문9. 귀하는 디지털전환을 겪으면서, 아래 항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디지털 능력이 부족하면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된다				
2)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내 삶을 결정할 것이다				
3) 원격근무나 모바일 학습 등으로 인해 업무나 학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4)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나의 일자리나 경력에 위협받을 것이다				

문10. 지난 1년간 귀하는 상품을 주로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방문구매 하셨다면, 물품 종류별로 주로 구매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온라인 구매 : 인터넷, TV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 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모바일 쇼핑 등이 포함

	구매 유형	방문점포 유형 [보기 1]
1) 생활용품 및 식료품	① 구매안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방문구매
2) 의류 및 집화	① 구매안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방문구매
3) 내구재 (가구, 가전 등)	① 구매안함 ② 온라인 구매 ③ 방문구매	방문구매

[보기 1]

① 전통시장	② 동네슈퍼
③ 기업형슈퍼마켓	④ 대형할인매장/아웃렛
⑤ 백화점	⑥ 전문점
⑦ 편의점	⑧ 온라인 중고 거래, 매장 (당근마켓, 아름다운 가게, 재활용센터 등 포함)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가치와 의식

문11. 아래 각 항목은 일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는 각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옮기는 것이 좋다				
2)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3) 공유경제를 통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좋아도 구매하지 않는다				
5)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친환경 제품을 비싸더라도 살 용의가 있다				

■ 인구구조 변화 인식

문12. 귀하는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된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1) 내가 사는 지역의 인구 감소에 위기감이 느껴진다			
2) 내가 사는 지역의 고령 인구 증가에 위기감이 느껴진다			

문13.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④ 매우 관심이 있다

문14.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문15. 귀하는 이러한 저출생 현상이 앞으로 본인의 자녀 세대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1) 본인	
2) 본인의 자녀세대	

문16.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

문17. 귀하는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본인의 자녀 세대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	3	4

1) 본인	
2) 본인의 자녀세대	

문18. 그럼 향후 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다
②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문19. 고령자, 청년,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귀하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반반 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1	2	3	4	5

1) 고령자 정책	
2) 청년 정책	
3) 아동 정책	

문20. 귀하는 본인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율성이란 삶의 중요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학교, 직업, 결혼, 노동시간, 여가시간 등)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1.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2. 귀하는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나는 나의 생각과 가치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2) 나는 나의 소비수준과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3) 나는 나와 외모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4) 나는 나의 출신지역과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5) 나는 나와 학력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				

■ 매력 서울

문23. 귀하가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대표적인 지역과 장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고궁 ② 광화문(광장) ③ 남대문
④ 동대문(DDP) ⑤ 시청앞광장 ⑥ 한강
⑦ 청계천 ⑧ N서울타워 ⑨ 롯데월드타워
⑩ 기타(구체적으로:)

문24.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는 서울의 매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항목들이 서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도시 체험 성	1) 다양한 체험활동과 이벤트 등부 (전통문화 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축제, 이벤트, K-pop 공연 등)	①	②	③	④ ⑤
	3) 레저와 레크레이션 시설 매력	①	②	③	④ ⑤
	4) 교육적 가치 체험성 (박물관, 갤러리 등)	①	②	③	④ ⑤
도시 환경	5) 쾌적한 기후와 날씨	①	②	③	④ ⑤
	6) 시내 활동의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7) 깨끗한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8) 서울시민의 친절함	①	②	③	④ ⑤
도시 접근 성	9) 타 지역과의 접근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10) 교통의 편리함	①	②	③	④ ⑤
	11) 도로 및 주차시설의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12) 숙박시설의 충분성	①	②	③	④ ⑤
도시 편의 성	13) 숙박시설의 쾌적성과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15) 다양한 먹거리	①	②	③	④ ⑤
	16) 다양한 쇼핑	①	②	③	④ ⑤
도시 편의 성	17) 합리적인 물가	①	②	③	④ ⑤
	18) 관광 안내 및 정보 획득의 편리성	①	②	③	④ ⑤
	19) 적절한 안내표시	①	②	③	④ ⑤

■ 지역균형발전

문25. 아래 보기는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여러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보기 중 어떤 방향과 가장 가까운가요?

- ① 대규모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형성하여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
② 쇠퇴한 산(상)업, 역사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재생하는 방향
③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주거지를 재생하는 방향
④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 지역 활성화 방향

문26. 귀하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화시설(소각, 열병합 발전 등) 확충계획 등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서울시에는 종량제봉투를 소각하고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지역 난방 등으로 공급하는 총 4개의 광역자원화시설이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해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하는 상황. 2026년부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직매립)할 수 없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2	3	4	5
1) 자원화시설, 물재생센터 등 환경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역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집이나 직장 주변에 무단소각기, 제로웨이스트 매장, 재사용/중고거래 매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				

문27. 귀하께서는 귀하가 사는 집 주변의 하천을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 ① 방문하지 않음 ➡ (문28로)
② 한 달에 1회 ~ 2회
③ 한 달에 3회 ~ 4회
④ 일주일에 1회 ~ 3회 ➡ (문27-1로)
⑤ 일주일에 4회 ~ 6회
⑥ 거의 매일 방문

문27-1. (문27의 ② ~ ⑥ 응답자만) 귀하는 귀하가 자주 이용하는 하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1) 하천 이용 및 하천 내 활동				
2) 하천 접근성				

문27-2. (문27의 ② ~ ⑥ 응답자만) 귀하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천을 방문하십니까?

- ① 산책, 운동, 문화 활동, 자동차 극장 등 하천 공간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
② 주변 지역의 카페, 음식점 등 이용 후 자연스럽게 방문
③ 인근 버스정거장, 지하철역, 타 지역 등으로의 이동이나 귀가를 위해 경유
④ 특별한 이용목적이나 동기 없이 그냥 방문
⑤ 기타(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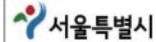
문27-3. (문27의 ② ~ ⑥ 응답자만) 귀하께서 하천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걷기, 산책 ② 친목, 취식(커피 등)
③ 관찰, 체험, 캠페인 ④ 자전거 타기
⑤ 달리기, 체조 등 맨손 운동 ⑥ 공연, 문화행사 관람
⑦ 축구, 농구, 테니스 등 스포츠 ⑧ 물놀이, 발담그기
⑨ 반려동물 산책 ⑩ 기타(구체적으로:)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표)

조사원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일련번호 □□□□	행정구역코드 □□□-□□□	조사원코드 □□□
-------------------	--------------	-------------------	--------------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서울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고자 매년 '서울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통계조사인 '서울서베이'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 결과는 내실이 행복해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외국인조사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조사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02) 6188-6011
1. 귀하의 국적은? (국가명 기재)		2. 현재 한국 체류 자격은?	
① 한국계중국인 ② 중국 ③ 일본 ④ 타이완 ⑤ 베트남 ⑥ 아시아 기타 ⑦ 미국 ⑧ 영미권 기타 ⑨ 유럽권 ⑩ 기타(위 보기 제외 자격)		① 방문취업(H2) ② 전문인력(E1-E7) ③ 유학(D2, D4) ④ 방문동거/거주/동반(F1-F3) ⑤ 재외동포(F4) ⑥ 영주자(F5) ⑦ 결혼이민자(F6) ⑧ 기타	
3. 출생년도: _____년 ※ 2004년 이전 출생만 조사 진행		4. 한국 체류기간: _____년 _____개월 ※ 91일 이상만 조사 진행	
5. 귀하의 주택형태는?		7. 성별: ① 남 ② 여	
① 단독주택(D1구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오피스텔 ⑥ 일터, 고시원, 쉼터 ⑦ 기타(주택 이외 거주 등)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월세 ⑤ 무상 및 기타 ※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보증금 () 만원		8. 종교:	
6. 귀하의 주거점유형태는?		① 불교 ⑥ 천도교 ② 개신교 ⑦ 대승전교회 ③ 천주교 ⑧ 대종교 ④ 원불교 ⑨ 이슬람교 ⑤ 유교 ⑩ 기타() ⑪ 없음	
월 세 () 만원			
응답자 성명	연락처	조사 장소	① 자택 ② 직장 : _____구
		면접일시	월 일

■ 서울에서의 삶

문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매우 잘함은 5점, 매우 미숙은 1점으로 하여 한국어 실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미숙	미숙	보통	잘함	매우 잘함
1-----2-----3-----4-----5				
1) 말하기				
2) 읽기				
3) 쓰기				
4) 듣기				

문2. 한국에 입국 전 귀하는 서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② 잘 모르고 있었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문2-1. [문 2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서울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습니까?

- ① 인터넷(SNS, 동영상 등)
② 한국을 다녀온 가족, 친척, 친구
③ 모국에서의 대학 혹은 중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④ 안내책자, 안내행사 등을 통해
⑤ 모국에 소재한 한국 대사관, 무역관 등을 통해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3. 귀하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하여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3-----4-----5				
1)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2)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3)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4)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5)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6)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문4.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 중 단기 혹은 장기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하는 서울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 ①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② 추천하고 싶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추천하고 싶다 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문5. 서울에 거주하면서 귀하는 다음 사항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사항 없음
1	2	3	4	5	9

1) 언어문제	
2) 자녀 양육 및 교육	
3)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4) 음식	
5)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6) 경제 활동 기회 획득	
7)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8)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9)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10) 의료 기관 이용	
11) 주택 등 주거 공간	
12) 비자 등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문6.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동의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1)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어울린 도시이다	
2) 서울은 다문화에 대한 포용 도시이다	
3) 서울은 트렌디한 문화를 추구하는 도시이다	
4) 서울은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5) 서울은 국제도시이다	
6) 서울은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에 있다	
7) 서울은 미래지향적 도시이다	

문7. 귀하가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대표적인 지역과 장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순위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고궁 ② 광화문(광창) ③ 남대문
④ 동대문(DDP) ⑤ 시청앞광장 ⑥ 한강
⑦ 청계천 ⑧ N서울타워 ⑨ 롯데월드타워
⑩ 기타(구체적으로:)

■ 행복지수

문8. 서울에 살면서 귀하는 다음의 영역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자신의 건강상태	
2) 자신의 재정상태	
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4) 가정생활	
5) 사회생활(직장, 학교생활 등)	

■ 서울의 물가 수준

문9. 귀하 출신국가의 물가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 문화시설 이용

문10.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이용하신 문화시설은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미술전시회, 미술관 ② 박물관
③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장 ④ 대중음악 콘서트장
⑤ 영화관 ⑥ 운동 경기 관람
⑦ 전통공연(국악, 판소리, 사물놀이, 마당놀이, 고전 무용 등)
⑧ 서울에 위치한 전통 문화 공간
(고궁, 북촌마을, 한옥마을, 인사동, 전사유적지 등)
⑨ 이용한 곳 없음

■ 건강 관련

문11. 서울에 거주하면서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12. 귀하가 아플 때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병원/의원(한의원) ②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③ 보건소 ④ 병원/의원 처방 없이 약국 이용
⑤ 그냥 참는다 ➡ (문13으로)
⑥ 기타(구체적으로:)

문12-1. (문12의 ① ~ ④, ⑥ 응답자만) 그 곳을 이용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의사소통이 어렵다 ②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③ 비용이 많이 든다 ④ 거리가 멀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문13. 귀하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장가입 건강보험 ② 지역가입 건강보험
③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 ④ 개인 의료보험
⑤ 아무것도 없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지역사회 소속감

문14. 최근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 관련하여 내국인(국민)과 비교할 때 외국인 주민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3-----4-----5				
1) 서로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한다				

문16. 다음은 소속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는 국가나 지역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1-----2-----3-----4-----5				
1) 거주하는 국가 (한국)				
2) 거주하는 지역 (서울시)				
3) 거주하는 동네				
4) 출신국 (태어난 국가)				

■ 사회 교류 및 일상생활

문17. 귀하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결혼이민자 모임 ② 한국다문화센터 모임
③ 외국인노동자 모임 ④ 유학생 네트워크
⑤ 종교 모임 ⑥ 취미관련 동호회
⑦ 학습 관련 모임 ⑧ 봉사활동
⑨ 모국인 친구 모임 ⑩ 모국인 사회단체
⑪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⑫ 참여하는 모임 없음

문18. 귀하가 서울에 살면서 다음의 문제에 처했을 때 귀하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상이 아닌 실제 경험에 비춰 답해주시요.

1) 감정적, 심리적 문제	
2) 건강 문제	
3) 금전적 문제	
4) 취업/창업 문제	

- 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② 모국인 친구 또는 친척
③ 한국인 친구 또는 친척 ④ 모국인 사회/종교단체
⑤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⑥ 모국인 직업소개업자
⑦ 한국인 직업소개업자
⑧ 서울시 외국인지원기관(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⑨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
⑩ 해당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문19.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음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선택지, 이용 경험 있는 경우만 응답)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2-----3-----4-----5				
기관명	이용경험	만족도		
1) 서남권글로벌센터	① 있다 ② 없다			
2)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있다 ② 없다			
3) 글로벌 빌리지센터	① 있다 ② 없다			
4) 외국인노동자센터	① 있다 ② 없다			
5) 서울 글로벌센터	① 있다 ② 없다			
6)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7) 이주노동자 센터	① 있다 ② 없다			
8)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① 있다 ② 없다			
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0) 다누리콜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1) 외국인유학상담센터	① 있다 ② 없다			
12)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문20. 귀하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음의 장소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심한 차별은 5점, 전혀 차별 받지 않음은 1점으로 하여 차별 받은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차별받지 않음	별로 차별받지 않음	보통	조금 차별받음	심한 차별 받음	비이유 등 해당사항 없음
1-----2-----3-----4-----5	9				
1) 거리나 동네에서					
2)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3) 공공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등)에서					
4)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5) 직장/일터에서					

문21. 귀하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출신국가 ② 한국어 언어 능력
③ 외모(피부색) ④ 경제력
⑤ 직업 ⑥ 종교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22. 귀하는 앞으로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3. 귀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국가 안보 문제(전쟁 가능성, 테러, 북핵문제 등)
- ②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 ③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해양 오염 등)
- ④ 인재(화재, 교통사고, 건물 붕괴 등)
- ⑤ 경제적 위험(기업 파산, 실업 등)
- ⑥ 도덕성 부족(부정부패 등)
- ⑦ 신종 질병 발생(신종 바이러스 감염 등)
- ⑧ 범죄(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 ⑨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 ⑩ 기타(구체적으로 :)

■ 통근/통학

문24. 귀하는 통근이나 통학을 하십니까?

- ① 통학을 한다 → (문24-1로)
- ② 통근을 한다 → (문24-1로)
- ③ 통근이나 통학을 하지 않는다 → (문25로)

문24-1. [문24의 ①, ② 응답자만] 그림,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도보
- ② 자전거
- ③ 자전거 + 기타 교통수단(구체적으로 :)
- ④ 오토바이
- ⑤ 버스(버스 간 환승포함)
- ⑥ 지하철(철도)
- ⑦ 버스 + 지하철
- ⑧ 택시
- ⑨ 승용차
- ⑩ 승용차 + 버스
- ⑪ 승용차 + 지하철
- ⑫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 ⑬ 기타(구체적으로 :)

■ 주거

문25. 귀하는 서울에서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혼자 생활
- ② 부모/가족과 거주
- ③ 외국인 친구/외국인 직장 동료와 거주
- ④ 한국인 친구/한국인 직장 동료와 거주
- ⑤ 기타 타인과 거주(구체적으로 :)

문26. 귀하는 거주지를 정할 때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동료 등 모국인들이 많은 곳
- ② 교통이 편리한 곳
- ③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
- ④ 직장과 가까운 곳
- ⑤ 자녀교육환경이 좋은 곳
- ⑥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
- ⑦ 기타 (구체적으로 :)

※ 응답자 특성 문항 ※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학생(DQ4로)
- ⑪ 주부(DQ4로)
- ⑫ 무직(DQ4로)
- ⑬ 기타(구체적으로 :)

DQ2.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년 이상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상여금,각종 수당을 받음)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아닌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의 일급,일당으로 임금은 산정하여 지급받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특수고용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 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⑥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정규 근로 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 사람)

DQ3. 귀하의 월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융소득은 제외)

- ① 50만원 미만
- ② 5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250만원 미만
- ⑥ 250~300만원 미만
- ⑦ 300~350만원 미만
- ⑧ 350~400만원 미만
- ⑨ 400~450만원 미만
- ⑩ 450~500만원 미만
- ⑪ 500~550만원 미만
- ⑫ 550~600만원 미만
- ⑬ 600~650만원 미만
- ⑭ 650~700만원 미만
- ⑮ 700~750만원 미만
- ⑯ 750~800만원 미만
- ⑰ 800~850만원 미만
- ⑱ 850~900만원 미만
- ⑲ 900~950만원 미만
- ⑳ 950~1,000만원 미만
- ㉑ 1,000만원 이상()만원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2,3년제)
- ⑥ 대학교(4년제 이상)
- ⑦ 대학원 석사 과정
- ⑧ 대학원 박사 과정

졸업 상태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3년 기준)

발행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 통계조사팀 (02-2133-4368)	
제작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통계조사팀장	엄기찬
	통계조사팀	전연옥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16-10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202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분석 보고서

(2023년 기준)